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일 시 | 2017. 9. 14. ^목 09:00~17:45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최 | 대한범죄학회 ·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 한국사회학회 · 한국심리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 · 한국아동복지학회 · 한국아동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 한국청소년학회

주 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후 원 | 여성가족부

모 시 는 글

안녕하십니까?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관련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 및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가 어느덧 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들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올바른 인성과 역량을 갖추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청소년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 정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이 주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이번 학술대회에는 대한범죄학회,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한국청소년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9월 14일에 개최되는 학술대회는 지난 7년간 축적된 자료를 활용한 연구 성과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금번 학술대회에도 청소년학, 아동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가정학, 경영학, 언론학 등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예정이고,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초대의 말씀과 더불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연구자분들과 학계, 정책당국의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청소년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연결되는 학제간 융합과 청소년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청소년패널조사가 청소년 연구 및 정책수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금번 학술대회에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9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이종원

대한범죄학회 이민식	한국아동복지학회 김형모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유성렬	한국아동학회 박경자
한국교육사회학회 김정원	한국조사연구학회 김병조
한국사회학회 박명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조아미
한국심리학회 김재휘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채철균
한국아동권리학회 황옥경	한국청소년학회 이장현

프로그램

● 등록 09:00 ~ 09:30

● Session 1 / 09:30 ~ 11:30

제 1 주제 학교적응

▶ 사회 : 유재봉(성균관대학교)

- 1 청소년활동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공동체意識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 발표 : 주계순(명지대학교), 권일남(명지대학교)
 - 토론 : 김태균(성산호대학원대학교)
- 2 아동·청소년기 건강상태 및 신체활동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 발표 : 박수란(고구려대학교), 이기종(국민대학교)
 - 토론 : 김소영(한국체육대학교)
- 3 초등학교 기간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와 소득계층 요인의 영향 분석
 - 발표 : 김성식(서울교육대학교)
 - 토론 : 박현석(법원초등학교)

제 2 주제 부모/가족관계

▶ 사회 :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 1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부모-친구관계 및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발표 : 이정민(전북대학교), 강상(대전대학교)
 - 토론 : 조한익(한양대학교)
- 2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 발표 : 백은라(전남대학교), 이숙(전남대학교)
 - 토론 : 이동혁(건국대학교)
- 3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삶의 목표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발표 : 임정아(명지대학교), 조아미(명지대학교)
 - 토론 : 송병국(순천향대학교)

제 3 주제 비행/폭력A

▶ 사회 : 박정선(경찰대학교)

- 1 청소년의 교육소외와 비행
 - 발표 : 서봉언(경북대학교)
 - 토론 : 어윤경(공주대학교)
- 2 친구관계와 부모의 영향이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 변화 양상에 주는 효과
 - 발표 : 이준원(성균관대학교 외상심리건강센터), 고정훈(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유영(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토론 : 김봉섭(한국정보화진흥원)
- 3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비행행동 유형화
 - 발표 : 임현서(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이현(동국대학교), 김성훈(동국대학교)
 - 토론 : 고경은(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 Session 2 / 13:30 ~ 15:30

제 4 주제 신체/정서/인지발달

▶ 사회 : 이봉건(충북대학교)

- 1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학교 급에 따른 차이
 - 발표 : 오숙경(동신대학교), 지경예(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주리(전남대학교)
 - 토론 : 서고운(연세대학교)
- 2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가 초등학생의 우울과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종단연구
 - 발표 : 박준성(중앙대학교), 안정민(중앙대학교), 정태연(중앙대학교)
 - 토론 : 신재은(동덕여자대학교)
- 3 청소년기 생애목표 유형의 종단적 변화 및 예측변인 검증
 - 발표 : 정유지(포항공과대학교), 이은주(경북대학교)
 - 토론 : 노석준(성신여자대학교)
- 4 가구 및 지역사회 배경에 따른 체험학습 참여와 진로성숙 효과 차이 분석
 - 발표 : 주휘정(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민석(충북대학교), 정의석(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토론 : 손희권(명지대학교)

제 5 주제 비행/폭력B

▶ 사회 : 이순래(원광대학교)

- 1 이중차이모델에 의한 금연정책의 영향 분석
 - 발표 : 장명화(서울대학교), 조성일(서울대학교)
 - 토론 : 제갈정(인제대학교)
- 2 과보호양육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 우울과 공격성을 매개로
 - 발표 : 김원영(경북대학교), 김경식(경북대학교), 윤하나(경북대학교)
 - 토론 : 조정아(연세대학교)
- 3 방임적 양육태도가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하여 성인매체몰입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보호효과 검증
 - 발표 : 임선아(전북대학교)
 - 토론 : 조미숙(삼육대학교)
- 4 사회적자본과 청소년의 비행
 - 발표 : 오선정(한국노동연구원)
 - 토론 : 이정림(육아정책연구소)

제 6 주제 학업진로

▶ 사회 : 유한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청소년의 대학/전공 선택요인 분류유형과 대학 만족도와의 관계
 - 발표 : 정희진(명지대학교), 조아미(명지대학교)
 - 토론 : 장형심(한양대학교)
- 2 부모의 자녀 감독과 후기 청소년의 삶 만족도 간의 관계 : 대학 진학 여부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 발표 : 전하람(고려대학교)
 - 토론 : 황여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청소년의 직업선택요인 유형과 특성
 - 발표 : 김미옥(명지대학교), 조아미(명지대학교)
 - 토론 : 김범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Session 3 / 15:45~17:45

제 7 주제 휴대폰/컴퓨터이용

▶ 사회 : 임영식(중앙대학교)

- 1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의 관계
 - 발표 : 박성민(한국교육개발원), 김혜원(명지대학교), 이응택(명지대학교)
 - 토론 : 조남억(광운대학교)
- 2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자기조절학습, 사회성 간의 종단 관계 분석
 - 발표 : 권선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양명희(경희대학교)
 - 토론 : 권숙진(호원대학교)
- 3 부모의 양육 방식과 청소년의 또래 관계가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 발표 : 원지영(강남대학교), 최준용(강남대학교)
 - 토론 : 이명진(고려대학교)

제 8 주제 사회/공동체의식

▶ 사회 : 김광혁(전주대학교)

- 1 중학생이 인식한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의 매개효과 및 성차 비교
 - 발표 : 정민아(명지전문대학), 김은혜(서울시립 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토론 : 최순종(경기대학교)
- 2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발표 : 김동진(서울대학교), 김태한(한국방송통신대학교)
 - 토론 : 김민(순천향대학교)
- 3 청소년 다문화수용성의 종단적 변화와 설명 변인 탐색
 - 발표 : 이희정(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 토론 : 이경희(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 4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에 대한 종단적 연구
 - 발표 : 이은경(명지대학교), 오소영(명지대학교), 곽현(명지대학교)
 - 토론 : 박선영(한국체육대학교)

제 9 주제 대학원생 논문 공모 수상작 발표

▶ 사회 : 하형석(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최우수상】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변화연구 : 경향점수 매칭과 다층성장모형 적용

• 발표 : 이정민(충남대학교)

2 【우수상】

아동 및 청소년의 자기조절 학습능력과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 발표 : 조민규(경북대학교)

3 【우수상】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적 긴장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 태도 탐색 및 비행 행동 예측 : 잠재 변수 혼합 모형의 적용

• 발표 : 양윤식(중앙대학교), 김수민(중앙대학교)

목 차

제 1 주제 학교적응

1. 청소년활동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3
 • 주계순(명지대학교), 권일남(명지대학교)
2. 아동·청소년기 건강상태 및 신체활동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28
 • 광수란(고구려대학교), 이기종(국민대학교)
3. 초등학교 기간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와 소득계층 요인의 영향 분석 44
 • 김성식(서울교육대학교)

제 2 주제 부모/가족관계

1.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부모-친구관계 및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67
 • 이정민(전북대학교), 강상(대전대학교)
2.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85
 • 백은라(전남대학교), 이숙(전남대학교)
3.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삶의 목표의 특성에 관한 연구 109
 • 임정아(명지대학교), 조아미(명지대학교)

제 3 주제 비행/폭력A

1. 청소년의 교육소외와 비행 133
 • 서봉언(경북대학교)
2. 친구관계와 부모의 영향이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 변화 양상에 주는 효과 153
 • 이준원(성균관대학교 외상심리건강센터), 고정훈(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유영(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비행행동 유형화 165
 • 임현서(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이현(동국대학교), 김성훈(동국대학교)

제 4 주제 신체/정서/인지발달

1.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학교 급에 따른 차이 189
 • 오숙경(동신대학교), 지경예(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주리(전남대학교)
2.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가 초등학생의 우울과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종단연구 209
 • 박준성(중앙대학교), 안정민(중앙대학교), 정태연(중앙대학교)
3. 청소년기 생애목표 유형의 종단적 변화 및 예측변인 검증 224
 • 정유지(포항공과대학교), 이은주(경북대학교)
4. 가구 및 지역사회 배경에 따른 체험학습 참여와 진로성숙 효과 차이 분석 247
 • 주휘정(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민석(충북대학교), 정의석(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 5 주제 비행/폭력B

1. 이중차이모델에 의한 금연정책의 영향 분석 263
 • 장명화(서울대학교), 조성일(서울대학교)
2. 과보호양육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 우울과 공격성을 매개로 275
 • 김원영(경북대학교), 김경식(경북대학교), 윤하나(경북대학교)
3. 방임적 양육태도가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하여 성인매체몰입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보호효과 검증 295
 • 임선아(전북대학교)
4. 사회적자본과 청소년의 비행 308
 • 오선정(한국노동연구원)

제 6 주제 학업진로

1.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청소년의 대학/전공 선택요인 분류유형과 대학 만족도와의 관계 329
 • 정희진(명지대학교), 조아미(명지대학교)
2. 부모의 자녀 감독과 후기 청소년의 삶 만족도 간의 관계 : 대학 진학 여부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346
 • 전하람(고려대학교)
3.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청소년의 직업선택요인 유형과 특성 362
 • 김미옥(명지대학교), 조아미(명지대학교)

제 7 주제 휴대폰/컴퓨터이용

1.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의 관계 385
 • 박성민(한국교육개발원), 김혜원(명지대학교), 이웅택(명지대학교)
2.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자기조절학습, 사회성 간의 종단 관계 분석 ... 402
 • 권선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양명희(경희대학교)
3. 부모의 양육 방식과 청소년의 또래 관계가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419
 • 원지영(강남대학교), 최준용(강남대학교)

제 8 주제 사회/공동체의식

1. 중학생이 인식한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의 매개효과 및 성차 비교 439
 • 정민아(명지전문대학), 김은혜(서울시립 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453
 • 김동진(서울대학교), 김태한(한국방송통신대학교)
3. 청소년 다문화수용성의 종단적 변화와 설명 변인 탐색 469
 • 이희정(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4.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에 대한 종단적 연구 483
 • 이은경(명지대학교), 오소영(명지대학교), 곽현(명지대학교)

제 9 주제 대학원생 논문 공모 수상작 발표

1. 【최우수상】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변화연구 : 경향점수 매칭과 다층성장모형 적용 511
 • 이정민(충남대학교)
2. 【우수상】 아동 및 청소년의 자기조절 학습능력과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536
 • 조민규(경북대학교)
3. 【우수상】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적 긴장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 태도 탐색 및 비행 행동 예측 : 잠재 변수 혼합 모형의 적용 555
 • 양윤식(중앙대학교), 김수민(중앙대학교)



제 ① 주제

학교적응

1. 청소년활동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2. 아동 · 청소년기 건강상태 및 신체활동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3. 초등학교 기간 아동 · 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와 소득 계층 요인의 영향 분석

청소년활동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주계순* · 권일남**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만족도의 학교적응 영향에 대해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것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를 2011년(중2)이 2014년(고2)되기까지의 2,28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중학교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청소년활동만족도와 공동체의식, 학교적응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활동만족도는 공동체의식, 학교적응의 초기값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공동체의식은 청소년활동만족도와 학교적응 간 부분매개효과를 보여주었다. 성장과정에서는 청소년활동만족도 변화율과 학교적응변화율에 공동체의식 변화율이 완전매개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중학교2학년부터 고등학교2학년까지 청소년활동만족도가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청소년활동만족도, 학교적응, 공동체의식, 매개효과, 다변량잠재성장모형

I. 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측면에서 급격한 발달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다른 시기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와 적응의 문제를 가지게 된다. 더구나 이 시기에는 가정보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떻게 적응하는 가는 청소년기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교생활은 청소년기 이후에 접하는 다양한 사회에서의 적응력을 키워주어 성인기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과정(강유진 · 문재우, 2005; Nota, Soresi, Ferrari & Wehmeyer, 2011)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적응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많은 연구결과(교육부, 2016; 여성가족부, 2016)에서 증명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 두 명중에 한명 정도는 학교부적응접근유형¹⁾에 속하고 있으며 약 7%의 청소년은 심각한 부적응유형이라는 보고도 있다(조정아,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박사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1) 부적응접근유형: 학교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교적 잘 적응한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학교적응을 잘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가능성 못지않게 나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계선 유형(조정아, 2012, p297)

2012). 또한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현황이 2014년 기준 학령기 청소년 668만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이 39만 2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 이렇게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 방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과정에는 청소년개인의 내적상태와 외적환경의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영애·정현희 2016; 이희정, 2015; 김태균, 2013; 박성혜·윤종희, 2013; 서정아, 2013; 조정아, 2012; 좌현숙, 2012; 성선진, 2010; 이원이·김동일, 2009; 권순용, 2006). 그 중에서도 외적환경으로써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청소년활동은 학교적응에 필요한 여러가지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다(박주현·이태자, 2015; 김재연, 2014; 문수경, 2014; 전명순·김태균, 2014; 차한솔, 2014; 김태균, 2013; 문재우·박재산 2013; 진은설, 2012; 최인호, 2013; 이인화, 2012; 허원석, 2012; 고관우·남진열, 2011; 조안나 외, 2011; 사상진, 2009).

청소년활동은 자기효능감(류시영·강방훈, 2012), 자아존중감(송재홍, 2003), 자아정체감 형성(김은숙, 2004; 김형심, 2007) 등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해를 통한 집단협동심, 자신의 생활의 문제와 갈등을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생활효과성(김소희, 2008), 청소년기의 갈등이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대처능력(김원희, 2010)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습에 필요한 목표성취경향성(이현주·채유정, 2014)과 학업성취도향상(전명순·김태균, 2014)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활동은 공동생활의 태도와 기술을 학습하고 사회적응력을 키우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교육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김태균, 2013, 재인용, 76; 민준기, 1990). 이러한 공동생활을 위한 태도와 기술은 청소년들이 집단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가치들으로써 청소년활동이라는 체험을 통해 체화된 공동체적 가치와 경험은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식의 여부는 청소년들이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라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의식의 증진에 청소년활동이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지 연구될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활동만족도와 학교적응, 공동체의식에는 성차가 있다고 보고된다. 중학생의 청소년활동의 참여유형이나 시간, 만족도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전명순·김태균, 2014; 황진구 외, 2013), 선호하는 체험활동에도 차이가 있었다(황진구 외, 2013). 반면에 학교적응에 성차가 없었다는 보고(이원령, 2015; 이현주·채유정, 2014; 조정아, 2012)도 있다. 이처럼 각 변인에 대한 성차가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인들 각각의 성차가 청소년활동만족도가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도 차이가 나는지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적응이나 공동체의식은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일어나는 변화로써 이처럼 발달과 관련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일시점의 영향력만을 살펴보는 횡단연구보다는 변화와 성장과정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단연구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신택수, 2014). 그동안 청소년활동이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도 있었으나(문수경, 2014) 봉사활동이라는 한 체험활동에 국한하여 이루어졌기에 본 연구처럼 체험활동 전체를 가지고 한 연구는 보기 힘

들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청소년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며, 청소년활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에 대한 성차를 검증해보고자 함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활동만족도와 공동체의식,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활동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공동체의식의 매개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활동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공동체의식의 매개관계에 대한 성차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학교적응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연구방법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학습참여도나 성취도에 비중을 두었던 초기의 정의부터(김은정, 2009) 학생이 스스로 학교환경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은영, 2009), 성인기의 연습과 준비기간(강유진·문재우, 2005), 그리고 학교환경에 순응하면서도 자신의 욕구충족과 성장을 위해 학교환경을 조절하고 변화시키는 적극적 환경조성자로서 학생의 역할을 강조한 관점(조순중, 2010) 등 최근의 학교적응의 의미는 매우 다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은 주도적으로 자신과 학교환경의 욕구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적용시키는 적극적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는 청소년들의 주요 생활공간이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람직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곳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돕는 일은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한 까닭에 그동안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돕는 요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학교적응에는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아인식, 참여동기, 흥미, 희망, 공동체의식, 우울, 불안, 공격성(조명주, 2007; 조정아, 2012; 진은설, 2012; 좌현숙, 2012; 김지혜, 2015; 이원령, 2015) 등의 개인의 내적상태와, 가정환경, 학교, 지역사회 등의 외적환경요인(문은식, 2002; 권순용, 2006; 성선진, 2010)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청소년들이 학교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는 학생이 수업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가지고 학습에 임하거나 주도적으로 학습에 임하는 태도, 학교에서의 역할에 대해 충실하고 학교규칙을 지키는 태도(이원아·김동일, 2009), 신뢰감 있는 친구관계와 어울림(곽수란, 2006), 그리고 교사에 대한 친밀감과 긍정적 인식(문은식, 2002)등으로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학교수업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며,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배려와 질서 등의 학교규칙을 준수하며 학급이나 학교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선생님들에 대한 예의와 긍정성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2. 청소년활동 만족도와 학교적응

청소년활동은 현재 학자마다 활동방식, 활동장소, 청소년들의 자발성, 활동의 목적, 청소년기의 발달과업과 성인기를 준비로 보는 관점, 역량개발의 관점 등 연구의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어 왔다(강대근, 1981; 전국제, 1998; 권일남, 1999; 구태익, 2000; 김호순, 2004; 김윤나, 2008; 김진호, 2008; 이교봉, 2009; 이광호, 2010; 권일남, 2011). 하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청소년활동이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은 명확한 정의 없이 실시되어 오다가 1991년 비로소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법적으로 정의되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으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의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포함된다(청소년기본법 제3조 3호)”고 정의하고 있다.

학술적 측면에서는 청소년활동을 연구자의 관점이나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여 왔다.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보고하는 연구들은 청소년활동이 구성원의 공동협력과 상호간의 지지적 환경 조성 및 통합적, 계속적, 총체적으로 청소년의 자아형성을 돕고 긍정적 인간관계형성,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태도를 내면화 하고 공동생활의 태도와 기술을 학습하여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민준기, 1990; 고혜경, 2003; 김영철, 2005; 김기수, 2009; 성은모, 2012; 진은설, 2012).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친구와의 의사소통, 신뢰, 학교내 학습활동이나 교칙준수정도 및 교사관계가 높았다(황진구 외, 2013). 외국의 연구에서도 야외청소년활동은 자아존중감, 자기효율성의 가치과 학업성취를 높이며 이성변화, 대인관계 등에 긍정적 역할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권일남 외, 2003, 재인용).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활동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임을 예측하도록 한다. 한편 청소년활동 만족이란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에 만족했을 때 지속적인 활동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후의 활동에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로 이끌 수 있으므로 청소년활동의 목적달성을 돕는 변인으로 청소년활동의 성과를 예측하기에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3. 청소년활동과 학교적응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공동체의식은 공동체구성원들의 사회적 결속과 관련된 집합의식이나 그 집단전체의 공통된 의식으로 정의된다(한상복, 1982). 이때 집합의식이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통된 감정과 신념을 통해 형성되는 하나의 확고한 체계로 개인의식을 초월하여 규제력을 가지고 계승되는 의식이다. 공동체의식은

유사성, 친밀감, 호혜성에 근거한 연대감을 통해 나타나는 강한 일체감으로(이인장·최해경, 1995)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물리적인 조건보다 그 안에 소속된 구성원의 의식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조명주, 2007).

공동체의식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배우며 습득하는 것이기에(이혜영, 1993)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 함양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등 개인의 특성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지혜, 2012), 부모나 가정적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강가영, 2014; 김전옥·손윤희, 2015; 박형빈, 2016), 지역사회환경의 영향(이광용, 1999; 박신영, 2014; 박형빈, 2016), 사회적 관계(이소연, 2016; 박형빈, 2016), 청소년활동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가나, 2008; 고관우·남진열, 2011; 김지혜, 2012; 문재우·박재산, 2013) 등 다양하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공동체의식에는 개인의 내적 특성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환경 등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특히 그 중에서 청소년활동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공동체의식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된다.

한편 공동체의식은 학교적응을 쉽게 하며(조명주, 2007; 조성수, 2007), 학교생활만족도와 깊은 상관이 있고(옥성찬, 2015), 공동체의식이 높은 지역사회 청소년이 학교에 더 잘 적응하고 있다는 서정아(2013)의 연구 등은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이 학교적응에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한다. 더 나아가 공동체의식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매개효과를 지닌다는 것은 횡단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김태균, 2013; 박재숙, 2013).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할 때 종단적으로도 청소년활동과 학교적응 간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이하 KCYPS, 2016)’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아동·청소년 성장과 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된 종단자료로써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표본은 2010년(1차)부터 2016년(7차)까지 16개 광역시·도에서 다단층화집락표집방식으로 추출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만족도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010년 중학교 1학년 2351명의 패널을 활용하여 종단적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차년도(2011년, 중2), 3차년도(2012년, 중3), 4차년도(2013년 고1), 5차년도(2014년, 고2)의 4개년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고 중학교 1학년인 2010년도의 자료는 원표본임에

도 포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2009년 5월 교육과정 개정에 의하여 2011년부터 학교체험 활동이 학교 밖 체험활동과 연동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따라서 개정 전의 교육과정과 개정 후의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활동 참여의 질과 양에 변화가 올 수 있으며 청소년활동만족도의 변화도 예상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본 연구에서는 2차 조사(2011년, 중학교 2학년)를 1차로, 3차 조사(2012년, 중학교 3학년)를 2차로, 4차 조사(2013년, 고등학교 1학년)를 3차로, 5차 조사(2014년, 고등학교 2학년)를 4차로 명명하여 연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원본유지율은 2차 97.0%, 3차 96.1%, 4차 89.7%, 5차 88.9%로 우수한 편이었으며 남녀의 성비는 매차년도 시점마다 49%~ 51%의 비율을 차지하여 거의 절반씩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표본의 유지율 및 남녀의 성비

		2010 원표본 (A)	2차시점(2011)		3차시점(2012)		4차시점(2013)		5차시점(2014)	
			조사성공 표본 (B)	원표본 유지율 (B/A)	조사성공 표본 (B)	원표본 유지율 (B/A)	조사성공 표본 (B)	원표본 유지율 (B/A)	조사성공 표본 (B)	원표본 유지율 (B/A)
유지율	중1 전체	2351	2280	97.0%	2259	96.1%	2108	89.7%	2091	88.9%
성비	남	1176	1152	50.5%	1140	50.5%	1075	50.5%	1067	51%
	녀	1175	1128	49.5%	1119	49.5%	1033	49.5%	1024	49%

2. 측정도구

1) 청소년활동만족도

KCYPS의 체험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원(2016)의 수련활동인증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을 사용하였으며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개발활동의 9영역이다. 이 문항의 기재방식은 4가지로써 청소년활동에 가장 만족했을 때 “① 매우 그렇다”부터 청소년활동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④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활동만족도를 청소년활동변수로 정한 이유는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청소년활동에 충실히 참여했다는 뜻이고 그 결과 프로그램의 효과가 충분히 전달이 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활동만족도문항은 역채점한 점수를 합하여 청소년활동참여수로 나눈 청소년활동만족도평균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활동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2) 학교적응

KCYPS의 학교적응문항은 민병수(1991)가 제작한 초등학교용 학교생활척도의 문항을 수정·보완하

여 설문하였다. 학교적응문항에는 학습활동, 학교규칙, 친구관계, 교사관계가 각 5문항씩 20문항이 설문되어 있다. 이 문항의 기재방식은 4가지로써 “① 매우 그렇다”부터 “④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된 문항은 친구관계에서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문항을 제외한 19 문항이다. 점수는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한다”의 부정문항을 제외한 긍정문항을 역채점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문항의 신뢰도(α)는 1차(2011년) .859, 2차(2012년) .852, 3차(2013년) .846, 4차(2014년) .830으로 우수한 편이라 할 수 있다.

3) 공동체의식

KCYPS의 공동체의식문항은 권혜원(2003)의 조사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에 의해 선별된 문항이다. 자신의 주변 “①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부터 ② 지역,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하여 기부금을 낼 수 있다”, ④ 세계, “지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의식과 관련된 설문문항이었다. 이 문항의 기재방식은 4가지로써 “① 매우 그렇다”부터 “④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처리는 긍정문항을 역채점하여 처리하여 점수가 많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문항의 신뢰도(α)는 1차(2011년) .774, 2차(2012년) .815, 3차(2013년) .756, 4차(2014년) .743으로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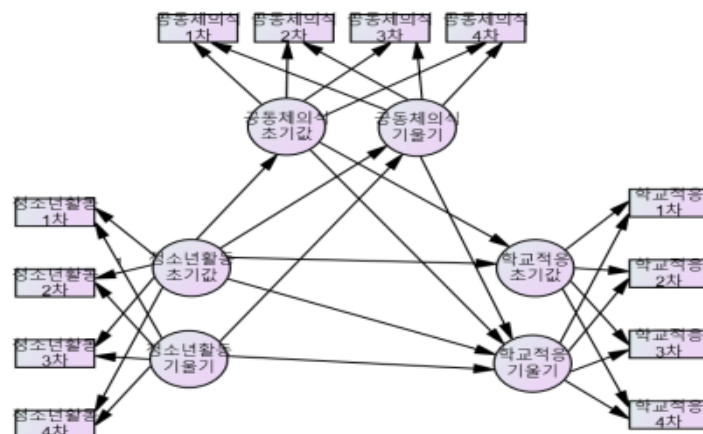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중심에 있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참여하는 청소년활동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공동체意識의 매개효과와 그 성차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정책연구원의 KCYPS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에는 SPSS 19.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잠재성장모형과 다변량잠재성장모형, 그리고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개인내, 개인간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변수의 잠재성장모형 간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결합하고 경로를 연결한 것이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이다.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은 개인차의 유의미한 정도, 개인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 한 변수에서의 변화와 다른 변수에서의 변화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 종단적인 자료분석에 적합하다. 또한 다집단 분석은 집단 간 비교분석에서 사용되는데 이때 형태동일성, 절편요인의 평균동일성, 기울기요인의 평균동일성, 집단 간 등가성이 성립해야 한다.

적합도지수는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는데 이들은 표본크기에 비교적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모형의 적합성과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적합도의 기준은 TLI와 CFI의 경우 대략 0.9 이상이면 좋다고 본다. 또한 RMSEA의 경우 그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 RMSEA < 0.05이면 좋은 적합도, RMSEA < 0.08이면 괜찮은 적합도, RMSEA < 0.1이면 보통적합도, RMSEA > 0.10면 나쁜 적합도이다(홍세희, 2000). 또한 두 개 이상의 모형 중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를 비교하기 위해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를 사용하였으며 AIC는 값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좋은 모형임을 의미한다(Byrne, 2009; Kline, 2011).

본 연구의 특성상 2차 3%, 3차 3.9%, 4차 10.3%, 5차 11.1%의 결측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FIML은 각 개인이 응답한 원자료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결측자료가 발생하는 패턴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추가적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원상희, 2013).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각 변수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아래의 <표 2>에 제시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의 특성상 모수추정방법인 최대우도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되어야 하므로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2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7미만이 되어야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왜도는 최소 -.007에서 최대 0.578, 첨도는 최소

0.501에서 최대 1.582로 정규성의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청소년활동만족도, 학교적응, 공동체의식의 기술통계분석

	N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활동만족도1차	1,578	3.16	0.557	-0.578	1.592
활동만족도2차	1,554	3.18	0.574	-0.542	1.076
활동만족도3차	1,451	3.22	0.549	-0.58	1.311
활동만족도4차	1,421	3.25	0.509	-0.342	1.247
학교적응1차	2,280	53.88	8.121	-0.007	0.585
학교적응2차	2,259	54.93	7.696	0.066	0.724
학교적응3차	2,080	55.51	7.171	0.173	0.724
학교적응4차	2,052	55.85	6.858	0.127	0.845
공동체의식1차	2,280	10.87	2.397	-0.147	0.529
공동체의식2차	2,257	11.31	2.397	-0.16	0.501
공동체의식3차	2,108	11.9	2.043	-0.022	0.726
공동체의식4차	2,091	11.86	2.014	0.006	0.627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활동만족도는 학교적응과 매 시점마다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청소년활동만족도가 증가하면 학교적응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활동만족도와 공동체의식도 매 시점마다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청소년활동만족도가 증가하면서 공동체의식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동체의식과 학교적응도 매 시점마다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므로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학교적응도 높아짐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변수 간에는 유의도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변수간의 상관이 .80이상이 없을 경우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데이터에서는 상관계수의 범위가 .01~.59로 나타나 다변량 분석의 가정을 위배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3〉 참조).

표 3. 변수들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0	11	12
1. 활동만족1차	1											
2. 활동만족2차	.240**	1										
3. 활동만족3차	.120**	.237**	1									
4. 활동만족4차	.182**	.166**	.286**	1								
5. 학교적응1차	.293**	.163**	.167**	.109**	1							
6. 학교적응2차	.188**	.284**	.152**	.114**	.543**	1						
7. 학교적응3차	.143**	.219**	.288**	.206**	.403**	.468**	1					
8. 학교적응4차	.159**	.164**	.200**	.284**	.395**	.480**	.590**	1				
9. 공동체의식1차	.196**	.149**	.141**	.127**	.451**	.340**	.227**	.220**	1			
10. 공동체의식2차	.183**	.207**	.129**	.150**	.352**	.436**	.253**	.291**	.380**	1		
11. 공동체의식3차	.138**	.184**	.235**	.159**	.276**	.357**	.495**	.340**	.349**	.370**	1	
12. 공동체의식4차	.192**	.167**	.205**	.280**	.286**	.356**	.336**	.518**	.338**	.386**	.456**	1

** $p < .01$, 활동만족1차는 청소년활동만족도 1차를 의미하며 1차는 2011년(중2), 2차는 2012년(중3), 3차는 2013년(고1), 4차는 2014년(고2)를 나타냄

2. 청소년활동만족도, 공동체의식, 학교적응의 변화양상

첫 번째 연구문제의 변화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각 시점에서 측정된 변수의 변화를 평균과 표준편차로 검토하고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선형(2)변화모형, 2차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각 변수의 변화에 가장 적합한 변화모형을 <표 4>와 같이 결정하였다.

표 4. 연구 변수들의 잠재성장 모형적합도 비교

변수	모형	χ^2	df	p	CFI	TLI	RMSEA	RMSEA범위	AIC
청소년 활동	무변화	58.046	8	.000	.807	.758	.052	.040~.064	70.046
	선형(1)모형	47.013	8	.000	.849	.811	.046	.033~.059	59.013
	선형(2)모형	14.978	5	.010	.961	.923	.029	.013~.047	32.978
	2차모형	.730	1	.393	1.000	1.010	.000	.000~.003	26.730
공동체 의식	무변화	496.164	8	.000	.664	.580	.161	.149~.173	508.164
	선형(1)모형	202.520	8	.000	.866	.833	.102	.090~.114	214.520
	선형(2)모형	85.010	5	.000	.945	.890	.083	.68~.098	103.010
	2차모형	21.568	1	.000	.986	.858	.094	.062~.130	47.586
학교 적응	무변화	302.317	8	.000	.879	.849	.125	.113~.137	314.317
	선형(1)모형	140.260	8	.000	.946	.932	.084	.072~.096	152.260
	선형(2)모형	29.956	5	.000	.990	.979	.046	.031~.063	47.956
	2차모형	.147	1	.701	1.000	1.004	.000	.000~.040	26.147

각 변수들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 모든 변수들에서 자유도 및 상대적 적합도(TLI, CFI), 절대적 적합도(RMSEA),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모형을 비교할 수 있는 AIC가 좋은 선형2모형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각 모형들의 최종모형에 대한 초기값과 변화율에 대한 평균과 분산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표 5. 4년간 청소년활동만족도의 변화에 대한 최종 모형의 모수 추정치

변수	모수	평균 (표준오차)	분산 (표준오차)	초기값-변화율 공분산
청소년활동 만족도	초기값	3.154(.012)***	.089(.013)***	
	변화율	.030(.006)*	.012(.003)*	-.015(.006)*
공동체의식	초기값	10.974(.045)***	2.308(.165)***	
	변화율	.341(.018)***	.125(.030)***	-.231(.060)***
학교적응	초기값	54.104(.158)***	38.144(1.850)***	
	변화율	.602(.058)***	3.36(.305)***	-5.635(.613)***

* $p<.05$, ** $p<.01$, *** $p<.001$

선정된 최종모형으로 얻은 청소년활동만족도, 공동체의식, 학교적응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활동만족도의 초기값은 3.154, 변화율은 .030으로 두 값 모두 유의하였다. 또한 초기값-변화율의 공분산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공동체의식의 경우에도 초기값이 10.974, 변화율이 .341, 초기값-변화율의 공분산은 .231이며 공분산 또한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초기값 평균과 분산이 청소년활동은 .05 유의수준에서, 공동체의식과 학교적응은 .001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의 경우에도 초기값 54.104, 변화율 .602, 초기값-변화율의 공분산이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초기값과 변화율, 분산을 보았을 때 청소년활동, 공동체의식, 학교적응은 중학교 2학년인 1차년도 시점에서 학생들 간에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화율평균은 청소년활동만족도의 경우 매년 .095, 공동체의식은 매년 22.2, 학교적응은 32,571 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초기값-변화율의 공분산이 세 변수 모두 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초기에 추정치가 높은 학생은 학년이 지남에 따라 청소년활동만족도, 공동체의식, 학교적응의 변화가 느리거나 낮고, 초기에 추정치가 높은 학생은 학년이 지남에 따라 청소년활동만족도, 공동체의식, 학교적응도가 빠르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활동만족도와 학교적응 간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활동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공동체의식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매개로 학교적응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의 기술통계에서 공동체의식을 제외한 청소년활동만족, 학교적응은 네 시점에서 변화가 일관성 있게 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각 변수들에 적합한 모형이 모두 오차분산을 고정하지 않은 선형(2)모형으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선정된 청소년활동만족도와 공동체의식, 학교적응의 단별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을 구성하여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1)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

연구문제 2)에 대한 검증을 위해 먼저 변수별 잠재성장 측정모형을 세 변수간의 인과관계로 나타낸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연구모형을 구안하였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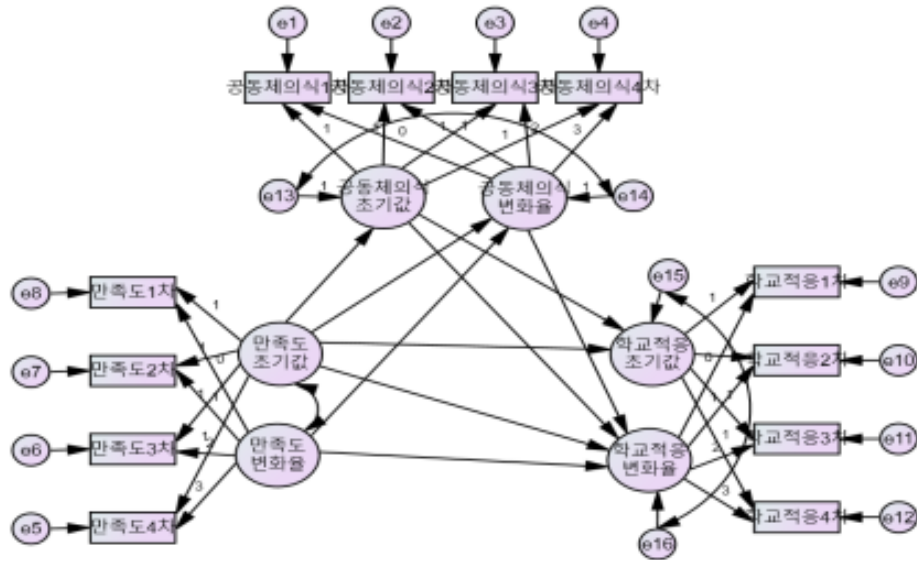


그림 2.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연구모형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6>과 같다. 카이제곱 값($\chi^2=492.300$)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p=.000$) 표본 값이 모형과 같다는 영가설을 기각하므로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밖에 다른 적합도에서는 CFI = .930, TLI = .886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RMSEA 값은 .063이고 상한 값이 .068로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다변량잠재성장 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χ^2	df	p	CFI	TLI	RMSEA	RMSEA 범위
연구모형	492.300	48	.000	.930	.886	.063	.058~.068

2) 청소년활동만족도와 학교적응 간 공동체의식의 중단적 매개효과 검증

[그림 2]에서 채택된 다변량잠재성장모형으로 청소년활동만족도, 학교적응, 공동체의식 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잠재변수들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직접효과라고 하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만족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외생변인으로, 공동체의식과 학교적응이 잠재변인으로 설정되었기에 각 변수들에 미치는 직접, 간접 영향을 살펴보고 검증결과를 <표 7>로 제시하였다.

표 7. 연구모형의 구조계수 추정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청소년활동 만족도 초기값	→ 공동체의식 초기값	3.113	0.587	0.353	8.813	***
	→ 공동체의식 변화율	0.023	0.016	0.134	0.173	0.862
	→ 학교적응 변화율	-0.7	-0.119	0.639	-1.096	0.273
	→ 학교적응 초기값	5.124	0.25	1.32	3.883	***
청소년활동 만족도 변화율	→ 공동체의식 변화율	2.561	0.626	0.427	5.991	***
	→ 학교적응 변화율	0.103	0.006	2.384	0.043	0.966
공동체의식 초기값	→ 학교적응 초기값	2.666	0.688	0.207	12.853	***
	→ 학교적응 변화율	-0.039	-0.035	0.111	-0.356	0.721
공동체의식 변화율	→ 학교적응 변화율	3.864	0.969	0.662	5.841	***

*** $p < .001$

두 번째 연구문제의 검증에서 청소년활동만족도 초기값은 공동체의식 초기값($\beta = .587$)과 변화율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t=8.813, p<.001$) 있었으나 공동체의식변화율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적응 초기값($\beta = .025$)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t=3.883, p<.001$) 학교적응 변화율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청소년활동만족도 변화율은 공동체의식 변화율($\beta = .626$)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t=5.991, p<.001$), 학교적응 변화율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공동체의식 초기값은 학교적응 초기값($\beta = .688$)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t=12.853, p<.001$) 학교적응변화율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공동체의식 변화율은 학교적응변화율($\beta = .969$)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t=5.841, p<.001$) 확인되었다.

경로계수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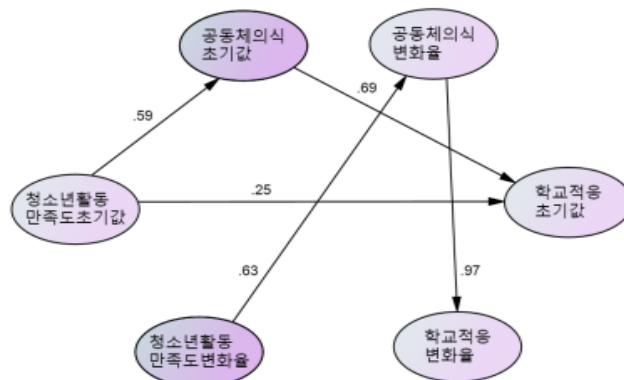


그림 3. 경로계수 결과

두 번째 연구문제는 공동체의식이 청소년활동만족도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청소년활동만족도와 학교적응에 대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청소년활동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요인의 직접·간접 효과 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청 소 년 활 동 만 족 도 초기값	공동체의식 초기값	.587***		.587
	공동체의식 변화율	.016		.016
	학교적응 초기값	.250***	.404***	.654
	학교적응 변화율	-.119	-.006	-.124
공동체의식 초기값	학교적응 초기값	.688***		.688
	학교적응 변화율	-.035		-.035
매개효과 청소년활동만족도초기값→공동체의식초기값→학교적응초기값				
청 소 년 활 동 만 족 도 변화율	공동체의식 변화율	.626***		.626
	학교적응 변화율	.006	.607***	.613
공동체의식 변화율	학교적응 변화율	.969***		.969
매개효과 청소년활동만족도변화율→공동체의식변화율→학교적응변화율				

*** $p < .001$

분석결과 청소년활동 초기값과 학교적응 초기값 간에 공동체의식 초기값은 부분매개관계로 나타났으며 청소년활동 변화율과 학교적응 변화율 간 공동체의식 변화율은 완전매개관계로 나타났다. 이처럼 초기값에서 부분매개이던 것이 성장에서 완전매개가 되는 이유는 변수들의 분산과 관련이 있다. 청소년활동만족도, 학교적응, 공동체의식이라는 각 변수들은 초기값보다 변화율의 분산이 매우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작은 분산은 효과의 크기도 작다. 관계분석에서 분산이 작은 변인들 간의 관계가 분산의 크기가 큰 상황에서의 관계분석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즉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는 개인 간의 특성이 변인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초기의 직접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작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성별 청소년활동만족도와 학교적응 간 공동체의식의 종단적 매개효과검증

세 번째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종확정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이 남녀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최종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표 9>와 같이 남녀 모두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9. 성별 모형 적합도 비교

	χ^2	df	p	TLI	CFI	RMSEA	RMSEA 범위
남학생	267.391	48	***	0.885	0.929	0.062	.055~.070
여학생	283.12	48	***	0.882	0.927	0.065	.057~.072

*** $p < .001$

본 연구에서 분석한 1차년도(2011) 자료의 총 사례수 중 남학생은 1,152명(50.5%), 여학생은 1,128명(49.5%)으로 사례 수가 거의 비슷하였다. 남녀의 평균은 각 변수에서 매년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먼저 집단 동일성 검증을 위한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은 본 연구에서 남녀가 통합된 자료로 모형을 산출하여서 형태동일성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종모형의 구조계수와 외재변수의 분산 및 공분산, 그리고 내재변수의 오차분산 및 공분산 그리고 측정변수의 오차분산 및 공분산 추정 값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표 10>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구조계수 추정값의 경우, 남학생은 4개 경로, 여학생은 5개 경로에서 유의하였다.

표 10. 구조계수 추정값

모수명	남학생				여학생			
	비표준화 추정값	S.E.	표준화 추정값	P	비표준화 추정값	S.E.	표준화 추정값	P
활동만족도초기값 → 공동체의식초기값	2.656	0.437	0.56	***	3.583	0.564	0.609	***
활동만족도초기값 → 공동체의식변화율	0.245	0.179	0.175	0.171	-0.248	0.202	-0.157	0.22
활동만족도변화율 → 공동체의식변화율	2.488	0.614	0.626	***	2.551	0.591	0.601	***
활동만족도초기값 → 학교적응초기값	2.591	1.751	0.134	0.139	8.387	2.198	0.384	***
활동만족도초기값 → 학교적응변화율	-0.278	0.982	-0.047	0.777	-1.496	0.874	-0.26	0.087
활동만족도변화율 → 학교적응변화율	-0.261	3.031	-0.016	0.931	1.214	3.504	0.079	0.729
공동체의식초기값 → 학교적응초기값	3.29	0.34	0.807	***	2.061	0.281	0.555	***
공동체의식초기값 → 학교적응변화율	-0.184	0.184	-0.147	0.317	0.106	0.139	0.109	0.444
공동체의식변화율 → 학교적응변화율	4.137	0.796	0.977	***	3.313	1.015	0.909	0.001

*** $p < .001$

분산에서 만족도 초기값과 만족도 기울기 분산이 두 집단 모두 유의하였고 측정오차분산 또한 두 집단 모두 유의하였다. 다만, 내생잠재변수 오차 중 학교적응기울기(e16)의 분산 값이 남녀 집단 모두에서 부적합한 해로 나왔으나 전체적인 적합도 검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표 11〉 참조).

표 11. 성별 분산 추정값

모수명	남학생			여학생		
	비표준화 추정값	S.E.	P	비표준화 추정값	S.E.	P
활동만족도초기값	0.014	0.003	***	0.01	0.002	***
활동만족도기울기	0.11	0.017	***	0.073	0.012	***
e13	1.703	0.259	***	1.592	0.249	***
e14	0.151	0.04	***	0.098	0.042	0.019
e15	8.685	2.537	***	9.957	2.035	***
e16	-0.437	0.646	0.499	-0.144	0.409	0.724
e1	4.118	0.229	***	2.315	0.165	***
e2	4.02	0.194	***	3.133	0.154	***
e3	2.659	0.137	***	2.122	0.113	***
e4	2.059	0.161	***	1.58	0.132	***
e5	0.176	0.019	***	0.15	0.015	***
e6	0.234	0.015	***	0.222	0.013	***
e7	0.283	0.017	***	0.236	0.014	***
e8	0.221	0.019	***	0.222	0.015	***
e9	31.477	2.312	***	23.661	1.703	***
e10	34.367	1.735	***	21.328	1.147	***
e11	27.961	1.478	***	21.707	1.167	***
e12	14.5	1.68	***	11.932	1.303	***

*** $p < .001$

공분산의 경우, 만족도 초기값과 만족도 기울기 공분산은 두 집단 모두 유의하였으나, 외생 잠재변수의 오차간 공분산에서는 학교적응 초기값과 기울기간 공분산(e15 ↔ e16)이 유의하지 않았다(〈표 12〉 참조). 이는 학교적응 기울기 분산(e16)이 음수인 부적합 해(improper solution)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12. 성별 공분산 추정값

모수명	남학생				여학생			
	공분산 추정값	S.E	상관 추정값	P	공분산 추정값	S.E	상관 추정값	P
만족도초기값 ↔ 만족도기울기	-0.021	0.006	-0.547	***	-0.011	0.004	-0.399	***
e13 ↔ e14	-0.258	0.08	-0.509	0.001	-0.224	0.083	-0.568	***
e15 ↔ e16	0.759	0.976	-	0.437	0.271	0.713	-	0.703

*** $p < .001$

측정변수의 절편은 두 집단에서 모두 유의하였다(〈표 13〉 참조).

표 13. 변수별 측정변수의 절편 추정값

모수명	남학생			여학생		
	추정값	S.E.	P	추정값	S.E.	P
공동체의식1차	10.668	0.076	***	11.068	0.065	***
공동체의식2차	11.166	0.073	***	11.475	0.067	***
공동체의식3차	11.716	0.065	***	12.11	0.06	***
공동체의식4차	11.59	0.065	***	12.137	0.057	***
활동만족도4차	3.215	0.02	***	3.234	0.018	***
활동만족도3차	3.205	0.021	***	3.205	0.019	***
활동만족도2차	3.134	0.022	***	3.193	0.019	***
활동만족도1차	3.132	0.02	***	3.151	0.019	***
학교적응1차	53.566	0.251	***	54.2	0.227	***
학교적응2차	54.438	0.243	***	55.467	0.208	***
학교적응3차	55.374	0.237	***	55.658	0.21	***
학교적응4차	55.37	0.226	***	56.198	0.195	***

*** $p < .001$

살펴본 바와 같이 모형적합도와 각 모수별 유의도 기각여부를 비교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집단이 유사하였으나 이것이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동일성 제약방법으로 두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하였다. 동일성 제약은 각 집단에서 해당 모수의 비표준화 추정 값이 동일하도록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그 후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비제약 모형)과 제약을 가한 모형의 카이제곱 차이($\Delta\chi^2$)를 검정하는 것이다. 만일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가 비제약 모형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각 집단이 추출된 모집단에서 해당 모수들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과 제약을 가한 모형 2개 등 3개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모형1은 두 집단에 대해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았다.

모형2는 두 집단에 대해 외생 잠재변수인 만족도 변수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과 공분산을 같게 하였다. ([그림 4]에서 $ccc1$ 과 $vvv1 \sim vvv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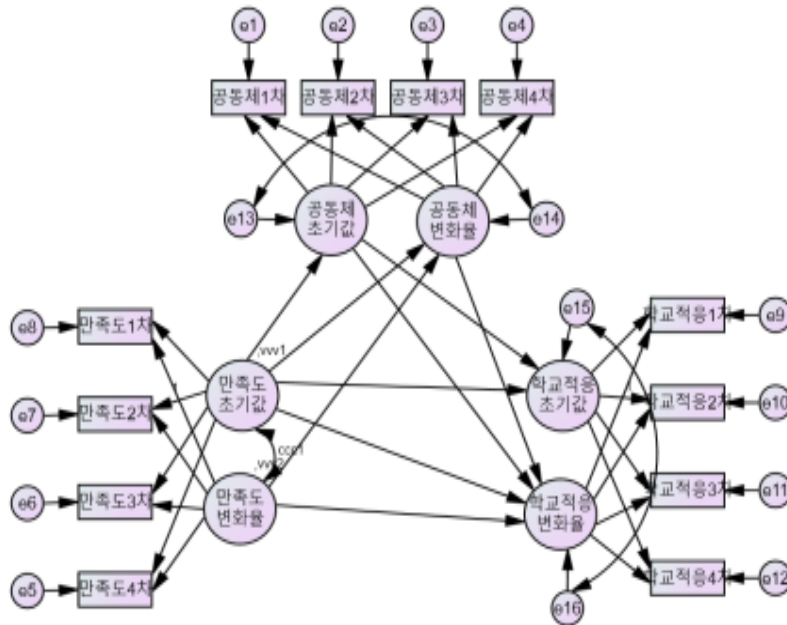


그림 4. 집단차이 검정을 위한 동일성 제약모수

두 집단 간 모수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비제약 모형(unconstrained model)과 제약을 가한 모형들의 카이제곱 차이($\Delta\chi^2$)를 검정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비제약 모형 및 제약 모형들의 모형 적합도 비교

모형	설명	TLI	CFI	ΔCFI	RMSEA	RMSEA 범위
기저 모형	비제약 모형	0.883	0.928	-	0.045	.041~.049
모형1	외생 잠재변수 분산/공분산 제약 모형	0.887	0.928	.000	0.044	.041~.048
모형2	경로계수 제약 모형	0.892	0.927	-.001	0.043	.040~.047

<표 15>는 두 집단의 외생 잠재변수인 분산 및 공분산 모수들을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C.R.값을 나타낸 행렬표이다. 두 집단간 모수의 차이 C.R.값이 ± 1.965 이상이면 두 집단의 경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집단 간 대응하는 대각선을 살펴보면 모두 기각값 ± 1.965 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남녀 간 외생 잠재변수 분산 및 공분산 차이 C.R.

		남자		
		ccc1	vvv1	vvv2
여자	ccc1	1.433	-4.795	-6.821
	vvv1	4.755	-0.916	-5.737
	vvv2	6.763	4.58	-1.75

모형2(구조경로계수 제약 모형)의 χ^2 값과 기저모형(비제약 모형)의 χ^2 값의 차이는 5.643이다. 또한 두 모형의 자유도 차이는 $105-96=9$ 이다. $\Delta\chi^2$ 값 5.643은 $\alpha=.05$ 수준에서 자유도 9인 χ^2 검정 기각값 $\chi^2(9)=16.92$ 보다 작으므로 두 모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따라서 활동만족도-공동체의식-학교적응 간 연구모형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경로계수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만족도, 공동체의식, 학교적응의 변화추이를 밝히고, 청소년활동만족도의 변화가 공동체의식의 변화와 학교적응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며 공동체의식의 변화가 지니는 종단적 매개효과와 이러한 종단적 매개관계에 남녀의 성차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KCYPS)의 2010년 중학교 1학년학생들의 2011년(중학교 2학년)부터 2014년(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활동만족도와 공동체의식, 학교적응의 시간에 따른 변화과정을 알아본 결과 청소년활동만족도와 공동체의식, 학교적응의 안정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존의 선행연구들(김태균·오승근, 2015; 문수경, 2014; 황진구 외, 2013)을 지지하였다. 청소년의 청소년활동만족도와 공동체의식, 학교적응은 선형(2)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활동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공동체의식이 종단적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본 결과 청소년활동만족도의 초기치와 학교적응의 초기치에 공동체의식의 부분매개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성장의 과정에서는 공동체의식 변화율이 청소년활동만족도 변화율과 학교적응 변화율에서 완전매개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초기에는 청소년활동이 학교적응에 직접 영향을 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는 초기치의 모습처럼 청소년활동만족도의 변화율이 학교적응 변화율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모습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공동체의식의 향상을 통해 학교적응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청소년활동만족도변화율과 학교적응변화율 간 공동체의식의 변화율이 성장의 과정에서 완전매개 하는 모습은 청소년활동이 학교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과정이 매개효과를 통한 연속적 과정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초기치에서 직접적 영향을 주었던 관계가 변화율에서 완전매개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성장의 과정에서는 청소년활동만족감이 공동체의식의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점점 커지지만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 영향력은 점점 작아져서 고등학교 2학년시점에서는 직접영향력이 유의미한 수치를 보이지 않게 된다. 즉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에 만족하면서 공동체의식 함양이라는 효과를 얻게 되고 이러한 효과가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공동체인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쳐 자연스럽게 학교적응을 돕게 되는 연속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성장과 변화에는 청소년활동만족도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직접적인 관계보다 시간의 변화에 걸쳐 이루어지는 성숙의 단계적 과정(청소년활동만족도-공동체의식-학교적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활동만족도가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에 남녀의 성차를 알아본 결과, 모형의 성별모형적합도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남녀의 청소년활동만족도와 학교적응 간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는 비슷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함의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위한 청소년활동은 프로그램의 기획에서부터 청소년활동만족도를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의 특성이 고려된 프로그램일 때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청소년활동은 학교적응을 이끄는 데 중요한 영향과 함께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고양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청소년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청소년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다.

둘째, 청소년들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켜야 한다. 현재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입시준비를 위한 공부에 집중하고 청소년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임지연 외 2014). 따라서 청소년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시간적 확보, 그리고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함께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활동의 만족도가 중2시기에는 학교적응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모두 미치고 있으나 학교적응에 대한 직접적 영향보다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성장과 변화에서는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하여야 학교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장기적인 변화는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한 단계적 수업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은 일회적인 프로그램보다 연속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활동과정 속에 공동체의식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청소년활동의 경험들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적 태도가 습관화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넷째, 본 연구가 사용한 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KCYPS)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여러분야가 함께 조사되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만족도, 공동체의식, 학교적응 등을 측정하고 있는 문항들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패널 자료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청소년활동만족도는 각각의 체험에 대한 만족도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한 영역의 수가 고려되지 않은 청소년체험활동 전체에 대한 만족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체험만족도를 따로따로 연구해야 하지만 체험활동에 응답한 데이터들이 몇 가지의 체험활동을 제외하고 연구하기에 적합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평균을 통해 연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체험활동이 더 활성화되고 연구에 적절한 데이터가 확보되면 체험활동 각 영역의 효과에 대하여 후속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여섯째, 청소년 활동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각 영역 당 한 문항으로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 지도자, 프로그램 등 각각의 운영부분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추후 청소년활동운영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 만족도의 영향력이 연구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대근. (1981). 바람직한 청소년활동 지도자상, **청년연구(4)**, 11-25.
- 고혜경. (200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비행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곽수란. (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 연구**, 16(1), 1-26.
-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시 제 2009-41호.
- 구태익. (2000). **한국청소년수련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권순용. (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 관련변인의 인과적 구조분석, **중등교육연구**, 54(3), 329-349.
- 권일남. (1999). 청소년학 정체성 확립의 방향과 과제: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학의 정체성, **한국청소년학회 학술대회**, 33-66.
- 권일남. (2011). **청소년활동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역량계발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82.
- 권혜원. (2003). **중학생의 민주 시민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기수. (2009). **봉사활동이 고등학생의 자아정체성, 학교생활적응 및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소희. (2008). 청소년수련활동 체험이 생활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5(3), 155-176.
- 김영철. (2005).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력 분석**,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원희. (2010). **청소년의 활동체험이 생활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분석**.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은숙. (2004).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에 관한연구: 수원 성 빈센트 청소년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은정. (2009). **아동기 외상과 초기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 표현 양가성 회피대처 방식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재연. (2014). **초등학생의 방과후 스포츠활동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문제행동,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지혜. (2012). 청소년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봉사활동 시간과 주관적 만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1), 41-6.
- 김지혜. (201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휴대전화의존을 매개로 학업성적과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3(1), 65-72.
- 김진호. (2008).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참여자의 몰입경험 결정요인 구조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5(4), 1-25.
- 김창현. (2007). **청소년 수련활동의 만족도와 성취도에 관한연구**. 대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태균. (2013). 청소년활동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시설환경**, 11(2), 75-82..
- 김형심. (2007). **청소년의 문화활동경험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호순. (2004). 청소년수련활동 개념의 재정립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29-150.
- 노숙영. (1997). **중학생의 학교적응, 학업성취, 정서 및 문제행동 관계**.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문수경. (2014). **청소년봉사활동 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력과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문은식.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민준기(1991). **청소년활동론**, 지도자교재지침서, 1-24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가나(2008). **청소년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박신영. (2014). **초등학생 공동체의식과 친사회적 행동 증진을 위한 나눔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재숙. (2013). 중학교 신입생의 봉사활동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20(9), 1-24.
- 박형빈. (2016).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사상진. (2009).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와 대인관계 성향 및 학교생활 태도와의 관계**.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서봉언. (2015). 한국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다문화 수용성 간 상호 인과관계. **청소년시설환경**, 13(2), 111-120.
- 서정아. (2013). 가족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사회자본이 청소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4(1), 135-164.
- 성선진. (2010).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요인의 인과적 관계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성은모. (2012). **청소년체험활동의 발달적 가치 및 사회경제적 가치연구**(2012-49). 서울; 여성가족부.
- 송재홍. (200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심리 사회적 효과에 관한 비교 연구**, 목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 논문.
- 신태수. (2014). 인간발달연구에서의 중단자료 분석: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1(3), 1-28.
- 여성가족부. (2016) 여성가족부령 제 99호 부칙, 별지 제 3호 서식.

- 여성가족부. (2016). 제 3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자료, 1-75.
- 옥성찬. (2015). **초등학생의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 만족도와의 관계연구**. 부산교육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왕연주. (2012). **창의인성 미술교육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광용. (1999). **제주도 중학생들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광호. (2010). 한국사회 청소년사업과 정책의 위기와 과제: 청소년활동 영역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7(3), 25-43.
- 이교봉. (2009).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20, 172-210.
- 이소연. (2015). **청소년의 사회적관계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수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 이원령. (2015). 정서행동문제를 보이는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변인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31(3), 401-420.
- 이은영. (2009).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인화. (2012). 신체활동 참가학생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7(4), 101-111.
- 이혜영. (1993). 공동체적 사회연대 구축을 위한 품성교육의 방향. **교육사회학연구**, 3(2), 113-134.
- 이희정. (2015). 도시 청소년 학교적응의 중단적 변화와 개인,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관련 예측변인. **교육문화연구**, 21(2), 27-56.
- 전국재. (1998). IMF시대 청소년의 소외와 참여: IMF시대의 청소년 활동과 참여증진 방안. **한국청소년학회 학술세미나**, 223-253.
- 조명주. (2007). **학습자의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조성수. (2007). **초등학생의 공동체의식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창원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조순종. (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 생활적응과의 관계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정아. (2012). 청소년의 학교적응 잠재유형분류와 생태체계적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3(1), 277-309.
- 좌현숙. (2012). 청소년 학교적응의 중단적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9(6), 1-28.
- 진은설. (2012).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와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차한솔. (2014). **청소년 봉사활동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인호. (2013). **초등학생의 청소년활동 참여가 사회적지지, 공동체의식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한상복. (1982). 한국인의 공동체의식. **정신문화연구원**, 12, 2-16.
- 허원석. (2012). **중학생의 방과후 체육활동 참여유무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강유진·문재우. (2005).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청소년연구**, 16(1), 283-315.
- 고관우·남진열. (2011).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31-250.
- 권일남·정철상·김진호. (2003). **청소년활동지도론**. 서울: 학지사.
- 김윤나·손진희·최운진. (2008). 청소년활동의 중단적 변화특성 및 관련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9(4), 139-167.
- 김전옥·손윤희. (2015). 청소년기 공동체의식의 중단적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6(4), 105-127.
- 류시영·강병훈. (2012).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과 자아존중감, 행복감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3(4), 27-50.
- 문재우·박재산. (2013). 중학생의 체험활동과 자아탄력성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간의 관련성.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14(2), 29-45.
- 박성혜·윤종희. (2013).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4(3), 147-169.
- 박주현·이태자. (2015) 청소년체험활동의 참여시간과 참여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3(2), 237-248.
- 이영애·정현희. (2016).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27(2) 187-214.
- 이원익·김동일. (2009).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류. **열린교육연구**, 17(4), 89-118.
- 이인정·최해경. (199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나남.
- 이현주·채유정. (2014). 청소년체험활동 참여, 사회·정서·생애목표의 수준 및 구조적 관계에서의 성차. **한국청소년연구**, 25(2), 173-207.
- 임지연·김정주·김정숙(201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14-R04), 1-229.
- 조안나·이은경. (2015). 중학생의 팬덤활동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제5회 한국 아동청소년 페널학술대회자료집**, 181-194.
- 조윤숙·이경남. (2010).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가족환경 및 학교생활 부적응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8(8), 27-37.
- 전명순·김태균. (2014). 청소년활동이 학교생활적응, 학습습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문화포럼**, 38, 71-90.
- 황진구, 허효주, 안현미. (2013).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중단연구**(13-R14-3). 1-12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아카이브 .http://archive.nypi.re.kr/brdarticleList.do?brd_id=BDIDX_k9Fd9oFi29nooCcJ7kX1I4&srch_ctgry_idx=CTIDX00043&menu_nix=qZc474Ak
- Byrne, B. M.(201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3rd ed.). Routledge.
- .Nota, L., Soresi, S., Ferrari, L., & Wehmeyer, M. L.(2011). A multivariate analysis of the self-determina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Happiness Study*, 12, 245-266.

아동·청소년기 건강상태 및 신체활동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곽수란* · 이기중**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한 아동청소년패널 초4패널 3차, 5차, 7차 자료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기 건강상태와 신체활동이 학업활동과 어떤 인과관계를 갖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맥락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시기가 신체·생물학적 변화가 극적으로 나타나며, 학업활동이 주된 시기라는 측면에서 건강상태와 신체활동이 학습활동과 그에 따른 학업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상태, 신체활동, 학습활동 그리고 학업성적에 공통적인 영향요인이라 판단되는 가정배경 특성(가정소득)을 외생요인으로 투입하였다. 특히 청소년기 신체·생물학적 변화는 그 속도와 드러나는 양상이 매우 다른 점을 고려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집단으로 분리하고, 선정한 요인의 인과관계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LISR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건강상태가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는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신체활동의 효과는 두 집단 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정배경인 가정소득은 건강상태에 미치는 효과가 성별 집단에서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학습활동과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는 공통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기 건강상태와 신체활동이 학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함으로써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건강상태, 신체활동, 학습활동, 학업성적

I. 서론

현대사회에서 인간화를 위한 교육은 주로 학교라는 전문화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성과는 학교교육을 통해 학습한 학업성취와 동의어로 인식·사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교육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학업성취는 개인의 행복감과 당연히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화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학업성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러한 학업성취가 인지적 성취로 상징되는 성적에 천착해 있고, 성적은 학교와 학생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학습을 지원하는 가정배경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

* 고구려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회적 선발이나 직업선발을 위한 기준으로 불평등한 기재라는 비판이 존재하기도 한다. 특히 가정배경의 요인 중 경제적 지원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가정지원은 변화가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가정지원 이외의 요인을 확인하여 학업성취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업성취가 가정배경을 기반으로 할지라도 개인의 역량으로 학업성취를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는 실증적 분석을 수행해 보고자 한다.

학업활동은 여타의 조건이 영향요인이지만 결국 타인이 대체할 수 없는 개인적 노력이 결정적인 것이다. 학습방법, 학습태도, 학습시간 등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학업에 상당한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는 특성상 학업활동을 위해 무엇보다도 갖추어야 할 조건은 학생의 신체·생물학적 건강상태와 체력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상태와 신체활동으로 가늠할 수 있는 체력 상태가 학업활동과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특히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과정이 매우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라는 측면에서 건강상태와 신체활동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그에 따른 학습활동 및 학업성취에의 영향은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시점에서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학생 개인의 물리적 조건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연구 결과는 건강한 아동·청소년기 발달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 건강상태, 신체활동 그리고 학습활동과 학업성적과의 관계

한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주된 활동은 학업이다.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기 학업활동의 결과인 학업성취는 개인의 사회적 선발과 직업으로의 이동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청소년기 학업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관점과 측면에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활동의 최종변수는 결국 학생 개인의 특성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동기는 신체·생물학적으로 중성기이다. 중성기인 아동기는 성숙과정에서 소년은 남성, 소녀는 여성으로 생물학적 성별이 명확해지는 사춘기(puberty)를 맞이하며 청소년기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과정은 그 어떤 시기보다 신체·생물학적 변화가 급격해지며, 이러한 신체·생물학적 특성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심리·사회적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심리적 혼란기와 사회적 관계 대상이 변화하고 확대되는 것이다.

신체적 성장이 완만하던 아동기와는 달리 급격한 신체변화를 겪는 청년기에는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난다. 청년은 자신의 신체, 용모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급격히 변화해가는 신체적 특징에 대해 극도로 신경과민이 된다. 자신의 신체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청년기 내내 그러하지만 특히 사춘기 때에 더욱 그러하다. 이때에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러워 한다. 특히 여자의 경우는 더 심하다(Brooks_Gunn & Paikoff, 1993; Henderson & Zivian, 1995; 정옥분, 2004

재인용).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발달과정은 학업활동에 상당부분 에너지를 투입하여 교육성과를 생산해 내야하는 시기임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신체·생물학적 혼란기로 인해 학업활동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이 자신의 변화되는 신체·생물학적 조건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학업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기 학업성취 결정요인을 학생 개인적 관점에 시선을 두고 학업활동과의 관련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즉, 극적인 신체·생물학적 변화를 경험하는 아동·청소년기 학생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신체활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러한 특성이 학업 활동 즉, 학습활동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관계로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진 요인은 학생의 건강상태와 신체활동이다. 그런데 건강상태와 신체활동은 개인적 측면의 조건이기는 하지만 가정배경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즉, 가정의 소득정도나 문화적 속성은 건강상태를 결정짓는 의식주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강영주, 정광호, 2012; 이기봉, 권순용, 박일혁, 2011; 윤현선, 2006; 장상수, 2008; 조옥연, 박형길, 2015).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상태나 신체활동이 학업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들은 가정배경이 열악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건강상태나 신체활동이 학업활동과 연계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판단된다(Blakemore, 2003; Fejgin, 1994; 강유진, 2010; 구인희, 2003; 김광혁, 2008; 신원영, 강현아, 2008; 심준석 외, 2007; 황혜원, 2016). 특히 교육학 연구에서보다는 가정 관리학이나 체육학, 가정 의학, 영양학과 같은 전문분야에서 연구되거나, 현장교육 교사들이 실제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조사하는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김윤영, 강성기, 2013; 장세웅, 정구인, 고전규, 2012; 박세운, 윤대현, 2010; 음명옥, 2006; 이민우, 2004).

학업성취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매우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상태 및 신체활동과 학업성취와의 관련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극히 탐색적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상태, 신체활동, 학업활동, 학업성취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데이터 및 표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전국 초·중학생과 그 가족, 학교를 대상으로 수집한 아동·청소년패널 초등 4학년 패널 3차, 5차, 7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본은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초등 4학년 패널이 6학년이 되는 시점(3차)부터 중2(5차), 고1(7차) 2년 간격의 시점까지 모

두 응답한 패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분석에 투입되는 측정 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사례는 LISREL PRELIS를 사용하여 결측치를 대체 한 후, 최종적으로 선정된 표본은 1,989명(남학생 1,003, 여학생 986)이다. 특히 청소년기인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는 성별 간에 발달 속도와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원자료를 투입하여 계산된 공분산행렬이 사용되었다. <표 1>은 공분산행렬과 상관행렬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공분산행렬 및 상관행렬

남학생		가정소득			건강상태			신체활동			학습활동			학업성적		
		초6	중2	고1	초6	중2	고1	초6	중2	고1	초6	중2	고1	초6	중2	고1
가정 소득	초6	.276	.228	.202	.014	.006	.003	.032	.017	.033	.060	.042	.041	.093	.123	.072
	중2	.835**	.269	.225	.011	.000	-.005	.024	.027	.025	.068	.041	.043	.102	.126	.065
	고1	.778**	.880**	.243	.018	.010	-.003	.026	.028	.011	.064	.040	.040	.093	.120	.059
건강 상태	초6	.044	.036	.060	.377	.130	.087	.076	.087	.061	.064	.051	.034	.099	.059	.030
	중2	.019	.001	.033	.368**	.332	.133	.078	.086	.107	.014	.039	.017	.014	.025	-.007
	고1	.010	-.017	-.011	.244**	.397**	.336	.058	.113	.173	.001	.034	.032	-.003	-.020	.016
신체 활동	초6	.056	.042	.047	.112**	.122**	.091**	1.230	.342	.143	.093	.054	.042	.130	.127	.063
	중2	.027	.042	.046	.114**	.120**	.157**	.249**	1.542	.375	.065	.097	.063	.083	.100	.080
	고1	.054	.041	.019	.085*	.159**	.255**	.110**	.258**	1.372	.047	.062	.061	.060	.084	.016
학습 활동	초6	.208**	.241**	.239**	.192**	.043	.003	.153**	.095**	.074*	.299	.110	.105	.221	.196	.122
	중2	.153**	.152**	.156**	.158**	.130**	.113**	.093**	.148**	.101**	.383**	.276	.136	.145	.244	.146
	고1	.142**	.154**	.147**	.102**	.055	.100**	.070	.093*	.095**	.351**	.476**	.298	.118	.190	.227
학업 성적	초6	.225**	.251**	.242**	.205**	.032	-.007	.149**	.085*	.066	.515**	.352**	.275**	.614	.416	.203
	중2	.240**	.250**	.250**	.098**	.044	-.036	.118**	.083*	.074*	.367**	.477**	.357**	.546**	.948	.331
	고1	.173**	.160**	.153**	.061	-.016	.035	.073*	.082*	.018	.284**	.354**	.528**	.330**	.432**	.620
여학생		가정소득			건강상태			신체활동			학습활동			학업성적		
		초6	중2	고1	초6	중2	고1	초6	중2	고1	초6	중2	고1	초6	중2	고1
가정 소득	초6	.289	.255	.225	.037	.033	.016	.007	.021	-.003	.034	.032	.048	.074	.094	.047
	중2	.884**	.288	.249	.033	.026	.007	.014	.017	-.018	.032	.029	.043	.073	.105	.049
	고1	.821*	.910**	.261	.033	.025	.010	.018	.029	-.032	.035	.029	.045	.077	.096	.048
건강 상태	초6	.120**	.107**	.110**	.338	.108	.080	.037	.086	.039	.059	.047	.051	.070	.093	.049
	중2	.111**	.090*	.091*	.340**	.298	.118	.035	.076	.072	.035	.064	.057	.056	.083	.047
	고1	.052	.023	.034	.246**	.386**	.314	.017	.026	.059	.011	.026	.044	.023	.046	.037
신체 활동	초6	.012	.024	.033	.060	.060	.029	1.138	.295	.147	.085	.052	.038	.091	.179	.071
	중2	.030	.025	.044	.114**	.107**	.036	.212**	1.697	.401	.044	.074	.096	.066	.138	.107
	고1	-.006	-.033	-.062	.065	.129**	.102**	.135**	.301**	1.047	.059	.065	.094	.046	.055	.113
학습 활동	초6	.129**	.122**	.140**	.210**	.134**	.039	.165**	.070	.119**	.236	.103	.098	.155	.168	.096
	중2	.119**	.110**	.116**	.164**	.238**	.093*	.099**	.114**	.128**	.428**	.245	.126	.129	.222	.124
	고1	.181**	.162**	.180**	.177**	.212**	.159**	.072*	.150**	.186**	.408**	.517**	.243	.110	.176	.190
학업 성적	초6	.190**	.189**	.208**	.165**	.143**	.056	.118**	.070	.062	.442**	.362**	.310**	.522	.341	.198
	중2	.184**	.205**	.197**	.167**	.159**	.085**	.176**	.111**	.056	.363**	.472**	.374**	.497**	.906	.307
	고1	.118**	.122**	.125**	.111**	.114**	.087*	.088*	.110**	.148**	.265**	.334**	.515**	.366**	.431**	.562

* $p<.05$ ** $p<.01$ 대각선 상단은 공분산행렬, 하단은 상관행렬

2. 측정변수 및 분석모형

본 연구는 초6학년부터 고1까지 건강상태와 신체활동이 학습활동과 학업성적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기 건강상태와 신체활동 그리고

학업활동은 가정배경의 특성이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가정소득을 외생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2. 측정변수 내용 및 척도

잠재변인	측정변인	분석자료
가정소득	가구 연간 소득(단위: 만원), 분석시 로그값	3차, 5차, 7차
건강상태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건강상태 매우건강하지 못하다~ 매우건강하다 4점 척도로 점수가 클수록 건강한 상태를 나타냄	3차, 5차, 7차
신체활동	학교 체육시간 중 땀 흘리며 운동한 시간 (신체단련 단체활동), 점수가 클수록 신체활동 많음	3차, 5차, 7차
학습활동	학교생활 영역의 학습활동,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그렇다 4점척도 5문항, 점수가 클수록 긍정적 학습활동	3차, 5차, 7차 신뢰도 .719/ .763/ .793
학업성적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과목별 주관적 평가/ 매우못했다~ 매우잘했다 5점 척도, 점수가 클수록 성적이 좋은 편	3차, 5차, 7차 신뢰도 .771/ .834/ .743

먼저 외생변수인 가정소득은 가구 연간 소득이며, 분석에 투입된 자료는 로그값으로 환산하였다. 건강상태는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건강수준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점수가 클수록 건강상태가 좋음을 나타내며, 신체활동은 학교 체육시간 중 땀 흘리며 운동한 시간으로 점수가 클수록 신체활동이 많음을 나타낸다. 학습활동은 학교생활에서 학습태도를 나타내는 특성으로 4점 척도, 5문항 평균으로 투입되었으며 점수가 클수록 긍정적 학습활동을 나타내며, 학업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에 대한 학생의 주관적 평가로 매우 못했다~ 매우 잘했다고 측정되는 5점척도 자료가 투입되었다. [그림 1]은 선정된 측정변수 및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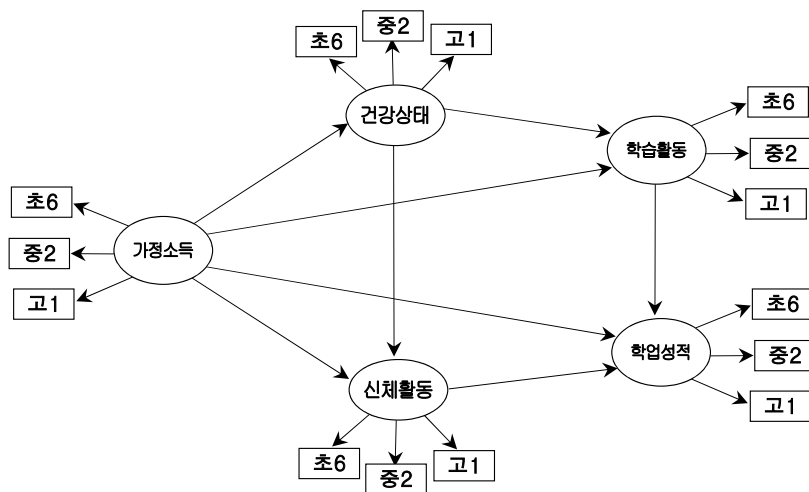


그림 1. 건강상태 및 신체활동 그리고 학업성적과의 인과관계 구조방정식모형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동안, 아동·청소년의 건강상태와 신체활동 수준이 학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본 연구는 연구모형은 횡단적 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투입되는 데이터는 종단자료이다. 즉, 초등학교 5학년이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기까지 패널 종단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성별 간에 발달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강상태, 신체활동 그리고 학습활동과 학업성적이 성별 간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인과관계 맥락에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각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과 평균차이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량은 분석에 투입되는 변수의 특성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적합한 자료인지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다. 더불어 잠재요인 간 공분산행렬과 상관계수는 모형에 투입되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표본 자료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하는데 필요한 결과이다. 건강상태와 신체활동이 학습활동과 학업성적에 미치는 인과관계 분석은 LISREL(Joreskog & Sorbom, 2001)을 사용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수추정은 최대가능법(ML)이며, 전체모형 적합도 판정에는 χ^2 , GFI, TLI, RMR이 사용되었다.

IV. 분석결과 및 해석

1. 기초통계량, 평균차이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기초적인 통계결과와 상관계수는 <표 3>과 같다. <표 3>의 기초통계량은 전체집단에 대한 추정치이며 각 변수의 사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첨도를 나타내주고 있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ML 추정)을 위한 전제 중 하나는 연속적인 변수에 대한 정상분포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본 측정치가 정상분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편포도와 첨도는 중요한 지수이다. 측정치들이 정상분포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면 통계 처리 값이 편포도(skewness)와 첨도(kurtosis)가 0값을 가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편포도와 첨도가 1보다 작게 나타날 경우 모수추정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 투입된 가구소득에 대한 측정변수가 정상성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정상성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구조방정식모형 ML추정에 필요조건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 측정변수 기술통계량(n=1,989)

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가정 소득	초6	4.61	10.71	8.31	.532	-.946	3.805
	중2	5.01	9.90	8.33	.527	-1.137	3.663
	고1	5.30	9.90	8.41	.501	-1.065	3.163
건강 상태	초6	1.00	4.00	3.37	.599	-.510	.141
	중2	1.00	4.00	3.33	.563	-.169	-.296
	고1	1.00	4.00	3.29	.575	-.200	-.135
신체 활동	초6	1.00	5.00	3.09	1.105	.070	-.836
	중2	1.00	5.00	3.30	1.326	-.282	-1.105
	고1	1.00	5.00	2.74	1.164	.209	-.654
학습 활동	초6	1.00	4.00	2.72	.540	.013	.250
	중2	1.00	4.00	2.86	.511	-.038	.505
	고1	1.00	4.00	2.90	.522	-.309	.901
학업 성적	초6	1.00	5.00	3.75	.755	-.251	-.159
	중2	1.00	5.00	3.17	.963	-.117	-.389
	고1	1.00	5.00	3.05	.769	.057	.270

〈표 4〉는 구조방정식모형에 투입되는 측정변수의 성별 간 평균차이 검증 결과이다. 분석결과, 가정 소득, 건강상태, 신체활동, 학습활동, 학업성적 5개 요인의 초6, 중2, 고1 측정변수의 성별차이는 건강상태와 신체활동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2, 고1 건강상태, 초6, 중2, 고1 신체활동은 모두 남학생이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어, 아동·청소년기 성별 간의 특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차이 분석 결과는 성별 간에 단순한 통계적 평균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결과가 인과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를 확인하는 기술통계적 측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표 4. 측정변수 성별 평균차이 분석

측정변수		성별	평균	t	측정변수		성별	평균	t	
가정 소득	초6	남학생	8.29	-1.918	신체활동	중2	남학생	3.66	11.878***	
		여학생	8.34				여학생	2.90		
	중2	남학생	8.32	-.721		고1	남학생	3.09	13.442***	
		여학생	8.34				여학생	2.35		
	고1	남학생	8.40	-.461		초6	남학생	2.75	1.845	
		여학생	8.41				여학생	2.70		
건강 상태	초6	남학생	3.39	1.418	학습활동	중2	남학생	2.87	1.079	
		여학생	3.35				여학생	2.84		
	중2	남학생	3.36	2.878**		고1	남학생	2.88	-1.163	
		여학생	3.28				여학생	2.92		
	고1	남학생	3.36	4.964***		학업성적	초6	남학생	3.75	.330
		여학생	3.22					여학생	3.74	
신체 활동	초6	남학생	3.27	7.033***	중2		여학생	3.16	.094	
		여학생	2.89				남학생	3.06		.232
		여학생					3.05			

* $p<.05$, ** $p<.01$, *** $p<.001$

〈표 5〉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시점의 가정소득, 건강상태, 신체활동, 학습활동, 학업성적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가정소득은 초6부터 고1시점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인식한 건강상태와 학업성적은 일관되게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신체활동은 중학교에서 의미 있게 상승했다가 고등학교에서는 매우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며, 학습활동은 중학교에서 낮아졌다가 고등학교에서는 상승하기는 하지만 초등학교 수준까지는 회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측정변수에 대한 학교급에 따른 대응표본 t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가정소득과 건강상태 및 학업성적 변화는 역방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신체활동과 학습활동은 상승과 하락이 교차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본 연구모형에 투입된 요인 간의 관계를 특정하여 예측하기에 어려운 측면을 보여주고 있으나, 평균차이 검증이 인과관계 맥락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각 요인간의 관계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측정변수 학교급 대응표본 t검증

요인	평균	t	평균	t	평균	t
가정소득	초6 4628.36	-.656	중2 4654.45	-14.826***	초6 4628.36	-7.789***
	중2 4654.45		고1 4987.55		고1 4987.55	
건강상태	초6 3.37	2.767**	중2 3.33	2.000*	초6 3.37	4.269***
	중2 3.33		고1 3.29		고1 3.29	
신체활동	초6 3.09	-5.637***	중2 3.30	15.657***	초6 3.09	9.631***
	중2 3.30		고1 2.74		고1 2.74	
학습활동	초6 2.94	6.016***	중2 2.86	-3.058**	초6 2.94	3.073**
	중2 2.86		고1 2.90		고1 2.90	
학업성적	초6 3.75	27.126***	중2 3.17	4.871***	초6 3.75	31.938***
	중2 3.17		고1 3.05		고1 3.05	

* $p<.05$, ** $p<.01$, *** $p<.001$

2. 건강상태와 신체활동이 학습활동과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표 6〉은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 지수를 제시하고 있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전체, 남학생, 여학생 그리고 다집단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로 정량적 평가지수인 χ^2 은 전체모형은 190.33(df=77, $p=.00$), 남학생 모형은 142.88(df=77, $p=.00$), 여학생 모형은 123.17(df=77, $p=.00$)로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χ^2 가 자유도(df)의 함수라는 측면에서 표준 카이 자승($NC=\chi^2/df$)을 계산하여 그 값이 5미만이면 적합한 모형이라 판단할 수 있다(이기중, 2012). 본 연구모형의 NC는 전체 모형은 2.47, 남학생 모형은 1.86, 여학생 모형은 1.60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모형 정성적 평가 지수인 GFI는 전체, 남학생, 여학생 모형이 모두 .98이며, TLI(NNFI)는 각각 .99, .98, .99이며, RMR은 .017, .019, .019로 설정된 연구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잘 맞는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6.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 평가지수

구조방정식모형	χ^2	df	NC	GFI	TLI	RMR
전체(n=1,989)	190.33($p=.00$)	77	2.47	.98	.99	.017
남학생(n=1,003)	142.88($p=.00$)	77	1.86	.98	.98	.019
여학생(n=986)	123.17($p=.00$)	77	1.60	.98	.99	.019
다집단모형(남, 여)	388.10($p=.00$)	190	2.04	.97	.98	.029

본 연구는 아동기 초등학교 6학년에서 청소년기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까지 건강상태와 신체활동 그리고 학습활동과 학업성적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로의 진행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발달속도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은 구체

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성별 간의 인과관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런데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과관계 추정치를 절대적 기준에 따라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모형을 매칭 하는 다집단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모형 분석은 두 집단이 동일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어떠한 제약을 가하지 않고 매칭한 후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집단모형 분석 결과 적합도가 유의하게 나타나면 두 집단의 인과관계가 유사한 맥락을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남학생과 여학생 모형을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분석 결과는 χ^2 은 333.10($p=.00$)로 적합하지 않으나 NC=2.04이며, 정성적 지표인 GFI=.97, TLI=.98, RMR=.029로 다집단모형 적합도는 적합한 것으로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설정한 구조방정식모형의 인과관계 맥락이 유사한 추정치를 나타낸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를 각각 제시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표 7. 측정모형 추정치

추정 경로		측정모형 추정치(λ)	
		남학생 모형	여학생 모형
가정소득	→초6	1.00	1.00
	→중2	1.11(40.94)	1.10(48.54)
	→고1	.99(37.27)	.98(41.46)
건강상태	→초6	1.00	1.00
	→중2	1.31(8.79)	1.40(8.18)
	→고1	1.00(9.19)	.99(8.39)
신체활동	→초6	1.00	1.00
	→중2	1.61(5.87)	2.05(5.30)
	→고1	1.07(5.84)	1.42(5.42)
학습활동	→초6	1.00	1.00
	→중2	1.29(12.99)	1.31(13.44)
	→고1	1.08(12.11)	1.18(13.08)
학업성적	→초6	1.00	1.00
	→중2	1.59(15.52)	1.62(13.95)
	→고1	.84(12.92)	.93(12.25)

추정치(t-value), 측정모형 전체 λ 값은 * $p<.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함

〈표 7〉은 남학생, 여학생 측정모형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가정소득, 건강상태, 신체활동, 학습활동, 학업성적 요인에 포함되어 있는 초6, 중2, 고1의 측정변수 설명력(λ)은 $p<.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잠재변수를 설명하기 위해 선정된 측정변수가 그 잠재변수를 잘 대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분석결과는 측정변수를 대신한 잠재변수 중심의 구조모형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2], [그림 3]은 아동·청소년기 건강상태, 신체활동, 학습활동과 학업성적간의 인과관계 분석

결과이다. 그림에 제시된 결과는 표준화 추정치이며, 점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먼저 [그림 2]와 <표 8>은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이다. 외생변수인 가정소득이 건강상태와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학생의 학습활동과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가정배경인 가정소득은 아동·청소년기 영양섭취 및 신체발달이나 생활환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강상태나 신체활동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정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 의해 이미 검증된 학업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효과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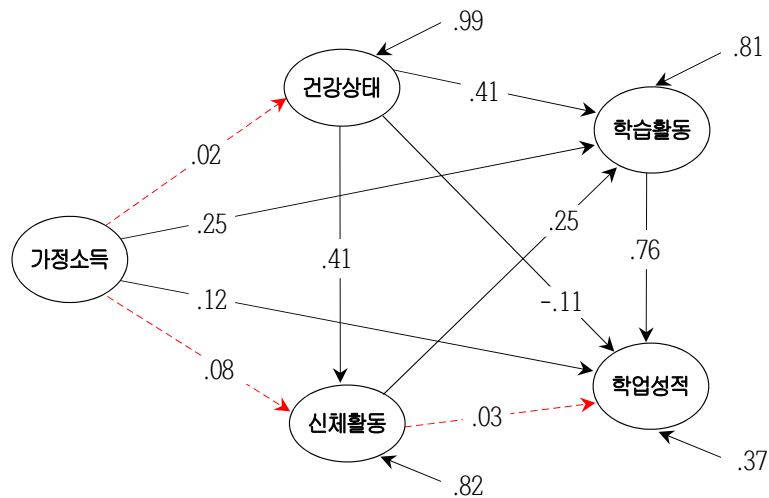


그림 2. 건강상태, 신체활동과 학업성적 추정경로(남학생 n = 1,003)

건강상태와 신체활동과 학습활동 및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결과, 세 경로 모두 통계적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건강상태→신체활동과 건강상태→학습활동 경로는 정적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건강상태→학업성적은 부적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기에 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시기의 남학생 건강상태는 신체활동과 학습활동에는 긍정적인 상충요인이며 이는 매우 상식적인 결과로 판단된다. 그런데 학업성적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피상적으로 해석하면 아동·청소년 남학생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 경우, 학업성적 향상을 위한 활동보다는 학업 이외에 관련된 활동에 더 치중하고 관여할 가능성이 추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건강상태가 학습활동으로 유인될 경우 학업성적에 매우 높은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을 간접효과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9> 간접효과 참조).

신체활동이 학습활동과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는 그 크기와 유의성에서 매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체활동→학습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효과를 나타낸 반면, 신체활동→학업성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은 체육시간에 땀 흘리며 운동한 시간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이러한 신체활동이 학습활동에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학업성적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습활동과 학업성적에 대한

건강상태의 효과와 유사한 맥락처럼 신체활동은 학업성적 제고에 제한적 또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신체활동이 학습활동을 유인하는 특성으로 작용한다면 학업성적 상승에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청소년기 남학생의 경우, 아동기 소년에서 사춘기로 이행한다는 것은 신체 및 생물학적 특성상 활동성이 증가하며 매우 역동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이 학습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면 학업성적에 매우 고무적인 영향요인이 될 수 있는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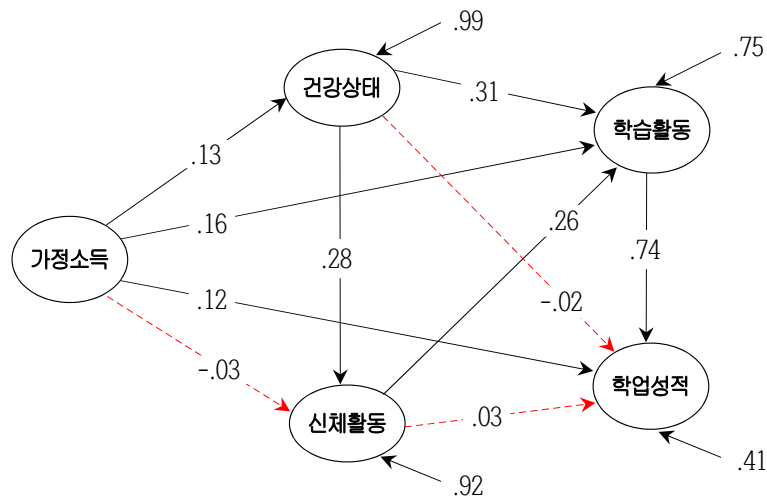


그림 3. 건강상태, 신체활동과 학업성적 추정경로(여학생 n=986)

[그림 3]과 <표 8>은 아동·청소년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이다. 외생변수인 가정소득이 건강상태와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남학생 모형과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되고 있다. 가정소득→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 모형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가정소득→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 모형과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유의성 방향은 부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정소득이 학습활동과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 모형과 유사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기 영양섭취 및 신체발달이나 생활환경과 관련이 있는 가정소득은 여학생의 건강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학생 집단과 비교하여 여학생은 아동기 소녀에서 사춘기로 이행하는 시기이며, 여학생은 남학생과 달리 신체·생물학적으로 활동성과 역동성이 낮아지는 시기이다. 여학생 집단의 건강상태와 신체활동에 대한 가정소득 효과는 이러한 발달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표 8. 건강상태, 신체활동과 학업성적 인과관계 직접효과(남학생/여학생)

경로		남학생 (n = 1,003)				여학생 (n = 986)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가정 소득	→건강상태	.01	.02	.03	.43	.08	.13	.03	2.82**
	→신체활동	.08	.08	.05	1.66	-.02	-.03	.04	-.48
	→학습활동	.17	.25	.03	5.69***	.09	.16	.03	3.67***
	→학업성적	.13	.12	.04	3.37***	.11	.12	.03	3.24**
건강 상태	→신체활동	.59	.41	.12	4.88***	.36	.28	.10	3.48***
	→학습활동	.13	.13	.06	2.19*	.31	.31	.06	5.00***
	→학업성적	-.17	-.11	.08	-2.20*	-.03	-.02	.08	-.39
신체 활동	→학습활동	.17	.25	.05	3.32***	.20	.26	.06	3.57***
	→학업성적	.04	.03	.07	.56	.03	.03	.07	.50
학습 활동	→학업성적	1.27	.76	.11	11.86***	1.19	.74	.11	10.53***

* $p < .05$, ** $p < .01$, *** $p < .001$

건강상태와 신체활동이 학습활동 및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는 신체활동→학업성적 경로가 통계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남학생 모형과 동일한 결과인 반면, 건강상태→학업성적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남학생 모형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학생 모형에서 건강상태→학업성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부적효과인 것과 다른 결과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학생 모형은 건강상태와 신체활동이 모두 학업성적에 직접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상태와 신체활동이 학습활동을 유인하는 방향성을 갖는다면 학업성적에 매우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표 9〉 간접효과 참조).

아동·청소년기 남학생과 다르게 여학생의 경우 신체 및 생물학적 특성 상 활동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역동성보다는 위축되는 성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아동·청소년기 여학생의 건강상태와 신체활동은 학업성적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건강상태와 신체활동 수준은 학습활동과 직접 연계되는 특성이며, 건강상태가 긍정적이거나 신체활동 수준이 높을 경우 학습활동에 직접 관여될 가능성을 시사한 결과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과정이 신체·생물학적 특성이 극적으로 변화되며, 더불어 학업활동 또한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아동·청소년기 건강상태와 신체활동이 학습활동과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건강상태, 신체활동, 학습활동 그리고 학업성적이 공통적으로 가정배경과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가정소득을 외생요인으로 투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모형인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방해오차(ζ)이다. 가정배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상정한 건강상태와 신체활동, 즉 가정소득이 건강상태와 신체활동 수준을 설명하는 수준이 매우 미미하게 나타난 것이다. 가정소득의 건강상태 설명력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형 모두 약 1%, 즉 방해오차가 .99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이 가정소득과는 거의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

정소득, 건강상태, 신체활동이 학습활동과 학업성적을 설명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아동·청소년기 건강상태와 신체활동은 학습활동에 직·간접적 영향요인이지만, 건강상태와 신체활동이 가정소득에 따라 매우 차별적인 특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가정은 그 결론을 유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건강상태, 신체활동과 학업성적 인과관계 간접효과(indirect effects)

경로		남학생(n = 1,003)				여학생(n = 986)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가정소득	→신체활동	.01	.01	.02	.43	.03	.04	.01	2.26*
	→학습활동	.02	.03	.01	1.56	.03	.04	.01	1.98*
	→학업성적	.23	.21	.04	5.96***	.14	.14	.03	4.33***
건강상태	→학습활동	.10	.10	.03	3.05***	.07	.07	.02	3.00***
	→학업성적	.32	.20	.08	4.02***	.47	.29	.08	5.59***
신체활동	→학업성적	.22	.19	.07	3.26***	.24	.19	.07	3.46***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업활동이 집중되는 아동·청소년기가 신체·생물학적 변화가 극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인 점을 근거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기 시점에서 건강상태, 신체활동 그리고 학습활동과 학업성적과의 인과관계로 확인하였다. 즉,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시점의 건강상태와 신체활동이 학습활동과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한 것이다. 특히 건강상태, 신체활동, 학습활동 그리고 학업성적과 공통적으로 연계된 가정소득을 외생요인으로 설정하고, 성별 간의 차이가 드러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의 모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가정소득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형에서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건강상태는 또래 친구들과 비교한 자신의 건강상태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남학생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정소득이 높을수록 여학생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반면, 남학생은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가정소득의 효과에서 가정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경로로 확인된다. 가정소득이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공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정소득 수준에 따라 학교 체육시간에 땀 흘리며 운동한 시간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 학교교육에서 체육시간은 땀 흘리며 운동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가능성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 가정소득이 학습활동과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형에

서 공통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가정소득이 학업활동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상태가 신체활동, 학습활동,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건강상태→학업성적 경로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형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 외 경로는 공통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학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부적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학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부적효과인 것이다. 이 결과는 아동·청소년기 이행시기의 신체·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한 학업활동에의 접근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남학생의 활동성과 역동성이 증가하는 시기에 건강상태가 좋을 경우 학업활동보다 그 이외의 활동에 집중할 가능성이 추정되는 것이다.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활동성과 역동성이 줄어드는 시기이고 따라서 학업활동 이외의 활동 또한 위축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남학생과 여학생 공통적으로 변화가 극적인 이시기에 건강상태에 따른 활동이 학습활동에 집중된다면 학업성적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제고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첨언하면 아동·청소년기 건강상태는 학업활동에 중요한 직접·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학교 체육시간에 땀 흘리며 운동한 시간으로 측정된 신체활동이 학습활동과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형에서 공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신체활동→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학습활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만약 체육시간 운동시간이 학습활동에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신체활동은 학업성적에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핵심은 아동기에서 사춘기로 이행하는 시기, 즉 신체·생물학적 변화가 극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건강상태와 신체활동이 학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건강상태와 신체활동을 측정하는 문항은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건강상태 수준을 4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고, 학교 체육시간에 땀 흘리며 운동한 시간을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기가 신체·생물학적 특성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과도기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측정도구는 다양한 속성의 변화의 속도와 내용을 적절하게 포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경우, 이러한 제한성을 고려해야 하며,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속성을 충분히 고려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영주, 정광호. (2012).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과 건강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4), 265-291.
- 강유진. (2010). 가족 소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과 학교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1(3), 323-339.
- 구인회. (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 5-23.

- 김광혁. (2008). 가족의 경제적 결핍과 구조적 결손, 이웃환경이 청소년기 아동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9(3), 115-138.
- 김윤영, 강성기. (2013). 0교시 체육활동이 중학생들의 체력,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15(1), 45-56.
- 박세운, 윤대현. (2010). 청소년의 체력과 학업성취,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인지능력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9(2), 147-160.
- 신원영, 강현아. (2008).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5(4), 57-87.
- 윤현선. (2006).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사회적 자본이론과 가족매개모델의 비교 검증. *청소년학연구*, 13(3), 107-135.
- 음명옥. (2006). 초등학교생의 체력 및 체력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이민우. (2004). 남녀 초등학교생의 체력요인과 학업성취 수준의 비교분석.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이기봉, 권순용, 박일혁. (201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 연구. NKIS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기종. (2012). 구조방정식모형. 서울: 국민대학교 출판부.
- 장상수. (2008). 가족배경, 문화자본, 성적. *한국사회학*, 42(3), 63-85.
- 장세웅, 정구인, 고전규. (2012). 초등학교생의 체력수준에 따른 정신건강 및 학업성취의 관계.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8(2), 211-221.
- 정옥분. (2004). 발달심리학-전 생애 인간발달. 서울: 학지사.
- 조옥연, 박형길. (2015). 사회경제적 요인이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체육과학연구*, 26(4), 794-804.
- 황혜원. (2016). 청소년의 신체 및 정신건강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37(2), 171-185.
- Blackmore, C. L.(2003). Movement is essential to learning.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 Dance*, 74(9), 22-41.
- Fejgin, N.(1994). Participation in high school competitive sports. *Sports Journal*, 11, 211-230.
- Brooks_Gunn, J., & Paikoff, R.(1993). Sex is a gamble, kissing is a game: Adolescent sexuality, contraception, and sexuality. In S. P. Millstein, A. C. Petersen & E. O. Nightingale(Eds.), *Promoting the health behavior of adolescents*. NY: Oxford University Press.
- Henderson, K. A., & Zivian, M. T.(1995). *The development of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body imag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초등학교 기간 아동 · 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와 소득계층 요인의 영향 분석

김성식*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연구의 초1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교적응 변화 양상과 그에 대한 소득계층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군집분석과 분할구간 2-수준 다층성장모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초등학교 기간 동안 아동 ·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수준은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득 변수는 초등학교 1학년과 고학년 시기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소득 계층의 영향은 학교성적, 부모 애정 등과 같은 다른 배경변수와 관련하여 함께 작용한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계층 아동 · 청소년의 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학교적응, 소득계층, 초등학교, 분할구간 다층성장모형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년 진급에 따른 학교적응 변화 양상을 파악하 학교적응 변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학생들의 소득계층에 따라서 학교적응의 차이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학교적응은 아동·청소년들의 학습과 발달에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적응은 학생들의 안전이나 행복의 측면에서 그 자체로서도 추구되어야 할 가치를 지닌다.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은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행복감을 경험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학교적응은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는 개인 특성, 가정 배경, 학교 경험,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 중에서 가정 배경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는 특별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실제 여러 연구들은 가정 배경이나 부모 관계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최지은·신용주, 2003, 구인회, 2003; 박현선, 1998). 이와 같은 가정 배경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는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또 다른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면

* 교신저자, 서울교육대학교, sskim@snue.ac.kr

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아동·청소년의 생활이 많은 시간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시기와 무관하게 중요하겠지만 초등학교 시기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은 이후의 학교생활과 삶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몇몇 연구들은 아동·청소년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력 격차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류방란, 김성식, 2006; 강혜영 외, 2005). 초등학교에서 성공적인 적응과 생활은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형성시킴으로써 이후 시기에도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적응 과정과 양상은 중학교 진학단계에서 환경적 변화로 인해 급격히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에 이르는 시기에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적응 양상과 그 변화를 면밀히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의 초등학교 1학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1학년 부터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교적응 변화 양상을 파악해보고 이와 같은 학교적응 변화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등과 같이 해당 기간을 구간으로 분할하여 학교적응의 수준과 변화 양상이 가구 소득과 같은 배경 요인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적응

학교적응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보통 학교 환경과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학교 구성원과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김현주, 2011;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으로서는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 규칙의 준수, 수업 활동에 참여 등이 있다(정윤미·장영애, 2009; 김현주, 2011).

사실 이들 영역이 학교적응의 하위 영역인지, 학교적응의 결과인지, 아니면 학교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면이 있다. 예컨대, 교사 관계나 친구 관계 등은 학교적응에 영향 요소일수도 있고 학교적응의 결과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학교적응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과 관련하여 갖게 되는 요소 중 관계적 측면과 결과적 측면을 모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조사체계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학교적응을 수업 활동, 학교 규칙, 친구 관계, 교사 관계 등에서의 적응 수준으로 간주하였다.

2. 학교적응에 대한 영향 요인

학생들의 학교 적응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간주되어

은 요인은 가정 환경 요인이다. 가정 환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 가지는 가정 소득, 가족 형태 등과 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이다(구인회, 2003; 박현선, 1998). 다른 한 가지는 가정의 사회-심리적 환경 요인이다. 예컨대, 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지원, 부모관여, 사회 자본(social capital) 등은 학생들의 학습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지은·신용주, 2003; 이정님, 2008). 당연하겠지만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때 자녀의 학교적응은 보다 수월할 수 있다.

학교적응은 학교에 대해 느끼는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포함하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 특성과 경험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관련 연구들은 학교 내에서 친구 관계, 교사 관계, 학교분위기 등이 학교적응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김현주, 2011; 이정은·조미형, 2007; 최지은·신용주, 2003), 학교에서의 학습수행이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곽수란, 2008).

학교적응과 관련된 경험은 학교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몇몇 연구들은 방과후학교 참여가 교육적 성취와 학교적응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김성식, 2011; 배상훈·김성식·양수경, 2010; Lauer et al., 2006). 또한 방과 후 컴퓨터 게임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사회적 지지나 학업 성적이 낮게 나타난다(윤미선·이영옥, 2005). 이런 점들은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이 학교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해 준다.

Ⅲ. 연구 방법

1. 데이터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1 패널의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2,160명의 표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시기를 포함하고 있다.

2. 변수 구성

가. 종속 변수

종속 변수는 학교 적응이다. 학교 적응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등의 4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4개 영역을 모두 총합하여 전체 학교적응 변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고, 각 영역별 차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하위영역별 변수도 별도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나. 독립 변수

독립 변수는 학생 성별, 학교성적, 지역, 가구소득, 부모 애정(부모 양육방식)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학생 성별과 학교성적은 학생 특성에 해당되는 변수들이다. 학생 성별은 남학생을 기준으로 여학생이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로 구성하였다. 학교 성적은 다른 학생에 비해서 공부를 잘 하는 정도를 조사한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자기 성과와 실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성적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로 볼 수 있으나 1차년도에는 조사되지 않았고 학년 특성에 따라서 매년 과목이 조금씩 다르게 조사되었기 때문에 6개년도의 평균값을 구하여 시간 불변 변수로 사용하였다.

지역은 대도시(특별시와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다만, 장기간의 조사 연구이기 때문에 중간에 지역이 이동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사례는 거주지이동 변수로 별도 설정하였다. 따라서 지역 변수는 읍면지역을 기준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거주이동 등의 변수를 더미 변수로 설정하였다.

가구소득과 부모 애정 변수가 소득 계층과 관련된 변수들이다. 가구소득은 연 소득을 z-점수(평균 0, 표준편차 1)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매년 가구소득의 변화가 있지만 그 편차가 크지 않고 소득 변화와 학교 적응 변화가 밀접하게 연동되어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간주하여 7개년 평균치를 산출하여 학생 수준에서 사용하였다. 부모 애정 변수는 부모의 양육방식 중 애정 변수를 사용한 것이다. 4차년도와 7차년도에 2회 조사되었기 때문에 2번의 점수를 평균하여 학생 수준의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사용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명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학습활동	14,708	3.14	0.49	1.00	4.00
학교규칙	14,708	3.31	0.49	1.00	4.00
교우관계	14,708	3.22	0.46	1.00	4.00
교사관계	14,707	3.34	0.59	1.00	4.00
학교적응(전체)	14,708	3.25	0.41	1.25	4
여학생	2,160	0.48	0.5	0	1
가구소득(연, 만원)	2,160	4783.85	2273.7	0	29,000
가구소득(z-점수)	2,160	-0.01	0.49	-1.04	5.20
학교성적	2,160	3.82	0.45	1.94	4.98
부모애정	2,160	3.32	0.48	1.13	4.00
대도시	2,160	0.36	0.48	0	1
중소도시	2,160	0.37	0.48	0	1
거주지이동여부	2,160	0.11	0.31	0	1

3.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군집분석과 2-수준 다층성장모형(multilevel growth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군집분석은 학생들의 학교적응 양상을 유형화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군집분석에서는 학교적응의 4개 하위요인을 준거변수로 사용하였고, 학년별이 아닌 7개 연도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다음에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집단 유형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2-수준 다층성장모형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중학교의 질적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분할구간 성장모형(piesewise multilevel growth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시기는 아동-청소년의 발달 변화 폭이 큰 시기이므로 시기 구분이 필요하다. 예컨대,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이 다르고, 중학교 1학년 진학은 질적으로 다른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 시간 변수를 3개로 나누어서 투입하였다. 시간에 따른 변화율(변화율), 저학년에 대비한 고학년(초4-6/초1-3), 초등학교에 대비한 중학교(중/초) 등을 추정할 수 있도록 시간 변수를 세분화하여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다층성장모형에 변수를 추가 투입하여 학생들의 학교적응 수준과 변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기초 모형, 소득 변수 투입 모형, 종합 모형 등 3개의 하위 모형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또한 학교적응 전체 점수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하위요인별 차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등의 하위요인별로 별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1. 학교적응 변화 양상

다음 <표 2>와 [그림 1]은 표본 학생들의 학교 적응 수준을 정리한 것이다. 전체 학교적응 수준은 초 1학년부터 중 1학년까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하위 요인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학습활동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초 4학년에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학교 규칙 준수는 초등학교 시기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중학교에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교우관계는 초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저학년 때는 낮아지는 추이를 보였지만 초 4학년 이후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교사관계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계속해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서 중학교 시기에는 학습활동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 1학년 때에는 4개 하위요인의 수준이 차이가 있지만 초 4학년 이후 그 간극이 좁혀지는 경향을 보인다. 하위 요인별 변화 추세의 차이에 의해서 초 1학년 시기에는 교사관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요

인이었지만 중 1학년 때에는 교우 관계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적응 수준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 패턴은 하위요인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학교적응의 학년별 변화 양상: 초 1학년 ~ 중1학년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적응(전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초1	3.27	0.45	3.56	0.40	3.27	0.53	3.63	0.47	3.43	0.37
초2	3.14	0.44	3.44	0.43	3.15	0.47	3.49	0.50	3.31	0.36
초3	3.09	0.43	3.35	0.42	3.14	0.45	3.42	0.52	3.25	0.36
초4	3.19	0.51	3.29	0.52	3.26	0.48	3.26	0.63	3.25	0.44
초5	3.14	0.50	3.19	0.49	3.27	0.44	3.23	0.60	3.21	0.41
초6	3.11	0.51	3.16	0.50	3.24	0.44	3.17	0.63	3.17	0.42
중1	3.01	0.53	3.20	0.50	3.24	0.42	3.14	0.59	3.15	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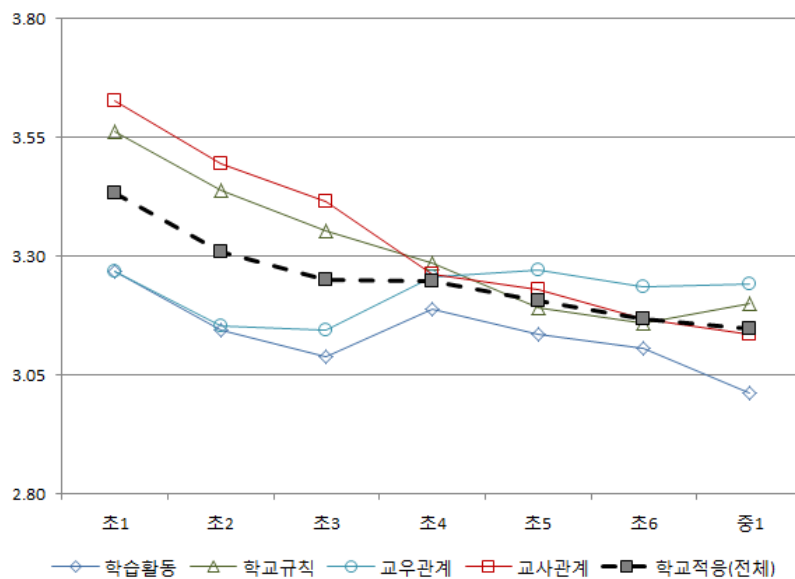


그림 1. 학교적응의 학년별 변화 양상

다음 <표 3>은 군집분석을 통하여 학생들의 적응 양상을 유형화한 결과이다. 군집 수를 2개부터 1개씩 증가시키면서 분류된 집단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7개 이상으로 군집을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이전 결과와의 차이점을 의미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특징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서 <표 3>과 같이 6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집단 1은 대체적으로 낮은 학교적응 수준을 보이는 집단이지만 교사관계 수준이 양호한 집단이다(부적응-교사보완). 집단 2는 4개 하위요인이 모두 낮은 부적응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부적응). 집

단 3은 교사관계는 좋지 못하지만 학교규칙과 교우관계는 비교적 높은 집단이다(교사관계 부적응). 집단 4는 대체로 학교적응 수준이 양호하지만 특히 교사관계가 높은 집단이다(교사관계중심 적응), 집단 5는 모든 하위요인의 수준이 높은 적응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적응). 마지막으로 집단 6은 모든 요인이 중간 수준인 집단이다(중간 적응).

표 3. 학교적응 유형 구분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집단5	집단6
학습활동	2.65	2.33	2.92	3.13	3.65	3.13
학교규칙	2.89	2.48	3.14	3.41	3.80	3.19
교우관계	2.79	2.58	3.11	3.21	3.70	3.16
교사관계	3.17	2.31	2.25	3.74	3.81	3.02

다음 <표 4>는 앞에서 분류한 6개의 집단 비중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제시한 숫치는 해당 학년 전체 사례수에서 해당 집단의 비율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집단 6(중간 적응 집단)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집단 4(교사관계중심 적응집단)과 집단 5(적응 집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1(부적응- 교사보완 집단), 집단 2(부적응 집단), 집단 3(교사관계 부적응 집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적인 추이에서도 보았듯이, 적응 수준이 낮아지면서 적응집단이 감소하고 중간 적응 또는 부적응 집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표 4. 학년별 학교적응 유형 비중의 변화

학년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집단5	집단6	사례수
초1	10.2	2.3	2.6	34.9	40.9	9.0	2,342
초2	13.9	3.3	3.8	38.5	26.4	14.2	2,264
초3	17.1	4.6	4.3	35.9	20.9	17.1	2,199
초4	14.2	7.2	9.1	16.7	31.1	21.7	2,119
초5	16.9	7.3	9.0	16.4	26.0	24.4	2,110
초6	17.6	8.2	10.4	14.3	23.3	26.3	2,067
중1	19.9	8.8	11.7	14.0	21.4	24.2	2,001

2. 학교적응 수준의 변화 분석

이 절에서는 소득계층 변수가 학생들의 학교적응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전체 학교적응 수준을 분석한 후 학교적응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별로 검토하였다.

가. 학교적응 (전체)

다음 <표 5>는 시간 변수만 투입한 기초모형 분석결과이다. 먼저 변화율 계수(-0.066)를 보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학교적응 수준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소 추세에 있어서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에서(초4-6/초1-3),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중/초)에서 좀 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학교적응의 변화 양상

변수명	초1			초4-6 / 초1-3			중 / 초			변화율		
	β	s.e.		β	s.e.		β	s.e.		β	s.e.	
절편	3.394	0.007	***	-0.123	0.007	***	-0.125	0.010	***	-0.066	0.003	***
무선효과	s.d.		var.	df.		χ^2						
1-수준	0.283		0.080									
2-수준 초1	0.266		0.071	1997		4856.422 ***						
초4	0.231		0.053	1997		3915.029 ***						
초6	0.239		0.057	1997		2885.529 ***						
변화율	0.053		0.003	1997		2121.812 *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표 6>은 기초모형에 소득 변수만을 투입한 모형이다. 기초 모형에서 나타난 학교적응 변화 양상에 소득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는 초기 수준(초1)과 고학년 단계에서(초4-6/초1-3) 소득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학교적응에 대한 소득의 영향이 초등학교 계속해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표 6. 학교적응 변화에 대한 가구 소득의 영향

변수명	초1			초4-6 / 초1-3			중 / 초			변화율		
	β	s.e.		β	s.e.		β	s.e.		β	s.e.	
절편	3.394	0.007	***	-0.123	0.007	***	-0.125	0.010	***	-0.066	0.003	***
소득	0.035	0.015	*	0.068	0.014	***	-0.008	0.020		0.003	0.007	
무선효과	s.d.		var.	df.		χ^2						
1-수준	0.283		0.080									
2-수준 초1	0.266		0.071	1996		4842.588 ***						
초4	0.229		0.052	1996		3879.944 ***						
초6	0.239		0.057	1996		2885.452 ***						
변화율	0.054		0.003	1996		2122.236 *						

*: $p < .05$, **: $p < .01$, ***: $p < .001$

다음 <표 7>은 소득 변수와 함께 모든 변수를 투입한 모형의 결과이다. 분석 결과 소득 변수의 계수는 감소하고 유의도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모형에서 나타난 소득 변수의 영향이 학교성적, 부모애정 등과 같은 변수를 매개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변수의 결과를 보면 여학생은 초 1학년 시점에서는 남학생에 비해서 학교 적응수준이 높았지만 이후에는 감소 추세가 남학생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은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단계(중/초)에서 급격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학교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중학교 단계에 들어가서 좀 더 부담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부모 애정 변수는 변화율을 높이지는 않지만 모든 단계에서 긍정적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학교적응 수준이 높지만, 이후 변화에서는 중소도시 학생들이 중학교 단계(중/초)와 전반적인 변화율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학교성적과 유사하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도시지역 학생들이 읍면지역 학생들보다 학교 생활과 학업에서 좀 더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표 7. 학교적응 변화에 대한 배경 변수의 영향

변수명	초1			초4-6 / 초1-3			중 / 초		변화율	
	β	s.e.		β	s.e.		β	s.e.	β	s.e.
절편	3.257	0.018	***	-0.092	0.018	***	0.014	0.025	-0.031	0.009 **
여학생	0.204	0.013	***	-0.116	0.013	***	-0.091	0.019	-0.027	0.007 ***
소득	-0.017	0.014		0.020	0.014		0.007	0.020	-0.002	0.007
학교성적	0.215	0.016	***	0.104	0.016	***	-0.084	0.023	0.036	0.008 ***
부모애정	0.077	0.015	***	0.187	0.015	***	0.064	0.021	-0.013	0.007
대도시	0.025	0.020		0.067	0.020	**	-0.083	0.028	-0.014	0.010
중소도시	0.060	0.020	**	0.006	0.019		-0.131	0.028	-0.036	0.010 ***
거주이동	0.058	0.026	*	-0.007	0.026		-0.132	0.037	-0.024	0.013
무선효과	s.d.		var.	df.		χ^2				
1-수준	0.282		0.080							
2-수준 초1	0.216		0.047	1990		3825.407 ***				
초4	0.191		0.036	1990		3313.231 ***				
초6	0.229		0.053	1990		2817.528 ***				
변화율	0.054		0.003	1990		2090.036				

*: $p < .05$, **: $p < .01$, ***: $p < .001$

나. 하위요인별 분석

앞의 학교적응 변화 양상에서 보듯이 초 1학년부터 중 1학년까지 학교적응의 변화 추이가 하위요인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학교적응의 하위요인별로 전체 학교적

응 분석에서 적용한 모형을 반복 분석하였다.

1) 학습활동

학습활동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변화율 계수를 보면 학습활동 수준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소 추세에 있어서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에서(초4-6/초1-3),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중/초)에서 좀 더 감소하는 경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8. 학습활동의 변화 양상

변수명	초1			초4-6 / 초1-3			중 / 초			변화율		
	β	s.e.		β	s.e.		β	s.e.		β	s.e.	
절편	3.231	0.009	***	-0.024	0.008	**	-0.196	0.012	***	-0.065	0.004	***
무선효과		s.d.	var.		df.							
1-수준		0.351	0.123									
2-수준 초1		0.291	0.084		1997			4237.778	***			
초4		0.258	0.066		1997			3519.541	***			
초6		0.315	0.100		1997			2986.277	***			
변화율		0.066	0.004		1997			2112.625	*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표 6>은 기초모형에 소득 변수만을 투입한 모형이다. 기초 모형에서 나타난 학습활동 변화 양상에 소득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는 전체 분석과 마찬가지로 초기 수준(초1)과 고학년 단계(초4-6/초1-3)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학습활동에 대한 소득의 영향이 초등학교 계속적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9. 학습활동 변화에 대한 가구 소득의 영향

변수명	초1			초4-6 / 초1-3			중 / 초			변화율		
	β	s.e.		β	s.e.		β	s.e.		β	s.e.	
절편	3.231	0.009	***	-0.024	0.008	**	-0.196	0.012	***	-0.065	0.004	***
소득	0.069	0.017	***	0.058	0.017	**	0.009	0.025		0.000	0.008	
무선효과		s.d.	var.		df.							
1-수준		0.351	0.123									
2-수준 초1		0.289	0.083		1996			4201.578	***			
초4		0.256	0.066		1996			3503.171	***			
초6		0.316	0.100		1996			2986.916	***			
변화율		0.067	0.004		1996			2113.070	*			

*: $p < .05$, **: $p < .01$, ***: $p < .001$

다음 <표 10>은 모든 변수를 투입한 모형의 결과이다. 분석 결과, 소득 변수의 계수는 감소하고 유의도도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활동 수준에 대한 소득 변수의 영향이 학교성적, 부모애정 등과 같은 변수를 매개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변수의 결과를 보면 여학생은 초 1학년 시점에서는 남학생에 비해서 학교 학습활동 수준이 높았지만 이후에는 감소 추세가 남학생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은 학교 학습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초등학교와 대비할 때 중학교(중/초)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 학교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학교 학습활동에 적응하는 정도는 단계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 애정 변수는 변화율을 높이지는 않지만 모든 단계에서 긍정적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초기에는 도시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변화에서는 중소도시 학생들이 중학교 단계(중/초)와 전반적인 변화 정도(변화율)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도시에서는 고학년 단계(초4-6/초1-3)에서는 유리함을 주지만 중학교 단계(중/초)에서는 불리함을 제공한다. 이는 도시 지역이 읍면지역보다 학습 경쟁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표 10. 학습활동 변화에 대한 배경 변수의 영향

변수명	초1			초4-6 / 초1-3			중 / 초		변화율	
	β	s.e.		β	s.e.		β	s.e.	β	s.e.
절편	3.109	0.021	***	0.015	0.021	***	-0.042	0.032	-0.036	0.011 **
여학생	0.198	0.015	***	-0.121	0.016	***	-0.133	0.024	-0.033	0.008 ***
소득	0.007	0.016		-0.002	0.016		0.013	0.025	-0.007	0.009
학교성적	0.288	0.019	***	0.175	0.019	***	-0.039	0.029	0.037	0.010 ***
부모애정	0.052	0.017	**	0.174	0.017	***	0.077	0.027	0.005	0.009
대도시	0.012	0.023		0.057	0.023	*	-0.074	0.036	-0.007	0.012
중소도시	0.044	0.023		0.006	0.023		-0.123	0.035	-0.025	0.012 *
거주이동	0.041	0.030		-0.021	0.031		-0.137	0.047	-0.013	0.016
무선효과	s.d.		var.	df.			χ^2			
1-수준	0.350		0.123							
2-수준 초1	0.231		0.053	1990			3356.324 ***			
초4	0.213		0.046	1990			3019.091 ***			
초6	0.306		0.094	1990			2918.143 ***			
변화율	0.064		0.004	1990			2084.217			

*, $p < .05$, **, $p < .01$, ***, $p < .001$

2) 학교규칙 준수

학교 규칙 준수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변화율 계수를 보면 학교 규칙 준수 수준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소 추세에 있어서 저학년보다 고학년에서(초4-6/초1-3),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중/초)에서 보다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학교 규칙 준수에 대해서 점점 더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학교규칙 준수의 변화 양상

변수명	초1			초4-6 / 초1-3			중 / 초			변화율		
	β	s.e.		β	s.e.		β	s.e.		β	s.e.	
절편	3.394	0.007	***	-0.123	0.007	***	-0.125	0.010	***	-0.066	0.003	***
무선효과		s.d.	var.		df.							
1-수준		0.283	0.080									
2-수준 초1		0.266	0.071		1997			4856.422	***			
초4		0.231	0.053		1997			3915.029	***			
초6		0.239	0.057		1997			2885.529	***			
변화율		0.053	0.003		1997			2121.812	*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표 12>는 기초모형에 소득 변수를 투입한 모형이다. 분석 결과는 저학년보다는 고학년 단계에서(초4-6/초1-3) 소득이 높은 집단이 학교규칙 준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다른 단계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규칙 준수에 대한 소득의 영향이 초등학교 고학년 단계에서 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2. 학교규칙 준수 변화에 대한 가구 소득의 영향

변수명	초1			초4-6 / 초1-3			중 / 초			변화율		
	β	s.e.		β	s.e.		β	s.e.		β	s.e.	
절편	3.534	0.008	***	-0.240	0.008	***	-0.097	0.012	***	-0.085	0.004	***
소득	0.015	0.016		0.068	0.017	***	0.021	0.025		0.011	0.009	
무선효과		s.d.	var.		df.							
1-수준		0.369	0.136									
2-수준 초1		0.243	0.059		1996			3381.501	***			
초4		0.240	0.058		1996			3204.717	***			
초6		0.286	0.082		1996			2739.102	***			
변화율		0.050	0.002		1996			2040.810				

*: $p < .05$, **: $p < .01$, ***: $p < .001$

다음 <표 13>은 모든 변수를 투입한 모형의 결과이다. 분석 결과, 학교규칙 준수에 대한 소득 변수의 계수는 감소하여 유의도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를 통제할 경우 초기 수준(초1)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규칙 준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규칙 준수에 대해서 소득이 별다른 영향이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소득이 높은 집단이 규칙 준수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변수의 결과를 보면 여학생은 초 1학년 시점에서는 남학생에 비해서 학교규칙 준수 수준이 높았지만 이후에는 감소 추세가 남학생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은 학교규칙 준수에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지만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단계(중/초)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는 학교성적이 높은 학생들의 높은 학교규칙 준수 정도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 애정 변수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규칙 준수 변화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에서 긍정적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간 애착 관계 형성이 학생들의 학교규칙 준수에 대해 평소에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기여하지는 않지만 중요 시점에서는 일정 정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적으로는 초기에는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높았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도시 지역 학생들이 읍면지역보다 학교규칙 준수 정도가 좀 더 쉽게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3. 학교규칙 준수 변화에 대한 배경 변수의 영향

변수명	초1			초4-6 / 초1-3			중 / 초		변화율	
	β	s.e.		β	s.e.		β	s.e.	β	s.e.
절편	3.378	0.020	***	-0.210	0.022	***	0.041	0.032	-0.049	0.011 **
여학생	0.159	0.015	***	-0.072	0.016	***	-0.026	0.024	-0.006	0.008 ***
소득	-0.032	0.016	*	0.023	0.017		0.040	0.025	0.008	0.009
학교성적	0.184	0.018	***	0.109	0.019	***	-0.100	0.029	0.042	0.010 ***
부모애정	0.060	0.017	**	0.163	0.018	***	0.085	0.027 **	-0.025	0.009 **
대도시	0.074	0.023	**	0.059	0.024	*	-0.138	0.036 ***	-0.028	0.013 *
중소도시	0.106	0.022	***	-0.029	0.024		-0.148	0.036 ***	-0.047	0.012 *
거주이동	0.115	0.030	***	-0.052	0.031		-0.172	0.048 **	-0.038	0.016 *
무선효과	s.d.		var.	df.		χ^2				
1-수준	0.368		0.135							
2-수준 초1	0.206		0.042	1990		2950.167 ***				
초4	0.211		0.045	1990		2921.829 ***				
초6	0.281		0.079	1990		2706.309 ***				
변화율	0.052		0.003	1990		2022.543				

*: $p < .05$, **: $p < .01$, ***: $p < .001$

3) 교우관계

〈표 14〉의 변화율 계수를 보면 교우관계 수준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소 추세에 있어서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에서(초4-6/초1-3) 향상되는 경향이 있고, 중학교 단계(중/초)에서 더 큰 감소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교우관계의 변화 양상

변수명	초1			초4-6 / 초1-3			중 / 초			변화율		
	β	s.e.		β	s.e.		β	s.e.		β	s.e.	
절편	3.223	0.010	***	0.066	0.008	***	-0.049	0.011	***	-0.036	0.004	***
무선효과	s.d.		var.	df.			χ^2					
1-수준	0.359		0.129									
2-수준 초1	0.346		0.120	1997			5029.261		***			
초4	0.246		0.060	1997			3316.509		***			
초6	0.153		0.023	1997			2190.849		**			
변화율	0.078		0.006	1997			2166.665		**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표 15〉는 소득 변수를 투입한 모형이다. 분석 결과는 저학년보다 고학년에서(초4-6/초1-3)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교우관계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경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교우관계 형성에서 소득의 영향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표 15. 교우관계 변화에 대한 가구 소득의 영향

변수명	초1			초4-6 / 초1-3			중 / 초			변화율		
	β	s.e.		β	s.e.		β	s.e.		β	s.e.	
절편	3.223	0.010	***	0.066	0.008	***	-0.049	0.011	***	-0.036	0.004	***
소득	0.035	0.019		0.072	0.017	***	-0.026	0.022		0.006	0.009	
무선효과	s.d.		var.	df.			χ^2					
1-수준	0.359		0.129									
2-수준 초1	0.346		0.119	1996			5019.777		***			
초4	0.244		0.059	1996			3292.199		***			
초6	0.153		0.023	1996			2189.194		**			
변화율	0.078		0.006	1996			2166.721		**			

*: $p < .05$, **: $p < .01$, ***: $p < .001$

〈표 10〉의 분석 결과를 보면, 교우 관계에 대한 소득 변수의 영향은 다른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에서(초4-6/초1-3)에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교우

관계 수준에 대한 소득 변수의 영향이 학교성적, 부모애정 등과 같은 다른 변수와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변수의 결과를 보면 여학생은 초 1학년 시점에서는 남학생에 비해서 교우관계 수준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후에는 남학생보다 감소 추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은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만(중/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중학교 진학 이후 교우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부모 애정 변수는 변화율을 높이지는 않지만 모든 단계에서 긍정적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교우관계 수준에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중소도시의 경우에 중학교 단계에서(중/초) 읍면지역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학생들 간의 교우관계 형성이 지역적 영향 요인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6. 교우관계 변화에 대한 배경 변수의 영향

변수명	초1		초4-6 / 초1-3				중 / 초		변화율	
	β	s.e.	β	s.e.	β	s.e.	β	s.e.		
절편	3.118	0.024 ***	0.103	0.021 ***	0.026	0.028	-0.013	0.011		
여학생	0.203	0.018 ***	-0.119	0.016 ***	-0.063	0.021 **	-0.033	0.008 ***		
소득	-0.018	0.019	0.033	0.017 *	-0.005	0.022	0.000	0.009		
학교성적	0.236	0.021 ***	0.062	0.019 **	-0.127	0.025 ***	0.029	0.010 **		
부모애정	0.084	0.020 **	0.183	0.018 ***	0.058	0.024 *	-0.009	0.010		
대도시	-0.024	0.027	0.058	0.024 *	-0.012	0.031	0.011	0.013		
중소도시	0.031	0.026	0.007	0.023	-0.089	0.031 **	-0.024	0.013		
거주이동	0.035	0.035	-0.029	0.031	-0.043	0.042	-0.011	0.017		
무선효과										
	s.d.	var.	df.	χ^2						
1-수준	0.357	0.128								
2-수준 초1	0.305	0.093	1990	4319.819	***					
초4	0.215	0.046	1990	2986.570	***					
초6	0.140	0.020	1990	2153.812	**					
변화율	0.077	0.006	1990	2149.891	**					

*, $p < .05$, **, $p < .01$, ***, $p < .001$

4) 교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7>에 제시되어 있다. 변화율 계수를 보면 교사와의 관계 수준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소 추세에 있어서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에서(초

4-6/초1-3),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중/초)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교사와의 관계 수준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7. 교사관계의 변화 양상

변수명	초1		초4-6 / 초1-3		중 / 초		변화율	
	β	s.e.	β	s.e.	β	s.e.	β	s.e.
절편	3.587	0.010 ***	-0.292	0.010 ***	-0.160	0.015 ***	-0.077	0.005 ***
무선효과	s.d.		var.		df.		χ^2	
1-수준	0.463		0.214					
2-수준 초1	0.270		0.073		1997		3068.352 ***	
초4	0.287		0.082		1997		3082.963 ***	
초6	0.337		0.114		1997		2683.598 ***	
변화율	0.065		0.004		1997		2152.278 **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표 18>은 소득 변수만을 투입한 모형이다. 분석 결과는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에서(초 4-6/초1-3) 소득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 수준을 높이는 영향이 작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소득의 영향이 모든 시기에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고학년과 같은 특정 시점에 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표 18. 교사관계 변화에 대한 가구 소득의 영향

변수명	초1		초4-6 / 초1-3		중 / 초		변화율	
	β	s.e.	β	s.e.	β	s.e.	β	s.e.
절편	3.587	0.010 ***	-0.292	0.010 ***	-0.160	0.015 ***	-0.077	0.005 ***
소득	0.020	0.020	0.074	0.021 **	-0.038	0.031	-0.006	0.011
무선효과	s.d.		var.		df.		χ^2	
1-수준	0.463		0.214					
2-수준 초1	0.270		0.073		1996		3067.319 ***	
초4	0.285		0.081		1996		3063.896 ***	
초6	0.337		0.114		1996		2681.508 ***	
변화율	0.066		0.004		1996		2151.693 **	

*: $p < .05$, **: $p < .01$, ***: $p < .001$

다음 <표 19>는 모든 변수를 투입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소득 변수의 계수는 감소하고 유의도도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나타났던 소득 변수의 영향이 학교성적, 부모 애정 등과 같은 변수를 매개해서 교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변수의 결과를 보면 여학생은 초 1학년 시점에서는 남학생에 비해서 교사관계 수준이 높았지만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서는 남학생보다 크게 나타났다.

학교성적은 교사와의 관계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의 차이(중/초)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애정 변수는 교사와의 관계 수준을 높이는 데 작용하지는 않지만 고학년 시기에(초4-6/초1-3) 좀 더 긍정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초등학교 시기에는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중학교 시기에서는(중/초) 반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 지역이 읍면지역보다 관계적 측면에서 친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9. 교사관계 변화에 대한 배경 변수의 영향

변수명	초1			초4-6 / 초1-3			중 / 초			변화율	
	β	s.e.		β	s.e.		β	s.e.		β	s.e.
절편	3.423	0.024	***	-0.277	0.026	***	0.030	0.040		-0.027	0.014
여학생	0.256	0.018	***	-0.153	0.020	***	-0.143	0.030	***	-0.037	0.010 **
소득	-0.026	0.019		0.027	0.021		-0.021	0.031		-0.008	0.011
학교성적	0.158	0.022	***	0.062	0.024	**	-0.067	0.036		0.031	0.013 *
부모애정	0.111	0.020	***	0.232	0.022	***	0.034	0.033		-0.019	0.012
대도시	0.040	0.027		0.093	0.030	**	-0.107	0.044	*	-0.031	0.016 *
중소도시	0.058	0.027	*	0.043	0.029		-0.165	0.044	***	-0.047	0.016 **
거주이동	0.037	0.035		0.080	0.039	*	-0.175	0.059	**	-0.029	0.021
무선효과	s.d.		var.	df.		χ^2					
1-수준	0.462		0.214								
2-수준 초1	0.213		0.045	1990		2644.582		***			
초4	0.247		0.061	1990		2797.889		***			
초6	0.323		0.104	1990		2624.998		***			
변화율	0.063		0.004	1990		2123.858		*			

*: $p < .05$, **: $p < .01$, ***: $p < .001$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의 초등학교 1학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7년의 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교적응 변화 양상을 파악해보고 이와 같은 학교적응 변화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등과 같이 기간을 분할하여 학교적응의 수준과 변화 양상이 가구 소득과 같은 배경 요인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군집분석과 분할구간 2-수준 다층성장모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인 학생들의 학교적응 수준은 초 1학년부터 중 1학년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런 감소 추세는 하위 요인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 1학년 때에는 하위요인 간에 비교적 차이가 크게 나타났지만 초 4학년 이후 그 간극이 좁혀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초 1학년 시기에는 교사관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요인이었지만 중 1학년 때에는 교우 관계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분석을 통하여 적응 양상을 범주해본 결과 6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학년일 올라가면서 학생들의 학교적응 양상은 적응 집단은 감소하고 중간 적응 또는 부적응 집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분할구간 2-수준 다층모형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학교적응 수준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러한 결과가 학교적응 수준이 낮아진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인지 기준이 달라져서(즉 높아져서) 나타난 현상인지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인지 기준의 향상으로 감소 추세가 나타난 것이라고 해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교적응에 대한 만족 수준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의 의미는 시기별, 하위요인별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들에게 보이는 학교적응 수준의 감소 추세는 초등학교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에서(초4-6/초1-3),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중/초)에서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학교적응에 대한 소득의 영향은 초기 수준(초1)과 고학년 단계에서(초4-6/초1-3) 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하위요인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학습활동을 제외하고 다른 3개 요인들에서는 초기 수준에 나타나지 않고 고학년 단계에서만(초4-6/초1-3) 소득의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다른 배경변수를 함께 투입한 모형에서는 이와 같은 소득의 효과가 학교성적이나 부모애정과 같은 변수를 통하여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저소득계층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먼저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적응을 잘 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사와의 관계 향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사와의 관계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 눈에 띄는 정도로 감소폭이 크며, 학생들의 학교적응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사보다는 학생중심으로 변화해간다. 이런 변화가 자연스러운 현상일수 있겠지만 아동·청소년과 성인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 경험은 이후 사회생활을 수행해 나가는 데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측면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요소들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저소득계층 학생에 대한 학교적응 지원이 시기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소득계층의 효과는 주로 특정 시기(초등학교 초기)가 주로 나타난다. 이런 점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상교육 정책이 조기 개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중요한 시기에 교육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어떤 시기에 소득의 효과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좌우되는가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저소득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은 가정 및 지역과 연계된 지원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학교적응에 대한 소득의 영향은 지역변수나 가정 부모관계 변수가 투입되면 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소득의 영향이 이러한 과정적 요소를 매개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점은 저소득층 교육지원 정책이 지역과 가정이 연계되어 실행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넷째, 저소득계층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위한 지원은 무엇보다 학습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는 학교성적이 학교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교적응을 유리하게 하는 소득의 영향은 학생의 학교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소득 차이에 의한 학교적응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습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초등학교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적응 수준은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저소득계층 아동들은 초기 시기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다른 아동들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이와 같은 학교적응에 대한 소득 변수의 영향은 학교성적, 부모애정 등과 같은 다른 배경변수와 관련하여 작용한다. 따라서 저소득계층 아동에 대한 학교적응 지원에서 이와 같은 특성들을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좀 더 세밀한 후속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영혜, 김미숙, 이영, 남기곤, 김동춘(2005).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분야 대책 수립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곽수란(2008). 학업수행에 따른 학교적응도 추이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8(1), 1-20.
- 구인회(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 5-22.
- 김성식(2012). 학생 배경과 방과후 활동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 적응도 차이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2(3), 27-47.
- 김현주(2011). 빈곤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영향요인 비교분석연구. 학교사회복지, 20, 1-22.
- 류방란·김성식(2006).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발달메커니즘. 청소년학연구, 5(3), 147-165.
- 배상훈·김성식·양수경(2010). 방과후학교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 및 학업성취 수준과의 관계. 교육행정학연구, 28(2), 55-79.
- 윤미선·이영옥(2005). 남·여 중학생의 사회적지지 지각, 컴퓨터게임중독, 학업성적간 관계모형 비교. 교육방법연구, 17(2), 183-196.
- 이경남(2008).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211-224.
- 이정은·조미형(2007). 남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3), 79-12.
- 정윤미·장영애(2009).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가정관련 변인의 영향력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1), 91-102.
- 최지은·신용주(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 Ladd, G. W., B. J. Kochenderfer, and C. C. Coleman(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103-1118.
- Lauer, P. A., M. Akiba, S. B. Wilerson, H. S. Apthorp, D. Snow & M. L. Martin-Glenn(2006). Out-of-school time programs: A meta-anlaysis of effects for at-risk student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6, 275-313.

제 ② 주제

부모/가족관계



1.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부모-친구관계 및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3.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삶의 목표의 특성에 관한 연구

부모의 긍정적 · 부정적 양육태도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부모-친구관계 및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정민* · 강상**

발표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함. (67-84쪽)

*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시간강사

**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시간강사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백은리* · 이숙**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과보호, 학대, 합리적 설명), 청소년의 또래애착, 우울 및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중학교 1학년 1,944명(남 1,006, 여 938)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초1패널 7차(2016년)년도 조사대상자이다.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 첫째, 또래애착에 대한 경로를 살펴보면, 학대는 부적 영향을, 합리적설명은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과보호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우울에 대한 경로를 살펴보면, 과보호와 학대는 정적 영향을, 합리적 설명과 또래애착은 부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자아존중감에 대한 경로를 살펴보면, 과보호와 학대는 부적 영향을, 합리적 설명과 또래애착은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또래애착은 우울, 자아존중감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방식을 이용하여 최종모형의 분석결과로 제시된 경로의 효과성을 분해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또래애착은 부모의 학대, 합리적설명,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우울, 자아존중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발달단계로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인지적·정서적·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그 어느 발달단계보다도 적응과 발달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는 시기이며, 발달 이론가들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급격한 변화와 과다한 과업 그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 상태, 역할 혼란, 복잡한 적응 문제 등이 야기된다고 지적하였다(Erikson, 1968; Lloyd, 1985). 이러한 과도기에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는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를 대표하는 주된 심리적 특성으로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우울은

*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석사과정

**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sookleej@hanmail.net

청소년기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신질환 중 하나로서(Tasmas, Kay, & Lieberman, 1996),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서적 상태이며, 가벼운 기분의 변화에서 정신적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Turner, 1984). 최근 발표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결과(제12차, 2016)를 살펴보면, 중·고등학생들의 우울감 경험률(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은 여학생이 30.5%로 남학생 20.9%보다 높았으며, 고등학생(남 23.1%, 여 32.9%)이 중학생(남 18.2%, 여 27.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우울로 인한 낮은 자존감과 절망감은 자살행동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요인으로도 알려지고 있다(Kutcher & Marton, 1989).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연구주제로서 꾸준히 관심을 받아온 중요한 발달적 특성 중 하나이다.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평가하는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이후의 사고, 정서, 행동,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자아존중감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그 사건에 대한 기억도, 이로 인한 자신의 평가와 느낌이 달라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하느냐가 달라진다고(장혜경, 송현주, 2009).

한편 많은 연구자들은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보호요인과 중요한 영향 요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Ramirez, 1998; 박현선, 1999; 신정미, 황혜원, 2006). 그 결과 가장 일차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 것이 바로 가정이며, 그 안에서도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Raja, McGee & Stanton, 1992; Kostecky, 2005). 즉,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개인의 발달과 적응이 달라진다는 것이다(이재경, 2010). 염유식 교수팀이 발표한 '2016년도 제8차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결과 한국의 청소년이 조사대상인 OECD회원국 22개국 중 주관적 행복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화목한 가족'을 꼽는 경우가 많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은 '돈'을 꼽는 비율이 높았고, 화목한 가족을 선택한 경우 느끼는 행복감은 돈을 선택한 경우보다 초등학생 32.2%로 중학생 23.4%, 고등학생 23.3% 보다 높았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는 성적이나 집안의 경제 수준보다는 부모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에는 성적, 경제수준과 관계없이 행복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6). 특히 최근에는 부모의 과보호와 학대가 청소년의 적응 및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부모의 과보호 양육방식 결과로 인해 나약하고, 자기 통제력이 약하며, 의존적이면서 자기중심적인 자녀가 양육되어진다고 하였고(정은영, 장성숙, 2008), 부모의 학대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아동은 높은 반사회적 행동, 낮은 공감능력, 낮은 자기조절 능력, 낮은 자존감을 보인다고 하였다(Polanin, Espelage & Pigott, 2012). 반면에, 합리적설명은 자녀가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기 때문에 외로움을 덜 느끼며 불안이나 사회적 위축과 같은 행동이 덜 나타나며(김정은, 박희연, 2011), 부모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으로 반응하면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여 표현하므로 만족스러운 사회관계를 형성한다고 보았다(장영애, 이영자, 2009). 이에, 청소년들의 가장 중요한 타자인 부모로부터 과보호나 학대를 받지 않고, 합리적 설명 방식으로 양육될수록 자아존중감은 높고, 우울감은 낮아지며, 만족스러운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기는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면서 많은 시간을 또래와 함께 지내게 되므로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안정된 또래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주요한 발달과업이 된다. 이 시기 또래관계는 성숙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주며, 자신이 주위로부터 사회,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통해서 안정된 정서를 갖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신감을 높여준다(고운주, 김영신, 노주선, 2000).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과의 어울림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또래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른 아이들도 자신과 같은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죄의식이나 긴장이 감소되므로 또래관계는 매우 중요하다(최지은, 신용주, 2003). 이 시기에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과 이타적인 행동을 기르도록 돕고(Eisenberg, Fabes & Carlo, 1992), 건전한 또래애착은 이후 원만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의 바탕이 된다. 그리고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우울, 불안수준이 낮고 심리사회적 적응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Armsden & Greenberg, 1987). 또한, 또래애착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로 인해 사회적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도 한다(이주희, 이춘재, 2003). 즉, 친구의 지지는 낮은 수준의 불안, 위축, 미성숙한 행동과 상관이 있고(유안진, 한미현, 1996),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하였다 (오송희, 1998).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또래애착은 매우 중요하지만, 부모와의 관계 역시 청소년들의 적응 및 발달에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rmsden & Greenbert, 1987; 황창순, 2006). 예컨대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자 할 때 부모는 여전히 안전기저로 의존하며, 위협을 느끼거나 질병으로 고통 받을 때 애착체계는 재활성화 됨으로(Bowlby, 1998; 오혜진, 2006) 청소년기 자녀에게 부모와의 관계는 직접 영향이 감소되더라도 부모의 양육자, 훈육자로서의 감시와 코칭 행동을 통해서 자녀가 또래에 대해 반응하는 것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자녀에 대한 영향이 여전히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며, 또래애착을 매개변수로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에 직·간접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부모의 양육방식과 또래 애착 및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2. 연구가설 및 모형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또래애착,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 부모의 양육방식 하위요인인 과보호, 학대, 합리적설명을 선정하였고, 매개변수로 또래애착을, 종속변수로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 하위요인인 우울, 자아존중감을 선정하여 가설적인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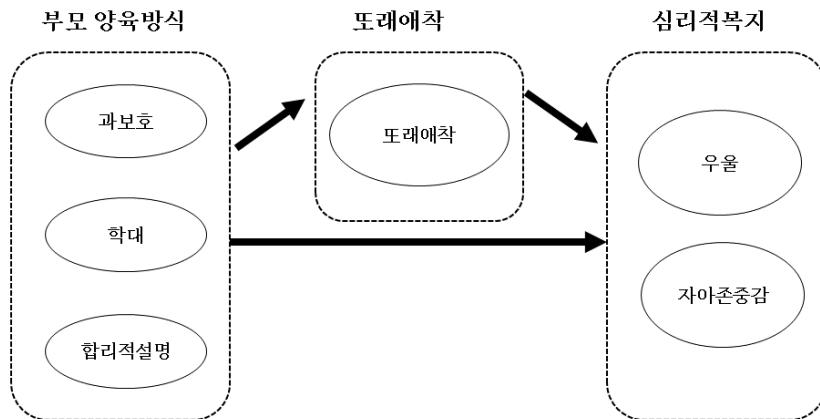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1. 심리적 복지의 개념 및 하위요인

심리적 복지(Psychological Well-being)는 안녕(well-being), 복지(welfare), 만족(satisfaction), 행복(happiness)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Schuessler, 1995), 이때 복지(welfare)라는 개념은 개인의 지각된 주관적인 행복감 또는 총체적인 감정을 강조하는 용어라는 점에 대체로 합의하고 있다(McDowell & Newell, 1990). Bryant와 Veroff(1982)는 심리적 복지를 생활 경험에 대한 반응과 정신 건강에 대한 자기 지각으로서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심리적 복지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김영혜, 2000; 변은주, 2000)라고 하거나, 인생 전반 혹은 인생 전체에 대한 행복이나 만족 정도로 감정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포함(조금숙, 2000)하였고,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우울증, 외로움으로 구성하여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포괄(이현지, 남현주, 2003)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복지를 긍정적 측면에서 자아존중감을 선정하고, 부정적 측면에서 우울을 선정하여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2.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부모의 양육 방식과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

부모의 양육방식은 부모-자녀 관계 연구에서 가장 오래된 주제로,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며, 양육의 특성이 자녀의 심리적 발달과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박성연, 이숙, 1990). 부모의 양육방식은 청소년기에도 적절한 성장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는

데, 그 중 과보호와 아동학대는 대표적인 부정적인 양육방식으로 들 수 있다.

부모의 과보호는 자녀의 내재적, 외재적 문제 행동을 야기하고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하는 양육방식으로(심중옥, 2011), 독립심이 강해져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자율성이 고조되는 청소년기에 부모가 지나치게 보호, 통제, 간섭을 할 경우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그로인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박은조, 2000; 김아영, 이명희, 2008). 또한, 어머니의 과보호를 높게 지각하는 집단과 낮게 지각하는 집단을 비교해본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를 높게 지각하는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심중옥, 2011).

최근 정신병리를 가진 청소년들의 부모 양육태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를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고 있다.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울감 등을 경험하며, 성인이 되어서도 인간관계의 어려움, 정신건강, 사회 부적응, 범죄행동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폭력성이 내재화되어 이후 폭력적인 행위와 비행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우울감으로 인해 약물남용의 문제, 자살에 대한 생각과 자살 시도를 자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홍영수, 2010; Braquehais, M. D., Oquendo, M.A., Baca-Garcia, E. & Sher, L. 2010; Brezo, 2008; Colman & Widom, 2004; Wilson & Widom, 2009). 자녀가 부모로부터 거부를 경험하는 것은 자기 자신, 타인, 대인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낮게 지각하고, 다른 사람의 정서표현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며,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을 갖게 된다(Rohner, 2004).

한편, 합리적 설명 양육방식은 Baumrind(1971)의 민주적 양육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자녀에게 적절한 규칙과 행동을 기대하며, 이와 동시에 자녀의 시각에서 이러한 규칙과 가치들에 대해 기꺼이 설명해주는 것이다(이예은, 2013). Cummings과 Davies(1994)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방식이 자녀에게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자극을 제공될 때 사회·정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부모가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가정의 아동은 대부분 적극적이고 경쟁적이며, 독창적이고 외향적인 경향이 있으며(유영희, 1979), 어머니가 애정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대할 때 아동의 문제행동은 적게 나타난다(강차연, 1999)고 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양육방식이 긍정적일수록 사회성은 증가하고 정서적인 문제행동이 감소하며(김민형, 2016; 김인숙, 김유진, 김영희, 2010), 책임감이 강하고 유능하며 독립적이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자녀가 되고(이숙, 우희정, 최진아, 이춘아, 2002),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여 표현하므로 만족스러운 사회관계를 형성한다고 보았다(장영애, 이영자, 2009).

2) 또래애착과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

청소년기는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면서 많은 시간을 또래와 함께 지내게 되므로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안정된 또래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주요한 발달과업이 된다. 이 시기 또

래관계는 성숙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주며, 자신이 주위로부터 사회·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통해서 안정된 정서를 갖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신감을 높여준다(고운주, 김영신, 노주선, 2000).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과 이타적인 행동을 기르도록 돕고(Eisenberg, Fabes & Carlo, 1992), 원만한 대인관계형성과 사회생활의 바탕이 된다.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우울, 불안수준이 낮고 심리사회적 적응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Armsden & Greenberg, 1987).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4년간의 종단연구 결과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개인별, 시기별로 변화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또래애착이 높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손은경, 2011). 또한,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대한 연구결과 청소년의 높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우울에 또래애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오송희, 1998).

애착관계에 기초한 연구들에서 초기 관계 형성에 있어 우울한 사람은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관심을 덜 받았거나 과도하게 받았거나, 적대적이고 학대적인 행동을 더 많이 경험했다고 하였다(한상희, 2005). 또래관계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은 중퇴, 비행, 범죄, 약물남용, 외로움, 사회불안, 우울 등과 같이 부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Beam, Gilrivas, Greenerger & Chen, 2002). 즉, 또래와의 애착정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위축, 신체증상, 우울, 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 문제, 주의집중, 비행, 공격성,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충 문제행동 등 모든 영역에서 문제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김현순, 2005), 또래애착 경험이 낮을수록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2006), 또래로부터 인정을 적게 받는 청소년들이 더 높은 우울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eam et al., 2002).

3.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 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적 역할

청소년기에는 ‘가족’을 넘어서 ‘또래’라는 새로운 관계의 확장이 이루어지며, 부모-자녀관계와 또래관계라는 두 개의 사회적 관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될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에서의 경험은 또래관계의 기초가 된다(김민수, 2012).

McElwain과 Booth-LaForce(2008)는 아동-어머니 간 애착 안정성과 우정의 질 사이에 또래 유능성이 매개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박애규(2008)는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우울 및 대인불안 사이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이 부분 매개하였으며 이는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감독, 애정, 합리적설명)일수록 또래애착이 높고 안정되며, 부정적(과잉기대)일수록 또래애착이 낮은 결과로 나타났다(김민수, 2012).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감독, 애정, 합리적설명)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하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과잉기대, 과잉간섭, 비밀관성)에서는 완전매개 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긍정/부정)→또래애착→자아존중감의 경로에서는 이중매개로 나타났다(김현주, 2014). 또래애착 중 또래 소외가 부모의 학대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하고(서유정, 2016),

부모의 학대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또래 신뢰 및 소외가 부분매개하며 또래의사소통은 유의하지 않다고 하였다(함선미, 2016). 부모애착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은 부분 매개하였는데, 이는 부모에 대한 높은 애착은 청소년의 우울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동시에 또래 애착을 높여주어 우울을 감소하게 하는 간접효과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정, 2016).

앞서 살펴본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 부모의 양육방식과 또래애착, 또래애착과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를 고려할 때 또래애착은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심리적 복지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또래애착,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초1패널 7차년도 자료(2016년)를 이용하였다. 분석대상은 7차년도 조사시 중학교 1학년으로 전체 2,342명 중 미응답자 385명과 ‘부모님 모두 안 계심’으로 응답한 13명((한)조부모+자녀 10명, 기타 3명)을 제외한 1,944명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양육방식 변수는 청소년기 자녀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방식을 의미하므로 ‘부모님 모두 안 계심’으로 응답한 13명을 제외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여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는 아동·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연구 및 정책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다년간에 걸쳐 중단 조사한 대규모 패널조사이다. 전국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전국 학교통계를 표집 틀로 삼아 다단계 층화 표집방법을 이용하여 학교와 학급을 추출하였다는 이점을 가진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독립변수(과보호, 학대, 합리적설명), 매개변수(또래애착), 종속변수(우울, 자아존중감)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도구의 출처를 정리한 것은 <표 1>과 같고, 모든 문항은 청소년 응답자들 자신이 직접 보고하였다.

표 1. 변수의 측정도구

구분		출처
독립 변수	과보호 합리적설명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총 43문항) 문항을 활용. 원척도의 부와 모 각각에 대한 질문을 부모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한 후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
	학대	허묘연(2000), 김세원(2003)의 아동학대 문항 중 일부를 참고로 하여 연구진 작성
매개 변수	또래애착	Armsden & Greenberg(1987)가 제작한 애착척도(IPPA) 총 25문항 중 하위영역별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각 하위영역 당 3개 문항씩 총 9문항으로 구성(황미경, 2010 재인용)
종속 변수	우울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중 우울척도 13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하고 수정하여 사용
	자아존중감	Rogenberg(1965)의 자존감척도를 번안하여 사용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2000 에서 재인용)

첫째, 독립변수인 부모양육방식 중 과보호, 학대, 합리적설명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의 문항내용은 <표 2>와 같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4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먼저 과보호 및 학대의 경우 부정적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과보호, 학대가 높음을 의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합리적설명의 경우 긍정적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합리적설명이 높음을 의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편,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과보호(과잉기대, 과잉간섭) 8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잠재변수가 관측변수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가 .40 이하인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부모 양육방식에 대한 문항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6으로 나타났으며, 과보호 양육방식 .79, 학대 양육방식 .86, 합리적설명 양육방식 .77로 나타났다.

표 2. 독립변수(과보호, 학대, 합리적설명) 측정도구

하위차원	문항내용	Cronbach’s α
과보호	나에 관한 한 다른 어떤 일보다 공부에 더 열성적이다*	.79
	나에게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해 하시며 내게는 못 하게 하신다*	
	나에게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겨야 한다는 걸 강조하신다*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	
학대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86
	내가 잘못하면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예: 멍청이, 개만도 못한 것, 나가 죽어라,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	
합리적 설명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 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77
	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신다*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것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	

주) *: 역채점 문항

둘째, 매개변수인 또래애착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의 문항내용은 <표 3>과 같다. 또래애착은 의사소통, 신뢰, 소외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매우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음을 의미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3문항, 신뢰 3문항을 역채점하였다. 한편,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또래애착 9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이 .50이하인 문항 및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가 .40 이하인 소외 3문항을 제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과 신뢰에 해당하는 6문항만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또래애착에 대한 문항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표 3. 매개변수(또래애착) 측정도구

하위차원	문항내용	Cronbach’s α
의사소통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90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신뢰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주) *: 역채점 문항

셋째,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의 문항내용은 <표 4>와 같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4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먼저 우울의 경우 부정적 문항을 역채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자아존중감의 경우 긍정적 문항을 역채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편,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울 10문항과 자아존중감 10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이 .50이하인 문항과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가 .40 이하인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우울은 9문항, 자아존중감은 8문항을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문항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우울이 .89, 자아존중감이 .86으로 나타났다.

표 4. 종속변수(우울,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하위차원	문항내용	Cronbach's α
우울	기운이 별로 없다*	.89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걱정이 많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외롭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모든 일이 힘들다*	
자아 존중감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86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주) *: 역채점 문항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1 패널 제7차(2016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PASW Statistics 18.0 Program과 AMOS 18.0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일차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다변량 분석을 위해서는 다변량 정규분포성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자료의 정규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변수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구조방정식 모형은 Anderson과 Ga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분석법(two-step approach)을 사용하여 1단계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 모형의 적합도와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2단계에서 구조모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χ^2 검증과 RMSEA(Root Mean-Squared Residual), TLI(Turker-Lewis Index) 및 CFI(Comparative Fit Index)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χ^2 검증은 영가설의 내용이 엄격하여 모형을 너무 쉽게 기각하는 경향과 표집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Kline, 2005), RMSEA와 TLI, CFI 적합도 지수를 함께 살펴보았다. RMSEA와 TLI는 표본의 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는 적합도 지수이고,

CFI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 않지만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도 지수로서, 이러한 적합도 지수는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할 때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세희, 2007). 여섯째, 최종 모형의 분석결과로 제시된 경로의 효과성을 분해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정방식을 활용하였고(우종필, 2012), 이를 통해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 살펴보았다(김계수, 2007).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분석

1) 변수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연구 변수들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방식, 또래애착,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대해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잠재변수들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관측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청소년의 우울($M=1.18$)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며, 자아존중감($M=2.55$)은 중간점수 정도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양육방식 하위요인 중 합리적설명($M=3.0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과보호($M=1.62$), 학대($M=1.58$)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또래애착($M=2.88$)은 중간점수(2.50)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측변수들이 정규분포를 이루어야 한다는 다변량 정규분포성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자료의 정규성 판단을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면, 왜도는 절대값 .13~2.23으로 절대값 3미만으로 나타났고, 첨도는 .18~4.92로 절대값 7미만으로 나타나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활용하여 모수치를 추정하는데 문제가 없음이 입증되었다.

표 5. 변수의 일반적 경향

잠재변수	관측변수	범위	평균 (M)	표준편차 (SD)	왜도	첨도
심리적 복지	우울	1~4	1.18	.41	2.23	4.92
	자아존중감	1~4	2.55	.84	- .13	- .56
또래애착	의사소통, 신뢰	1~4	2.88	.80	- .41	- .19
부모 양육방식	과보호	1~4	1.62	.67	.85	.55
	학대	1~4	1.58	.62	1.44	2.30
	합리적설명	1~4	3.06	.60	- .30	.18

2)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앞서 3개의 잠재변수들을 측정하는 6개의 관측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관측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절대값 .05~.48 사이에 분포되어 있어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관측변수의 상관관계

	부모 양육방식			도래애착	심리적복지	
	과보호	학대	합리적설명	의사소통, 신뢰	우울	자아존중감
과보호	1					
학대	.48**	1				
합리적설명	-.13**	-.20**	1			
도래애착	-.05*	-.09**	.31**	1		
우울	.21**	.26**	-.16**	-.12**	1	
자아존중감	-.23**	-.26**	.16**	.22**	-.21**	1

* $p < .05$, ** $p < .01$, *** $p < .001$

2. 측정모형 분석

1)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측변수가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각 하위 영역을 관측변수로 하여 측정모형에 대한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것으로 구조모형 분석 이전에 측정모형의 수용여부를 확인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표 7>과 같다.

표 7.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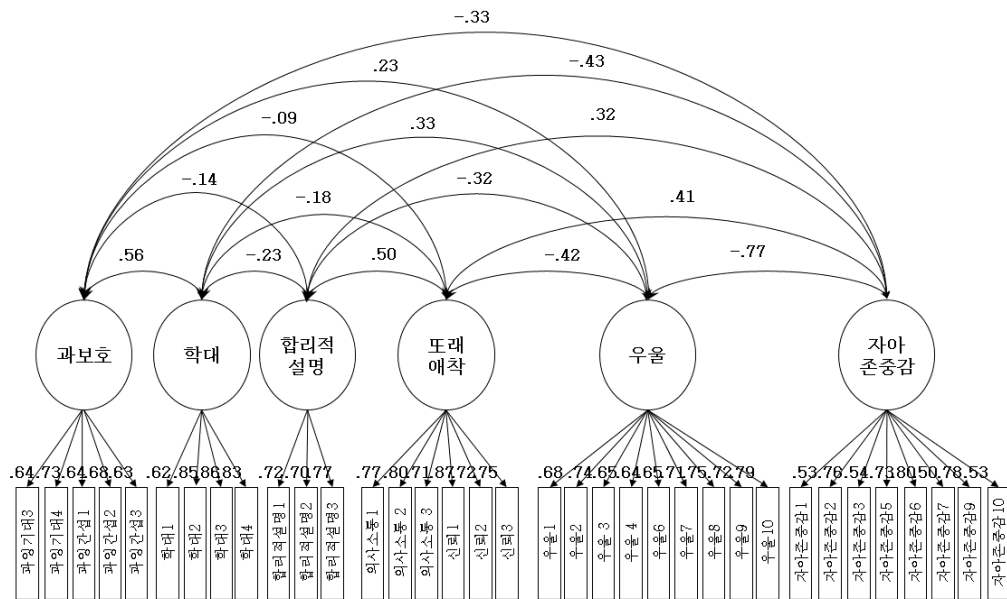
구분	χ^2	df	p	TLI	CFI	RMSEA
값	3245.860	540	.000	.915	.922	.051
최적기준	-	-	>.05	>.90	>.90	<.08
판단	-	-	부적합	적합	적합	적합

일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χ^2 검증, TLI, CFI, RMSEA를 이용한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 TLI, CFI, RMSEA

지수를 기준으로 사용한 결과, $\chi^2=3245.860(df=540, p<.001)$, TLI=.915, CIF=.922, RMSEA=.051로 나타나, χ^2 값을 제외한 나머지 적합도 지수 모두가 수용 기준에 부합하였다. 측정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들이 양호하게 나타남에 따라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관측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측정모형에서는 모든 표준화 회귀계수(β)가 .50~.87로 나타나 관측변수가 잠재변수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모든 관측변수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분산추출값(AVE)은 .50이상일 때, 개념신뢰도(CCR)는 .70이상일 때 집중타당성이 적합하다고 보는 기준에 따르면(우종필, 2012), 본 측정모형에서는 AVE값이 .506~.770로 나타났고, CCR은 .836~.950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그림 2]와 같이 도식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표 8>과 같다.



- 주1)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추정치임
 주2) $p<.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함
 주3) 편의를 위하여 오차항은 생략함

그림 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8.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잠재변수	관측변수	B	S.E	β	C.R (t value)	p	SMC (R ²)	AVE	CCR
부모 양육방식	과보호	1.04	.05	.64	22.36	***	.41	.51	.84
		1.19	.05	.73	24.57	***	.54		
		1.09	.05	.64	22.53	***	.42		
		1.13	.05	.68	23.44	***	.46		
		1.00	—	.63	—	—	.40		
	학대	.82	.03	.62	28.75	***	.39	.76	.92
		1.03	.02	.85	42.84	***	.73		
		1.01	.02	.86	43.31	***	.74		
		1.00	—	.83	—	—	.68		
	합리적설명	.95	.04	.72	25.98	***	.51	.69	.87
		1.02	.04	.70	25.64	***	.49		
		1.00	—	.77	—	—	.60		
또래애착	의사소통	.92	.03	.77	33.56	***	.59	.76	.90
		.99	.03	.80	35.28	***	.65		
		1.10	.04	.71	30.87	***	.50		
	신뢰	1.07	.03	.87	38.50	***	.77	.77	.91
		1.14	.04	.72	31.58	***	.53		
		1.00	—	.75	—	—	.57		
심리적 복지	우울	.91	.03	.68	31.06	***	.46	.63	.94
		.95	.03	.74	34.80	***	.55		
		1.04	.04	.65	29.40	***	.42		
		.66	.02	.64	28.92	***	.41		
		.94	.03	.65	29.39	***	.42		
		1.00	.03	.71	32.67	***	.50		
		.90	.03	.75	34.92	***	.56		
		.94	.03	.72	33.24	***	.52		
	자아존중감	1.00	—	.79	—	—	.63	.58	.92
		.97	.05	.53	18.25	***	.28		
		1.58	.07	.76	22.68	***	.58		
		1.07	.06	.54	18.53	***	.29		
		1.55	.07	.73	22.31	***	.54		
		1.66	.07	.80	23.29	***	.64		
		.96	.04	.50	22.73	***	.25		
		1.60	.07	.78	22.96	***	.60		
		1.00	—	.53	—	—	.28		

*** $p < .001$

3. 구조모형 분석

1) 구조모형의 적합도 분석

앞서 살펴보았던 측정모형 분석 결과를 통해 각각의 관측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적합하게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구조모형 분석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잠재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구조모형 적합도 지수는 $\chi^2=3245.860(df=119, p<.001)$ 이고, TLI=.915, CFI=.922, RMSEA=.051로 나타나 χ^2 값을 제외한 나머지 적합도 지수 모두가 수용 기준에 부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은 비교적 연구 자료를 적절하게 설명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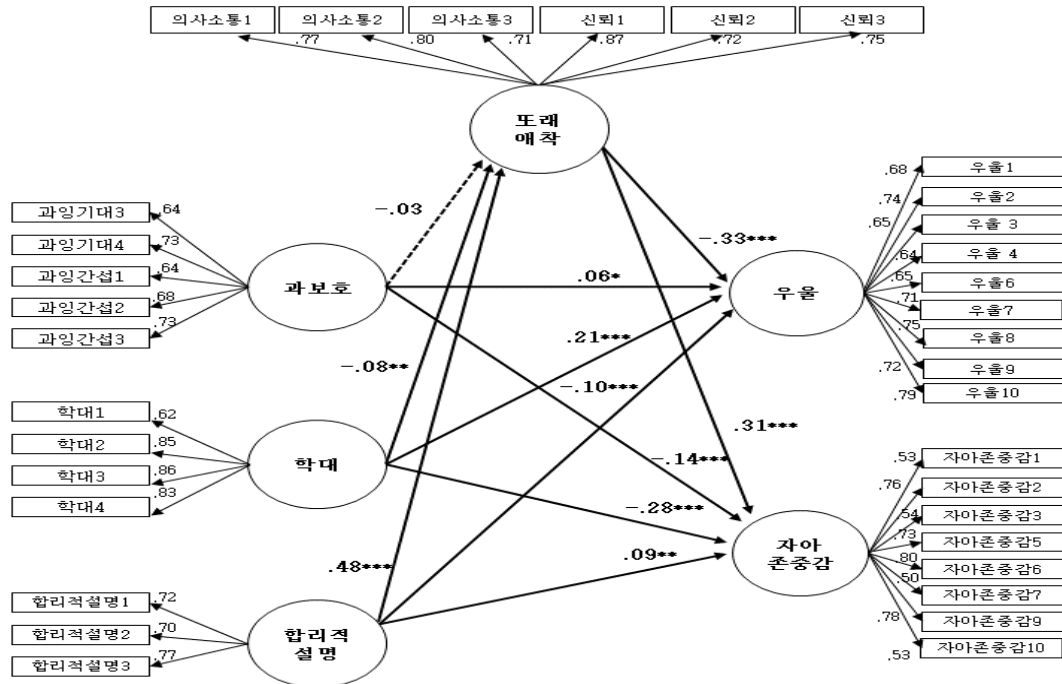
표 9. 구조모형 적합도 지수

구분	χ^2	df	p	TLI	CFI	RMSEA
값	3245.860	540	.000	.915	.922	.051
수용기준	-	-	>.05	>.90	>.90	<.08
판단	-	-	부적합	적합	적합	적합

2) 구조모형의 분석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서는 잠재변수 간에 총 11개의 경로가 설정되었고, 이에 대한 경로분석의 결과는 [그림 3], <표 10>과 같다.

첫째,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 양육방식의 경로를 살펴보면, 과보호 양육방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학대 양육방식($\beta=-.08, p<.01$), 합리적설명 양육방식($\beta=.48,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 양육방식의 설명력은 25%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심리적복지인 우울에 대한 부모의 양육방식, 또래애착의 경로를 살펴보면, 과보호 양육방식($\beta=.06, p<.05$), 학대 양육방식($\beta=.21, p<.001$), 합리적설명 양육방식($\beta=-.10, p<.001$), 또래애착($\beta=-.33,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우울에 대한 부모 양육방식, 또래애착의 설명력은 26%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심리적복지인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모의 양육방식, 또래애착의 경로를 살펴보면, 과보호 양육방식($\beta=-.14, p<.001$), 학대 양육방식($\beta=-.28, p<.001$), 합리적설명 양육방식($\beta=.09, p<.01$), 또래애착($\beta=.31,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모 양육방식, 또래애착의 설명력은 32%로 나타났다.



주1)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추정치임
 주2) * $p<.05$, ** $p<.01$, *** $p<.001$
 주3) 편의를 위하여 오차항은 생략함

그림 3. 구조모형의 분석 결과

표 10. 구조모형 분석 결과

경로	B	S.E	β	C.R (t value)	SMC (R ²)
과보호	.03	.03	.03	.82	
학대 → 도래애착	-.07	.03	-.08**	-2.68	.25
합리적설명	.48	.03	.48***	15.94	
과보호	.07	.03	.06*	2.07	
학대 → 우울	.20	.03	.21***	7.05	.26
합리적설명	-.11	.03	-.10***	-3.47	
도래애착	-.35	.03	-.33***	-11.33	
과보호	-.16	.03	-.14***	-4.56	
학대 → 자아존중감	-.28	.03	-.28***	-9.19	.32
합리적설명	.10	.03	.09**	2.96	
도래애착	.35	.03	.31***	10.75	

* $p<.05$, ** $p<.01$, *** $p<.001$

3) 구조모형의 효과분해

구조모형의 효과분해(effect decomposition)는 총 효과에 대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표준화 경로계수(β)를 통하여 특정 잠재변수가 다른 잠재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배병렬,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종 구조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β)를 통하여 효과분해를 하였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와 총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구조모형 효과분해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과보호			.03	-	.03
학대	→	또래애착	-.08*	-	-.08*
합리적설명			.48**	-	.48**
과보호			.06*	-.01	.06*
학대	→	우울	.21*	.03*	.24*
합리적설명			-.10*	-.16**	-.26**
또래애착			-.33*	-	-.33*
과보호			-.14*	.01	-.13**
학대	→	자아존중감	-.28**	-.03*	-.30*
합리적설명			.09*	.15**	.23*
또래애착			.31**	-	.31**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변수들의 효과분해를 실시한 결과, 학대적 양육방식과 합리적 설명 양육방식에 대한 직접 경로는 유의하였으나, 과보호 양육방식의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학대적 양육방식($\beta = -.08$, $p < .05$), 합리적설명 양육방식($\beta = .48$, $p < .01$)의 또래애착에 대한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학대 양육방식($\beta = -.08$, $p < .05$), 합리적설명 양육방식($\beta = .48$, $p < .01$)의 총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부모의 학대를 낮게 지각할수록, 부모의 합리적설명을 높게 지각할수록 또래애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변수들의 효과분해를 실시하였다. 첫째, 과보호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우울에 있어 직접효과($\beta = .06$, $p < .05$), 총 효과($\beta = .06$, $p < .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또래애착을 매개변수로 한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부모의 과보호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애착을 매개변수로 한 간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둘째, 학대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우울에 있어 직접효과($\beta = .21, p < .05$), 또래애착을 매개변수로 한 간접효과($\beta = .03, p < .05$), 총 효과($\beta = .24, p < .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우울은 부모의 학대가 또래애착에 의하여 부분매개 되며, 이는 학대가 청소년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래애착을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합리적설명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우울에 있어 직접효과($\beta = -.10, p < .05$), 또래애착을 매개변수로 한 간접효과($\beta = -.16, p < .01$), 총 효과($\beta = -.26, p < .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우울은 부모의 합리적설명이 또래애착에 의하여 부분매개 되며, 이는 합리적설명이 청소년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래애착을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넷째, 과보호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있어 직접효과($\beta = -.14, p < .05$), 총 효과($\beta = -.13, p < .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또래애착을 매개변수로 한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부모의 과보호는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애착을 매개변수로 한 간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섯째, 학대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있어 직접효과($\beta = -.28, p < .01$), 또래애착을 매개변수로 한 간접효과($\beta = -.03, p < .05$), 총 효과($\beta = -.30, p < .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학대가 또래애착에 의하여 부분매개 되며, 이는 학대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래애착을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설명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있어 직접효과($\beta = .09, p < .05$), 또래애착을 매개변수로 한 간접효과($\beta = .15, p < .01$), 총 효과($\beta = .23, p < .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합리적설명이 또래애착에 의하여 부분매개 되며, 이는 합리적설명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래애착을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의 학대와 합리적설명은 청소년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이 부분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의 과보호는 청소년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 검증결과를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12>와 같다. 연구가설 가운데 과보호→또래애착 경로의 직접효과(1-1), 과보호→또래애착→우울(2-1), 과보호→또래애착→자아존중감(2-2) 경로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이 기각되었고, 그 외의 연구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표 12. 연구가설 검증결과

구분	가설	검증	검증결과
1-1	과보호 → 또래애착	직접효과	기각
1-2	과보호 → 우울	직접효과	채택
1-3	과보호 → 자아존중감	직접효과	채택
1-4	학대 → 또래애착	직접효과	채택
1-5	학대 → 우울	직접효과	채택
1-6	학대 → 자아존중감	직접효과	채택
1-7	합리적설명 → 또래애착	직접효과	채택
1-8	합리적설명 → 우울	직접효과	채택
1-9	합리적설명 → 자아존중감	직접효과	채택
2-1	과보호 → 또래애착 → 우울	간접효과	기각
2-2	과보호 → 또래애착 → 자아존중감	간접효과	기각
2-3	학대 → 또래애착 → 우울	간접효과	채택
2-4	학대 → 또래애착 → 자아존중감	간접효과	채택
2-5	합리적설명 → 또래애착 → 우울	간접효과	채택
2-6	합리적설명 → 또래애착 → 자아존중감	간접효과	채택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또래애착,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시도되었다. 과보호, 학대, 합리적설명 양육방식이 또래애착, 우울,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또래애착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 과보호는 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보였으나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학대는 또래애착,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였고, 합리적설명은 또래애착,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우울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부모의 학대를 낮게 지각할수록, 부모의 합리적설명을 높게 지각할수록 또래애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부모의 과보호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모의 학대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모의 합리적설명을 낮게 지각할수록, 또래애착 수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의 과보호를 낮게 지각할수록, 부모의 학대를 낮게 지각할수록, 부모의 합리적설명을 높게 지각할수록, 또래애착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과보호는 또래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우울에는 정적 영향을, 자아존중감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심이 강해져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자율성이 고조되는 청소년기에 지나치게 보호, 통제, 간섭을 할 경우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박은조, 2000; 김

아영, 이명희, 2008)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또, 이 시기의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과보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이숙 외, 2002).

둘째,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 또래애착은 학대-우울, 학대-자아존중감, 합리적설명-우울, 합리적설명-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대는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인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또래애착을 매개로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기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인 학대와 긍정적 양육방식 합리적 설명 모두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학대에 대한 정의 기준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 및 가치에 따라 상이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되었다(선우진희, 2016). 자녀가 부모로부터 거부를 경험하는 것은 자기 자신, 타인, 대인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자기의 가치를 낮게 지각하고, 다른 사람의 정서표현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며, 부모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Rohner, 2004).

또한, 자율성을 탐색하는 청소년기에는 잔소리하는 부모가 개인의 권리와 선택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모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 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자녀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며, 자녀의 무리한 요구에는 그것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부모 양육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녀의 자기 관리에 대한 토론이나 결정에 있어 자녀를 참여시키고, 부모-자녀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에 직면할 때는 지속적으로 따뜻하고 지지적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모교육도입이 필요하겠다. 더불어 긍정적 부모 양육방식은 부모교육 만으로 향상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소년기 자녀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부적절한 또래관계를 경험한 청소년은 어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또래로부터 고립되거나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고 또래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없으므로(박지영, 2006), 또래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기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학교 내에서 집단따돌림, 또래 괴롭힘,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가정 내에서 부모의 지도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관심과 지도가 요구된다. 또래와의 공감대 형성, 정서적지지, 갈등의 해결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기 이전부터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경험, 나-전달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 갈등상황에서 다양한 해결방법과 전략 등을 수립해 봄으로써 건강한 또래애착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청소년기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학대와 과보호를 자제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양육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유아기나 아동기뿐만 아니고 청소년기에도 부모의 영향이 매우 중요함을 널리 알려서 중학교 입학 초에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여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또래애착은 부모의 부정적 영향을 매개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진 만큼, 또

래 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또래친화적인 프로그램들이 교과과정 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지원도 세심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대상이 중학교 1학년에 국한되어 있어 청소년 전체에 대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방식, 또래애착, 우울, 자아존중감만을 포함시켰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정서, 기질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결과는 또래애착이 부모양육방식과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 관계를 매개하는 핵심변수임을 규명한데 의의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우울,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복지에 대한 긍정적 방향 모색에 있어 부모양육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격려자, 상담자, 의사소통 기술의 모델로서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청소년기의 자녀가 건강한 자아개념을 형성함으로써 원만한 또래관계를 맺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구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차연. (1999). 어머니의 애착유형과 결혼갈등, 자녀 양육행동 및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고운주, 김영신, 노주선. (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또래의 수용, 친구의 지원과 사회적 자신감간의 구조 모델. 한국발달심리학회, 12(2), 65-78.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형태온라인조사 통계. 충북: 질병관리본부.
- 김계수. (2007). New AMOS 7.0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 김민수.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민형. (2016).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아영, 이명희. (2008). 청소년의 심리적 욕구만족, 우울경향, 학교생활적응 간 의 관계구조와 학교급간 차이. 교육심리연구, 22(2), 423-441.
- 김인숙, 김유진, 김영희. (2010). 유아의 애착, 어머니의 양육방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1(3), 175-202.
- 김영혜. (2000). 청소년 부모-자녀간의 애착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심리적안녕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정은, 박희연. (2011). 직업군이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청소년기 외로움과 자기상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8(4), 79-99.
- 김현순. (2005). 청소년의 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정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현주. (2014).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진주교육

-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민경. (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우울 및 공격성의 관계: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애규. (2009).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우울 및 대인불안과의 관계: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성연, 이숙. (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 141-156.
- 박은조. (2000). 중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적응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지영. (2006). 아동의 인터넷 게임 중독 위험성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현선. (1999). 고위험 빈곤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사회복지학, 37, 195-216.
- 배병렬. (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창람.
- 변은주. (2000). 의사결정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진로미결정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서유정. (2016). 청소년기의 방임, 학대 경험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선우진희. (2016).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의 주의집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심리적, 사회적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손은경. (2011).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 변화유형에 관한 종단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신정이, 황혜원. (2006).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생태체계적 보호요인의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13(5), 123-154.
- 심종옥. (2011).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염유식, 김정미, 이승원. (2016). 2016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조사결과 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오송희. (1998).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오혜진. (2006). 부모애착, 친구애착, 희망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 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2006). 또래애착과 정서조절양식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31-41.
- 유안진,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한국아동학회, 17(1), 173-188.
- 유영희. (1979). 부모양육행동에 대한 인지와 그 자녀의 적응.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예은. (2013).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숙, 우희정, 최진아, 이춘아. (2002). 훈련중심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이재경. (2010). 청소년 초기 부모애착과 발달간 종단적 관계분석: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의 종단적 매개효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주희, 이춘재. (2003).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심리사회적 적응. 사회과학연구, 19, 83-117.
- 이현지, 남현주. (2003). 청소년 유학생들의 문화적 적응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미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 로. 청소년학연구, 10(4), 121-142.
- 장영애, 이영자. (2009). 취학전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8(3), 619-62.
- 장혜경, 송현주. (2009).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영역별 연구 고찰. Journal of Psychotherapy, 9(2), 113-126.
- 정은영, 장성숙. (2008).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 개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193-312.
- 조금숙. (2000). 청소년의 또래지위에 따른 심리적안녕감과 인지적 행동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지은, 신용주.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 한상희. (2005). 소년의 애착 유형과 대인 불안 및 우울과의 관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함선미. (2016).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성산효대학 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허모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의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황창순. (2006). 초기 청소년기의 부모 및 또래애착과 애착의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17(1), 201-225.
- 홍세희. (2007).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홍영수. (2010). 부모학대가 아동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정서적 지지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 족복지학, 30, 225-244.
- Armsden, G. C.,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Anderson, J. C.,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4, 1-102.
- Beam, M. R., Gil-Rivas, V., Greenberger, E., Chen, C. (2002).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nd depressed mood: Risk and protection within and across social contex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5), 343-357.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raquehais, M. D., Oquendo, M. A., Baca-Garcia, E., Sher, L. (2010). Is impulsivity a link between childhood abuse and suicide? Comprehensive Psychiatry, 51(2), 121-129.
- Bryant, F., Veroff, J. (1982).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A Sociohistor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4), 653-673.
- Colman, R. A., Widom, C. S. (2004). Childhood abuse and neglect and adult intimate relationships: A prospective study. Child Abuse & Neglect, 28(11), 1133-1151.
- Cummings, E. M., Davies, P. T. (1994).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Boulder. CO: Westview Press.
- Eisenberg, N., Fabes, R. A., Carlo, G. (1992). Emotional responsivity to others: -57 Behavioral correlates and socialization antecedent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55, 57-73.

-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Y: Norton.
- Kline, R. B. (2005). *Principle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 Kostelecky, K. L. (2005). Parental attachment, academic achievement, life events and their relationship to alcohol and drug use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28, 665-669.
- Kutcher, S. P., Marton, P. (1989). Parameters of adolescent depression. A review. *Psychiatr Chin North Am*, 12(4), 895-918.
- Lloyd. (1985).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41(7/8), 541-558.
- McElwain, N. L., Booth-La Force, C. (2008). A process model of attachment-friend linkages: Hostile attribution biases, language ability, and mother-child affective mutuality as intervening mechanism. *Child Development*, 79(6), 1891-1906.
- McDowell, L., Newell. C. (1990). *Measuring Health: A Guide to Rating Scale and Questionnaire*, Oxford.
- Polanin, J., Espelage, D., Pigott, T. (2012). A meta-analysis of school-based bullying prevention programs' effects on bystander intervention behavior. *School Psychology Review*, 41(1), 47-65.
- Raja, N. S., McGee, R., and Stanton, W. (1992).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 471-485.
- Ramirez, Maria-Luisa Andrea. (1998). A Closer look at parenting and parent qualities as protective facto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University of Minesota, Ph.D.
- Rohner, R. P. (2004). The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syndrome: Universal correlates of perceived rejection. *American Psychologist*, 59, 830-840.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uessler, K. F. (1995). Quality of Life Research and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1. 129-149.
- Tasmas, A., Kay, J., Lieberman, J. A. (1996). *Psychiatry*. Philadelphia: Sanders Company.
- Turner, Francis Joseph. (1984). *Adult psychopathology: A social work perspective*: Free Pr.
- Wilson, H. W., Widom, C. S. (2009). A prospective examination of the path from child and neglect to illicit drug use in middle adulthood: the potential mediating role four risk factor.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38(3), 340-354.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삶의 목표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임정아* · 조아미**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 유형을 탐색하고 각 유형이 삶의 목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부모양육방식과 청소년의 삶의 목표 결정의 연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자료 중 부모의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으로 구성된 부모양육방식에 대해 잠재계층 분석을 실시하고 각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삶의 목표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2016년도 KCYPS 패널 자료 중 대학교 1학년 1881명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4개의 잠재계층을 확인하였다. 각 계층의 양육방식의 세부적 특성을 분석하여 ‘애정 부족형’, ‘일반형’, ‘과잉 간섭형’, ‘안정형’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삶의 목표를 하위요인으로 구분한 결과 ‘원만한 관계’, ‘올바른 도덕성’, ‘새로운 도전’, ‘안전과 여가’, ‘부와 명성’으로 구분하였다. 부모양육방식유형과 삶의 목표 하위요인간의 일원배치분산분석과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삶의 목표 중 ‘부와 명성’을 제외한 모든 목표에 계층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유형에 대한 탐색적인 분석을 통해 실제적인 유형을 제시하고 각 계층별로 삶의 목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제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부모양육방식, 삶의 목표, 잠재계층분석

I. 서 론

부모는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서 최초의 교육자이며, 세상을 알아가게 하는 중요한 초석으로 자녀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부모양육방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8학년부터 12학년까지 56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한 중요한 타인을 조사한 Brookover, Erikson과 Joiner(1975)의 연구에서 학년 수준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90%이상의 학생들이 부모를 가장 중요한 타인으로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615명의 초등학생들을 3년에 걸쳐 연구한 Wigfield 등(1997)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자기능력에 대한 믿음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한편,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박사과정, lja5171@hanmail.net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choami@mju.ac.kr

부모와 교사에 대한 믿음은 더욱 높아지고 그 중 어머니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왔다.

부모의 양육은 청소년의 정서, 행동, 성격 등 발달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권재환, 이성주, 2013; 박계란, 이지민, 2012; 박민혜, 정운정 2012; 배장섭, 2017; 서경현, 조양술, 손술, 2013; 유영달, 이은지 2010) 인간관계의 기초로서 청소년의 사회성 및 사회적 행동과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윤선아, 2016; 윤언정, 김경연, 2010; 이상균, 2009; 이형화, 장형심, 2015). 이처럼 부모의 양육방식은 영·유아기를 지나 학령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 까지 자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주연, 조연희, 2015; 임혜림, 김서현, 정익중, 2014; 전란영, 김희화, 2016; 신중호, 서은진, 이유경, 2011).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배움과 성취가 활발한 청소년기 때 부모의 양육방식과 사고방식이나 신념이 자녀의 삶의 목표를 정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짐작하게 한다. 청소년들이 삶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실천해 나가는데 부모나 가까운 어른, 또래, 학교 그리고 다양한 외부 사건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Salmela-Aro, 2009) 그 중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중호, 서은진, 이유경, 2011).

특히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 시기는 개인이 지닌 삶의 가치에 따라 삶의 목표를 본격적으로 탐색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균형적인 목표설정을 이해할 때 중요한 시기이다(Levinson, 1978; Palfai, Ralston & Wrigh, 2011). 성인 초기의 대학생은 자신의 정체성, 능력, 소질, 가치 등을 반영하는 직업을 획득하고자 하는 성취지향목표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를 찾아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거나 삶을 함께 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하고자 하는 삶 지향 목표를 동시에 탐색하는 시기이다(Havinghurst, 1981; Langan-Fox, 1991; Nurmi, 1992). 즉, 이전에는 학생으로서 주로 학업 영역에서 목표를 추구해왔다면, 대학에 입학한 뒤에는 학업외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목표들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대학생 시기가 이전의 시기에 비해 부모의 영향력을 덜 받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부모양육행동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대학생의 삶의 목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일 수 있다. 대학생의 부모-자녀관계나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와 성취목표 및 진로결정수준(이현숙, 조한익, 2004), 진로태도성숙(우영지, 이기학, 2007),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효능감(곽윤영, 정문자, 2010), 자기에성향(홍영미, 성현란, 2012) 등 주로 진로관련이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학교 1학년 7차년도 패널인 대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양육방식을 포괄적인 변인으로 묶기보다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각 유형이 삶의 목표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청소년기의 삶의 목표에 대해 중요한 부모양육방식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계층 분석에 의한 부모양육방식은 어떤 유형으로 구분되는가?

둘째, 삶의 목표의 하위요인은 어떤 요인으로 구분되는가?

셋째, 삶의 목표와 성별의 차이는 있는가?

넷째, 잠재계층에 따라 분류된 부모양육방식 유형은 삶의 목표의 하위요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양육방식

부모의 양육방식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사회의 변화, 개인적 요소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듯 다양한 양육방식에 따라 국내·외 여러 학자들도 분류방법이 다양하고 용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Symonds(1949)가 부모양육태도를 수용-거부적, 지배-복종적의 두 차원으로 분류한 이후, 여러 학자들이 양육태도 유형을 분류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Schaefer(1959)는 신생아기부터 청년기 초기까지에 이르는 동안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연구하여 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자율-통제의 양극화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Baumrind(1971)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권위주의적 유형, 권위 있는 유형, 허용-익애적 유형으로 분류하고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확고한 훈육과 부모로서의 애정이 있는 권위 있는 양육이라고 보았으며 애정은 낮으나 통제수준이 높은 권위적인 양육의 경우 자녀들과 가장 심한 갈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자의 경우 양육태도의 유형을 성취-비성취, 개방-폐쇄, 친애-거부, 자율-타율의 4차원을 제시하여 아동의 성격발달에 부모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정원식, 1974). 또한, 양육방식을 애정, 자율, 성취, 합리성의 네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오성심, 이종승, 1983).

이렇듯 부모의 양육방식유형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구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연구를 참고하여 부모양육방식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긍정과 부정의 태도나 행동이며 이러한 부모의 태도와 행동들이 자녀에 의해 지각된 것을 부모양육방식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부모양육방식에 따라 자녀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많이 연구되어 오고 있다(서경현, 2012; 허재홍, 2006; Bruch, Heimberg, Berger, & Collins, 1989). 부모의 애정 어린 양육은 자녀가 의식화된 목표를 가지고 여러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할 것이며 그와 반대로 만약 부모가 방임하거나 과보호하며 자녀를 양육할 경우 성장 후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하여 여러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Adler, 1964).

부모에게서 측정한 부모의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도 후기 청소년기 자녀들의 대인관계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상철, 유영달, 2007). 부모들 스스로 자신이 자녀들을 잘 돌봐주고 자율적으로 양육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녀들의 정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고,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타인을 많이 의식하지 않고 남에 대한 간섭도 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며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남상철·유영달, 2007; 최은지·이종한, 2005).

그런데 흥미롭게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모 자신들에게 직접 조사하지 않고, 자녀들을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조사하여, 자녀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들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았을 때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왔다(남상철, 유영달, 2007). 부모로부터 애정 어린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하면 건전한 사회적 관심을 발달시키게 되고 건강한 삶을 살 것으로 보여 진다(Adler, 1964). 부모의 애정이나 올바른 관리 감독 등의 긍정적이고 애정 어린 양육방식은 자녀들이 정신건강에 정적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문경주, 오경자, 2002; 서경현, 2012; Parker, 1979). 이런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 혹은 자녀에 의해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게 해준다.

부모의 양육에서 애정과 함께 일관성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한다(Baumrind, 1967). 부모가 비밀 관적으로 기분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거나 상황에 따라 다른 훈육을 한다면 자녀는 매번 다른 상황에 불안해하고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된다(Baumrind, 1967; 허묘연, 2004). 부모의 과잉간섭적인 양육방식도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의 개인적 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하며 어른의 기준에 무조건 맞추도록 하는 것은 자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허묘연, 2004). 이러한 부모의 과잉간섭적 양육은 자녀의 행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므로 자녀가 새로운 상황을 탐색하고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제한 한다(Burgess, Rubin, Cheah, & Nelson, 2001; Rubin et al., 2009). 즉, 부모의 과잉간섭적 육아는 자녀에게 위축감을 느끼게 하며 자신감을 하락시키는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 자녀는 학업성취, 진학의 문제 등이 강조되는 시기로 부모의 높은 교육열이 자녀에게 과잉기대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부모의 양육방식 중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자녀가 매사에 부풀려진 이야기로 부모를 안심시키려고 하며 이러한 자녀들은 어느것이든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일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기도 한다(소미강, 2008; 손석한 외, 2011; 신현균, 임지영, 2003).

위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정서와 많은 연관이 있다. 이는 자녀들이 자라면서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에 이르는 동안 그들의 인생에 있어 목표를 설정 하는데 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 진다.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부모의 애정 어린 관심과 이해는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심어주어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한다. 반면, 지나친 기대와 과보호, 과잉간섭 등은 자녀를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관심으로 보

여 지는 감독과 애정 합리적 설명은 긍정적인 부모양육방식으로 보았고 비일관적이며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은 부정적인 양육방식으로 가정하였다.

2. 삶의 목표

삶의 목표는 개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Schmuck & Sheldon, 2001), 개인의 삶 전체에 걸친 발달을 고려하여 과거, 현재, 미래 시점을 통합한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목표(goal)는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결과와 사건, 과정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인이 열망하고, 바라는 상태와 대상에 대한 내적 표상으로 정의 될 수 있다(Austin & Vancouver, 1996).

삶의 목표는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의 미니이론 중 목표내용이론(goal contents theory)을 통해 대표적으로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로 구분되어진다(Ryan, Sheldon, Kasser, & Deci, 1996). 내재적 목표는 대인관계에서의 행복, 자기성장, 주관적 안녕감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에 의미를 두는 것이며 외재적 목표는 경제적 성공, 사회적 명성 등과 같은 외부의 보상, 타인의 칭찬, 평가 등을 추구하는 것이다(Kasser & Ryan, 1996, 2001).

또한 Grouzet와 Kasser 외 8인(2005)은 삶의 목표를 외재적 목표, 내재적 목표에 물리적 자기(Physical self)목표와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목표를 추가하여 유형화 하였다. 물리적 자기 목표는 개인 자신 내부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목표이며, 자기초월 목표는 집단 내 개인으로서 자신 외부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목표로 신체외부에 존재하는 자신의 정신, 사회적 자아 등을 의미한다(신종호, 조은별, 이유경, 2012).

청소년기에 삶의 목표를 처음부터 한 번에 결정하고 계획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개인마다 각기 다른 목표를 정하고 때론 상황에 따라 그 목표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것은 자기개념과 정체성 수립과 같은 발달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녕감과 같은 정서적 경험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Harris et al., 2003; Headey, 2008; Cantor et al., 1991). 또한 삶의 목표는 청소년의 미래 삶의 내용과 방향,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Emmons, 1986).

삶의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의미를 갖게 하여 심리적 건강 및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삶의 역경을 극복하는데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청소년의 삶의 목표지향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이 높으며(윤선아, 2016; Hofer & Chasiotis, 2003; Eryilmaz, 2011), 목표가 뚜렷할수록 자아존중감, 친사회적 행동, 학업 성취도가 높고, 목표가 약할수록 우울증상, 반사회적 행동 및 대인관계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Damon, et al., 2003). 삶의 목표는 위험상황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목표지향이 뚜렷한 청소년은 삶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며 목표추구의 동기로 인해 쉽게 좌절하지 않으며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Emmons, 2003; Gabrielson, et al., 2012).

이러한 결과들은 건설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고, 이후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청소년

년기에 삶의 목표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목표를 유형화 하는 데 기반이 된 목표내용이론(Grouzet, Kasser 외 8인, 2005)에 따라 삶의 목표를 내재적 목표, 외재적 목표, 물리적 자기목표, 자기초월목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내재적 목표는 ‘원만한 관계’, 외재적 목표는 ‘부와 명성’, 물리적 자기목표는 ‘새로운 도전’, ‘안전과 여가’, 자기초월목표는 ‘올바른 도덕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3. 부모양육방식과 삶의 목표

부모의 양육방식과 태도는 청소년들이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와 가치감을 지니도록 하는데 있어 중요하고 나아가서는 삶의 목표나 목적의식을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청소년의 삶의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가정, 학교, 또래 관계, 개인정서 등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이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등 모든 발달단계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공계순, 서인해, 2016; 김두환, 2014; 문병상, 2011).

부모양육방식이 따뜻하고, 배려적(caring)이며 허용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친사회적 가치관 형성을 촉진시킴으로서 긍정적인 삶의 목표를 지향한다고 보았다(김성수, 윤미선 2013).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자율성 지지에 따라 내재적인 목표가 높아지며, 부모의 감독, 합리적인 설명, 방임과 학대가 삶의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성수, 윤미선, 2013; 윤선아, 2016). 아동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 때 삶의 목표는 안정적이고 진취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애정·수용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삶의 목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승화, 2001).

반면, 아버지의 낮은 자율성 지지와 어머니의 낮은 돌봄 수준이 자녀의 높은 재정적 목표 및 외재적인 목표 추구하고 관련이 있으며, 어머니의 독립성 촉진은 청소년의 리더십 및 독립 목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asser, et al., 1995; Budhwar, et al., 2000). 이렇듯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삶의 목표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분류 형태는 다르지만 양육방식이 삶의 목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 대상자이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은 중학교 1학년의 7차 년도 패널에 해당하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이다. 7차 년도 총 조사대상자 2,351명 중 결측값 470명을 제외한 1,88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남학생 927명 49.3% 여학생 954명 50.73%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부모양육방식

KCYPS에서 2016년에 조사한 부모양육방식은 감독, 애정,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총 43문항) 문항 중 부와 모 각각에 대한 질문을 부모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한 후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부모양육방식 문항은 감독(3문항), 애정(4문항), 비밀관성(3문항), 과잉기대(4문항), 과잉간섭(4문항), 합리적 설명(3문항)으로 4점 리커트(Likert) 척도(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다.

변수의 문항을 분석해본 결과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은 긍정적 양육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은 부정적 양육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각 집단별 분석의 용이함을 위하여 해당변수들의 4점 리커트(Likert) 척도의 구성을 변경(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감독 .813, 애정 .796, 비밀관성 .755, 과잉기대 .677, 과잉간섭 .731, 합리적 설명 .800 으로 나타났다.

2) 삶의 목표

KCYPS에서 삶의 목표 문항은 미국 교육종단연구(NELS 2002)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들이 여러 영역의 삶의 목표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자기보고식 4점 리커트(Likert) 척도(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1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CYPS의 삶의 목표 총 1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4점 리커트(Likert) 척도는 용이한 분석을 위하여 해당변수들의 수치가 증가함에 따라 삶의 목표수준이 높도록 코딩(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하였다.

15개 문항을 요인분석 한 결과 삶의 목표를 ‘원만한 관계’, ‘올바른 도덕성’, ‘새로운 도전’, ‘안전과 여가’, ‘부와 명성’의 다섯 가지 하위목표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원만한 관계 .824, 올바른 도덕성 .688, 새로운 도전 .614, 안전과 여가 .654, 부와 명성 .609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KCYPS의 중학교 1학년 7차 패널을 활용하여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을 유형에 따른 잠재계층으로 분류하였다. 7차 패널은 조사당시 대학교1학년 학생이었다. 최종 잠재계층의 유형을 선택하기 위해 통계 프로그램 M-plus를 사용하여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이는 관측자 중심의 기법으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관측자를 동일한 계층으로 분류하고 각 계층에 속할 확률을 찾아내어 계층 간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선택수, 2010).

잠재계층 모형의 적합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네 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 정보-기반 적합도 지수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 (Sample-size Adjusted BIC)이다. IC(Information Criteria)는 정보지수가 낮을수록 적합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둘째, Entropy는 추정된 모형이 계층군의 확률을 바탕으로 모형의 평균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수으로써, 각 계층이 분명하게 분류되었는지 모형의 비교와 평가를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Crosby et al., 2009). Entropy값은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함을 의미한다.

셋째, 잠재계층 수의 증가에 따라 모형을 비교하는 LMR 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BLRT(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LMR은 잠재계층모형을 잠재계층의 수(k)와 이보다 하나 적은 잠재계층의 수(k-1) 사이의 비교로 다른 계층 수 모형의 적합도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때 p값이 유의하면 k 잠재계층모형이 k-1잠재계층모형보다 적합함을 의미한다(Lo, Mendell, & Rubin, 2001). 즉, BLRT는 k-1계층 모형이 k의 지지 또는 k-1의 기각여부를 결정하는 p값이 $p < .05$ 일 때 k(대립가설)를 지지한다(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넷째, 도출된 각 잠재계층의 비율을 통해 표본 대비 계층의 최소비율을 확인하여 잠재계층 분류율을 적용한다. 표본크기와 대비하여 계층의 최소 비율은 선행연구마다 비교 가능한 최소 비율 기준이 다른데 Jung과 Wickrama(2008)는 모든 계층이 표본 수의 최소 5% 이상을 기준으로 보았고, Hill et al. (2000)과 Nooner (2010)는 표본 수의 1% 이상이면 계층별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았다(권재기, 2011 재인용).

잠재계층의 수가 결정된 이후에는 삶의 목표 하위요인이 성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집단의 유형에 따라 삶의 목표의 하위요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위하여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의 유형분류

1) 잠재계층 수 결정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의 잠재계층을 탐색하고자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2계층부터 시작하여 5계층까지 계층의 수를 증가시켜 모형을 검증하였으며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잠재계층의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

분류기준		잠재집단의 수			
		2	3	4	5
정보지수	AIC	23666.240	19251.048	19053.439	18891.174
	BIC	23771.491	19395.077	19236.244	19112.757
	SABIC	23711.128	19312.475	19231.404	18985.677
분류의질	Entropy	0.959	1.000	0.961	0.954
모형비교검증	LMR	0.001	0.343	0.000	0.000
	BLRT	0.000	0.000	0.000	0.000
분류율 (%)	1	74.502	9.729	9.729	9.729
	2	25.498	64.753	64.753	7.060
	3		25.518	15.736	5.238
	4			9.782	64.753
	5				13.221

*LMR과 BLRT는 p 값을 제시함

먼저, AIC, BIC, SABIC 지수는 작은 값을 가질수록 더 적합한데,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잠재계층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을 살펴보면 잠재계층의 수가 2개에서 3개로 증가하였을 때 증가분에 비하여 3개에서 4개로 증가할 때 증가분이 많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지수에서의 잠재계층결정은 AIC, BIC, SABIC 지수의 감소폭이 둔화되는 지점을 참고하였다.

다음으로, 잠재계층의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은 완벽한 분류를 나타낸다. 이 분석에서 Entropy는 잠재계층의 수가 3개일 때 가장 높았으며, 4개인 경우가 두 번째로 높았다. LMR은 잠재계층의 수가 3개일 때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4개까지 증가 시켰을 때는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분류율은 잠재집단의 수가 5개로 증가되는 경우 전체의 5.238%로 5%와

가까운 크기의 집단을 포함하여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잠재계층 수는 네 개의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정보지수, 분류의 질, 모형비교검증, 계층별 분류확률을 고려할 때 네 개의 집단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잠재계층 별 특성 분석

잠재계층의 적합도 수준에 의해 도출된 네 개의 잠재계층구성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 부모양육방식에 따른 잠재계층 구성(n=1,881)

집단 구분	n (명)	비율 (%)	평균점수					
			감독 (2.92)	애정 (3.15)	합리적설명 (2.82)	비일관성 (2.43)	과잉기대 (2.72)	과잉간섭 (2.68)
1	183	9.7	2.481	1.929	2.071	2.437	2.617	2.612
2	1,218	64.8	2.869	3.000	2.759	2.456	2.689	2.666
3	296	15.7	3.205	4.000	3.280	2.458	2.922	3.403
4	184	9.8	3.192	4.000	3.266	2.156	2.703	1.598

분석대상 중 9.7%가 집단1에, 64.8%가 집단2에, 15.7%가 집단3에, 9.8%가 집단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1은 모든 항목이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긍정적 양육방식인 애정이 집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관심과 애정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집단2는 모든 항목이 평균과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는 보편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전체 64.8%의 청소년이 이 집단에 포함되어 있으며 청소년이 느끼기에는 부모의 양육방식 수준이 너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집단3은 긍정적 양육방식인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모두가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부정적 양육방식인 과잉간섭이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느끼기에 부모님의 사랑과 애정을 충분히 느끼고 있으나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집단4는 긍정적 양육방식인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모두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부정적 양육방식인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느끼기에 부모님의 애정을 충분히 느끼고 있으며 과한 기대와 지나친 간섭도 없이 안정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의 구성을 바탕으로 하여 각 잠재집단에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에 따라 애정부족형 집단(집단1), 일반형 집단(2), 과잉간섭형 집단(집단3), 안전형 집단(집단4)으로 명명하였다.

최종 확인된 잠재계층 네 개 집단의 유형을 그림에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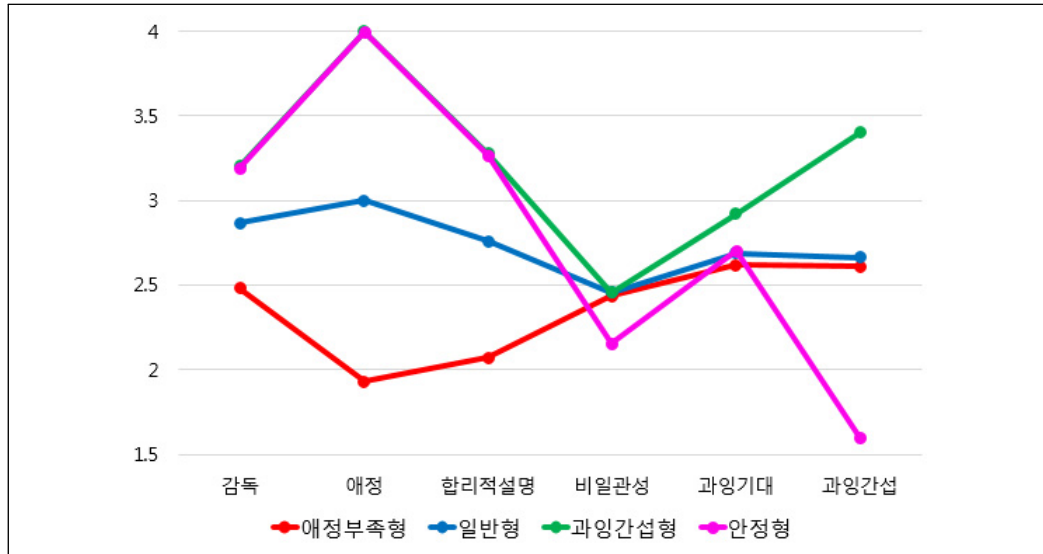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의 유형

2. 삶의 목표와 성별의 특성

1) 삶의 목표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쓰이는 삶의 목표 측정변수는 요인분석과정을 통하여 5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 선택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 적재치는 0.4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삶의 목표 15개의 문항은 5개의 요인(원만한 관계, 올바른 도덕성, 새로운 도전, 안전과 여가, 부와 명성)으로 구분하였다.

삶의 목표 요인별 구분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삶의 목표 요인분석

회전된 성분행렬 ^a		성분				
		1	2	3	4	5
원만한 관계	좋은 친구들과 우정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799	.123	.134	.161	.028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797	.158	.111	.223	-.004
	부모님, 친척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776	.254	.067	.076	.036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737	.275	.050	.052	.009
올바른 도덕성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213	.738	.142	.070	-.006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233	.702	.157	.016	.080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	.264	.613	-.079	.165	.150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070	.584	.295	.268	-.136

회전된 성분행렬 ^a						
새로운 도전	모험심과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119	.176	.812	-.014	.014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048	.117	.792	.102	.000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230	.025	.468	.249	.386
안전과 여가	안전한 동네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153	.256	-.040	.769	.110
	많은 여가 시간을 갖고 자신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250	.079	.242	.725	-.052
부와 명성	부유하게 살고 값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158	-.105	.062	.181	.762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	.169	.214	-.021	-.188	.735

- ❖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 ❖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 ❖ a. 6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2) 삶의 목표와 성별의 특징

청소년의 삶의 목표(원만한 관계, 올바른 도덕성, 새로운 도전, 안전과 여가, 부와 명성)와 성별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삶의 목표와 성별의 차이(남: 927명, 여: 954명)

삶의 목표	성별	평균	전체평균	표준편차	t	p
원만한 관계	남	3.49	3.47	.488	1.706	.088
	여	3.45		.491		
올바른 도덕성	남	3.17	3.16	.452	.844	.399
	여	3.16		.419		
새로운 도전	남	3.05	3.00	.500	3.857	.000***
	여	2.96		.489		
안전과 여가	남	3.27	3.30	.488	-2.108	.035*
	여	3.32		.463		
부와 명성	남	2.45	2.45	.677	.041	.967
	여	2.45		.616		
전체 삶의 목표	남	3.09	3.08	.329	1.324	.186
	여	3.07		.317		

*** $p < 0.001$, ** $p < 0.01$, * $p < 0.05$

먼저 전체적인 평균을 살펴보면 원만한 관계(3.47), 안전과 여가(3.30), 올바른 도덕성(3.16), 새로운 도전(3.00), 부와 명성(2.45)의 순서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삶의 목표 하위요인과 성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만한 관계, 올바른 도덕성, 부와 명성과는 성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과 안전과 여가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로운 도전은 남학생의 평균이 조금 더 높게 나왔다. 이는 삶의 목표를 정하

는데 있어서 남학생이 새로운 도전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전과 여가에서는 여학생의 평균이 조금 더 높게 나왔다. 이는 여학생이 삶의 목표 중 좀 더 안전한 곳에서의 생활에 대한 선호가 더 높고 많은 여가시간을 갖고 자신을 즐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잠재계층별 유형이 삶의 목표에 미치는 특성

1) 잠재계층유형과 삶의 목표 간 차이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청소년의 삶의 목표(원만한 관계, 올바른 도덕성, 새로운 도전, 안전과 여가, 부와 명성) 간의 변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표 5. 잠재계층 유형과 삶의 목표 간 차이

종속변수	잠재계층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정 (Dunnett T3)
원만한 관계	애정부족형(a)	3.28	.565	67.637***	.000	c,d > b b > a
	일반형(b)	3.40	.472			
	과잉간섭형(c)	3.74	.407			
	안정형(d)	3.70	.398			
올바른 도덕성	애정부족형(a)	3.07	.477	35.319***	.000	d,c > b,a
	일반형(b)	3.11	.393			
	과잉간섭형(c)	3.33	.468			
	안정형(d)	3.34	.489			
새로운 도전	애정부족형(a)	2.88	.577	31.349***	.000	c,d > b,a
	일반형(b)	2.95	.437			
	과잉간섭형(c)	3.21	.551			
	안정형(d)	3.14	.566			
안전과 여가	애정부족형(a)	3.23	.526	31.940***	.000	d,c > b,a
	일반형(b)	3.24	.452			
	과잉간섭형(c)	3.48	.472			
	안정형(d)	3.48	.468			
부와 명성	애정부족형(a)	2.48	.719	.971	.405	-
	일반형(b)	2.45	.590			
	과잉간섭형(c)	2.41	.738			
	안정형(d)	2.50	.760			
전체 삶의 목표	애정부족형(a)	2.99	.380	54.919***	.000	c,d > b,a
	일반형(b)	3.03	.291			
	과잉간섭형(c)	3.23	.330			
	안정형(d)	3.23	.311			

*** $p < 0.001$, ** $p < 0.01$, * $p < 0.05$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 유형별로 삶의 목표 하위요인에 대한 인식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모양육방식 유형은 삶의 목표 하위요인에 ‘원만한 관계’, ‘올바른 도덕성’, ‘새로운 도전’, ‘안전과 여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와 명성’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인 삶의 목표와 부모양육방식 유형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삶의 목표 중 원만한 관계는 안정형과 과잉간섭형의 양육방식이 일반형 양육방식보다 지향하는 수준이 높으며, 애정부족형 양육방식 보다는 일반형 양육방식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올바른 도덕성은 안정형과 과잉간섭형 양육방식이 일반형과 애정부족형 양육방식보다 지향하는 수준이 높다. 또한 새로운 도전과 안전과 여가에 대해서도 안정형과 과잉간섭형 양육방식이 일반형과 애정부족형 양육방식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삶의 목표와 부모양육방식 유형은 과잉간섭형과 안정형 양육방식 유형이 일반형과 애정부족형 양육방식 유형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삶의 목표와 부모양육방식 유형간의 평균에 대한 차이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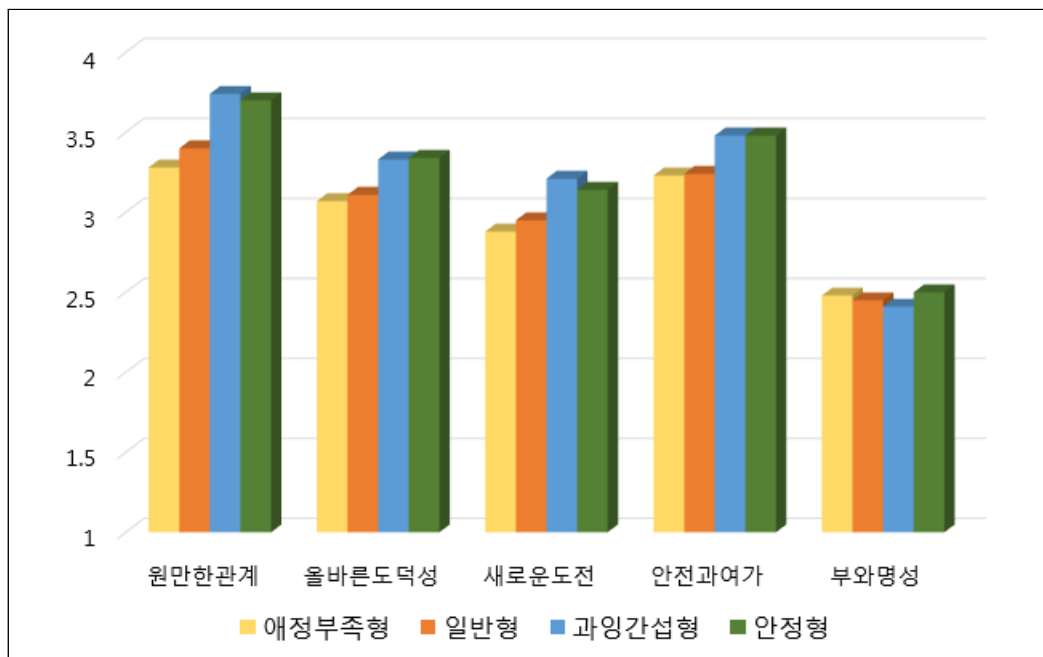


그림 2. 부모양육방식 유형에 따른 원만한 관계 평균

V.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 유형의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각 잠재계층이 삶의 목표의 하위변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후 청소년기의 삶의 목표에 대해 중요한 부모양육방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KCYPS 중학교 1학년 7차 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방식을 반영하는 감독, 애정, 합리적설명,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이라는 6개의 변인을 기준으로 잠재계층유형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 유형은 최종적으로 네 개의 유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유형 특성에 따라 ‘애정부족형’, ‘일반형’, ‘과잉간섭형’, ‘안정형’으로 명명하였다. ‘애정부족형’은 모든 항목이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특히 긍정적 양육방식인 애정이 집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일반형’은 전체 64.8%의 청소년이 이 집단에 포함되어 있으며 4개의 집단 중 가장 많은 청소년이 분포되어 있다. ‘과잉간섭형’은 긍정적 양육방식인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모두가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부정적 양육방식인 과잉간섭이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안정형’은 긍정적 양육방식인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모두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부정적 양육방식인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집단 수를 보이는 집단은 ‘일반형’으로 나타났으며, ‘애정부족형’과, ‘안정형’은 각각 9.7%와 9.8%로 비슷한 비율이 나타났다. ‘과잉간섭형’은 15.7%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느끼는 양육방식 중 긍정적 양육방식(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은 ‘애정 부족형’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 평균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부정적 양육방식(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은 집단마다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이 부모의 양육방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삶의 목표 15문항을 요인분석을 통하여 5개 요인으로 구분 할 수 있었다. 각각의 하위요인에 따라 ‘원만한 관계’, ‘올바른 도덕성’, ‘새로운 도전’, ‘안전과 여가’, ‘부와 명성’으로 구분하였다. ‘원만한 관계’는 가족, 친구, 부모 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문항이고, ‘올바른 도덕성’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고 바른길을 걷고자 하는 문항이다. ‘새로운 도전’은 모험심과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항이고 ‘안전과 여가’는 여가시간을 갖고 자신을 즐기며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이며 ‘부와 명성’은 부유하게 보여 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명성 있는 대학에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이다. 삶의 목표 하위요인 중 가장 높은 평균은 원만한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문화 특성상 부모의 역할이 중요시되며, 사회 생활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다(정태연, 2010). 이와 같이 5개 요인으로 구분된 삶의 목표 요인분석 결과는 삶의 목표를 외재적 목표, 내재적 목표에 물리적 자기(Physical self)목표와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목표로 구분한 Grouzet와 Kasser 외 8인(2005)의 구조와 유사하여 요인구조의 적절성을 지지한다.

셋째, 청소년의 삶의 목표(원만한 관계, 올바른 도덕성, 새로운 도전, 안전과 여가, 부와 명성)와

성별 간의 차이를 본 결과로는 ‘새로운 도전’과 ‘안전과 여가’가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목표를 더 지향하고, 여학생은 ‘안전과 여가’에 대한 목표를 더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 유형이 청소년의 삶의 목표 형성에서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로는 ‘부와 명성’을 제외한 4개 하위요인(원만한 관계, 올바른 도덕성, 새로운 도전, 안전과 여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양육방식 유형이 어떠한 유형이든지 청소년의 삶의 목표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올바른 양육방식 유형에 따라 삶의 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된 청소년은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능력을 발휘할 것이고, 미래의 삶에 대한 그림 맞게 스스로 통제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목표 설정이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Ericsson & Charness(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을 네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어서 삶의 목표를 하위요인으로 구분한 뒤 성별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남학생과 여학생이 추구하는 목표의 차이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계층구분된 부모양육방식유형과 삶의 목표 중 하위요인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부모양육방식유형은 청소년의 삶의 목표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청소년의 삶의 목표를 형성함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크므로 앞으로 양육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지 부모의 역할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방식유형과 삶의 목표 하위 요인을 KCYPS의 중 1패널 7차년도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는 부모양육방식의 변화와 삶의 목표가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계층의 성장모형을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삶의 목표형성에 부모양육방식유형만 주요하게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다른 요인들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공계순, 서인해(2016). 고등학생의 생애목표 관련 요인 및 생애목표의 영향에 관한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5(2), 1-26.
- 곽윤영, 정문자(2010). 부모의 양육태도 및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3), 121-141.
- 권재기(2011).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의 발달양상과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잠재계층 성장분석(LCGA), 다집단 성장혼합모형(GMM)을 이용한 종단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4, 96-127.
- 권재환, 이성주(2013).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4(2), 35-62.
- 김경민(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5(-), 40-74.
- 김두환(2014). 21세기 한국 청소년들의 삶의 목적과 사회-개인과 사회의 상생. 사회사상과 문화, 30, 257-289.
- 김성수 · 윤미선(2013). SDT의 목표내용이론에 기반한 청소년용 생애목표 척도개발 및 타당화. 교육학연구, 51(4), 87-117.
- 김신경, 박민경, 안지선(2014).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부모 양육행동유형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6(2), 163-182.
- 남상철, 유영달(2007). 부모와 자녀의 양육태도 지각 및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51-75.
- 문경주, 오경자(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29-43.
- 문병상(2011). 미래지향적 목표의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교육평가연구, 24(3), 665-683.
- 박계란, 이지민(2012). 남녀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9(2), 5-20.
- 박민혜, 정윤경(2012). 부모의 목표지향성과 양육행동에 따른 자녀의 목표지향성. 인간발달연구, 19(1), 123-141.
- 박지숙, 임승현, 박성연(2009). 아동의 성, 기질, 어머니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0(3), 85-98.
- 배장섭(2017). 부모양육행동, 정서문제 및 삶의목표가 청소년의 학습습관에 미치는 영향. 뇌교육연구, 19(-).
- 서경현(2012). 초기 청소년기에 있는 아동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및 부모 간 양육태도 불일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9(1), 207-226.
- 서경현, 조양선, 손솔(2013).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부모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건강, 18(1), 203-217.
- 소미강(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2012).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3(1), 149-173.
- 손석한, 노경선, 허묘연, 정현옥, 이소희, 김세주(2001).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40(4), 605-615.

- 신종호, 서은진, 이유경(2011). 생애목표검사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5(2), 255-276.
- 신종호, 조은별, 이유경(2012). 교육심리학에서의 목표연구를 통해 본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 *교육심리학회지*, 26(1), 103-122.
- 신태수(2010). 중단프로파일 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한 잠재집단연구: 성장혼합모형과 비교를 통하여. *교육평가연구*, 23(3), 641-664.
- 신현균, 임지영(2003). 한국판 청소년 분노 평가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연구.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2(2), 449-462.
- 오성심,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트*, 11(1), 1-15.
- 우영지, 이기학(2007).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를 매개로.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23-1039.
- 유영달, 이은지(2010).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자기분화 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91-115.
- 윤선아(2016). 청소년의 생애목표와 부모 양육태도, 정서문제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 910-933.
- 윤언정, 김경연(2010). 부, 모의 심리적 통제 및 과잉기대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자기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8), 67-76.
- 이상균(2009). 청소년기 경비행행동과 부모양육행동간의 병렬적 잠재성장모형 분석 -청소년에게 부모는 여전히 중요한가. *한국가족복지학*, 27(-), 243-266.
- 이숙, 최정미(2006).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위축 및 자기유능감.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7(2), 69-79.
- 이승연, 김희화(2015). 초기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사회불안에 대한 부모의 과잉간섭과 친구관계 질의 상호작용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3(1), 85-94.
- 이승화(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특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교육연구*, 20, 85-104.
- 이정숙, 김준호(2014). 부모 양육태도 불일치가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6(3), 207-235.
- 이주연, 조연희(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남녀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7(2), 53-70.
- 이현숙, 조한익(2004).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 목표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89-105.
- 이형화, 장형심(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 자녀의 목표추구지향성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종합연구*, 13(2), 25-49.
- 임혜림, 김서현, 정익중(2014).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6(4), 1-27.
- 전란영, 김희화(2016).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 및 과잉간섭적 양육이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4(2), 57-67.
- 정원식(1974). *교육환경론*. 서울: 교육출판부.
- 정태연(2010). 한국사회의 집단주의적 성격에 대한 역사·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24(3), 53-76.

- 최은지, 이종한(2005). 양육태도, 정서지능, 그리고 대인관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50-151.
-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묘연(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허재홍(2006). 부모양육태도, 완벽주의,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8, 593-611.
- 홍영미, 성현란(2012). 대학생의 기질 및 부모양육행동이 외현적, 내재적 자기에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5(4), 35-48.
- Adler, A. (1964). *Superiority and Social Interest, A Collection of Later Writing*. H. L. Ansbacher and R. R. Ansbacher (Eds).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Ashland, OH, US: Hogrefe & Huber Publishers Grouzet, F. M., Kasser, T., Ahuvia, A., Dols, J. M. F., Kim, Y., Lau, S., Ryan, R. M., Saunders, S., Schmuck, P., & Sheldon, K. M. (2005). The structure of goals across 15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800-816.
- Austin, T., & Vancouver, J. B.(1996). Goal constructs in psychology: Structure, process, and content. *Psychological Bulletin*, 120(3), 33-378.
- Baumrind D.(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ical*, 2, 181-189.
- Baumrind, D. (1967). Childcare practice, antecedent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345-388.
- Brookover, W. B., Erickson, E. L., & Joiner, L. M. (1975). *Self-concept of ability and school achievement III (Final Report of Cooperative Research Project NO. 1831)*. East Lansing, Michigan: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 Bruch, M. A., Heimberg, R. G., Berger, P., & Collins, T. M. (1989). Social phobia and perceptions of early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xiety Research*, 2, 57-63.
- Budhar, L. Reeves, D. Farrell, P. (2000). Life goals as a function of social class and child rearing practices in Indi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 227-245.
- Burgess, K., Rubin, K.H., Cheah, C., & Nelson, L. (2001). Socially withdrawn children: Parenting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 Crozier & L. E. Alden (Eds.), *The self, shyness and social anxiety A handbook of concepts, research, and interventions*(pp.137-158). New York, NY: Wiley.
- Cantor, N., Norem, J., Niedenthal, P., Langston, C., & Brower, A. (1991). Life-tasks, self-concept ideals and cognitive strategies in a life trans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178-1191.
- Crosby, R. D., Wonderlich, S. A., Engel, S. G., Simonich, H., Smyth, J., & Mitchell, J. E. (2009). Daily mood patterns and bulimic behaviors in the natural environmen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7, 181-188.
- Damon, W., Menon, J. and Bronk, K. C (2003). The development of purpose during adolescence.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7(3), 119-128.
- Emmons, R. A. (1986). Personal strivings: An approach to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058-1068.
- Emmons, R. A. (2003). Personal goals, life meaning, and virtue: Well springs of positive life. In C. L. M.

- Ericsson, K. S., & Charness, N. (1994). Expert performance: Its structure and acquisition. *American Psychologist*, 49, 725-747.
- Eryilmaz, A. (2011). Satisfaction of needs and determining of life goals: a model of subjective well being for adolescents in high school. *Educational Science: Theory & Practice*, 11(4), 1757-1764.
- Gabrielsen, L. E., Ulleberg, P. & Watten, R. G. (2012). The adolescent life profile scale: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ement of life goals among young people. *Journal of Happiness Study*, 13, 1053-1072.
- Gitelson, I. B., & McDermott, D. (2006). Parents and their young adult children-Transitions to adulthood. *Child Welfare*, 85(5), 853-866.
- Harris, G. T., Rice, M. E., Quinsey, V. L., Lalumiere, M. L., Boer, D., & Lang, C. (2003). A multi-site comparison of actuarial risk instruments for sex offenders. *Psychological Assessment*, 15, 413-425.
- Havighurst, R. J. (1948).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3rd ed). NewYork: McKay.
- Havinghurst, R. J. (1981). *The Life Cycle*. The modern American college.
- Headey, B. W. (2008). Life goals matter to happiness: A revision of set-point theory. *Social Indicators Research*, 86, 213-231.
- Hofer, J. & Chasiotis, A. (2003). Congruence of life goals and implicit motives as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Cross-cultural implication of a study Zambian Male Adolescents. *Motivation and Emotion*, 27(3), 251-272.
- Kasser, T., & Ryan, R. M.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3), 280-287.
- Kasser, T., & Ryan, R. M. (2001).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Optimal functioning and the relative attainment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In Life goals and well-being: Towards a positive psychology of human striving*. Schmuck, Peter, (Ed); Sheldon, Kennon M., (Ed), 116-131.
- Kasser, T., Ryan, R. M., Zax, M. & Sameroff, A. (1995). The relations of maternal and social environments to late adolescents' materialistic and prosocial values. *Developmental Psychology*, 31(6), 907-914.
- Keyes & J. Hadit (eds.). Flourishing: Positive *Psychology and the life well-lived* (pp.105-12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 Langan-Fox, J. (1991). The stability of work, self and interpersonal goals in young women and me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1, 419-428.
- Levinson, D. J.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Random House.
- Lo, Y., Mendell, N., & Rubin, D.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 767-778.
- Nurmi, J. E. (1992). Age differences in adult life goals, concerns, and their temporal extension: a life course approach to future oriented motiv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5, 487-508.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 Equation Modeling*, 14(4), 535-569.
- Palfai, T. P., Ralston, T. E., & Wright, L. L. (2011). Understanding university student drinking in the context of life goal pursuits: The mediational role of enhancement motiv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 169-174.
- Parker, G. (1979).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agoraphobia and social phobia.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5, 555-560.
-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 Ryan, R. M., Sheldon, K. M., Kasser, T., & Deci, E. (1996). All goal were not created equal: An organismic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goals and their regulation. In P. M. Gollwitzer & J. A. Bargh (Eds.), *The psychology of action: Linking motivation and cognition to behavior*. NY: Guilford.
- Salmela-Aro, K. (2009). Personal goals and well-being during critical life transitions: The four C's-Channelling, choice, co-agency and compensation,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4, 63-73.
- Schaefer, E. S.(1959).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9.
- Schmuck, P., & Sheldon, K. M. (2001). *Life goals and well-being: Towards a positive psychology of human striving*. Gottingen: Hogrefe & Huber Publishers.
- Symonds, P. M.(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Columbia University. 84-88.
- U.S. Department of Education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2). *Nation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Eighth grade questionnaire*. Chicago: A 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Chicago.
- Wigfield, A., Harold, R. D., Freedman-Doan, C., Eccles, J. S., Yoon, K. S., Arbretton, A. J., &Blumenfeld, P. C. (1997). Change in children's competence Beliefs and subjective task values across the elementary school years: A 3-year stud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 451-469.

제 ③ 주제

비행/폭력A



1. 청소년의 교육소외와 비행
2. 친구관계와 부모의 영향이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 변화 양상에 주는 효과
3.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비행행동 유형화

청소년의 교육소외와 비행

서봉언*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교육소외의 개념 정립을 위하여 하위변인을 찾고, 교육소외 실태 및 차이를 분석하고, 청소년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소외 하위변인으로 무력감, 무의미감, 무규범성, 사회적 고립, 학교교육 및 활동에 대한 무가치 등을 상정하였으나, KCYPS의 문항 중 무규범성을 대변하는 자료가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력감, 무의미감, 사회적 고립, 학교교육 및 활동에 대한 무가치로 진행하였다. 무력감 및 무의미감, 사회적 고립, 학교교육 및 활동의 무가치 3 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교육소외 하위요인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교육소외의 실태를 확인할 결과, 대체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소외 하위변인은 성별, 비행경험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무력감 및 무의미감의 경우 남녀 간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학교교육 및 활동에 대한 무가치는 여학생들이 더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감의 경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어 교육소외 하위변인별 남녀 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교교육 내 부적응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 교육소외에 있어 성별에 따라 다른 시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비행경험여부에 따라 교육소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하위변인에서 비행 경험이 있는 중학생들이 교육소외를 더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소외가 비행 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가정변인 및 자존감을 통제하여도 교육소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무력감 및 무의미감과 학교교육의 무가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무력감과 무의미감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비행 가담 확률은 90% 상승하며, 학교교육에 대한 무가치함을 한 단위 더 느낄수록 비행 가담 확률이 56%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교육소외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교육소외, 비행, 무력감, 사회적 고립, 학교교육 무가치

I. 들어가며

최근 수업참여 기피 현상과 관련한 흥미로운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성열관과 이형빈(2014)은 ‘수업시간에 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업시간에 자는 원인을 학습동기의 부족과 같은 심리적 문제보다 학교와 교실의 규범, 질서, 집단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수업참여 기피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들이 밝힌 여러 결과 중 보다 주목했던 결과는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들의 가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중등교육연구소

정배경에 대해 특별히 경향적 특징이 나타난 것이 아니지만 대체로 계층적으로 중간층 이하, 그리고 방과후 무료 학습과 같은 학교에서 여러 지원을 받는 학생이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본 연구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수업참여 기피 현상이 교육격차를 야기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수준에서 비롯한 교육 양극화, 교육격차 담론은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뜨겁다. 소득의 불평등은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기 쉬운데(Coleman et al., 1966; OECD, 2017), 특히 성열관과 이형빈(2014)이 밝힌 것처럼 교육기회는 주어졌으나 수업참여 기피와 같은 실질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된다. 수업참여 기피와 낮은 사회계층과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려우나,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고(성열관, 이형빈, 2014; McInerney, 2008; Willis, 1977, Zammit, 2011), 수업참여기피와 같은 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학생들의 교육적 성공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특히 학력이 갖는 경제적 효과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장수명, 2006),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학생이 사회적 성공으로 이어지기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소외는 이에 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강성국 외(2014)는 교육소외에 관한 국내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며, 교육소외의 개념이 등장한 데에는 1990년대 이후 교육복지에 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증가되면서 교육복지를 필요로 하는 현상 혹은 교육복지의 대상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보편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교육소외의 개념 정립을 위한 노력은 2005년 중반 이후 시도되었지만 관련 연구는 미흡하며, 대표적인 김인희(2006)에 의하면 교육소외란 ‘정상적인 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 경험을 갖지 못함으로써 자신이 지닌 잠재능력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성장의 길을 걷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는 현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한승희(2005)는 학습결핍과 학습왜곡의 두 관점에서 교육소외를 정의하는데, 자기학습능력을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은 학습결핍, 교육을 받기는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학습력이 향상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학습능력이 상당 부분 훼손된 경우를 학습왜곡으로 지칭하였다(강성국 외, 2014 재인용).

이와 같은 관점에 비추어 보면, 교육소외는 자의든 타의든 학습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한 상황을 말하며, 특히 학령기 청소년들이 학교 내 교육과정을 통해 쌓아야 할 다양한 교육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소외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며 또한 그 양상도 다양할 수 있다. 가령 성열관과 이형빈(2014)이 주목하였던 수업참여 기피현상도 교육소외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소외에 관한 학문적 논의는 부족하나, 그간의 관점에 비추어보면 교육소외는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즉 교육소외는 학업중단, 비행과 관련이 깊고(Hawkins et al., 2000; Schulz & Rubel, 2011; Williamson & Cullingford, 1998), 이는 교육격차로 이어져 청소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도 낮은 사회계층을 형성할 개연성이 크다.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학생들은 낮은 사회계층에 속한 학생들일 가능성 또한 크다(성열관, 이형빈,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지만 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경험을 충

분히 쌓지 못하는 교육소외 학생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학교교육과정에서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소외’의 하위변인을 찾고 그 실태를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소외가 청소년 문제행동 중 하나인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으로 탐색하여 교육소외에 관한 학문적 논의를 이끌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1. 교육소외의 개념 및 하위변인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소외에 관한 국내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교육소외에 관한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이은숙, 2002). 대부분의 교육소외 연구는 사례 연구 및 문헌연구로 이루어진 질적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김인희, 2006; 윤나리, 김영란, 2004). 국외의 경우 교육소외(education alienation)라는 용어보다 학습소외(alienation in the learning) 혹은 학생소외(student alienation)라는 표현이 일반적이다(강성국 외, 2014; Hyman et al., 2003; Middleton, 1963)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육소외 그 자체의 현상보다 교육소외 계층 또한 교육소외 집단에 초점을 맞추거나 교육복지를 위한 정책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강성국 외, 2014; 김인희, 2006; 최상근 외, 2004). 최상근 외(2004)는 교육소외 계층의 교육실태를 분석하여 정책과제를 제안하면서 교육소외 유형별 주요증상과 집단을 구분한 바 있다. 크게 개념을 학습결핍, 교육부적합, 조건결핍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양상을 미증, 경증, 중증으로, 교육소외 발생 원인을 개인, 학교, 환경 요인으로 탐색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교육소외 개념 및 유형을 분석하여 교육소외 주요 집단으로 저소득층 자녀, 탈북자 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 저학력 성인, 농어촌 자녀, 장애인 및 저능아 등을 꼽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소외 계층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기에 교육소외에 관한 교육적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국내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소외는 두 가지 발생 원인으로 수렴된다. 먼저 적절한 교육기회 및 조건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이고 다음으로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기는 하였으나 개인의 학습요구와 맞지 않아 학습경험을 쌓지 못하는 경우이다(강성국 외, 2014). 전자의 경우는 교육에 있어 사회적 약자로 취약집단과 동일한 개념이며, 후자의 경우 전술한 수업참여 기피현상과 같은 학교 내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 내면화하지 못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강성국 외(2014)는 이러한 관점을 취해 교육소외에 있어 ‘취약집단’과 ‘학습소외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나, 통상 취약집단일 경우 학습소외가 빈번히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에 이분법적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는 교육소외는 교과흥미 및 학습동기와 같은 개인 심리변수, 학교풍토, 학교부적응 등의 여러 사회

적 변인과 관련이 깊고, 교육소외의 양상도 다양하기에 보다 종합적인 관점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소외의 명확한 개념 부재는 교육소외를 측정하는 평가도구가 미흡한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현재 국내 교육학 분야에서 활용되는 학생 소외 척도(이은숙, 2002)는 Mau의 1992년에 개발된 문항을 변안한 척도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Mau의 SAS(Student Alienation Scale)척도는 Seeman(1959)의 ‘소외’ 개념을 바탕으로 고안되었으며, 하위개념으로 포함된 무력감(powerlessness), 무의미감(meaninglessness), 무규범(normlessness), 사회적 유리(social estrangement) 등 4개의 요인은 그 영역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를 현재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가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Mau의 척도는 사회학 및 경제학적 관점에서 논의된 Seeman의 ‘소외’ 개념을 활용하였다는 측면에서 교육소외를 완벽히 대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있다.

주로 활용되는 소외감 척도의 하위변인으로 Seeman(1959)가 제안한 무력감, 무의미, 무규범, 사회적 고립, 자기 소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력감은 좌절감과 관련이 깊고 자기가 추구하는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할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다. 무의미감은 현재 자신의 행동이 도출해낼 미래 결과에 대해 낮은 기대감을 특징으로 한다. 무규범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회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행동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으로 적응이 부족한 상태와 함께 사회로부터 동떨어짐으로 보아야 한다. 즉 전형적으로 용인된 사회적 목표와 신념에 낮은 가치를 두는 것이다. 자기소외는 자신이 행한 행동에 내적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내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 혹은 만족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이렇듯 사회학 및 경제학을 토대로 한 Seeman의 소외감 하위변인은 교육 상황에 적용하기는 제한적인 부분이 많으며, 교육소외의 핵심적인 단면인 학습소외를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요컨대 교육소외를 정의하고 그 실태를 살펴보는 일은 교육격차 및 교육 불평등의 담론에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국내의 연구들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소외 계층 및 정책과제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소외에 관한 학문적 탐색은 미흡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거나 혹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하여 적절한 교육기회를 받았더라도 청소년이 학교교육과정 내 쌓아야 할 학습경험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상황을 교육소외라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교육소외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Seeman(1959)이 제시한 무력감, 무의미감, 무규범, 사회적 고립을 포함한 학교교육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는 인식도 포함하고자 한다.

2. 교육소외와 비행

청소년의 교육소외는 비행과 관련이 깊다. Hawkins와 그의 동료들(2000)은 청소년 폭력의 예측요인으로 낮은 수준의 학교애착을 꼽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소외감을 느낄수록 무단결석, 학업실패, 학교폭력 등과 관련이 깊음을 보고하고 있다(Bridgeland et al., 2006; Brown et al., 2003; Schulz & Rubel, 2011).

한편 학업중단 혹은 학교 내 잠재적 위험학생들에 있어 성(gender)은 꾸준한 논쟁이 있어 왔다. 통

상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련의 문제는 남학생들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roninger & Lee, 2001; Schulz & Rubel, 2011). 이는 학업중단의 예측요인으로서 교육소외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교육소외는 학업중단을 강력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지목한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학업중단이 일어나기 전 다양한 부적응 행동이 관찰되며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한다(Frey et al., 2009; Hascher & Hagenauer, 2010). Williamson & Cullingford(1998)는 영국의 13세에서 15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외의 경험을 조사하였는데, 소외의 수준은 종교의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나 성(gender)과 민족과는 매우 적은 수준의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소외감은 자아존중감과 부족한 상관을 보이며, 무단결석, 학교 내 부적응 행동과 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교육소외에 관하여 성별과 학업중단의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Schulz와 Rubel(2011)은 16세에서 19세의 학업을 중단한 남학생들의 교육소외를 현상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3가지의 중요한 관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교육소외를 경험한 학생들이 부정적인 행동결과가 있더라도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으로 학교 내 성인들에 대한 신뢰가 낮고, 실패의 두려움과 자신과 가족에 대해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관계 맺기, 신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지지해주는 것이다. 즉 학업중단은 청소년의 대부분의 보내는 학교생활에서 학교구성원으로 존재감을 느끼고 소외되지 않으며 주변인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보면 학교교육으로부터 소외를 느끼면 느낄수록 무단결석, 학교폭력 등의 청소년 비행에 가담할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소외에 관한 국내외 문헌들을 토대로, 무력감, 무의미, 사회적 고립, 학교교육에 대한 무가치 등을 교육소외의 하위변인으로 상정하고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제공하는 문항 중 교육소외의 문항과 유사한 문항을 추출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별, 비행참여집단별 교육소외의 차이와 청소년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으로 탐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최근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교육소외의 개념 정립 및 실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이하, KCYPs) 초1패널의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교육소외의 실태 및 비행 간의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초1패널의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는 중학교 1학년이었다.

본 분석에 활용된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표 1>로 나타내었으며, 자세히 살펴보면 연간 가구소득이 약 5,000만원이며, 아버지의 최종학력 평균이 전문대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구분	초1 패널(중1)
성별	남 = 1,039명(51.9%)
	여 = 963명(48.1%)
	전체 = 2,002명
연간 가구소득	약 5,283만원
부학력	3.20(전문대졸 이상)

청소년의 교육소외 실태분석을 위해 기술통계와 평균차이 분석을 실시하고, 교육소외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모형을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2. 변수 설명

먼저 교육소외 하위변인으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무력감, 무의미감, 무규범, 사회적 고립, 학교교육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을 상정하였으나, 무규범을 적절히 대변하는 문항이 부족하여 무력감, 무의미감, 사회적 고립, 학교교육에 대한 무가치를 추출하였다. 그러나 무력감 및 무의미감은 우울을 측정하는 하위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문항으로 나타남에 따라 무력감

및 무의미감을 하나의 변인으로 상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교육소외’ 하위변인 간의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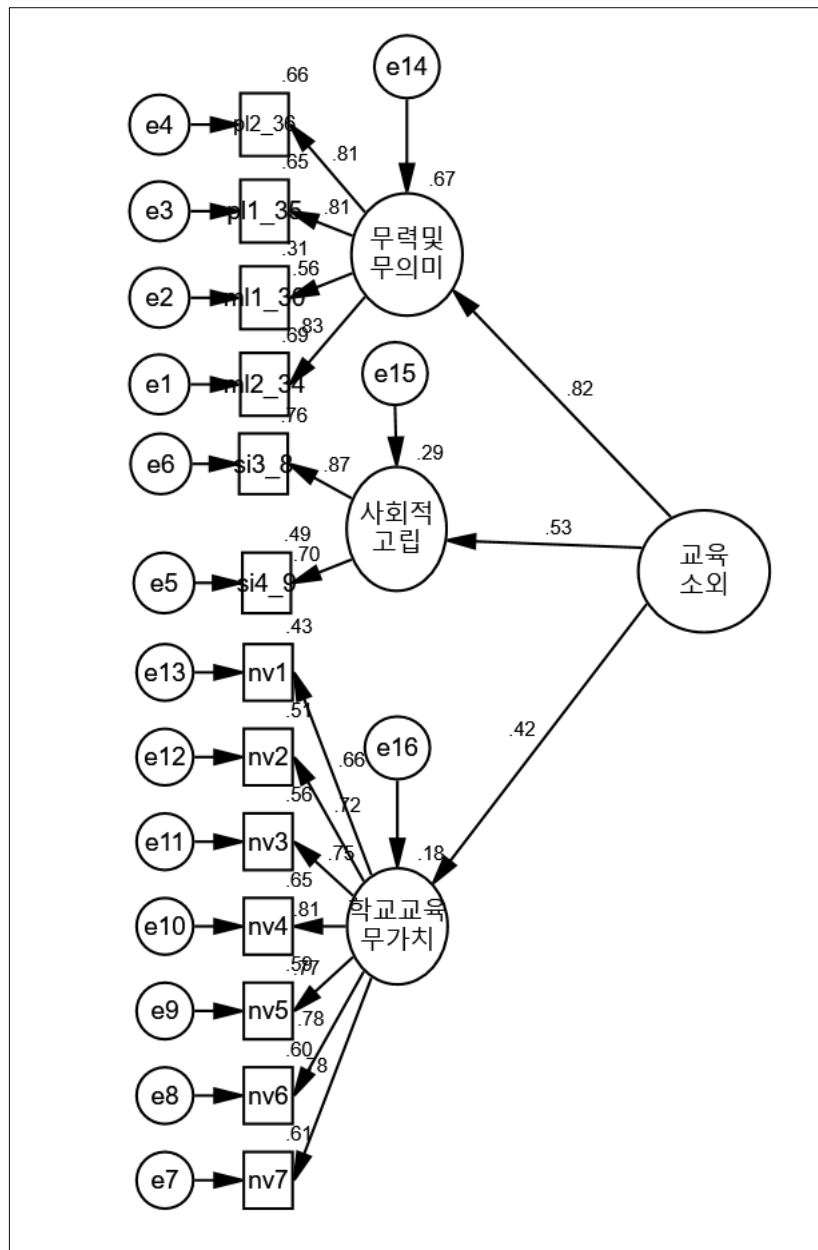


그림 2. 교육소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적재치에 ‘1’이 넘거나, 분산추정치에 ‘-’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형 적합도는 <표 2>에서 보듯이, RMSEA가 .05이하, TLI, CFI 모두 .90이상으로 모형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정한 교육소외의 하위요인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 교육소외 측정모델 적합도

χ^2	df	TLI	GFI	RMSEA
405.638	62	.959	.972	.049

아울러 교육소외로 추출한 각 문항들을 Rasch 모델을 적용하여 평정척도모형(Rating Scale Model)으로 살펴본 결과, 각 문항들은 교육소외를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었으나, 사회적 고립 두 문항(si1, si2)의 infit이 1.3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의 문항이 교육소외의 주요한 영역이기에 삭제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각 문항의 IRT-plot은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표 3. 교육소외 문항 분석 결과

문항	Difficulty	SE	infit	outfit
pl1	.47	.04	1.09	1.06
pl2	.43	.04	1.14	1.06
ml1	1.45	.05	1.22	1.22
ml2	.68	.04	1.00	.95
si1	.27	.04	1.52	1.52
si2	-1.98	.03	1.85	2.02
nv1	-.40	.04	.87	.87
nv2	-.10	.04	.82	.81
nv3	-.03	.04	.74	.72
nv4	-.11	.04	.74	.72
nv5	-.30	.04	.80	.79
nv6	-.38	.04	.75	.74
nv7	.01	.04	.72	.69

본 분석에서 활용한 변수는 <표 4>와 같다.

비행경험여부는 비행관련 문항의 경험을 합산하여 1회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 '1'로, 경험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딩한 더미변수로 활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통제변수로는 성별, 부학력, 가구소득, 가정경제평가, 부모감독 및 자아존중감을 상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KCYPS는 Rosenberg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문항8은 요인분석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항8을 제외하고 요인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응답하는 5문항만을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표 4. 분석에 활용된 변수

	문항	변수처리 및 특징
교육소외		
무력감 및 무의미감	무력감 2문항 1.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2. 모든 일이 힘들다. 무의미감 2문항 3.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4.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매우 그렇다 = 4, 그런 편이다 =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 2, 전혀 그렇지 않다 = 1로 변환하여 사용. 문항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무력감 및 무의미감이 높은 것으로 측정
무가치	총 7문항 1. 학교 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 나는 학교생활이 내가 성장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4. 학교생활이 나의 미래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5. 학교 공부는 내가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6.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내가 살아가는 데 유용할 것이다. 7. 학교생활은 앞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그렇다 = 1, 그런 편이다 =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 3, 전혀 그렇지 않다 = 4로 변환하여 문항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및 공부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으로 측정
사회적 고립	2문항 1.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2.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	매우 그렇다 = 4, 그런 편이다 =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 2, 전혀 그렇지 않다 = 1로 변환하여 사용. 문항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것으로 측정
종속변수		
비행경험 (이분형) (1 = 1회이상 경험, 0 = 무경험)	1. 담배피우기 2. 술 마시기 3. 무단결석 4. 가출 5.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6.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 시키기 7. 패싸움 8.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9. 다른 사람 협박하기 10.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뺑뺏기) 11.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12. 성관계 13. 성폭행이나 성희롱 14. 돈을 걸고 도박 게임하기	경험여부(있다 = 1, 없다 = 0)를 합산(1~14번까지)하여, 1회 이상 경험한 경우 '1', 전혀 없는 경우 '0'으로 코딩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통제변수		
성별	남 = 1, 여 = 0	더미변수
가구소득	연 가구소득	자연로그
부학력	부학력	중졸이하 = 1, 고졸 = 2, 전문대졸 = 3, 대졸 = 4, 대학원졸 = 5 자연로그하여 활용
가정경제평가	가정 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응답	매우 잘 사는 편 = 7 잘 사는 편 = 6 약간 잘 사는 편 = 5 보통(중간) 수준 = 4 약간 못 사는 편 = 3 못 사는 편 = 2 매우 못 사는 편 = 1 로 사용
부모감독	1.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2.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3.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	매우 그렇다 = 4, 그런 편이다 =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 2, 전혀 그렇지 않다 = 1 로 변환하여 합산
자존감	1.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3.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4.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7.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0.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매우 그렇다 = 4, 그런 편이다 =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 2, 전혀 그렇지 않다 = 1 로 변환하여 사용.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측정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교육소외 및 비행 경험의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무력 및 무의감의 평균은 1.53, 무가치는 1.80, 사회적 고립은 1.84로 대체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비행 경험 또한 상당수 중학생은 비행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항목 중 1회 이상 경험한 중학생은 119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5.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교육소외 및 비행 경험 기술통계

내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교육소외	무력 및 무의미	2,002	1	4	1.53	0.56
	무가치	2,002	1	4	1.80	0.53
	고립	2,002	1	4	1.84	0.76
비행	비행경험	없음 = 1,883명(94.1%), 있음 = 119명(5.9%)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는 <표 6>에 제시하였다. 교육소외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184에서 .370사이로 보통 수준 이하의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가구소득과 가정의 경제 평가와는 부적인 상관으로 확인되었으며 부모감독 및 자아존중감은 상대적으로 보통 수준의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교육소외 문항과 개인점수 간의 지도(item-person map)를 그려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본 자료에 포함된 학생들은 대체로 소외감이 낮은 집단에 속하며, 그에 반해 문항들은 소외감이 높은 아이들을 위한 문항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교육에 대한 무가치 문항들은 난이도가 낮고, 무력 및 무의미감의 문항은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하였다. 따라서 교육소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무가치에 대한 문항난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소외에 대한 컷오프 점수를 판별하는 도구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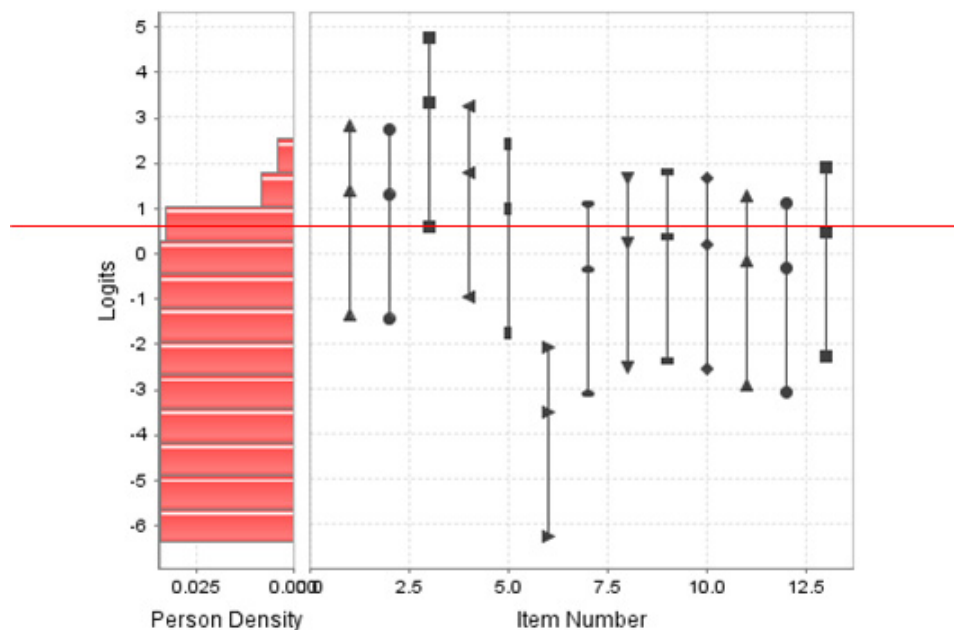


그림 3. item-person map

표 6.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무력 및 무의미	무가치	고립	성별	ln가구조득	ln부학력	가정경제평가	부모감독	자존감
무력 및 무의미	1								
무가치	.304**	1							
고립	.370**	.184**	1						
성별	-0.026	-0.042	.083**	1					
ln가구조득	-.050*	-.082**	0.002	0.033	1				
ln부학력	-0.004	-.071**	-0.014	0.035	.344**	1			
가정경제평가	-.126**	-.169**	-.050*	.122**	.225**	.111**	1		
부모감독	-.293**	-.370**	-.179**	-0.029	.124**	.064**	.159**	1	
자존감	-.520**	-.416**	-.301**	.062**	.073**	-0.006	.156**	.329**	1
N	2,002	2,002	2,002	2,002	1,973	1,928	2,002	2,002	2,002
최소값	1	1	1	0	6	0	2	1	1
최대값	4	4	4	1	10	2	7	4	4
평균	1.53	1.80	1.84	0.52	8.47	1.07	4.62	3.41	3.17
표준편차	0.56	0.53	0.76	0.50	0.48	0.35	1.01	0.53	0.56
왜도	1.12	0.42	0.79	-0.08	-0.58	-0.27	0.70	-0.70	-0.28
첨도	1.46	0.48	0.25	-2.00	1.99	-0.92	-0.18	0.38	0.01

* : $p < .05$ ** : $p < .01$ *** : $p < .001$

2. 교육소외의 성별·비행경험별 차이

전체 분석대상으로 하였을 때, 교육소외는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성별 및 비행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탐색해 보았다. 교육소외의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7>으로 제시하였다.

표 7. 교육소외의 성별 차이

내용	남			여			t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무력 및 무의미	1,039	1.52	0.55	963	1.55	0.57	1.159
무가치	1,039	1.78	0.53	963	1.83	0.53	1.902 [†]
고립	1,039	1.90	0.78	963	1.77	0.72	-3.729***

† : $p < .10$ *** : $p < .001$

<표 7>을 자세히 보면, 무력감 및 무의미는 남녀 간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의 경우 남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여학생에 비해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었다. 즉 사회적 고립감을 여자 중학생보다 남자 중학생이 더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통계수준 .10에서 학교교육 및 생활에 대한 무가치함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비행경험유무에 따른 교육소외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결과를 <표 8>로 제시하였다.

표 8. 교육소외의 비행경험별 차이

내용	비행 경험 있음			무경험			t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무력 및 무의미	119	1.76	0.65	1,883	1.52	0.55	-4.019***
무가치	119	2.01	0.69	1,883	1.79	0.52	-3.443***
고립	119	2.02	0.83	1,883	1.83	0.75	-2.738**

** : $p < .05$ *** : $p < .001$

<표 8>을 살펴보면, 무력감 및 무의미, 무가치, 사회적 고립 모두 비행경험여부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비행 경험이 있는 중학생들이 교육소외를 더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있으나, 가장 큰 평균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무력감 및 무의미감(4.24)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교교육 및 활동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에 대해 4.22,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감은 4.19 순으로 확인되었다.

3. 교육소외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비행 경험 여부에 따라 교육소외감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남에 따라 교육소외가 청소년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았다. 이를 위해 비행 경험은 더미변수로 상정되어 있어 이항로지스틱분석을 활용하였다.

모형 1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가정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모형이며, 모형 2은 자존감의 통제변인을 추가하였고, 모형3은 교육소외 변인을 추가한 최종 모형이다. 즉 청소년 비행 참여에 유의한 변수로 꼽히는 자존감(서봉언, 2017)을 통제한 후에도 교육소외가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Hosmer & Lemeshow 검정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9〉에 제시된 모형1의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가정변인만을 투입한 결과 성별, 가정경제평가, 부모감독이 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남학생일수록 비행에 가담할 확률($B=1.19$, $p<.001$)이 높고, 가정의 경제상황이 잘 사는 수준으로 평가하고($B=-.41$, $p<.01$) 부모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질수록($B=-.36$, $p<.05$) 비행에 가담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통제변인인 자존감을 투입한 모형2의 결과, 부모감독의 영향이 사라지고, 성별($B=-.39$, $p<.001$)과 가정경제평가($B=-.39$, $p<.05$)의 효과는 일관되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존감의 경우 통계수준 .10에서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37$, $p<.10$).

표 9. 교육소외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모형3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상수	2.39	2.05	10.89	2.99	2.07	19.91	-1.00	2.30	0.37
성별	1.19***	0.23	0.30	1.22***	0.23	.000	1.25***	0.24	0.29
로그연소득	0.01	0.31	1.01	-0.02	0.31	.938	0.00	0.31	1.00
부학력	-0.06	0.25	0.94	-0.04	0.25	.874	-0.08	0.25	0.93
가정경제평가	-0.41**	0.12	0.67	-0.39**	0.12	.001	-0.35**	0.12	0.70
부모감독	-0.36*	0.18	0.70	-0.26	0.19	.186	-0.08	0.20	0.92
통제 자존감				-0.37†	0.19	.050	0.12	0.23	1.13
무력 및 무의미							0.64**	0.20	1.90
무가치							0.46*	0.21	1.59
고립							0.05	0.14	1.05
-2 Log 우도	765.218			761.458			744.591		
Nagelkerke R ²	.070			.075			.100		
$\chi^2(p)$	3.995(.858)			6.965(.540)			5.221(.734)		

†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교육소외를 투입한 최종 모형 분석 결과, 자존감의 효과는 사라졌으나 성별($B=1.25, p<.001$)과 가정경제평가($B=-.35, p<.01$)는 여전히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교육소외 하위변인 중 무력감 및 무의미감($B=.64, p<.01$)과 학교교육 및 활동의 무가치함($B=.46, p<.05$)만이 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환언하면 무력감 및 무의미감이 1단위 증가하면 비행에 가담할 확률이 90%증가하며, 학교교육에 대해 무가치함을 1단위 더 느낄수록 비행에 가담할 확률이 59% 증가한다는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최근 사회적 담론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격차 문제에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았으나 교육적 욕구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제공받은 교육기회를 자의든 타의든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일련의 현상인 교육소외에 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KCYPS를 활용하여 최근 청소년의 교육소외 실태를 분석하고 성별, 비행경험별 교육소외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교육소외가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으로 탐색해보았다.

본 분석에 앞서 교육소외의 하위변인을 추출하였다. 즉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소외 하위변인으로 무력감, 무의미감, 무규범성, 사회적 고립, 학교교육 및 활동에 대한 무가치 등을 상정하였으나, KCYPS의 문항 중 무규범성을 대변하는 자료가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력감, 무의미감, 사회적 고립, 학교교육 및 활동에 대한 무가치로 진행하였다. 한편 무력감 및 무의미감의 경우 우울 문항에 포함된 일부 문항을 추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무력감과 무의미감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어 본 연구에서는 무력감 및 무의미감 단일 요인으로 상정하였다. 이에 무력감 및 무의미감, 사회적 고립, 학교교육 및 활동의 무가치 3 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교육소외 하위요인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교육소외 하위변인으로서는 무력감 및 무의미감, 사회적 고립, 학교교육 및 활동의 무가치 3 요인을 최종 선택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추후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교육소외의 실태를 확인할 결과, 대체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소외 하위변인은 성별, 비행경험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무력감 및 무의미감의 경우 남녀 간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학교교육 및 활동에 대한 무가치는 여학생들이 더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감의 경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어 교육소외 하위변인별 남녀 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교교육 내 부적응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 교육소외에 있어 성별에 따라 다른 시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비행경험여부에 따라 교육소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하위변인에서 비행 경험이 있는 중학생들이 교육소외를 더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교육소외와 비행, 학업중단 등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깊다고 밝힌 선행연구(Hascher & Hagenauer, 2010)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무력감 및 무의미감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학교교육 및 활동의 무가치, 사회적 고

립 순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Hascher & Hagenauer(2010)는 교육소외가 학업중단, 비행 등과 같은 여러 부적응 행동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비행 경험 집단별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어 교육소외가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에 교육소외가 비행 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가정변인 및 자존감을 통제하여도 교육소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무력감 및 무의미감과 학교교육의 무가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무력감과 무의미감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비행 가담 확률은 90% 상승하며, 학교교육에 대한 무가치함을 한 단위 더 느낄수록 비행 가담 확률이 56%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교육소외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성별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 평가가 꾸준히 일관된 효과를 지닌 것으로 확인되어 남학생의 비행 가담과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복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남자 중학생의 비행 가담이 다른 변수들이 투입되는 모형2, 모형3으로 갈수록 회귀계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는 비행 항목들에 음주, 흡연, 폭행, 패싸움, 도박 등이 포함되어, 전통적으로 남학생들이 주로 가담하는 비행행위라는 점에 연유한 결과로 보인다. 즉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등과 같은 관계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비행 행위에서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학생이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비행 가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가구소득과 학생들의 가정의 경제 평가 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비행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겠다. 환언하면 학생이 가정의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비행에 가담할 확률을 낮추며, 다른 변수가 투입되어도 꾸준한 효과가 있어 비행 예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아울러 가정의 경제수준 평가는 교육소외와도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소년들의 교육소외나 비행 문제는 가정의 경제적 문제가 선결된다면 일정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요컨대 청소년의 교육소외나 비행 문제는 청소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경제문제, 부모감독 등에 의해 영향 받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의 사회적 지원과 지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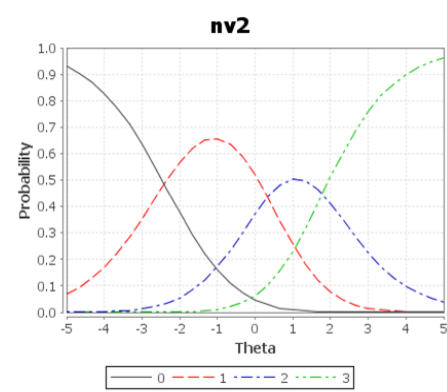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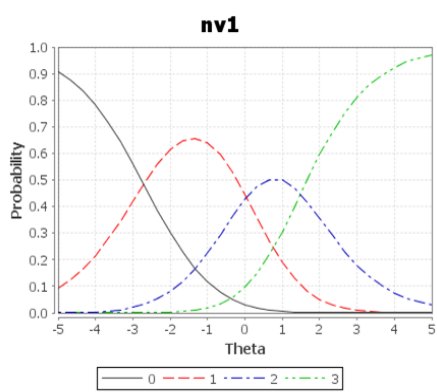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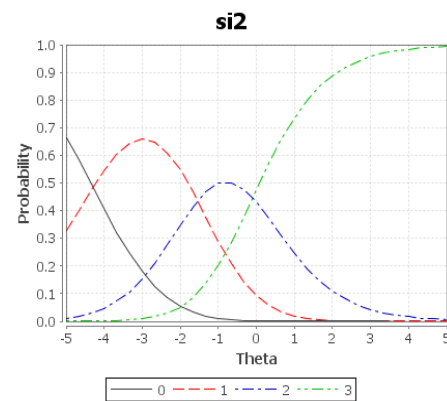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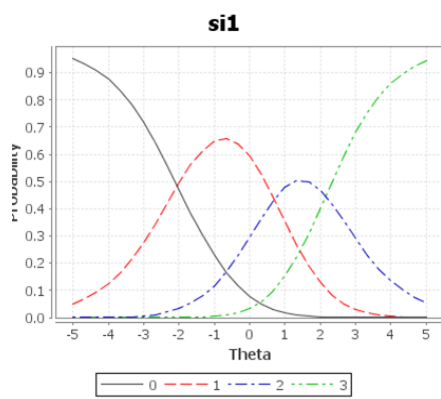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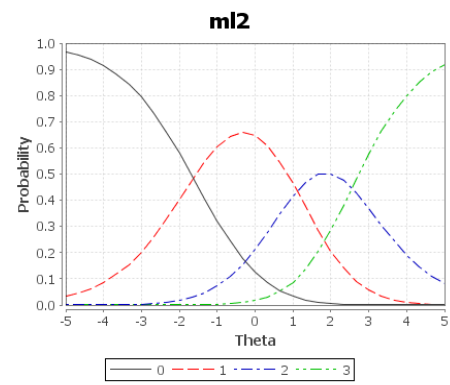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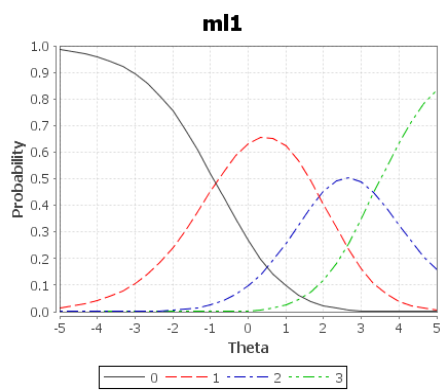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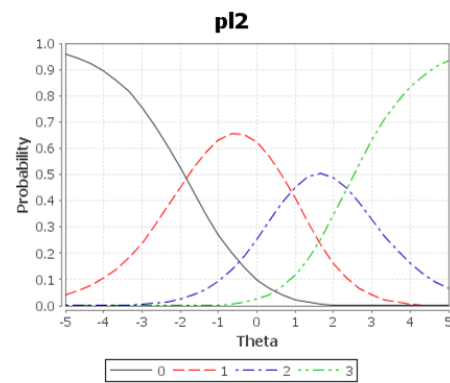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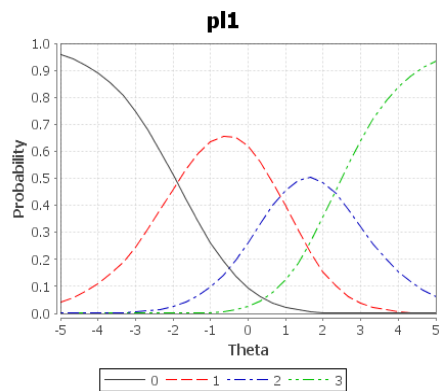
교육양극화, 교육격차의 담론에서 교육정책, 가정배경의 효과 등의 쟁점은 늘 있어왔지만, 교육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거나 교육기회는 제공받았으나 교육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교육소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소외의 하위변인을 추출하고, 그 실태 및 차이분석 나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2차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소외 하위변인을 추출하여 충분히 교육소외를 대변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교육소외에 관한 연구나 학문적 논의가 부족하고, 학자마다 교육소외를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있어(강성국 외, 2014; 김인회, 2006) 교육소외의 개념 정립과 하위변인 측정, 관련 요인에 관한 추후 연구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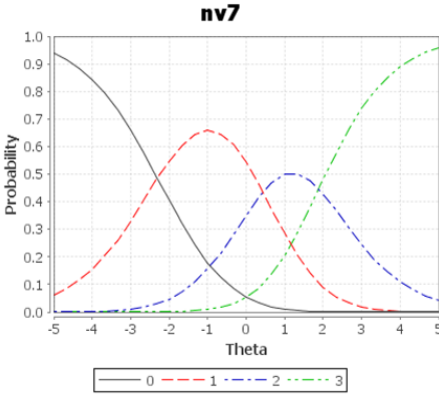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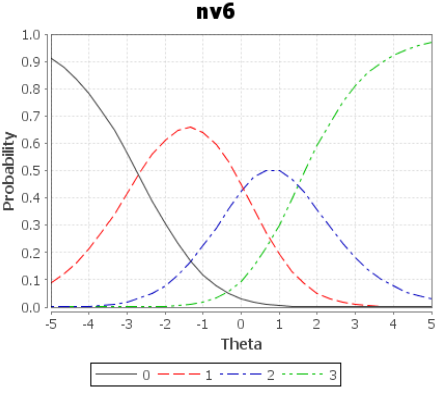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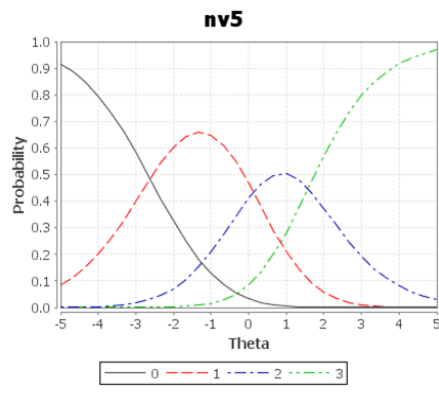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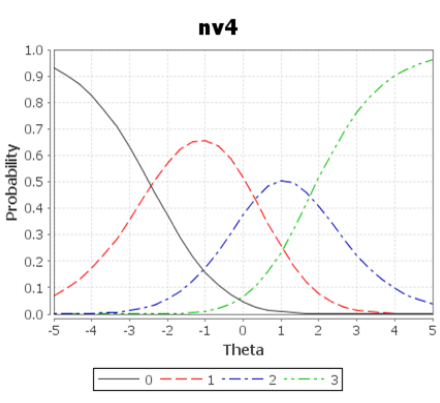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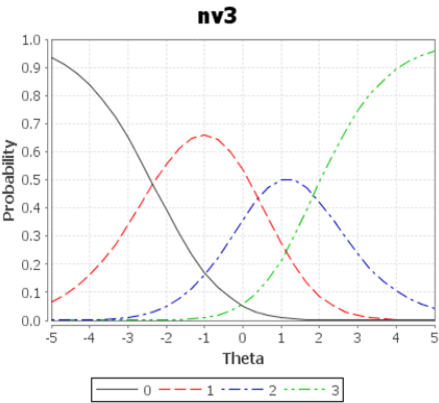
참고문헌

- 강성국, 금지현, 손찬희, 이쌍철, 이은철, 안성훈, 이정상(2014). **교육소의 청소년을 위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국회입법조사처(2016). 2016년 9월 4일 보도자료.
- 김인희(2006). 교육복지의 개념에 관한 고찰 - 교육소의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의 이론적 기초 정립에 관하여. **교육행정학연구**, 24(3), 289-314.
- 성열관, 이형빈(2014). '수업시간에 자는 중학생' 연구: 수업참여 기피 현상에 대한 근거이론. **교육사회학연구**, 24(1), 147-171.
- 윤나리, 김영란(2004). 우리나라 청소년의 소외감과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6(2), 101-113.
- 이은숙(2002).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자살생각에 관한 구조모형**.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수명(2006). 대학서열의 경제적 수익. **한국교육**, 33(2), 75-107.
- 최상근, 박효정, 서근원, 김성봉(2004). **교육소의 계층의 교육실태와 정책과제**,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 Bridgeland, J. M., Dilulio, Jr., J. J. & Burke Morison, K. (2006). *The silent epidemic: Perspectives of high school dropouts*. Washington, DC: Civic Enterprises. Retrieved from <http://www.civicenterprises.net/reports.php>.
- Brown, M. R., Higgins, K., & Paulsen, K. (2003). Adolescent alienation: What is it and what can educators do about it? *Intervention in School and Clinic*, 39(1), 3-9.
- Coleman J. S., Campbell E., Hobson, C., McPartland, J., Mood, A., Weinfe, E., & York, R. (1966).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 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Croninger, R. G., & Lee, V. E. (2001). Social capital and dropping out of high school: Benefits to at-risk students of teachers' support and guidance. *Teachers College Record*, 103, 548-581.
- Frey, A., Ruchkin, V., Martin, A., & Schwab-Stone, M. (2009). Adolescents in transition: School and family characteristics in the development of violent behaviors entering high school.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40, 1 - 3.
- Hascher, Tina & Gerda Hagenauer(2010). Alienation from school.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9, 220-232.
- Hawkins, J. D., Herrenkohl, T. I., Farrington, D. P., Brewer, D., Catalano, R. F., Harachi, T. W., & Cothorn, L. (2000). Predictors of youth violence. *Juvenile Justice Bulletin*. 1-13.
- Hyman Irwin, Ian Cohen, & Matthew Mahon (2003). Student alienation syndrome: A paradigm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 between school trauma and school violence. *The California School Psychological*, 8, 73-86.
- Mau, R. Y. (1992). The validity and devolution of a concept: Student alienation. *Adolescence*, 27(107), 731-741.
- McInerney, Peter(2008). Toward a critical pedagogy of engagement for alienated youth: insights from Freire and school-based research. *Critical Studies in Education*, 50(1), 23-35.
- Middleton, R.(1963). Alienation, race, and edu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8(6), 973-977.
- OECD(2017). Where did equity in education improve over the past decade? PISA In Focus #68, retrieved

- from http://www.oecd-ilibrary.org/education/where-did-equality-in-education-improve-over-the-past-decade_33602e45-en.
- Seeman, Melvin(1959). On the meaning of alien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4(6), 783-791.
- Schulz, L. L., & Rubel, D. J. (2011). A phenomenology of alienation in high school: The experiences of five male non-completers.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14(5), 286-298.
- Willis, P.(1977). *Learning to labour*. Farnborough: Saxon House.
- Zammit, K. P.(2011). Connecting multiliteracies and engagement of students form low socio-economic backgrounds: using Bernstein's pedagogic discourse as a bridge. *Language and Education*, 25(3), 203-220.

부록 1.





친구관계와 부모의 영향이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 변화 양상에 주는 효과

이준원* · 고정훈** · 김유영***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의 중1 패널 5-7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 변화에 또래관계와 부모관계가 주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관계는 청소년의 또래관계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으나 사이버 비행 초기값과 변화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또래관계는 사이버 비행의 초기값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줬으나 변화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부모관계는 또래관계를 통해 사이버 비행의 초기값에 유의미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또래관계에 가지는 긍정적인 관심이 사이버 비행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사이버 비행, 또래관계, 부모, 종단 변화

I. 서론

청소년들에 있어 관계형성은 사회성 및 정체감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욱이 청소년시기의 관계형성 중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더욱 중요한데 이는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또래관계의 경험은 성인이 되어 집단에서 관계형성을 하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래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부모관계가 중요한데 부모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박현선, 이상균, 2008). 부모와 자녀의 부정적인 관계경험은 학업문제, 또래관계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관계경험은 또래관계에서 상호이해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인경, 2001). 가정 내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했던 긍정적인 경험을 했던 청소년은 가정을 떠나 집단의 구성원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또래집단 내에서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현실도피를 위해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사이버공간에서 그 욕구를 충족해 나간다. 현재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 그리고 SNS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절대 다수의 청소년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은 청소년들의 또 다른 관계형성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김병년, 2013).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발전과 더불어 사이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외상심리건강센터, dlwnsdnjs@skku.edu

**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버 공간에서의 청소년의 비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소정(2010)에 의하면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 상에서 타인을 욕하거나 비방하기도 한다(원다훤, 2011). 이러한 비행의 피해자가 된 청소년은 짜증, 당혹,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며 같은 방법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려 하는 경향을 보인다(정여주, 김동일, 2012). 이는 청소년들이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및 스트레스를 적응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부모나 또래 관계에서 경험하고 배우지 못한다면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사이버 상에서의 욕설, 비방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 행동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확인 해 보고 또래관계 및 부모의 태도가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있는가?

둘째, 또래관계와 부모님의 태도가 사이버 비행 및 그 변화에 영향을 주는가?

셋째, 부모님의 태도가 또래관계를 매개로 사이버 비행 및 그 변화에 영향을 주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사이버 비행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은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 형태의 사이버 비행과 인터넷 공간과 관련되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간접적 형태 청소년 비행을 말한다. 사이버 비행의 용어는 최근에 대두된 사회문제 일 뿐만 아니라 아직 실증적인 연구를 많이 축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편적이지 않으며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비행과 여러 가지 유형이 결합되어진 사이버 비행도 나타나고 있다(차은진, 2011). 사이버 비행으로는 청소년의 지위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지위비행’, 음란한 대화나 접촉과 같은 성적인 행위인 ‘성 비행’, 다른 사람의 물질적, 지적 재산을 훔치는 ‘재산비행’, 사이버 상에서 폭언, 폭행 등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인 ‘폭력비행’ 4가지 비행으로 구성한다(심진숙, 2008).

우리나라 만3세 이상 인구 10명 중 8명(88.3%)은 인터넷이용자로 인터넷 서비스가 처음 도입된지 22여년 만에 43,63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중 10대는 전체(100.0%)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은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학업스트레스나 발달 단계상에서 생겨나는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사이버 상에 몰입하는 경우 학업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며, 가상세계 안에서 자기중심적으로 활동하고 생각함으로 대인관계적 능력이 떨어지며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오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며 일상생활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Griffiths, 1999). 또한 인터넷 사용의 빈도 증가와 인터넷 활용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사이버 상에서 청소년들의 비행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김소정, 2010).

이와 같은 청소년 사이버 비행의 급속한 증가에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이 큰 의미를 가진다. 심진숙(2008)에 의하면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욕설, 비방 등의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익명성, 비대면성과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경쟁성, 폭력성, 우연성 등 놀이의 성격을 사이버 공간에서 또한 보이는 놀이·공간적 특성이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이 청소년 사이버 비행행동을 촉발시키고, 비행행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한다(심진숙, 2008).

위와같은 사이버 공간적 특성과 더불어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중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학교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식, 2007; 신나민, 안화실, 2013; 전해숙 외 2015). 많은 시간을 같은 장소인 학교에서 보내게 되는 청소년의 경우 그 안에서의 관계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받게 되는 문제와 스트레스가 사이버비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가족의 월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부모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며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높아져 손쉽게 익명성으로 익숙한 사이버 상에서 그 스트레스를 표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김정은, 윤혜미, 2012).

2. 부모자녀 관계

애착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생애주기에 형성되는 깊고 지속적인 감정적 결합으로 인간의 마음, 육체, 감정, 관계 그리고 가치관등에 이르기까지 전인격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나유미, 1997). 애착관계는 자녀의 유아기에 생애 초기 몇 년간에 나타나며 자녀에게 특별히 무언가를 해주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적 보살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청소년기 부모애착은 유아기와 마찬가지로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Bowlby(1980)에 의하면 부모는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안전지대로 인식되며 자녀의 정서발달에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한다(윤명숙, 최정민, 2011 재인용). 애착형성이 중요한 이유는 가정에서 겪게 되는 애착의 경험이 자녀가 경험하는 미래의 관계의 모델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올바른 애착형성은 자녀의 건전한 인식과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어 안정적인 감정으로 환경을 탐구하게 해준다.

부모와 긍정적인 애착관계를 보이는 청소년은 학교적응을 잘하며 원만한 친구관계를 형성하지만 부모와 부정적인 애착관계를 보이는 청소년은 또래관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liot, Cornell, 2009). Troy와 Sroufe(1987)는 실험연구를 통해 부모애착과 또래 괴롭힘 간의 관련성을 주장했는데 18개월 영아의 애착을 측정한 후 이들이 48-60개월이 되었을 때 자유놀이를 18개월 영아 실험연구를 통해 부모애착이 안된 영유아는 4~5세가 되었을 때 자유놀이 시 상대방을 괴롭히는 가해자가 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가 되는 관계를 밝혔다.

3. 또래관계

초기 청소년기부터 영향력이 커지는 또래관계는 부모와의 애착관계와 대인관계 기술에 영향을 받게 된다.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이외에 새로운 애착의 대상을 찾게 된다. 이러한 것은 청소년기에 갖게 되는 특성으로 자신의 입장과 비슷한 지지집단 혹은 동질집단에 대한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지집단과 동질집단은 또래집단을 말한다. 부모를 떠나 새로운 집단에서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되는데 관계에 질은 부모관계 즉 부모와의 애착관계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을 보면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또래애착도 안정적이라는 것이다(홍주영, 도현심, 2002; 김은진, 이정운, 2009; 주은지, 2011; 민하영, 이영미, 2012; Lieberman, Doyle, Markiewicz, 1991). 이는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 경우 청소년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이며 부모관계의 기반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가정에서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또래집단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이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또래집단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제공받으며 사회적 기술을 배우게 된다는 의미이다(박연정, 정옥분, 2003). 또래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통한 지지는 안정된 정서를 갖게 하여 자아개념을 발달시킴으로 인해 사회적 자신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선행연구에서는 말하고 있다(고운주, 김영신, 노주선, 2000).

청소년들은 또래관계를 통해 집단 구성원들과 정서적 유대감과 수용 및 인정을 원한다. 또래관계는 사회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회 및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기 때문이다(윤상은, 2008). 또한 또래관계는 수평적 권위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서로의 생각을 표현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균형적인 상호작용을 원한다(김진경 2002).

하지만 부모와의 부정적 애착형성은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크고 작은 갈등을 만들어 내 신체적,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이로 인해서 또래와 관계를 맺는 효과적인 관계기술을 터득하지 못해 사회성이 부족해지고 또래와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적절하지 못한 상호작용, 안정되지 못한 관계는 학교 내에 부적응적인 요소를 발전시키게 되는데 학교부적응, 비행, 범죄로 발전될 수도 있다(고옥란, 2012)

사이버비행을 비롯한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하여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 중 하나가 부모의 양육행동이다(이상균, 2008). 현실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 도피적으로 사이버공간을 이용하게 된다. 사이버공간은 다양한 욕구들에 대한 표현과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실세계보다 더 많은 관계가 가능하다. 사이버공간을 통해 좌절된 실제관계에서 좌절된 욕구를 해소하기도 한다(이성식, 2004).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KCYPS 데이터 가운데 중1패널 5차년도부터 7차년도 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5-7차년도 데이터 중 총 2351명의 응답을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사이버 비행

사이버 비행은 KCYPS의 중1패널의 5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의 데이터 중 다음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채팅/게시판 등에 일부러 거짓정보 올리기,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받아 사용하기,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허락 없이 사용하기, 채팅하면서 성별이나 나이 속이기, 다른 사람 컴퓨터나 웹사이트 해킹하기, 채팅/게시판 등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 사용하기. 위 문항의 경험여부를 합한 후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기 위해 로그변환을 하였다.

2) 또래관계

또래관계는 KCYPS의 중1패널의 5차년도 데이터 중 교우관계 문항 5 문항 가운데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문항을 제외한 4 문항을 활용하였다. 사용한 문항은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 준다’였다. 문항은 매우 그렇다=1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으로 채점되었다. 따라서 낮은 점수가 나올수록 좋은 교우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점수가 나올수록 좋지 않은 교우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3)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가 자녀의 또래 관계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KCYPS 중1 패널의 5차년도 데이터 중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 친한 친구들이 누구누구인지 안고 계십니까?’,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 친한 친구들을 만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 친한 친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3문항을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및 모형

사이버 비행의 변화 및 또래관계와 부모의 영향이 사이버 비행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며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모형의 분석은 AMO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의 처리, 기술통계 등은 SPSS 18.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각 변인의 기술통계는 다음 <표 1>과 같다. 청소년들의 사이버 비행의 로그값은 5차년도 .08, 6차년도 .06, 7차년도에 .05로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영향 3문항의 경우 2점에 가까워 자녀의 친구를 알고 있으며 만난경험이 있으며 좋아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의 경우 교우관계가 좋은 편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변인의 기술통계

변인명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
사이버 비행5차In	379	0	.78	.08	.15	2.56	1.854
사이버 비행6차In	267	0	.70	.06	.15	4.21	2.280
사이버 비행7차In	176	0	.70	.05	.13	6.53	2.664
부모님의 친구 인지도	2091	1	4	2.09	.66	.92	.564
부모님이 친구를 만난 경험	2024	1	4	2.24	.64	.17	.262
부모님의 친구 선호도	2024	1	4	1.91	.40	3.56	-.603
교우관계1	2052	1	4	1.77	.56	.81	.208
교우관계2	2052	1	4	2.00	.62	.48	.280
교우관계3	2052	1	4	1.65	.53	-.39	.015
교우관계4	2052	1	4	1.98	.50	2.11	.201

2. 사이버 비행의 변화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각각 무변화 모형과 선형성장모형을 설정하여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무변화 모형의 경우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화가 없는 모형으로 초기값만 존재하며 선형모형의 경우 선형모형의 경우 시간에 따라 선형적인 변화가 있는 모형으로 초기값과 기울기가 존재한다. 초기값의 경로값은 모두 1로 고정했으며 기울기의 경로값은 초기 시점부터 0, 1, 2로 고정하였다. 두 경쟁모형에 대한 예측평균 및 모형 적합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2. 사이버 비행 변화 모형의 적합도

변인명	예측평균	χ^2	df	p	CFI	TLI	RMSEA
무변화모형	초기값 = .063***	18.966	6	.000	.764	.764	.030
선형모형	초기값 = .074*** 기울기 = -.015**	5.965	3	.000	.946	.892	.021

* $p < 0.05$, ** $p < 0.01$, *** $p < 0.001$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선형모형이 무변화 모형보다 더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CFI, TLI 및 RMSEA에서 선형모형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으며 무변화모형의 경우 CFI 및 TLI, 의 경우 낮은 적합도가 나왔다. 선형모형의 초기값은 $p=.000$ 으로 유의하였고 기울기의 예측평균은 $p=0.009$ 로 유의하였다. 선형 모형은 다음 [그림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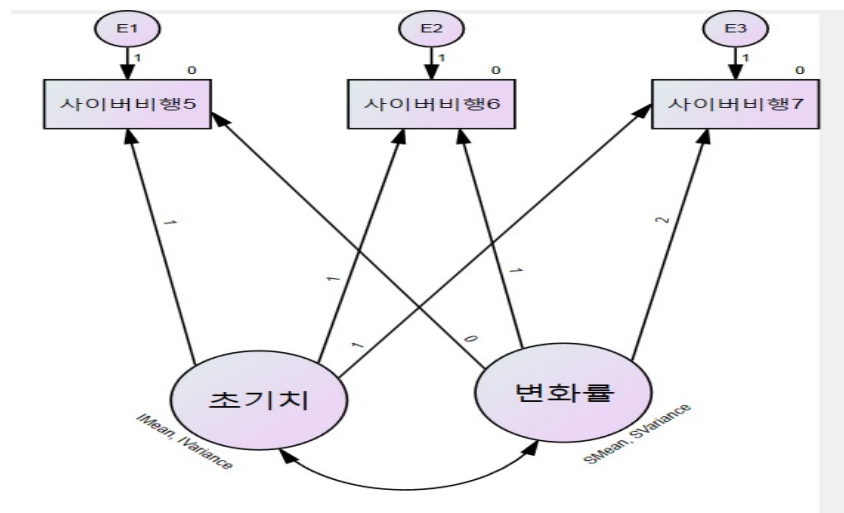


그림 1. 사이버 비행 선형 성장 모형

선형 모형의 추정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초기값과 기울기는 유의미 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버 비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값의 경우 분산이 유의미 하게 나타나 개인에 따른 초기 값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울기의 분산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간 변화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초기값과 기울기의 공분산이 유의미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값과 기울기가 서로 주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사이버 비행 선형 변화 모형의 추정치

	평균	분산
초기값	.063***	.011***
기울기	-.015**	.001
공분산(상관)	-.002	

* $p < 0.05$, ** $p < 0.01$, *** $p < 0.001$

3. 또래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가 사이버 비행에 주는 변화

사이버 비행 변화에 또래관계와 부모자녀 관계가 주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자녀관계가 또래 관계를 통한 영향과 직접적으로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주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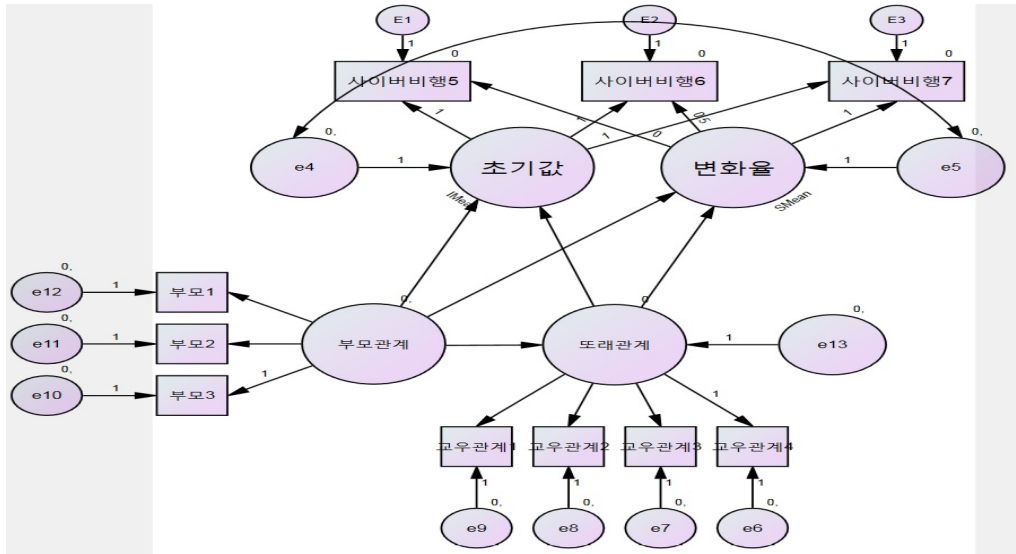


그림 2. 부모관계와 또래관계가 사이버 비행 초기값 및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모형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129.191(df=33, p=.000)$, CFI=.962, TLI=.937, RMSEA=.035로 좋은 적합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구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p	CFI	TLI	RMSEA
연구모형	129.191	33	.000	.962	.937	.035 (.029-.042)

연구 모형의 추정치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부모관계는 또래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이버 비행의 초기값과 변화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는 초기값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변화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관계가 또래관계를 통해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Sobel 검증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2$). 이는 부모가 자녀의 또래를 잘 알고 긍정적으로 생각 할수록 또래관계가 높아지며 또래관계가 높아질수록 사이버 비행의 초기값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연구 모형의 추정치

경로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부모관계 → 또래관계	.117***	.019	.181
또래관계 → 초기값	.057*	.024	.201
또래관계 → 변화율	-.034	.039	-.174
부모관계 → 초기값	-.001	.014	-.008
부모관계 → 변화율	.005	.023	.037
부모관계 → 또래관계 → 초기값	.007		
	예측평균	표준오차	
사이버 비행 초기값	.072***	.007	
사이버 비행 변화율	-.030**	.012	

* $p < 0.05$, ** $p < 0.01$, *** $p < 0.001$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첫 번째 또래관계에 대한 부모관계가 학생의 교우관계와 사이버 비행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두 번째 또래관계가 사이버 비행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세 번째 또래관계에 대한 부모관계가 학생의 교우관계를 통해 사이버 비행 초기값과 변화율에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이렇다. 첫 번째 연구결과 교우관계에 대한 부모 관심은 교우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사이버 비행의 초기값과 변화율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애착이론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부모와의 긍정적인 애착은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옥란, 2012). 자녀의 교우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녀와 밀접한 관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교우관계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사이버비행과는 별개의 문제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는 사이버비행에 대한 주요원인이 부모관심보다 다른 변인에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시기의 사이버라는 공간은 누구나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공유공간(Share space)으로 부모의 관심이 사이버비행에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김단비, 2016)

두 번째 연구결과 교우관계는 사이버비행 초기치와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김진경(2002)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교우관계를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상호작용 속에서 인정과 수용을 받기 원한다고 하였다. 이는 청소년시기에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으로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교우관계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만들어내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또래친구들과 이어져 지속적인 긍정적 관계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부정적 교우관계를 가졌던 청소년들은 자신의 욕구와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공간을 이용한다.

세 번째 연구결과 교우관계에 대한 부모관심이 교우관계를 통해 사이버 비행 초기치와 변화율에 주는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님이 자녀의 또래관계에 가지는 관심이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 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지 않지만 또래관계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좋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사이버 비행 방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부모라는 변인은 사이버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좌현숙(2015) 연구와 같이 부모의 학대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이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이 대부분의 연구결론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부모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 부모의 영향이 간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비행을 막기 위해 1차적으로 부모가 자녀와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중요하다. 부모의 관계에 대한 무관심이 1차 원인이 되어 2차 부정적 원인을 나타나게 하므로 궁극적으로 사이버비행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사이버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사이버비행 개념인식확산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과 접근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청소년들 24시간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사이버 비행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비행은 청소년의 지위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지위비행’, 음란한 대화나 접촉과 같은 성적인 행위인 ‘성 비행’, 다른 사람의 물질적, 지적 재산을 훔치는 ‘재산비행’, 사이버 상에서 폭언, 폭행 등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인 ‘폭력비행’ 4가지 비행으로 구성한다(심진숙, 2008)라고 개념화가 되어 있지만 개념적 정리가 되어있을 뿐 사례나 구체적 내용으로 기술되어지지 않아 사이버비행을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사이버 비행의 범주에 대한 사실적 이해와 구체적 개념화를 피수검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추가적으로 청소년들의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세부적 고찰 및 분석이 필요하다. 이전까지의 연구에서는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청소년들의 긴장, 부정적 감정경험, 역기능적 심리적 특성, 폭력피해, 학업스트레스, 가정폭력 등으로 단순선형분석방식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했다. 보다 양질의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주는 내적변인, 외적변인을 설정하여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순서대로 구분하고 단위학교별로 학년별로 변인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고옥란. (2012). **대안학교 학생들의 또래관계기술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고윤주, 김영신, 노주선. (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또래의 수용, 친구의 지원과 사회적 자신감간의 구조 모델.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65-78.
- 김경은, 윤혜미. (2012).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 폭력용인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관련성. **한국아동복지학**, 39, 213-244.
- 김단비. (2016). **아동학대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병년.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4), 208-217.
- 김소정. (2010). 인터넷 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1(3), 57-79.
- 김은진, 이정윤. (2009). 부모와의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 우울증상 및 갈등 해결전략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7(2), 55-68.
- 김진경. (2002).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과 또래관계의 질**.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나유미. (1997). **한국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애착 안정성에 따른 정서적 행동문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민하영, 이영미. (2012). 학령기 남아와 여아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부모애착과 거절예상의 영향. **인간발달학회**, 19(4), 139-154.
- 박연정, 정옥분. (2003). 또래관계가 아동의 또래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학회**, 10(2), 75-92.
- 박현선, 이상균. (2008). 청소년기 비행친구의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및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7, 399-427.
- 신나민, 안화실. (2013). 청소년 사이버폭력 현황 및 피해 가해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49, 1-21.
- 심진숙. (2008). **청소년 사이버 비행행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원다현. (2011). **인터넷 공간에서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명숙, 최정민. (2011).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안녕감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3(2), 55-78.
- 윤상은. (2008). **중학생의 정서지능과 또래관계에 대한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상균. (2008).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초기·후기 비행 진입 청소년의 비행경로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24, 249-282.
- 이성식. (2004). 청소년들의 긴장, 부정적 감정의 경험과 사이버공간에서의 비행 - 남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 273-299.
- 이성식. (2007). 청소년 사이버비행의 동기, 기회와 통제요인을 통한 모형의 구성과 검증. **정보화정책**, 14(3), 3-15.
- 정여주, 김동일. (2012).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정서조절. **상담학연구**, 13(2), 645-663.

- 전혜숙, 전종설, 정하은, 이주연. (2015). 청소년 사이버 비행 영향 요인-중학생 비행가해 집단과 피해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4), 191-216.
- 좌현숙. (201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수준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문화포럼** 43, 135-161.
- 주은지. (2011).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애착과 낭만애착. **청소년학 연구**, 18(4), 141-171.
- 차은진. (2011). **중학생의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최인경(200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홍주영, 도현심. (2002).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125-136.
- Eliot, M., & Cornell, D. G. (2009). Bullying in middle school as function of insecure attachment and aggressive attitude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0(2), 201-214.
- Griffiths, M. D. (1999). Internet addiction: Fact or fiction? *The Psychologist: Bulletin of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12, 246-250.
- Lieberman, M., Doyle, A. B., & Markiewicz, D. (1999). Developmental patterns in security of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Associations with peer relations. *Child development*, 70(1), 202-213.
- Troy, M., & Sroufe, L. (1987). Victimization Among Preschoolers: Role of Attachment Relationship Histor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6(2), 166-172.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비행행동 유형화

임현서* · 이현** · 김성훈***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7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잠재 집단 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비행 행동 유형화로 청소년 비행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아동·청소년패널 중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와 중학교 1학년 코호트 중 비행행동 관련 문항에 응답한 학생들로, 성별, 연도별 잠재 집단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연도별 비행행동 잠재집단은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3차 년도를 제외하고 14개 비행행동에 대해 모범집단과 다양한 비행행동을 보이는 복합비행 집단인 2개 집단으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을 고려한 비행행동 잠재 집단 분석 결과 남학생의 비행행동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폭력 비행이나 재산 비행 등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교급이 변화하는 시기에 비행 행동 발생비율이 더 증가하였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지위 비행의 발생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학교급, 성별에 따라 청소년 비행행동 양상이 달라짐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실들을 반영하여 비행행동 예방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비행행동, 비행유형, 잠재 집단 분석(Latent Class Analysis), 아동·청소년패널(KCYPs)

I. 서론

이 연구는 잠재 집단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비행 행동이 어떻게 유형화되는지 살펴보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행 행동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행 행동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시간에 따른 경향성을 설명함으로써 비행 행동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역동하는 청소년기에는 청소년들의 성장 발달과 더불어 행동이나 관심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달라짐에 따라 다양한 행동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비행 행동이다. 청소년들의 비행 행동은 예전부터 다루어져 온 문제이다. 최근 각종 미디어의 범람으로 인해 정보 접근이 쉬워지고 비행 행동의 모방 학습이 더 용이해짐에 따라 그 종류와 위험성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청소년기의 비행행동은 지속적인 반복에 의해서 그 강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연구들과 반복적인 비행행동이 청소년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인기의 범죄로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snowdropih@hanmail.net

***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됨에 따라 비행행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Crawford, Cohen, Midlarsky, & Brook, 2001; Galambos, Barker, & Almeida, 2003; 박정선, 황성현, 2013).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한 연구들은 차별교제이론, 사회결속이론, 낙인이론, 아노미이론 등 사회이론의 맥락에서 접근하여 왔으나, 최근 연구들은 특정 이론적 접근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비행 행동 유형, 영향을 주는 요인, 예방 교육 등으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비행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남재봉, 2011; 박현수, 2011; 이상문, 2013). 그러나 청소년들의 비행 행동은 하나의 행동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그 양상이 변화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류와 빈도, 심각성 등 그 변화양상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욱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잠재 집단 분석(Latent Class Analysis)은 집단 내 개인들의 문항 반응 패턴을 분류하여 그 안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집단들을 밝혀내는 잠재변수 혼합모형의 한 종류이다(Collins & Lanza, 2010). 집단을 유형화하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이 변수 중심(variable oriented) 접근이라면, 잠재 집단 분석은 인간 중심(person oriented) 접근 방법으로 인간 행동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Muthen & Muthen, 2000).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비행행동에 대하여 잠재 집단 분석(Latent Class Analysis)하여 각 집단의 성격을 밝히고, 시간에 따라 집단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그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1.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비행행동 집단의 유형과 특성은 어떠한가?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행행동 집단의 유형은 달라지는가?
- 비행행동 집단의 유형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2. 비행행동 집단별 비행행동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는가?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행행동 집단별 비행행동의 양상은 달라지는가?
- 비행행동 집단별 비행행동의 양상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비행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잠재 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비행 행동을 유형화하고 시간에 따라 집단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비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비행 행동 유형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탐색, 기저 이론 탐색 등의 접근을 통하여 비행 행동을 이해하고자 하였다면, 이 연구에서는 실제 응답 반응을 근거로 비행행동의 유형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욱이 청소년들의 비행 행동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성인으로 성장한 후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종단적 분석을 통하여 실제 학생들의 비행행동 양상 및 변화추이에 대한 실증

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현재 청소년들의 비행행동의 양상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각 비행집단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할 것이며, 한 편으로는 비행 예방 교육의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II. 이론적 배경

그동안 청소년들의 비행 행동의 유형화에 대해서는 크게 비행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두 가지 분류가 이루어져왔다. 비행행동은 일반적으로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연구자에 따라 최근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성비행, 사이버비행, 학업비행 등을 비행 유형에 포함시키기도 한다(김상원, 2007; 김영선, 2004; 김해란, 김희란, 2016; 박현수, 이재영, 2013; 장세걸, 2012; 홍성훈, 김희수, 2007). 각각의 비행유형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위비행은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흡연, 무단결석, 가출, 음주를 포함한다. 폭력비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물리적인 강제를 동원하는 행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패싸움, 폭력, 협박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신체적 폭력 외에도 정신적인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까지 포함되기도 한다(조춘범, 2010). 재산 비행은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들로 갈취, 절도 등을 말하며, 성비행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음란물 중독 등 성에 관련한 비행 등으로 정의된다. 사이버비행은 불법소프트웨어 다운, 주민등록번호 도용, 해킹, 게시판에서 욕설하기 등 컴퓨터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범죄들을 지칭한다.

폭력의 정도에 따라서 경비행과 중비행으로 나뉘는데, 경비행은 청소년의 지위에 맞지 않는 가벼운 비행 행위로 흡연, 음주, 무단 결석 등으로 지위비행이 이에 해당한다. 중비행은 지위에 상관없이 범죄로 간주되는 비행으로 폭력비행, 재산비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박현수, 김준호, 2008; 황성현, 2016). 경비행은 다른 비행 유형에 비해 심각성은 낮으나, 비행을 접하는 시작점이 되어 중비행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황성현, 2010). 더욱이 친구를 통해 비행을 시작하게 되는 경비행은 비행행동의 반복으로 비행행동을 같이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이러한 반복적인 행태가 중비행으로 이어지게되어 범죄행동까지 심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황성현, 2016).

이 외에도 비행의 수준이나 지속 유형에 따라 접근한 연구들도 존재하나(정익중, 2009; 한진수, 2016) 이 연구에서는 크게 경비행, 중비행으로 구분하고, 중비행 안에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이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청소년 비행과 시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비행과 시간 관계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은 청소년 비행의 심각화와 비행시작시점의 저연령화 현상을 제기하면서 시간적 접근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김지선, 2007; 이종원, 2013). 박현수(2009)는 기존의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들이 비행의 원인과 영향 요인을 찾는 것에 주로 이루어졌으나, 이는 특정 시점에서의 설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청소년의 비행은 친구나 부모, 학교 환경 등에 의해 역동성을 가지므로 시간에 따른 연

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청소년의 비행은 일차적으로 가정환경의 영향력과 학업성적의 영향으로 접하게 되고, 친구의 영향을 통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화, 2001; 이종원, 2013). 초기 비행은 친구를 통해 경비행으로 시작되나, 비행을 함에 따라 비행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생기고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은 중비행으로 이어지게 되어 순환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이은주, 2008; 정기원, 2007; 황성현, 2016).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인과를 밝혀내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시간에 따른 비행의 특성을 파악한 연구는 드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비행과 성별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며 상당수의 연구들에서 남학생의 비행이 여학생에 비해 정도가 더 높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김혜원, 임동훈, 2004; 남재봉, 2011; 이성식, 2011; 홍대경, 류준혁, 2011). 대체적으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자에게 남자다움을 강조하는 사회적 기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남재봉, 2011). 한편, 비행의 종류에 있어 남녀간 차이는 있지만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정익중, 2005). 이는 과거와 달리 다양한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비행과 관련한 정보 습득 기회가 확대되고, 성에 대한 사회적 성역할 기대 감소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비행 행동 자체가 저연령화, 흉폭화, 여성청소년 범죄 증가 등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홍대경, 류준혁, 2011).

이상의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비행행동의 유형을 이론적으로 밝히고 영향 요인과 인과를 시간적으로 탐색하고 성차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비행 행동들이 잠재된 특성에 따라 유형화 될 수 있다는 가정에 따라 양상을 보이며, 시간에 따라 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검사도구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비행 행동을 유형화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연간 비행 행동경험 유무를 묻는 문항 군의 각 조사 차시에 모두 응답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초등학교 4학년 패널 2,342명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까지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학교 1학년 패널 2,351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분석에 사용할 주요 변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분석활용 변수

변인명	변인	내용	변인 값
DLQ1A01	비행: 연간 행동경험 유무	담배피우기(흡연)	1. 있다 2. 없다 9. 모름 /무응답(m)
DLQ1A02		술마시기(음주)	
DLQ1A03		무단결석	
DLQ1A04		가출	
DLQ1A05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괴롭힘)	
DLQ1A06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따돌림)	
DLQ1A07		패싸움	
DLQ1A08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폭력)	
DLQ1A09		다른 사람 협박하기(협박)	
DLQ1A10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뺏기기; 갈취)	
DLQ1A11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절도)	
DLQ1A12		성관계	
DLQ1A13		성폭행이나 성희롱(성범죄)	
DLQ1A14		돈을 걸고 도박 게임하기(도박)	

2. 분석방법 및 절차

이 연구에서는 비행행동을 유형화하기 위해 잠재 집단 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실시하였다. 잠재 집단 분석은 인간 중심적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의 하나로, 회귀분석 등과 같은 변수 중심적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과는 달리 개인 내적 속성이나 행동 양식을 중심으로 집단을 유형화하는 분석방법이다. 즉 연구 대상 내 피험자들의 문항반응 패턴을 분류하여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집단을 발견하는 분석방법으로, 연구 대상 내의 비관측 이질성을 가정하고 비슷한 문항반응 패턴을 보이는 대상을 잠재집단으로 분류하여 이들 간의 연관관계를 설명한다(권재기·정미경, 2012; 박희재, 2011; Muthén & Muthén, 2000).

잠재 집단 분석의 강점 중 하나는 최종모형을 선택하는 데 있어 다양한 준거 지수를 활용하여 연구자의 주관적 편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김미희, 2014). 이 연구에서는 모델 모수치의 최대우도추정치를 이용한 정보준거지수인 AIC 및 BIC, 분류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Entropy지수 및 각 잠재집단의 유의미성을 바탕으로 적합한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였다(임미령, 2014).

적합한 잠재집단 수를 결정한 후에는 유형 멤버십 확률(class membership probability)과 유형 멤버십에 따른 조건부 문항 응답확률(item response probability)을 추정하였다. 유형 멤버십 확률이란 잠재적 유형에 속할 확률로서 지역적 독립성을 가지는 관찰된 추정치 안에서 잠재변수들의 집단 분포를 의미하고, 조건부 문항 응답확률은 관찰된 문항과 잠재 유형간의 일치정도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비행행동 잠재집단의 특성을 함께 확인하였다. 분석은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18.0과 잠재집단 분석 프로그램 R package ‘poLCA(Linzer & Lewis, 2014)’을 통해 진행되었다.

IV. 분석 결과

1. 연도별 잠재 집단 분석

1) 4학년 코호트

(1) 전체

4학년 코호트 중 3차 년도에서 7차 년도의 비행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잠재 집단 수 결정과 잠재집단 소속 비율, 그리고 해당 문항에 대한 예상반응 비율 등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2>와 <표 3>과 같다.

① 잠재집단 수 결정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잠재집단 수 분석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3차 년도 자료 모형적합도 결과

모형	Log Likelihood	free parameter	AIC	BIC	Entropy	G^2
1집단	-2011.583	14	4051.166	4131.02	0.907	704.861
2집단	-1816.866	29	3691.732	3857.146	0.820	315.427
3집단	-1788.928	44	3665.855	3916.827	0.807	259.550
4집단	-1786.455	59	3690.909	4027.44	0.805	254.604
5집단	-1764.965	74	3677.929	4100.019	0.795	211.624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단 수가 2개일 때에 BIC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G^2 값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도 1집단에서 2집단으로 변화하였을 때의 값이다. 이에 3차 년도 초등학교 6학년의 비행행동 잠재집단 수는 2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② 분류된 잠재집단의 형태 및 특징

초등학교 6학년의 2개 잠재집단 소속확률 및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아래 표에서는 연구 대상인 총 2,378명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 대하여 각 집단에 속할 확률과 비행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에 해당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응답할 확률을 함께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모든 비행 행동에 대한 응답 확률이 적은 모범집단과, 특정 비행에 응답 확률이 높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3차 년도 자료의 잠재집단 소속확률 및 특징

구분	집단1	집단2	전체
	모범	복합비행	
소속확률	95.71	4.29	100.0
문항내용*			
담배피우기	4.1	15.2	1.3
술 마시기	1.3	12.7	0.8
무단결석	0.2	8.2	0.7
가출	0.4	6.3	0.8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1.3	34.7	3.3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1.2	41.8	3.7
패싸움	0.4	10.9	1.0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0.2	16.9	1.2
다른 사람 협박하기	0.2	12.5	0.9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뺑뺏기)	0.1	9.3	0.6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0.1	6.8	0.5
성관계	0.0	2.5	0.2
성폭행이나 성희롱	0.0	3.4	0.2
돈을 걸고 도박 게임하기	1.0	8.4	1.4

초등학교 6학년의 2개 잠재집단의 속성을 살펴보면, 비행집단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은 ‘다른 사람 심하게 조롱하기’(34.7%),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41.8%)로 나타났으며, 10%이상의 비율을 보이는 비행행동들을 보면, 재산, 폭력, 지위 등 하나의 비행행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비행행동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연도별 잠재집단 분류 및 소속 비율 추이분석

이상과 같이 4학년 코호트의 비행행동에 대한 문항을 바탕으로 잠재 집단 분석을 시행한 결과 잠재집단의 수는 동일하게 2개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비행집단의 비율은 연도별로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며, 3차 년도 4.3%, 4차 년도 5.5%, 5차 년도 4.7%, 6차 년도 4.6%, 7차 년도 4.8%로 나타났으며, 3차 년도에서 4차 년도, 그리고 6차 년도에서 7차 년도는 학교급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변화하는 시기로 그 때마다 비행집단의 소속 비율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그 크기가 크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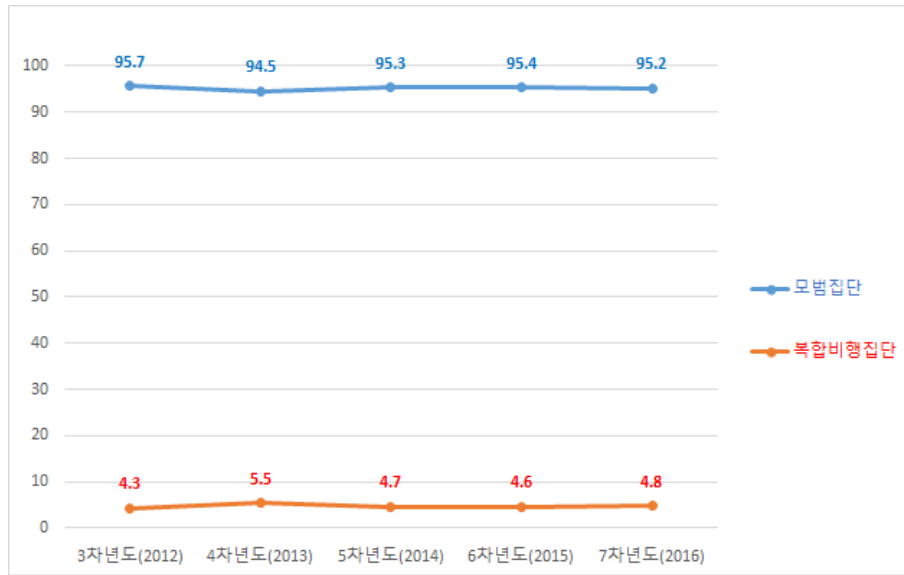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집단별 소속 비율 추이 분석결과

(2) 성별에 따른 잠재 집단 분석결과

① 남자

4학년 코호트 중 남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비행행동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잠재 집단 분석한 결과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잠재집단의 수는 동일하게 2개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비행집단의 비율은 연도별로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며, 3차 년도 5.8%, 4차 년도 6.3%, 5차 년도 6.3%, 6차 년도 7.5%, 7차 년도 6.9%로 나타났다. 전체의 비율변화 추이와 유사하게 3차 년도에서 4차 년도, 그리고 6차 년도에서 7차 년도는 학교급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변화하는 시기로 그 때마다 비행집단의 소속 비율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그 크기가 크지는 않다.

② 여자

4학년 코호트 중 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비행행동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잠재 집단 분석한 결과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잠재집단의 수는 동일하게 2개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비행집단의 비율은 연도별로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며, 3차 년도 3.9%, 4차 년도 4.2%, 5차 년도 1.7%, 6차 년도 1.3%, 7차 년도 2.1%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비율변화 추이와 유사하게 3차 년도에서 4차 년도, 그리고 6차 년도에서 7차 년도는 학교급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변화하는 시기로 그 때마다 비행집단의 소속 비율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그 크기가 남학생들에 비해 비율이 비행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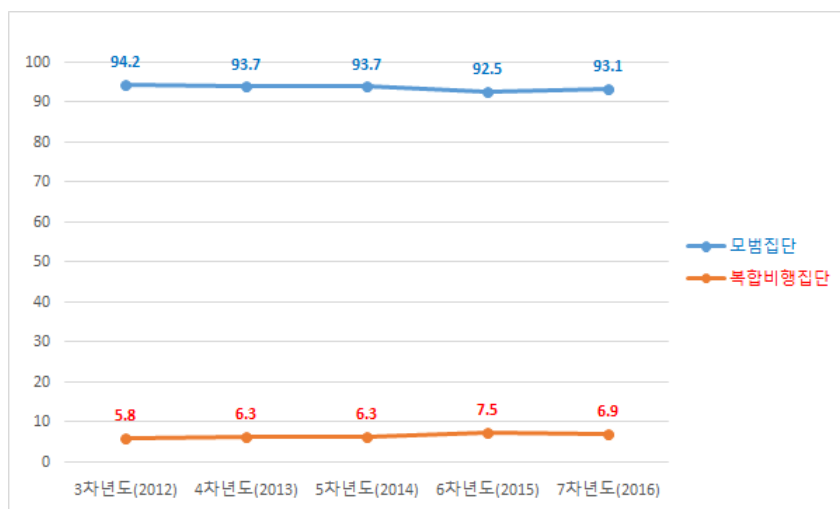


그림 2. 남학생의 연도별 집단별 소속 비율 추이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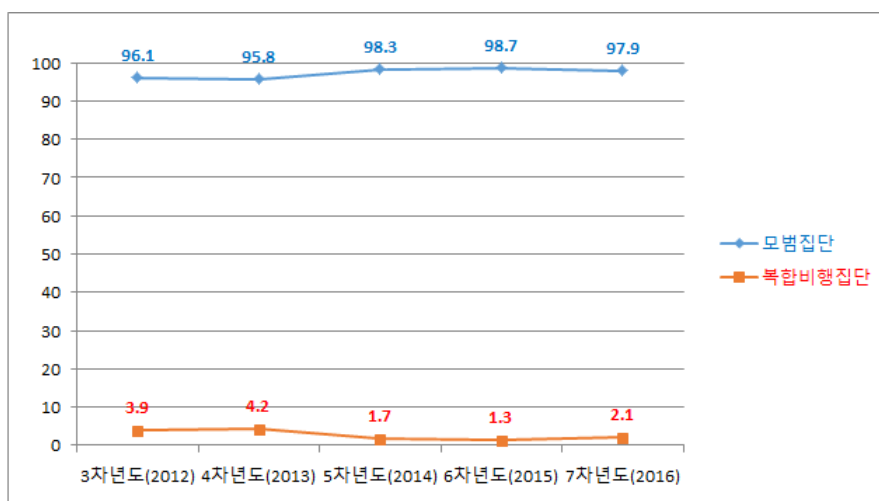


그림 3. 여학생의 연도별 집단별 소속 비율 추이 분석결과

2) 중학교 1학년 코호트

(1) 전체

중학교 1학년 코호트 중 2차 년도에서 7차 년도의 비행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잠재집단 수 결정과 잠재집단 소속 비율 및 해당 문항에 대한 예상반응 비율 등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 4>와 <표 5>와 같다.

① 잠재집단 수 결정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잠재집단 수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2차 년도 자료 모형적합도 결과

모형	Log Likelihood	free parameter	AIC	BIC	Entropy	G^2
1집단	-3260.352	13	6546.704	6621.219	0.9895	1411.975
2집단	-2832.850	27	5719.700	5874.462	0.9494	556.971
3집단	-2788.257	41	5658.515	5893.524	0.9457	467.785
4집단	-2755.306	55	5620.613	5935.869	0.9453	401.883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단 수가 2개일 때에 BIC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G^2 값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점도 1집단에서 2집단으로 변화하였을 때였다. 이에 2차 년도 중학교 2학년의 비행행동 잠재집단 수는 2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② 분류된 잠재집단의 형태 및 특징

중학교 2학년의 2개 잠재집단 소속확률 및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 <표 5>와 같다. 아래 표에서는 연구 대상인 총 2,351명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 대하여 각 집단에 속할 확률과 비행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에 해당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응답할 확률을 함께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모든 비행 행동에 대한 응답 확률이 낮은 모범집단과, 특정 비행에 응답 확률이 높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2차 년도 자료의 잠재집단 소속확률 및 특징

구분	집단1	집단2	전체
	모범	복합비행	
소속확률	92.76	7.24	100.0
문항내용*			
담배피우기	2.66	49.75	6.2
술 마시기	1.83	40.10	4.7
무단결석	1.37	25.26	3.2
가출	0.7	25.97	2.6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3.53	39.61	6.2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1.35	24.93	3.1
패싸움	0.14	8.23	0.7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1.38	26.39	3.1
다른 사람 협박하기	0.07	12.65	1.0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뺑뚬기)	0.15	18.65	1.5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0.12	7.29	0.7
성관계	0.00	1.17	0.1
성폭행이나 성희롱	0.00	2.34	0.2

* 2차 년도 설문 문항에 ‘돈을 걸고 도박 게임하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중학교 2학년의 2개 잠재집단의 속성을 살펴보면, 비행집단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은 ‘담배피우기(49.75%)’, ‘술 마시기(40.10%)’, ‘다른 사람 심하게 조롱하기’(39.61%) 등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비행 행동들이 지위, 폭력, 지위 비행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나타나 초등학교 코호트에 비해 비행행동의 정도와 다양성이 심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연도별 잠재집단 분류 및 소속 비율 추이분석

위와 같이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비행행동에 대한 문항을 바탕으로 잠재 집단 분석을 시행한 결과 잠재집단의 수는 동일하게 2개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그림 4]와 같다. 비행집단의 비율은 2차 년도 9.2%, 3차 년도 5.8%, 4차 년도 11.4%, 5차 년도 11.6%, 6차 년도 12.4%, 7차 년도가 22.1%였다. 비행행동 집단의 비율의 낮고 변동이 적었던 초등학교 코호트에 비해, 중학교 코호트에서는 학교 급이 이동하는 시기에 크게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한 4차 년도 11.4%, 고등학교를 졸업한 7차 년도 22.1%로 전체 학생 중 비행집단에 속할 확률이 직전년 년도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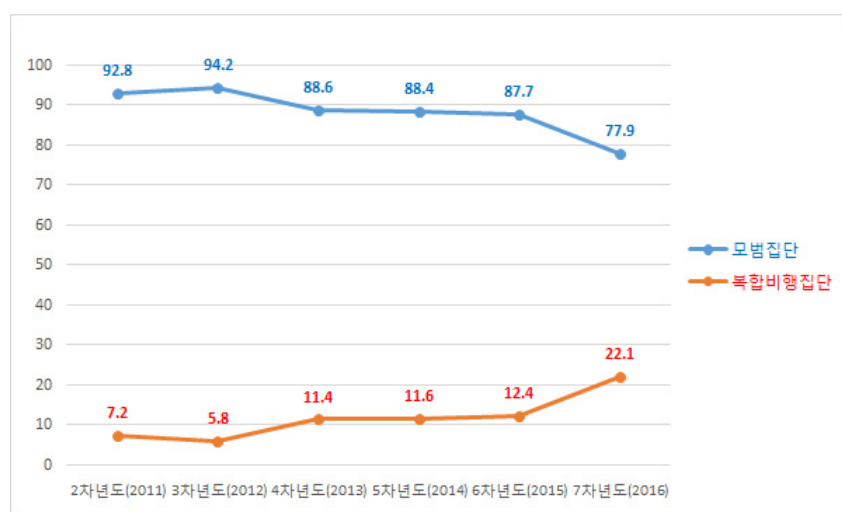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집단별 소속 비율 추이 분석결과

(2) 성별에 따른 잠재 집단 분석결과

① 남자

중학교 1학년 코호트 중 남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비행행동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잠재 집단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 5]와 같다. 대부분의 년도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잠재집단의 수가 2개로 구분되었으나, 3차 년도에서만 3개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비행집단의 비율은 2차 년도 9.1%, 3차 년도 8.3%, 4차 년도 14.5%, 5차 년도 17.0%, 6차 년도 19.7%, 7차 년도 34.8%로 나타났으며, 학교 급이 변하는 시기에 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여자

중학교 1학년 코호트 중 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비행행동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잠재 집단 분석한 결과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잠재집단의 수는 동일하게 2개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그림 6]과 같다. 초등학교 코호트 분석 결과와 같이 비행집단의 비율은 연도별로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며, 2차 년도 4.4%, 3차 년도 3.1%, 4차 년도 2.8%, 5차 년도 4.1%, 6차 년도 4.2%, 7차 년도 9.9%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학교 급의 이동에 상관없이 비행 행동 집단 비율이 비교적 일정하였으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점에서는 그 비율이 약 10%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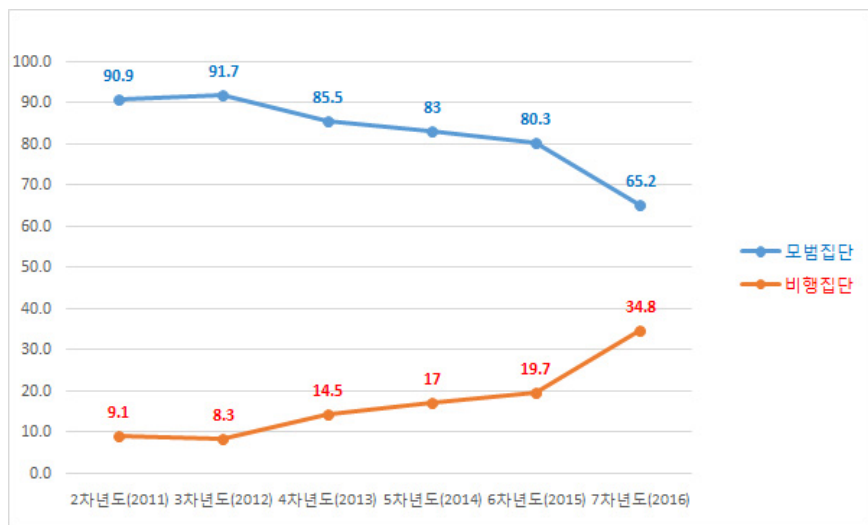


그림 5. 남학생 연도별 집단별 소속 비율 추이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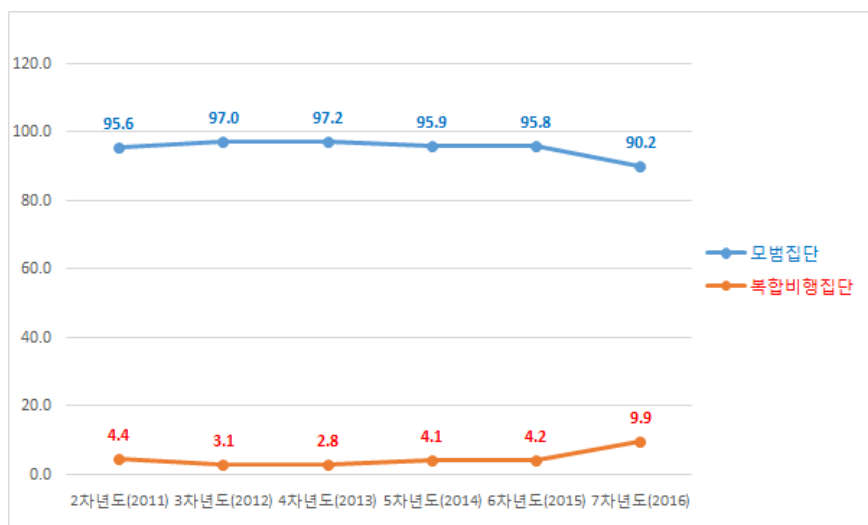


그림 6. 여학생 연도별 집단별 소속 비율 추이 분석결과

2. 소속집단별 비행행동 발생비율 추이분석

1) 4학년 코호트

(1) 전체

전체 잠재집단별로 비행행동의 비율이 연도에 따라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7]과 같다. 모범집단의 경우 14개의 비행행동 모두 10%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되나, 이 중 음주행동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비행집단의 경우 흡연과 음주의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괴롭힘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시기에 다소 증가했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무단결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따돌림도 초등학교에서는 40%가 넘는 비율로 행해지고 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10%가 되지 않는 수치이기는 하나 성관계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외의 비행행동들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시기가(2012 → 2013)에 다소 증가했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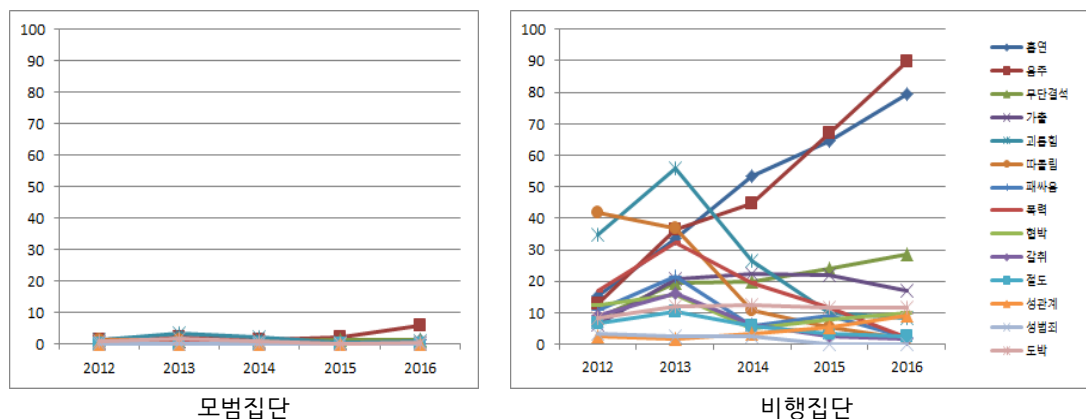


그림 7. 잠재집단별 비행행동 발생비율 연도별 추이분석

(2) 남자

남학생 대상 잠재집단별로 비행행동의 비율이 연도에 따라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 8]과 같다. 모범집단은 전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음주가 그 비율이 적기는 하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비행집단의 경우 흡연과 음주의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괴롭힘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시기에 40%수준에서 70%수준까지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무단결석과 성관계 행동은 그 비율이 크지는 않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그 외 다른 비행행동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시(2012 → 2013)에 다소 증가했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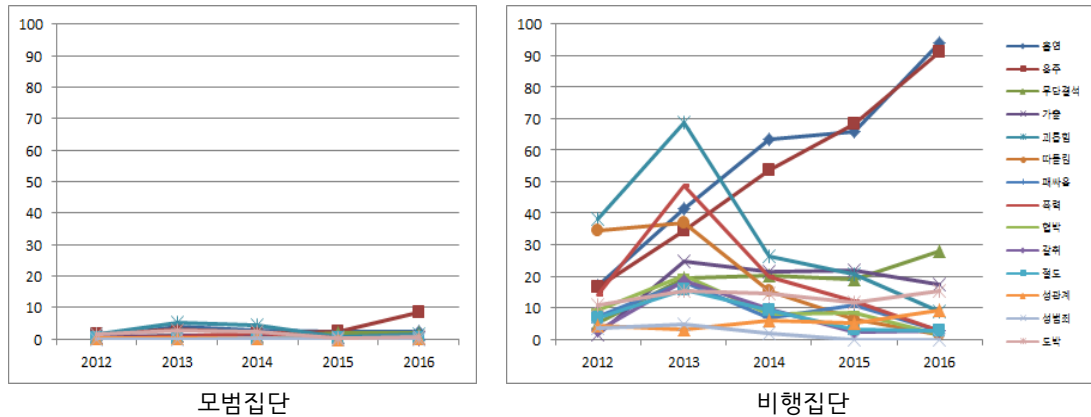


그림 8. 남학생의 잠재집단별 비행행동 발생비율 연도별 추이분석

(3) 여자

여학생 대상 잠재집단별로 비행행동의 비율이 연도에 따라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모범집단은 비행행동 발생비율이 남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경우 음주가 남학생들과는 달리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그 비율이 작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비행집단의 경우 흡연과 갈취는 초등학교 6학년(2012)에서 중학교 2학년(2014)까지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함에 따라 떨어지고 있었다. 반면 음주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때에는 10%미만의 비율을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비행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은 거의 100% 음주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무단결석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때에는 10%내외 수준이었다가 중학교 3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거의 60%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던 따돌림은 중학교 2학년(2014)이후 급격하게 그 비율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학교에 진학하는 2013년까지는 14개의 비행행동들이 50%미만 수준의 발생비율을 보였으나, 그 이후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등의 행동이 비행집단의 두드러진 행동유형이 되고 있었으며, 다른 비행행동들은 그 비율이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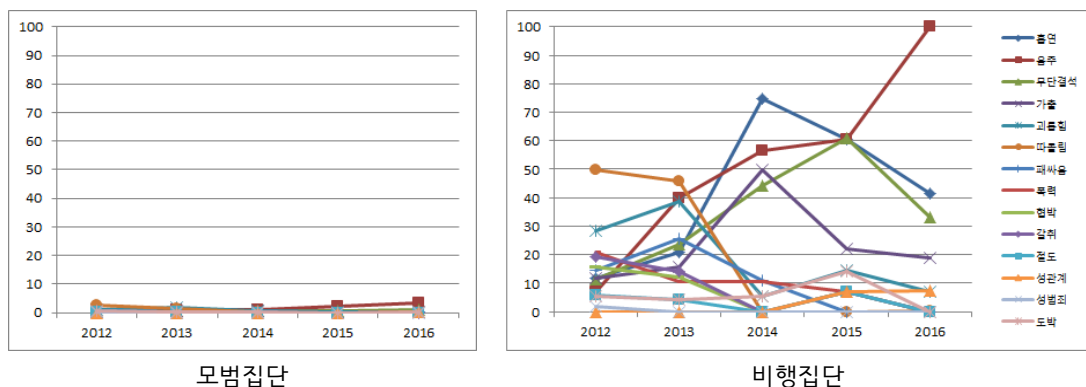


그림 9. 여학생의 잠재집단별 비행행동 발생비율 연도별 추이분석

2) 중학교 1학년 코호트

(1) 전체

전체 잠재집단별로 비행행동의 비율이 연도에 따라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 10]과 같다. 모범집단의 13개 비행행동에 대하여 5%도 되지 않는 비율로 행동 추이를 보이나 음주행동은 고등학교에서 약 10% 이상의 학생들이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행 집단의 경우 흡연과 음주는 매우 높은 행동 비율을 나타내며 특히 흡연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무단결석, 가출, 괴롭힘 등이 20~40%의 비율로 빈번히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들 비행 행동은 고등학교를 졸업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음주, 성관계 등 지위 비행에 속하는 비행행동들의 비율은 증가 폭은 다르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학교라는 비행 행동 공간이 사라지는 7차 년도에서는 갈취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행행동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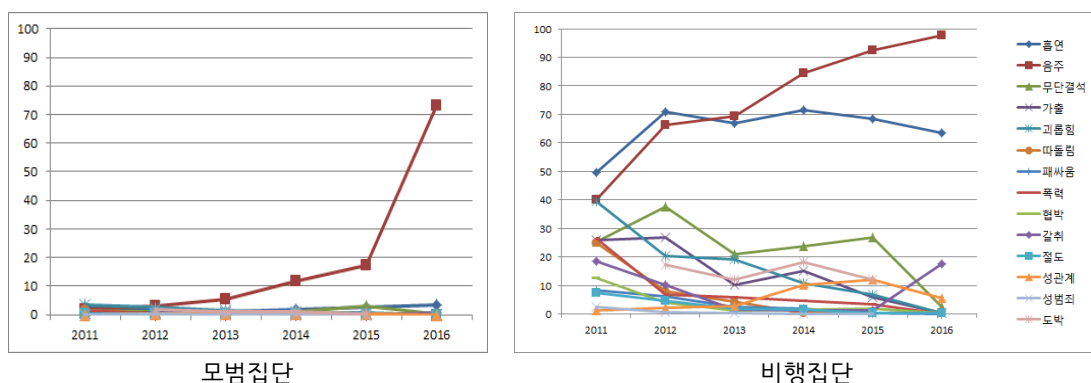


그림 10. 잠재집단별 비행행동 발생비율 연도별 추이분석

(2) 남자

남학생 대상 잠재집단별로 비행행동의 비율이 연도에 따라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는 아

래의 [그림 11]과 같다. 모범집단은 전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음주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비행집단의 경우 대부분의 년도에서 전체 집단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3개의 집단 구분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된 3차 년도에는 심각한 비행양태를 보이는 복합비행집단과 지위비행의 비율이 높은 경비행 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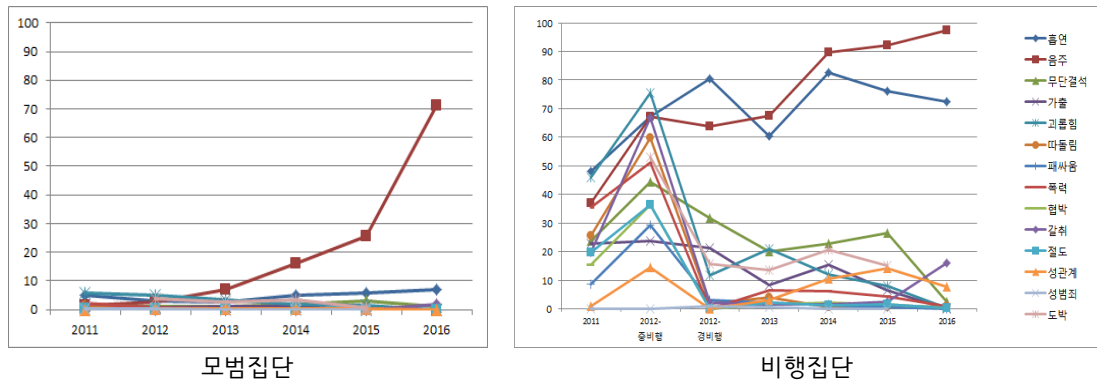


그림 11. 남학생의 잠재집단별 비행행동 발생비율 연도별 추이분석

비행행동 집단이 3개로 나타난 3차 년도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 모범 집단의 비율은 91.7%로 2학년 때와 유사하지만 비행 행동에 있어 지위비행을 하는 경비행 집단과 다양한 비행 행동을 보이는 복합비행 집단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복합비행 집단은 소속 확률이 1.15%로 비율은 작지만 대부분의 비행 행동에서 높은 행동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그 다양성과 심각성에 있어 조심스레 접근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된다.

표 6. 3차 년도 자료의 잠재집단 소속확률 및 특징

남자-3차 년도	모범집단	경비행집단	복합비행집단
소속확률	91.72	7.13	1.15
흡연	3.01	80.40	67.07
음주	2.47	63.84	67.17
무단결석	1.01	31.77	44.29
가출	0.83	21.31	23.85
괴롭힘	5.08	11.75	75.53
따돌림	0.20	1.76	59.70
패싸움	0.00	3.00	29.17
폭력	0.58	0.00	51.26
협박	0.29	0.00	36.48
갈취	0.07	2.13	66.87
절도	0.20	0.00	36.32
성관계	0.20	0.00	14.55
성범죄	0.09	1.04	0.00
도박	3.92	15.77	53.07

(3) 여자

여학생 대상 잠재집단별로 비행행동의 비율이 연도에 따라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 12]와 같다. 모범집단은 비행행동 발생비율이 남학생들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남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음주만이 다른 비행행동 발생비율에 반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약 10%가 경험하여 비율 자체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행집단의 경우 음주와 흡연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흡연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음주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학생에 비해 무단결석이 약 40%를 웃돌아 빈번히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출도 3차 년도에 약 30퍼센트로 상당한 행동 비율을 보였으나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돌림, 갈취, 괴롭힘 등의 폭력 행동은 중학교 2학년 때에는 고루 나타나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집단 비행보다는 개인의 일탈에 가까운 음주, 흡연, 무단결석, 가출이 여학생 비행의 주 행동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에 약 20%였다가 그 행동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갈취가 고등학교 졸업 후 다시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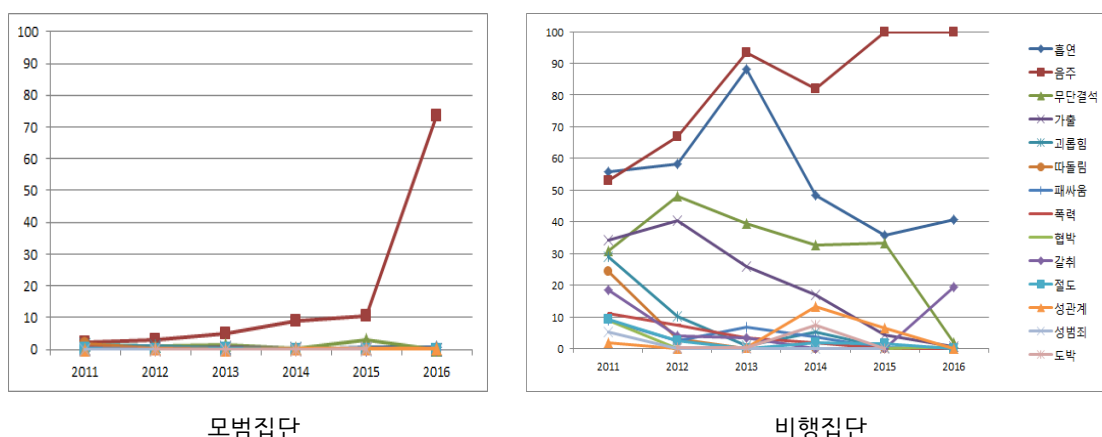


그림 12. 여학생의 잠재집단별 비행행동 발생비율 연도별 추이분석

V. 요약 및 제언

1) 연도별 잠재 집단 분석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의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도에 따라 다소 그 비율의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나 복합비행집단의 비율이 5% 수준이며, 모범집단의 비율은 95%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성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남자의 경우 약 6-7%수준의 복합비행집단과 93-94% 수준의 모범집단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4차 년도에 다소 올라가는 양상으로 보여 4%수준까지 복합비행집단의 비율이 올라가기는 하였으나, 거의 2-3% 수준의 복합비행집단과 97-98% 수준의 모범집단으로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경우 전체를 봤을 때, 복합비행집단의 비율이 중학교 1-2학년 때까지만 해도 10% 수준을 넘지 않는 수준에 그쳤으나, 중학교 3학년 이후 10% 이상으로 그 비율이 올라갔으며, 그 수치는 고3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성별로 구분했을 때 남자는 전체의 양상과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전체집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여자의 경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복합비행집단의 비율이 다소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그 비율이 1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교급별의 변화가 비행집단의 비율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비행집단에 소속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2) 소속집단별 비행행동 발생비율 추이분석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에 대하여 모범집단과 복합비행집단의 비행행동의 예상발생 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모범집단의 경우 음주가 다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 발생비율이 10%에 못 미치고 있었다. 복합비행집단의 경우 흡연과 음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 발생비율은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성관계 행동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괴롭힘, 따돌림, 패싸움 등의 여타의 비행행동들은 중학교 1학년 때 그 발생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자의 경우 전체의 양상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여자의 경우 음주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이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자의 흡연의 경우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높은 발생비율을 보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중학교 1학년 코호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초호트 자료에 비해 중학교 자료에서는 비행행동 집단의 비율이 전체 학생의 약 10퍼센트 정도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학교 코호트 역시 모범집단과 비행집단으로 유형화되었으며 모범집단은 대부분의 비행행동에 대하여 낮은 행동 비율을 보였다. 다만, 음주의 경우 고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모범집단 일지라도 행동비율이 약 10%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졸업 후에는 약 70퍼센트에 이르는 학생들이 음주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집단의 경우 점차 다양한 비행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초등학교 코호트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이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폭력, 패싸움, 따돌림 등 집단적 비행 행동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흡연, 음주, 가출, 무단결석 등 개인적 비행 행동 비율은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를 졸업함에 따라 급격

하게 감소하였다. 음주나 흡연은 성인이 됨에 따라 지위 비행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욱 다양하고 심각한 비행 행동 양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비행 집단 소속 확률이 여학생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높았다. 비행 집단이 2가지로 나뉘었던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의 경우 그 비율은 전체 학생에 대하여 1.5% 가량 이지만 대부분의 비행 행동을 높은 확률로 취하는 집단이 하나, 흡연, 음주 등 경비행을 하는 집단이 또 하나로 따로 분류될 만큼 비행 정도가 심각한 집단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초기에는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비행 행동을 취하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흡연, 음주, 가출, 무단결석에 대하여만 높은 행동 비율을 유지하였다.

전반적으로는 남녀 학생 모두 집단적 비행 행동에서 개인적, 지위비행을 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함에 따라 음주, 흡연, 가출만 행동 비율이 증가 또는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3) 코호트별 분석결과 비교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2개 코호트를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각 코호트에서 같은 학년일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표 7>과 <표 8>을 제시하였다. <표 7>의 경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이 아닌 경기교육종단연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행행동 유형에 대한 분석한 결과이며, 모든 분석대상들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다.

아래의 두 표를 통해서 두 가지 접근을 할 수 있다. 첫째로 한 지역에 국한하여 수집한 비행행동 문항들의 잠재 집단 분석결과와 전국에서 수집한 비행행동 문항들의 잠재 집단 분석결과의 일관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둘째로 두 개의 코호트를 가지고 있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특징을 살려, 다른 코호트의 같은 학년의 학생들의 반응이 일관성이 있게 나타나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접근방법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표 7>에 제시된 경기교육종단연구에서 활용한 비행 관련 문항들 중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 없는 문항들이 있기는 하나, 이를 제외하고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모범집단에 경기교육종단연구의 C1-C3까지의 집단이 포함될 수 있으며, 복합비행집단에 C4, C5집단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경기지역 대상 설문결과가 다소 비행집단적 성격을 가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있으나, 그 경향은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 접근방법을 통해 보면, 2012년의 중학교 2학년과 2015년의 중학교 2학년은 이미 복합비행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2015년에 더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비행행동별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의 중학교 2학년은 흡연과 음주에 더욱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2012년의 중학교 2학년은 흡연, 음주, 괴롭힘, 폭력 등 더 다양한 비행행동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경기교육종단연구 자료의 잠재집단 소속확률 및 특징(2014년)

구분		C1	C2	C3	C4	C5	전체
		모범	욕설	폭력 +갈취	폭력+ 지위	복합비행	
소속확률		49.3	33.7	8.3	7.8	1.0	100
문항내용							
지위 비행	성인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봄*	16.3	28.0	42.7	73.0	100	27.7
	술을 마심	1.2	2.8	0.0	63.8	100	7.5
	담배를 피움	1.8	0.8	0.0	45.3	85.5	5.6
재산 비행	남의 물건이나 돈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음	6.4	12.2	60.4	36.0	86.5	16.0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침	0.2	0.1	18.4	7.3	96.5	3.3
폭력 비행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고의로 허위정보를 유포함*	0.3	0.0	34.5	10.3	100	4.9
	남을 심하게 때림	4.6	19.1	39.5	44.2	91.2	16.4
	채팅이나 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함*	8.0	44.4	94.0	74.4	100	33.5
	친구 얼굴을 보고 욕설을 함*	15.6	90.4	92.5	79.8	100	53.0

*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 없는 문항

※ 경기교육종단연구 2차년도 중학교 2학년(2014년) 잠재 집단 분석 결과. 출처: 임미령, 김지훈, 김미희, 이현, 정애경 (2015).

표 8.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의 잠재집단 소속확률 및 특징

	초4 코호트 5차년도(2015년)			중1 코호트 2차년도(2012년)		
	모범	복합비행	전체	모범	복합비행	전체
소속확률	93.66	6.34	100	90.89	9.11	100
흡연	2.90	63.23	6.9	5.02	48.03	8.9
음주	1.70	53.70	5.1	1.35	37.03	4.6
무단결석	0.83	20.17	2.1	1.26	23.64	3.3
가출	0.95	21.30	2.3	1.26	22.73	3.2
괴롭힘	4.33	26.41	5.8	5.8	46	9.5
따돌림	0.20	15.26	1.2	1.05	25.71	3.4
패싸움	0.21	6.74	0.6	0.28	8.59	1.0
폭력	1.73	19.99	2.9	2.09	35.43	5.1
협박	0.13	7.93	0.6	0.19	15.30	1.6
갈취	0.10	9.65	0.7	0.32	19.64	2.1
절도	0.14	9.06	0.7	0.07	19.64	0.7
성관계	0.18	5.76	0.6	0	0.95	0.1
성범죄	0.16	1.93	0.3	0.1	0	0.1
도박	2.23	14.33	3.0			

4)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비행행동에 대한 잠재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별 성격을 파악하고 비행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비행유형은 비행행동 빈도가 낮은 모범 집단과, 다양한 비행 행동을 하는 복합비행 집단으로 나뉘어졌다. 초, 중, 고등학교 학교 급이 달라짐에 따라, 성별에 따라 연도별로 비행행동 양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상의 연령과 특성에 따라 비행행동예방을 위한 교육접근이 달라야 함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비행행동에 대하여 잠재 집단 분석만을 실시하였으므로 학교급별, 성별, 연도별로 비행행동에서 다른 양상이 나타나게 한 원인은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는다. 추후 연구에서는 비행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대상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비행행동예방 교육접근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주’의 경우 비행행동 잠재집단의 종류와 성별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증가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이 쉽고, 성인의 지위에 가까워질수록 음주 경험 확률이 증가하므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음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폭력비행, 지위비행, 재산비행, 성비행 관련 문항군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사이버비행, 언어폭력 등 비행의 더 다양한 양태를 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이나 언어를 통한 정서적 학대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비행의 행태를 고려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상원. (2007). 아동과 청소년 비행의 원인비교-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8(2), 326-362.
- 김영선. (2004). **비행 학생의 성격유형과 비행 행동 간의 관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선. (2007). 청소년범죄의 발생추세와 특성: 1966-2005년. **형사정책연구**, 19, 55-85.
- 김해란, 김희란. (2016). 청소년 비행에 대한 공간분석. **청소년시설환경**, 14(2), 147-156.
- 김혜원, 임동훈. (2004). 남녀 고등학생들의 하위유형별 비행발생의 관련성 파악: 폭력비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5(1), 167-189.
- 김희화. (2001). 청소년의 초기 비행과 지속적 비행에 대한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8(1), 143-162.
- 남재봉. (2011). 청소년 비행의 유형별 관련요인. **사회과학연구**, 28(2), 1-23.
- 박정선, 황성현. (2013). 청소년의 긴장감, 사회유대감, 비행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이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0), 77-94.
- 박현수. (2009). 청소년 비행발전의 영향요인-비행친구와 자아통제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3), 365-399.
- 박현수. (2011). 청소년 비행의 변화유형과 영향요인. **범죄와 비행**, 창간호, 165-187.

- 박현수, 김준호. (2008). 비행청소년집단의 특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비행친구와의 친밀성과 비행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9(1), 327-356.
- 박현수, 이재영. (2013). 청소년 비행유형 간의 관계: 재산비행과 폭력비행의 전문화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51, 156-186.
- 이상문. (2013). 청소년 비행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4(3), 221-258.
- 이은주. (2008). 청소년기의 비행친구 선택과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 지속효과와 최신효과. **한국청소년연구**, 19(1), 243-267.
- 이성식. (2011). 가부장적 가정의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 **한국청소년연구**, 22(3), 97-117.
- 이종원. (2013).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1 연구보고 (13-R14-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미령. (2014). **문항반응자료와 인지진단 결과를 활용한 잠재 집단 분석**.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미령, 김지훈, 김미희, 이현, 정애경. (2015). 경기지역 중학생 비행행동 잠재 집단 분석. **청소년학연구**, 22(7), 421-443.
- 장세걸. (2012). **비행청소년의 에니어그램 유형과 비행유형의 특성**.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기원. (2007). 비행친구: 청소년 비행의 원인인가, 아니면 결과인가?. **청소년학연구**, 14(1), 213-236.
- 정익중. (2005). 성역할 고정관념과 청소년비행의 성별 차이. **청소년연구**, 16(1), 35-76.
- 정익중. (2009). 청소년비행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 **한국청소년연구**, 20(3), 253-280.
- 조춘범. (2010).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이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현실지각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7(8), 129-155.
- 한진수. (2016). 지위비행청소년의 비행이행과정 영향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23(7), 59-85.
- 홍성훈, 김희수. (2007).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관한 연구-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8(3), 193-216.
- 홍태경, 류준혁. (2011).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청소년 비행요인의 비교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8(3), 113-138.
- 황성현. (2010). 청소년 지위비행에 관한 비행이론 비교연구. **청소년학연구**, 17(5), 49-68.
- 황성현. (2016). 청소년비행에서 비행친구가 선행하는가, 비행이 선행하는가?-잠재성장모형의 적용. **사회과학연구**, 23(2), 53-70.
- Crawford, Cohen, Midlarsky & Brook. (2001). Internalizing symptoms in adolescents: Gender differences in vulnerability to parental distress and discord.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1(1), 95-118.
- Galambos, Barker & Almeida. (2003). Parents do matter: Trajectories of change in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4(2), 578-594.
- Linda M. Collins & Stephanie T. Lanza. (2010).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Hoboken, NJ: Wiley.
- Linzer D & Lewis, J. (2014). *R package 'poLCA'*. URL <https://cran.r-project.org/web/packages/poLCA/poLCA.pdf>.에서 2017년 5월 3일 인출.
- Muthén, L. K & Muthén, B. O. (2010). *Mplus User Guide: Sixth Edition*. L. A. : CA: Muthén & Muthén.



제 ④ 주제

신체/정서/인지발달

1.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학교
급에 따른 차이
2.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가 초등학생의 우울과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종단연구
3. 청소년기 생애목표 유형의 종단적 변화 및 예측변인
검증
4. 가구 및 지역사회 배경에 따른 체험학습 참여와 진로
성숙 효과 차이 분석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학교 급에 따른 차이

오숙경* · 지경예** · 정주리***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1년 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요인(자아존중감), 부모요인(부모 삶의 만족도, 부모학대, 부모방임), 또래요인(또래애착), 학교요인(학교적응)을 선정하여 이 요인들의 영향력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확인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서 무응답과 결측치를 제거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초1패널 2,004명 5차년도와 6차년도, 초4패널 1,914명의 4차년도와 5차년도, 중1패널 1,902명의 5차년도와 6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각 학교 급별로 실시한 다중회귀 분석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면서도 강력한 예측변인은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영향을 주는 공통 변인으로는 또래애착이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적응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변인으로 중학교에서는 부모방임이 중학생 1년 후 삶의 만족에 부적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인이었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부모 삶의 만족도 변인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과 달리 고등학생들의 1년 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급에 따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변인에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주제어 :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부모방임 · 학대, 또래애착, 학교적응, 학교 급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6)가 함께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세계청소년의 행복지수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조사에 참여한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일관되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이 다른 여러 국가들의 청소년들에 비해 낮다고 보고되어 왔다(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박경애, 이명선, 조은경, 1994; 진미석, 2009).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 청소년들보다 대학입시위주의 학업스트레스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낮은 수준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 동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 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조교수, jjoeng@jnu.ac.kr

보이며, 그 결과 약물오용, 인터넷 중독, 신체활동부족, 낮은 정신건강 등의 여러 가지 위험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성경주, 2016).

행복의 사전적인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이며(한글학회편찬, 1999), 행복(happiness)을 ‘안녕(well-being)과 만족(contentment)의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Webster, 2000). 이것은 인간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자신의 삶을 잘 수행해 왔으며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Diener & Fujita, 2005). 즉, 행복은 개인이 처한 다양한 생활부분에 대해 만족해하는 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김영민, 임영식, 2013; Diener, 2000). 삶의 만족에 대한 이론가들의 다양한 정의를 보면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행복감,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삶의 질 등 다양한 용어로 혼합되어 쓰여 지고 있지만 개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김영민, 임영식, 2013).

삶의 만족도는 모든 연령에서 중요하지만 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중요한 이유는 어린 시절의 행복감은 청소년기인 현재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이후의 성인기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Yang, 2008).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겪게 되는 과도기 단계로, 발달특성상 생물학적 변화로 사춘기의 시작, 인지적 변화로 아동기보다 진보된 사고능력의 발달, 사회적 변화로 아동기와는 다른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Hill, 1983). 이러한 청소년 개인의 발달적 변화와 우리사회의 청소년 인구의 감소, 가족형태의 급격한 변화(김혜원, 홍미애, 2007)와 학업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기대에 따른 부담감,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제도,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학교분위기 등과 같은 사회 환경적 요인들로 갈등과 역할 혼란 등을 겪게 되고, 이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성경주, 2016). 따라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입을 통해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청소년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상호 교환적으로 작용할 때 그 영향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정현주, 이주리, 2009).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개인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김정연, 정현주, 2008; 황혜원, 2011). 그리고 환경변인으로는 가족,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를 보면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반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은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고혜영, 2012; 김은아, 배민영, 2016; 박가화, 이지민, 2014; 박희현, 김진아, 한귀례, 2015; 조형정, 윤지영, 2015; 최유선·손은령, 2015). 뿐만 아니라, 또래애착 역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고혜영, 2012; 김소영, 윤기봉, 2016; 조형정, 윤지영, 2015; 최유선, 손은령, 2015). 그리고 청소년들이 교사와의 좋은 관계를 포함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이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심리적 충족감을 높여주고 부적응 및 문제행동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상미, 남진열, 2011).

그러나 이처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나,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는 드물거나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다. 최근에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종단적으로 연구한 임종필(2016)의 연구에서 중3학년부터 고2학년까지 3개 학년에 걸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분석결과 중3보다 고2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았다고 보고하였고, 청소년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본 김신영과 백혜정(2008)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김소영과 윤기봉(2016)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순성(2010)의 연구, 중2학년부터 고3학년까지 5개 학년에 걸쳐 분석한 연구결과는 중2에서 중3까지는 일정수준을 유지하다 중3에서 고3까지 유의하게 상승하는 양의 연구들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의 발달 단계를 구분하여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보면 중2학년부터 고1학년까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방임, 학대)가 공통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중요요인으로 분석됐고(박혜숙, 이명숙, 2014), 초5학년과 중3학년 모두 또래애착, 부모양육, 학업 성취가 삶의 만족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었다(최유선, 손은령, 2015). 김소영과 윤기봉(2016)의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해 통합적인 접근을 했다고보다는 몇 개의 요인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발달 단계를 중심으로 연구하기보다 각 학년 별로 영향을 미친 요인을 확인하는 데 그쳤고(김문선, 2013; 이수진, 2016; 최미혜, 2015), 학교급 간을 비교한 경우라도 초기 청소년기와 중기 청소년기 두 집단에 대한 비교만 이뤄졌다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박혜숙, 이명숙, 2014; 성경주, 2016; 최유선, 손은령,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포함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개인요인, 가정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에서 청소년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파악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학교 급에 적합한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 및 방안 마련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개인요인(자아존중감), 부모요인(부모방임, 부모학대, 부모 삶의 만족도), 또래요인(또래애착)과 학교요인(학교적응)을 설정하고, 1년 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각 학교 급(초등, 중등, 고등)에서 예측변인들이 청소년의 1년 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먼

저 학교 급 간 연구변인에서 집단차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1. 초·중·고 학교 급에 따라 자아존중감, 부모방임, 부모학대, 부모 삶의 만족도, 또래 애착, 학교적응, 1년 후 삶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초·중·고 학생의 자아존중감, 부모방임, 부모학대, 부모 삶의 만족도, 또래애착, 학교적응이 1년 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행복은 각 개인이 느끼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 인지적 측면에서 행복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느끼는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를 말하고 정서적 측면에서 행복은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반응과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말한다(Diener & Diener, 1995). Diener(1984)는 삶의 만족도를 삶에 대한 인지적이고 주관적인 평가,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주관적 안녕감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삶의 만족도는 크게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 중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개인요인으로는 자아탄력성(박혜숙, 이명숙, 2014), 자아존중감(고혜영, 2012; 허미정, 노미화, 최연실, 2016)이 있는데 이 요인들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과 연관이 있는 가정, 학교와 관련이 높고, 가정과 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인간관계가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조성은, 2017), 특히 부모의 양육방식은 다른 요인보다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석말숙, 구용근, 2015).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이수진, 2016; 정제영, 선미숙, 2014),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김소영, 윤기봉, 2016; 석말숙, 구용근, 2015; 한유선, 1996), 부모의 삶의 만족도(최영걸, 2014)가 청소년 자녀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배현우(201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학대보다는 방임이 더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삶의 만족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들로는 또래애착과 학교적응이 있는데, 청소년기의 중요한 관계변인인 또래애착은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다희, 2015; 배현우, 2013; Armsden & Greenberg, 1987), 학교적응 또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북돋우며, 성인기의 삶의 만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영애, 정현희, 2015; 이정윤, 이경아, 2004; 최영걸, 2014; 한성희, 2015; 한유선, 1996).

즉, 청소년들이 가정 외의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또래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학교생활의 적응 등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임종필, 2016). 다음에서 각각의 요인들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2.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관련된 요인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인간 자체에 존엄성을 부여하고,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허미정 외, 2016). 김소영과 윤기봉(2016)은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자기를 어느 정도 존경하는지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모든 평가를 포함하면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평가를 하여 능동적으로 사회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수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며(허미정 외, 2016),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삶의 만족도도 높다고 하였다(김소영, 윤기봉, 2016). 또한, 청소년기의 심리적 부적응, 비행 등 문제행동과 관련되며, 정서적, 행동적, 학업적 적응에도 영향을 주고, 청소년기에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성인기의 심리적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혜영, 2012).

자아존중감은 다른 변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연구한 고혜영(2012)은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 발달 과정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이런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또래와의 애착을 형성하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고, 허미정 외(2016)와 심수정(2004)은 자아존중감이 높을 경우 또래 관계가 좋아지고, 또래관계에 긍정적일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며, 나아가 청소년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고 했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2)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학대와 방임의 경우는 자녀들의 삶의 만족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이수진, 2016).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한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말한다(국가법령센터정보, 2014). 특수교육학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방임’은 아동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을 제공하지 않아서 아동이 방치된 상태이며, 신체적

방임, 지도의 소홀, 의료적·정서적·교육적 방임 등을 포함한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이 중 신체적 방임은 적절한 섭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기후에 맞는 의복을 제공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는 등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에 저해되는 무책임한 행동들을 일컫는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선행연구결과들을 보면 부모의 학대나 방임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학대나 방임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했다(배현우, 2013; 이수진, 2016; 최미혜, 2015; 황용관, 2016). 또한 부모의 삶의 만족도도 자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될 수 있다. 최영걸(2014)의 연구를 보면, 부모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인 방임과 학대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부모의 삶의 만족도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3) 또래애착

청소년기는 서서히 부모로부터 독립을 연습하는 시기로,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또래와의 관계가 생활의 중심이 되고, 또래와 많은 대화, 감정 등을 공유하면서 지내게 된다. 권귀향(2016)은 과도기에 놓인 청소년이 또래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안정감과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여기서 생성된 긍정적인 또래관계가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신념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배현우(2013)의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이 강할수록 공격성이 낮아지고, 또래의 수용과 지지가 부모의 부정적 양육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 해 주는 역할을 했고,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을 통제하더라도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또래애착이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최유선과 손은령(2015)의 연구에서도 초기 청소년과 중기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또래애착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래관계 역시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여겨진다.

4) 학교적응

청소년의 활동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뤄지다 보니 학교적응이 긍정적이고 원만하면 다른 활동이나 대인관계도 안정적이고 편안하지만, 학교에서의 적응이 불안정하면 청소년의 삶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박가화와 이지민(201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학교에서 적응은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삶의 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황용관(2016) 역시 학습활동에 적극적이고, 학교규칙을 잘 지키며, 친구 및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청소년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교에서의 적응 역시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될 수 있다.

5)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인들에서 발달 단계에 따른 차이

최근 특정 학년에 국한하지 않고, 초기 청소년부터 중기, 후기 청소년까지 여러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관해 알아보는 연구들이 늘고 있다(김명자, 최유선, 손은령 2016; 김소영, 윤기봉, 2016; 박혜숙, 이명숙 2014; 손수경, 이현정, 2016; 최영걸, 2014). 예를 들어 손수경과 이현정(2016)은 종단연구를 통해 초4학년부터 중2학년까지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같은 학교급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칠 뿐, 학교급이 달라지면(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변화) 그 영향이 유의하지 않음을 밝혀 학교 급에 따라 영향력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명자 외(2016)의 연구는 초5, 중1, 중3의 또래애착과 삶의 만족도의 상호적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또래애착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최유선과 손은령(2015)의 또래애착을 높게 지각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로, 횡단적 분석에서는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김명자 외(2016)의 종단적 분석에서는 유의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 박혜숙과 이명숙(2014)의 연구에서는 중2학년부터 고1학년까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모양육 태도의 변화를 분석하여 학대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배현우(201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방임이 초등학교생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고 있어 학교 급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 변인에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처럼 학교 급에 따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에 미치는 변인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변인들에서 각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각 학교급 별로 1년 후의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다단층화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식으로 추출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초 1학년 2,342명, 초 4학년 2,378명, 중 1학년 2,351명으로 조사된 자료이고, 본 연구에서는 초1패널 5차년도(초5), 6차년도(초6)와 초4패널 4차년도(중1), 5차년도(중2) 그리고, 중1패널 5차년도(고2), 6차년도 데이터(고3)를 사용하였다. 이 중에서 무응답과 결측치를 제거한 초1패널 2,004명과 초4패널 1,914명, 중1패널 1,90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1) 삶의 만족도

종속변수인 1년 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초1패널(6차년도), 초4패널(5차년도)와 중1패널(6차년도)의 자료를 사용했으며, 문항은,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등 총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에 대한 답은 ‘매우 그렇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신뢰도는 .816~.837이었다.

2) 자아존중감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초1패널(5차년도), 초4패널(4차년도)와 중1패널(5차년도)의 자료를 사용했으며, 문항은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을 포함한 10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한 답은 4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역코딩을 해야 하는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신뢰도는 .807~.858로 나타났다.

3) 부모 삶의 만족도

독립변수인 부모 삶의 만족도는 1문항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초1패널(5차년도), 초4패널(4차년도)과 중1패널(5차년도)의 자료를 각각 사용했으며, 문항에 대한 답변은 ‘매우 만족한다(1점)’, ‘만족하는 편이다(2점)’,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3점)’,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 한 점수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4) 부모방임과 학대

독립변수인 부모방임과 부모학대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초1패널(5차년도), 초4패널(4차년도)과 중1패널(5차년도)의 자료를 사용했으며, 부모방임 문항은 ‘다른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등 포함 4문항이고, 부모학대는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등을 포함 4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한 답은 4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 ~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평정한다. 부모방임 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방임과 부모학대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방임 신뢰도는 .686~.774이고, 부모학대 신뢰도는 .801~.854이었다.

5) 또래애착

독립변수인 또래애착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초1패널(5차년도), 초4패널(4차년도)와 중1패널(5차년도)의 자료를 사용했으며, 각 하위요인 의사소통(3문항), 신뢰(3문항), 소외(3문항)으로 총 9문항으로 되어있으며, 문항에 대한 답변은 4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만족한다(1점)’, ‘만족하는 편이다(2점)’,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3점)’,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4점)’로 소외(3문항)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 간에 애착이 높도록 역코딩하여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805 ~ .834이다.

6) 학교적응

독립변수인 학교적응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초1패널(5차년도), 초4패널(4차년도)와 중1패널(5차년도)의 자료를 사용했으며, 척도의 4개 하위요인(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중 교우관계는 다른 독립변인인 또래변인과 중복 측정되는 부분이 있어 이 하위요인은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3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한 총15문항으로 문항에 대한 답변은 ‘매우 만족한다(1점)’, ‘만족하는 편이다(2점)’,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3점)’,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좋은 것을 의미하도록 학습활동의 1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역코딩하여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는 .839 ~ .887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의 초1패널(5차, 6차), 초4패널(4차, 5차), 중1패널(5차, 6차)의 자료를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련 문항을 확 · 검토하여 문항에 따른 데이터의 결측치는 제거하고, 검사도구 문항의 역코딩 등 재부호화 과정을 거쳐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방법은 아래에 따라 진행되었다.

첫째,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알아보고, 변수들 간의 관련정도를 파악하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독립변수(학교 급)에 따른 종속변수(1년 후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부모 학대 및 방임, 부모 삶의 만족도, 또래애착, 학교적응)에서 초 · 중 · 고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경우 집단 간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비교(Post Hoc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자아존중감, 부모방임과 부모학대, 부모 삶의 만족도, 또래애착, 학교적응이 그들의 1년 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급 별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기술통계 분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부모학대, 부모방임, 부모 삶의 만족도, 또래애착, 학교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기술통계

구분	초등학생 ($n=2,004$) $M(SD)$	중학생 ($n=1,914$) $M(SD)$	고등학생 ($n=1,902$) $M(SD)$
1년 후 삶의 만족도	10.07(1.84)	9.10(1.76)	8.65(1.84)
자아존중감	31.61(4.46)	30.55(4.65)	29.06(4.51)
부모학대	6.51(2.45)	7.13(2.72)	6.39(2.29)
부모방임	5.99(1.95)	7.04(2.12)	7.23(1.95)
부모 삶의 만족도	3.04(0.48)	2.96(0.55)	2.91(0.51)
또래애착	28.50(4.39)	27.87(4.26)	28.14(3.87)
학교적응	47.81(6.60)	43.99(7.18)	43.30(5.88)

2) 상관관계 분석

연구변인들 간의 관련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고, 결과는 아래 <표 2>에 제시하였다. 세 집단 모두에서 연구변인들 간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특히 청소년들의 1년 후 삶의 만족도는 부모방임($r=-.249\sim-.189$)이나 학대($r=-.160\sim-.115$)와는 부적상관을, 부모의 삶의 만족도($r=.054\sim.084$), 자아존중감($r=.388\sim.470$), 또래애착($r=.266\sim.312$), 학교적응($r=.230\sim.257$)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초등학생 집단에서 또래애착과 부모 삶의 만족도는 유의하지 않았고($r=.030$, $p < .05$) 고등학생 집단에서 부모 삶의 만족도와 부모학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r=-.029$, $p < .05$).

표 2. 주요변수의 상관계수

	1	2	3	4	5	6
1. 부모방임						
2. 부모학대	.214**					
3. 부모 삶의 만족도	-.053*	-.052*				
4. 자아존중감	-.432**	-.377**	.046*			
5. 또래애착	-.381**	-.281**	.030	.492**		
6. 학교적응	-.475**	-.218**	.069**	.480**	.458**	
7. 1년 후 삶의 만족도	-.241**	-.160**	.054*	.412**	.312**	.248**

	1	2	3	4	5	6
초등학교	1. 부모방임					
	2. 부모학대	.238**				
	3. 부모 삶의 만족도	-.090**	-.048*			
	4. 자아존중감	-.359**	-.265**	.080**		
	5. 또래애착	-.416**	-.320**	.047*	.461**	
	6. 학교적응	-.424**	-.173**	.101**	.407**	.354**
	7. 1년 후 삶의 만족도	-.249**	-.121**	.075**	.388**	.266**
고등학교	1. 부모방임					
	2. 부모학대	.263**				
	3. 부모 삶의 만족도	-.076**	-.029			
	4. 자아존중감	-.327**	-.207**	.065**		
	5. 또래애착	-.386**	-.260**	.079**	.487**	
	6. 학교적응	-.385**	-.205**	.053*	.341**	.360**
	7. 1년 후 삶의 만족도	-.189**	-.115**	.084**	.470**	.267**

* $p < .05$. ** $p < .01$.

2. 학교 급 간에 따른 연구변인들의 차이 검증

조사대상자들의 학교 급에 따라 부모방임, 부모학대, 부모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학교적응과 1년 후 삶의 만족도 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평균차이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각 학교 급간에 따라 부모방임과 부모학대, 부모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학교적응과 1년 후 삶의 만족도 등의 각 변인들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집단에서 변인들의 차이를 나타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Bonferroni 방법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후 검증 시 다중비교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 Bonferroni 교정을 이용해 유의도 수준을 $.05/3=.017$ 로 설정하여 유의도가 .017 이하일 때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먼저 부모방임의 경우, $F(2, 5,817)=217.337$, $p<.001$ 로, 초등학생보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부모방임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부모방임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부모학대는 $F(2, 5,817)=48.791$, $p<.001$ 로, 중학생이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가장 높은 수준에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과 고등학생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 삶의 만족도($p < .001$) 정도는 $F(2, 5,817)=32.890$, $p<.001$ 로, 초등학생이 다른 학교 급보다 높았고,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 삶의 만족도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삶의 만족도보다 통계적으로 높았다. 자아존중감은 $F(2, 5,817)=155.062$, $p<.001$ 로 초등학생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였으며,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또래애착은 $F(2, 5,817)=11.206$, $p<.001$ 로 집단의 크기비교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높은 또래애착을 보였다. 학교적응의 비교결과, $F(2, 5,817)=268.873$, $p<.001$ 로 초등학생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학교적응 점수를 나타냈고,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학교생활에 어려움과 갈등이 좀 더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초·중·고 학교급간에 따른 학생의 1년 후 삶의 만족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2, 5,817)=315.442$, $p<.001$, 초등학생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1년 후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를 더 낮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학교 급간에 따른 연구변인들의 차이검증

구분	초등학생 ($n=2,004$) $M(SD)$	중학생 ($n=1,914$) $M(SD)$	고등학생 ($n=1,902$) $M(SD)$	F Bonferroni	비교
1	5.99(1.95)	7.04(2.12)	7.23(1.95)	217.337***	$a<b<c$
2	6.51(2.45)	7.13(2.72)	6.39(2.29)	48.791***	$a<b$, $c<b$
3	3.04(0.48)	2.96(0.55)	2.91(0.51)	32.890***	$c<b<a$
4	31.61(4.46)	30.55(4.65)	29.06(4.51)	155.062***	$c<b<a$
5	28.50(4.39)	27.87(4.26)	28.14(3.87)	11.206***	$b<a$, $c<a$
6	47.81(6.60)	43.99(7.18)	43.30(5.88)	268.873***	$c<b<a$
7	10.07(1.84)	9.10(1.76)	8.65(1.84)	315.442***	$c<b<a$

* $p < .05$. ** $p < .01$. *** $p < .001$

주. 1. 부모방임, 2. 부모학대, 3. 부모 삶의 만족도, 4. 자아존중감, 5. 또래애착, 6. 학교적응, 7. 1년 후 삶의 만족도, a. 초등학생, b. 중학생, c. 고등학생

3. 학교 급별 1년 후 삶의 만족도 예측변인들의 영향력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예측변인들이 초·중·고학생들의 1년 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방임, 부모학대, 부모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또래애착과 학교적응을 예측변인으로 1년 후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초등학생에 대한 변인들 영향력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먼저 회귀모형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부모방임, 부모학대, 부모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또래애착과 학교적응이 초등학생들의 1년 후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6, 1,997)=77.585$, $p<.001$. 회귀모형은 $R^2=.189$ 로 18.9%의 설명력을 보였다. 초등학생의 1년 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beta=.326$, $p<.001$)과 또래애착($\beta=.133$, $p<.001$)이었고, 상대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방임($\beta=-.046$, $p>.05$), 부모학대($\beta=.014$,

$p > .05$) 그리고 부모 삶의 만족도($\beta = .033$, $p > .05$)와 학교적응($\beta = .009$, $p > .05$)은 초등학교의 1년 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표 4. 초등학교생들의 1년 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예측변인들

예측변인	비표준화계수		β	t	p
	B	S.E			
부모방임	-.043	.023	-.046	-1.914	.056
부모학대	.011	.016	.014	.643	.521
부모 삶의 만족도	.126	.078	.033	1.620	.105
자아존중감	.134	.011	.326	12.589***	.000
또래애착	.056	.010	.133	5.427***	.000
학교적응	.003	.007	.009	.371	.711
$R^2 = .189$, $F(6, 1,997) = 77.585$, Durbin-Watson = 1.975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중학생에 대한 주요변인들이 그들의 1년 후 삶의 만족도에 주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먼저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부모방임, 부모학대, 부모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또래애착과 학교적응이 중학생들의 1년 후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6, 1,907) = 67.273$, $p < .001$. 회귀모형은 $R^2 = .175$ 로 17.5%의 설명력을 보였다. 중학생들의 1년 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은 자아존중감($\beta = .297$, $p < .001$)이었고, 다음으로는 학교적응($\beta = .075$, $p < .01$)과 또래애착($\beta = .072$, $p < .01$) 순으로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부모방임의 경우($\beta = -.081$, $p < .01$) 중학생의 1년 후 삶에 부정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중학생들의 1년 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예측변인들

예측변인	비표준화계수		β	t	p
	B	S.E			
부모방임	-.068	.020	-.081	-3.320***	.001
부모학대	.009	.014	.015	.653	.514
부모 삶의 만족도	.107	.067	.033	1.596	.111
자아존중감	.112	.009	.297	11.917***	.000
또래애착	.030	.010	.072	2.842**	.005
학교적응	.018	.006	.075	3.096**	.002
$R^2 = .175$, $F(6, 1,907) = 67.273$, Durbin-Watson = 1.961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에 대한 주요변인들이 그들의 1년 후 삶의 만족도에 주는 예측변인들의 영향력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고, $F(6, 1,895)=94.215$, $p<.001$, $R^2=.23$ 로 23%의 설명력을 보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1년 후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은 자아존중감($\beta=.428$, $p<.001$)이었고, 학교적응($\beta=.069$, $p<.01$)과 부모 삶의 만족도($\beta=.050$, $p<.05$)도 영향은 있었지만, 자아존중감과 비교하면 아주 미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고등학생들의 1년 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예측변인들

예측변인	비표준화계수		β	t	p
	B	$S \cdot E$			
부모방임	-.007	.022	-.008	-.340	.734
부모학대	-.001	.017	-.002	-.085	.932
부모 삶의 만족도	.179	.073	.050	2.461**	.014
자아존중감	.175	.010	.428	17.982***	.000
또래애착	.013	.012	.026	1.070	.285
학교적응	.021	.007	.069	2.991**	.003
$R^2 = .230$, $F(6, 1,895) = 94.215$, Durbin-Watson = 1.990					

* $p < .05$. ** $p < .01$. *** $p < .001$

V.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1패널(5차, 6차), 초4패널(4차, 5차), 중1패널(5차, 6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개인요인(자아존중감), 부모요인(부모 삶의 만족도, 부모학대, 부모방임), 또래요인(또래애착), 학교요인(학교적응)이 1년 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변인들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였다.

먼저, 상관분석 결과 부모방임과 부모학대는 청소년들의 1년 후 삶의 만족도와 부적상관을 보여 청소년이 부모양육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청소년이 삶의 만족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부모의 부정적 양육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이수진(2016)의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든 학교 급에서 청소년들의 1년 후 삶의 만족도에 가장 높은 상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황매향, 최희철, 임효진(2015)의 중학교1학년부터 고등학교2학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이전 시점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또래애착과 학교적응의 경우, 1년 후 삶의 만족도와 상관계수는 자아존중감 다음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애착에서는 초등학생이 다른 학교급보다 높았고, 학교적응은 중학생이 더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 부모양육이 미치는 연구(배현우, 2013)에서 강한 정적상관이 있다는 결과와, 중학교1학년 시기의 또래애착과 삶의 만족사이에서 이전시점과 이후

시점의 관련성을 보고한 황매향 외(2015)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연구변인들의 학교 급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변인들에서 학교 급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부모방임을 높게 지각하였고, 부모학대는 중학생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보다 학대를 더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방임과 학대의 경우,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는 종종 있으나 학교 급간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어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비교하기는 어려웠다. 부모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은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부모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과 학교적응도 초등학생의 경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삶의 만족도를 초등과 중등의 학교급 차이로 연구한 최유선과 손은령(2015)의 연구, 중등과 고등의 학교급을 연구한 김소영과 윤기봉(2016)의 연구와 일치한다. 청소년의 1년 후 삶의 만족도 역시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신영 외(2008)의 연구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삶의 만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결과와 임종필(2016)의 연구에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3개 학년에 걸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연구결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진다는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전반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즐겁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중기와 후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초·중·고 각 학교 급별 예측변인들이 1년 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생의 1년 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이었고, 그 중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방임과 학대, 부모 삶의 만족도와 학교적응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배현우(2013)의 연구와 초5학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형정과 윤지영(2015)의 연구결과 그리고, 초5학년과 중3학년의 학교급을 비교 연구하여 또래애착이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최유선과 손은령(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부모의 학대와 방임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이수진(2016)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다음으로 중학생의 경우는 부모방임,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학교적응이 이들의 1년 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또래애착의 경우는 중학생의 1년 후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부모방임의 경우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는 중1학년을 대상으로 한 고혜영(2012)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했고, 중2학년에서 고1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순성(2010)의 연구에서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와도 같다. 그리고 중1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상미와 남진열(2011)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수록 청소년의 긍정적인 심리적 충족감을 높여주고, 이는 청소년의 삶의 만

족도를 높이며, 청소년의 부적응 및 문제행동을 낮춘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의 경우는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부모 삶의 만족도가 이들의 1년 후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고1학년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연구한 황용관(2016)의 결과,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고,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그리고, 학교환경(학습 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업성적) 요인과의 관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연구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고 각 학교 급별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세 학교 급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 변인이 자아존중감을 확인했다. 이는 청소년기에 형성된 자아존중감이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들(고혜영, 2012; 허미정 외, 2016; 김소영과 윤기봉(2016))로도 지지된다. 이를 통해 초기·중기·후기 청소년 모두 공통적으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노출 되게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각 학교 급별 1년 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결과, 초등학교는 또래에 착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공통요인으로 학교적응 및 부모관련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 청소년에게는 또래관계 향상 교육을, 중·고 청소년에게는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위한 지원을, 덧붙여 청소년부모에게는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게 조력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갖는 시사점은 그동안의 선행연구고찰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많은 주목을 해왔으나(정제영, 선미숙, 2014), 부모 삶의 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어, 본 연구에서 청소년 대상 부모 삶의 만족도 요인을 살펴본 것은 큰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할만한 결과는 다른 학년과 다르게 중학생의 1년 후 삶의 만족도에 상당한 부적영향을 시사하는 부모방임 변인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배현우(2013)의 연구와 고등학생 대상 최미혜(2015)의 연구에서 부모방임이 부모학대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 갈수 있도록 일부 청소년 시기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 시기에 청소년의 부모가 충분한 관심과 사랑으로 자녀의 지도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학교 급간 비교를 위해 연구대상 선정 시 일부 학년만 선택해서 연구를 실시한 것이므로, 본 결과를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또한 초·중·고 각각 일부일정시점의 학년의 자료만 선택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학교 급별로 각각의 학년을 대표할 수 있는 연구대상을 선택하여 시간의 연속성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고찰이 이뤄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고혜영. (2012).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을 매개로 한 부모양육태도와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4). **법령**. 아동복지법. <http://www.law.go.kr>
- 권귀향. (201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권윤정, 장유진. (2016). 부모 애착 관련 관계 변수 및 시간 변수가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 **제6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김명자, 최유선, 손은령. (2016). **제6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김문선. (2012).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또래애착 및 삶의 만족도가 1년 후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상미, 남진열. (2011).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8(4), 225-242
- 김소영, 윤기봉. (2016).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7(2), 271-296.
- 김신영, 백혜정. (2008). 한국청소년행복지수 개발연구. **한국사회학**, 42(6), 140-173.
- 김정연, 정현주. (2008).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13, (0), 171-190.
- 김혜원, 홍미애. (2007).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정도와 설명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4(2), 269-297.
- 박가화, 이지민. (2014). 부모의 양육행동이 남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9(4), 997-1013.
- 박경애, 이명선, 조은경. (1994). **청소년의 문화풍속도: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7**.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 44(2), 121-154.
- 박혜숙, 이명숙. (2014). 중학생의 사회정서적 특성과 부모양육 방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종단적 효과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연구 학술자료집**.
- 박희현, 김진아, 한귀례. (201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이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7(3), 345-362.
- 배현우. (2013). **초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또래애착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석말숙, 구용근. (2015). 가족요인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 연구**, 17(1), 55-74.
- 성경주 (2016).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에 대한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검증. **제6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손수경, 이현정. (2016). 학교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할합수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관계 분석. **제6회 한국 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자료집**.
- 이수진. (2016). **부모의 학대·방임이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교사애착, 지역사회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순성. (2010).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관련변인의 종단적 추이 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주리. (2009) Data Mining을 이용한 초등학교 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 탐색. **아동학회지**, 30(1), 11-25.
- 임종필. (2016).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환경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상미. (2013). 청소년기 자녀를 둔 맞벌이 중기년기 부부의 직업,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변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소희. (2011). 갈등적인 부부관계와 한부모 가족, 어느 것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더 해로운가? **사회복지연구**, 42(4), 165-186.
- 정제영, 선미숙. (2014).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정현주, 이주리. (2009).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자아평가의 관계에서 부모과정과 학교과정의 보호적-안정화 기능. **한국생활과학회지**, 18(3), 609-618.
- 조성은.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우울의 매개효과.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진미석. (2009). **학습효율화 지수**.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미혜. (2015). 부모의 방임·학대 양육방식이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적응과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제5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최영걸. (2014). 초·중학생의 양육환경,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유선, 손은령.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양상,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의 관계-성별 학교급별 비교-, **상담학연구**, 16(2), 223-247.
-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009). 국립특수교육원.
-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6). **2015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한성희. (2015). 부모양육방식 및 학교생활적응이 다문화 가정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유선. (1996). 청소년의 주변환경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정환경 및 학교환경 변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미정, 노미화, 최연실. (201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타심과 자기통제에 의한 포래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1), 29-49.
- 황매향, 최희철, 임효진. (2015). 청소년의 포래에 대한 애착, 자존감, 삶의 만족 사이의 종단적 관계. **제5회 한국 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자료집**.
- 황용관. (2016). 청소년의 가정·학교·지역사회 환경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혜원. (2011).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체계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18(3), 1-26.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16, 427-454.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43.

Diener, E., & Fujita, F. (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164.

Diener, E., & Emmons, R. A. (1984).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01-1117.

Hill, J. (1983). Early adolescence: A framework.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1-21.

Abstract

Predictors of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 Focusing on the Differences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O, Sook-Kyeong(Dongshin University)

Ji, Kyung-Yae(Gwangju Youth Counseling Center)

Joeng, Ju-Ri(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individual factor (self-esteem), parental factors (parents' life satisfaction, abuse and neglect), peer factor (peer attachment), and school factor (school adjustment) predicted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in the next year at three school level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at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peer attachment positively predicted their life satisfaction in the next year. For middle school students, self-esteem, school adjustment, and peer attachment positively predicted their life satisfaction in the next year while neglect negatively predicted it. For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school adjustment, and parents' life satisfaction positively predicted their life satisfaction in the next year.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

Key words: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abuse, neglect, peer attachment, school adjustment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가 초등학생의 우울과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종단연구

박준성* · 안정민** · 정태연****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가 초등학생의 우울과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ren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자료 중 초등학교1학년 학생의 2차년도 2011년, 4차년도 2013년, 6차년도 2015년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초 1학년 2차년도, 4차년도, 6차년도 연속적으로 참여한 학생들 중 문항에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학생을 제외한 1,816명으로 남학생이 938명(51.7%), 여학생이 878명(48.3%)인 표본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인구통계학적으로 학대, 우울 그리고 신체화 증상에 성차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다음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가 우울 그리고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살펴보면, 차이검증에서 학대에서는 2차년도, 4차년도, 6차년도에서 남자 초등학생이 여자 초등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학대를 높게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우울에서는 6차년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우울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신체화 증상에서도 6차년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우울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종단 연구를 살펴보면 학대는 학대에 지속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학대는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우울은 우울에 지속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대와 우울은 초등학생의 신체화 증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지속적 학대가 초등학생의 우울과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제어: 초등학생,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 우울, 신체화 증상, 종단 연구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가족은 개인과 가족 전체의 안전과 건강, 행복과 성장의 근원지이다. 그렇기에 가족은 인간 사회의

*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상담심리학과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tjung@cau.ac.kr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인 집단이다(Berk, 2010; Bronfenbrenner, & Morris, 1998). 가족은 가족 구성원 간의 사랑과 이해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때 건강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때때로 가족 상호 간의 이해부족, 갈등, 가족스트레스, 고립 등으로 인해 가족갈등이 야기된다. 이 때 가족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릇된 전략 중 하나가 학대와 폭력이다(김승경, 송미경, 김미경, 2014). 이러한 가족폭력의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아동이다(Wicks-Nelson, & Israel, 2015; 김승경, 송미경, 김미경, 2014).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에 대한 폭력은 아동학대로, 부모로부터 행해지는 학대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손상시키는 위협적이고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친밀과 애정의 근원지인 가족이 폭력원이 된다는 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형모 외, 2007).

일반적으로 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으로 구분되고 이 중 두 개 이상의 폭력 피해에 중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를 중복 학대로 인한 피해(poly-victimization)라고 한다. 학대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한 유형의 학대가 발생하면 다른 유형의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Finkelhor, Ormrod, & Turner, 2007). 또, 단일한 유형의 학대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경우보다 중복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은 아동의 경우 심리적 외상과 행동 문제가 유의미하게 심각하다(김승경, 송미경, 김미경, 2014; 장화정, 2004). 다양한 환경에서 연계적으로 순환되는 특성을 보여주는 중복 피해에 이르는 경로에는 폭력적인 가족, 위험한 거주 지역, 혼란스럽고 열악한 가족 환경, 아동의 정서적 문제의 총 4개 요인이 있다. 학대로 인한 피해는 하나의 사건이 아닌 발달 과정에서의 중복적 상황으로 지속적인 상호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국내에서도 많은 아동들이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보도하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아시아투데이, 2017. 07. 24). 기존 연구에 의하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정서 인식 및 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심각한 수준의 자존감 저하, 공격성 형성, 우울과 불안, 대인관계 및 학교생활 부적응, 성인기의 사회생활 장애 등이 일어날 수 있다(김수정, 2015; 김수정, 정익중, 2013; 장용환, 송지혜, 2011).

학대적인 가정폭력 내에서 성장하는 경우에 가족 구성원인 아동에게는 피해자 사고 도식이 형성되어 내재적으로 우울과 외현적으로 신체증상 및 타인과의 적절한 의사소통, 효과적 대응방식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윤혜미, 2017; Berk, 2010). 그리고 가족 내에서 많은 사회적 연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상황판단과 반응양식이 어색하므로 또 다른 폭력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Wicks-Nelson, & Israel, 2015).

학대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아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아동의 적응 문제를 정서문제, 행동문제, 사회성문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학대에 노출된 아동은 심각한 수준의 정서 및 행동문제를 보이며, 사회성 영역에서는 또래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소연, 전종설, 2015). 이들은 일반 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가정폭력에 대해 왜곡된 인식이나 부적절한 대처행동을 보인다(장화정, 2004). 또 국내의 행동평가 척도인 K-CBCL상의 내재화 문제 중 우울, 불안, 위축 척도 등을 이용

한 연구결과, 학대에 노출된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우울, 불안, 위축 척도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였다(양혜원, 전명희, 2001). 이러한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는 아동의 우울을 발생시키고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가 아동의 신체화 증상 발생에 우울을 매개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동 학대

아동 학대는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는 데 실패한 극단적인 양육형태이다. 아동가정안전법(Keeping Children and Families Safe Act, 2003)에서는 아동 학대를 ‘사망, 심각한 신체적 상해 또는 정서적 상해, 성적 학대 혹은 착취를 초래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최근 행위 혹은 행위 실패 또는 심각한 상해라는 즉각적인 위험을 주는 행위 또는 행위실패’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욕설이나 언어적 모욕, 무관심, 거부적 태도, 일탈의 방관,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역시 아동 학대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학대는 학대자의 특성, 아동의 특성,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과정, 사회 문화적 영향 등 매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전체 사례의 대다수를 차지한다(Wicks-Nelson, & Israel, 2015). 학대 가해자 부모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 자체가 작고 긍정적 상호작용이 부족하며 자녀를 훈육할 때 설명을 잘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Azar & Wolfe, 2006).

어린 시절의 학대는 아동의 기초적인 발달 과정을 혼란시킨다(Berk, 2010). 일반적으로 학대받는 아동은 발달과정에서 애착, 인지기능, 자기개념, 정서조절, 대인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학대의 시작 연령, 지속기간, 외상과 관련된 심리적 증상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스트레스 조절 시스템의 장애, 신경전달 시스템의 이상과 같은 생물학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Bremner, 2006; Gordis et al., 2010).

특히, 학대로 인해 아동은 위축, 불안, 우울 등과 같은 내재화된 문제와 이로 인해 야기되는 신체화 증상 및 공격성, 과잉 행동,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생물·심리·사회적 적응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수정, 정익중, 2013; 김형모 외, 2007; 윤혜미, 2017; Loeber & Farrington, 1994; Zemanm, Shipman, & Suveg, 2002). 기존 연구들은 일관되게 아동 학대 피해와 우울, 불안 및 공격성의 관계를 보고하고 있는데, 장화정(2004)은 아동 학대로 신고 된 4-15세 아동 8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학대 피해 아동에게 우울, 불안 및 사회성 문제를 겪는 특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종단 분석을 한 연구에서는 아동 학대가 아동의 우울과 불안 수준뿐만 아니라 공격성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수정, 정익중,

2013). 이러한 학대경험은 아동의 휴대폰 중독이나 아동 시기의 자살생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장용환, 송지혜, 2011; 정평화, 노충래, 이경선, 성민현, 송재덕, 2014).

2. 우울

아동기 우울은 인지와 언어능력, 발달의 차이로 인해 성인과는 다른 우울 행동을 보인다. 학령 전 아동의 경우 활동성 저하와 위축, 섭식 및 수면 문제, 과민성, 집중력 저하, 과한 울음반응 등을 보이며, 6세-12세에는 우울증상이 장기적으로 나타난다(Schwartz, Gladstone, & Kaslow, 1998). 특히, 연령이 낮은 아동은 절망감이나 자기비하 표현을 말로 하지 않지만 9세 이후부터는 이를 말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Wicks-Nelson, & Israel, 2015). 이 후 청소년 초기 우울증상은 아동기와 비슷하게 표현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로 인해 성인의 우울증상과 가까워지고 성인기 우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Wenar & Kerig, 2011; Wicks-Nelson, & Israel, 2015).

아동의 우울증은 생물학적 영향과 대인관계, 귀인 양식 등 심리·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야기된다. Klen et al.(2008)에 의하면 우울한 아동은 사회적 기능에 결함이 있고 대인관계에 대한 기대와 지각이 부정적이며 타인으로부터 호감을 얻지 못했다. Seligman과 Peterson(1986)은 귀인양식으로 우울증의 발생을 설명하는데 우울한 아동은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사건의 원인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으며 여러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설명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귀인 양식은 아동의 부정적인 생활 사건들과 절망감을 증대하는 역할을 하며 우울증을 초래하였다. Beck(1967)은 우울증이 자신과 타인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비롯되며 우울한 사람은 특정한 사고 오류를 일으켜 사소한 것도 자기 비난과 실패로 여긴다고 가정하였다. 특히, 우울한 아동들은 파국을 예상하고 과잉 일반화하며 부정적 사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아동의 부모가 어떤 대처 유형과 자기 통제 행동을 유발 또는 장려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Goodman & Brand, 2009).

성인과 달리 아동의 우울은 가정불화나 학대 등 가족들의 상호작용 패턴의 영향이 크다(Harrington et al., 1997). 생후 초기의 애착이 아동의 내적 작동모델 또는 아동이 자신과 사회적 세계에 대해 갖는 표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작동모델과 표상은 생후 초기의 애착 관계에서 발달한다. 이 때 부모의 우울증으로 아동에게 정서적 지원이 미치지 못할 경우 애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강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우울을 포함한 아동의 전반적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Wicks-Nelson, & Israel, 2015).

아동 학대는 아동의 우울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데 기존 연구에 의하면, 신체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일반 아동에 비해 더 우울하다고 지각하며 아동 학대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증가하였다(김수정, 2015; 노정숙, 이경숙, 김보애, 2003). 아동 학대가 우울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은 직접적이기도 하지만 친구관계나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전해숙, 2008). 또한 자아존중감은 아동학대로 인한 우울 정도를 조절하기도 하나(홍영수, 2010), 학대 아동은 이러한 우울과 같은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개인적 대처 기제가 약하거나 외적 자원이 부족하고, 정서적으로나 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울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홍영수, 2010). 아동기 학대 경험은 우울을 매개로 하여 아동기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며 대학생 시기의 우울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이정숙, 구형선, 조인주, 2013; 장용환, 송지혜, 2011).

이러한 우울을 겪고 있는 학령기 아동들은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보다는 복통이나 두통과 같은 신체화 증상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이한주, 서미아, 2010; Gregory, Sandra, & Owen, 1997). 또한 아동기 우울은 짜증, 수면과다 혹은 부족, 행동이 느려짐, 말수가 줄어듦, 복통, 두통, 집중력과 기억력 감소 등의 신체화 증상을 동반한다(김현정, 2009). 이러한 신체화 증상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다루고자 한다.

3. 신체화 증상

신체화란 의학적인 원인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게 느끼거나 사소한 신체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에서 보일 수 있는 증상 이상으로 과장되게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써 신체화 증상에는 근육통, 두통, 위장장애, 수면장애 등이 있다(김현정, 2009).

아동기의 신체화 증상은 우울, 사회적 위축, 부모의 양육행동 교사 및 친구관계와 관련이 있다(윤기봉, 이사라, 2017). 우울은 신체화 증상에 수반되는 가장 흔한 정신 문제로 특히, 아동기 우울은 두통, 복통이나 주의력 결핍, 학업 능력 저하, 등교 거부, 친구 사귀기 거부, 의욕 감퇴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김정민, 지혜, 2011).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지지(김정민, 장영희, 2015), 관심과 애정(차지량, 유미숙, 2010)과 같은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신체화 증상을 감소시키는 반면, 부모의 학대나 방임, 비밀관성 비판적 성향은 신체화 증상을 증가시킨다(신현균, 200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은영(2016)의 연구를 보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우울을 매개하여 청소년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서 아동 학대가 우울을 매개하여 아동의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신체화 증상을 통해 언어 표현이 서툰 아동의 심리 건강과 상태를 살펴볼 수 있고 더 나아가 학교생활과 자아정체감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신체화 증상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심리학이나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수행되어 온 측면이 있다(김정민, 지혜,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ren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가 초등학생의 우울과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단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종단 연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전국적으로 실시된 초 1패널 2차년도(2011), 4차년도(2013), 6차년도(2015)년도의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성차)에 따른 학대와 우울 그리고 신체화 증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둘째,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는 아동의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는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종단연구).

넷째, 아동의 우울은 부모의 학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종단연구).

다섯째, 아동의 지속적인 우울은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종단연구).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공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ren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가 초등학생의 우울과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단 연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전국적으로 실시된 초 1패널 2차년도, 4차년도, 6차년도 연속적으로 참여한 학생들 중 문항에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학생을 제외한 1,816명으로 남학생이 938명(51.7%), 여학생이 878명(48.3%)인 표본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학대, 우울, 신체화 증상에 대한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먼저, 학대는 허묘연(2000)과 김세원(2003)의 아동 학대 문항을 수정 보완한 총 4문항(〈표 1〉 참조)을 사용하였다. 리커트형 4점 척도(1: 매우 그렇다, 4: 전혀 그렇지 않다)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1을 제거한 후 역척도화하여 사용하였다. 이 측정치의 신뢰도는 2차 년도의 경우 Cronbach $\alpha = .54$ 4차 년도는 Cronbach $\alpha = .83$, 6차 년도는 Cronbach $\alpha = .83$ 이었다.

표 1. 학대 문항

문항1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문항2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문항3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문항4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예: 멍청이, 개만도 못한 것, 나가 죽어라,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

둘째, 우울은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중 우울 척도 13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하고 수정한 10문항을 사용하였다(〈표 2〉 참조). 리커트형 4점 척도(1: 매우 그렇다, 4: 전혀 그렇지 않다)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역척도화 하여 사용하였다. 이 측정치의 신뢰도는 2차 년도는 Cronbach's $\alpha=.87$, 4차 년도는 Cronbach's $\alpha=.89$, 6차 년도는 Cronbach's $\alpha=.90$ 이었다.

표 2. 우울 문항

문항1	기운이 별로 없다.
문항2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문항3	걱정이 많다.
문항4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문항5	울기를 잘 한다.
문항6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문항7	외롭다.
문항8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문항9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문항10	모든 일이 힘들다.

셋째, 신체화 증상은 조봉환 임경희(2003)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 보완한 8문항을 사용하였다(〈표 3〉 참조). 리커트형 4점 척도(1: 매우 그렇다, 4: 전혀 그렇지 않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역척도화 하여 사용하였다. 이 측정치의 신뢰도는 2차 년도의 경우 Cronbach's $\alpha=.83$, 4차 년도는 Cronbach's $\alpha=.84$, 6차 년도는 Cronbach's $\alpha=.87$ 이었다.

표 3. 신체화 증상 문항

문항1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 잠에서 깨곤 한다.
문항2	머리가 자주 아프다.
문항3	속이 자주 메스거린다.
문항4	공부를 하면 배가 아플 때가 있다.
문항5	입맛이 없을 때가 있다.
문항6	자주 피곤하다.
문항7	숨쉬기 어려울 때가 있다.
문항8	자주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첫째,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가 초등학생의 우울과 신체화 증상에 대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SPSS 23.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통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가 초등학생의 우울과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들 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하였다. 그 후 구조방정식 AMOS 23.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종단 연구를 위한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IV. 결 과

1. 학대와 우울 및 신체화 증상에 대한 차이검증

성별(남학생, 여학생)에 따라 학대1(2차년도, 2011년), 학대2(4차년도, 2013년), 학대3(6차년도, 2015년), 우울1(2차년도, 2011년), 우울2(4차년도, 2013년), 우울3(6차년도, 2015년) 그리고 신체화 증상(6차년도, 2015년)에 대한 차이를 t-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첫째, 학대를 측정한 시점에서 비교해보면 학대1($t=5.60, p < .001$), 학대2($t=8.05, p < .001$), 학대3($t=6.36, p < .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들 모두 부모의 학대에 대해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지각하였다(〈표 4〉 참고).

둘째, 우울을 측정한 시점에서 비교해보면 우울3($t=-4.55, p < .00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우울을 높게 지각하였다(〈표 4〉 참고).

셋째, 신체화 증상을 측정한 시점에서 비교해보면 신체화 증상($t=-2.57, p < .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신체화 증상에 대해 높게 지각하였다(〈표 4〉 참고).

표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 점수 간의 차이 검증 결과

	남학생		여학생		<i>t</i>
	M(SD)		M(SD)		
학대1	2.23	(.52)	2.10	(.45)	5.60***
학대2	1.78	(.71)	1.53	(.59)	8.05***
학대3	1.64	(.59)	1.47	(.53)	6.36***
우울1	1.43	(.40)	1.45	(.39)	-.62
우울2	1.48	(.50)	1.47	(.52)	.46
우울3	1.59	(.55)	1.71	(.57)	-4.55***
신체화 증상	1.78	(.63)	1.86	(.62)	-2.57*

* $p < .05$, *** $p < .001$

2. 부모의 학대와 우울 및 신체화 증상의 모형검증

1)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

연구를 위해서 초등학생들의 종단 연구를 위해서 우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고).

학대1차에서 신체화 증상까지 모든 변인이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지만 모든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진 않았다. 이들 중 가장 높은 상관은 우울3과 신체화 증상이었다($r=.70$, $p < .001$). 우울2와 우울4의 상관이 다음으로 높았다($r=.52$, $p < .001$). 그러나 학대1과 우울3 그리고 학대1과 신체화 증상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5. 학대1, 우울1, 학대2, 우울2, 학대3, 우울3, 신체화 증상에 대한 상관행렬

	1	2	3	4	5	6	7
1. 학대1	-						
2. 우울1	.05*	-					
3. 학대2	.38***	.06*	-				
4. 우울2	.06**	.52***	.08**	-			
5. 학대3	.24***	.05*	.30***	.09***	-		
6. 우울3	.04	.13***	.06*	.16***	.32***	-	
7. 신체화 증상	.03	.10***	.06*	.10***	.29***	.70***	-

*** $p < .001$

2)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

표 6. 연구모형에 대한 학대의 모형 경로계수 추정치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t
학대1	→	우울1	.06	2.28*
학대1	→	학대2	.59	10.21***
우울1	→	학대2	.09	2.05*
우울1	→	우울2	.12	3.83***
학대2	→	우울2	.26	12.11***
학대2	→	학대3	.30	11.35***
우울2	→	학대3	.09	2.58*
우울2	→	우울3	.53	15.51***
학대3	→	우울3	.28	10.20***
학대3	→	신체화 증상	.06	2.83**
우울3	→	신체화 증상	.72	21.13***

*** $p < .001$

학대1이 우울1, 학대2, 우울2, 학대3, 우울3 그리고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6>과 [그림 1]과 같다. 학대1이 우울1에 가는 경로($\beta=.06$, $p < .05$), 학대1이 학대2에 가는 경로($\beta=.59$, $p < .001$), 우울1이 학대2에 가는 경로($\beta=.09$, $p < .05$), 우울1이 우울2에 가는 경로($\beta=.12$, $p < .001$), 학대2가 우울2에 가는 경로($\beta=.26$, $p < .001$), 학대2가 학대3에 가는 경로($\beta=.30$, $p < .001$), 우울2이 학대3에 가는 경로($\beta=.09$, $p < .05$), 우울2이 우울3에 가는 경로($\beta=.53$, $p < .001$), 학대3이 우울3에 가는 경로($\beta=.28$, $p < .001$), 학대3이 신체화 증상에 가는 경로($\beta=.06$, $p < .01$) 그리고 우울3이 신체화 증상에($\beta=.72$, $p < .001$) 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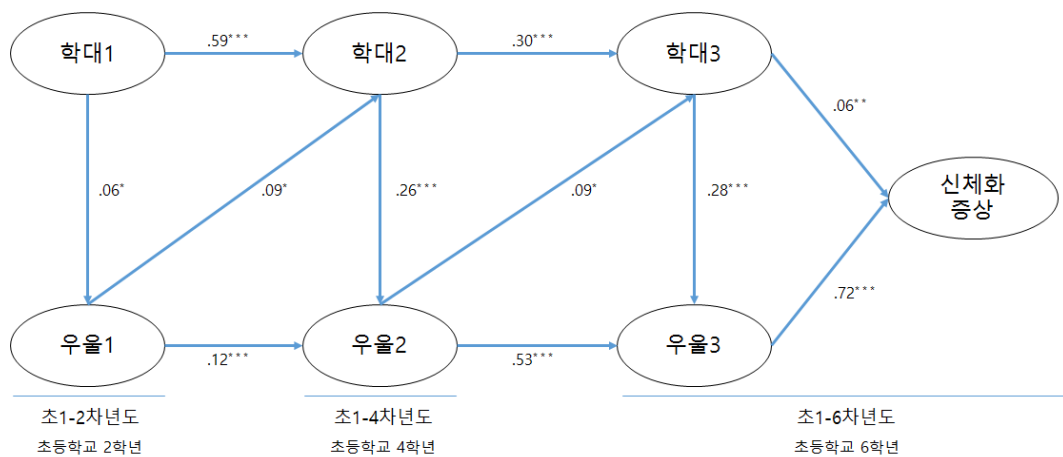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은 χ^2/df 은 보통 3이하이면 양호하고(김계수, 2004), TLI, CFI, GFI는 .70을 초과하면 수용가능(박동현, 배성규, 2003)하고 .90에 근접하면 양호한 모형이다(문수백, 2009; 양병화, 1998). RMSEA 적합도는 .05미만이면 양호한 모형으로 받아들인다(성태제, 2007), 이 수치를 통해 본 연구모형 검증 결과(〈표 7〉)에서 보듯이, $\chi^2/df=2.58$, RMSEA=.03, TLI=.95, CFI=.96, GFI=.94로 높은 적합도를 보여 전체적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검증되었다.

표 7. 연구모형에 대한 학대의 모형 검증

	χ^2/df	p	RMSEA	TLI (NNFI)	CFI	GFI
1차 모형	4.23	$p < .01$	.42	.89	.91	.90
수정모형	2.58		.03	.95	.96	.94

본 모형은 신체화 증상에 대한 변량의 58%를 설명하여 양호한 모형으로 검증되었다 (SMC=.58). 구조방정식에서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의 양호한 수치의 범위는 .20 ~ .99까지이다(문수백, 2009; 우아미, 박준성, 정태연, 2007).

V.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의 지속된 학대가 초등학생의 성장과정에서 우울과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연구이다. 이 연구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논의하겠다.

첫째, 인구통계학적으로 학대, 우울 그리고 신체화 증상에 대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대에 대해서는 2011년과 2013년 그리고 2015년에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학대를 더 높게 인식하였다. 이는 학대와 관련해서 부모가 남학생들에게 심하게 학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이슈가 된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반면에 우울과 신체화 증상에서는 여학생이 2015년 측정에서 남학생에 비해 높게 인식하였다. 이는 학대가 지속되면서 우울로 향해가는 경로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인식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우울과 관련하여 성차가 있음을 검증하는 결과이다. 신체화 증상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신체화 증상을 높게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울로 인해 비롯되는 증상이자 발달정신병리 경로를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Wicks-Nelson, & Israel, 2015; Wenar, & Kerig, 2011).

둘째, 학대가 지속적인 학대로 가는 경로를 검증하였다. 부모의 학대는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대가 시작되면 학대를 끊지 않는 한 학대가 계속 지속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자기개념, 대인관계, 정서조절 등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게 됨을 알 수 있다(김수정, 2015; 김수정, 정익중, 2013; 윤혜미, 2017). 특히, 아동 학대는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와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윤기봉, 이사라, 2017).

셋째, 학대가 초등학생의 우울로 가는 경로를 종단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 부모의 학대는 초등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동 학대가 초등학생의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와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수정, 정익중, 2013; 김형모 외, 2007; 양혜원, 전명희, 2001; 윤혜미, 2017).

넷째, 우울이 학대를 예측하는 경로를 종단적으로 검증하였다. 부모의 학대는 초등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울로 인해 다시 학대를 하게 되는 경로임을 알 수 있었다. 학대와 관련해서 부모-자녀관계를 보면 부모의 학대는 초등학생의 우울을 높이고 다시 학대를 하게 만들었고, 그 학대는 다시 아동의 우울로 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대와 우울이 악순환되는 경로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학대는 현재의 우울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학대는 이후의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대가 현재 아동의 우울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이후의 우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우울은 이후의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였다. 이는 아동의 우울이 이후의 학대에 다시 놓이게 만드는 경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에 학대는 우울을, 그리고 이 우울이 다시 학대로 가는 매개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우울이 지속적인 우울로 가는 경로를 종단적으로 검증하였다. 부모로 인해 일어난 학대는 초등학생의 우울을 높이고 이 우울이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울이 지속되고 우울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학대가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종단적으로 검증하였다. 학대는 우울뿐만 아니라 신체화 증상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신체화 증상이 부모의 학대로 인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신현균, 2002; 윤기봉, 이사라, 2017).

마지막으로 우울이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종단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우울이 신체화 증상 즉, 초등학생의 두통, 복통뿐만 아니라 주의력 결핍, 의욕 감퇴, 학업 능력 저하, 등교 거부, 친구 사귀기 거부 등에 이르기까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정민, 지혜, 2011).

이러한 논의와 함께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종단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그 경로를 검증하였지만 그 안에서 세부적인 변화를 알아보지는 못했다. 실제로 ‘어떤 이유로 학대를 받았는가’, ‘우울이 높아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신체화 증상으로 인해 얼마나 괴로워했는가’와 같은 내용과 관련하여 질적 연구를 통해서 알아본다면 이러한 경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ren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자료를 활용하였기에 더 폭넓은 변인을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초등학생에 대한 방대한 자료였기 때문에 현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더 일반화에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김계수 (2004).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SPSS아카데미.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 정신진단검사 실사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김세원.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수정. (2015). 아동 학대가 초등학생의 정서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1), 47-76.
- 김수정, 정익중. (2013). 아동 학대가 우울, 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지속 효과와 최신 효과에 대한 종단 연구. **아동복지학**, (43), 1-28.
- 김소연, 전종설. (2015). 아동학대 경험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7(4), 387-410.
- 김승경, 송미경, 김미경. (2014). **가정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연구보고 14-R09),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은영. (2016).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 연구**, 16(8), 457-473.
- 김정민, 장영희. (2015). 청소년 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스트레스연구**, 23(4), 187-196.
- 김정민, 지혜. (2011). 발달적 차이에 따른 신체화 증상 관련 변인연구-정서적, 인지적 및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4), 1109-1130.
- 김현정. (2009). **가족의 정서적 환경과 아동의 우울 및 불안이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형모, 이숙진, 서해정, 최은정, 김은정, 문순희. (2007).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8(1), 53-77.
- 노정숙, 이경숙, 김보애. (2003). 신체학대 아동과 일반아동의 심리사회적 변인 연구. **놀이치료연구**, 7(2), 115-126.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동현, 배성규. (2003).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특집호), 107-121.
- 성태제 (2014). **SPSS/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 신현균. (2002). 청소년의 학업 부담감,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불능증 및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과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 **한국심리학**, 21(1), 171-187.
- 아시아투데이. (2017.7.24.). 늘어나는 부모 의한 아동학대, “전 국민 관심 갖고 적극 신고해야 근절 가능”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720010010662>에서 2017년 7월 24일 인출.
- 양병화 (1998).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양혜원, 전명희. (2001). 아내폭력 노출이 자녀의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평가과정을 중심으로. **연세사회복지연구**, 6(단일호), 127-152.
- 우아미, 박준성, 정태연 (2008). 집착행동의 구성요인 및 집착행동이 이성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4), 536-538.
- 윤기봉, 이사라. (2017). 아동, 청소년의 신체증상 관련변인 연구. **인간발달연구**, 24(2), 39-57.
- 윤혜미. (2017). 아동 학대유형과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사회복지연구**, 48(1), 173-206.

- 이정숙, 구형선, 조인주. (2013). 대학생의 성장기 아동 학대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1(1), 143-168.
- 이한주, 서미아. (2010).
- 장화정. (2004). 아동 학대와 피해아동의 특성. **아동과 권리**, 8(4), 777-792.
- 장용환, 송지혜. (2011). 아동기의 학대 경험이 청소년 자아존중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정책과학연구**, 20(2), 80-104.
- 전해숙. (2008). 아동 학대 및 아동의 심리사회적 자원이 아동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0, 55-77.
- 정평화, 노충래, 이정선, 성민현, 송재덕. (2014). 부모의 아동 학대와 방임이 학령기 아동의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7), 93-123.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차지량, 유미숙. (2010). 아동의 신체화 증상 경험과 관련 부모 및 아동 변인. **한국가정관리학**, 28(2), 193-202.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영수. (2010).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자기존중감의 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6, 64-81.
- Azar, S. T., & Wolfe, D. A. (2006). Child physical abuse and neglect. In E. J. Mash & R. A. Barkley(Eds.) **Treatment of childhood disorders**(3r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 Berk L. E. (2010) 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 5th. Pearson, Boston.
- Bremner, J. D. (2006). Traumatic stress from a multiple-levels-of analysis perspective. In D. Cicchetti & D. J.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2. Developmental neuroscience..** (2nd ed.).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Bronfenbrenner, U., & Morris, P. 1998. The ecology of developmental process. In W. Damon(Series Eds.) & R. M. Lerner(Vol. 1.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vol. 1(5th ed.)**. NY: Wiley.
- Finkelhor, D., Ormrod, E. K., & Turner, H. A. (2007). Poly-victimization: A neglected component in child victimization. **Child abuse & neglect**, 31(1), 7-26.
- Goodman, R., & Brand, S. R. (2009). Infants of depressed mothers. In C. H. Zeanah, Jr.(Ed.), **Handbook of infant mental health**(3r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Gordis, E. B., Feres, N., Olezeski, C. L., Rabkin, A. N., & Trickett, P. K. (2010). Skin conductance reactivity and respiratory sinus arrhythmia among maltreated and comparison youth: Relations with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5, 547-558.
- Gregory, K., Sandra, F., & Owen, H. (1997). Somatoform disorde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review of the past 10 yea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6, 1329-1338.
- Harrington, R., Rutter, M., Weissman, M., Fudge, H., Groothues, C., Bredenkamp, D., Pickles, A., Rende, R., & Wickramaratne, P. (1997).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relatives of depressed probands:

- Comparison of prepubertal, adolescent and early adult onset cas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42**, 9-22.
- Klein, D. N., Torpey, D. C., & Bufferd, S. J. (2008). Depressive disorders. In T. P. Beauchaine & S. P. Hinshaw (Eds.),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Loeber, R., & Farrington, D. P. 1994. Problems and solutions in longitudinal and experimental treatment studies of child psychopathology and delinquen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887-900.
- Schwartz, J. A. J., Gladstone, T. R. G., & Kaslow, N. J. (1998). Depressive disorders. In T. H. Ollendick & M. Hersen(Eds.), *Handbook of child psychopathology*(3rd ed.). New York: Plenum Press
- Seligman, M. P., & Peterson, C. (1986). A learned helplessness perspective on childhood depression: Theory and research. In M. Rutter, C. E., Izard, & P.B. Read(Eds.), *Depression in young people: Developmental and clinical perspectives*. New York: Guilford.
- Wenar, C., & Kerig, P. (2011). 발달정신병리학. 영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이춘재 (역), 서울: 박학사.
- Wicks-Nelson, R., & Israel, A., C. (2015). 아동, 청소년 이상심리학. 정명숙, 박영신, 정현희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Zeman, J., Shipman, K., & Suveg, C. 2002. Predictions to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symptoms in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1**: 393-398.

청소년기 생애목표 유형의 종단적 변화 및 예측변인 검증

정유지* · 이은주**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생애목표의 중요성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능한지 또는 안정적인지 알아보고, 개인의 발달적(자아정체감), 동기적(성취가치), 심리정서적(삶의 만족도) 특성이 이러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3차(중3)와 5차(고2)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두 시기에 모두 응답한 2040명(남학생 1036명, 여학생 1004명)이었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생애목표 프로파일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각 시점에서 공통적으로 4가지 유형(고목표형, 관계지향 평균형, 관계외면 평균형, 저목표형)으로 분류되었다. 잠재전이분석을 통해 학교급에 따른 생애목표 프로파일의 종단적 전이확률을 살펴본 결과, 11.9~56.3%가 동일한 유형을 유지하였으며, 생애목표 프로파일의 전이가 나타난 집단 중에서 저목표형에 속한 학생들의 전이확률이 가장 높았다. 예측변인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아정체감과 성취가치,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들이 긍정적 생애목표 유형으로 전이하는데 가능성을 높일 수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적 지원 방향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생애목표 프로파일, 자아정체감, 성취가치, 삶의 만족도, 잠재전이분석(LTA)

I. 서 론

교육부는 2015년부터 진로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목표를 분명히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자신의 생애목표를 설정하고 진로를 탐색함으로써 학습동기가 향상되고 학교 부적응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어윤경, 2015). 또한 청소년기의 목표설정은 정체성의 위기를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삶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며(Erikson, 1968), 그러한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인이다(Damon, Menon & Bronk, 2003). 어릴 때부터 목표를 가진 사람은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고(Shek, 1993), 어른이 되어서도 목표를 가지게 된다(Kish & Moddy, 1989). 이러한 목표는 인간 행동의 기초이며 살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 성취하고자 하는 것,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하는지를

* 포항공과대학교 교육혁신센터 선임연구원

**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elee@knu.ac.kr

반영하게 된다(Lüdtke, Tranutwein & Husemann, 2009).

생애목표는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아성장, 관계형성과 같은 내재적 생애목표는 학업노력이나 학교적응(신종호, 서은진, 이유경, 2011), 기본심리욕구(김동욱, 손원숙, 2014), 삶의 만족도 및 안녕감(김성수, 2015; Schmuck, Kasser & Ryan, 2000), 성격요인(Lüdtke et al., 2009), 자기조절학습(문병상, 2011), 학업적 수행(Vansteenkiste, Lens & Deci, 2006)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 명성과 같은 외재적 생애목표는 그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율성지지(Gonzalez-Pienda et al., 2002), 성별(박은정, 이유리, 이성훈, 2016), 성취수준(신종호, 진성조, 2013; Salili & Mak, 1988), 연령(문병상, 2013; Nurmi, Poole & Seginer, 1995)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생애목표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기는 역할의 전환기를 맞아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며, 변화와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생애목표의 추구가 더욱 중요하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의 확립과 같은 해결해야 할 발달과업이 많고, 미래의 선택(직업, 생애 가치, 꾸릴 가정 등)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Nurmi, 2004). 청소년은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탐색과 선택의 노력을 하게 된다(Nurmi et al., 1995). 이와 같은 목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적 측면, 학습동기적 측면, 심리정서적 측면에서의 특징을 들 수 있다.

먼저 발달과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청소년기에 당면하는 대표적 발달과업은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으로서,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증가한다(Eccles, 2009). 이 시기에 생애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체계 및 가치관을 세우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Damon & Morris, 2003), 청소년에게 정체감 확립이나 진로에 대한 결정은 자신의 미래목표의 일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다(Yeager, Bundick, & Johnson, 2012). 자아정체감 형성은 진로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되며(Super, 1980),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홍향연, 유태명, 2008) 및 진로결정수준(정봉희, 배영문, 이영순, 2008)이 높아지며,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송현옥, 2009).

학습동기적 측면에서, 성취가치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수행이나 학교에서의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즉, 학생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학습이나 활동에 대한 가치(중요성)를 지각할 때, 그 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되고, 그것을 잘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꺼이 시간적 투자를 하게 된다(Pokey & Blumenfeld, 1990). 현재 학교에서의 과제 및 학업적 수행이 미래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가치 인식이 목표추구의 중요한 요인이 됨을 의미한다.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청소년기의 발달적 변화에 따라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정도 또는 안녕감(well-being)의 역할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안녕감은 자신의 삶에 대한 질적인 평가로서, 인지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정서적으로 반응(긍정적 감정)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주관적 평가이다(Diener, 2001).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까지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안녕감의 긍정적 결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안녕감은 학업적 수행의

긍정적 결과뿐 아니라, 학교생활 및 학업에의 참여수준도 높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중요한 성과이기도 하다(Furlong et al., 2003). 따라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안녕감은 이들의 생애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소년기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다소 다른 특징과 상황에 놓여있다. 예컨대, 중학생은 발달적 측면에서 초등학생에 비해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며(Steinberg & Morris, 2001), 또래와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유능성에 대한 자각도 명확해진다(Walls, 2000). 반면,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어 자신의 목표와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현실 측면에서 결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지향하는 생애목표 추구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목표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종단적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문병상, 2013). 뿐만 아니라, 생애목표를 내적·외적목표로 구분하여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나 효과의 차이 등을 분석하는데 그쳤으며, 생애목표를 유형화하여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생애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영향력에 대해 검증하고 있지만, 정작 어떠한 차이로 인해 생애목표의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애목표의 중요성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능한지 또는 안정적인지를 검증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적(자아정체감), 동기적(성취가치), 심리정서적(삶의 만족도) 변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 학생들의 생애목표의 중요성에 대한 종단적 변화양상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생애목표의 설정과 추구 수준이 청소년기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향하는 생애목표의 긍정적인 변화, 또는 긍정적 생애목표의 안정적 추구가 가능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생애목표 지향의 프로파일에 따라 각각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가?

연구문제 2.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생애목표 지향의 프로파일 양상의 종단적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생애목표 지향의 종단적 변화 양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생애목표 구분 및 프로파일

생애목표와 관련된 연구들에 따르면, 생애목표는 목표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며, 각각의

목표는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 Kasser와 Ryan(1996)은 열망(aspiration)이라는 개념으로 7개의 생애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내재적 목표(자아성장, 소속감, 공동체 기여, 신체적 건강)와 외재적 목표(경제적 성공, 이미지 지향, 명성)로 구분하였다. Salmela-Aro와 Nurmi(1997)는 목표내용(goal contents)이라는 개념으로 가족목표, 자아목표, 외적성취목표 3가지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학교급에 따라 생애목표의 내용을 다소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김성수와 윤미선(2013)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물질, 명예와 인기, 이미지를 외재목표로, 개인적 성장, 기여, 관계, 육체적 건강, 영성을 내재목표로 구분하였다. 문병상(2011)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명성지향, 부자지향, 직업지향, 사회지향, 가족지향 미래목표로 구분하였다. 신종호와 진성조(2013)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목표설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과 목표 성취를 위한 실제적 노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명예, 부, 자기성장을 성취지향목표로, 가정화목, 인간관계, 여가를 삶지향목표로 분류하였다.

최근에는 중다목표 관점에서 개인중심적 접근을 이용하여 생애목표의 프로파일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박은정, 이유리와 이성훈(2016)은 생애목표 유형에 따라 남녀 고등학생 각각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남학생은 생애목표 고조, 성공목표 부족, 성공목표 추구, 생애목표 저조형으로 유형화 하였고, 여학생은 생애목표 고조, 성공목표 부족, 가족성공추구, 생애목표 저조형으로 분류되어, 남녀학생 간에 생애목표 추구 유형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남녀 집단 모두 자기조절과 학업성취에서 생애목표 고조형이 대체로 높았고, 생애목표 저조형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인효연과 길혜지(2017)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애목표 프로파일을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즉, 고목표형, 외적성취지향형, 내재적 목표지향형, 안정지향형, 중저목표형, 저목표형 집단이며, 진로정체감, 공동체 의식, 삶의 만족도 차이에서 고목표형과 내재적목표지향형이 가장 높았고, 반대로 중저목표형과 저목표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신종호 외(2011)는 성취지향과 삶지향 목표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생애목표 유형을 구분한 결과, 균형목표집단, 삶목표집단, 성취목표집단, 저목표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이 4개의 집단 중 삶의 의미, 안녕감, 성취동기, 자기개념에 있어 균형목표집단이 가장 긍정적이며, 저목표 집단이 가장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Vansteenkiste et al.(2004)의 연구에서는 내재목표와 외재목표를 기준으로 내재목표만 추구, 외재목표만 추구, 모두 추구하는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성취목표지향과 과제 지속성에서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내재목표만 추구하는 집단이 가장 긍정적이며, 외재목표만 추구하는 집단에 비해 내·외재목표를 모두 추구하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 결과를 나타냈다.

생애목표 프로파일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생애목표와 자기결정성 동기와의 결합을 통한 프로파일을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송지은과 이은주(2015)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기와 목표내용을 프로파일 분석하여 자율적 내재목표형, 고동기 고목표형, 평균형, 저동기 저목표형의 4가지 잠재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4 집단 간 자기조절학습전략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율적 내재목표형이 가장 긍정적이며, 고동기 고목표형, 저동기 저목표형 순으로 나타났다. 정유지와 이은주(2016)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재·외재목표로 구분하는 대신 각각의 목표내용에 대해 잠재프로파일 분석한 결과,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부과된조절·자율동기, 명예·내재목표형, 평균형, 저동기·성장목표형, 외적조

절·부목표형의 순으로 진로성숙도, 대학생활적응,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내었다. 동기와 목표의 결합을 통해서 생애목표를 살펴본 연구결과에서도 내재목표뿐만 아니라 외재목표에 속한 목표내용 중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생애목표의 변화 및 안정성

생애목표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발달적 측면에서 연령에 따른 역할의 전환(Elder, 1985)이나 발달과제의 전환(Havighurst, 1974)으로 인해 개인이 추구하는 생애목표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생애목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본 문병상(2013)의 연구에 의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재목표의 중요성 인식은 변화가 없지만 외재목표의 중요성은 증가하였다. Lüdtke et al.(2009)은 고등학교 3학년 때와 대학교 2학년이 되면서 생애목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변화 없이 안정적인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약72~87%), 건강 추구를 제외한 관계지향, 사회기여, 부, 명예, 이미지 추구 목표의 중요도가 낮아진 학생들도 약12~17%가 존재하였다.

Salmela-Aro와 Nurmi(199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 및 자아존중감, 삶에서의 중요한 사건이 생애목표(가족지향, 자아성장, 외적성취지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2년 후에도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생애목표는 유의미한 안정성을 보였다. 동시에 생애목표의 변화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요인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대인 관계에서 부정적 사건들을 경험할수록 가족지향 목표가 낮아지고, 인생에 있어 긍정적 경험들(예; 취업, 연애 등)은 교육과 직업에 대한 성취지향 목표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자존감은 가족목표를 추구하도록 하는 예측요인이 되며, 우울감이 낮을 때 성취지향목표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종합해 보면, 생애목표는 학년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며, 학교급 간에도 차이가 있고, 인생에서 겪는 사건들의 영향을 받아 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생애목표와 자아정체감, 성취가치, 삶의 만족도의 관계

가. 생애목표와 자아정체감의 관계

청소년기 발달적 측면의 자아정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인식하는 방법이며, 자신의 역할을 탐색하여 구체적인 역할 및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다(Baumeister & Muraven, 1996). 청소년기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광의적 개념의 질문에는 ‘나는 무엇을 원하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Eccles, 2009; Yeager et al., 2012). 청소년기의 많은 탐색과 결정들 속에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며,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므로, 자아정체감 형성은 목표설정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

다(Nurmi, 2004).

생애목표와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를 살펴보면, 조한익과 김영숙(2016)의 연구에서 내·외재 목표에 따라 자아정체감의 변화를 검증한 결과 내재적 목표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의 초기값은 높았다. 그러나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 모두 자아정체감의 변화정도에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전명순과 김태균(2014)의 연구에서는 생애목표가 자아정체감에 직접효과가 있으며, 자아정체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의 개념에서 확장된 구인인 진로정체감 역시 생애목표와 관련이 있다(Yeager et al., 2012). 생애목표 내용에 따라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성장목표와 사회기여목표 순으로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으며(장희선, 윤정이, 2016), 고목표형 및 내재적목표지향형, 외적 성취지향형 간에는 진로정체감의 차이가 없지만, 저목표와 비교했을 때는 이 세 집단의 진로정체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인효연, 길혜진, 2017). 반면 내재적 목표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은 낮고, 외재적 목표가 낮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정체감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경우도 있다(조한익, 김영숙, 2016). 이러한 결과는 생애목표의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며, 내재목표와 외재목표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영향력은 연구마다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 보면, 자아정체감은 생애목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생애목표의 내용 및 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나. 생애목표와 성취가치의 관계

동기적 측면의 성취가치는 Wigfield와 Eccles의 기대-가치 이론(expectancy-value theory)에서 분류한 4가지 가치유형 중 하나이다. 이러한 가치유형은 성취가치(attainment value), 내적가치(intrinsic value), 유용성가치(utility value), 지각된 비용가치(cost value)로 구분되며, 이 중 성취가치는 주어진 과제 및 학업활동을 잘 이행하는 것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중요성을 의미한다(Wigfield & Eccles, 2000). 이러한 성취가치의 개념을 기반으로 과제가치(task value)나 중요도(import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되기도 하였다(Meece et al., 1990; Plante et al., 2013).

성취가치는 자기통제력 및 자아존중감, 자기조절, 학업적응, 학업성취에 직접 효과가 있었으며(임효진, 김재철, 2014; 허균, 2014), 학교행복감에도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하, 2014). Meece et al.(1990)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수학에 대한 중요도는 향후 수학을 더 배우려는 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수학 시험 및 과제 등의 학업수행에 대한 불안감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Plante et al.(2013)는 6학년과 7학년을 대상으로 기대 및 가치가 성취목표와 과목에서의 학업수행, 직업에 대한 의지, 학업적 열망에 대해 긍정적 영향력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성취가치에 관한 연구에서 생애목표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관련 연구에서 학생들의 현재의 학업과제 및 수행에 대한 중요도가 향후 목표달성에 대한 의지를 높이는 것과 정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로 볼 때, 성취가치는 생애목표 추구를 위한 노력과 의지

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동기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생애목표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심리정서적 측면의 안녕감, 즉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는 것과 상호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한다(Bronk et al., 2009). 삶의 만족도가 높을 때 스트레스 및 불안, 우울감이 낮고 학업성취 및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대인간의 관계가 원만하고 삶의 의미, 삶의 목표 수준이 높았다(Gilman & Huebner, 2006; Proctor et al., 2010; Suldo & Huebner, 2004).

삶의 만족도와 생애목표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아성장 목표를 추구할수록 우울감이 낮아진 반면 외적성취 목표를 추구할수록 우울감이 높았다(Samlela-Aro, Nurmi, 1997). 또한, 대학 4학년 때와 졸업 직후에 두 번 측정한 종단연구에서 생애목표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내재적 목표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생들은 1년 후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외재적 목표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생들은 부정적 영향을 나타냈다(Niemiec et al., 2009). 내재적 목표는 긍정정서, 자기실현, 삶의 만족과는 정적 상관이 있으며, 우울, 신체적 증상, 이기주의와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재적 목표는 이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Kasser & Ryan, 1996; Sheldon & Kasser, 1996; Schmuck et al., 2000). 국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목표와 내재목표 간에는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없었지만, 이 두 유형은 모두 외적성취, 안정지향형, 중저목표형, 저목표형 보다는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인효연, 길혜지, 2017).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생애목표는 다양한 영역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특히 생애목표의 유형에 따라 영향력에 차이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생애목표의 추구는 학년이나 학교급에 따라 안정적이기도 하며 변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생의 방향을 고민하고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생애목표 내용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을 넘어서, 생애목표의 변화 및 안정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발달적(자아정체감), 심리정서적(삶의 만족도), 동기적(성취가치) 측면에서 생애목표와의 종단적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청소년기 긍정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적 개입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 Youth Panel Survey, KCYPS)를 사용하였다. 이 중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변화함에 따라 생애목표 지향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1 패널자료의 3차(중학교 3학년)와 5차(고등학교 2학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생애목표 지향의 응답자는 3차년도에는 2247명, 5차년도에는 2091명이며, 생애목표 지향 및 상호작용 변인들에 모두 응답한 학생은 2040명(남학생 1036명/50.8%, 여학생 1004/49.2%)이었다.

2. 측정도구

1) 생애목표 지향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생애목표 지향 척도는 미국 교육종단연구(U. S. Department of Education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2)의 삶의 목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것이다. 총 16개 문항 중, Kasser와 Ryan(1996)의 열망지수(Aspirations Index)의 생애목표 내용에 따라 가족관계 목표(행복한 가정, 가족친밀감, 좋은 부모되기), 외적성공 목표(부, 명예, 좋은 대학 진학), 내적성장 목표(창의성, 자기만족, 도전/모험), 사회기여 목표(타인돕기, 환경보호, 정의실현)로 재구성하였고, 각 3문항씩으로 이루어져서 총 12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목표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 목표별 신뢰도는 3차년도(중학교 3학년)는 .49~.81이며, 5차년도(고등학교 2학년)는 .5~.8로 분포하였고, 문항 내용과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2) 자아정체감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자아정체감 척도는 송현옥(2008)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것이다. 자아정체감은 총 8문항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 목표지향, 주도적 행동, 타인관의 친밀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63이었다.

3) 성취가치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성취가치는 양명희(2000)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척도를 김세영(2006)이 요인분석을 통해 동기조절요인(숙달목적지향, 자아효능감, 성취가치)으로 재구성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그 중 성취가치는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자신에게 중요하고 향후 유용할 것이라고 여기는 믿음이다.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89이었다.

4) 삶의 만족도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삶의 만족도 척도는 김신영 외(2006)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자신의 삶이 즐겁고 행복한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78이었다.

표 1. 측정도구 문항과 신뢰도

변인	문항수	문항의 예	신뢰도 (Cronbach's α)
생애 목표 지향	관계지향 목표 3	-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부모님, 친척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81/.81
		- 부유하게 살고 값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	
		-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창조자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많은 여가 시간을 갖고 자신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 모험심과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기여 목표 3	-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69/.69
성취가치	7	- 학교 공부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나는 학교생활이 내가 성장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89
자아정체감	8	-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 -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 행동한다	.63
삶의 만족도	3	- 나는 사는게 즐겁다 -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82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생애목표 지향의 유형이 학교급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Mplus 6.0을 사용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 및 잠재전이 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특정 집단의 문항반응 패턴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질적 잠재집단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용하며(Pastor et al., 2007), 최종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잠재전이 분석은 종단분석의 일종으로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각 잠재집단의 전이확률(transition probability)을 확인함으로써 안정성 및 변화가능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Collins & Lanza, 2010).

잠재프로파일 및 잠재전이 분석 모형의 주된 적합도 준거로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a), SABIC(Sample-size Adjusted BIC)이며, 이 값들은 최소의 값일수록 최상의 모형으로 판단된다(Nylund et al., 2007). 또한 개별 사례가 집단에 얼마나 정확히 분류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Entropy 지수를 활용하는데, 이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최적의 적합도라 할 수 있으며, 대체로 .8이상이면 좋은 분류로 판단할 수 있다(Muthen, 2006). 이러한 적합도 지수를 바탕으로 통계적 절약성 및 해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모형을 결정하게 된다(Marsh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중3과 고2의 두 측정시점 간에 각 개인이 지향하는 생애목표 프로파일의 종단적 변화 또는 안정성을 살펴보고,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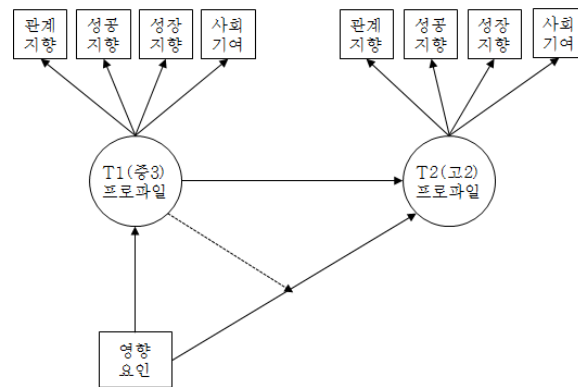


그림 1. 생애목표의 잠재전이 분석 모형(중3-고2)

IV. 연구결과

1. 주요변인의 상관 및 기술통계

주요 변인에 대한 각 측정시기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의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중 3(T1) 시기에는 모든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고2(T2) 시기에는 성공지향 목표와 자아정체감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공지향 목표와 삶의 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평균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3에 비해 고2에서 관계목표 지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아졌고 성공지향 목표, 성장지향 목표, 사회기여지향 목표는 고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자아정체감, 삶의 만족도도 중3에 비해 고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지만, 성취가치는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2. 측정 시기별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치(n=2040)

		관계목표	성공목표	성장목표	사회기여목표	성취가치	자아정체감	삶의만족도
관계목표		-	.19**	.38**	.52**	.23**	.19**	.15**
성공목표		.31**	-	.20**	.15*	.18**	.03	-.06**
성장목표		.49**	.32**	-	.20**	.19**	.22**	.15**
사회기여목표		.63**	.29**	.57**	-	.20**	.15**	.32**
성취가치		.28**	.20**	.32**	.32**	-	.23**	.19**
자아정체감		.15**	.07**	.26**	.16**	.17**	-	.35**
삶의만족도		.21**	.15**	.30**	.30**	.18**	.21**	-
중3	M (SD)	3.47 (.51)	2.86 (.55)	3.19 (.49)	3.21 (.49)	2.92 (.59)	2.63 (.39)	2.85 (.67)
고2	M (SD)	3.51 (.48)	2.70 (.54)	3.14 (.46)	3.16 (.47)	2.90 (.54)	2.61 (.33)	2.80 (.59)
	<i>t</i>	-3.42**	11.52**	4.34**	4.09**	1.46	2.57*	2.96**

<주> 대각선 좌측 하단은 중3, 우측 상단은 고2를 나타냄: ** $p<.01$ * $p<.05$

2. 생애목표 지향성의 잠재프로파일 분석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생애목표 지향성에 대한 잠재집단 수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형의 집단 수를 2개에서부터 1개씩 증가시키면서 각 모형의 적합도 지수 및 집단의 크기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두 측정 시기 모두 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AIC, BIC, SABIC 값이 대체로 감소하였고, pLMR 검증 결과는 2~4개까지 유의하게 모형 간 차이가 나타났지만 5개부터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Entropy 수치는 2~4개 집단에서 모두 .8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그 중 T1(중3)과 T2(고2) 모두 3개 집단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4개 집단일 경우에도 낮을수록 적합도가 높은 AIC, BIC, SABIC 값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Entropy 수치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5%이하 비율의 소수집단이 3개 집단에서부터 존재하지만, 모형의 집단수가 커져도 소수집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5% 미만의 작은 잠재집단이 존재하는 모형은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신이나, 손원숙, 2016; 이은주, 2013), 특수한 행동을 연구하는 상담 관련 학문(강민철 외, 2013)이나 특정 소수 집단에 관심을 갖고자 하는 연구(최현주, 조민희, 2014)에서는 3% 미만의 소수 집단도 독립된 집단으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목표 지향의 수준면에서 나머지 집단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생애목표가 전반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이는 소수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3과 고2 시기의 각각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의 집단 수는 모두 4개 집단 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표 3. 측정 시기별 잠재프로파일 모형의 적합도(n=2040)

모형 집단수	T1(중3)					T2(고2)				
	AIC	BIC	SABIC	Entropy	μ LMR	AIC	BIC	SABIC	Entropy	μ LMR
2	21179.55	21252.62	21211.32	0.88	0	21604.08	21677.15	21635.85	0.92	0
3	20525.46	20626.63	20569.45	0.97	0	21053.90	21155.08	21097.89	0.98	0
4	19957.17	20086.45	20013.38	0.88	0	20627.37	20756.64	20683.57	0.97	0
5	19283.69	19441.07	19352.11	0.99	0.3	19126.69	19284.07	19195.11	1.00	0.2

모형집 단수	집단 크기(%)					집단 크기(%)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집단5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집단5
2	53.53	46.47	-	-	-	56.18	43.82	-	-	-
3	53.26	44.12	2.60	-	-	55.44	42.60	1.96	-	-
4	43.97	30.59	22.75	2.70	-	39.02	31.96	27.06	1.96	-
5	36.52	35.05	16.28	9.61	2.55	39.02	31.96	16.42	10.64	1.96

3. 생애목표 지향성의 프로파일 특성 및 종단적 변화

1) 잠재프로파일별 생애목표 지향성의 양상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생애목표 지향성 프로파일 양상은 측정시기별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각 프로파일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부여한 명칭과 그 크기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유형(C1)은 4가지 목표지향이 모두 높은 집단으로 ‘고목표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의 27.0%(22.8%)가 해당되었다. 두 번째 유형(C2)은 다른 목표지향은 평균 수준이지만 관계지향 목표만이 뚜렷하게 높은 집단으로 ‘관계지향 평균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26.4%(32.7%)를 차지하였다. 세 번째 유형(C3)은 관계지향 목표만이 뚜렷하게 낮은 수준이며 나머지 3개의 목표지향은 평균수준에서 비슷한 수준이므로 ‘관계외면 평균형’으로 명명하였고, 이는 전체의 43.8%(4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네 번째 유형(C4)은 모든 목표지향이 뚜렷하게 평균이하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C1 집단과 대비될 수 있도록 ‘저목표형’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2.9%(2.2%)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생애목표 지향성의 프로파일에 따른 각 예측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프로파일 간에 예측요인들의 평균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5$). 성취가치는 중3과 고2 시기 모두 ‘고목표형’ 유형이 가장 높았고, ‘저목표형’이 가장 낮았으며, ‘관계지향 평균형’과 ‘관계외면 목표형’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아정체감은 두 측정시기에서 모두 ‘고목표형’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중3 시기에는 ‘고목표형’이 가장 높고 ‘저목표형’이 가장 낮았으나, 고2 시기에서는 ‘저목표형’의 삶 만족도가 다소 높아져 ‘고목표형’과의 사이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기서 중3 시기와 비교했을 때 고2 시기의 고목표형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 반면, 저목표형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4. 측정 시기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별 생애목표 지향성 및 예측요인들의 평균/표준편차(n = 2040)

하위척도	T1(중3)				T2(고2)			
	c1	c2	c3	c4	c1	c2	c3	c4
	고목표형	관계지향 평균형	관계외면 평균형	저목표형	고목표형	관계지향 평균형	관계외면 평균형	저목표형
	27.0%	26.4%	43.8%	2.9%	22.8%	32.7%	42.3%	2.2%
관계지향	3.94 _a (.14)	3.83 _b (.17)	3.04 _c (.18)	2.22 _d (.36)	3.96 _a (.11)	3.86 _b (.17)	3.06 _c (.17)	2.24 _d (.26)
성공지향	3.16 _a (.57)	2.85 _b (.55)	2.70 _b (.42)	2.43 _c (.57)	2.92 _a (.59)	2.68 _b (.54)	2.61 _b (.46)	2.39 _c (.57)
성장지향	3.70 _a (.32)	3.07 _b (.39)	2.99 _b (.37)	2.55 _c (.52)	3.59 _a (.36)	3.07 _b (.40)	2.97 _b (.38)	2.73 _c (.59)
사회지향	3.77 _a (.26)	3.14 _b (.36)	2.95 _c (.31)	2.30 _d (.47)	3.73 _a (.28)	3.07 _b (.36)	2.95 _c (.32)	2.41 _d (.50)
성취가치	3.26 _a (.57)	2.83 _b (.61)	2.78 _b (.48)	2.43 _c (.62)	3.09 _a (.61)	2.93 _b (.56)	2.79 _b (.45)	2.54 _c (.59)
자아 정체감	2.71 _a (.39)	2.51 _b (.31)	2.52 _b (.28)	2.52 _b (.30)	2.75 _a (.40)	2.59 _b (.32)	2.55 _b (.27)	2.54 _b (.32)
삶의 만족도	3.19 _a (.71)	2.72 _b (.63)	2.74 _b (.59)	2.31 _c (.66)	3.01 _a (.67)	2.78 _b (.60)	2.71 _b (.49)	2.70 _b (.59)

<주> 동일한 아래첨자를 가진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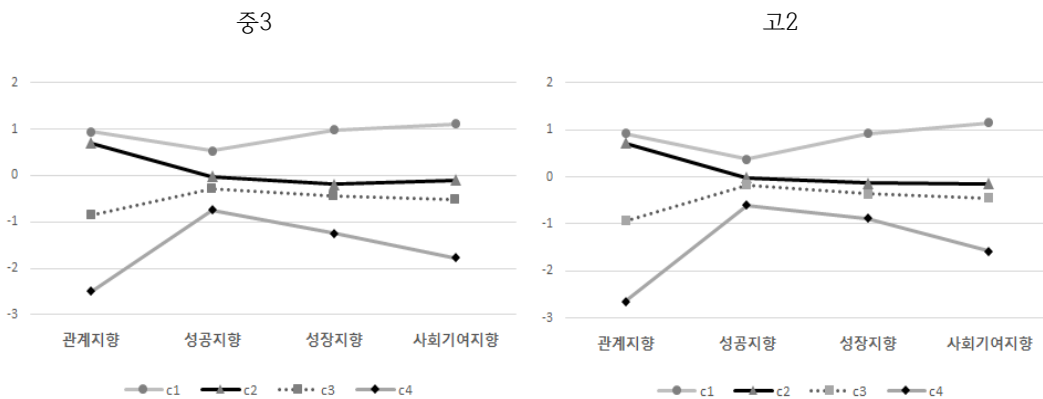


그림 2. 측정시기별 생애목표 지향성의 잠재프로파일 그래프(z점수)

2) 생애목표 지향성 프로파일의 종단적 전이확률

생애목표 지향성의 잠재프로파일 집단의 시점별 변화 양상을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중3의 고목표형은 약 55%가 동일한 유형을 유지하였으며, 약 20%가 관계지향 평균형으로, 약 25%가 관계외면 평균형으로 전이하였으며, 약 1%는 저목표형으로 전이하였다. 다음으로, 관계지향 평균형은 약 54% 학생들이 동일한 유형을 유지하였으며, 약 11%가 보다 높은 수준의 고목표형으로, 약 34%는 관계외면 평균형, 약 1%는 저목표형으로 전이가 나타났다. 또한 관계외면 평균형은 약 56%가 동일한 유형을 유지하였고, 약 11%는 고목표형으로, 약 3%는 저목표형으로 전이하였다. 마지막으로 저목표형은 약 12%의 학생들만이 동일한 유형을 유지하였으며, 약 63%는 관계외면

평균형으로, 약 8.5%는 고목표형으로 전이하였으며, 약 17%는 관계지향 평균형으로 전이하였다. 저목표형에 속한 학생들의 수는 적지만, 전이확률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이 저목표형에서 벗어나 다른 유형으로 전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T1과 T2 시기의 프로파일의 유형과 각 유형별 분포 크기는 비슷하나 약 60%의 학생들이 프로파일의 안정성을 보였고, 약 40%의 학생들이 프로파일의 전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측정시기의 종단적 전이양상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표 5. T1-T2 생애목표 지향성의 프로파일 간 종단적 전이확률

(T1) 중3 프로파일	(T2) 고2 프로파일				계
	고목표형 (22.8%)	관계지향 평균형 (32.7%)	관계외면 평균형 (42.3%)	저목표형 (2.2%)	
고목표형 (27.0%)	54.5 (64.4)	19.5 (16.0)	25.1 (16.0)	0.9 (11.4)	100%
관계지향 평균형 (26.4%)	11.0 (12.7)	53.5 (43.2)	34.4 (21.4)	1.1 (13.6)	100%
관계외면 평균형 (43.8%)	11.4 (21.9)	29.3 (39.3)	56.3 (58.3)	2.9 (59.1)	100%
저목표형 (2.9%)	8.5 (1.1)	16.9 (1.5)	62.7 (4.3)	11.9 (15.9)	100%
계	(100%)	(100%)	(100%)	(100%)	

<주> ()는 T2(고2)의 프로파일에 대한 확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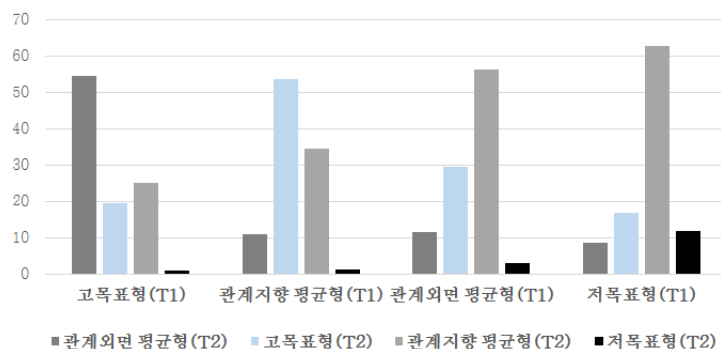


그림 3. T1-T2 생애목표 지향성의 전이 분포 (%)

4. 생애목표 지향성의 종단적 전이확률에 대한 예측요인의 효과 검증

생애목표 지향성의 잠재프로파일 유형이 중3 잠재집단에서 고2 잠재집단으로 전이할 가능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요인으로 학생들의 자아정체감, 성취가치, 삶의 만족도 및 성별을 포함하였다. 전이형태의 비교를 위해서 두 시점 간에 동일한 잠재집단 유형을 유지한 집단을 준거집단(reference class)으로 하였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4개의 예측 변인들에 따라 중3의 저목표 잠재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세 집단의 프로파일 전이에

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먼저, 중3에서 고목표형에 속한 학생들의 경우 고2에서도 고목표형을 유지한 학생들에 비해, 성취가치($B=-1.571, p<.05$) 및 자아정체감($B=-4.846, p<.01$)이 낮을수록 저목표형으로 전이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자아정체감이 낮을수록 관계지향 평균형($B=-1.369, p<.001$) 및 관계외면 평균형($B=-.861, p<.01$)으로 전이할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 즉,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고2에서도 고목표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고목표형을 유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관계지향 평균형으로 전이할 확률($B=.585, p<.01$)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의외의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중3와 고2 시점에 두 집단 간 삶의 만족도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고목표형을 유지하는 집단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각각 3.16(중3)에서 3.06(고2)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던 반면, 고목표형에서 관계지향 평균형으로 전이한 집단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3.30(중3)에서 2.97(고2)로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비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느끼는 정도가 낮아진다면 고목표형에서 관계지향 평균형으로 전이할 가능성에 영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3에서 관계지향 평균형에 속한 학생들의 경우 고2에서도 관계지향 평균형을 유지하는 학생들에 비해, 남학생이 고목표형으로 전이할 확률은 여학생보다 약 2.3배 높게 나타났다($B=.837, p<.01$). 또한, 성취가치가 낮을수록 고목표형으로 전이할 확률이 높았으며($B=-.615, p<.05$),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저목표형으로 전이할 확률이 높았다($B=4.207, p<.01$). 이러한 결과는 성취가치 및 삶의 만족도가 생애목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의외의 결과였다. 따라서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중3와 고2 시점에 두 집단 간 성취가치와 삶의 만족도를 비교해 본 결과, 관계지향 평균형을 유지하는 집단에서는 성취가치가 각각 2.91(중3)에서 2.92(고2)로 변화가 없었으나, 관계지향 평균형에서 고목표로 전이한 집단은 2.72(중3)에서 2.98(고2)로 높아졌다. 이는 성취가치가 비록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그 가치의 중요성이 증가한다면 고목표형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삶의 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관계지향 평균형을 유지한 집단은 삶의 만족도 평균이 2.71(중3)에서 2.72(고2)로 변화가 없었던 반면, 저목표형으로 전이한 집단은 3.89(중3)에서 3.11(고2)로 낮아졌다. 이는 위에서와 같은 맥락에서 삶의 만족도의 변화가 생애목표 유형의 전이에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3에서 관계외면 평균형에 속한 학생들의 경우 고2에서도 관계외면 평균형을 유지하는 학생들에 비해, 성취가치가 높을수록 고목표형으로 전이할 확률이 약 1.6배 높았고($B=.483, p<.05$),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고목표형으로 전이할 가능성($B=1.160, p<.01$)이 약 3.2배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성취가치가 낮을수록 저목표형으로 전이할 가능성($B=-1.051, p<.01$)이 높게 나타났다. 관계외면 평균형에서도 고목표형과 마찬가지로 성취가치와 자아정체감이 생애목표의 지향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생애목표 지향성의 종단적 전이확률에 대한 정의적 변인 및 성별의 예측효과

중3	고2	예측변인	B	표준오차	Exp(B)
고목표형	관계지향 평균형	자아정체감	-1.369***	.352	.254
		삶의만족도	.585**	.197	1.794
	관계외면 평균형	자아정체감	-.861**	.323	.423
		성취가치	-1.571*	.725	.208
관계지향 평균형	저목표형	자아정체감	-4.846**	1.436	.008
		성취가치	-.615*	.260	.540
	고목표형	성별	.837**	.298	2.310
		성취가치	-.428*	.179	.652
관계외면 평균형	저목표형	삶의만족도	4.207**	1.488	67.168
		성취가치	.483*	.210	1.620
	고목표형	자아정체감	1.160**	.365	3.190
		성취가치	-1.051**	.331	.350

*** $p < .001$, ** $p < .01$, * $p < .05$

<주> 1. 준거집단은 두 시점 간 동일유형을 유지한 집단임.

2. 잠재전이확률에 대해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결과만 제시함.

3. 저목표형 집단의 전이에 대한 예측요인의 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음.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면서 학생들이 지향하는 생애목표의 유형이나 수준이 변화가능한지 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해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발달적(자아정체감), 동기적(성취가치), 심리정서적(삶의 만족도) 측면에서의 개인적 특성이 생애목표의 변화 및 안정에 영향을 주는지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생애목표 지향성의 프로파일 양상에 따라 두 시점에서 동일하게 4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4가지 목표지향이 모두 높은 “고목표형(중3, 고2: 27.0%, 22.8%)”, 두 번째 유형은 관계지향 목표만이 뚜렷하게 높고 다른 목표지향은 평균 수준을 보인 “관계지향 평균형(중3, 고2: 26.4%, 32.7%)”이었다. 세 번째 유형은 관계지향 평균형과는 반대로 관계지향 목표만이 뚜렷하게 낮은 수준이며 나머지 3개의 목표지향은 평균수준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인 “관계외면 평균형(중3, 고2: 43.8%, 42.3%)”, 네 번째 유형은 모든 목표지향이 평균이하의 낮은 수준을 나타낸 “저목표형(중3, 고2: 2.9%, 2.2%)”이었다. 이러한 프로파일 양상을 통해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지향하는 생애목표 중요성에서 다양한 집단내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차이는 중학교 시기와 고등학교 시기 간에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와 같이 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생애목표의 유형을 구분한 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인효연과 길혜지(2017)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관계, 도전, 외적성취, 사회참여 지향 생애목표를 활용하여 6개 집단(고목표형, 외적성취지향

형, 내재적목표지향형, 안정지향형, 중저목표형, 저목표형)으로 구분한 점에서 본 연구가 차이가 있다. 하지만 고목표형과 저목표형이 도출된 점은 본 연구와 동일하고, 중저목표형의 특징이 외적성취(성공지향) 목표만 평균수준이고 관계, 성장, 사회참여 목표 수준은 낮은 집단인 점에서 본 연구의 관계외면 평균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외적성취지향형과 내재적목표지향형, 안정지향형은 본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며, 본 연구의 관계지향 평균형과 관계외면 평균형은 선행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아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생애목표 지향 프로파일이 다양하게 유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프로파일별 특징 비교를 통해 청소년기의 생애목표 추구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중학생들의 생애목표 유형에 대한 연구도 확대하여 비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고,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생애목표 지향의 프로파일 양상에 대한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동일한 유형으로 유지된 집단이 전체적으로 약 50%를 차지하였다. 유형별로 동일한 특성을 유지한 비율을 살펴보면, 고목표형은 약 55%, 관계지향 평균형은 약 54%, 관계외면 평균형은 약 56%였으며, 저목표형은 약 12%로 나타났다. 중2 시점에 저목표형에 속한 학생들의 수는 가장 낮은 비율이지만(2.9%), 고2에서도 여전히 저목표형에 속한 학생들은 11.9 %에 불과하였으며, 98%의 학생들이 좀 더 긍정적인 생애목표 유형으로 전이하였다. 중학교에서 저목표형의 학생들 중 약 63%는 관계외면 평균형으로, 약 17%는 관계지향 평균형으로, 약 8%는 고목표형으로 전이되었다. 반면 고목표형이었던 집단 중 모든 목표내용의 수준이 낮아진 집단(관계외면 평균형, 저목표형)의 비율이 약 26%에 달하고, 관계지향 목표를 제외한 나머지(성공지향, 성장지향, 사회기여지향) 목표가 낮아진 집단의 비율은 약 19%정도였다. Lüdtke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전환에 있어 생애목표 중요도에 대한 안정성은 약 72%~87%로 나타나, 본 연구의 청소년기 생애목표 안정성(11.9%~56.3%)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비록 두 연구가 각각 독일의 고등학생과 한국의 중학생이 연구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의 전환에 비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전환기에 생애목표 유형의 변화가 역동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목표추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목표설정을 위한 다양한 직·간접적 경험들을 제공한다면 긍정적 생애목표 유형으로 전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생애목표 지향성의 잠재프로파일 유형이 중3 잠재집단에서 고2 잠재집단으로 전이할 가능성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자아정체감, 성취가치, 삶의 만족도 및 성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이형태의 비교를 위해서 잠재집단 유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였다. 먼저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관계외면 평균형에서 고목표형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며, 낮을수록 고목표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목표유형(관계지향 평균형, 관계외면 평균형, 저목표형)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즉, 목표추구의 수준이 비슷한 유형들 간에는 자아정체감의 예측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목표추구의 수준의 차이가 큰 관계외면 평균형에서 고목표형으로, 고목표형에서 저목표형으로 전이되는 것에 영향력이 있었다. 이는 인효연과 길혜진(2017) 연구에서 고목표형, 내재적목표지향형, 외적성취지향형 간에

는 진로정체감의 차이가 없었지만, 저목표 보다는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정체감의 혼돈이 목표추구의 중요성을 낮추고, 자아정체감의 확립은 목표추구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성취가치가 높을수록 관계외면 평균형에서 고목표형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았고, 반대로 낮을수록 고목표형에서 저목표형으로, 관계외면 평균형에서 저목표형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았다. 성취가치는 전반적인 목표추구의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는데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성취가치가 그 자체로는 비록 낮았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성취가치에 대한 인식이 이전 수준에 비해 높아진다면 고목표형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Plante et al.(2013)의 연구에서 과목에 대한 내적 가치 및 유용성 인식이 학업적 열망 및 직업에 대한 의지에 정적 영향력이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청소년기 학생들의 학업적 수행이 미래에 유용할 수 있다는 내적 동기 및 가치를 높이는 것이 생애목표의 설정과 추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고목표형에서 관계지향 평균형으로 전이, 관계지향 평균형에서 저목표형으로 전이에 예측효과가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삶의 만족도가 높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느끼는 정도가 이전에 비해 낮아진다면 생애목표의 추구 수준이 낮아지고 생애목표의 유형이 변화한다는 점이다. 즉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면 고목표형을 추구하던 학생들은 외적인 성공, 내적인 성장, 사회기여목표는 낮아지며 관계지향 목표에 집중하게 되고, 관계지향 평균형의 학생들은 관계지향 목표 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생애목표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삶의 만족도의 수준보다는 변화정도에 따라 생애목표의 유형도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설정하고 추구하는 생애목표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기본심리욕구의 충족, 자기효능감 향상, 가족 및 친구들에 의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노현중, 손원숙, 2014; Proctor, Linley & Maltby, 2009).

마지막으로 성별에 대한 효과는 관계지향 평균형에서 고목표형으로의 전이에서만 나타났다. 고등학교가 되면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관계지향만을 추구하는 단일차원의 목표에서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목표의 중요성도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은정 외(2016)의 남녀 고등학생 간에 생애목표 유형을 비교한 연구에서 여학생 집단에서만 가족성공추구형이 나타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관계지향 목표의 중요성만을 더 추구할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성취지향목표와 삶지향목표를 모두 추구하는 균형목표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의 의미, 안녕감, 성취동기, 자기개념을 보였다는 신종호 외 (2011)의 연구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도 생애목표 지향이 모두 높은 유형의 학생들(고목표형)이 가장 높은 수준의 자아정체감, 성취가치, 삶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들은 다양한 목표내용으로 균형 있는 생애목표를 가지는 것이 긍정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균형 잡힌 생애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성장을 돕는 교육적 개입이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에게 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청소년기의 생애목표 유형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생애목표에 대한 중요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 지도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기 학생들의 직업적 목표나 목표설정 자체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가정 및 학교에서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 초·중·고 진로교육에서 공통적으로 긍정적 자아개념을 강조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지도하고 있으나(장석민, 2001),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Eccles, 2009)를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중학교에서의 학습적 활동 및 과제수행에 있어 내적가치에 대해 이해시키고, 미래의 성취를 위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 대해 강조하는 교수-학습지도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단일 시점의 생애목표 유형에 대한 탐색을 넘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급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애목표 유형의 변화가능성 또는 안정성에 대해 종단적으로 검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내·외재적 생애목표의 효과를 탐색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생애목표 유형을 이끌 수 있는 예측변인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생애목표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개인적 특성요인만을 고려하여 살펴보았으며, 생애목표 유형의 변화 및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중요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또래 및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관여 및 자율성지지 등과 같은 환경 변인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점에서 문항 선택의 제한으로 인해, 패널데이터에서 제공된 문항에 따라 생애목표의 내용 중 4가지 목표지향 만을 구성할 수 있었다. 특히 그 중 3가지가 내재적 목표내용에 해당된다.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의 서로 다른 효과를 고려할 때, 후속연구에서는 목표내용을 더 세분화하여 생애목표 유형 및 예측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민철, 조현주, 이종선. (2013). 우울, 불안, 수치심, 자살사고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873-896.
- 교육부. (2013.5.28).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안).
- 김동욱, 손원숙. (2014). 초등학생의 미래지향적 목표와 진로성숙도 및 교과 성취도의 관계: 성취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 **초등교육연구**, 27(3), 1-26.
- 김성수. (2015). 기본심리욕구, 생애목표,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9(1), 1-25.
- 김성수, 윤미선. (2013). SDT의 목표내용이론에 기반한 청소년용 생애목표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학연구**, 51(4), 87-118.
- 김세영. (2006).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용 유형, 자기통제력,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영, 윤기봉. (2016).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추정. **한국청소년연구**, 27(2), 271-296.
- 김신영 외. (2006).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1,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노현중, 손원숙. (2014). 초등학생의 내, 외재적 생애목표와 기본심리욕구 및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2), 355-378.
- 문병상. (2011). 미래지향적 목표의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교육평가연구**, 24(3), 665-683.
- 문병상. (2013). 내, 외재적 미래목표 인식의 종단적 변화가 성취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7(1), 35-50.
- 박미려, 양은주. (2017). 부모방임, 또래애착이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1), 263-284.
- 박은정, 이유리, 이성훈. (2016). 남녀 고등학생의 생애목표 유형에 따른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의 차이. **교육종합연구**, 14(3), 1-27.
- 송지은, 이은주. (2015). 초등학생의 자기결정성동기와 목표내용 프로파일: 수업참여와 자기조절학습의 차이. **교육학연구**, 53(4), 35-55.
- 송현옥. (2009).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간의 구조분석**. 계명대학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이나, 손원숙. (2016). 학업동기 프로파일의 잠재적 변화: 학업성취와의 관계. **교육학연구**, 54(3), 178-200.
- 신종호, 서은진, 이유경. (2011). 생애목표검사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5(2), 255-276.
- 신종호, 진성조. (2013). 생애목표유형이 학업적 자기개념, 학업노력,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성취수준에 따른 차이 검증. **교육심리연구**, 27(1), 161-180.
- 양명희. (2000). **자기조절학습의 모형탐색과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어운경. (2015). 진로체험 중심 자유학기제의 진로성숙도 향상 효과. **교육연구**, 30(1), 27-49.
- 이영하. (2014). **중학생의 숙달목적지향, 성취가치, 성취정서 및 학교 행복감과의 관계: 학업적 정서조절의 조절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 (2013). 집단괴롭힘과 사회적 선호도의 관계의 다양성: 회귀혼합모델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4(20), 63-89.

- 인효인, 길혜진. (2017). 청소년들의 삶의 목표 유형에 따른 진로정체감, 공동체의식 및 삶의 만족도 차이. **미래청소년학회지**, 14(1), 25-48.
- 임효진, 김재철. (2014). 중학교 학생들의 성취가치, 자기조절, 학업적응과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1(6), 161-190.
- 장석민. (2001). **진로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화 연구** (기본연구 01-42).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희선, 윤정미. (2016).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직업체험활동, 생애목표가 진로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6), 271-292.
- 전명순, 김태균. (2014). 청소년의 삶의 목표가 청소년활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2(3), 137-146.
- 정봉희, 배영문, 이영순. (2008).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 및 자아정체감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논단**, 7(1), 57-74.
- 정유지, 이은주. (2016). 대학생의 자기결정 동기유형과 생애목표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진로성숙도, 대학생 활적응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교육과학연구**, 47(4), 187-208.
- 조한익, 김영숙. (2016). 청소년의 미래지향목표와 자아정체감, 공동체의식 및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구조관계. **교육심리연구**, 30(4), 783-810.
- 최현주, 조민희. (2014).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른 학습동기 변화의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1), 253-274.
- 허균. (2014). 중학생의 성취가치와 학업성취 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 효과분석. **사고개발**, 10(2), 113-126.
- 홍향연, 유태명. (2008).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0(3), 49-64.
- Baumeister, R. F., & Muraven, M. (1996). Identity as adaptation to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 *Journal of Adolescence*, 19, 405-416.
- Bronk, K. C., Hill, P. L., & Lapsley, D. K. (2009). Purpose, hope, and life satisfaction in three age group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6), 500-510.
- Collins, L. M., & Lanza, S. T. (2010).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 Damon, W., Menon, J., & Bronk, K. C. (2003). The development of purpose during adolescence.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7(3), 119-128.
- Diener, E. L. (2002). Well-being (subjective), psychology of. In N. J. Smelser, J. Wright, & P. B. Baltes(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New York: Pergamon Press, 16451-16454.
- Eccles, J. S. (2009). Who am I and what am I going to do with my life? Personal and collective identities as motivators of ac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44(2), 78 - 89.
- Elder, G. H. (1985). Perspectives on the life course. In G. H. Elder, Jr. (Ed), *Life course dynamics*(pp. 23-49).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Flankl, V. (1959). *Man's search of meaning: An introduction to logotherapy*. Boston: Beacon.
- Furlong, M. J., Whipple, A. D., St. Jean, G., Simental, J., Soliz, A., & Punthuna, S. (2003). Multiple contexts

- of school engagement: Moving toward a unifying framework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practice. *The California School Psychologist*, 8, 99-113.
- Gilman, R., & Huebner, E. S. (2006).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ho report very high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3), 311-319.
- Gonzalez-pineda, J. N., Nunez, J. N., Gonzalez-Pumariga, S., Alvarez, L., Roces, C., & Garcia, M. (2002).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parental involvement, motivational and aptitudinal characteristic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70, 257-287.
- Havinghurst, R. J. (1948).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Mckay.
- Kasser, T., & Ryan, R. M.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3), 280-287.
- Klsh, G. B., & Moddy, D. R. (1989). Psychopathology and life purposes. *International Forum for Logotherapy*, 12(1), 40-45.
- Lüdtke, O., Tranutwein, U., & Husemann, N. (2009). Goal and personality trait development in a transitional period: Assessing change and stability in personality development.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4), 428-441.
- Marsh, H. W., Hau, K. T., & Wen, Z. (2004). *In search of golden rules: Comment on hypothesis testing approaches to setting cutoff values for fit indexes and dangers in overgeneralizing Hu & Bentler's(1999) finding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1, 320-341.
- Meece, J. L., Wigfield, A., & Eccles, J. S. (1990). Predictors of math anxiety and its influence on young adolescents' course enrollment intentions and performance in mathematic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60-70.
- Muthén, B. (2006). *Should substance use disorders be considered as categorical or dimensional?*. Addiction, 101(s1), 6-16.
- Niemiec, C. P., Ryan, R. M., & Deci, E. L..(2009). The path taken: Consequences of attaining intrinsic and extrinsic aspirations in post-college lif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 291-306.
- Nurmi, J. E., Poole, M. E., & Seginer, R. (1995). Tracks and transitions: A comparison of adolescent future-oriented goals, explorations, and commitments in Australia, Israel, and Fin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0, 355-375.
- Nurmi, J. E. (2004). Socialization and self-development: Channeling, selection, adjustment, and reflection. In R. M. Lerner & L. Steinberg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Vol. 2, pp. 85-124). Hoboken, NJ: Wiley.
- Nylund, K. I., Aspat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535-569.
- Pabot, W., & Diener, E. (1993). The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 164-172.
- Pastor, D. A., Barron, D. E., Miller, B. J., & Davis, S. L. (2007).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2(1), 8-47.
- Plante, I. O'Keefe, P. A., & Théorêt, M. (2013). The relation between achievement goal and

- expectancy-value theories in predicting achievement-related outcome: A test of four theoretical conceptions. *Motivation and Emotion*, 37, 65-78.
- Pokay, P. & Blumenfeld, P. C., (1990). Predicting achievement early and late in the semester: the role of motivation and use of learning strateg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41-50.
- Proctor, C., Linley, P. A., & Maltby, J. (2009). Youth life satisfa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Happiness Student*, 10, 583-630.
- Salili, F., & Mak, P. H. T. (1988). Subjective meaning of success in high and low achiever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0(2), 125-138.
- Samela-Aro, K., & Nurmi, J. E. (1997). Goal contents, well-being, and life context during transition to University: A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0(3), 471-491.
- Schmuck, P., Kasser, T., & Ryan, R. M.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Their structure and relationship to well-being in German and U. S. college stud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0(2), 225-241
- Shek, D. T. (1993). The Chinese purpose-in-life tes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Chinese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Forum for Logotherapy*, 16(1), 35-42.
- Sheldon, K. M., & Kasser, T. (1995). Coherence and congruence: Two aspects of personality integ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3), 531-543.
- Steinberg, L. & Morris, A. S. (2001). Adolescent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83-110.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2.1.83>
- Suldo, S. M., Huebner, E. S. (2004). Does life satisfaction moderate the effects of stressful life events on psychopathological behavior during adolescence?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9, 93-105.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of Counseling Psychology*, 4, 212-214.
- U. S. Department of Education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2). *Nation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Eighth grade questionnaire*. Chicago: A 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Chicago.
- Vansteenkiste, M. Lens, W., & Deci, E. L. (2006). Intrinsic vs. extrinsic goal contents in self-determination theory: another look at the quality of academic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41, 19-31.
- Vansteenkiste, M. Simons, J., Lens, W., Soenens, B., Matos, L., & Lacante, M. (2004). Less is sometimes more: Goal contents matt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4), 755-764.
- Yeager, D. S., Bundick, M. J., & Johnson, R. (2012). The role of future work goal motives in adolescent identity development: A longitudinal mixed-methods investig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7, 206-217.
- Walls, R. T. (2000). Vocational cognition: Accuracy of 3rd-, 6th-, 9th-, and 12th-grad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1), 137-144.
- Wigfield, A., & Eccles, J. S. (2000). Expectancy-value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 68-81.

가구 및 지역사회 배경에 따른 체험학습 참여와 진로성숙 효과 차이 분석

주휘정* · 김민석** · 정의석***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진로 발달 단계에서 진로탐색이 본격적으로 수행되는 중학생 시기의 진로 체험의 가구 배경 및 지역 간 격차를 파악하고 중학생 시기의 진로체험 참여가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 발달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 4차(2013년)~7차(2016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진로 체험 활동 참여 정도에는 성별, 학교 소재 지역, 인구 1만 명당 문화시설 수, 성적, 사교육 시간, 어머니의 최종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에 대해서는 학년별 진로 체험 참여 횟수, 지역, 자아 존중감, 삶의 만족도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들의 진로 체험 활동에 대한 개인, 가정 및 지역사회 차원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진로 체험, 체험 활동 격차, 진로정체감

I. 서론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언급된 4차 산업혁명은 현재진행형으로 미래를 주도할 핵심 동인이다. WEF(World Economic Forum)은 현재 어린이가 사회에 나가 직업을 가질 때쯤이면 65%는 지금은 없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2016)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가 격돌하여 인간 대 인공지능 간의 세기의 대결은 이세돌의 ‘창의적’ 한 수로 완패는 면하였다. 이 같은 변화가 빠른 속도로 다가 오고 있음을 목도한 우리사회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되어져 왔던 일들을 로봇에게 넘기고 새로운 삶을 준비해 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암기식 주입식 교육으로 대학 진학 일변도의 진로 선택은 4차 산업의 파고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변화된 사회에서 살아갈 청소년이 미래를 준비하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곧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다지는 길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전략이 요구된다. 청소년 개개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이 가장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재능을 사회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흥미와 적성을 찾고, 직·간접 경험을 통해 현실가능성을 탐색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역량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로교육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진로교육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고,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으로 더욱 탄력을 받아 중학교 단계에서의 진로교육은 공공해 지고 있다. 진로교육은 진로상담, 진로체험, 진로정보, 및 학교 수업을 통해서 제공되는데, 학생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진로체험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 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진로교육법 제2조3)으로 학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및 지역사회의 진로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요구된다.

진로체험 교육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인프라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직업별 취업자의 직업 편포가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들 지역의 학생들은 다양한 직업인을 만나 직업체험을 하는 데 제약이 있다. 예컨대, 과천시의 경우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취업자의 44.7%를 차지하지만 곡성군은 3% 수준으로 현저히 낮다. 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신안군 72.4%, 성남시는 0.1%로 72.3%의 취업자 비율의 차이가 있다(통계청, 2016). 학생들의 체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은 대도시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고 중소도시나 군급은 문화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 과학관이 없는 지역은 71%, 미술관 65%, 영화관 44%, 문예회관 23%, 박물관 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국토연구원, 2015).

진로교육 활성화로 학교 밖 직업진로 체험이 늘어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교육 격차 발생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교육은 지역, 계층 간 격차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학력 부모들이 대도시에서 편중되어 지역 간에 현격한 교육 격차가 관찰되고 있다(김경근, 2005). 청소년의 진로 발달에 미치는 부모 및 가구배경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서진희·이제경, 2009; 선혜연·김계현, 2007; Whiston & Keller, 2004), 진로교육의 격차는 1차적으로 가구 배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 체험 자원의 제약으로 이러한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진로 발달 단계에서 진로 탐색이 본격적으로 수행되는 중학생 시기의 진로 체험의 가구 배경 및 지역 간 격차를 파악하는 데 연구의 1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중학생 시기의 진로체험 참여가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발달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 4차년도(2013년)부터 7차년도(2016년)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지역의 진로체험 지원 인프라 정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확보한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II. 진로체험 현황

교육부는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2013년부터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교육부, 2013). 주요 내용은 수업방법 개선을 통한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과 진로체험활동을 위한 체험 인프라 구축이다. 이 중 체험 인프라 구축은 중앙부처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교육청의 역할을 제시하고, 체험처 발굴부터 지원 네트워크 마련에까지 진로체험 전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3).

교육부(2017)는 약 5년간의 노력으로 확보한 체험 인프라를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로 집중시켜 데이터화하고, 일선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별 체험 인프라는 진로교육법(2015)에 따라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정한 진로체험지원센터라는 전담기관이 발굴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229곳(행정자치부, 2016) 대비 총 219곳이 설립되어 있다(교육부, 2017).

표 1. 지역별 진로체험 관련 현황

지역	중학교 (N)	학생 (N)	체험처 (N)	체험 프로그램(N)	체험 프로그램 /학교(N)	기초자치 단체(N)	진로체험 지원센터(N)
수도권 · 광역시	서울	383	77,835	6,343	23,549	61	25
	부산	172	28,649	2,946	6,443	37	16
	대구	125	23,907	1,437	3,542	28	8
	인천	134	27,675	842	2,230	17	10
	광주	90	16,585	1,127	2,051	23	5
	대전	88	15,439	708	2,965	34	5
	울산	63	11,374	1,134	2,885	46	5
	경기	625	127,171	5,279	18,902	30	31
그 외 지역	강원	162	13,898	1,053	2,186	13	18
	충북	127	14,584	1,037	2,449	19	11
	충남	186	19,349	1,798	4,833	26	15
	전북	209	18,025	1,790	2,956	14	14
	전남	250	17,524	2,821	5,056	20	22
	경북	271	22,476	1,712	3,167	12	23
	경남	265	32,962	2,247	5,143	19	18
	제주	45	6,495	650	1,138	25	2
	세종	18	2,730	149	1,393	77	1
	합계	3,213	476,678	33,073	90,888	-	229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2017년 8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에 총 33,073개의 체험처가 있으며, 3만개가 넘는 체험처에서는 90,888개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의 참여와 협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교육부, 2017).

지역 규모로 보면 수도권 지역(경기 포함)과 광역시 8개 지역이 약 60%의 체험처와 약 69%의 체험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도 단위 지역의 경우, 강원을 비롯한 9개 지역(세종 포함)의 체험처와 체험 프로그램이 각각 약 40%와 약 31%정도였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 중학교 수 대비 체험 프로그램 수가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시에서 평균 34.5개였으며, 강원을 비롯한 9개 지역은 평균 25개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능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기초자치단체 수준과 유사하게 설립되어 있다(교육부, 2017). 하지만 진로체험지원센터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특성과 인프라 차이로 인해 체험 인프라의 격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주희정 외, 2016). 이에 교육부(2016)는 진로체험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도서벽지 등 지역을 구분하고, 읍면지역과 도서벽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농산어촌 ICT 지원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등의 중앙단위에서는 진로체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주희정 외, 2016; 진미석 외 2016).

Ⅲ. 연구방법

1. 연구 자료 및 분석 대상

1) 연구 자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 체험 활동이 진로 의식 발달에 영향을 주는지, 진로 체험 활동에 가정배경 및 지역 간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성장과 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은 2010년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3개 패널 총 7,071명과 271개 학교를 표본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7차년도(2016년)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초등학교 4학년 패널 4차년도(2013년)부터 7차년도(2016년)의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여, 응답자의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특성 및 체험 경험과 고등학교 1학년 때의 발달 양상을 추적하였다.

2)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우선 중학생이 경험하는 진로 체험 활동에 가정배경 및 지역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간 직업 체험 활동 연간 참여 시간에 대해 응답한 표본을 추출하였다. 직업 체험 활동 경험이 없다는 응답을 0시간으로 계산하여, 3년간의 직업 체험 활동 총 참여 시간 추적이 가능한 1,670명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 1,670명의 3년간 직업 체험 활동 참여 시간은 평균 4.49시간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595명은 활동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활동 경험이 있는 1,075명의 평균 참여 시간은 6.97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2. 분석 대상의 직업 체험 활동 참여 시간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전체	1,670	4.49	7.35	0	91
참여자	1,075	6.97	8.16	1	91

직업 체험 활동 참여 시간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로는 응답자의 개인 특성, 가구 특성, 지역 특성 관련 변수를 활용하였다. 개인 특성 관련 변수로는 응답자의 성별과 전 과목 평균 성적, 사교육 시간, 자아 존중감, 삶의 만족도를 사용하였고, 가구 특성 관련 변수로 가정의 월 평균 소득, 부모의 최종 학력을 활용하였다. 성적은 본 조사에서 '96점 이상, 95~90점, 89~85점, 84~80점, 79~75점, 74~70점, 69~65점, 64점 이하' 8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을 평균 처리하였고, 가구 소득은 가정의 3개년 월 평균 소득 금액을 '3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3개 구간으로 나누었다. 지역 특성 관련 변수로는 학교 소재 지역과 함께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 체험 활동 체험처 현황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중학교 시기 3년간의 진로 체험 활동 경험이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 의식 발달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응답자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7차년도 데이터의 진로정체감 문항을 요인분석을 통해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변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분석 대상의 직업 체험 활동 참여 시간

변수명		변수 설명
독립변수		
개인 특성	성별	응답자의 성별 - 남성, 여성
	성적	응답자의 중학교 3개년 전 과목 성적 평균값
	사교육 시간	응답자의 중학교 3개년 하루 학원/과외시간 평균값
	자아 존중감	응답자의 중학교 2개년 자아 존중감 문항 평균값(5차년도 미측정)
	삶의 만족도	응답자의 중학교 3개년 삶의 만족도 문항 평균값

변수명		변수 설명
가구 특성	부 교육수준	아버지의 최종 학력 - 대졸 미만, 대졸 이상
	모 교육수준	어머니의 최종 학력 - 대졸 미만, 대졸 이상
	가구 소득	응답자 가정의 3개월 월 평균 소득 - 3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지역 특성	학교 소재지	응답자의 학교 소재 지역 - 수도권, 광역시, 도
	문화시설 수	지역별 인구 10,000명당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수
	체험처 수	지역별 학생 100명당 진로 체험 활동 체험처 수
종속변수		
진로 체험 참여 시간		직업 체험 활동 연간 참여 시간
진로정체감		응답자의 고등학교 1학년 진로정체감 문항 평균값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중학생들의 진로 체험 활동 참여 시간이 개인 특성 및 가정 배경에 따라, 또는 학교 소재 지역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진로 체험 참여 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중학교 때의 진로 체험 참여가 상급학교 진학 후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개인, 지역 및 가구 특성 관련 변인들을 투입하였고, 각 변인들은 요인분석을 통해 구안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진로 체험 활동 참여 차이 분석

진로 체험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응답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 진로 체험 활동 참여 차이 분석

구분		미참여		참여		χ^2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성	346	58.15	524	48.74	13.58***
	여성	249	41.85	551	51.26	
학교 소재지	수도권	148	24.87	323	30.05	5.06*
	비수도권	447	75.13	752	69.95	
부 학력	대졸 미만	309	51.93	534	49.67	0.78
	대졸 이상	286	48.07	541	50.33	
모 학력	대졸 미만	386	64.87	644	59.91	4.00*
	대졸 이상	209	35.13	431	40.09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186	31.26	290	26.98	4.83
	500만 원 미만	304	51.09	558	51.91	
	500만 원 이상	105	17.65	227	21.12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t	
성적	미참여	4.32	1.84	1	7.89	6.62***
	참여	4.92	1.74	1	8	
사교육 시간	미참여	1.77	1.14	0	5.33	0.82
	참여	1.82	1.13	0	5.67	
자아 존중감	미참여	3.05	0.40	1.56	4	5.94
	참여	3.18	0.44	1.28	4	
삶의 만족도	미참여	3.05	0.46	1.44	4	2.94**
	참여	3.12	0.49	1	4	

* $p < 0.05$, ** $p < 0.01$, *** $p < 0.001$

분석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870명으로 약 52%, 여성이 800명으로 약 48%로 나타났다. 진로 체험 활동 참여 여부별로 보면, 참여 집단에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학교 소재지별로 보면 미참여 집단에서는 비수도권 학생이 447명으로 약 75%를 차지하였고, 참여 집단에서는 비수도권 학생이 752명으로 약 70%를 차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이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어머니의 학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진로 체험 활동 참여 여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의 개인 특성 차이로 성적과 삶의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참여 집단의 성적이 미참여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 역시 참여 집단이 보다 높았다. 사교육 시간과 자아 존중감에서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2. 개인 특성 차이 분석

진로정체감 변수를 추가하여 개인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우선 진로 체험 활동 참여 여부별 진로 정체감 수준은 미참여 집단이 평균 2.83, 표준편차 0.68로 나타났고, 참여 집단은 평균 2.98, 표준편차 0.7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t=4.12$). 기타 개인 특성을 성별, 가구 소득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1) 성별

남녀별 개인 특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우선 남녀별 진로정체감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녀별 특성 차이로는 여학생일수록 성적이 높게 나타났고, 남학생일수록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교육 시간은 남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5. 성별 차이 분석

구분	남자		여자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진로정체감	2.95	0.69	2.90	0.70	1.34
성적	4.52	1.85	4.91	1.73	4.43***
사교육 시간	1.83	1.14	1.77	1.13	1.14
자아 존중감	3.18	0.42	3.09	0.44	4.00***
삶의 만족도	3.19	0.47	2.99	0.47	8.64***

* $p < 0.05$, ** $p < 0.01$, *** $p < 0.001$

2) 가구 소득별

가구 소득별 개인 특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가구 소득 수준별 진로정체감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성적이 높게 나타났고, 하루 평균 사교육 시간 역시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아 존중감이 가구 소득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삶의 만족도는 가구 소득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6. 가구 소득별 차이 분석

구분	3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진로정체감	2.87	0.69	2.95	0.68	2.95	0.75	2.20
성적	4.16	1.75	4.80	1.78	5.26	1.73	40.43***
사교육 시간	1.44	1.16	1.91	1.12	2.05	1.01	37.55***
자아 존중감	3.09	0.45	3.15	0.42	3.17	0.41	4.09*
삶의 만족도	3.05	0.50	3.11	0.48	3.10	0.46	2.78

* $p < 0.05$, ** $p < 0.01$, *** $p < 0.001$

3) 지역별

지역별 개인 특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우선 수도권, 비수도권별 진로정체감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고, 비수도권의 진로정체감 수준이 수도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개인 특성 변인인 성적, 사교육 시간, 자아 존중감, 삶의 만족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7. 지역별 차이 분석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진로정체감	2.86	0.68	2.95	0.70	2.36*
성적	4.77	1.78	4.68	1.81	0.91
사교육 시간	1.82	1.14	1.79	1.13	0.49
자아 존중감	3.13	0.41	3.14	0.44	0.26
삶의 만족도	3.09	0.47	3.09	0.48	0.00

* $p < 0.05$, ** $p < 0.01$, *** $p < 0.001$

3. 진로 체험 참여 시간 영향 요인 분석

진로 체험 참여 시간에 대한 개인, 가구, 지역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8. 진로체험 참여시간에 대한 개인·가구·지역배경 변수의 영향 분석

구분	Coef.	S.E.	Beta	t
성별	0.794*	0.366	0.054	2.17
성적	0.649***	0.113	0.159	5.76
사교육 시간	-0.447**	0.165	-0.069	-2.71
자아 존중감	0.909	0.591	0.053	1.54
삶의 만족도	-0.042	0.517	-0.003	-0.08
부 교육수준	-0.408	0.247	-0.056	-1.65
모 교육수준	0.502*	0.250	0.066	2.01
가구 소득	-0.048	0.281	-0.005	-0.17
학교 소재지	-1.207**	0.449	-0.074	-2.69
문화시설 수	0.571*	0.287	0.051	1.99
체험처 수	0.019	0.074	0.007	0.25
cons	-1.022	1.655		-0.62

R^2 : 0.0452

* $p < 0.05$, ** $p < 0.01$, *** $p < 0.001$

첫째, 개인 배경 변수로 성별, 성적, 사교육 시간, 자아 존중감, 삶의 만족도 요인이 진로 체험 참여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일수록 남학생에 비해 진로 체험 참여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체험 참여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교육 시간은 진로체험 시간에 대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교육 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마다 진로 체험 참여 시간은 27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자아 존중감, 삶의 만족은 진로 체험 참여 시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가구 배경 요인으로 부, 모의 최종 학력,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진로 체험 참여 시간에 통계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 배경 변수로 학교 소재 지역, 인구 1만 명당 문화시설 수, 학생 1백 명당 진로체험처의 수가 진로 체험 참여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 학생의 진로 체험 참여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 거주 시 진로 체험 활동에 약 1시간 12분가량 더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진로정체감 영향 요인 분석

진로정체감에 대한 개인·가구·지역배경 변수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진로정체감에 대한 개인·가구·지역배경 변수의 영향 분석

구분	Coef.	S.E.	Beta	t
성별	-0.017	0.035	-0.012	-0.47
학교 소재지	0.105**	0.038	0.068	2.78
체험 활동 시간	-0.004	0.003	-0.044	-1.47
학년별 체험 활동 횟수	0.077***	0.022	0.107	3.5
성적	0.013	0.011	0.033	1.16
사교육 시간	0.017	0.016	0.027	1.07
자아 존중감	0.203***	0.057	0.127	3.59
삶의 만족도	0.164**	0.049	0.113	3.32
부 교육수준	-0.022	0.023	-0.032	-0.94
모 교육수준	0.042	0.024	0.059	1.77
가구 소득	0.006	0.027	0.006	0.23
cons	1.554	0.153		10.17

 R^2 : 0.0771* $p < 0.05$, ** $p < 0.01$, *** $p < 0.001$

첫째,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성별과 거주 지역 변수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 대비 광역시나 도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진로정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개인 특성 요인으로 학년별 진로 체험 참여 정도, 성적, 사교육 시간, 자아 존중감, 삶의 만족도 변수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매 학년별로 참여하는 해가 많을수록 진로정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리고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 회귀계수 역시 각각 약 0.13, 0.11로 나타나 다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진로정체감에는 성별, 성적, 사교육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가구 배경 요인으로 부, 모의 학력, 가구의 소득 수준은 진로 체험 참여 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학생의 진로 체험 참여에 미치는 개인, 가구, 지역 배경 요인과 진로체험 참여 정도를 포함한 개인 및 가구 배경이 고등학교 1학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여학생, 수도권 거주, 인구 1만 명당 문화시설 수, 성적, 사교육 시간, 어머니의 최종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에 대해서는 학년별 진로 체험 참여 횟수, 지역, 자

아 존중감, 삶의 만족도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 존중감은 진로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 요인으로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 직업·진로결정 능력 등이 높고, 직업에 대한 목적의식이 뚜렷하다(이경희·윤미현, 2011; 엄태영·박은하·주은수, 2011, 허균, 2012). 본 연구에서도 자아 존중감은 진로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나, 기존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중학생 시기에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학교에서는 학생 심리, 진로 상담 등을 통해서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경쟁적인 성적 비교는 자아 존중감을 떨어뜨리고, 스스로를 실패자로 낙인찍는 악순환이 지속되므로 작은 성취 기회를 자주 부여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정익중, 2007).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이 진로 체험 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발견하고, 자기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학생 개인의 차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성적이 우수할수록, 사교육을 덜 받을수록 진로 체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적이 높은 학생이 적극적으로 진로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교육 시간은 진로 체험 참여 시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 참여 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마다, 진로체험 참여시간은 27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원 수업에 매달리지 않고, 보다 넓은 시각에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진로 체험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진로 체험은 중학교 전 학년에 걸쳐 매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학교시기에 각 학년별로 매년 참여할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 체험 참여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진로 체험 시간을 특정 시기에 많이 할애하기보다는 중학교 전 교육 과정에 골고루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진로체험 기회가 많아져 진로 체험 참여 시간이 늘어났지만 진로정체감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 시행 이외의 학년과 학기에도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서 지역 간 진로 체험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학생의 진로체험 참여시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요인으로 인구 1만 명당 문화시설 개수와 꿈길 등록 기준 진로체험 프로그램 수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문화시설 인프라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 기관에서는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과 함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체험처를 확대하여 왔으나, 여전히 지방의 빈약한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에 집중된 체험 자원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진로 체험은 직업인 특강, 직업진로심리검사, 직업인의 일터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모나 학생 개인 차원에서 수행되기보다는 학교 단위에서 수행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에서는 진로체험이 개인 혹은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

고, 학생의 소속 학교명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자유학기제 도입 여부, 진로 지도교사 수, 진로 교과목 편성 수 등,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누락되어 연구 분석의 한계로 작용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진로체험에 대한 학교 효과를 분석한다면, 진로체험 강화를 위한 학교 단위의 지원 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
- 교육부(2016). 2016년 지역별 자유학기제 운영학기 현황.
- 교육부(2017). 2017년 진로교육 세부시행계획.
- 교육부(2017).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 <http://www.ggoomgil.go.kr/exp/expDashBoardMain.do>(2017-08-01 방문).
- 국가법령정보센터(2017) “진로교육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2382&efYd=20151223#0000>(2017-08-01 방문).
- 국토연구원(2015). 지역 간 문화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국토정책, No.503.
- 김정근(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서진희·이제경(2009). 부모진로행동이 중학생 자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10(4), 2153-2167.
- 선혜연·김계현(2007). 진로상담: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에 관한 연구-1997~2006년. 상담학연구, 8(4), 1467-1483.
- 엄태영·박은하·주은수 (2011).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1(3), 197-222.
- 정익중(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127-166.
- 조명실·최경숙(2007).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3), 1085-1099.
- 주희정·김수원·임해경·정의석(2016). 찾아가는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미석·손유미·김승보·김규상·이윤진·윤수린·강정은·김영빈·김효정(2016). 2016년 농산어촌 ICT지원 원격 영상 진로멘토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통계청(2016). 201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 허균(2012).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진로성숙도의 변화궤적과 성별, 자아존중감 및 부모애착 시간효과의 구조관계. 한국직업교육학회, 31(2), 193-209.
- 행정자치부(2016). 2016 행정자치통계연보.
- WEF(World Economic Forum, 2016). The Future of Jobs.
- Whiston, S.C. & Keller, B.K. (2004). The influence of the family of origin on career development, 32(4), 493-568.

제 ⑤ 주제

비행/폭력B

1. 이중차이모델에 의한 금연정책의 영향 분석
2. 과보호양육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 우울과 공격성을 매개로
3. 방임적 양육태도가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하여 성인매체몰입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보호효과 검증
4. 사회적자본과 청소년의 비행



이중차이모델에 의한 금연정책의 영향 분석

장명화* · 조성일***

국 문 초 록

흡연의 건강에 대한 유해성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연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흡연을 감소를 위한 가격정책과 비가격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강화되어 왔으며, 2015년에는 담배가격 2,000원 인상, 금연사업예산 증액,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등 강도 높은 정책이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금연정책 시행이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차이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아동청소년패널 초4패널과 중1패널의 중2시기와 고1시기의 흡연행태를 비교하여 금연정책의 누적효과와 2015년 강화된 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평가하였다. 단순히중차이 분석결과 금연정책 비수혜집단에 비해 정책 수혜집단의 흡연경험이 적고, 중2시기와 고1시기간의 흡연행태 변화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차이 회귀분석결과, 금연정책 수혜집단은 비수혜집단에 비해 흡연경험이 적었으나 2015년 금연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는 불충분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흡연, 금연정책, 이중차이모델

I. 서 론

1960년대 이후 흡연과 간접흡연은 질병의 원인이자 신체 거의 모든 기관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4). 건강에 대한 흡연의 즉각적인 영향은 청소년도 예외가 아니며, 청소년 흡연이 니코틴 중독과 폐 성장, 폐 기능, 뇌 발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수반하고 흡연으로 인한 만성질환의 위험은 흡연기간과 축적된 양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이른 나이의 흡연, 즉 청소년 흡연의 감소는 중요하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2).

우리나라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은 남학생 9.6%, 여학생 2.7%로 남학생 흡연율이 3배 이상 높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흡연율이 증가하여 고3 남학생의 현재 흡연율은 19.1%, 매일 흡연율도 12.4%이다(질병관리본부, 2016). 이는 고3 남학생의 경우 약 5명 중 1명이 흡연자이며, 그 중 절반 이상은 매일 흡연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행히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은 2007년 13.3%로 정점을 찍은 후 정체를 거쳐 2012년 11.4%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2014년 9.2%, 2016년에는 6.3%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2016).

*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scho@snu.ac.kr)

미국의 경우 청소년 흡연율은 1990년대 중후반을 정점으로 크게 떨어졌고 금연구역 확대, 금연사업 예산 증가, 담배가격 인상과 같은 금연정책이 청소년 흡연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DeCicca, Kenkel & Mathios, 2008; Matthew et al., 2013)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 감소의 원인에 대하여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에 대한 연구는 상당부분 청소년 흡연의 영향요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성, 연령(학년), 가족 구성, 가구 소득, 심리적 특성, 부모와의 관계, 용돈 등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가족 또는 친구의 흡연, 교직원의 흡연 목적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선희, 2009; 김지은, 조병희, 2012; 권석현, 정수용, 2016). 2004년 담배 가격인상 이후 흡연 청소년 중 15.2%가 흡연량을 줄였고, 31.1%가 금연하였다는 조정숙과 윤장호(2014)의 연구와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후에도 흡연량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흡연량이 증가한 경우가 72.1%로 흡연량이 감소하거나 금연하는 비율이 크지 않았다는 김준우, 이석환, 배현석, 박은숙과 이세환(2016)의 연구가 있으나 모두 횡단면 조사 연구로 담배가격 인상 전과 후의 흡연행태 변화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건강에 치명적일 뿐 아니라 청소년의 사회적일탈행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흡연율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국가금연정책의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금연정책과 정책 효과

2012년 기준, 흡연 유발 질병의 경제적 비용은 구매력 평가기준 4,670억 달러(US 4,220억 달러)로 전세계 보건의료비용의 5.7%에 해당하며 보건의료비 지출과 생산성 손실로 인한 흡연의 총 경제적 비용은 구매력 평가기준 18,520억 달러(US 1조 4,360억 달러)로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8%에 해당한다(Goodchild, Nargis & d'Espaignet, 2017). 따라서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전 세계 국가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을 통해 전 지구적인 담배 유행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7조 1,258억원으로(이선미, 윤영덕, 백종환, 현경래, 강하림, 2015) 국내총생산(GDP)의 약 0.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흡연의 건강에 대한 유해성과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19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광고 제한으로 금연 정책이 처음 시행된 이래,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따라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을 규제하면서 본격적인 금연정책이 추진되었다. 2000년대 들어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장기 흡연예방 계획과 금연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하였고, 2005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비준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금연정책을 실시하였다. 2014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015년 담뱃값 2,000원 인상, 금연구역 전면 확대 시행, 2016년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등 포괄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였다.

금연정책은 담배에 대한 각종 조세 인상을 기반으로 하는 가격정책과 금연구역 확대,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금연 홍보 등 비가격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담배가격 정책과 금연구역 확대,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살펴보고¹⁾, 해당 정책과 흡연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2000년을 전후로 약 10년간 간헐적이긴 하나 지속적으로 가격이 인상되었고,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전까지 10년간은 가격 인상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건강증진법 시행 이후 담배가격은 6차례 인상되었는데 1997년 100원, 1999년 100원, 2001년 200원, 2002년 700원, 2004년 500원이 인상되었고(신영임, 서재만, 2013), 2015년에 2,000원이 인상되었다. 2016년 기준 각 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의 가격은 영국 11.27 파운드(약 16,500원), 프랑스 7유로(약 9,400원), 독일 6유로(약 8,000원)로 우리나라 4,500원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7). 전 세계적으로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낮춘다는 연구들은 다양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청소년이 담배가격에 대해 더욱 민감하여 담배가격 인상이 청소년의 금연뿐 아니라 흡연예방에도 기여함을 보여주었다(Levy, Chaloupka, & Gitchell, 2004).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청소년의 경우 담배가격 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담배가격 정책은 청소년 흡연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이기도 하다(Brown, Platt & Amos, 2014). 우리나라의 경우 김원년(2005)이 2004년 담배가격 인상 전 흡연자 패널을 구축하여 6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담배 가격(500원) 인상이 성인 흡연자의 흡연량 감소와 금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하였고, 김영직, 정기덕과 조민효(2017)는 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15년 담배 가격(2,000원) 인상이 흡연자의 흡연량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소득 수준 집단별 흡연량 감소량의 차이가 크지 않아 담배 조세의 역진성을 시사하였다. 담배가격과 청소년 흡연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도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량 감소와 금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담배 가격 인상 실시된 단면조사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Kim, Cho, Kwon & Lim, 2012; 조경숙과 윤장호, 2014; 김준우 등, 2016)

금연구역 정책의 경우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대형건물, 의료기관, 교통시설 등 10종의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99년 학교의 교사와 목욕장이 추가되었으며, 2003년에는 게임/PC방, 대형음식점, 만화방 등을 포함하여 17종의 공중이용시설로 확대되었다. 2012년에는 청소년 시설 금연구역 추가,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와 게임/PC방, 만화방 등의 모든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강화되었고, 2015년에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보건복지부, 2017). 이러한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금연구역 수는 2011년 약 34만개에서 2015년 119만개로 5년간 약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김한해, 2017). 금연구역 정책관련 연구는 간접흡연,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

1) 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이행을 돕기 위하여 금연정책 주요 영역을 담배사용 및 정책의 모니터링(Monitor tobacco use and prevention policies), 간접흡연노출로부터의 보호(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e),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Offer help to quit tobacco use),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Warn about the dangers of tobacco), 담배 광고 판촉 후원 금지(Enforce bans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담배가격 인상(Raise taxes on tobacco)로 구성하고 각 영역의 약자를 모아 MPOWER라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금연정책은 2016년까지 가시적인 변화와 청소년 흡연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여 담배가격 인상, 금연구역 확대,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한 것이 대부분으로 흡연을, 금연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지만(Levy et al., 2004) 학교내 흡연 금지와 같은 금연구역 정책이 학생의 흡연 시작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있다(Pabayo, O'Loughlin, Barnett, Cohen & Gauvin, 2012). 우리나라에서도 권석현과 정수용(2016)은 학교 교사 및 교직원의 흡연을 목격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흡연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내 금연 구역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 유도를 위한 학교흡연예방사업은 1999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1년부터 3년간은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하였고 2014년까지 전국 초·중·고의 약 10% 학교를 금연선도학교로 운영하였으며, 2015년 전국 대부분의 학교로 사업대상이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17). 학교흡연예방사업에는 흡연예방교육 및 캠페인, 흡연학생 관리,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등이 포함되고 2016년 기준 학교흡연예방사업에 330억 원이 투입되었다. 학교흡연예방사업 유형을 정보중심교육, 사회성 향상 교육, 사회적 영향교육, 사회성 향상과 사회적 영향 연계 교육, 다중모형 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성 향상과 사회적 영향 연계 교육을 받은 학생은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 흡연이 12% 감소하였으나 그 이외에는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Thomas, McLellan & Perera, 2013).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예방 선도학교를 실시한지 오래 되고 최근에는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흡연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지 못한 실정이다(박순우 등, 2017).

Ⅲ. 연구 자료 및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아동청소년패널 중 초4패널의 5차와 7차 자료, 중1패널의 2차 및 4차 자료이다. 아동청소년패널은 아동·청소년 성장과 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10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3개 코호트를 대상으로 하는 중다패널설계(multiple panel design) 방식을 따르고 있다. 표본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식으로 초1 2,342명, 초4 2,378명, 중1 2,351명 등 총 7,071명을 선정하였고 2010년부터 매년 총 7차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패널조사 기간 동안 초1 패널은 중학교 1학년, 초4패널은 고등학교 1학년, 중1패널은 대학교 1학년이 되기까지의 이행과정을 추적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본 연구에서는 정책개입(policy intervention) 효과 분석을 위한 일종의 준실험 모형인 이중차이 모델(difference-in-difference)을 활용하였다. 이중차이 분석방법은 정책개입 전·후 시점의 정책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의 변화를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원인과 결과의 연관성을 추정하는 모형이다(최정규와 정형선, 2012). 그러나 우리나라 금연정책은 전국 단위로 일시에 시작되어 적절한 비수혜집단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중차이 분석을 위해 정책개입시점 전후

의 시점이 아닌 중2시기와 고1시기의 시점을 설정하고 국가금연정책이 강화된 2015년 기준으로 2014년에 중2(5차), 2016년에 고1(7차) 시기를 조사한 초4패널을 금연정책 수혜집단으로 2011년과 2014년에 각각 중2와 고1 시기를 조사한 중1패널을 정책 비수혜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표 1. 분석자료 구성

	중2시기	고2시기
초4패널(2001년생 코호트)	5차 자료(2014년)	7차 자료(2016년)
중1패널(1998년생 코호트)	2차 자료(2011년)	4차 자료(2013년)

2. 분석방법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정책개입 효과는 ‘2015년 금연정책의 시행효과’이다. 이것은 ‘금연정책의 영향을 받은 집단의 두 시점 간의 흡연 위험 차이’와 ‘금연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집단의 두 시점 간의 흡연 위험 차이’의 차이, 즉 차이의 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s, DD, 이중차이)로 추정할 수 있다.

표 2. 단순 이중차이 분석모형

	중2 정책 개입 전($t=0$)	고2 정책 개입 후($t=1$)	시간 차이
초4패널 정책 수혜집단($g=1$)	$\mu + \beta_g$	$\mu + \beta_g + \beta_t + \beta_e$	$\beta_t + \beta_e$
중1패널 정책 비수혜집단($g=0$)	μ	$\mu + \beta_t$	β_t
집단간 차이	β_g	$\beta_g + \beta_e$	β_e

μ = 정책 개입 전 비수혜집단의 흡연 위험

β_g = 집단간 차이, β_t = 시기간 차이, β_e = 국가금연정책의 효과

국가금연정책의 효과= $[\mu + \beta_g + \beta_t + \beta_e - (\mu + \beta_g)] - (\mu + \beta_t - \mu) = \beta_t + \beta_e - \beta_t = \beta_e$

즉, $t=1$ 인 고1시기는 금연정책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으로 구분되게 되는데, 이들 금연정책 수혜/비수혜 집단 간 흡연 위험을 중2시기($t=0$)의 흡연 위험을 감안한 상태에서 비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석을 위한 이중차이 비교모형은 금연정책이 강화된 2015년을 전후로 금연정책 수혜집단인 초4패널의 중2 흡연 위험으로부터 고1 흡연 위험 변화를 파악하고, 정책 비수혜집단인 중1패널 집단의 중2 흡연 위험으로부터 고1 흡연 위험 변화를 파악한 다음, 그 차이를 국가금연정책의 개입효과로 파악하였다.

금연정책 개입효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흡연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기타 요인을 통제하는 이중차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y = \alpha + \beta_g(\text{집단변수}) + \beta_t(\text{시기변수}) + \beta_e(\text{집단변수} \times \text{시기변수}) + \beta_c(\text{통제변수}) + \varepsilon$$

회귀분석 모형은 금연정책 개입효과로 대변되는 흡연 위험이 종속변수가 되고, 독립변수에는 시점 전후를 나타내는 시기변수, 정책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을 나타내는 집단변수, 정책개입 전후 집단간 이종차이 효과를 나타내는 ‘시기변수와 집단변수 간 상호작용항’, 그리고 종속변수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통제변수로 구성된다. β_g 값은 1998년생 코호트인 중1패널과 2001년생 코호트인 초4패널 간의 흡연 위험 차이가 유의미한가를 보여주고, β_t 값은 중2시기와 고1시기의 흡연 위험 차이가 유의미한가를 보여준다. β_e 값은 2015년 금연정책의 순수효과를 나타낸다.

3. 분석 변수

본 연구는 국가금연정책의 시행이 청소년의 ‘흡연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며 따라서 종속변수는 개인의 흡연 행태이다. 흡연행태는 흡연경험 유무로 특정하였다.

독립변수로 활용된 변수는 시기변수, 집단변수 그리고 시기변수와 집단변수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이다. 시기변수는 중2=0, 고1=1로, 집단변수는 초4패널=1, 중1패널=0로 더미변수 처리 하였다. 또한 이종차이를 감안한 국가금연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기더미변수와 집단변수의 상호작용항도 투입하였다.

정책개입의 효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에서 청소년 흡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 중 연구자료에서 활용가능한 변수를 선정하여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본 연구모형에서 투입한 통제변수들은 성별(기준: 여자), 가구소득(기준: 상), 지역(기준: 동), 성적 만족도(기준: 만족하는 편)를 투입하였다.

표 3. 변수의 정의

구분	변수	변수 설명
종속변수	흡연경험	- 있음 : 1, 없음 : 0
설명변수	집단 더미	- 초 4 패널 : 1, 중 1 패널 : 0
	시기 더미	- 고1 : 1, 중2 : 0
	집단 × 시기	
통제변수	성	- 남 : 1, 여 : 0
	가구소득	- 4분위수를 이용하여 상(25%), 중(50%), 하(25%) - 상을 기준으로 더미변수
	자택 지역	- 읍·면 : 1, 동 : 0
	성적 만족도	- 만족하지 못한 편 : 1, 만족하는 편 : 0

IV. 결 과

1. 일반적 특성

〈표 4〉는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금연정책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의 표본 수는 각각 1,907명, 2,083명이다. 대상자의 성별은 금연정책 수혜집단의 경우 남자가 52.4%로 비수혜집단의 남자 비율 51.2%보다 다소 높았다. 가구소득의 경우 해당 집단과 시기별 4분위수를 이용하여 변환하였기 때문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자택지역의 경우에는 정책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모두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15% 내외로 유사하였다. 성적에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정책 수혜집단의 경우 중2시기 53.4%, 고1시기 41.4%로 비수혜집단의 중2시기 38.0%, 고1시기 34.2%보다 높았으나 두 집단 모두 중2시기에 비해 고1시기 성적만족도가 낮았다.

표 4. 연구대상의 인구사회적 특성

시기		정책 수혜집단				비수혜집단			
표본수		1,907				2,083			
집단		중2		고1		중2		고1	
성별	남자	1,000	52.4	1,000	52.4	1,066	51.2	1,066	51.2
	여자	907	47.6	907	47.6	1,017	48.8	1,017	48.8
가구 소득	상	459	25.3	525	29.9	518	26.3	527	26.5
	중	1,043	57.4	842	47.9	1,045	53.1	1,045	52.6
	하	315	17.3	391	22.2	406	20.6	413	20.8
자택 지역	읍·면	277	14.8	280	15.5	310	15.4	302	14.5
	동	1,595	85.2	1,523	84.5	1,706	84.6	1,781	51.1
성적 만족도	만족 하는편	1,017	53.4	789	41.4	791	38.0	703	34.2
	불만족 하는편	888	46.6	1,109	58.6	1,291	62.0	1,355	65.8

2. 단순 이중차이 분석 결과

〈표 5〉는 중2시기와 고1시기의 금연정책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의 흡연율의 단순 이중차이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금연정책 수혜집단의 흡연율은 중2시기에 4.0%이고, 고1시기에 5.5%로 1.5%p 증가하였다. 비수혜집단의 흡연율은 중2시기 6.2%, 고1시기 8.8%로 2.6%p 증가하였다. 또한 정책 수혜집단의 흡연율은 비수혜집단에 비해 중2시기 2.2%p, 고1시기 3.3%p 만큼 낮았다. 이 때 나타난 두 시간간의 흡연 위험 변화와 두 집단간의 흡연 위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정책 수혜집단의 중2-고1시기 간 흡연율 증가폭은 1.5%p인데 비해 비수혜집단의 흡연율 증가폭은 2.6%p로 정책 수혜집단의 흡연율 증가폭이 1.1%p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국가금연정책 강화

는 이중차이인 1.1% 포인트만큼 청소년의 흡연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심층분석을 위한 예비적 분석 결과를 예시한 것으로서 유보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표 5. 중2, 고1 시기간 흡연율의 단순 이중차이 분석 결과

	중2	고1	전후 차이	χ^2
정책 수혜집단	4.0%	5.5%	1.5%	4.878*
비수혜집단	6.2%	8.8%	2.6%	10.044**
집단간 차이	2.2%	3.3%	- 1.1%	
χ^2	10.345**	16.406***		

3.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

〈표 6〉은 이중차이 회귀분석결과로 시기변수와 집단변수는 흡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p < 0.05$) 국가금연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보여주는 ‘상호작용항’은 흡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타 변수의 통제하에서도 고1시기의 흡연은 중2시기 보다 약 1.42배(95% CI, 1.10–1.81) 많았고, 정책 수혜집단(초4폐닐)의 흡연은 비수혜집단(중1폐닐)의 약 0.63배(95% CI, 0.46–0.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는 남자의 흡연은 여자보다 약 5.42배(95% CI, 4.19–7.01) 많았고, 가구소득이 상인 경우와 비교하여 하인 경우 흡연 위험이 약 1.65배(95% CI, 1.25–2.17) 높았으며, 성적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만족하는 경우보다 약 1.28배(95% CI, 1.04–1.57) 높았다. 가구소득이 상인 경우와 비교하여 중인 경우와 자택지역은 흡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6. 다중 이중차이 분석 결과

	b	S.E	p	exp(B)	95% CI	
상수	-4.205	.187	.000	.015		
시기	.347	.127	.006	1.415	1.104	1.813
집단	-.463	.157	.003	.629	.463	.856
시기 × 집단	-.063	.208	.761	.939	.625	1.410
성별_남자	1.690	.131	.000	5.422	4.192	7.012
가구소득_중	.097	.125	.437	1.102	.863	1.407
가구소득_하	.499	.141	.000	1.646	1.248	2.172
자택지역_읍·면	-.013	.139	.923	.987	.751	1.296
성적만족도_불만족	.246	.104	.018	1.279	1.043	1.569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이중차이모델을 이용하여 국가금연정책이 청소년 흡연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금연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금연정책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의 흡연행태를 비교해야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으로 단일한 정책이 시행되어 정책 비수혜집단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이중차이 모델을 통해 정책의 시간적 변이(time series variation)를 이용하여 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구인회, 임세희 & 문혜진, 2010).

분석결과 중2시기와 고1시기간의 흡연 위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청소년은 보편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흡연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2시기에 비해 고1시기에 흡연율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권석현과 정수용, 2016).

금연정책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의 흡연 위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정책 수혜집단인 2001년생 코호트(초4패널)의 흡연 위험이 비수혜집단 1998년생 코호트(중1패널)의 흡연 위험보다 중2시기와 고1시기 모두 낮았다. 이는 금연정책 수혜집단이 비수혜집단에 비해 생애초기부터 오랜 기간 동안 금연정책에 노출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1995년 건강증진법 제정으로 토대를 마련하고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을 계기로 강화되었다. 비록 1998년생 코호트와 2001년생 코호트의 시간 차이는 3년에 불과하지만 세부적인 금연정책의 시행시기를 고려하면 그 차이의 영향은 작지 않을 수 있다. 일례로 2012년에는 학교 금연구역이 교사에서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의 모든 구역으로 확대되었고, 게임/PC방도 면적의 1/2에서 전체면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금연정책의 강화로 정책 수혜집단의 경우 흡연행태에 변화가 생기는 중학생 시기에 직간접적인 흡연 경험이 비수혜집단 보다 적을 것이다. 학교 금연정책이 청소년 흡연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교사 흡연 목적과 청소년 흡연의 관련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 등(Pabayo et al., 2012; 권석현과 정수용, 2016)을 근거로 금연정책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간의 흡연 위험 차이를 제한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담배가격 2,000원 인상, 금연사업 예산 전년 대비 약 1,000% 증액, 전국 모든 학교 흡연예방사업 실시 등이 포함된 2015년 금연정책의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단순 이중차이 분석결과 흡연율은 중2 시기에 비해 고1 시기에 보편적으로 증가하는데 금연정책 수혜집단이 비수혜집단에 비해 흡연율 증가폭이 작아 흡연율의 이중차이가 1.1%p로 나타났지만,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에서 정책의 순수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책 수혜집단은 비수혜집단에 비해 흡연율이 낮은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2015년 담뱃값인상 등 강화된 국가금연정책의 효과임은 검증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015년 담배가격 인상의 효과를 분석한 김준우 등(2016)의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금연정책 효과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은데다가 전반적인 흡연율 감소 추세가 맞물려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으로 담배 가격은 물가상승과 무관하게 2004년 500원 인상 이후 10여년 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2,000원 인상이 흡연행태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숙자(2013)는 흡연자가 금연을 고려할 만한 담배가격을 8,900원대로 추정한 바 있다. 향후 청소년 흡연을 감소에 충분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담배 가격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의 경우 2014년 115억원에서 2015년 1,475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보건복지부, 2016) 여전히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의 상당부분은 흡연자의 금연지원에 투입되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홍보 메시지의 경우에도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와 같이 흡연자의 금연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청소년의 흡연예방 효과에는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흡연을 감소를 위해서는 흡연자의 금연 뿐 아니라 비흡연자의 흡연진입 차단이 중요하다. 흡연의 중독성을 고려한다면 흡연예방이 금연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금연정책에서 현재 비흡연자인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2015년 이후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흡연예방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청소년 흡연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한 시점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금연정책 효과 분석 연구는 이전의 흡연행태가 통제되지 않은 채 정책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의 순수 개입효과 측정에 있어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패널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에 대한 흡연행태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개입 효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모형 설계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중차이 분석은 정책 수혜집단과 비교집단은 정책개입 영향을 받는 유무만 차이가 있고 다른 특성은 비슷한 집단으로 설정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석재은, 2010).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연령 집단의 조건을 동질화하였으나 정책 수혜집단인 초4패널과 비수혜집단이 중1패널은 조사시기의 격차로 인한 사회문화적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이중차이 분석결과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숙자. (2013). 담배가격 변화에 따른 인식 및 행태 변화. 보건·복지 Issue & Focus, 217.
- 구인회, 임세희, 문혜진.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 소득, 빈곤에 미친 영향-이중차이 방법을 이용한 추정. 한국사회학, 44(1), 123-29.
- 권석현, 정수용. (2016). 청소년의 평생 흡연 및 현재 흡연 영향요인: 제10차(2014)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를 이용하여. 대한간호학회지, 46(4), 552-561.
- 김영직, 정기덕, 조민효. (2017).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의 흡연 감소 효과 : 가처분소득 분위별 흡연 감소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7(4), 31-52.
- 김원년. (2005). 담배가격 인상의 효과. Cancer Prevention Research, 10(3), 172-191.
- 김준우, 이석환, 배현석, 박은숙, 이세환. (2016). 담배가격 인상 이후 청소년 흡연행태 변화. Korean J Fam Pract, 6(4), 281-287.
- 김지은, 조병희. (2012).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3(1), 57-87.

- 김한해. (2017). 담배규제정책의 지나온 길. 2017 대한금연학회 춘계학술대회. 41-48.
- Kim H-C, Cho K-S, Kwon S-M, Lim J-Y. (2012).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obacco Price on Adolescent Smoking in Korea: Smoking Reduction and Brand Switching. 보건사회연구, 32(3), 429-460.
- 박선희. (2009). 학령기 및 청소년 초기 흡연행태와 흡연시작에 영향을 주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9(3), 376-385.
- 박순우 등. (2016). 학교흡연예방사업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 서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보건복지부. (2015).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www.mohw.go.kr 에서 2017년 8월 4일 인출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 201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웹사이트 www.khealth.or.kr에서 2017년 8월 4일 인출
- 석재은. (2010). 이중차이모델에 의한 공적연금제도의 영향 분석. 사회보장연구, 26(3), 73-98
- 신영임, 서재만. (2013).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웹 사이트 www.nabo.go.kr에서 2017년 8월 4일 인출
- 이선미, 윤영덕, 백종환, 현경래, 강하림. (2015).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의 효과 평가.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조경숙, 윤장호. (2014).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청소년의 흡연행태 변화. 보건사회연구, 34(4), 500-522.
- 질병관리본부. (2016). 제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충청북도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건강영양조사과.
- 최정규, 정형선. (2012). 이중차이분석 통해 본 산정특례제도의 의료비부담 완화효과.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8(4), 01-19.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한국아동·청소년내년조사(KCYPS) 제1-7차 조사 데이터 유저 가이드. <http://archive.nypi.re.kr/> 에서 2017년 8월 4일 인출
- Brown T, Platt S, Amos A. (2014). Equity impact of interventions and policies to reduce smoking in youth: systematic review. Tob Control, 23, e98-e105.
- DeCicca P, Kenkel D, Mathios A, Shin YJ, Lim JY. (2008). Youth smoking, cigarette prices, and anti-smoking sentiment. Health Econ, 17(6), 733 - 749.
- Goodchild M, Nargis N, d'Espaignet ET. (2007). Global economic cost of smoking-attributable diseases. Tob Control, 0, 1 - 7.
- Levy DT, Chaloupka F, Gitchell J. (2004). The Effects of Tobacco Control Policies on Smoking Rates: A Tobacco Control Scorecard. J Public Health Management Practice, 10(4), 338 - 353.
- Mattew C.F. et al. (2013).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Influence of State Tobacco Control Programs and Policies on Youth Smoking, Am J Public Health, 103(3), 549 - 555.
- Pabayo R, O'Loughlin J, Barnett T, Cohen JE, Gauvin L. (2012). Does Intolerance of Smoking at School or in Restaurants or Corner Stores Decrease Cigarette Use Initiation in Adolescents? Nicotine & Tobacco Research, 14(10), 1154-1160
- Thomas RE, McLellan J, Perera R. (2013). School-based programmes for preventing smoking. The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웹사이트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14651858.CD001293.pub3/full> 에서 2017년 8월 4일 인출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4). 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 50 Years of Progress.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Atlanta, GA: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Center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Office on Smoking and Health.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2). Preventing Tobacco Use Among Youth and Young Adults: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Atlanta, GA: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Center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Office on Smoking and Health.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7).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17: monitoring tobacco use and prevention policies. Geneva. WHO.

과보호양육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 우울과 공격성을 매개로

김원영* · 김정식⁺ · 윤하나**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이하, KCYPs)』 제7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과보호양육이 자아탄력성, 우울, 공격성을 매개로 학교폭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과보호양육과 자아탄력성, 우울, 공격성과 학교폭력가해경험에는 학교급별 차이가 있다고 보고 된 바, 학교급별 차이를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확인하였다.

부모의 양육형태를 과보호적이라 느끼는 학생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으며 우울과 공격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폭력가해행동의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은 낮고 우울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성이 높을수록 학교폭력가해행동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각 변인의 관계에 대한 학교급별 차이를 살펴 본 결과 과보호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경로와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경로에서 학교급별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대한 예방과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탐색해 보았다.

주제어 : 학교폭력, 과보호양육, 자아탄력성, 우울, 공격성

I. 연구의 필요성

최근 서울 한 사립초등학교의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한 학교문제로 여러 매체들의 주요기사로 보도되었다(동아일보 외, 2017). 이것은 학교폭력이라는 비행행동의 원인을 부모의 방임과 무관심으로 인한 결핍된 가정환경과 사회적 자본의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또 다른 요인들이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학교 폭력 피해경험을 보고한 청소년은 전체의 6.4%로 2015년 4.6%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6). 또한 가해나 피해 양상이 신체적 폭력과 함께 언어적, 정서적 폭력의 전 범위에서 매우 극단적인 수준에까지 이르

*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ksikim@knu.ac.kr

**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고 있다(김혜원, 2014). 이처럼 최근 우리사회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문제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점차 흉포화 되고 조직화되어 단순한 일탈과 탈선을 넘어 심각한 범죄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 학교폭력형태를 살펴보면 비행청소년에 의해서만 자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청소년들 사이에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일반화된 비행유형으로도 나타나고 있다(곽금주, 2005). 즉 학교폭력 문제가 그 범위가 넓어지고 동시에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급성장을 이루는 시기이며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에게 발달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문제행동으로 발전하기 쉽다. 또한 우리나라 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과 성취압력은 또래 간 경쟁을 부추기고 이것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을 가져와 일탈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이고 부모의 양육태도는 유아기와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까지 자녀의 심리상태와 인성, 정서 그리고 사회적 성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이다(오윤성, 2012). 자녀에게 있어 부모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은 우울, 사회적 위축,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공격성 등 부정적 심리 정서적 상태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우리 사회의 학력주의와 학벌지상주의는 부모의 최대 관심사가 자녀의 학교성적이 되어 부모는 자녀의 학업성적을 위해 방해가 되는 외부 유해환경으로 자녀를 보호하는 과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박혜련, 2003). 이러한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와 관심으로 자녀는 이에 대해 중압감과 강압감을 가지게 된다.

또한 과보호양육은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발달을 저해하고 신경증과 정신병리의 원인이 되며 자녀가 삶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으며, 자녀의 개별화나 정체성 형성을 방해하며 문제해결능력을 저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김지연·오경자, 2011; 정은영·장성숙, 2008). 이는 자아탄력성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자녀의 내면적 우울, 불안 분노 등 내현적 문제에 취약한 심리적 상태와 함께 어느 순간에는 공격성과 폭력 등 외현적 문제로 폭발한다는 결과가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8; 이덕진, 2007). 즉 심리적 문제는 청소년 불량의 원인으로 청소년 학교폭력과 같은 비행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폭력과 비행은 지속성과 함께 다른 많은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성은 우려해야 할 수준이다. 청소년의 우울은 이후의 자살생각(권세원·이동은·장은혜·한기주, 2013)이나 약물 남용(Diego, Field, & Sanders, 2003), 학업 수행문제(김정민·송수지, 2015; Fröjd et al., 2008) 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우울한 심리상태는 공격성으로 발전한다는 결과가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김현수 외, 1997; 김혜영, 2000; 김태순 외, 2008; 주지영, 2009). 또한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친구를 괴롭히는 등 학교폭력가해 행동과 비행행동이 지속될 경우 이후 강간이나 절도, 강도 등과 같은 범죄행동으로 발전될 수 있다(김종수, 2006; Loeber & Hay, 1997). 이렇듯 청소년기 부모의 과보호양육으로 인한 낮은 자아탄력성은 우울과 공격성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대한 취약성을 가져오고 이는 학교폭력이나 비행과 같은 외현화된 문제로 발현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현화 된 공격성 표출과 학교폭력 가해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성인기의 삶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Bender & Lösel, 2011; Hankin et al., 1998; Kessler, Avenevoli, & Merikangas, 2001)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청소년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과보호 양육을 통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과보호 양육이 자아탄력성, 우울, 공격성을 매개로 청소년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과정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과보호양육에 대한 영향정도가 학교급별 차이가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또한 과보호양육에 대한 영향정도가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과정에 대한 학교급별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는 연구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과보호양육이 자아탄력성, 우울, 공격성을 매개로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급별 차이는 어떠한지 추가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과보호 양육이 자아탄력성, 우울, 공격성을 매개로 청소년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과보호 양육과 청소년 학교폭력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이와 함께 청소년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향모색의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1995년 6월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등학생의 자살을 계기로 민간단체인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이 설립되면서 부터이다(문용린, 2007).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2013)에서는 학교폭력을 자기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에게 학교 안이나 밖에서 신체적·물리적 상해를 입히는 행동뿐 아니라 타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간의 모든 행동은 학교 폭력으로 정의하였다. 김성환(1999)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간의 폭력뿐만 아니라 교사 체벌도 포함하고, 폭력의 내용으로는 힘의 불균형상황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심리적 물리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였다. 또한 권정관(2012)은 학교폭력의 주체를 학생으로 한정하거나 또는 학생을 포함한 전체 청소년까지 포함시키기도 하고, 폭력의 범위에 따라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로 학교 내에 한정하거나 학교 외까지 포함시키기도 하며,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으로 한정하거나 혹은 교사와 학생간의 폭력까지 포함하기도 한다고 보았다. 즉 학교폭력은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도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학교에서 경험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까지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외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 또한 범위 장소 주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학자들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Olweus(1993)는 폭력가해 또는 폭력피해를 포함하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생이 개인이나 또래집단에 의해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부정적 행동에 노출되는 경우라고 하였다. 학교폭력

을 학습을 방해하거나 학교의 환경을 저해하는 모든 범죄 행동과 공격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하였으며(Furlong, 2000), 또한 심리적 관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학생에 의해 행해지는 광범위한 괴롭히는 행동과 감정들’(Dwyer, Osher & Warger, 1998)로 정의하였다. 한편 신체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신체적인 상해나, 괴롭힘, 강간 등을 야기하는 의도인 협박이나 신체적 힘의 사용’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Elliot, Hamburg & Williams, 1998; 김태화, 2007재인용). 이것은 학교 폭력이 학교폭력 가해자의 행동과 정서를 중심으로 표현되는 용어이며, 의도성, 반복성, 힘의 불균형이라는 의미를 포함하여 유약하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으며, 대항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개인에게 신체 심리 피해를 주는 공격성의 한 범주라 표현되어지기도 하여 공격성이라는 변수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포함한 정의이다(Olweus, 1993; 정하은, 2012 재인용).

이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범위, 장소, 주체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 정확하게 개념 정의를 하기는 어렵다. 2012년 1월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개념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2, 제2조 1항). 여기서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조 1-2항),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3항). 이와 같이 2012년 5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의 범위를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에서의 폭력 등으로 확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1월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개념과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에 근거해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정도로 규정하고자 한다.

2. 과보호양육, 자아탄력성, 우울 및 공격성과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요인, 친구요인, 학교요인, 사회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청소년기 발달에 있어서 가정요인, 그 중에서도 부모요인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청소년의 일탈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8; 이덕진, 2007).

우리사회 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과 성취압력은 과보호양육태도를 증가하게 하고 있으며 학계에서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과보호 양육은 1931년 Levy에 의해 처음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졌으며, 자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부모가 자녀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 지나치게 통제, 간섭, 기대하고 자율성을 저해함과 동시에 자녀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친 보호로 할 일을 대신해 주는 태도 및 행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정은영 외, 2008). 이러한 과보호양육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가져오고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기의 정신적 위험인자로 학령기의 부적절한 부모-자녀관계를 보고 있으며(문영숙·박인숙, 2005), 심리적 부적응 증상의 하나인 우울은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김미경 외, 2008; 안현정·모아라, 2012)고 한다.

과보호양육태도는 또래 간 경쟁을 부추기고 이것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을 가져오며 일탈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구희정, 2013; 김보경·민병배, 2006; 김원영 외, 2017; 우채영 외, 2010; 이세경·김영혜, 2011; 최성희, 2011; 정지영·김종남, 2011; 최인숙, 2012).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이고 부모의 양육태도는 유아기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까지 자녀의 심리상태와 정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이다(오윤성, 2012). 과보호양육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심리·정서적 보호요인인 자아탄력성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이윤주·신지연, 2006). 부모의 양육방식이 부적합할 때 자아탄력성과 새로운 것에 대한 탐색능력은 낮았다(장휘숙, 2001). 또한 부모의 과잉간섭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과잉간섭이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이지만, 부모의 양육방식이 애정적일 때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윤주·신지연, 2006).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로 과보호양육이 자아탄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보호와 우울과의 관계를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들도 볼 수 있다. 김재희와 주은선(2002)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비행행동연구에서 부모의 돌봄이 지나치거나 과보호적인 태도는 자녀의 심리와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우울과 불안정도를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동식(2004)도 과보호양육과 관련된 연구에서 어머니가 과보호적일수록 자녀들의 우울정도를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모의 과보호양육이 청소년의 우울을 포함한 심리·정신적인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교폭력가해행동의 주요영향요인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로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둔감해져 피해와 가해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준호 외, 1990; 도수경, 1990; 이재창, 1986; 이상철, 2005). Frazer(1996)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있어 가족구성원 간의 부정적 관계 특히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공격성을 강화하고, 이것이 다시 학교생활에서 또래 친구에 대한 대응행동 즉, 폭력으로 자리잡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적절한 감정조절과 스트레스와 좌절을 경험하는 상황변화와 그로 인한 환경적 요구에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반응하고, 적응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동원하는 능력으로 강한 외상

적 경험을 갖고 있는 상황, 만성적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상황과 위험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Block, 2006)이라 정의된다. 자녀는 성장과정에서 부모와의 애착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주고 받는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부정적 정서를 견뎌내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사회성과 정서발달, 그리고 정서조절 능력을 발달시킨다. 부모와의 애착 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도 자녀의 정서조절 방식을 예측하는 중요 변인이다. 어머니가 기쁨, 애정 등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출할수록 자녀의 부정 정서 회복력이 증가하고 실망스런 상황에서도 부정 정서표출을 적게 한다(이미리, 2009). Huey와 Weisz(1997)는 자아탄력성은 공격성, 과잉행동, 행동화 등의 외재화 문제와 우울, 불안, 사회 철회 등의 내재화 문제를 예언해준다고 했다. Robins 등(1996)도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에서 비탄력 집단보다 탄력집단은 내재화 외재화 문제가 적게 보인다고 하였으며, 박원주와 이기학(2008)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 공격성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한 외현화된 문제행동 즉, 학교폭력과 같은 일탈행동에 있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우울은 정상적 기분의 변화 상황에서 감정과 기분이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어 어려움을 겪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기분장애’로 정의된다(권경미, 2009). 이러한 청소년기 우울의 원인은 생물학적 또는 유전적인 요인, 부모의 우울 전이, 가족의 사회적 지원 결핍, 또래의 사회적 지원 결핍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한상철, 조아미, 박성희, 1997; 문경주, 오경자, 2002; 이효심, 2011). 심리적 부적응 현상인 우울감은 청소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문제행동에 대한 위험변인으로 주목받아 왔다(하영희, 2004). 또한 우울은 공격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많은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다(강신덕, 1997; 김동기, 최윤정, 2012).

청소년기의 공격성을 동반한 폭력 행동에 관한 연구(민병근, 백명기, 1981)에서는 청소년기의 공격성향이 이 시기의 비행 범법 행동과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보다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격성은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와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은 또래뿐만 아니라 교사, 부모 등 어른들에게도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이문자, 2003; 이은정, 2003; Olweus, 1994).

학교폭력 가해를 설명하는 개인 특성으로 공격성, 충동성, 자기통제력, 불안 등이 지목된 바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어 온 것은 공격성이다(장양자, 2001). 과도한 공격성은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반사회적인 방법을 습관적으로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가해로 연결되도록 하는 심리 요인 중 하나이다. 즉,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심리·정서적 문제를 통해 청소년의 높은 공격성을 표출하게 하여 학교폭력 가해와 관련성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공격성은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순히 그 개념을 설명하기 어려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신체적·언어적 행동,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고와 정서’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공격성은 타인에게 반복,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타인을 불편하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행위나 시도를 포함하고, 타인을 언어적·신체적·심리적으로 해할 목적을 가진 직·간접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Buss & Durkee, 1957). 이러한 공격성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도성’으로 일정한 상황에서 인간의 상호작용이 공격적이냐를 결정하는 하나의 준거가 되며 공격성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판단이나 문화적 기준에 따라 행위자의 지위, 역할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김재엽, 이순호, 2011).

구체적으로 공격성에는 물건차기, 협박, 욕설, 분노 등 외현적인 신체적·언어적 공격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공격행동을 유발하거나 분노를 야기하는 정서 상태까지도 포함된다(이경님, 2006). 분노가 크면 클수록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공격 행동의 결과는 양쪽 당사자가 계속적으로 공격적이게 서로를 자극하게 되고, 분노를 언어적이거나 신체적인 공격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허락 되면 그 공격적인 경향성은 더 강화되어 서로 보복하고 비난하는 경향성은 더 강화된다고 보고 있다(강신덕, 1998). 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격성은 단순한 개념 정의로 규정지을 수 없으며 의도성, 해로운 자극을 주는 것과 사회 조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달시기에 따라 극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으며 의도성이 강한 공격성은 주로 13세부터 15세 사이에 가장 많이 발견 되다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이영아, 2013; Lober & Stouthamer – Lober, 1987).

공격성은 비행과 폭력과 함께 가족요인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반사회적 성향이나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므로 청소년기 공격성에 대한 이해는 개인행동문제와 더불어 가족요인, 사회 상호작용 등과 연결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격성과 학교폭력 가해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또래 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공격적이었다. 청소년이 공격 성향을 가질수록 집단 따돌림과 더 많은 학교폭력 가해를 행함으로, 공격성은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상관관계가 높았다(김경, 2005; 도기봉, 2007; 이은정, 2003).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폭력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공격적이고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김명자, 2002; 아영아, 2005; 이상균, 1998; 이은정, 2003; 이해경, 김혜원, 2000; 장덕희, 2004; 조유진, 2006). 학교폭력의 실태나 원인을 조사한 연구들도 학교폭력 가해 요인들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심리적 특성으로 공격성을 거론하였다(도기봉, 2007, 2008; 민유기, 2000; 박기민, 2000; 이상균, 2005; 조유진, 2006). 특히 도기봉(2008)의 연구는 공격성과 충동성이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인 요인이라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학교폭력 문제는 점차 흉포화 조직화 되어 가고 있으며, 이것은 단순히 학교 내의 문제나 관련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우리사회의 성취위주와 학벌주의 환경은 과보호양육을 통해 청소년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이로 인한 여러 문제들은 심리·정서적 문제로 이어져 자아탄력성을 낮추고 우울을 높이게 된다. 아울러 이것은 공격적이라는 문제를 가져와 청소년의 학교폭력문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보호양육이 자아탄력성과 우울 공격성을 매개로 학교폭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부모의 과보호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과 우울, 공격성을 매개로 청소년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이하, KCYPS)』 제7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초1 패널’과 ‘초4 패널’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부분의 연구 대상은 중1, 고1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KCYPS는 2010년을 기준으로 향후 7년 간 매해 1회 개인의 성장 및 발달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 등에 관하여 전국의 초1, 초4, 중1 학년생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각 코호트 2,200여명)을 대상으로 반복,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조사이다. 본 연구는 부모의 과보호양육태도가 우울과 자아탄력성, 공격성을 매개로 청소년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MOS 18.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증분합지수인 CFI(Comparative FitIndex)와 TLI(non-normed fit index : TLI), 절대적합지수인(Absolute Fit Index)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통해 검증하였다. TLI, CFI는 모두 .90이상이며 RMSEA값도 .06이하이면 수용 가능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홍세희, 2000).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대부분의 대상은 중1과 고1 학생으로 연평균 가구소득은 약 5,128만원이며 부친의 최종학력은 평균 전문대졸 이상 모친의 최종학력은 평균 고졸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구성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은 3,636명으로 77.0%, 한 부모 가정은 266명으로 5.7%, 조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은 20명으로 0.4%로 확인되었다. 형제자매유무에서 형제자매가 있는 학생은 1129명으로 21.9%, 없는 학생은 2452명으로 51.9%로 확인되었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징

구분	내 용
성별	남 = 2,075명(44.0%), 여 = 1,906명(40.4%), 전체 = 3,981명
연평균 가구소득	약 5128만원
최종학력(부친)	3.16(전문대졸 이상)
(모친)	2.96(고졸 이상)
가족구성	부모와 자녀 구성 = 3636명(77.0%), 한부모가정 = 266명(5.7%), 조부모와 자녀 = 20(0.4%)
형제자매유무	유 = 1129(21.9%) 무 = 2452(51.9%)

2. 변수 및 분석모형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과보호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과 우울, 공격성을 매개로 청소년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변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가해 경험

학교폭력가해경험의 세부 문항 내용은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다른 사람 왕따시키기’, ‘패싸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다른 사람 협박하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 ‘다른 사람 물건 훔치기’, ‘성폭행이나 성희롱’으로 7문항을 경험 유무에서 경험있다는 ‘1’로 없음을 ‘0’으로 처리하여 경험을 합산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가해 경험 정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2) 과보호양육

과보호양육의 세부 문항 내용은 ‘부모님의 기대가 항상 내 능력 이상이어서 부담스럽다’, ‘나에 대한 걱정을 덜 하셨으면 좋겠다’, ‘나에 관한 다른 어떤 일보다 공부에 열정적이지 않다’, ‘나에게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 하신다’, ‘보통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해하시며 내게는 못하게 하신다’, ‘나에게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겨야 한다는 걸 강조 하신다’,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 ‘내가 원하는 일을 못 하게 하실 때가 많다’로 과잉기대 4문항과 과잉간섭 4문항을 하위변수로 사용하였다.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역코딩 처리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4점’을 나타낸다. 점수가 높을수록 과보호양육 정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과보호양육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0.838$ 로 나타났다.

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의 세부 문항 내용은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 낸다’, ‘나는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같은 장소에 갈 때도 늘 가던 길보다 다른 길로 가 보는 것을 좋아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나는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 한다’, ‘내 생활은 매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일부 의미가 반대인 문항을 제외한 문항들을 역코딩 처리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4점’을 나타낸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요인 분석 결과 13문항 중 공통성이 낮은 5, 9, 13, 14 문항을 제외한 9개의 문항을 3개의 하위변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아탄력성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0.858$ 로 나타났다.

4) 우울

우울의 세부 문항 내용은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걱정이 많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울기를 잘한다’, ‘어떤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외롭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모든 일이 힘들다’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역코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4점’을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다고 해석한다. 요인 분석 결과 10문항 중 공통성이 낮은 3, 4, 5, 11, 12, 13 문항을 제외하고 3개의 하위변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우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0.838$ 로 나타났다.

5) 공격성

공격성의 세부 문항 내용은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별거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하루 종일 화날 때가 있다’,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로 6문항을 하위변수로 사용하였다.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역코딩 처리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4점’을 나타낸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정도가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공격성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0.812$ 로 나타났다.

앞서 본 선행연구들의 결과 과보호양육은 자아탄력성을 낮추고 우울과 공격성을 높이며, 낮은 자아탄력성과 함께 우울과 공격성이 높아질 경우 이는 학교폭력을 높이는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은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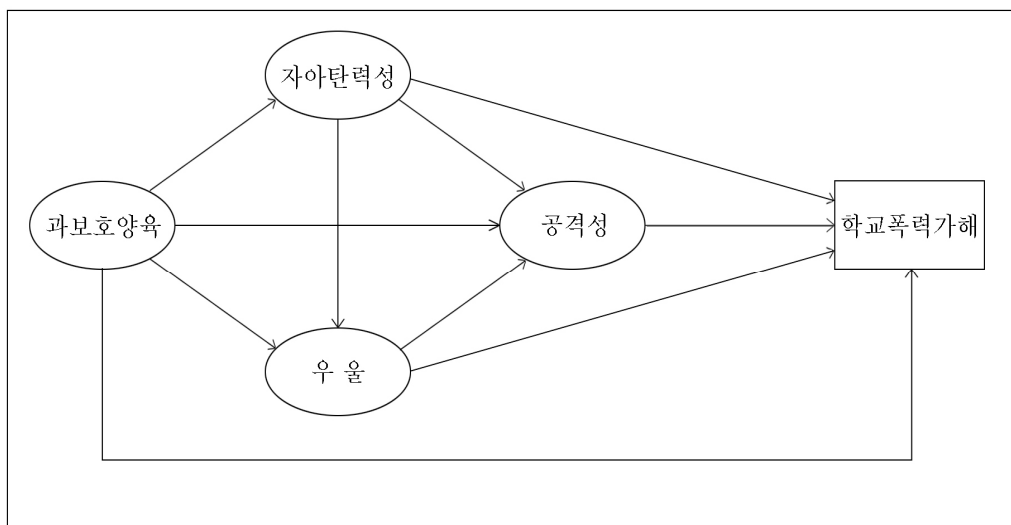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각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과보호양육	자아탄력성	우울	공격성	학교폭력
과보호양육	1				
자아탄력성	.020	1			
우울	.185***	-.402***	1		
공격성	.241**	-.218***	.538***	1	
학교폭력	.047**	-.027	.053***	.112***	1
N	3981	3981	3981	3981	3981
최소값	8	10	7	6	0
최대값	32	40	28	24	6
평균	16.11	26.89	10.55	9.65	0.036
표준편차	4.23	4.34	3.53	2.96	0.25

* : $p < .05$ ** : $p < .01$ *** : $p < .001$

2. 구조방정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3>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 값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TLI, CFI는 모두 .85이상이며 RMSEA값도 .06이하로 홍세희(2000)의 기준에 의하면 수용 가능한 것이므로 본 연구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표 3. 적합도

CMIN(df)	p	TLI	CFI	RMSEA
6036.519(451)	.000	.866	.885	.051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측정변수의 모수추정치가 모두 $p < .001$ 수준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설명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표 4.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표준오차)

측정변수	과보호양육		자아탄력성		우울	공격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자탄1	자탄2		
과기대1	1.000					
과기대2	.948(0.027)***					
과기대3	.744(0.026)***					
과기대4	.901(0.026)***					
과간섭1		1.000				
과간섭2		1.064(0.032)** *				
과간섭3		1.034(0.032)** *				
과간섭4		1.090(0.033)** *				
자탄1-1			1.000			
자탄1-2			.779(0.022)***			
자탄1-3			1.041(0.028)** *			
자탄1-4			.821(0.024)***			
자탄1-5			.577(0.021)***			
자탄2-1				1.000		
자탄2-2				1.066(0.027)** *		
자탄2-3				1.039(0.026)** *		
자탄2-4				.943(0.025)***		
자탄2-5				.857(0.030)***		
우울1					1.000	
우울2					1.057(0.027)** *	
우울3					1.064(0.030)** *	
우울4					1.170(0.030)** *	
우울5					1.048(0.025)** *	
우울6					1.194(0.029)** *	
우울7					1.226(0.028)** *	
공격성1						1.000
공격성2						.899(0.025)***
공격성3						.946(0.026)***
공격성4						1.001(0.025)***
공격성5						1.019(0.027)***
공격성6						.784(0.025)***

*** : $p < .001$

구조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는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과보호양육 → 자아탄력성, 과보호양육 → 우울, 과보호양육 → 공격성, 과보호양육 → 학교폭력, 우울 → 공격성, 공격성 → 학교폭력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양육형태를 과보호양육이라 느끼는 학생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으며 우울과 공격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가해행동의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은 낮고 우울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성이 높을수록 학교폭력가해행동의 경험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자아탄력성은 공격성과 학교폭력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우울도 학교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5. 구조모형의 모수 추정치

경로	비표준화	표준화	표준오차	C.R
과보호 → 자아탄력성	-.090	-.081	.018	-5.073***
과보호 → 우울	.221	.206	.016	13.859***
과보호 → 공격성	.174	.148	.017	10.337***
과보호 → 학교폭력	.019	.035	.008	2.313**
자아탄력성 → 우울	-.477	-.497	.023	-20.983***
자아탄력성 → 공격성	.001	.001	.020	.050
자아탄력성 → 학교폭력	-.006	-.013	.010	-.613
우울 → 공격성	.658	.602	.027	24.525***
우울 → 학교폭력	.023	-.044	.014	-1.639
공격성 → 학교폭력	.062	.132	.012	5.265***

*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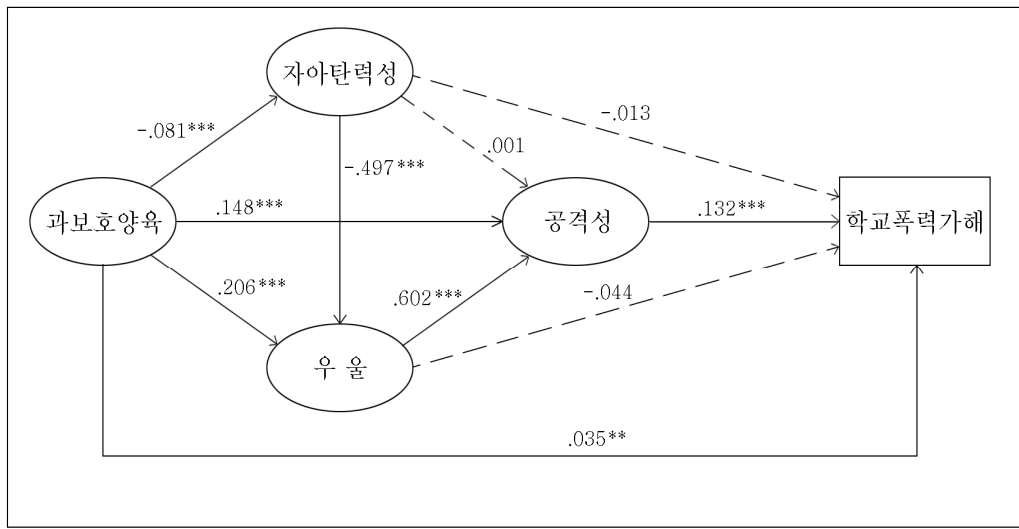
<표 6>은 연구모형에 나타난 각 경로의 효과를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각 간접효과는 Bootstrapping 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다.

표 6. 효과분해

추정변수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경로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과보호양육	-.090	-.081	-.090	-.081	-	-	→자아탄력성
	.264	.247	.221	.206	.043	.040	→우울**
	.347	.296	.174	.148	.174	.148	→공격성**
	.036	.064	.019	.035	.016	.029	→학교폭력*
자아탄력성	-.477	-.497	-.477	-.497	-	-	→우울
	-.313	-.298	-.001	.001	-.314	.299	→공격성***
	-.015	-.030	-.006	-.013	-.009	-.017	→학교폭력
우울	.658	.602	.658	.602	-	-	→공격성
	.018	.035	-.023	-.044	.041	.079	→학교폭력**
공격성	.062	.132	.062	.132	-	-	→학교폭력

* : $p < .05$ ** : $p < .01$ *** : $p < .001$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경로임)

과보호양육은 자아탄력성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에 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우울을 통해 공격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울은 공격성을 통해 학교폭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보호양육을 받고 있다고 지각한 청소년은 자아탄력성이 낮아져 우울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공격성이 나타나며 이것은 학교폭력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2. 최종결과

3. 학교급별 차이에 대한 다집단 분석

표 7. 모형의 학교급 집단별 모수추정치 (요인적재치에 동일성 제약 모형)

모수	중학생		고등학생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과보호 → 자아탄력성	-.096***	-.084	-.069**	-.066
과보호 → 우울	.232***	.222	.215***	.191
과보호 → 공격성	.163***	.140	.189***	.157
과보호 → 학교폭력	.046**	.070	-.008	-.024
자아탄력성 → 우울	-.436***	-.476	-.550***	-.509
자아탄력성 → 공격성	-.029	-.028	.015	.013
자아탄력성 → 학교폭력	-.016	-.028	.002	.007
우울 → 공격성	.669***	.604	.646***	.603
우울 → 학교폭력	-.041	-.065	-.006	-.019
공격성 → 학교폭력	.084***	.147	.034***	.115

*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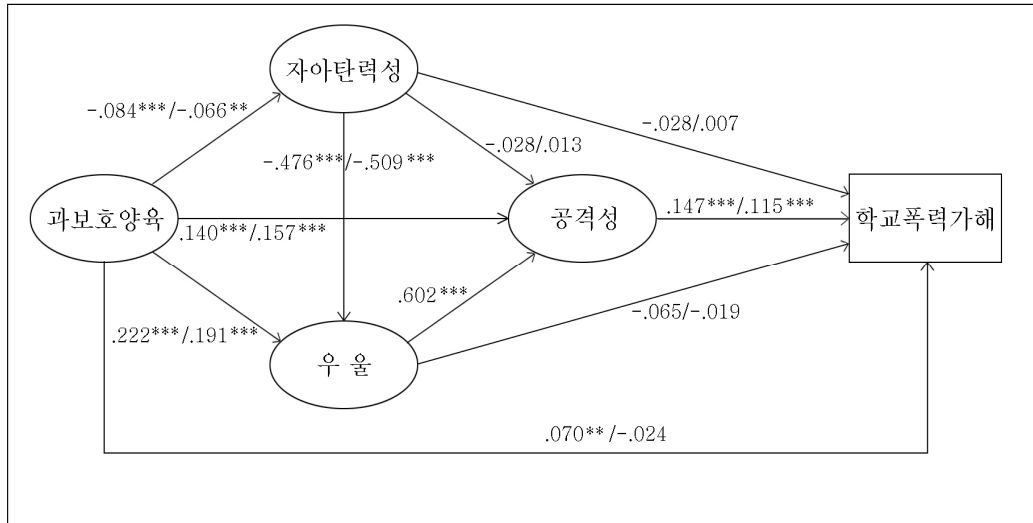
모형 내 존재하는 9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9개를 기저모형과 비교하여 학교급별 집단의 경로계수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동일성 제약을 모든 경로계수에 가해도 모형의 적합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한편 과보호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경로와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경로에서 학교급별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과보호양육 → 학교폭력’의 경로에서 중학생은 과보호양육이 학교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고등학생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 우울’의 경로에서는 모두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영향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보호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경로와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경로에서 학교급별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모형비교를 통한 학교급별 집단 간 차이비교

동일성 제약을 가한 경로	자유도 변화량	χ^2 변화량	TLI 변화량
과보호 → 자아탄력성	1	.578	0.000
과보호 → 우울	1	.306	0.000
과보호 → 공격성	1	.635	0.000
과보호 → 학교폭력	1	11.010***	0.000
자아탄력성 → 우울	1	6.945**	0.000
자아탄력성 → 공격성	1	1.042	0.000
자아탄력성 → 학교폭력	1	.887	0.000
우울 → 공격성	1	.281	0.000
우울 → 학교폭력	1	1.685	0.000
공격성 → 학교폭력	1	4.652	0.000
모든 경로에 동일성 제약	9	31.610***	0.000

* : $p < .05$ ** : $p < .01$ *** : $p < .001$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과보호양육 → 학교폭력’의 경로와 ‘자아탄력성 → 우울’의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를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림 3]에 학교급별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 : $p < .05$ ** : $p < .01$ *** : $p < .001$
 수치는 표준화 계수이며 중학생/고등학생 으로 표기함.

그림 3. 과보호양육, 자아탄력성, 우울, 공격성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학교급별 차이)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과보호양육이 자아탄력성, 우울, 공격성을 매개로 학교폭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과보호양육과 자아탄력성, 우울, 공격성과 학교폭력가해경험에 학교급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부모의 양육형태를 과보호적이라 지각한 학생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으며 우울과 공격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가해행동의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은 낮고 우울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성이 높을수록 학교폭력가해행동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과보호 양육이 우울과 공격성을 높이며(백양희, 최외선 1997; 최인숙, 2012), 학교폭력과 같은 비행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혜영, 2000; 문경주, 오경자, 2002; 정은영, 장성숙, 2008)와 일치하는 것으로 부모의 성취압박과 통제를 포함하는 과보호 양육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어 사회적 위축과 우울, 공격성을 높이며, 이것은 학교폭력가해 경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과보호양육이 학교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학교급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과보호양육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경로와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경로에서 학교급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과보호양육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경로에서 중학생은 과보호 양육이 학교폭력가해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에서 우울에 미치는 경로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에 있어 영향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성장과정에 따라 심리적 정서적 상태와 변화는 다르게 나타나고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부모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적절한 양육태도를 취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은 진로라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성인기에 더 가까운 시기이다. 미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발달과업은 고등학생들에게 더 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것은 자아탄력성이라는 심리적 변수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준다. 이에 부모는 청소년의 발달과정을 고려한 적절한 양육태도를 통해 낮은 자아탄력성과 우울, 공격성과 같은 심리적 위험요인들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이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 세상을 보며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 되어 자녀가 긍정적 사고와 올바른 자아상을 형성하는 과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부모의 지나친 교육열과 성취위주의 사고는 과보호양육이라는 양육형태를 가져왔고 이는 앞으로 우리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에게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준다. 이는 자아정체감과 긍정적 자아상 형성이라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할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심리적으로 사회적 위축, 우울, 공격성이라는 문제를 가져오며 학교폭력가해행동으로 발전한다(김혜영, 2000; 문경주, 오경자, 2002; 정은영, 장성숙, 2008). 이처럼 학교폭력가해행동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 중에서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태도로 기인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역기능적 양육태도의 하나인 과보호는 청소년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대책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고 이에 대한 처벌과 징계 그리고 '문제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라는 책임지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그 다음 대책에서 아이들의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나, 처벌과 징계, 책임지우기 라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받은 상처와 낙인은 고려하지 못 한다. 우리는 학교폭력이라는 문제에 있어 놓치고 있는 교육적 접근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학교폭력이라는 문제는 가해자, 피해자의 문제가 아닌 방관자 동조자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소년의 작은 일탈행동들이 학교폭력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김영화, 2012) 못하며 주위의 교육적 접근 혹은 일탈행동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 없을 경우 학교폭력이라는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의 학교폭력이라는 문제의 예방과 교육에 있어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할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 부모, 사회 그리고 가해당사자, 피해자, 동조자, 방관자 모두의 문제로 봐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역기능적 양육태도가 심리적 문제를 가져오고, 이것이 학교폭력가해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결과를 볼 때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올바른 양육태도를 갖고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부모교육의 내용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가해의 당사자인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적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와 사회에서는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대한 처벌과 징계 그리고 문제의 책임지우기 보다 학교폭력가해 학생의 심리적·정서적문제의 원인과 함께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하는 부분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각 학교에 학교폭력 전담 교사로 배치되어야 할 것이며, 언제나 아이들이 꺼리낌없이 자신들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일탈행동이 학교폭력과 같은 비행행동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업부담과 압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환경적 문제로 인한 많은 심리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담임교사 외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더 많은 인원의 교사가 필요하다. 학교라는 공간은 지식전달만을 위한 곳이 아닌 인성과 사회성,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전인적 공간이다. 이러한 학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형식적인 상담이 아닌 아이들이 정말 자신이야기를 터놓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인원의 교사들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함께 사회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과보호양육이 낮은 자아탄력성과 우울, 공격성이라는 심리적 문제를 통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확인함으로써 청소년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이해와 함께 예방과 대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과보호양육을 구성하는 요소로 과잉기대와 과잉간섭만을 반영하고 다른 요인들을 반영하지 못 했다. 더 많은 요인들이 과보호양육을 설명하는 요소로 작용하나 외부에서 구축된 데이터의 사용으로 반영이 어려웠던 점이 존재한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 사용으로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주관성으로 인한 왜곡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포함한다. 셋째, 연구에 이용한 데이터의 특성상 연구의 대상이 중·고등학생만을 포함하였으며 초등학생은 포함하지 못 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별 차이는 살펴보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포함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 시점에서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과보호양육, 자아탄력성, 우울, 공격성과 학교폭력가해행동만을 연구에 포함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과보호양육과 학교폭력가해행동의 인과관계를 통한 장기적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에 차후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대상과 자료선정을 통해 이러한 점들이 보완된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 경(2005). 청소년 비행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김명자(2002). "청소년의 학교폭력행위 예측모형 구축".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신덕(1997). 비행청소년 분노조절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권경미 (2009). 교양무용 참여 대학생들을 위한 우울증 및 대인관계 척도개발과 적용.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박사학위 논문.
- 곽금주, 문은영 (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 구희정 (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2), 295-314.
- 김보경, 민병배 (2006). 청소년 우울과 지각된 부모양육 행동, 기질 및 성격의 관계. 한국심리 학회지, 221-236.
- 김재엽, 이동은, 정윤경(2013). 청소년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자원봉사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4(3), 99-126.
- 김재희, 주은선 (2002). 지각된 양육태도의 세대간 연구와 부적응 청소년 집단과의 비교. 한국발달심리학회지, 14(4), 1-18.
- 김지연, 오경자 (2011). 부모의 과보호가 성인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30(3), 647-661.
- 도기봉(2007). 학교폭력을 경험한 여학생들의 문제와 집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입 효과. 복지행정논총, 17(2). 93-113.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1), 29-43.
- 문영숙, 박인숙 (2005). 여대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가 부모-자녀 애착과 자아개념 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건강학회지, 8(1), 75-88.
- 박원주, 이기학 (2010). 아동, 청소년상담: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긍정정서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2), 795-808.
- 이덕진(2007).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남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이미리 (2009). 청소년기 분노정서 경험의 발달과 자아존중감, 부모, 친구, 학업, 여가 맥락의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1(2), 127-143.
- 이상균(1998).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이세경, 김영혜 (201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이 숨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5), 245-266.
- 이윤주, 신지연 (2006).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부적응, 부모양육태도의 관계. 사회과학논총, 5, 111-127.
- 이은정(2003). 학교체계요인이 집단따돌림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정은영, 장성숙 (2008).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 개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0(2), 293-312.
- 정지영, 김종남 (2011). 중학생의 우울과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행동억제 기질 간의과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2), 227-254.
- 장덕희(2007). "청소년 학교폭력의 중복특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4(6), 69-97.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6). 2016년 전국한국학교폭력실태조사.

최성희 (2011). 개인 내적요인과 가정 및 학교 요인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지 실천 학회지, 3(1), 125-138.

최인숙 (2012). 성별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우울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1), 135-160.

Block, J. & Block, J. H. (2006). Venturing a 30-year longitudinal study. *American Psychologist*, 61(4), 315-327.

Huey, S. J. & Weisz, J. R. (1997). Ego control, ego resiliency, and the five-factor model as predictors of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n clinic-referred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3), 404-415.

방임적 양육태도가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하여 성인매체몰입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보호효과 검증

임선아*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정서행동문제인 우울감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하여 성인매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 관계를 검증할 뿐 아니라 이러한 변인 간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여 청소년의 내적 보호요인을 탐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초4패널의 5차부터 7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 집단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존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우울감이 성인매체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존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우울감이 성인매체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 집단에서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우울감을 매개하여 성인매체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존감이 높은 청소년 집단에서는 우울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제어 : 아동방임, 우울, 사회적 위축, 성인매체몰입, 자아존중감

I. 서 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발달된 IT 기술을 기반으로 인터넷과 스마트 폰을 통해 성인용 웹툰과 동영상과 같은 성인용 매체에 쉽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2015년 청소년 통계(통계청, 2015)에 따르면, 유해매체를 접한 중고등학생 가운데 52.6%가 휴대전화를 통해, 42.7%는 케이블 TV를 통해, 34.1%는 성인용 잡지 등을 통해 성인물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쉽게 음란물에 접촉하게 되면서, 음란물중독과 성비행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된다는데 있다(이해경, 2002). 성인용 매체는 가해적 성비행행동의 발현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되는데(김문녕, 2012; Peter & Valkenburg, 2009),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성인용 매체를 모방하여 성적 비행을 저지르거나 강간과 같은 강력한 성범죄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라 할 수 있다(손병덕, 2013).

Suler(1998: 남영옥, 2005 재인용)는 인터넷이 청소년의 이러한 충동을 표출하는 장이라고 지적하며, 욕구와 충동의 표출 수단으로 성인물이 사용될 경우 성인물 중독과 성적 비행의 위험성을 배제할

* 전북대학교

수 없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성인용 매체 이용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어기준(2000)은 청소년이 음란물에 자주 노출될수록 성적 충동이 증가하고, 왜곡된 성 의식을 형성하게 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성 비행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최명일(2009)은 청소년이 성인용 매체에 노출될수록, 성에 대한 허용성이 높아지고, 잘못된 성의식을 형성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송원영(2012)도 청소년기에 성인물이나 성적인 주제에 대해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우, 그 몰입이 강하게 지속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하게 매체를 통해 유입된 음란물의 노출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올바른 성의식과 가치관에 대한 고민 없이 충동적으로 성행동을 저지르게 하고, 청소년들 간에 데이트 성폭력이나 성매매와 같은 성 비행을 야기시킬 수 있음도 보고되었다(김상범, 남영옥, 2017).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이나 성인용매체몰입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부모의 양육태도이다(김병년, 최홍일, 2013). 부모의 부정적 양육형태는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에 처한 청소년에게 인터넷에 몰입하게 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도피처 역할과 지지를 받아 중독에 빠지게 만들게 된다(장미경, 이은경, 2007). 이는 청소년을 성인용매체에 무방비상태로 노출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방임적인 부모들은 자녀들과의 관계형성 및 친밀감이 없고, 통제를 하지 않아 방임적 부모의 양육 하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른 양육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 비해 표출적인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Baumrind et al., 2010; Hoeve et al., 2009) 때문에 방임적인 부모의 양육하에 자란 청소년들은 성인용매체에 더욱 접근하고 몰입하는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영옥, 이상준, 2005; Mesch, 2009; Ybarra & Mitchell, 2005).

한편 이러한 부모의 방임적 양육하에 자란 청소년들 모두가 성적 비행이나 음란물 몰입에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를 주목하여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신선인, 2008). 신선인(2008)은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연구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비행집단에 포함될 확률은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학대를 통해 정서심리적으로 취약해져 정서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거나 다른 환경적 요인과 결부하여 비행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학대 받은 아동은 여러 부분에서 심리적인 어려움과 적응상의 문제를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도 정서행동 문제는 방임과 학대로 인한 부적응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김평화, 윤혜미, 2013). 부모의 방임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행동문제를 낳고(정익중, 이지연, 2012), 청소년의 비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한다(임진섭, 2009; 조성상, 이서원, 2006).

이러한 정서행동문제는 또한 성비행이나 음란물중독 등과도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agley와 Ramsay(1986)는 성비행 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우울, 불안, 자살생각 및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하였으며(신기숙, 2002), 246명의 남자 성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Becker와 Kaplan(1993)의 연구에서는 42%의 청소년이 심각한 우울증을 보인다고 하였다. 음란물중독 청소년과 비중독 청소년 간의 심리적 특성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이정윤과 이상희(2004)에서 음란물중독 청소년은 비중독 청소년에 비해 더 우울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건강에 있어서도 위기 청소년들이 일

반 청소년들 보다 우울하고 위축된 증세를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며(Unger et al., 1997; 한상철·이수연, 2003; 하은혜 등, 2003).

이와 더불어 우리는 부모의 학대가 곧바로 비행이나 정서적부적응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했음에도 정서적부적응행동을 보이지 않거나 경미한 정도로 부적응적 행동을 나타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보호요인의 문제, 적응적 행동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보호요인의 탐색이 중요하다. 그 중개인적 요인으로서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들의 발달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주는 요인이라는 점은 여러 학자들이 밝힌 바 있다(Bogenschneider, 1996; Gore & Ekenrode, 1994). 학대에 대해 어떤 청소년은 부적응 행동 문제를 보이고, 어떤 청소년은 부적응 문제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개인 내적인 변인에 의한 개인차 때문일 수 있다(김기환, 2009). 개인의 내적인 변인 중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방임이 청소년의 성인매체몰입과 같은 부정적인 발달 고리의 연결을 막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즉 자아존중감의 보호역할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성인용매체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있어 정서행동 문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부모의 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외현화적인 비행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편중되어 있는 반면(강지현, 2014; 김소연·전종설, 2015), 성적매체몰입과 같은 내현화된 비행에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미흡하다. 또한 청소년의 성문제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성범죄자를 위주로 연구되거나 성중독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일반 청소년들이 성인매체 관련 행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김문녕, 2012; 김재엽·송아영·한샘, 2010; 이수정, 2014).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내 방임과 청소년의 성인용매체 몰입에 대한 인과관계에서 우울과 위축이 갖는 영향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보호적인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제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고 보다 효과적인 개입방법들을 도출하는데 함의를 두고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에서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의 초 4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초 4 패널은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들 가운데 다단계층화집락표집(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 방식에 의해 추출된 2,378명의 대상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한 종단연구 자료로서, 본 연구에서 관심 있는 방임과 정서행동 문제 그리고 성인매체몰입 변인을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5차(2014년-중2), 6차(2015년-중3), 7차(2016년-고1)에

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초 4 패널 중에서 5, 6, 7차 전체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전체에 결측인 사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873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위해 자존감이 높은 집단과 자존감이 낮은 집단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자존감이 높은 집단은 916명, 자존감이 낮은 집단은 957명으로 나누었다. 나머지 부분적 결측치의 처리에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적용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부모의 방임, 우울감, 사회적위축, 성인매체몰입 변수의 데이터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를 사용하였다. 부모의 방임은 2014년 자료에서, 우울감과 사회적위축은 2015년 자료에서, 성인매체몰입은 2016년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구체적인 변수구성과 측정문항은 다음과 같다.

1) 부모방임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변인은 허묘연(2000), 김세원(2003)의 아동학대문항을 중 방임의 4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문항은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 보신다’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점=‘매우 그렇다’부터 4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신뢰도(Cronbach’s α)는 .733이다.

2) 우울감

우울감 변인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의 간이정신 진단검사 중 우울척도 13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하고 수정하여 사용한 10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문항은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 (1점=‘매우 그렇다’부터 4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로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신뢰도(Cronbach’s α)는 .893이다.

3)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 변인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에서 김선희와 김정연(1998)이 개발한 척도에서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한 5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문항은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점=‘매우 그렇다’부터 4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신뢰도(Cronbach’s α)는 .901이다.

4) 성인매체몰입

성인용 매체 몰입도 변인은 김은정, 이세용과 오승근(2003)이 개발한 인터넷 중독 척도 문항 중 유해매체와 관련 있는 8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문항은 ‘나는 성인 매체를 이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잔다’이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 (1점=‘매우 그렇다’부터 4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로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성인매체몰입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91로 나타났다.

5)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변인은 Rosenberg(1965)의 자존감척도를 변안하여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2000)에서 재인용한 10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문항은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이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 (1점=‘매우 그렇다’부터 4점=‘전혀 그렇지 않다’까지)로 역채점하여 점수를 계산하였으며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신뢰도(Cronbach's α)는 .851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우울과 위축, 성인매체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 그 구조적 관계가 자아존중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분매개모형(따돌림경험-자아탄력성-학교적응)을 설정하였다. 이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문항 묶음(item parceling)방법을 이용하여 각 하위 문항별 평균평점을 산출하여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다음,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우울과 위축, 성인매체몰입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기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카이제곱 통계량,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NNFI(Non-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등의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RMSEA는 보통 .05 이하일 경우 그 모델은 적합도가 좋다고 해석하고 .08 이하일 경우 양호하다고 평가하며, CFI, NNFI는 적합도 지수가 .90이상일 때 그 모델의 적합성이 좋다고 해석한다(Hong, Malik, & Lee, 2003). 다음으로, 구조모형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한 후 구조모형에서의 변수들 간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고 집단에 따라 변인 간 관계의 경로값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치와 상관값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상관값과 기술통계치는 다음의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상관값을 살펴보면, 자존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부모방임과 우울, 부모방임과 사회위축, 우울과 사회위축, 우울과 성인매체몰입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부모방임과 우울감, 부모방임과 사회위축, 사회위축과 우울, 우울과 성인매체몰입, 사회위축과 성인매체몰입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정상분포조건(왜도 ± 3 , 첨도 ± 10 이하)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Kline, 2005), 모든 변인들이 정규성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대우도법으로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표 1.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값

		부모방임	우울감	사회위축	성인매체몰입
	부모방임	—	.224***	.156***	.032
	우울감	.157***	—	.508***	.066*
	사회위축	.095**	.538***	—	.023
	성인매체몰입	.033	.093**	.072*	—
평균	상 자존감	1.690	5.222	5.061	4.262
	하 자존감	1.876	6.597	5.987	4.397
SD	상 자존감	.552	1.629	1.870	.564
	하 자존감	.525	1.782	1.761	.745
왜도	상 자존감	.465	.790	.300	-.009
	하 자존감	.058	.316	-.142	2.844
첨도	상 자존감	.169	.627	-.582	6.377
	하 자존감	.484	.668	-.278	8.748

주. 위의 삼각형은 자존감 높은 집단; 아래 삼각형은 자존감 낮은 집단

* $p < .05$, ** $p < .01$, *** $p < .001$

2. 모형 분석 결과

모형에서 설정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부분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즉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정서행동문제인 우울감과 사회위축을 매개하여 성인매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으로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성인매체몰입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정서행동문제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자존감이 낮은 집단과 자존감이 높은 집단 모두에서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

집단의 부분매개 모형은 카이스케어 값이 464,966($df=49$), CFI=.928, NNFI=.903, RMSEA=.084로 나타났고, 자존감이 높은 청소년 집단의 부분매개 모형은 카이스케어 값이 351,637($df=49$), CFI=.936, NNFI=.914, RMSEA=.072로 나타났다.

표 2. 모형의 경로 추정치

			자존감 낮은 집단			자존감 높은 집단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방임	↪	우울	.775***	.166	.193	1.149***	.196	.280
방임	↪	위축	.651**	.209	.141	1.420***	.271	.213
우울	↪	성인매체몰입	.058**	.019	.112	.031	.017	.076
위축	↪	성인매체몰입	-.005	.015	-.011	.001	.009	-.002
방임	↪	성인매체몰입	.061	.080	.029	.029	.069	.017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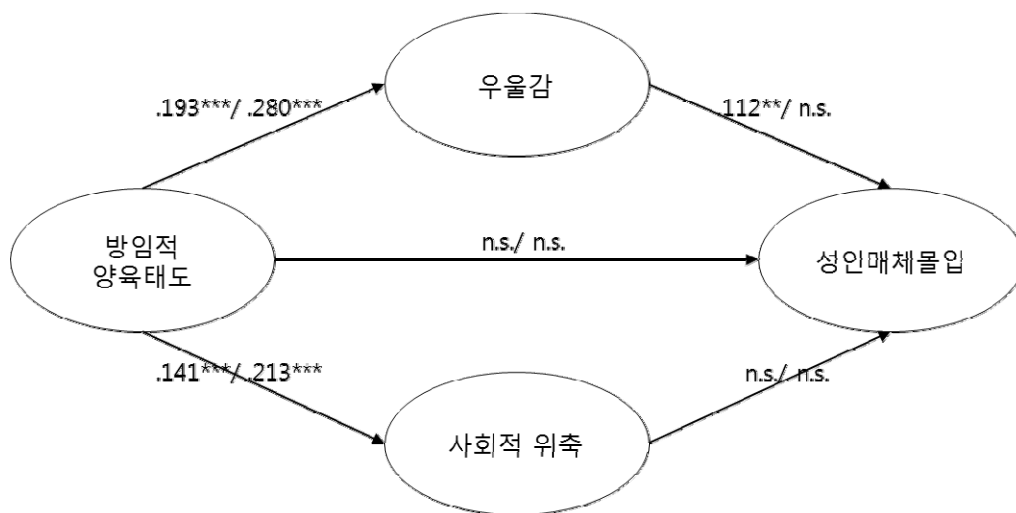


그림 1. 모형의 경로 추정치

주. 왼쪽 경로값은 자존감 낮은 집단/ 오른쪽 경로값은 자존감 높은 집단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2〉는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 집단과 자존감이 높은 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정서행동문제인 우울(자존감 낮은 집단 $\beta=.193$, $p < .001$; 자존감 높은 집단 $\beta=.280$, $p < .001$)과 사회적 위축(자존감 낮은 집단 $\beta=.141$, $p < .001$; 자존감 높은 집단 $\beta=.213$, $p < .001$)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우울감이 성인매체몰입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112$, $p < .01$) 자존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우울감이 성인매체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랩핑 결과는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 집단에서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우울을 매개하여 성인매체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 = .019, p < .01$), 자존감이 높은 청소년 집단에서는 정서행동문제의 매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매개효과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90% C.I. (bootstrap with bias correction)
<u>자존감 낮은 집단</u>							
방임	↪	우울	↪	.039**	.019	.019	(.005, .040)
	↪	위축	↪	.019	.014	.009	(-.001, .020)
<u>자존감 높은 집단</u>							
방임	↪	우울	↪	.033	.022	.020	(-.004, .047)
	↪	위축	↪	.010	.013	.006	(-.012, .021)

* $p < .05$, ** $p < .01$, *** $p < .001$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자존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경로의 차이가 나타났다(<표 2>와 <표 3> 참조). 구체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우울감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이것이 성인매체몰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에서 우울감을 매개하여 성인매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우울감은 성인매체몰입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성인매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우울감이 매개하는 매개효과 또한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 집단에서 나타났다.

IV. 요약 및 정리

본 연구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정서행동문제인 우울감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하여 성인매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 관계를 검증할 뿐 아니라 이러한 변인 간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여 청소년의 내적 보호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초4패널의 5차부터 7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선행연구결과와 연계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 집단과 자존감이 높은 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정서행동문제인 우울과 사회적 위축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임을 경험한 아이들은 타인들이 자신의 욕구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 믿게 되며 이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시도하지 않으며 사회적 위축과 수동성이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는 이배근(200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또한

방임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성향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조옥자, 현은강, 2005; 황은수, 2006)를 지지한다. 이는 정서행동문제에 부모의 무관심이나 소홀한 양육태도로 인한 방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가정에 있어서의 기능적 결손의 문제가 청소년들의 정서행동적 문제에 심각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자존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우울감이 성인매체몰입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존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우울감이 성인매체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감이 성인매체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청소년의 자존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우울감이 높더라도 이것이 성인매체몰입과 같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개인 내적인 변인인 자존감은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방임적 양육태도를 경험했음에도 성인매체몰입과 같은 부적응행동을 보이지 않거나 경미한 정도로 부적응적 행동을 나타내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 가정의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주는 요인임(Bogenschneider, 1996; Gore & Ekenrode, 1994)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이 지닌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방임이 청소년의 성인매체몰입과 같은 부정적인 발달의 고리의 연결을 막는 보호요인임을 확인해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 집단에서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우울감을 매개하여 성인매체몰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존감이 높은 청소년 집단에서는 우울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는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으로 가정폭력이나 원만하지 못한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부정적 의사소통 등 부모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가족의 영향력을 강조하며(Bischof, Stith, & Whiteny, 1995), 성문제 관련 행동에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문제가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성인매체몰입과 같은 부적응적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에 대해 자아존중감의 향상이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부모방임이 성인매체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조절효과를 나타냄을 보이며, 부모의 방임에 의해 정서적부적응행동이 생기고 이런 정서적부적응행동에 의해 성인매체몰입을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방식의 접근을 통해 정서적부적응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라는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을 탐색하여 이를 처치해 주는 등의 보다 적극적이고 개입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같은 가족 내에서의 문제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요인은 현실적으로 제거 또는 차단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Voydanoff & Donnelly, 1999). 따라서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중재 또는 상쇄시켜 주는 보호요인을 탐색해 내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성인매체몰입과 같은 위험행동 및 문제행동을 유발할 확률을 낮추는 요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Voydanoff & Donnelly, 1999; 한상철, 2008). 본 연구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성인매체몰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인 발달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함을 보임으로써 위험요인의 영향을 경감시키는 작용을 하는 요인으

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는 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강지현 (2014). 후기 아동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에 미치는 아동의 성별, 지각된 학업성적, 부모, 또래의 영향. **초등상담연구**, 13(1), 155-173.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90).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중앙적성출판사.
- 김기환 (2009). 부모의 자녀학대가 보호관찰청소년의 정서적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보호관찰**, 9(2), 215-258.
- 김문녕 (2012). 청소년의 성범죄 이해와 성인물 중독 실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2(1), 47-71.
- 김병년, 최홍일 (2013).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29(1), 1-25.
- 김상범, 남영옥 (2017). 청소년의 성비행과 자극추구성향, 또래동조성, 비행친구접촉의 경로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4(1), 51-73.
- 김상범, 남영옥 (2015).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과 성비행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비행친구접촉의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7(4), 263-285.
- 김소연, 전종철 (2015). 아동학대 경험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7(4), 387-410.
- 김옥수, 김솔휘, 이지현(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성인용 매체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3(1), 43-67.
- 김은정, 이세용, 오승근 (2003). 한국판 청소년 인터넷 중독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1), 125-139.
- 김세원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 송아영, 한 샘 (2010). 연구논문: 청소년 자녀의 가정폭력목격경험과 자녀학대피해경험중복피해에 따른 우울 및 폭력비행행동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12), 1-26.
- 김재엽, 김희수, 양혜원 (2006). 가정폭력노출아동문제의 심각성 및 이에 대한 복지적 대책. **가족법연구**, 2(1) p83-119
- 김재철, 최지영 (2011). 부모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0(1), 19-32.
- 김평화, 윤혜미 (2013).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서결핍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1, 217-239.
- 권자영 (1991).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영옥 (2005).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게임중독, 음란물중독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 **청소년학연구**, 12(3), 363-388.
- 남영옥, 이상준 (2005).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과 성비행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2(1), 34-49.

- 손병덕 (2013). 주제발표 I 청소년 성범죄 실태와 개입 프로그램 분석. 한국청소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14.
- 송원영 (2012). 경험논문: 가족응집력이 성범죄 청소년의 성증독에 미치는 영향: 외로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1), 217-227.
- 신기숙 (2002). 청소년성폭력가해자의심리사회적특성에관한질적연구.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선인 (2008).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아동,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23, 153-182.
- 안동현 (2000). 아동방임의 본질과 사회적 의미. **아동과 권리**, 4(1), 7-26.
- 안지연, 손영은, 남석인 (2014).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4(3), 261-284
- 여기준 (2000). 청소년의 컴퓨터 중독 유형과 제반 문제점. 한국청소년상담원 제 19 회 특수상담사례 연구발표회 발표논문, 1-11.
- 이배근(2004). **아동학대의 이론과 실제**. 서울: 신흥메드싸이언스
- 이성식 (2004). 청소년 사이버일탈의 설명요인에 관한 일 연구. 형사정책연구, 57, 121-154.
- 이수정 (2014).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특이성,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국경찰연구**, 13(2), 271-310
- 이정운, 이상희 (2004). 청소년의 음란물중독과 우울, 외로움, 충동성, 감각추구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2(2), 145-155.
- 이해경 (2002). 청소년들의 음란물, 음란채팅, 폭력게임 중독 경험에 대한 비교분석. **청소년학연구**, 9(1), 91-114.
- 임진섭 (2009). 청소년비행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2SLS (2 Stage Least Square Method) 을 이용한 분석. **사회복지연구**, 40(4), 101-126.
- 장미경, 이은경 (2007). 초등학교의 인터넷 사용욕구와 부모관련변인이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125-1138.
- 정익중 (2008). 아동학대 경험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는 발달경로. **아동학회지**, 29(4), 79-95.
- 정익중, 이지언 (2012). 학대와 따돌림이 청소년기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2), 217-242.
- 조민자 (2012).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 및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0(1), 15-25.
- 조민자 (2013). 우울, 불안 및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과 정서인식명확성과의 관계. **한국통합치료학회**, 5(2), 5-30
- 조성상, 이서원 (2006).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인터넷 중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7(4), 117-131.
- 조옥선, 백진아 (2015). 융복합시대 부모 방임이 청소년의 성인용 매체 몰입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4), 349-356.
- 조옥자, 현은강(2005). 모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우울 성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3), 141-161.
- 최명일 (2009).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음란물 노출이 실제 성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3(2), 49-69.

- 하수홍, 장문선(2013). 정서적 학대 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련성에서 거절민감성,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833-852.
- 하은혜, 오경자, 손동호 (2003). 청소년기 우울 및 불안증상 공존집단의 심리사회적 위험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127-144.
- 한상철 (2009). 청소년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6(4), 185-210;
- 한상철, 이수연 (2003) 가출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행동에 대한 상담학적 개입전략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1), 152-165.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5). 2015년 청소년 통계. 서울: 통계청.
- 황은수 (2006). 아동의 학대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인식정서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gley, C., & Ramsay, R. (1986). Sexual abuse in childhood: Psychosocial outcomes and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Journal of Social Work & Human Sexuality*, 4(1-2), 33-47.
- Baumrind, D., Larzelere, R. E., & Owens, E. B. (2010). Effects of preschool parents' Power: Assertive patterns and practices on adolescent development. *Parenting*, 10, 157-201.
- Becker, J. V., & Kaplan, M. S. (1993).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of the Juvenile sex offender*, In H. E. Barbaree & W. L. Marshall (Eds.), *The Juvenile Sex Offender*,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
- Bogenschneider, K. (1996). Family related prevention programs. *Family relations*, 45, 127-128.
- Bolger, K. E., Patterson, C. J., & Kupersmidt, J. B. (1998). Peer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among Children who Have Been Maltreated. *Child Development*, 69(4), 1171-1197
- Bryant, J., & Oliver, M. B. (2009).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Routledge.
- Camodeca, M., Goossens, F. A., Terwogt, M. M., & Schuengel, C. (2002). Bullying and victimiz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Stability links to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Social Development*, 11(3), 332-345.
- Gore, S., & Ekenrode, J. (1994). *Context and process in research on risk and resilience*. In R. J. Haggerty, L. R. Sherrod, N. Garmezy & M. Rutter, (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N. 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eve, M., Dubas, J. S., Eichelsheim, V. I., van der Laan, P. H., Smeenk, W., Gerris, J. R.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nd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7(6), 749-775.
- Malamuth, N. M. (1996). Sexually explicit media, gender differences, and evolutionary theory. *Journal of Communication*, 46(3), 2-31.
- Mesch, G. S. (2009). Social bonds and Internet pornographic exposur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32(3), 601-618.
- Peter, J., & Valkenburg, P. M. (2009). Adolescents'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internet material and notions of women as sex objects: Assessing causality and underlying processes. *Journal of Communication*, 59(3), 407-433.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Vol. 11, p. 326).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Unger, J. B., Kipke, M. D., Simon, T. R., Montgomery, S. B., & Johnson, C. J. (1997). Homeless youths and young adults in Los Angeles: Prevalence of mental health problem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5*(3), 371-394.
- Vega, V., & Malamuth, N. M. (2007). Predicting sexual aggression: The role of pornography in the context of general and specific risk factors. *Aggressive Behavior, 33*, 104-117.
- Voydanoff, P., & Donnelly, B. W. (1999).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intersection of the paid worker, spouse, and parent roles with the role of the adult chil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3), 725-738.
- Suler, J. (1998). Adolescents in Cyberspace: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Psychology of Cyberspace. Retrieved on August, 28, 2007
- Zillmann, D., & Bryant, J. (1988). Effects of prolonged consumption of pornography on family values. *Journal of Family Issues, 9*, 518-544.
- Ybarra, M. L., & Mitchell, K. J. (2005).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Sexual Research, 36*, 237-249.

사회적자본과 청소년의 비행

오선정**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청소년기 사회적자본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의 중1 패널에 따르면 지역사회 인식,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도로 측정한 중학생의 사회의식 수준은 상당히 낮다. 지역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높은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도를 가지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은 전체의 6%에 불과하다.

사회적자본이 비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때 학교에 사회의식 수준이 높은 동급생이 많거나 학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동급생이 많을수록 고등학생 청소년의 비행확률이 낮다. 중학교 동급생 중에 높은 사회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1%p 늘어나면 평균적으로 비행확률이 0.32~0.33%p 낮아진다. 이는 비행여부 변수의 표준편차 한단위(0.24) 이상의 크기로 그 영향은 상당히 크다. 또한 청소년의 중2 시절 학교환경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지속된다. 이는 사회적자본의 영향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임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여자 고등학생이 비행을 할 확률이 19~27%p 낮고, 어머니가 대졸학력이면 비행을 할 확률이 4~6%p 낮다.

본 연구결과는 한 개인의 일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소년의 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역이나 학교에서 사회적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주제어: 청소년 비행(Adolescent misbehavior),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 동료효과(peer effects)

I. 들어가며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을 이용하여 청소년기 사회적자본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사회적자본은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는데 이 중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요소는 생산성 편익을 발생시키는 사회관계이다(Bhandari & Yasunobu, 2009). 다수의 해외연구에 따르면 한 사회의 공동체, 이웃, 타인에 대한 신뢰 등으로 측정되는 사회적자본이 높을수록 그 사회의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에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자본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이 집 밖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류하는 동료학생의 높은 사회적자본 수준은 청소년이 잘못된 행동(비행, misbehavior)을 할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sunjungoh@kli.re.kr

본 논문은 2017년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사회적자본과 노동시장 성과 - 인적구성을 중심으로'의 일부내용을 요약한 것임

일반적으로 공공정책(public policy)은 그 세부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결과물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교육정책은 학생의 교육성취도 및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바탕으로 주로 평가된다. 하지만 공공정책은 공익이라는 측정이 힘든 최종 목표를 발생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그 효과가 발생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부정책별로 특정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정 정책에 대한 직접적이며 즉각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기 어려운 정책 중의 대표적인 예로 주변 인적구성원들간의 신뢰 및 관계를 향상시키는 지역사회(local community) 및 공동체 의식,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등에 관한 정책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대체로 낮은 편이다.

본 연구의 주요목적은 청소년의 지역사회, 공동체,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학부모의 교육수준을 사회적자본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이 사회적자본이 청소년 개개인의 현재 및 미래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사회적자본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청소년기 경험은 그 개개인의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성인에 비해서 아동, 청소년 등 저연령층 인구의 행동이나 인식에 정책이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할 경우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같은 시도내 학교간의 사회적자본 수준의 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한 본 논문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청소년기 사회적자본이 높을수록 청소년기 비행확률이 낮다. 또한 이 효과는 단기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진행된다. 상기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및 공동체 구성원간 신뢰 및 교류의 중요성과 구성원간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은 관련 사회적자본 및 청소년 비행에 대한 선행연구를 요약하고, III장은 분석방법, 분석자료 등 연구방법을 설명하며, IV장은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V장은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청소년의 비행 및 일탈행동은 개인의 성향에서부터 성장과정 및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왔다. 사회적자본의 관점은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청소년 집단의 사회적자본은 크게 가족, 학교, 지역사회로 구분되는 세 가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이재영·공태명, 2010).

첫 번째 네트워크는 청소년이 가족과 이루는 유대감, 부모의 관심 등을 포함하는 가족 사회적자본이다(Coleman, 1988). 가족 사회적자본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며(김경식·최성보·이현철, 2009; 문은식·김충희, 2002), 청소년의 비행 및 반규범적 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강현아, 2007; 정소희, 2007; McNeal, 1999). 제1~3차 한국청소년패널 자료를 분석한 강현아(2007)는 부모, 교사, 친구를 통해서 형성되는 사회적자본이 향후 학교와의 유대감으로 설명되는 사회통제에 대한 순응 성향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또한 이러한 성향이 이후 중비행(비행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

한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강현아(2007)에 따르면 제1차년도에 조사된 사회적자본은 2차년도에 조사된 학교와의 유대감에 정적인 관계가 있고 이는 다시 3차년도에 조사된 중비행정과 부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사회적자본은 중비행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아 가족 사회자본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학생이 사회통제에 순응하는 성향을 매개로 하여 중비행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렇듯 가정은 청소년의 규범적 성향을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 산업화와 더불어 가정이 전통적으로 맡았던 역할의 상당 부분은 학교 및 지역사회로 이전되고 있다(Portes, 1998). 사회적 규범을 형성함에 있어 학교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학교에서의 사회자본은 교사와 학생간 혹은 학생과 학생간 등 구성원간의 긍정적 관계에서 비롯되며(최준호, 2010), 학생의 학업성취도, 학교적응, 일탈행동 등 다양한 행동적, 성취적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영·공태명, 2010; 문은식·김충희, 2002; 이경은, 주소희, 2008; 김천기, 2004). 예를 들어, 제5차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청소년의 경비행 횟수를 분석한 이재영·공태명(2010)에 따르면 강현아(2007)와 유사하게 부모가 자녀의 활동에 더 깊게 관여할수록 일탈행위의 빈도는 낮았으며 학생이 학교를 신뢰할수록 더 적은 일탈행위의 빈도가 낮았다. 이재영·공태명(2010)은 학교 사회자본은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생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자본은 이웃간의 유대를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3차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고등학교 1학년생을 분석한 정기원·권량희(2006)의 연구에서도 학생의 교사와의 관계는 비행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신뢰 등의 학교 사회자본은 부모의 관여도 등의 가족 사회자본과 더불어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저해하기 때문에 학교가 학생의 부정적인 행동을 막는데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학교라는 공동체의 사회자본 중 학생 개인의 행동에 가장 큰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또래 친구와의 관계이다. 제1~3차 한국청소년패널 자료를 분석한 강현아(2007)에 따르면 친구와의 관계가 비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낮지만 이는 공부 흥미도 등 학교 유대감의 형성을 매개로 하여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친구와의 관계는 교사와의 관계보다 학업성취도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이현철·김경식·최성보, 2016; 황매향, 2006). 이는 또래와의 관계가 학교에 적응하는 것에 영향을 주며 이는 다시 비행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청소년이 친구와 얼마나 가깝게 지내는지의 정도가 비행에 영향을 준다. 친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 등이 긍정적인 규범의 형성을 돕고 결과적으로 비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청소년의 비행에는 친구와의 관계의 깊이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맺는 대상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비행을 일삼는 청소년과의 접촉이 많은 학생은 비행에 스스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제2~5차년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중1패널 자료를 분석한 황성연(2016)에 따르면 비행친구와의 지속적인 접촉은 경비행을 증가시킨다. 또한, 박영신·김의철(2010)은 친구의 일탈행동, 친구의 자기효능감, 친구의 부모자녀관계, 설문자의 일탈행동 및 부모자녀관계 등을 5개 고등학교 1,399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고등학생의 일탈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친구의 일탈행동임을 밝혔다. 또한 친구의 가정배경 역시 학생의 여러 행동적인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대학을 졸업한 어머니가 있는 친구가 많을수록 학교를 중퇴하거나 마약을 하는 등 일탈행동을 할 확률이 낮으며 반대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있다(Bifulco, Fletcher, and Ross, 2011; Bifulco, Fletcher, Oh, and Ross, 2014). 이러한 결과들은 친구와의 관계와 더불어 친구의 성향과 배경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 행동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자본도 청소년의 비행 및 일탈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이다. 사회통제이론에 의하면 비행은 개인이 사회와 멀어지거나 사회와의 관계가 끊어질 때 발생한다고 보며 사회적 보살핌과 교양이 범죄적 성향을 줄이는 것이라고 본다(Rosenfeld, Messner, and Baumer, 2001).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하면 비행 및 일탈행동은 학생의 행동에 대한 지역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 때 늘어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사회자본은 학생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지역 사회자본은 청소년의 규범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제4차 한국청소년패널 중1패널 자료를 분석한 김경식·최성보·이현철(2009)에 따르면 학교 및 지역사회 내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지역 주민의 신뢰 등이 높은 지역일수록 비행과 같은 비규범적 행동을 감속함으로써 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신뢰는 학생의 성적 및 중퇴율 등 학교적응성과도 관련이 있다(Braastz & Putnam, 1996).

즉, 다양한 사회자본적 경로 중에서도 학생 개개인의 일탈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교생활을 같이하는 또래 학생이다. 지역 내 관심과 통제가 학생의 행동적 규범에 영향을 미치게 때문에 지역 사회자본도 역시 학생 개개인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동체의식과 사회적자본은 긴밀한 정(+)의 관계가 있다(Perkins and Long, 2002). 따라서 공동체의식은 학생의 일탈 및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형임·문영경(2013)에 따르면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 학생 및 교사와의 관계 역시 완만하여 학교에 더 잘 적응한다. 이를 위에서 살펴본 청소년 비행 관련 선행연구에 적용해보면,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학교 사회자본 등을 통해서 비행에 부적인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된다. 다문화수용도 역시 이와 비슷하게 학교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김여춘, 2014), 친사회적 행동과 정(+)의 관계가 있다(박수경·양심영, 2017). 따라서 다문화수용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사회적 규범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다문화수용도도 청소년의 비행과 부(-)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이밖에도 청소년의 비행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존재한다. 홍태경·류준혁(2011)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비행요인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성별에 따라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최재용·한보영·이운호(2014)은 남학생과 여학생간 지위비행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별, 가족배경, 지역사회 등 주변환경은 청소년의 비행과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자본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본 연구는 성별, 가족배경, 주변환경을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방법

학교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므로 학교에서 교류하는 친구가 청소년의 행동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같은 학교에 재학한 학생들의 성향이 학생 개개인의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다양한 개인적 성향 중 본 연구는 학생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공동체 의식, 다문화에 대한 수용도를 바탕으로 측정한 사회적자본과 학부모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측정한 사회적자본의 수준에 초점을 둔다.

학교친구의 인식이 청소년 A의 행동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causation)를 밝히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 A 자신도 친구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관계 때문에 학교친구의 사회적자본을 비롯한 성향이 청소년 개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과거(중학교 2학년 시기)에 측정된 사회적자본 수준이 미래(고졸 이후)의 청소년 A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다. 나의 미래의 행동은 친구들이 과거에 가진 사회적자본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 식으로 측정된다.

$$\text{비행}_{i,s,t} = \text{사회적자본}_{i,s,2011} + \text{여성}_i + \text{학부모 대졸}_i + \text{중학교소재지}'_{s,2011} + \varepsilon \quad (1)$$

비행_{i,s,t}은 중학교 s에 재학했던 청소년 i의 t년도 비행 관련 변수이며, 사회적자본_{i,s,2011}은 중학교 s에 재학한 청소년 i의 2011년(중 2시절) 사회적자본 관련 지표로 다음절에서 변수의 측정방법을 설명한다. 여성_i는 여성이면 1, 남성이면 0의 값을 가지는 이항변수이다. 가족배경의 대리변수로 포함시킨 모친 대졸여부는 학생 i의 어머니의 최종학력이 대졸이상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이항변수이다. 주변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포함시킨 중학교소재지'_{s,2011}는 중학교가 <표 5>에 제시된 16개 시도에 소재하는지에 대한 15개 시도(1개 준거시도 제외)에 대한 이항변수의 벡터를 의미한다. 동일한 시도 내에서 학교간 사회적자본 수준의 작은 차이는 기타 개인적 요인과 무관하다는 가정하에서 분석에 최소한의 통제변수를 포함시킨다. 또한 각 학교의 동급생수가 많지 않아 지나치게 많은 통제변수를 사용한 경우 분석에 사용될 변이(variation)가 작아진다. 주요 결과변수인 비행이 더미변수이면 식 (1)을 로짓모형으로, 연속변수이면 최소자승법으로 분석한다. 아직 일부 자료의 가중치가 제공되지 않아 가중치 없이 분석한다.

2. 분석자료 및 변수 측정방법

청소년의 사회적자본과 비행에 대한 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 포함되어 있다. 동 패널은 초1, 초4, 중1 패널로 구성되며, 2010년에 1차 조사가 시작되어 2016년까지 7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본 논문은 중학교 2학년(2011년) 시기 같은 중학교에 다닌 동급생의 특성으로 측정한 사회적자본이 청소년의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 관련 변수가 처음으로 포함된 제2차 조사부터 동 청소년의 대다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의 마지막 조사인 제6차 조사까지를 이용한다. 제7차 조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비행 중 무단결석이나 가출에 대한 조사가 제6차까지만 포함되었고 중·고등학생과 비교하여 대학생의 성관계는 비행으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 1〉은 동 패널에 포함된 학생의 지역사회 인식,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도에 대한 설문 내용이다. 지역사회 인식 관련 설문은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 ‘나는 거리에서 우리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 ‘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이다. 공동체의식 관련 설문은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이다. 제1차 조사 이후 다문화 수용도 관련 문항이 조사에 포함되었는데 구체 문항은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 친구로 사귀어 수 있다’,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이다. 상기 설문의 선택항목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된다.

표 1. 제2~6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사회적자본 관련 설문

영역	설문 문항	선택항목
지역 사회 인식	1.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2. 나는 거리에서 우리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3.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하지 않는다 ¹⁾	
	4. 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5.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6.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	
공동체 의식	7.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8.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9.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10.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영역	설문 문항	선택항목
다문화 수용도	11.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2.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13.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14.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 친구로 사귄 수 있다	
	15.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자료 : 제2~6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코드북.

본 연구에서는 <표 1>에 제시된 상기 세 가지 영역의 총 15개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을 이용하여 이항변수 및 연속변수로 개인의 사회의식 수준을 측정한다. 각 학생의 첫 번째 사회의식 지표(SOC1)는 각 문항에 전체에 ① 매우 그렇다 또는 ② 그런 편이라고 대답하면 높은 사회의식 보유여부가 1의 값,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진다.²⁾ 제2차 조사의 분석표본인 총 2,229명 중 상기 15개 항목 전체에 ① 매우 그렇다 또는 ② 그런 편이다 답한 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6.15%인 137명에 불과하다. 두 번째 사회의식 점수(SOC2)는 각 문항에 대한 선택항목의 값을 더한 값이다. 분석결과 해석의 편의상 각 문항이 큰 수일수록 높은 인식수준을 갖는 것으로 역코딩(① 매우 그렇다는 4, ② 그런 편이라는 3, ③ 그렇지 않은 편이라는 2, ④ 전혀 그렇지 않다는 1)하였다. 각 학생의 사회의식 점수(SOC2) 총15개의 문항의 합으로 최소 15($1 \times 15 = 15$)에서 최대 60($4 \times 15 = 60$)의 값을 갖는다. 제2차 조사 분석표본의 사회의식 점수의 평균점수는 41.28, 표준편차는 6.51이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2 학생의 사회의식은 평균인 41점대에 집중되어 있고 30점 미만에는 매우 작은 수의 학생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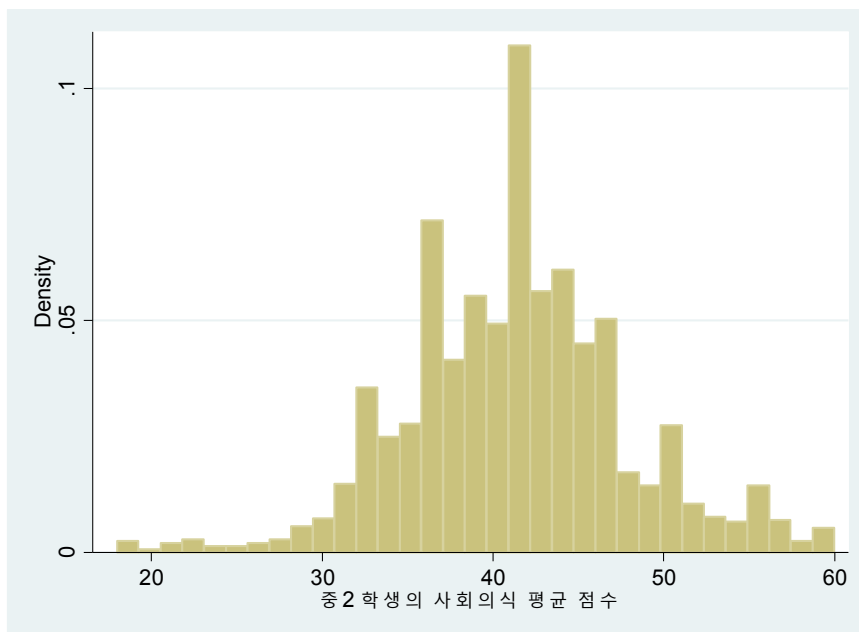


그림 1. 중2 학생의 사회의식 평균점수

- 1) 원래 문항은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이지만 선택항목 해석의 통일성을 위해 상기 문항을 ‘경계하지 않는다’로 변경하고 선택항목을 역코딩하였다.
- 2) 상기 이유로 15개 문항 중 일부 문항에만 답변한 학생은 분석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식 (1)의 사회적자본은 총 세 가지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첫째, 개인의 높은 사회의식 소유여부(SOC1)를 바탕으로 청소년 i와 2011년에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SOC1이 1 값을 갖는 학생의 비율을 사회적자본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였고, 그 비율은 각 학교별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둘째, 청소년i가 2011년 중학교 s에 재학할 당시 같은 학교에 재학한 학생의 사회의식 수준 점수의 평균을 사회적자본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였고, 그 평균점수는 15~60점 사이에 분포한다. 하지만 높은 사회의식 보유 여부나 사회의식 점수 측정 방법이 모두 일정 한계가 보인다. 첫 번째 높은 사회의식 소유 여부(SOC1)는 동일한 시도에서 중학교를 다닌 학생 중에서 학교친구의 성향이 다른 학생사이에 비행경험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기에는 변이(variation)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학생 답변에 주관성이 개입되어 제2~6차 사이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세번째 사회적자본의 지표로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학교 동급생 비율을 사용한다. 다수의 선행연구(Bifulco, Fletcher, & Ross 2011; Bifulco, Fletcher, Oh & Ross 2015)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어머니의 성향이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이들이 가진 사회적자본의 중요한 대리변수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표 2. 개인의 사회의식 수준 및 사회적자본 측정방법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최소값	최대값	2차년도 평균 (표준편차)
개인의 사회의를 수준	높은 사회의를 소유여부 (SOC1)	학생이 <표 1>의 15개 문항 전체에 매우 긍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답했는지 여부	0 (낮은 의식수준)	1 (높은 의식수준)	0.06 (0.24)
	사회의를 점수(SOC2)	학생의 <표 1>의 문항에 대한 점수의 합(① 전혀 그렇지 않아 ~ ④ 매우 그렇다)	15	60	41.28 (6.51)
사회적 자본	각 학교에서 높은 사회의를이 있는 학생의 비율 (SOC1 비율)	같은 학교 동급생의 SOC1의 비율	0 (의식수준이 높은 같은 학교 동급생이 전혀 없음)	1 (같은 학교 동급생 전체가 의식수준이 높음)	0.06 (0.05)
	학교친구의 사회의를 평균 점수 (SOC2 평균)	같은 학교에 동급생의 SOC2의 평균 점수	15	60	41.31 (1.40)
	각 학교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학생의 비율	각 학교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동급생의 비율	0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동급생이 전혀 없음)	1 (학교 동급생 전체의 어머니가 최종학력이 대졸이상임)	0.49 (0.50)

표 3. 비행 세부내용 및 학생 비행 경험여부

단위 : 학생수, 명(비중, %)

연간 경험 유무	중2(2차)	중3(3차)	고1(4차)	고2(5차)	고3(6차)
담배 피우기	138 (6.19)	135 (6.25)	179 (8.76)	217 (10.68)	223 (11.15)
술 마시기	103 (4.62)	151 (6.99)	258 (12.63)	426 (20.97)	540 (27.00)
무단결석	67 (3.00)	71 (3.29)	65 (3.18)	77 (3.79)	125 (6.25)
가출	56 (2.51)	50 (2.31)	35 (1.71)	47 (2.31)	18 (0.90)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140 (6.28)	86 (3.98)	74 (3.62)	43 (2.12)	30 (1.50)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69 (3.09)	14 (0.65)	14 (0.69)	1 (0.05)	1 (0.05)
패싸움	16 (0.72)	8 (0.37)	6 (0.29)	5 (0.25)	1 (0.05)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68 (3.05)	14 (0.65)	15 (0.73)	13 (0.64)	10 (0.50)
다른 사람 협박하기	21 (0.94)	8 (0.37)	3 (0.15)	4 (0.20)	4 (0.20)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뺑뜨기)	35 (1.57)	14 (0.65)	4 (0.20)	3 (0.15)	3 (0.15)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15 (0.67)	11 (0.51)	7 (0.34)	5 (0.24)	1 (0.05)
성관계	2 (0.09)	5 (0.23)	10 (0.49)	30 (1.48)	33 (1.65)
성폭행이나 성희롱	4 (0.18)	4 (0.20)	1 (0.05)	0 (0.00)	0 (0.00)
돈을 걸고 도박 게임하기	-	64 (2.96)	48 (2.35)	71 (3.50)	39 (1.95)
비행 학생수(비중)*	407 (18.25)	332 (15.37)	406 (19.87)	525 (25.85)	648 (32.40)
전체 설문참여 학생수	2,230	2,160	2,043	2,031	2,000

주 : 분석표본에 대한 통계임. 비행학생 수는 상기 첫 13개 비행(도박 제외)이 종류 중 한가지라도 경험한 학생을 의미함.
도박은 제2차 조사에서는 조사되지 않아 제외함.

자료 : 제2~6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은 청소년의 다양한 종류의 비행 여부에 대한 설문을 포함한다.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등이 비행에 포함되며 비행에 포함되는 세부 행동과 참여한 학생의 비중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중1 패널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인 2011년에는 전체 학생의 18.25%가 비행 경험이 있으며, 이 비중은 고등학교 진로가 결정되는 중학교 3학년때는 15.37%로 다소 감소하나 고등학교 진학 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들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연도인 2015년에는 전체 학생의 32.40%가 비행 경험이 있다. 학생들의 비행 여부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의 비중이 중2 시절 10.81%에서 고3 시절 38.15%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성관계 여부는 패널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일때는 0.1%도 미치지 못했으나 고등학교 3학년일때는 전체의 1.75%로 증가한다. 성관계와 무단결석을 제외한 기타 비행의 경험 여부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제

3차 조사부터 돈을 걸고 도박 게임하기가 조사항목으로 추가되었는데 이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2~3%를 차지한다.

[그림 2]는 2차 조사 분석표본 중 비행 경험이 있는 총 407명의 중2 학생들이 <표 3>의 비행 중 몇 가지를 경험했는지를 나타낸다. 1가지 비행을 경험한 학생이 전체의 11.1%인 247명, 2가지는 3.8%인 85명, 3가지는 1.4%인 31명, 4가지는 0.8%인 19명, 5가지 이상인 학생 수는 10명 이하이다. 비행을 하지 않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경험한 비행 종류의 개수의 평균은 0.33, 표준편차는 0.9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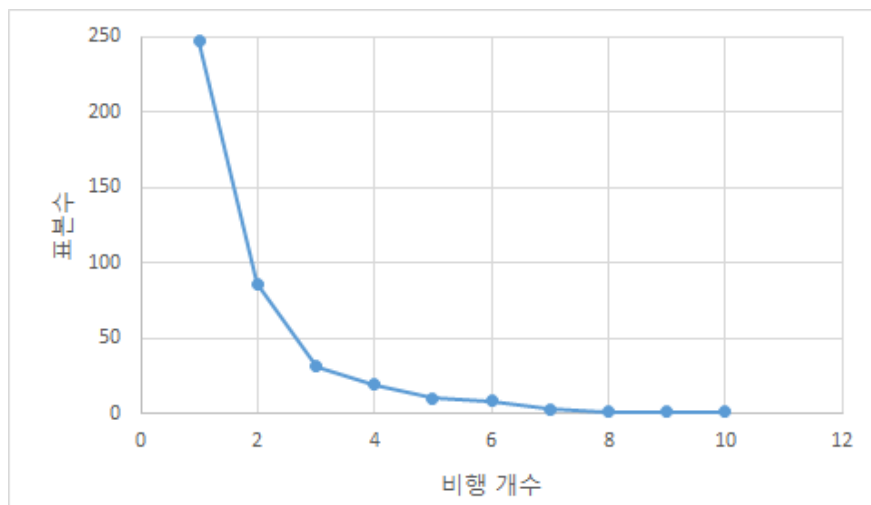


그림 2. 중2 시절 경험한 비행 종류의 개수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비행은 이항변수와 연속변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이항변수인 비행여부의 경우 제2차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도박을 제외한 13가지 비행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하면 1의 값, 아니면 0의 값을 갖고, 연속변수로는 비행경험 종류의 수를 이용한다. 구체적으로 연속변수는 어떤 비행도 하지 않았으면 최소 0의 값을 가지고 13가지 종류의 비행을 모두 경험하면 최대 13의 값을 갖는다. 자료에는 연간 각 비행을 한 횟수에 대한 자료도 존재하나 패싸움, 폭행, 협박, 쫓겨나기, 절도, 성폭행 및 성희롱 등은 몇 번 비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횟수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일을 한번이라도 했는지 자체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비행형태 중 몇 개를 경험했는지를 연속변수로 한다. 또한 상기 중대한 비행을 한 번 이상 경험한 학생도 매우 소수이다.

표 4. 비행 측정방법

변수명	변수설명	최소값	최대값	2차년도 평균 (표준편차)
비행여부 (이항변수)	<표 3>의 비행경험(도박 제외)이 있는지 여부	0 (비행안함)	1 (비행)	0.06 (0.24)
비행경험개수 (연속변수)	<표 3>에서 경험이 있는 비행 종류의 개수	0	13	0.33 (0.81)

3. 기초통계

〈표 5〉는 제1차 조사 중1 패널의 학생 중 제2차 패널조사(중2)에 참여한 학생에 대한 기초통계이다. 제2차 조사에는 참여하였지만 제3차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제4차 조사에는 참여하는 등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서 사용한 제2~6차 조사에 대한 학생 샘플은 완벽히 동일하지는 않다. 제1~6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학생만을 샘플로 분석하는 경우 샘플수가 작아져 같은 중학교 동급생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각 차 조사에 참여한 모든학생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경우에는 표본이탈율도 매우 낮으며, 매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의 성향이 매해 유사하다면(즉, 한 해년도의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무작위적이라면) 샘플의 미세한 이탈(attrition)은 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제2차 조사 기준 분석 표본은 총 2,230명이다. 이 중 높은 사회의식을 가진 학생은 전체의 6.10%이며, 여성은 49.24%, 어머니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은 37.62%이다. 총 13개 지역 78개의 학교에 다닌 학생이 분석에 포함되었고, 한 학교당 평균 조사에 참여한 학생 수는 29.92명(표준편차 5.36, 최소값 14, 최대값 40)이다.

표 5. 제2차 패널조사에 참여한 중2학생의 기초통계

변수	구분	명, 개(비중)
높은 사회인식(SOC1)	미보유	2,094(93.90%)
	보유	136(6.10%)
성별	여성	1,098(49.24%)
	남성	1,132(50.76%)
어머니 대졸여부	고졸 이하	1,391(62.38%)
	대졸 이상	839(37.62%)
중학교 소재지	서울특별시	219(9.82%)
	부산광역시	125(5.61%)
	대구광역시	151(6.77%)
	인천광역시	148(6.64%)
	광주광역시	91(4.08%)
	대전광역시	99(4.44%)
	울산광역시	106(4.75%)
	경기도	329(14.62%)
	강원도	109(4.89%)
	충청북도	122(5.47%)
	충청남도	90(4.04%)
	전라북도	109(4.89%)
	전라남도	108(4.84%)
	경상북도	154(6.91%)
	경상남도	142(6.37%)
	제주특별자치도	131(5.87%)
전체 학교수		78(100.00%)
전체 학생수		2,230(100.00%)

주 : 2010년 1차조사에 참여한 중1 패널 전체 2,351의 학생 중 2011년에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학생 3명, 2차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71명, 학교당 한명의 학생만 조사된 31명을 제외한 2,246명에 대한 기초통계값임. 학생 1명의 학교 소재지 미상임.

자료 : 제2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

IV. 분석결과

1. 학생 개개인의 사회의식 수준 및 사회적자본과 비행과의 관계

다음 <표 6>과 <표 7>은 제2차 조사(중2 시절) 기준 청소년의 사회의식 수준, 같은 학교 동급생의 사회의식 수준 또는 가족배경이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비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식 (1)과 동일한 통제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6>은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인 비행경험개수이므로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표 7>은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인 비행여부이므로 로짓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비행이나 독립변수인 사회의식 수준 및 사회적자본을 어떤 방식(이항변수 및 연속변수)으로 측정하든 개인의 사회의식 수준과 학교 동급생의 사회적자본은 비행과 부(-)의 관계를 가진다. 이는 높은 사회의식을 가지거나 학교 동급생의 사회적자본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 수록비행의 경험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학생이거나 어머니의 최종 학력이 대졸 이상인 청소년일수록 비행 경험이 적다. 성별과 비행은 청소년의 사회의식, 사회적자본, 또는 어머니의 최종학력과 비행보다 더 큰 상관관계를 가진다. 상기 <표 6> 및 <표 7>의 결과는 앞서 분석방법에서 언급하였다시피 개인의 사회의식과 사회적자본의 상호관계 때문에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로 해석되어야 한다.

표 6. 2차년도(중2) 단년도 분석 : 회귀분석 추정치(종속변수 : 비행경험개수)

	청소년의 사회의식과 비행의 관계		사회적자본과 개인의 비행의 관계		
	(1) 소회의식 (연속변수)	(2) 소회의식 (이항변수)	(3) 동급생 소회의식 평균점수 (연속변수)	(4) 동급생 높은 소회의식 여부 (이항변수)	(5) 동급생 모친 대졸 여부 (이항변수)
독립변수					
독립변수	-0.008*** (0.003)	-0.191** (0.080)	-0.029* (0.015)	-1.036** (0.448)	-0.347** (0.146)
여성	-0.191*** (0.039)	-0.193*** (0.039)	-0.183*** (0.039)	-0.187*** (0.039)	-0.189*** (0.039)
학부모 대졸	-0.057 (0.040)	-0.062 (0.040)	-0.058 (0.041)	-0.063 (0.040)	-0.037 (0.042)
Observations	2,230	2,230	2,230	2,230	2,230

주 : 1) 개인의 비행은 연속변수로 측정함.

2) +, *, **, ***은 각각 15%,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3) 학교소재지 이항변수에 대한 추정치는 생략함.

자료 : 제2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1 패널.

표 7. 2차년도(중2) 단년도 분석 : 로짓모형 한계효과(종속변수 : 비행여부)

독립변수	청소년의 사회의식과 비행의 관계		사회적자본과 개인의 비행의 관계		
	(1) 소회의식 (연속변수)	(2) 소회의식 (이항변수)	(3) 동급생 소회의식 평균점수 (연속변수)	(4) 동급생 높은 소회의식 여부 (이항변수)	(5) 동급생 모친 대졸 여부 (이항변수)
독립변수	-0.002 [†] (0.001)	-0.064** (0.027)	-0.008 (0.006)	-0.641*** (0.186)	-0.120** (0.062)
여성	-0.109*** (0.016)	-0.109*** (0.016)	-0.107*** (0.016)	-0.105*** (0.016)	-0.108*** (0.016)
학부모 대졸	-0.034** (0.016)	-0.035** (0.016)	-0.034** (0.016)	-0.035*** (0.016)	-0.027*** (0.017)
Observations	2,230	2,230	2,230	2,230	2,230

주 : 1) 개인의 비행은 이항변수로 측정함.

2) †, *, **, ***은 각각 15%,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3) 학교소재지 이항변수에 대한 추정치는 생략함.

자료 : 제2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1 패널.

2. 학교 동급생의 특성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표 8〉 및 〈표 9〉는 사회적자본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중학교 2학년 시절 학교 동급생의 사회의식 또는 가족배경이 중학교 3학년 이후의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의 (1)열, (2)열, (3)열, (4)열은 각각 중3, 고1, 고2, 고3 시절의 비행에 대한 추정치이다. 전학하는 학생 비율이 높지 않아 중2 시기 및 중3 시기의 학교 동급생의 성향은 유사할 것이므로 (1)열에 제시된 과거 학교 동급생의 성향이 중3 비행에 대한 영향은 〈표 6〉 및 〈표 7〉과 유사하게 인과관계로 해석되기에 한계가 있다.³⁾

요약하면 학교 동급생의 특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이나 학부모의 최종 학력처럼 강건하지는 않지만 높은 수준의 사회적자본은 청소년의 비행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행경험개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독립변수가 중2시절 학교 동급생 사회의식의 평균점수인 경우 중3의 비행에, 높은 사회의식이 있는 친구의 비율인 경우 고1의 비행에, 동급생 어머니의 최종학력인 경우 중3 및 고2의 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 비행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는 독립변수가 중2 학교 동급생 사회의식의 평균점수인 경우 중3의 비행에, 높은 사회의식이 있는 친구의 비율인 경우 고1과 고2의 비행에 부(-)의 영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연속변수인 비행경험개수에 대한 사회적자본의 영향을 분석한

3) 중학교 제6차 조사에 참여한 전체 학생의 5.45%가 전학한 경험이 있는데 이를 통제하는 경우와 전학여부를 통제하는 경우에도 주요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

결과를 제시한 <표 8>에서 과거(중2) 동급생 높은 사회의식 여부 변수의 고1 비행에 대한 추정치인 -0.952는 학교 친구 중에서 높은 사회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1%p 늘어나면 평균적으로 비행경험 개수가 대략 1개 작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비행개수의 표준편차가 0.81(평균 0.33)이므로 이 추정치의 크기는 표준편차 한 단위 이상 감소를 의미하므로 그 영향이 상당히 크다. <표 8>의 과거 동급생 모친 대졸 여부 변수의 추정치인 -0.290은 사회의식 여부 변수의 추정치의 1/3 수준이다. 여성이면 비행경험개수가 0.3~0.5개 정도 작고, 어머니가 대졸학력이면 비행경험개수가 0.06~0.10개 작다.

<표 9>는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이항변수인 비행여부에 대한 사회적자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9>에 제시된 과거(중2) 동급생 높은 사회의식 여부 변수의 고1, 2시절 비행에 대한 추정치인 -0.32는 학교 친구 중에 높은 사회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1%p 늘어나면 평균적으로 비행확률이 0.32~0.33%p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비행여부의 표준편차가 0.24(평균 0.06)이므로 0.32~0.33%p 감소라는 추정치 역시 표준편차 한단위보다 큰 상당한 영향을 의미한다. 성별이 비행에 미치는 효과는 어머니 교육수준의 효과의 20배 정도로 크다. 여성이면 비행을 할 확률은 19~27%p 낮고, 어머니가 대졸학력이면 비행을 할 확률이 4~6%p 낮다. 비행여부에 대한 성별의 영향은 어머니 교육수준 영향의 5배 정도이다.

표 8. 중2 시절 학교 동급생의 특성이 중3~고3 비행에 미치는 영향 : 회귀분석 추정치

	(1) 중3(3차) 비행경험개수	(2) 고1(4차) 비행경험개수	(3) 고2(5차) 비행경험개수	(4) 고3(6차) 비행경험개수
과거 동급생 사회의식 평균점수	-0.025* (0.013)	-0.005 (0.014)	-0.013 (0.015)	-0.009 (0.015)
여성	-0.219*** (0.035)	-0.348*** (0.035)	-0.442*** (0.039)	-0.490*** (0.039)
학부모 대졸	-0.073** (0.036)	-0.065* (0.036)	-0.086** (0.040)	-0.097** (0.038)
과거 동급생 높은 사회의식 여부	0.437 (0.397)	-0.952** (0.400)	-0.374 (0.442)	-0.348 (0.437)
여성	-0.231*** (0.035)	-0.343*** (0.035)	-0.444*** (0.039)	-0.491*** (0.038)
학부모 대졸	-0.081** (0.036)	-0.064* (0.036)	-0.088** (0.040)	-0.097** (0.038)
과거 동급생 모친 대졸 여부	-0.257** (0.129)	-0.118 (0.132)	-0.290** (0.146)	-0.153 (0.143)
여성	-0.224*** (0.035)	-0.348*** (0.035)	-0.443*** (0.039)	-0.492*** (0.038)
학부모 대졸	-0.059 (0.037)	-0.056 (0.038)	-0.065 (0.042)	-0.087** (0.040)
Observations	2,160	2,043	2,031	2,000

주 : 1) 개인의 비행은 연속변수로 측정함.

2) +, *, **, ***은 각각 15%,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3) 학교소재지 이항변수에 대한 추정치는 생략함.

자료 : 제2~6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1 패널.

표 9. 중2 시절 학교 동급생의 특성이 중3~고3 비행에 미치는 영향 : 로짓모형 한계효과

	(1) 중3(3차) 비행여부	(2) 고1(4차) 비행여부	(3) 고2(5차) 비행여부	(4) 고3(6차) 비행여부
과거 동급생 사회의식 평균점수	-0.010* (0.006)	0.001 (0.007)	-0.004 (0.008)	0.005 (0.009)
여성	-0.105** (0.015)	-0.187*** (0.017)	-0.228*** (0.019)	-0.267*** (0.021)
학부모 대졸	-0.039*** (0.015)	-0.038** (0.017)	-0.047** (0.020)	-0.062*** (0.022)
과거 동급생 높은 사회의식 여부	-0.036 (0.170)	-0.328* (0.194)	-0.323 ⁺ (0.221)	-0.204 (0.247)
여성	-0.110*** (0.015)	-0.184 (0.017)	-0.227*** (0.019)	-0.264*** (0.022)
학부모 대졸	-0.041*** (0.015)	-0.037** (0.017)	-0.048** (0.020)	-0.061** (0.022)
과거 동급생 모친 대졸 여부	-0.056 (0.056)	-0.016 (0.064)	-0.072 (0.074)	-0.059 (0.083)
여성	-0.109*** (0.015)	-0.186*** (0.017)	-0.229*** (0.019)	-0.264*** (0.020)
학부모 대졸	-0.037** (0.015)	-0.036** (0.018)	-0.042** (0.021)	-0.057** (0.022)
Observations	2,160	2,043	2,031	2,000

주 : 1) 개인의 비행은 이항변수로 측정함.

2) +, *, **, ***은 각각 15%,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3) 학교소재지 이항변수에 대한 추정치는 생략함.

자료 : 제2~6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1 패널.

학교 동급생의 특성을 이용해 측정한 사회적자본의 추정치(영향)의 크기는 사회적자본과 비행의 측정방법(이항 혹은 연속변수)에 따라 다소 다르고 그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음(-)의 부호를 지닌다. 이는 높은 사회적자본은 비행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건하지 못한 결과는 변수 측정방법 상의 문제와 동일 시도내 학교간의 작은 학생 특성의 차이를 이용하는 분석방식 때문일 것이다. 자료의 한계상 동급생의 높은 사회의식 여부와 같은 변수는 같은 학급에서 매일 교류하는 친구가 아닌 단순히 같은 중학교의 동급생을 이용하여 측정되어 학교친구의 사회적자본이 미치는 효과를 통계적으로 엄밀하게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학교생활에서 실제로 교류하는 친구가 아닌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의 성향이나 가족배경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이 단기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실제로 학교에서 교류하는 학교친구들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임을 의미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학생들의 사회의식 수준과 비행을 살펴보고 학교내 사회적자본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학교 동급생의 사회의식 수준과 학부모의 최종학력 수준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2~6차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1 패널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의 지역사회 인식,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도로 측정한 중학생의 사회의식 수준은 상당히 낮다. 지역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높은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6%에 불과하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학교에 사회의식 수준이 높은 동급생이 많거나 학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동급생이 많을수록 청소년 개개인의 비행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중2 시절 학교환경이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지속된다는 분석결과는 사회적자본의 영향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임을 의미한다.

가치관과 태도가 형성되는 중인 청소년에게 친구의 사회인식 수준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면 당연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상의 한계로 학교 동급생 어머니의 최종학력 수준이 주변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지만 다수의 국내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부모의 성향은 학교의 정규과목 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교사의 수업방식 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수업 외 활동, 비정규과목 구성, 학교밖의 학생들의 여러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졌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부모의 자녀가 많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는 수업이나 학생들의 지도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나 태도가 더 좋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의 사회적자본이 현재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이 주변환경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점(simultaneous causation)을 일부 통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학생들은 각 중학교로 선택하여 들어간다는 점(selection bias)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학생이 자신과 유사한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다닌다면 이 학생의 행동이 바른 것이 본인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인지 아니면 학교친구 성향의 영향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지역에서 거주지에 상관없이 학교가 무작위로 배정되기 때문에 상기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배경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주지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결정되는 지역에서는 상기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학교친구의 영향과 개인환경의 영향을 동시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 추정치가 학교친구의 독립적인 영향보다 더 크게 측정(upward bias)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의 낮은 사회의식 수준이나 학교마다 상이한 학부모의 교육수준에 정책적 관심을 가져할 이유는 이러한 요소가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며 중학교 초기의 학교친구의 성향이나 배경이 고등학교 이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번이라도 비행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행이 지속될 가능성도 높고, 만약 그 비행행위를 추후 다시 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비행을 저질렀다는 낙인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행동에 가능한 빨리 개입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정책적 효과가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청소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친구나 지역사회 등 주변환경이 아닌 가족환경이다. 하지만 공공정책이 학생의 가족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교육의 장인 학교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사회를 개선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가족배경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비행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회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가족의 경제력에 크게 결정되는 거주지에 따라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로 구분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자본의 필수요소는 구성원간의 신뢰이며 신뢰는 교류(네트워크)가 없이는 생기기 어렵다. 주거정책, 교육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사회구성원간 교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자본이 발달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현아(2007),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35, pp.145~165.
- 김경식·최성보·이현철(2009), 「사회적 자본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 가족, 학교,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 『교원교육』 25 (2), pp.60~83.
- 김영춘(2014), 「또래애착,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도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9), pp.321~331.
- 김천기(2004), 「중등학생의 중퇴 방지를 위한 사회 자본론적 접근에 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4 (3), pp.21~39.
- 문은식·김충희(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16 (2), pp.219~241.
- 박수경·양심영(2017), 「초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친사회적 행동, 공감능력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6), pp.142~152.
- 박영신·김의철(2010), 「친구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갈등 및 부모의 통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6 (3), pp.385~422.
- 이경은·주소희(2008), 「가족내외의 사회자본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0 (1), pp.113~131.
- 이재영·공태명(2010), 「가정·학교·지역사회 사회자본과 청소년 일탈행동」, 『사회과학연구』 17 (3), pp.61~82.
- 이현철·김경식·최성보(2016), 「한국 청소년의 지위비행·범죄행위에 대한 종단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4 (2), pp.125~147.
- 정기원·권량희(2006), 「부모 및 교사 애착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 일반긴장이론의 실증 분석」, 『청소년학연구』 13 (5-2), pp.81~102.
- 정소희(2007), 「사회경제적 지위, 부부갈등, 부모양육행동, 자아통제력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분석」, 『사회복지연구』 32, pp.5~34.
- 최준호(2010), 「학교의 사회자본에 관한 고찰: 측정도구 활용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6 (2), pp.61~87.
- 최재용 · 한보영 · 이운호(2014) 「청소년 지위비행 원인의 성별비교: 일반범죄이론들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8 (1), pp.35~65.
- 최형임 · 문영경(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5, pp.189~209.
- 황매향(2006),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7 (3), pp.187~203.
- 황성현(2016), 「청소년비행에서 비행친구가 선행하는가, 비행이 선행하는가? -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사회과학연구』 23 (2), pp.53~70.
- 홍태경 · 류준혁(2011),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청소년 비행요인의 비교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8 (3), pp.113~138.
- Bifulco, R., J. M. Fletcher, and S. L. Ross(2011), "The Effect of Classmate Characteristics on Post-Secondary Outcomes: Evidence from the Add Health,"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3(1), pp.25-53.
- Bifulco, R., J. M. Fletcher, J. O., Sun, and S. L. Ross(2014), "Do High School Peers Have Persistent Effects on College Attainment and Other Life Outcomes?," *Labour Economics* 29, pp.83-90.
- Braastz, J., and R. D. Putnam(1996), *Families, Communities, and Education in America: Exploring the Evidence*,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ED) 412637.
- Coleman, J. J.(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S95~S120.
- McNeal JR, R. B.(1999), "Parental Involvement as Social Capital: Differential Effectiveness on Science Achievement, Truancy, and Dropping Out," *Social Forces* 78(1), pp.117-144.
- Perkins D. D., and D. A. Long(2002), "Neighborhood Sense of Community and Social Capital: A Multi-Level Analysis," In A. T. Fisher, C. C. Sonn, and B. J. Bishop(ed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Research, Applications, and Implications* pp.291-318. New York, NY: Springer US.
- Portes, A.(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s Sociology* 24(1), pp.1-24.
- Rosenfeld, R., S. F. Messner, and E. P. Baumer(2001), "Social Capital and Homicide," *Social Forces* 80(1), pp.283-309.

제 ⑥ 주제

학업진로



1.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청소년의 대학/전공 선택 요인 분류유형과 대학 만족도와의 관계
2. 부모의 자녀 감독과 후기 청소년의 삶 만족도 간의 관계 : 대학 진학 여부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3.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청소년의 직업선택요인 유형과 특성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청소년의 대학/ 전공 선택요인 분류유형과 대학 만족도와의 관계

정희진* · 조아미**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학 및 전공을 선택한 요인으로 잠재계층을 파악하여 그 특성과 구조에 따라 유형화하고 특성을 알아보는 데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KCYPS) 7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결측값을 제외하고 총 1384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대학 및 전공 선택요인을 각 계층에 속할 확률을 찾아내어 계층 간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잠재계층 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잠재계층이 최적의 잠재계층 수로 확인되었다. 1번 계층은 ‘자기주도 선택형’으로 2번 계층은 ‘합리적 선택형’으로 3번 계층은 ‘종합적 선택형’으로 명명하였다. 각 유형의 빈도는 ‘자기주도 선택형’ 112명(8.4%), ‘합리적 선택형’ 486명(36%), ‘종합적 선택형’ 750명(55.6%)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과 전공 선택요인 청소년의 잠재계층 유형에 따라 각 유형별 체계적으로 지원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학생의 대학 진학에 초점을 맞춘 진로지도 방안을 학교, 가정 진로지도 차원에서 제언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대학선택요인, 대학/전공 선택요인, 잠재계층분석, 대학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I. 서 론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발달하는 시기에 진로선택의 한 과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청소년이 많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대학에 진학한 고등학생은 전체 인원대비 69.8%로 학생의 과반수 이상 대학진학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 많은 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입시를 목표로 학업에 열중하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일을 선택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이는 곧, 복잡해진 현대 노동시장의 환경에서 청소년이 합리적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대학진학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정보 없이 대학 및 학과를 지원하고 있다(김신정과 문희경, 2005). 또한 치열한 입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성적과 수능점수에 맞는 대학 및 전공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은 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흥미를 잃거나, 적성과 맞지 않아 전공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박사과정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choami@mju.ac.kr

하고 진학을 중도 포기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박영태, 2000). 대학은 사회로 진출하기 전 준비를 위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자신의 전공 및 적성과 맞지 않는 선택을 할 경우 진로와 취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고등학교와 다르게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경우, 이전과 다른 학업환경에 놓이게 된다. 주로 대학생은 한 개인이 경험했던 생활방식과는 다르게 학업이나 진로선택에 있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기도 하며, 학교 수업이나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게 된다(이수진, 2011). 이 때 학생들은 대학에서 개인의 학업을 발전시키고, 잠재되어 있는 적성과 자질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 직업을 결정하고 삶을 설계하는데도 큰 영향을 받기도 한다(오재림, 1992).

이처럼 대학과 전공 선택은 청소년에게 있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발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어떤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가는 개인을 비롯하여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기 전, 대학 및 전공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윤수경, 한유경, 임소현과 김화영, 2015).

기존의 연구들은 가정변인, 학생 개인의 특성변인, 주변인의 권유 등이 대학에 진학하는데 있어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시각을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박병량, 1984; 주삼환, 2003; 손명숙, 2013; 이명애, 2007; 서병우 2013). 이러한 연구들은 대학선택 요인들을 분석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한 연구 논문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요인들은 학생들이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대학과 전공으로 진학하는데 어떤 패턴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청소년의 잠재계층을 분석하고 계층별 특성을 파악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또 대학 선택요인 유형과 대학생활의 만족도와 관계성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대학과 전공 선택요인을 분석하여 패턴을 범주화 하고, 그 계층에 속할 확률을 찾아내어 귀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잠재계층 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대학과 전공 선택요인 잠재계층별 특성을 유형화 하고, 각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학/전공 선택요인을 잠재계층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대학선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학의 만족도를 높이며, 전과, 자퇴, 대학생활 부적응과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나아가 대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학을 선택하는 초기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계층 분석에 의한 청소년의 대학/전공 선택요인의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잠재계층 분석에 따라 분류된 청소년의 대학/전공 선택요인 유형별로 대학/전공 만족도와 대학생 생활 만족도 각 변인의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대학/전공 선택요인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선택, 결정, 전공 선택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은 개인을 둘러싼 가정, 사회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대학선택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이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대학진학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Wolffe(1961)의 연구에서는 대학진학에 본질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써 학생의 지적능력, 고교성적, 가정의 경제력 및 학생의 진학욕구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박병량(1984)은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가정배경변인, 본인의 능력변인, 사회심리적 변인, 출신학교 변인, 문화·지리적 변인으로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가정배경 변인에는 부모의 교육수준, 경제력, 학습 분위기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본인의 능력변인에는 학교의 학업성적이 포함되며, 출신학교의 변인에는 학교의 소재지, 진로상담횟수, 출신학교 계열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심리적 변인에서는 부모, 본인 그리고 중요한 타인들의 영향이 상호작용한다고 밝혔다.

일부 연구자들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대학선택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4개 4년제 사립대학교를 대상으로 학부 신입생들이 대학지원과 등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비교연구를 진행한 주삼환(2003)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적성과 대학의 특성보다 대학선택과정 속성과 정보원 유형의 관련요인이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변인이나 가족, 친지들에게 정보를 제공받아 대학을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손명숙(2012)은 강원지역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정보 지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생들은 주변 친구나 친지의 조언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며, 광역시 이상 중소도시는 온라인을 통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대학 전공 선택 이전시기에 진로의식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외적인 요인에 의존하여 전공을 결정한 학생의 경우 미성숙한 선택으로 인하여 입학 후에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대학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하고 있다(김민배, 문승태와 박행모, 2004; 유지선, 2004).

이 외에도 대학을 선택하기 위한 변인들로 개인의 흥미와 적성, 수능점수, 부모 및 주위의 권유, 자기재발가능성, 대학 및 학과의 인기도, 선배나 친구의 권유, 졸업 후 취업의 용이성, 높은 수입, 사회적 지위, 학문분야의 발전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대학선택요인을 연구한 결과물이 다수 있다(이명애, 2007; 이정희와 권준모, 1996; 서병우 2013). 한편, 학교요인을 살펴본 연구로 대학입학준비 활동이나 입시준비 경험이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진학설명이나 수상실적 등 진로를 위한

준비활동이 수도권 4년제 대학진학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박미희와 김성식, 2013). 어윤경(2011)은 진로상담을 많이 경험한 학생의 경우 내적인 선택요인에 의해 전공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밝힌바 있다.

대학을 선택하는 것 이외에도 전공에서 어떤 선택을 하여 학습하느냐는 개인을 포함하여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전공 선택은 진로와도 직결될 수 있는 사항이며, 진로선택에 관한 이론으로도 설명되기도 한다. 전공 선택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각 학과의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스스로 자기이해를 하도록 도와야 하며, 자신의 특성과 전공의 특성을 최대한 일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진미석, 임언과 손유미, 1999). 대학과 전공 선택의 과정은 그 전공에 전망에 대한 인식과, 특정학교의 특정학과가 갖는 사회적 위상, 학교 내에서도 인지도 등과 함께, 재학 중의 교육 과정과 졸업 후의 진출분야가 개인의 특성과 잘 부합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임언, 2006). 실제 충분한 정보 없이 성적이나 타인의 권유만으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에 대학 만족도가 낮다(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2008).

전공 선택을 위해 필요한 요인들은 대표적으로 소질과 적성, 학과에 대한 정보탐색, 자기이해, 개인의 가치관, 가정요인, 능력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있다(강성국, 2005; 이경희와 권준모, 1996).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소득수준과 관련하여 대학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는 연구도 다수 있다. 주로 가정배경이 효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학력 및 교육수준에 따라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연구들도 많다(Trusty, 2000; Leppel, Williams and Waldauer, 2001; Davies and Guppy, 1997; 유홍준, 김기현, 신인철과 오병돈, 2013).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대학이나 전공을 선택할 때 학생 개인의 특성인 성적이나 적성, 가정요인에서 부모의 영향, 학교요인(교사), 주변인들의 정보제공 등이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자료 중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은 아동청소년들의 성장 발달과정에서의 변화양상을 살펴본 종단자료로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아동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과정에 대해 매년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 중1패널 자료는 전국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 가운데 층화 다단계집락표집 방법에 의해 추출된 종단연구 자료이며, 이 중 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전체사례 중 대학/전공 선택요인에 응답한 1348명을 대상으로 최종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2. 분석변인

1) 대학/전공 선택요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대학/전공 선택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패널(KCYPS)의 7차년도 중1패널 설문에서 대학/전공 선택요인에 대한 7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① 사회적 평판(평가), ② 졸업 후 취업 전망, ③ 부모님(가족)의 권유, ④ 친구 또는 친지의 권유, ⑤ 학교 선생님의 권유, ⑥ 자신의 관심과 적성, ⑦ 자신의 성적(수능/내신)의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은 ‘많이 고려하였다.’, ‘고려하였다’, ‘고려하지 않았다’,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로 4점 리커트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용이함을 고려하여 대학/전공 선택요인 7문항을 역코딩 하였다. 응답자의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전공 선택요인을 많이 고려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전공 선택요인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678로 나타났다.

표 1. 대학/전공 선택요인 측정 문항

번호	문항내용	문항응답
1	사회적 평판(평가)	1. 많이 고려하였다 2. 고려 하였다 3. 고려하지 않았다 4.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2	졸업 후 취업 전망	
3	부모님(가족)의 권유	
4	친구 또는 친지의 권유	
5	학교 선생님의 권유	
6	자신의 관심과 적성	
7	자신의 성적(수능/내신)	

2) 대학/전공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대학/전공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패널(KCYPS)의 7차년도 중1패널 설문에서 대학/전공 만족도에 대한 2문항과, 대학생활 만족도 5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① 대학 만족도, ② 전공(학부, 학과)만족도, ③ 강의 및 교육내용, ④ 교수 및 강사진, ⑤ 강좌 또는 교육과정 구성, ⑥ 학교 교육시설, ⑦ 학생지원제도(장학금, 해외연수, 학점교류)의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은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로 4점 리커트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용이함을 고려하여 대학/전공 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의 7문항을 역코딩 하였다. 응답자의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전공 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각 .705, .793으로 나타났다.

표 2. 대학/전공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측정문항

번호	문항	문항내용	문항응답
1	대학/전공 만족도	대학 만족도	
2		전공(학부, 학과)만족도	1. 매우 만족한다
3		강의 및 교육내용	2. 만족하는 편이다
4		교수 및 강사진	3.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5	대학생활 만족도	강좌 또는 교육과정 구성	4.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6		학교 교육시설	
7		학생지원제도 (장학금, 해외연수, 학점교류)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대학/전공 선택요인 청소년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범주변인(categorical variable) 분석모형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분석방법인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이는 관측자 중심의 기법중 하나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관측자를 동일한 계층으로 분류한 뒤 각 계층에 속할 확률을 찾아내어 계층 간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선택수, 2010).

잠재계층 분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잠재계층분석은 추출되는 계층의 수를 자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계층구분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K-means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의 경우, 추출되는 군집의 수를 이론에 입각해 사전에 규명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학/전공 선택요인에 따른 청소년의 잠재계층을 파악함에 있어, 이론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계층의 수는 정하지 않는다. 본 연구가 기존이론의 검증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탐색적이고 기술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근거한 문항의 반응패턴을 귀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계층의 수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모형 검증치(Model fit statistics)를 제공하기 때문이다(김사현과 홍경준, 2010).

둘째, 관찰된 범주형 지표들로부터 잠재적 계층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항목은 명목적으로 구성하였는데, 범주변인의 통계적 모형을 사용할 경우 계층선택의 기준이 논리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잠재적 범주변인의 확률적 관계를 파악하고, 그것을 근거하여 각 사례들이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을 도출해낸다. 잠재계층분석은 행동에 근거한 기준요소들이 정확한 조건에 의해 분류되기 보다는, 확률의 관계를 갖는다는 가정을 한다. 즉, 서로 연관성을 갖는 변수들 사이의 연관성을 최대한 축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대학/전공 선택요인 잠재계층 분석은 추출되는 계층의 수를 자료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대학/전공 선택요인을 통해 청소년을 계층별로 유형화하고 각 계층별로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연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계층별로 청소년들의 대학과 전공 선택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 및

학업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잠재계층분석에서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적합도 분류의 질, 통계적 검증, 분류비율 등을 고려하여 모형을 선택해야 한다. 통계적 적합도 중 잠재계층 수에 따른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성을 고려하여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은 우선 정보 기반 적합도 지수인 AIC, BIC, adjusted BIC 등 3개의 IC(Information Criteria)를 고려해야 한다(선택수 2010).

IC는 그 값이 작을수록 최적의 잠재유형 수를 가진 모형임을 의미하며 가장 낮은 수치를 가진 최적의 모형을 비교하는데 활용한다.

Entropy는 추정된 모형이 계층군의 확률을 바탕으로 모형의 평균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써 각 계층이 분명하게 분류되었는지 모형의 비교와 평가를 위한 정보로 활용한다(Crosby, Wonderlich, Engel, Simonich and Mitchell, 2009). Entropy값은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함을 의미한다.

잠재계층의 최적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수치는 LMR(Lo-Mendell-Rubin)과 부스트랩 최대우도 비율검증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은 통계검증을 이용한 적합도 지수이다. LMR은 $k-1$ 집단모형과 k 집단모형 간의 로그최대우도 차이에 대한 분포추정을 이용한 값이다. LMR은 다른 계층 수를 지정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이용되며, 동일한 모수를 사용해야 한다. 결과에 대한 p -value값을 확인하여 유의미한 검증 결과를 얻었다면, 이는 k 집단 모형이 $k-1$ 집단 모형보다 적합도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범구와 조아미, 2013).

BLRT는 LMR과 유사하게 확률 값을 이용한 모형 적합도 비교를 채택한다. BLRT에서는 표본에서 다량의 부트스트랩 표본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해 편향되지 않는 로그우도 차이 분포를 추정하는 것이다(선택수, 2010).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분석을 위해 Mplus 7.2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과정에서 도출되는 모형 검증치를 통하여 대학/전공 선택요인 청소년의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였다. 잠재계층이 결정된 후, 조건부 확률에 입각해 모든 개인의 데이터가 도출된 계층들에 결과를 통해, 계층을 유형화 하고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분석된 잠재계층 유형에 따라 대학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각 변인의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검사를 진행하고, 분석된 잠재계층 유형에 따라 각 변인들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학/전공 선택요인 청소년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전체 1348명 중 성별의 비율은 남자 629명(46.7%), 여자 719명(53.3%)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학교 대학소재지를 살펴본 결과, 서울이 206명(15.3%), 부산 121명(9%), 대구 85명(6.3%), 인천 47명(3.5%), 광주 55명(4.1%), 대전 74명(5.5%), 울산 25명(1.9%), 세종 5명(0.4%), 경기 164명(12.2%), 강원 74명(5.5%), 충북 63명(4.7%), 충남 75명(5.6%), 전북 64명(4.7%), 전남 49명(3.6%), 경북 113명(8.4%), 경남 73명(5.4%), 제주 55명(4.1%) 으로 나타났다.

대학 학교별 구분은 2년제 전문대학이 306명(22.7%), 3년제 전문대학 135명(10%), 4년제 대학교 900명(66.8%), 5년~6년제 대학교 7명(0.5%)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 설립유형은 국공립이 291명(21.6%), 사립학교가 1057명(78.4%)으로 나왔다.

대학전공(학과/계열)은 인문계열이 136명(10.1%), 경제/경영계열 148명(11%), 법률계열 13명(1%), 사회과학계열 113명(8.4%), 교육계열 69명(5.1%), 공학계열 365명(27.1%), 자연계열 133명(9.9%), 의료계열 25명(1.9%), 간호계열 75명(5.6%), 약학계열 2명(0.1%), 치료보건계열 76명(5.6%), 디자인계열 61명(4.5%), 응용예술계열 21명(1.6%), 무용/체육계열 37명(2.7%), 미술/조형계열 11명(0.8%), 연극/영화계열 11명(0.8%), 음악계열 21명(1.6%), 자유전공 31명(2.3%)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사 대상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기준	명(비율)	구분	기준	명(비율)
성별	남자	629명(46.7%)	학교 설립유형	국공립	291명(21.6%)
	여자	719명(53.3%)		사립	1057명(78.4%)
대학 소재지	서울	206명(15.3%)	학교별구분	2년제 전문대학	306명(22.7%)
	부산	121명(9%)		3년제 전문대학	135명(10%)
	대구	85명(6.3%)		4년제	900명(66.8%)
	인천	47명(3.5%)		5~6년제	7명(0.5%)
	광주	55명(4.1%)	대학전공 (학과/계열)	인문계열	136명(10.1%)
	대전	74명(5.5%)		경제/경영계열	148명(11%)
	울산	25명(1.9%)		법률계열	13명(1%)
	세종	5명(0.4%)		사회과학계열	113명(8.4%)
	경기	164명(12.2%)		교육계열	69명(5.1%)
	강원	74명(5.5%),		공학계열	365명(27.1%)
	충북	63명(4.7%)		자연계열	133명(9.9%)
	충남	75명(5.6%)		의료계열	25명(1.9%)
				간호계열	75명(5.6%)
				약학계열	2명(0.1%)
				치료보건계열	76명(5.6%)

구분	기준	명(비율)	구분	기준	명(비율)
	전북	64명(4.7%)		디자인계열	61명(4.5%)
	전남	49명(3.6%)		응용예술계열	21명(1.6%)
	경북	113명(8.4%)		무용/체육계열	37명(2.7%)
	경남	73명(5.4%)		미술/조형계열	11명(0.8%)
	제주	55명(4.1%)		연극/영화계열	11명(0.8%)
				음악계열	21명(1.6%)
				자유전공	31명(2.3%)

2. 대학/전공 선택요인 청소년 잠재계층

‘대학/전공 선택요인’에 대한 최적의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계층수를 한정하였다. 잠재계층의 수리 알고리즘은 모형의 복잡성과 계층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완전해질 수 있어 2개부터 4개까지 설정하여 분석하였다(선택수, 2010).

위의 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전공 선택요인 별 청소년들의 계층을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표 4>에서는 AIC, BIC, adjusted BIC를 제시하였고, <표 5>에서는 계층 간 LMR과 BLRT 그리고 Entropy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4. 계층별 IC

IC \ 계층수(K)	2	3	4
AIC	21500.022	21178.145	20950.188
BIC	21614.563	21334.336	21148.030
adjusted BIC	21544.678	21239.039	21027.320

표 5. 계층간 LMR과 BLRT 검증 결과/ Entropy값

Likelihood testing	계층1 VS 계층2	계층2 VS 계층3	계층3 VS 계층4
LMR	1006.808***	332.117**	239.798*
BLRT	1024.271***	337.878**	243.957*
Entropy	0.721	0.771	0.780

참조: 해당 검증 값은 집단 간 -2LL(로그 최대우도)의 차이임

*** $p < .001$, ** $p < .01$, * $p < .05$

잠재계층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로 나타난 계층수가 2개일 경우 LMR(1006.808, $p < .05$)과 BLRT(1024.271, $p <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Entropy(0.721)의 지수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가 AIC(21500.022), BIC(21614.563), adjusted BIC(21544.678)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층수가 3개일 경우 2개일 때보다 AIC(21178.145), BIC(21334.336), adjusted BIC(21239.039)가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Entropy(0.771)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고, LMR(332.117, $p < .05$)과 BLRT(337.878, $p <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대학/전공 선택요인에서는 3개의 잠재계층이 최적의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3. 잠재계층의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학/전공 선택요인 별 청소년의 잠재계층에 대해 각 계층별 1번 계층에는 112명(8.4%) 2번 계층에는 486명(36%), 3번 계층에 750명(55.6%)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자기주도 선택형’으로 유형이 분석되었다. 이 유형은 ‘자신의 관심과 적성’, ‘자신의 성적(수능/내신)’ 문항에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머지 문항에서 ‘사회적 평판(평가)’, ‘졸업 후 취업전망’, ‘부모님(가족)의 권유’, ‘친구 또는 친지의 권유’, ‘학교선생님의 권유’에 대한 문항응답은 다른 두 계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계층에 속한 청소년은 주변에서 제공되는 정보나, 미래의 직업전망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낮고, 주변인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자신의 관심과 적성 그리고 성적을 중요시하여 대학에 진학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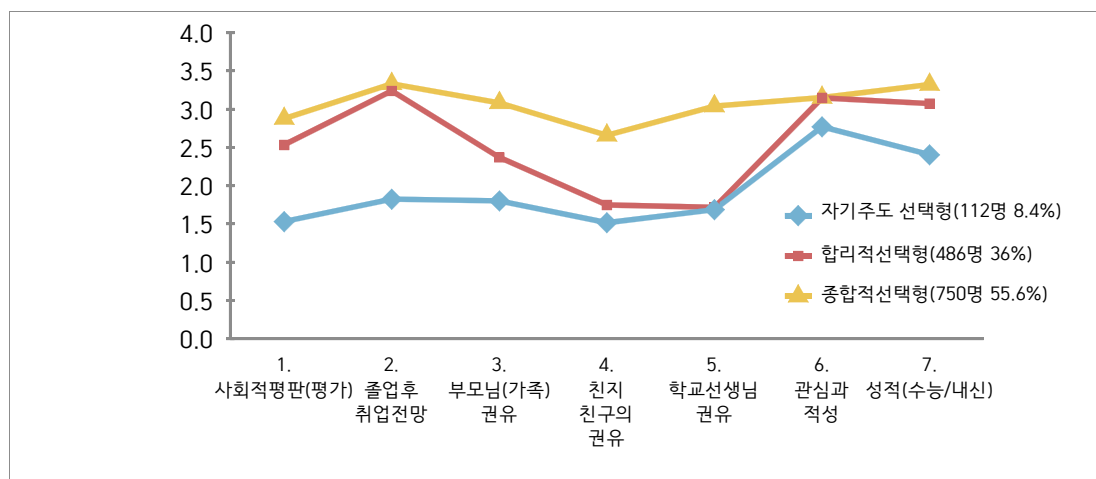
따라서 대학과 전공 선택요인에서 ‘자신의 관심과 적성’, ‘자신의 성적(수능/내신)’ 문항만 고려하여 대학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자기주도 선택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112명(8.4%)가 이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두 번째, ‘합리적 선택형’으로 유형이 분석되었다. 이 유형은 ‘졸업 후 취업전망’, ‘자신의 관심과 적성’, ‘자신의 성적(수능/내신)’에 대해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확률을 보였다. 즉, 이 계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적성과 성적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졸업 후 취업전망까지 고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유나 추천은 많이 고려하지 않는 것을 특징을 보여 이 계층은 ‘합리적 선택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486명(36%)이 두 번째 유형으로 구분되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 번째, ‘종합적 선택형’으로 유형이 분석되었다. 이 유형은 ‘사회적 평판(평가)’, ‘졸업 후 취업전망’, ‘부모님(가족)의 권유’, ‘학교 선생님의 권유’, ‘자신의 관심과 적성’, ‘자신의 성적(수능/내신)’ 등의 문항에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친지 및 친구의 권유’는 응답할 확률이 낮지만, 다른 계층에 비해서는 전체 문항 응답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이 계층은 종합적으로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여 대학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층을 ‘종합적 선택형’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750명(55.6%)이 세 번째 유형으로 구분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대학/전공 선택요인 유형

	1집단		2집단		3집단	
	자기주도 선택형		합리적 선택형		종합적 선택형	
	M	SE	M	SE	M	SE
사회적 평판(평가)	1.531	0.175	2.534	0.075	2.876	0.038
졸업 후 취업전망	1.824	0.160	3.240	0.108	3.332	0.030
부모님(가족)의 권유	1.801	0.186	2.370	0.066	3.082	0.042
친지 친구의 권유	1.516	0.166	1.748	0.052	2.659	0.059
학교 선생님의 권유	1.687	0.195	1.717	0.146	3.040	0.043
자신의 관심과 적성	2.770	0.157	3.148	0.060	3.152	0.030
자신의 성적(수능/내신)	2.405	0.241	3.074	0.050	3.322	0.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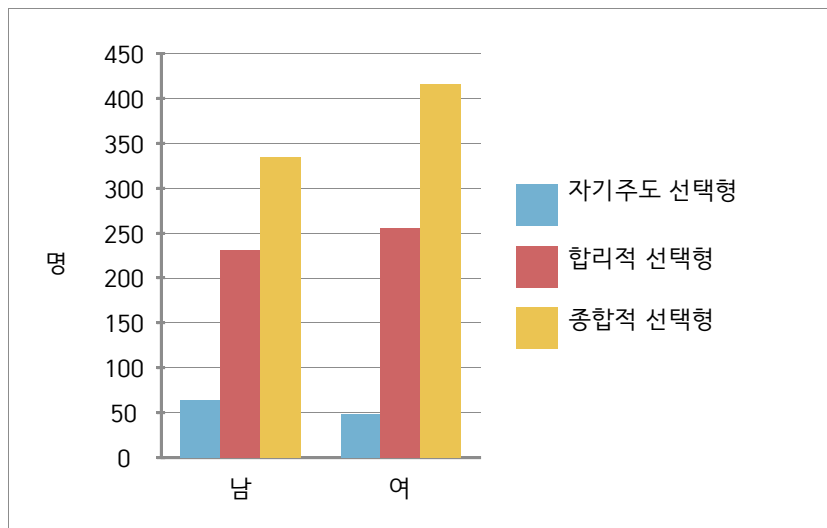
4. 대학/전공 선택요인 청소년 잠재계층 유형별 성별

대학/전공 선택요인 청소년의 유형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유형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구조와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성별에 따라 대학/전공 선택요인 청소년의 잠재계층 유형을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자기주도 선택형이 64명(10.2%), 합리적 선택형이 231명(36.7%), 종합적 선택형이 334명(53.1%)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자기주도 선택형이 48명(6.7%), 합리적 선택형이 255명(35.5%), 종합적 선택형이 416명(57.9%)으로 나타났다.

표 7. 대학/전공 선택요인 잠재계층 성별

		잠재계층			명(%)
변수		자기주도 선택형 (n = 112명)	합리적 선택형 (n = 486)	종합적 선택형 (n = 750)	χ^2 /p
성별	남성	64(10.2%)	231(36.7%)	334(53.1%)	6.456
	여성	48(6.7%)	255(35.5%)	416(57.9%)	/0.040*



5. 대학/전공 선택요인 유형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대학/전공 선택요인 유형에 따른 대학/전공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각 변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전공 선택요인 유형에 따른 차이 결과는 다음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대학 만족도와 대학/전공 선택요인 유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7.163$, $p=.001$). 대학 만족도에 대해 각 유형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을 하였다. 대학 만족도에 대해 종합적 선택형은 자기주도 선택형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적 선택형에 속한 청소년이 자기주도 선택형에 속한 청소년 보다 대학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공(학부/학과) 만족도와 대학/전공 선택요인 유형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0.879$, $p=.000$). Scheffe 사후 검증 결과는 전공만족도에 대해 자기주도 선택형과 합리적 선택형, 종합적 선택형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리적 선택형과 종합적 선택형에 속한 청소년이 자기주도 선택형에 속한 청소년보다 전공(학부, 학과)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의 및 교육내용 만족도와 대학/전공 선택요인 유형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924$, $p=.003$). 강의 만족도와 각 유형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종합적 선택형과, 자기주도 선택형, 합리적 선택형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종합적 선택형과 합리적 선택형에 속한 청소년이 자기주도 선택형에 속한 청소년보다 강의 만족도에 대한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수 및 강사진 만족도와 대학/전공 선택요인 유형 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850$, $p=.003$). Scheffe 사후 검증 결과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종합적 선택형에 속한 청소년이 자기주도 선택형과, 합리적 선택형에 속한 청소년보다 교수 만족도에 대한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과정 만족도와 대학/전공 선택요인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606$, $p=.010$). Scheffe 사후 검증 결과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종합적 선택형에 속한 청소년이 자기주도 선택형에 속한 청소년보다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시설 만족도, 학생지원 만족도는 대학/전공 선택요인 유형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대학/전공 선택요인 유형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종속변수	잠재계층	N	M	SD	F	p	Scheffe 사후검증
대학 만족도	자기주도 선택형(a)	112	2.61	.933	7.163	.001	c>a
	합리적 선택형(b)	486	2.78	.747			
	종합적 선택형(c)	750	2.86	.607			
전공 (학부/학과) 만족도	자기주도 선택형(a)	112	2.63	.995	10.879	.000	b.c>a
	합리적 선택형(b)	486	2.96	.721			
	종합적 선택형(c)	750	2.95	.627			
강의/ 교육내용 만족도	자기주도 선택형(a)	112	2.69	.783	5.924	.003	b.c>a
	합리적 선택형(b)	486	2.87	.628			
	종합적 선택형(c)	750	2.89	.531			
교수/ 강사진 만족도	자기주도 선택형(a)	112	2.72	.796	5.850	.003	b.c>a
	합리적 선택형(b)	486	2.89	.680			
	종합적 선택형(c)	750	2.94	.571			
교육과정 만족도	자기주도 선택형(a)	112	2.68	.785	4.606	.010	c>a
	합리적 선택형(b)	486	2.80	.664			
	종합적 선택형(c)	750	2.86	.597			
학교시설 만족도	자기주도 선택형(a)	112	2.71	.824	2.819	.060	-
	합리적 선택형(b)	486	2.78	.722			
	종합적 선택형(c)	750	2.85	.646			
학생지원 만족도	자기주도 선택형(a)	112	2.74	.836	1.996	.136	-
	합리적 선택형(b)	486	2.78	.743			
	종합적 선택형(c)	750	2.85	.673			

* $p<0.05$, ** $p<0.01$

V.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대학/전공 선택요인에 따라 잠재계층별 유형을 나누고, 유형별 특성을 살펴본 뒤, 유형에 따라 대학/전공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는 대학과 전공 선택요인에 따라 단일화 되어있는 청소년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며, 차후 대학의 만족도, 전공에 대한 만족도 나아가 진로 및 취업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의 대학/전공 선택요인에 따라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선행연구 전해정과 김명용(2013)에서 추천하는 준거를 사용하여 연구자가 합리적으로 잠재된 잠재계층 수를 판단하였다. 그 결과 3개 계층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잠재계층별 유형의 특성을 ‘자기주도 선택형’ ‘합리적 선택형’ ‘종합적 선택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특성 변인에 따라 청소년들의 대학/전공 선택요인별 잠재계층 성별 차이와 만족도를 살펴보면, 성별에 대한 차이는 남자청소년의 경우 자기주도 선택형이 64명(10.2%), 합리적 선택형이 231명(36.7%), 종합적 선택형이 334명(53.1%)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자기주도 선택형이 48명(6.7%), 합리적 선택형이 255명(35.5%), 종합적 선택형이 416명(57.9%)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일유형만을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차별적인 유형을 제시한 것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는 미래의 직업전망, 주변인의 정보, 자신의 적성과 성적을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대학/전공 선택요인 유형에 따른 대학/전공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각 변인의 차이를 검증해본 결과, 대학/전공 선택요인 유형과 대학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합적 선택형에 속한 청소년이 자기주도 선택형에 속한 청소년 보다 대학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았다.

전공(학부/학과) 만족도와 대학/전공 선택요인 유형 간에도 자기주도 선택형과 합리적 선택형, 종합적 선택형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리적 선택형과 종합적 선택형에 속한 청소년이 자기주도 선택형에 속한 청소년보다 전공(학부, 학과)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의 및 교육내용 만족도와 대학/전공 선택요인 유형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 선택형과, 자기주도 선택형, 합리적 선택형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종합적 선택형과 합리적 선택형에 속한 청소년이 자기주도 선택형에 속한 청소년보다 강의 만족도에 대한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수 및 강사진 만족도와 대학/전공 선택요인 유형 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종합적 선택형에 속한 청소년이 자기주도 선택형과, 합리적 선택형에 속한 청소년보다 교수 만족도에 대한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과정 만족도와 대학/전공 선택요인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 선택형에 속한 청소년이 자기주도 선택형에 속한 청소년보다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의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적성과 소질, 성적, 그 외의 직업정보, 주변인의 추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에 진학할 경우 전체적으로 대학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자기주도 선택형과 합리적 선택형은 대학 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변인들의 지지와 상담을 적극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진학지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대학과 전공 선택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대학 진학 전 청소년의 자질과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대학 진학을 선택할 경우 직업으로 이행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면, 진학보다는 학생의 자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계획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실제로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직업세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많은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김봉환, 2000). 또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진학하여, 대학만족도와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조성연과 이선순, 2006). 따라서 학생 개인의 자질과 적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의 직업 전망, 주변인들의 권유 등 적절하게 진로지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가정과 학교가 상호간 협력하여 학생의 특성에 맞는 직업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다양하게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교사의 진로지도, 진로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 적극적으로 진로지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여 가정과 학교가 상호 협력을 통해 원하는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여 성공적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나아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3개의 잠재계층 모두 자신의 적성과 소질, 성적에 맞게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고등학교 현장에서 진로지도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진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대학/전공 선택요인 유형을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봤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개입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하는데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국. (2005). 평생수입, 학과선택이 좌우한다. 서울: 케이펍.
- 김민배, 문승태, 박행모. (2006). 동일계 진학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9(2), 237-247.
- 김범구, 조아미. (2013).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한국청소년학연구**, 24(3), 5-31.
- 김봉환. (2000). 청소년 진로상담 정책의 현황과 과제. **청소년상담연구**, 8, 146-169.
- 김사현, 홍경준. (2010). 잠재집단분석방법을 통한 서울시민 복지태도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7(2), 95-121.
- 김신정, 문희경. (2005). 2004학년도 신입생 실태 및 의식조사. **창의력개발연구**, 8, 1-48.
- 박미희, 김성식. (2013). 대학입시 준비 경험이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3(1), 1-24.
- 박병량. (1984). 대학진학의 관련요인 분석. **교사교육연구**, 8, 27-59.
- 박영태. (2000). 청소년을 위한 대학진로 탐색 프로그램 모형 개발. **학생연구**, 28, 51-112.
-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2008). 2007년 서울대학교 재학생 진로의식조사 보고서.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 서병우. (2013). 대학생의 특성이 전공선택 동기와 직업선택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취업진로학회**, 3(2), 65-81.
- 손명숙. (2012). 전문대학생의 대학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강원지역 전문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택수. (2010). 종단 프로파일 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한 잠재집단연구: 성장혼합모형과 비교를 통하여. **교육평가연구**, 23(3), 641-664.
- 이경희, 권준모. (1996). 대학생의 전공 선택 자율성과 대학생활.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2(1), 95-112.
- 이명애. (2007). 학부제에서의 전공 선택 및 전공결정 과정 탐색. **한국교육평가학회**, 20(3), 81-101.
- 어윤경. (2011). 청소년기 진로상담 만족도, 대학 전공만족도 및 진로성숙도간의 관계분석: 대학전공 선택요인의 조절효과. **한국사회학**, 12(4), 1793-1811.
- 오재림. (1992). 미국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전공 선택과 변경의 유형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1), 37-54.
- 유지선. (2004). 여대생의 진로미결정과 애착 및 자기효능감에 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유홍준, 김기현, 신인철, 오병돈. (2013). 청소년의 직업포부와 희망직업: 대학전공 선택과의 관련성 분석. **직업교육연구**, 32(6), 91-110.
- 윤수경, 한유경, 임소현, 김화영. (2015). 대학 및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교육**, 42(2), 87-107.
- 이상준. (2011). 고등학생의 진로교육 참여결정요인과 그 효과성에 관한 연구: 대학 전공학과 선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17(2), 385-408.
- 이수진. (2011). 지각된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과 대학생에서의 학업성취, 정서적 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5(4), 903-926.
- 임 언. (2006). 대학생용 진로개발준비도 검사 개발. **진로교육연구**, 18(1), 1-17.
- 임창규. (2009). 세대 간 직업계층 계승과 지속성 간의 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전혜정, 김명용. (2013). 아동기 사회경제적 위기요인과 노년기 우울: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하여. **한국노년학**

- 회, 33(2), 439-460.
- 조성연, 이선순. (2006). 성인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 연구**, 19(1), 127-140.
- 주삼환. (2003). 지방대학의 등록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학선택 요인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1(3) 279-296.
- 진미석, 임연, 손유미. (1999). **꿈 미래 직업**.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통계청. (2017).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Crosby R. D., Wonderlich, S. A. Engel, S. G., Simonich, H., & Mitchell, J. E. (2009). Daily mood patterns and bulimic behaviors in the natural environmen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7, 181-188.
- Davies, S., & Guppy, N. (1997). Fields of study, college selectivity, and student inequalities in higher education. *Social Forces*, 75, 1417-1438.
- Leppel, K., Williams, M. L., & Waldauer, C. (2001). The Impact of parental occupation and socioeconomic status on choice of college major.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2(3), 373-394.
- Trusty, J., Robinson, C. R., Platam M., & Ng, K. (2000). Effects of gender, socioeconomic status, & early academic performance on postsecondary educational choi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8, 463-472.
- Wolfle, D. (1961). "Educational Opportunity, Measured Intelligence and Social Background". in A.H. Halsey, J. Floud and C.A. Anderson(ed), *Education, Economy and Society*, N. Y : The Free Press of Glencoe, Inc.

부모의 자녀 감독과 후기 청소년의 삶 만족도 간의 관계 : 대학 진학 여부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전하람*

국문초록

후기 청소년의 삶 만족도에 부모 감독 수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6~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시기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시기에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보았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대학 진학자와 미진학자로 나누어 부모 감독 수준과 후기 청소년의 삶 만족도의 변화 및 둘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기 청소년기에 접어든 고등학교 졸업자의 삶의 만족도와 부모 감독 정도는 대학 진학자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시기보다 대학 진학 이후의 삶의 만족도가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감독 정도도 대학 진학 이후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학 미진학자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시기에 비해 부모 감독 수준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후기 청소년기의 부모 감독과 삶 만족도 간의 관계를 이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대학 진학자의 경우에만 부모 감독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약화되었고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대학 미진학자의 삶의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부모 감독과 삶의 만족도 간의 다항회귀모형을 검증해 본 결과, 대학진학자의 경우에서만 부모 감독의 이차항의 유의성이 확인되었지만 부모 감독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더 미치는 가속 효과가 나타나 일명 헬리콥터 양육의 부정적인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제어: 후기 청소년, 부모 감독, 삶 만족도, 헬리콥터 양육, 대학 진학

I. 서론

고등학교 졸업 후 초기 성인기에 접어들게 되는 후기 청소년들은 성인으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본격적으로 획득하기를 요구받고 그에 대한 내면의 요구도 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들은 자녀의 이러한 자녀의 변화에 맞춘 양육방식을 모색해야 한다(Schiffrin, Liss, Miles-McLean, Geary, Erchull & Tashner, 2014). 일반적으로 자녀가 후기 청소년인 부모들은 그 전까지와는 다르게 자녀들에 대한 감독과 관여를 줄임으로써 자녀들이 스스로 본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학교교육을 받는 기간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취업 및 결혼 등과 같은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이행(transition to adulthood)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 시기에 해당하는 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 고려대학교 사회통합교육연구소 연구교수, haraming@korea.ac.kr

부모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나고 있다. 일명 헬리콥터 양육(helicopter parenting)이라고 불리는 후기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감독과 관여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후기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거의 진행된 바가 없다.

관련 선행연구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후기 청소년들의 삶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감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한 바 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그 수준의 과도함과 관계없이 후기 청소년 자녀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 및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된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Fingerman, Cheng, Tighe, Birditt & Zarit, 2012; Shoup, Gonyea & Kuh, 2009), 지나친 관리 감독은 이들에게 자율성과 독립성 추구를 방해함으로써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저하하고 정서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연구 또한 존재한다(LeMoyne & Buchanan, 2011; Padilla-Walker & Nelson, 2012; Schiffrin et al., 2014). 따라서 한국의 후기 청소년들에게서는 부모의 감독 수준의 변화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으며 부모의 감독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을 통해 현대 사회의 후기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 탐색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비롯되는 부모의 감독 자체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Crouter & Head, 2002),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효과는 감소한다는 비선형 다항회귀모형을 검증하여 헬리콥터 양육 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가 대학에 진학한 후기 청소년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비진학 집단을 분석에 포함하여 후기 청소년의 전반적인 특성과 대학 진학 여부에 따른 차별적인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통해 도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시기와 비교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 진학/비진학 청소년들은 삶의 만족도와 부모 감독 수준의 변화를 경험하는가?
- (2)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시기와 비교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 진학/비진학 청소년들은 삶의 만족도와 부모 감독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가?
- (3) 후기 청소년들에게 과도한 부모 감독 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저하시키는가?

II. 이론적 배경

자녀의 성장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독립적이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기주도적인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Hammond & Cheney, 2010).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부모는 다양한 방식의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모의 감독(parental monitoring)은 이러한 다양한 양육행동 중 하나로서 자녀의 소재, 일상 행동, 학업 및 기타 생활에 대한 적응도에 관해 부모가 관심을 두고 행하는 일련의 관여와 관여를 통해 지각하는 자녀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지 정도를 의미한다(Dishion & McMahon, 1998: 61). 허묘연(2004)은 이와 같은 정의를 기반으로 부모의 양육행태에 관한 척도 개발 연구를 통해 감독을 ‘자녀의 학교 내외의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문항을 정교화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감독을 (1)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2)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3)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의 세 문항에 대한 응답을 통해 측정하고자 했으며 이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을 비롯한 기타 청소년 관련 패널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부모의 감독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하는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로서 필연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된다(Crouter & Head, 2002). 따라서 좋은 감독자로서의 부모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창구를 만들고 그를 통해 자녀의 일상 경험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청소년에게 부모가 자신의 일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자율권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부모의 관심과 관여 또는 지원과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지도를 의미하므로 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의 감독은 아동기에는 안전 문제와 건강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Dishion & McMahon, 1998),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비행 행위를 차단하고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Crouter & Head, 2002). 후기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부모의 감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부모의 감독이 자칫 자녀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독립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8세부터 24세까지의 시기를 후기 청소년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자녀들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며 부모의 경우 이러한 성장을 고려하되 자녀가 성공적으로 성인기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자녀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감독 방식을 택하는 것에 고심하게 된다.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 혹은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모두 자율성에 대한 요구는 커지나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성인의 역할을 담당하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Fingerman et al., 2012). 또한 이전 세대에 비해 성인으로서의 독립 시기가 늦어지는 현 세대의 경향을 고려해 보면(Arnett, 2000), 부모의 적절한 감독이 후기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부모의 중요한 사회적 지원으로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박영신·김의철, 2000; Fingerman et al., 2012).

그러나 후기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과도한 관여와 통제가 자율적인 생활에 대한 요구를 침해하여 오히려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을 방해하고 삶의 질을 저해한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일명 헬리콥터 양육(Helicopter parenting)이라고 불리는 부모의 지나친 감독과 관여는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과잉양육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연령 및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developmentally inappropriate) 수준에 이르렀을 경우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Schiffrin et al., 2014; Shoup, Gonyea & Kuh, 2009). 대학생을 중심으로 후기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과도한 감독과 통제의 부정적인 효과를 검증한 Schiffrin et al. (2014)의 연구는 헬리콥터 양육의 문제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율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을 부모가 고려하여 부모가 기존의 양육방식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부모가 자녀의 대학생활을 비롯한 일상에서의 시간 활용 및 소재 파악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나아가 학업 활동 상황 및 대학에서의 성적에 대해 간섭하고 관리하는 행태가 강할수록 자녀의 우울감의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저해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LeMoyne & Buchanan (2011)의 경우에도 헬리콥터 양육은 심리적인 삶의 질과 부정적인 관계에 있으며 최근의 대학생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양육방식으로 Baumrind가 규정한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의 문제와 유사성을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과도한 감독과 통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검증한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지나친 관심이 후기 청소년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LeMoyne & Buchanan, 2011; Padilla-Walker & Nelson, 2012; Schiffrin et al., 2014). 반면, 부모의 관심과 감독이 현재 세대의 후기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Shoup, Gonyea & Kuh(2009)는 부모의 관심과 지원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고 헬리콥터 양육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부모의 감독 및 관여는 삶의 만족도를 포함한 후기 청소년의 대부분의 삶의 지표에 정적인 영향을 보인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들은 최근의 청소년들이 성인기로의 이행 시기를 미루고 부모에게 더욱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이 부모의 감독과 관여가 강한 경우에도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지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Carney-Hall (2008)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감독이 후기 청소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하면서 헬리콥터 양육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중매체의 조명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부모의 개입과 간섭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보여준 결과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부모의 감독이 과연 후기 청소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인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청소년의 낮은 삶의 만족도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들은 다양한 설명요인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중 부모의 양육방식은 핵심적인 변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김소영·윤기봉, 2016). 후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부모의 감독 간의 관계는 Ryff (1989)가 규명한 삶의 질의 6가지 측면(자기수용, 긍정적인 사회관계, 자율성, 환경통제, 삶의 목적, 개인의 성장) 중 자율성의 획득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감독을 사회적 지원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자율성의 침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한국 청소년들의 부모의 감독과 관여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삶의 질 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기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부모 감독이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대학생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헬리콥터 양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학생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관여에 대한 우려로부터 도출되었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부모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부모 감독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진학한 집단뿐만 아니라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다른 경력경로를 선택했거나 아직 진로를 선택하지 못한 청소년 집단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Fingerman et al. (201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경우 성인기로의 이행에 있어서 대학 미진학자와는 차별되는 경로를 밟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이 대학생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부모의 관심과 관여가 더욱 긍정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실제로 가정의 지원을 더욱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대학 미진학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김지경·이광호(2013)의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생활 및 의식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졸 비진학 청소년이 고졸 학력으로 인해 일상에서 좌절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사회적 위축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사회적인 지지의 부족이 사회적응에 대한 실패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실태는 가정 내 부모의 지원과 관여가 대학 비진학 집단에게는 고등학교 재학 시기에 비해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 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자료 중 2010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중1패널 6차년도(2015년)와 7차년도(2016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패널 조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이루어지는 종단조사로 다단계층화표집방법(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표집하여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추었다. 중1패널의 7차년도 자료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정보를 담고 있어 후기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감독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동시에 고등학교 시기의 이전 6차년도와의 비교를 통해 성인기로의 이행에 접어든 후기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감독이 과연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2015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였고 2016년에 대학에 진학하거나 진학하지 않고 취업 등의 다른 경력경로에 있는 청소년을 분석대상으로 삼았고 연구에 포함된 변수의 결측치를 다중대체기법(multiple imputation technique)을 통해 대체하여 최종적으로 대학 진학자 1,204명, 미진학자 423명, 총 1,627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변수설명

1) 삶의 만족도

후기 청소년의 삶의 질에 부모의 감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고등학교 재학 시기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한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다. 삶의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세 문항에서 4점 척도로 응답한 점수의 평균으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에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로 학생들이 각 연도에 응답한 결과에 대한 평균값을 삶의 만족도로 정의하였다.

2) 부모의 감독

본 연구에서 후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관심 있는 변수는 부모의 감독 정도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설문에서 피응답자인 학생에게 묻는 부모의 감독은 허묘연(2004)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에서 개발된 부모 감독 척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부모의 감독은 학생이 지각한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해 부모가 파악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패널자료에서는 학생들에게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7차년도: 내가 일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에 각각 4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응답 결과에 대한 평균값을 부모의 감독 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3) 부모의 교육수준

자녀의 발달상황과 성인기로의 이행에 맞추어 양육방식을 결정하고 부모의 감독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자원 중 부모의 교육 수준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최종 학력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부모 중 최소 한 쪽이라도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4) 가계소득

부모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사회경제적 자원인 가계소득은 패널 자료에서 제공하는 월평균 가계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5) 통제변수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로는 인구학적 변수인 성별(여성=1)을 포함하여 가족구조(한부모가정=1), 형제자매유무(예=1), 주관적인 건강상태(4점척도; 1(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2(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3(건강한 편이다), 4(매우 건강하다))를 고려하여 부모의 감독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다음 <표 1>은 대학진학 여부에 따른 변수의 기술통계값을 정리한 결과다.

표 1. 변수설명 및 기술통계

변수명	대학 진학 (N = 1,204)			대학 비진학 (N = 423)		
	Mean	SD	% imputed	Mean	SD	% imputed
삶만족도(2015)	2.909	0.610	0.0	2.841	0.630	0.0
삶만족도(2016)	2.859	0.562	0.0	2.811	0.609	0.0
부모감독(2015)	3.125	0.554	0.0	3.076	0.595	0.0
부모감독(2016)	2.899	0.583	0.0	2.966	0.614	0.0
부모교육수준	0.465	0.490	0.8	0.409	0.492	2.1
가계소득(2015)	8.377	0.527	5.6	8.294	0.571	8.0
가계소득(2016)	8.399	0.520	4.9	8.323	0.554	7.6
성별	0.539	0.499	0.0	0.452	0.498	0.0
가족구조	0.087	0.282	0.0	0.130	0.337	0.0
형제자매유무	0.916	0.276	0.0	0.903	0.296	0.0
주관적 건강상태(2015)	3.240	0.581	0.0	3.198	0.599	0.0
주관적 건강상태(2016)	3.202	0.589	0.0	3.142	0.603	0.0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부모 감독 간의 관계가 고등학교 재학 시기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부모 감독의 정도가 강할 경우 후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효과, 즉 헬리콥터 양육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 3가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문제 1. 고교재학 시기와 고졸 이후의 부모 감독 및 삶의 만족도 비교

고등학교 졸업 이후 부모의 감독 정도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시기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부모 감독 및 삶의 만족도 점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두 시기의 부모 감독 정도와 삶의 만족도 차이는 2016년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대학 진학자와 대학 미진학자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 대학진학 여부에 따른 부모 감독과 삶의 만족도 관계 변화 비교

대학진학 여부에 따라 고등학교 재학 시기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시기 간 부모 감독과 삶의 만족도

관계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시기별 부모 감독의 회귀계수에 대해 회귀계수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회귀계수 동일성 검증은 Paternoster, Brame, Mazerolle & Piquero(1998)와 Clogg, Clifford, Petkova & Haritou(1995)가 제안한 z검증을 통해 부모 감독 회귀계수의 시기별 차이가 대학 진학자와 미진학자 집단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OLS 회귀식 모형과 z검증 공식은 다음과 같다.

OLS 회귀식)

$$Y_{(\text{삶만족도})}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sum_{k=1}^n \beta_k X_k + \epsilon \text{ -----(1)}$$

회귀계수 동일성 검증)

$$Z = \frac{b_1 - b_2}{\sqrt{SEb_1^2 + SEb_2^2}} \text{ -----(2)}$$

연구문제 3. 부모 감독의 이차항(헬리콥터 양육 효과) 유의성 검증

19~24세에 해당하는 후기 청소년에게 일명 헬리콥터 양육에 해당되는 부모 감독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모 감독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드러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부모 감독의 증감에 따른 추가적인 가속 또는 감속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OLS회귀모형에서 이차항(x^2)을 추가한 다항회귀분석(Polynomial regression analysis) 모형을 다음 회귀식과 같이 설정하여 헬리콥터 양육의 부정적인 측면이 과연 한국의 후기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차항이 회귀모형에 포함되는 것이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해 이차항의 통계적 유의성과 설명력(R²)을 확인하는 동시에 Lind & Mehlum (2010)이 고안한 다항회귀모형 검증을 시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STATA에서 제공하는 utest 명령어를 활용하였다.¹⁾

다항회귀식)

$$Y_{(\text{삶만족도})} = \beta_0 + \beta_1 X_1 + \beta_1 \cdot X_1^2 + \beta_2 X_2 + \beta_3 X_3 + \sum_{k=1}^n \beta_k X_k + \epsilon \text{ -----(3)}$$

1) <https://ideas.repec.org/c/boc/bocode/s456874.html>

IV. 연구결과

1. 후기 청소년의 부모 감독 및 삶의 만족도 변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기 청소년의 부모 감독과 삶의 만족도가 이전 연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는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나눈 두 집단의 고등학교 3학년 재학시기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의 삶만족도와 부모 감독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다. 먼저 대학 진학자의 경우 삶의 만족도는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고등학교 재학 시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감독 정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고등학교 재학 시기의 부모가 자녀를 감독하는 양육방식이 대학 진학 후 약화된 점을 확인해주었다. 한편, 대학 미진학자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시기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삶만족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 감독의 경우는 대학 진학자와 마찬가지로 이전 연도에 비해 부모의 감독 약화가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로 나타났다.

표 2. 고3 재학 시기와 고졸 이후 대학 진학자/미진학자의 부모 감독 및 삶의 만족도 비교

	대학 진학	대학 비진학
	Mean diff. (2015-2016) (S.E.)	Mean diff. (2015-2016) (S.E.)
삶만족도	0.045* (0.024)	0.031 (0.043)
부모 감독	0.226*** (0.023)	0.110** (0.042)

*** $p < .001$; ** $p < .01$; * $p < .05$

주) 다중대체된 5개의 데이터 세트 중 첫 번째 세트를 활용하였음.

2. 대학 진학 여부에 따른 부모 감독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비교

다음은 부모 감독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가 고등학교 재학 시기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학 진학자와 미진학자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3>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한 청소년과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두 집단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 부모 감독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기 위한 OLS 회귀모형 결과이다.

먼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한 1,204명을 대상으로 한 OLS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 감독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시기와 대학교 재학 시기 모두 삶의 만족도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 진학자 집단에게 있어서 부모의 일상생활에 관한 감독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 감독 효과의 회귀계수의 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한 후기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부모 감독 효과는 고등학교 재학 시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한 후기 청소년의 부모 감독이 감소한 동시에, 부모 감독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또한 고등학교 재학 시기보다 약화된 것이다. 성인기로의 이행 초기에 접어든 대학 진학자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감독은 삶의 만족도에 여전히 유의미한 설명요인이기는 하지만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삶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시기의 특성이 부모의 감독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감소로 나타난 것이다. 다음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재학 시기에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대학교 재학 시기에는 부모가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경우 삶의 만족도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세대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 자녀의 대학 진학 이후 새로운 삶에 대한 학업적·비학업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일련의 선행연구 결과가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또 다른 가정 내 사회경제적 자원인 가계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변수로 고려된 성별은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구조와 형제자매유무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으며, 주관적으로 인식한 건강상태는 고등학교 재학 시기와 대학 진학 이후 모두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했거나 취업 또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423명의 후기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분석 결과, 대학 진학자와 같이 부모 감독은 고등학교 재학 시기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모두 삶의 만족도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감독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가 시기별로 다른지에 대해 회귀계수 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학 진학자와는 달리 대학 미진학자의 경우 부모 감독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와 부모의 영향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을 일관되게 보고한 바 있지만 같은 후기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 부모 감독이 청소년의 삶에 주는 의미는 고등학교 재학 시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 취업을 한 경우에도 부모 감독의 영향이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기로의 이행에 있어서 대학 미진학자들이 갖는 특성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한편, 가정 내 사회경제적 자원인 부모 교육수준과 가계소득은 대학 비진학 집단의 삶의 만족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이 밝혀졌다. 이 집단에서도 여성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낮게 나타났고 가족구조와 형제자매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대학 진학 집단에서와 같이 두 시기 모두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고3 재학 시기와 고졸 이후 대학 진학자/미진학자의 부모 감독과 삶의 만족도 관계 비교

종속변수: 삶만족도	대학 진학		대학 비진학	
	고3(2015)	대재(2016)	고3(2015)	고졸(2016)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부모 감독	0.243*** (0.035)	0.138*** ‡ (0.031)	0.214*** (0.611)	0.188*** (0.052)
부모 교육수준 (대졸이상 = 1)	0.047 (0.036)	0.067* (0.033)	0.122 (0.070)	0.031 (0.067)
가계소득 (logged)	0.060 (0.037)	0.026 (0.036)	0.040 (0.069)	-0.036 (0.062)
성별 (여성 = 1)	-0.159*** (0.033)	-0.107*** (0.032)	-0.113 (0.059)	-0.159** (0.056)
가족구조 (한부모가정 = 1)	-0.081 (0.062)	0.019 (0.061)	0.066 (0.105)	-0.127 (0.101)
형제자매유무 (예 = 1)	-0.054 (0.060)	-0.020 (0.055)	0.064 (0.102)	0.133 (0.103)
주관적인 건강상태	0.271*** (0.029)	0.264*** (0.030)	0.217*** (0.053)	0.289*** (0.055)
상수	0.952** (0.309)	1.458*** (0.311)	1.157* (0.580)	1.475** (0.499)
R ²	0.142	0.117	0.110	0.142
N	1204		423	

*** $p < .001$; ** $p < .01$; * $p < .05$

‡ 는 고3 시기와 대재/고졸 시기 간 부모 감독 회귀계수 차이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진학 여부와 조사 시기에 따른 부모 감독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은 함수선을 가정해볼 수 있다. 회귀식을 토대로 부모 감독이 평균적으로 2.5점에서 3.5점 사이에서 변동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대학 진학 집단의 삶의 만족도는 비진학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대학 진학 집단 내에서는 고등학교 재학 시기인 2015년에 비해 부모 감독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가 약화된 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대학 비진학 집단에서는 부모 감독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의 차이 및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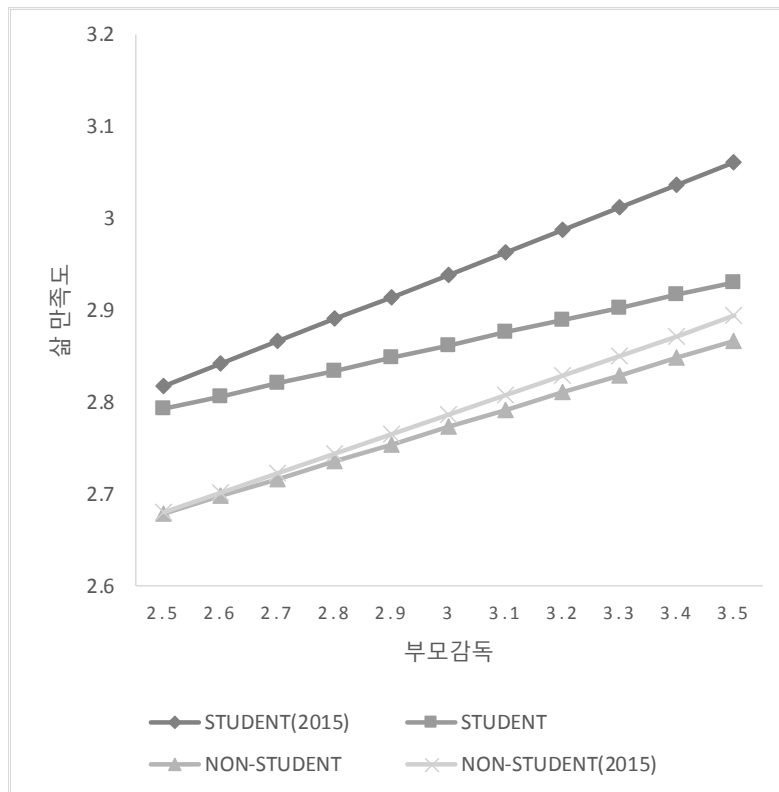


그림 1. 집단별/시기별 부모 감독 증감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 비교

3. 부모 감독의 다항모형 검증

〈표 4〉는 부모 감독 이차항을 추가한 다항회귀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이차항을 추가한 결과 대학 진학 집단의 경우 설명력은 0.117에서 0.120으로 다소 높아졌고 이차항은 .1의 유의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부모 감독의 감속 효과보다는 가속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이다. 반면, 대학 비진학 집단의 경우 다항모형은 기존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나아지지 않았고 이차항도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대학 진학 집단에서 나타난 부모 감독의 가속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회귀식을 [그림 2]와 같이 함수 그래프로 변환하여 기존모형과 다항모형에서의 부모 감독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기존모형과 다항모형 모두 전반적인 정적 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다항모형의 경우 부모 감독 정도가 강할 경우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나타나지만 평균(약 2.9 점) 또는 평균 이하의 부모 감독을 지각할 경우에는 부모 감독과 삶의 만족도 관계가 다소 완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 및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부모 감독이 강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차항의 투입 이후 평균적인 부모 감독을 지각한 학생의 경우 부모의 감독과 삶의 만족도 간의 정적 관계가 기존모형보다 더욱 약화된 형태를 띠는 점을 확인 가능하였다.

표 4. 대학 진학자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모 감독의 다항 모형 유의성 검증

종속변수: 삶만족도	대학 진학		대학 비진학	
	기존모형	다항모형	기존모형	다항모형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부모 감독 ²	-	0.066†	-	0.037
R ²	0.117	0.120	0.142	0.141
Lind & Mehlum 's utest		3.010**	-	-
N	1204		423	

† $p < .1$

주) 기존모형과 다항모형 모두 표3과 같이 가정 내 사회경제적 자원 및 통제변수를 분석에 투입하였으나 본 표에서는 따로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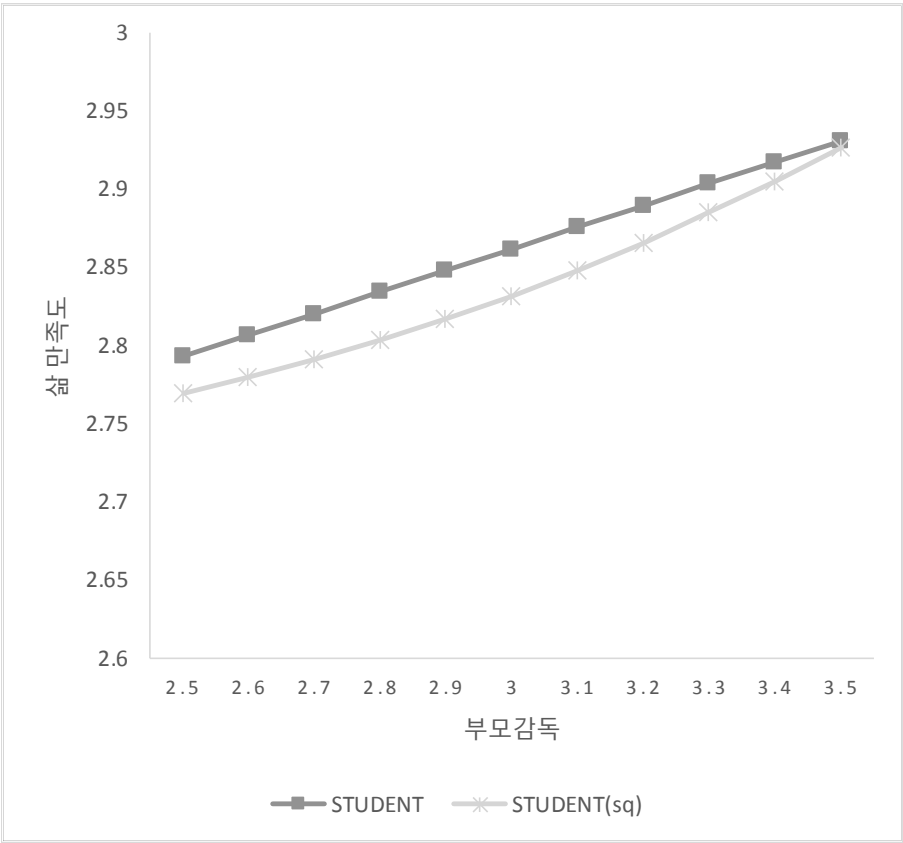


그림 2. 대학 진학 집단의 기존 모형과 다항 모형 비교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 진학자와 미진학자를 구분하여 후기 청소년의 삶만족도 부모 감독 간의 관계가 고등학교 재학 시기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요약된 연구결과와 관련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기 청소년기에 접어든 고등학교 졸업자의 삶의 만족도와 부모 감독 정도는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대학 진학자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시기보다 대학 진학 이후 삶의 만족도가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감독 정도도 대학 진학 이후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미진학자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시기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부모 감독의 경우 대학 진학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의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 감독 수준 자체는 후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대학 진학 여부에 관계없이 감소하며 이는 후기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결과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한편, 대학 진학자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이전보다 유의미하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대학 미진학자의 경우 삶의 만족도의 감소가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삶의 만족도 평균이 대학 진학자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후기 청소년기의 부모 감독과 삶만족도 간의 관계를 이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관계의 변화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분석한 시기와 집단에 관계없이 부모의 감독은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에 있었으나 대학 진학자의 경우 부모 감독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약화된 반면, 대학 미진학자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시기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시기에 두 변수 간의 관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추정된 회귀모형을 토대로 부모 감독과 삶의 만족도 간의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았을 때, 대학 미진학자의 경우 함수선이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대학 진학자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시기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부모 감독의 정적인 효과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대학생의 삶에서 부모 감독의 효과가 감소한 점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가정 및 부모 이외의 다른 삶의 질 향상 요인이 요구된다는 점을 알려준다. 이러한 추가적인 요구는 [그림 1]의 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데, 현재 한국의 대학생은 부모 감독의 영향 자체는 이전보다 덜 받게 되었으나 부모 감독 효과의 감소분이 다른 향상 요인으로 상쇄되지 못함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고등학교 재학 시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 회복을 위한 대학과 사회 차원의 부양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미진학자의 경우 부모 감독 효과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진학이 아닌 다른 경력경로에 진입했거나 혹은 아직 어떤 선택도 하지 않은 경우 성인기로의 이행이 다소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과 사회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경우 여전히 부모의 지원과 관심이 중요한 삶의 만족도 설명요인이 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대학 진학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 미진

학자의 삶의 질 저하와 삶의 질 개선 대책 연구가 시급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부모 감독과 삶의 만족도 간의 다항회귀모형을 검증해 본 결과, 대학진학자의 경우에서만 부모 감독의 이차항이의 유의성이 확인되었으며 다항회귀모형이 기존 선형모형보다 모형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지적인 과도한 부모 감독 즉, 헬리콥터 양육의 부정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감독과 관여가 대학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지원이며 이는 성인기로의 이행이 늦어지고 부모에 대한 의존 경향이 대학 진학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Arnett(2000)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오히려 부모 감독과 삶의 만족도 간의 가속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함수 그래프를 토대로 부모 감독 수준이 평균 또는 평균 이하인 경우 부모 감독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완만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부모가 대학 진학 청소년 자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면 부모의 영향이 고등학교 재학 시기에 비해 감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선형 관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의 부모와 대학생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되며 후속 연구는 대학에 진학한 후기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의존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의 축적을 통해 단순히 과도한 부모의 감독과 관여의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과도한 감독과 관여가 요구되는 사회적 배경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지경, 이광호 (201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연구보고 13-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연·이은주(2016). 부모 양육방식의 군집 유형에 따른 아동, 청소년 학습습관의 차이. **제6회 한국아동 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박영신·김의철(2000). 부모-자녀 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중고 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8(2), 109-147.
- 허묘연(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 469 - 480.
- Carney-Hall, K.C. (2008). Managing parent partnerships: Maximizing influence, minimizing interference, and focusing on student success. *New Directions for Student Services*, 122.
- Clogg, C. C., Petkova, E., & Haritou, A. (1995). Statistical methods for comparing regression coefficients between model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5), 1261-1293.
- Crouter, A. C., & Head, M. R. (2002). Parental monitoring and knowledge of children. *Handbook of parenting*, 3, 461-483.
- Dishion, T. J., and McMahon, R. J. (1998). Parental monitoring and the prevention of child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 conceptual and empirical formulation.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 61 - 75.

- Fingerman, K. L., Cheng, Y. P., Tighe, L., Birditt, K. S., & Zarit, S. (2012). Relationships between young adults and their parents. In *Early adulthood in a family context* (pp. 59-85). Springer New York.
- Hammond, R. J., & Cheney, P. (2010). *Sociology of the family*. Retrieved from http://freesociologybooks.com/Sociology_Of_The_Family/01_Changes_and_Definitions.php
- Jacobson, K. C., and Crockett, L. J. (2000). Parental monitoring and adolescent adjustment: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0, 65 - 97.
- LeMoyne, T., & Buchanan, T. (2011). Does “hovering” matter? Helicopter parenting and its effect on well-being, *Sociological Spectrum*, 31(4), 399-418.
- Lind, J. T., & Mehlum, H. (2010). With or without U? the Appropriate Test for a U Shaped Relationship.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2(1), 109-118.
- Paternoster, R., Brame, R., Mazerolle, P., & Piquero, A. (1998). Using the correct statistical test for the equality of regression coefficients. *Criminology*, 36(4), 859-866.
- Padilla-Walker, L. M., & Nelson, L. J. (2012). Black hawk down?: Establishing helicopter parenting as a distinct construct from other forms of parental control during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ce*, 35, 1177-1190.
- Schiffrin, H. H., Liss, M., Miles-McLean, H., Geary, K. A., Erchull, M. J., & Tashner, T. (2014). Helping or hovering? The effects of helicopter parenting on college students' well-bei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3(3), 548-557.
- Shoup, R., Gonyea, R. M., & Kuh, G. D. (2009, June). *Helicopter parents: Examining the impact of highly involved parents on student engagement and educational outcomes*. In 49th Annual Forum of the Association for Institutional Research, Atlanta, Georgia. Retrieved from <http://cpr.iub.edu/uploads/AIR> (Vol. 202009).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청소년의 직업선택요인 유형과 특성

김미옥* · 조아미**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의 직업선택 요인 유형에 따른 잠재계층을 파악하여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의 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KCYPS) 7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등학교를 졸업(중1 패널)한 1,88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선택 요인 청소년의 계층을 살펴보기 위해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잠재계층 분석 결과 4개의 잠재계층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계층 1은 “내재적 가치 추구형”, 계층 2는 “독립 추구형”, 계층 3은 “저인식형”, 계층 4는 “고(高)가치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각 계층에 따라 성별, 장래희망 교육수준,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의 직업선택 요인 잠재계층 유형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직업선택요인, 잠재계층분석

I. 서 론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로의 빠른 사회적 변화의 흐름은 과학 기술의 발달, 다양하고 세분화된 직업 세계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적 가치와 질서의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에게 있어서 진로란 단순히 직업의 선택이라는 좁은 범위에서 벗어나 전 생애 발달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되었으며, (김병숙, 손민아, 2005) 노동시장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게 직업선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나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시대로의 빠른 변화의 추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기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진로와 직업선택과 관련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직업선택 시 무엇을 중요시 할 것인지에 대한 직업가치관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어떠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도 달라지기 때문에 직업선택요인의 중요성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년 전국 만15세 이상 112만 명의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직업가치관의 변화 및 차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선택 시 중요한 가치관으로 뽑은 1위는 몸과 마음의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박사과정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choami@mju.ac.kr

여유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직업가치관 1순위를 지켜왔다(서현주, 2017). 특히나 10대와 20대 청년층에서 10년간 몸과 마음의 여유가 1위를 유지했고, 그 다음으로 직업 안정성이었다. 이는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아 성취지향적 삶보다는 개인의 내적 삶의 질을 중요시함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기는 발달단계 상 자아정체감 형성과 함께 대인관계 기술, 다양한 환경을 통한 자신의 삶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고 연마해 가는 시기로 진로준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 시기에는 구체적인 ‘일과 직업의 세계에 대한 이해’보다는 전반적인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 이루어져야 하고(정수진, 류창열, 2009), 자신의 능력, 적성의 이해, 직업의 분류, 직업생활을 위한 준비교육, 장래의 잠정적 계획수립, 진학준비, 바람직한 직업 선정의 조건 등에 대한 탐색과 이해의 시간이 필요하다(김충기, 2000). 특히 변화하는 직업의 세계에서 개인이 처한 환경과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직업의 선택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김봉환 외, 2005). 즉 현대에는 직업의 선택에서 평생 직업의 의미보다는 발달적 차원의 분화와 통합의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삶의 방향성의 기준이 되는 것을 가치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삶에서 직업은 매우 중요하며, 직업가치라는 것은 직업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어디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알고 그 가치를 채울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만 한다(성영숙, 2016).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직업 가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의 직업선택 요인을 분석하여 패턴을 범주화 하고, 그 계층에 속할 확률을 찾아내어 귀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잠재계층 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직업 선택 요인 잠재계층별 특성을 유형화 한 다음 각 유형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직업선택

누구나 자신의 장래와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복월분, 2000). 직업의 중요성은 현대사회를 직업사회라고 불릴 만큼 날로 강조되고 있다.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직업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생산적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행복한 개인으로서의 자기실현을 한다. 직업이란 일상사의 핵심이며 자신의 생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직업의 결정이 생활 방식의 결정을 포함 한다고도 볼 수 있다(Borg, 1996).

직업이 인간 개인에게 주는 가치를 김충기(2000)는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첫째, 직업의 경제적 의미로서 자신의 직업적 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으로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직업을 생업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소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부의 가사노동이나 취미활동을 직업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이다. 둘째, 현대 사회에는 전문직, 기술직 여러 갈래의 분업 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그 기능 중 어느 것 하나를 분담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하게 된다. 직업의 사회적 의미로 누구나 직업을 통해서 사회에 유용하게 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직업의 심리적 의미로 개인에 있어서 직업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정당하게 획득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그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아를 실현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즉, 인간의 생리적 욕구, 안정성 욕구, 소속성 욕구, 독립성 욕구, 자아실현 등의 욕구를 직업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직업은 경제적, 사회적, 자기실현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하였다(김동선, 2002).

Ginzberg(1951)는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한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성인 초기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하여야 하는데, 각 단계에 대한 결정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Holland(1959, 1966)는 인간은 그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였다. 홀랜드는 단순한 이론 구축에 그치지 않고 이를 근거로 직업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도구(VPI, SDS)를 개발하였다. 개인과 환경을 동일한 6형태로 정리하여 개인과 환경 유형이 동일한데서 오는 조화적 상호작용이 부조화적 상호작용과는 대조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직업선택, 보다 고도의 직업달성, 보다 높은 학업성적, 보다 나은 개인적 안정성, 커다란 만족을 가져다준다고 하였다. 현실형, 연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습관형 등 6가지로 현대 문화권에서는 많은 사람을 분류하면서 우리들이 생활하는 환경도 위의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개인은 자신의 기능이나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가치관과 태도를 표현하고 자신에게 맞는 역할이나 과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찾게 된다. 개인의 행동은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와 환경 특징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사람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일을 할 때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능률을 향상시키며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될 것이다.

Roe(1956)는 개인의 욕구가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서, 특히 아동기에 형성된 욕구에 대한 반응으로 직업선택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는 여러 가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욕구를 갖고 있고 이러한 욕구의 차이는 어린 시절 부모-자녀관계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개인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관점에서는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들 중에서 진로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모라고 하였다.

직업포부를 결정해 가는 과정에서 개인은 직업에 대해 특정한 결정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 차별, 노동시장, 타인과의 경쟁 등 외부세계의 영향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자신의 한계와 사회 환경과의 절충을 통해 직업포부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한계(circumscription)와 절충(compromise)의 두 개념을 적용하였다(Gottfredson, 2002).

Gottfredson(2002)는 한계의 의미와 관련하여 4단계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단계는 크기와 힘

지향단계로 3~5세이다. 아동은 사물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아동은 크다-작다 혹은 오래되었다-새것이다 등 간단한 조건으로 사물을 분류하기 시작한다. 아동은 직업에서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 직업을 본다. 이때 아동은 남자-여자 또는 명성 있는 직업-명성 없는 직업과 같은 개념을 조금씩 깨닫게 된다. 두 번째는 성역할 지향단계로 6~8세로 성역할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자신의 성이 우월하다고 믿는다. 이 때 직업을 여자만하는 직업과 남자만 하는 직업으로 이원화하여 분류하는 허용 가능한 성유형 경계가 뚜렷하게 발달한다. 세 번째는 사회적 가치 지향단계로 9~13세이다. 이 시기에는 점점 더 또래를 의식하게 되어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며 사회계층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된다. Gottfredson에 의하면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학생은 성인이 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명성에 따라 직업을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 문화집단, 특정 직업 집단에 따라 명성 있는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에 대해 합의가 존재한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직업 유형은 그들 자신의 가족에게는 거절당하기가 쉽다는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직업은 허용 가능한 경계수준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내적 고유자아 지향단계로 14세이상 청소년이다. 청소년은 가능한 직업적 대안들이 선호되는 것인지,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것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 능력, 가족의 요구, 성격 등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러한 기준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자 한다(Gottfredson, 2002).

직업선택의 과정은 결국 자기 자신의 다양한 학습과정을 통해 축적한 역량과 지향하는 가치에 바탕을 두고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며, 그 선택 결과에 따라 수년 후 노동시장에서의 입지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예측의 과정이기도 하다. 직업선택의 과정은 개인들의 일정기간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결정이 되는 것으로 다양한 경제사회적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성영숙, 2016).

효과적인 직업선택을 위해서는 직업발달단계 및 그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직업세계의 분석, 직종, 사회구조, 심리적인 요구, 인간발달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하며 문제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이론을 선택하여 지도에 임해야 한다(김충기, 1984).

2. 직업발달이론

직업발달이론은 인간발달의 개념을 직업지도에 도입한 이론으로써 직업적 발달이란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마찬가지로 직업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와 기능이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청년기에 성취한다는 개념으로 인식하였고 대표적인 학자로는 Ginzberg와 Super 등이 있다.

Ginzberg의 직업발달이론은 직업행동에 관한 최초의 종합적인 이론으로써 직업선택의 과정은 흥미, 능력, 가치관들의 주관적 요소와 현실 세계와의 타협으로 이루어지며, 직업선택의 과정을 환상적 단계(6~10세), 시험적 선택단계(11~17세), 현실단계(18세 이상)로 구분했다. 현실단계는 다시 자신의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이나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탐색단계, 직업목표를 정하고 자신의 결정에 관련된 내적·외적요소를 종합할 수 있는 구체화단계, 그리고 자신의 한 결정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전문화단계로 구분된다.

반대로 Super의 이론은 발달 내지 현상학적 심리적이라고 제안하며 직업의식의 발달은 직업의 선택과 적응이 상호 작용하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속적인 과정은 일련의 생애 수단으로서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로 구분했다. Super의 진로발달 단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기청소년들은 실질적으로 직업선택을 명료화하고 구체화하며 실행해나가는 탐색기(15~24세)에 속해 있으며(김보인, 2008), 탐색기의 하위단계를 살펴보면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와 취업기회 등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잠정기(15~17세), 장래 직업세계에 들어갈 때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며 자신의 자기개념을 확립하는 전환기(18~24세)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김병숙, 2007). 이와 같이 Ginzberg와 Super의 이론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시 되고 있는 단계로서, 탐색기에는 자신에 대해 알아가며 그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강조되고 이러한 탐색단계가 후기청소년들한테는 직업선택을 위한 중요한 준비과정이라 할 수 있다.

3. 직업선택요인

최초로 직업 선택에 관한 연구를 한 Parsons(1909)는 현명한 직업선택을 위해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자신의 적성, 능력, 흥미, 야망, 자원, 한계에 대해 이해하고 그 한계의 원인을 아는 것이고 둘째는 여러 분야의 일에 대한 요구조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장점과 단점, 기회, 보수, 전망 등을 아는 것이며, 셋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추론이라고 하였다. 즉 개인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보면, 내부적인 요인에는 그 사람의 성별, 적성, 흥미, 성격, 기질, 가치관 등과 가족의 사회, 경제적인 신분이나 생활양식 등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외부적 요인으로는 개인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닌 습득되는 것으로 사회학적 영향, 고용과 실직, 임금체계, 수요와 공급 등의 경제학적 관점, 사회구조적 변화와 영향, 작업 상황 등 다양한 요인들을 들 수 있다.

Herzberg는 1968년에 [one more time : how do you motivate employees?(종업원에 대한 동기부여 방법)]이라는 논문에서 동기부여-위생요인이 직업, 직장선택시 고려 요인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의 이론은 직장 선택 시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 지속적인 경력개발, 인정 등의 동기부여 요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되면 불만을 초래하는 위생요인까지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규칙 및 기준, 상사와의 관계, 근무조건, 임금수준, 동료와의 관계 등 충족이 안 직업선택요인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개인적 요인과 직업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대학 입시 학과선택에서 관심분야에 비중을 두고, 진로 선택 시 소질 및 적성을 고려하는 개인적 요인, 대학에 대한 정보를 주로 매스컴을 통해 얻어 나타나는 환경적 요인, 직업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이상희, 2000). 희망 직업선택 시 기준의 우선순위는 남녀 모두 적성, 안정성, 수입의 순으로, 직업에 대한 의식의 경우 남녀 모두 자기능력발휘 수단, 생계유지 수단 순으로 나타났다(이인학, 1997). 대학생

의 경우 직업과 직장에 대한 선택 기준이 인지도나 장래성(개인의 성장 가능성)과 같이 현실적인 요소를 보다 중시하고 급여와 같은 금전적 보상 수준은 가장 중요시 하는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전공계열에 따른 직업선택요인에서는 적성 및 흥미와 직업장래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희망직업은 적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반면 학교 선택에 있어서는 성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직업선택요인에 전공 선택 동기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정보연, 2010).

구직자 유형별 직장선택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 구직자들은 직장선택시 기업의 안정성 및 성장성, 보수 및 복지, 근무여건, 형태 및 규모 순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개별 요인에 대한 중요도는 기업형태, 기업규모, 임금, 근무환경, 안정성, 복리후생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에는 근무여건에만 유의한 차가 존재했으며, 여자가 남자에 비해 직장 위치, 보육시설, 휴가 등에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전공 계열별로는 공학계열과 사회과학계열간의 유의성이 나타났으며, 특히 사범계열은 안정성 및 성장성을 타 계열에 비하여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이충석, 류옥현, 2011).

그동안 직업선택의 기준은 직업 및 직장선택뿐 아니라 취직 이후의 직무만족, 이직 의도, 업무성과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중요한 연구과제로 다루어져 왔고(김선아 외, 2013), 청년층의 희망 직업선택 기준이 '임금, 안정성' 등의 외적동기와 관련된 요소보다 '적성, 자기능력 발휘' 등 내적 동기와 관련된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된 반면(심상섭, 2013), 2014년 '청년층 취업실태 및 의식기획 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이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여전히 '임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최초의 일자리를 구할 때 임금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내적 가치는 우선 취업한 후 이직을 고려할 때 다시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어려운 현실 상황 속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이직 과정에서 내, 외적 동기와 관련된 요소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업선택요인과 관련하여 연구자들마다 내재적인 요인과 외재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여 직업가치 차원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해왔다.

직업가치는 개인이 직업과 진로에 대해 바라보는 가치를 말하며,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생활을 영위 하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체계라고 할 수 있다. 내재적 직업가치는 직업의 가치나 중요성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이는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내재적 보상에 가치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Cheung & Scherling, 1999). 내재적 보상에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 추구, 업무내용, 인간관계 등의 항목이 포함되며(Lambert, 1991), 이 외에도 지속적 발전 및 창의성, 독립성, 책임감 등 직무에 대한 장래성과 자율성, 권한 등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재적 보상의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Lee & Wilbur, 1985).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직장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데 있어 내재적 직업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Parboteeah, Cullen과Paik, 2013),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엿 볼 수 있다. 외재적 직업가치는 직업의 도구적 가치를 일컫는 것으로 임금, 고용안정성, 회사규모, 근로시간 등 직업에 관련된 객관적인 물질적 보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뜻한다(김정숙, 2006; Parboteeah, Cullen, & Paik, 2013).

직업가치관은 대체로 특정 직업이 아닌 일반화 된 개념으로서의 직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개인이 갖게 되는 일종의 사고방식 또는 가치기준을 의미하며, 직업가치관은 개인의 직업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족, 학교 및 직업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매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된다(Pryor, 1980; Roberson, 1990).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분석된 직업가치의 영역을 살펴보면 직업가치 하위영역을 내재적 직업가치와 외재적 직업가치로 나누고 또 다시 그 아래에 세분화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는 형태를 다수 보이고 있다. 직업가치의 하위영역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분석되어 왔는데 먼저 Ginzberg 등(1951)은 내재적 형태(직업활동 자체), 외재적 형태(경제 및 위신), 부수적 형태(사회적 · 환경적 가치)등으로 구분하였고, 직업가치의 개념을 일 자체에 의미를 두는 내재적 직업가치와 직업 안정등과 같은 일에 따르는 물질적 보상이나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재적 직업가치로 구분하였다.(Kalleberg, 1977). 지적자극이나, 심미성, 성취, 관리 등을 내재적 영역으로 하였으며, 생활방식, 안정성, 위신, 보수 등을 외재적 영역으로 들었다(Super, 1970). 또한 직업흥미, 자기훈련, 자아실현 등의 내재적 직업가치를 설명하고 경제적인 것과 직무여건, 대인관계, 안정성을 추구하는 외재적 직업가치를 하위요인으로 한 것을 볼 수 있다(Kazanas, Hannah, & Gregor, 1975). 국내에서는 내적인 직업가치 하위요인으로 자기능력, 이상주의, 자기표현으로, 외적인 직업가치로는 권력추구, 안정추구, 경제우선을 하위요인으로 정하였다(김병숙 외, 1998). 측정하는 요소들은 연구자와 검사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으나 항목이 직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지향하는 범주 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범주에서 연구되어진 결과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남자의 경우 보수 및 인정과 같은 외적 직업가치를 중요시하는 반면, 여성은 사람들과의 협력 및 이타성과 같은 내적 직업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정숙, 2006). 하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과거에 비해 여학생들의 외적 직업가치가 증가하고 있거나(이옥, 1993) 내적인 직업가치와 외적인 직업가치의 차이가 성별에 따라 뚜렷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Fiorentine, 1988).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데이터 중 2016년도 7차 패널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중1 패널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현재의 신분 상태에 따라 대학을 다니면서 근로하지 않는 청소년, 대학을 다니면서 취업한 청소년, 대학은 다니지 않고 취업한 청소년, 비진학/비취업 청소년들로 구분되어 조사되었다. 설문응답자 수는 총 2,351명이었으며, 이 중 직업선택요인에 대한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청소년 295명을 제외한 총 1,881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직업선택 요인의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패널(KCYPS)의 2016년 7차년도 중1패널 설문에서 직업선택요인에 대한 12문항을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직업선택 요인이 중요함을 의미하며,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00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직업선택요인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범주변인(categorical variable) 분석모형 중 하나인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은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사람중심기법이라 불리며,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연구 참여자를 동일한 계층으로 분류 한 다음 각 계층에 속할 확률을 찾아내어 계층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선택수, 2010). 모집단내의 동질성을 가진 하위집단을 탐색하고 분류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며, 집단의 개수나 크기를 몰라도 변인의 척도와 관계없이 집단을 세분화할 수 있다. 이는 확률 값을 통해서 각각의 응답자들이 속하게 될 하위집단이 정해지기도 하고, 통계치를 통해서도 연구자가 개수를 논리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이한우, 염동문, 2017). 잠재계층 분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의 직업선택요인을 계층별로 유형화하는데 있어 이론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계층수를 정하지 않아, 본 연구의 탐색적이고 기술적인 목적을 충족하고 있다. 잠재계층 분석은 문항의 반응패턴을 귀납적으로 파악하여 계층의 수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모형검증치(model fit statistics)를 제공한다(김사현, 홍경준, 2010). 계층별 유형화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각 계층별로 서비스 지원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조아미, 선택수, 2012).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기반 적합도 지수인 3개의 IC(Information Criteria)를 고려하되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IC는 AIC, BIC, adjusted BIC이다(선택수, 2010). AIC, BIC, adjusted BIC 이 세 가지를 통해 모형 적합도를 검증할 수 있다. 이때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는데 있어 필요한 적합도 지수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모수를 이용해 높은 로그우도 수치를 만들어 내는 모형을 선호한다. IC로 고려되는 AIC, BIC, adjusted BIC의 값이 작을수록 최적의 잠재유형 수를 가진 모형임을 나타내며, AIC, BIC, adjusted BIC는 가장 낮은 수치를 가진 최적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각각의 값을 비교하는데 활용된다(선택수, 2010). 둘째, 잠재계층의 최적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Entropy값을 보는 것이다. Entropy는 추정되는 모형이 계층군의 확률을 바탕으로 분류 정확도를 표준화한 측정치이다. Entropy지수는 모형의 평균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각 계층이 분명하게 분류되었는지 모형의 비교와 평가를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Crosby et al., 2009; 진영선, 2016 재인용). Entropy값은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하다.

마지막으로, 잠재계층의 최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것은 Lo-Mendell-Rubin(LMR)과 부트스트랩 최대우도 비율검증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이다. LMR과 BLRT는 통계검증을 이용하여 모형 적합도를 알아보는 지수로 k개 모델의 지지여부(k-1개 모델의 기각여부)를 결정하는 p값을 제공하게 되며, $p < 0.05$ 일 때, k개 모델(대립가설)을 지지하게 된다(Jung &

Wickrama, 2008). LMR은 $k-1$ 집단 모형(영가설)과 k 집단 모형(대립가설)간 로그최대우도 차이에 대한 분포 추정(Approximation of the distribution)을 이용한 것이다. LMR은 결과에 대한 확률(p-value)값을 제공하는데, 만약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면 k 집단모형(대립가설)이 $k-1$ 집단모형(영가설)보다 정보적합도 지수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BLRT도 LMR과 유사하게 확률(p-value)값을 이용한 모형 적합도비교를 채택한다. 그러나 LMR과 달리 BLRT는 표본에서 다량의 Bootstrap 표본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편향되지 않는 로그우도 차이 분포를 추정한다(선택수, 2010).

본 연구에서는 2016년 7차 중1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후기청소년의 직업선택요인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Mplus 5.21(Muthen & Muthen, 200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의 응답자 수는 총 2,351명이었으며, 이 중 직업선택요인에 대한 문항에 응답한 청소년 총 1,881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응답자 중 남성 927명(49.3%), 여성 954명(50.7%)으로 나타났고, 현재 신분 상태를 묻는 질문에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근로를 하지 않는 청소년이 68.4%(1,28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진학/비취업 청소년 17.6%(331명), 대학을 다니지 않고 취업 한 청소년 10.5%(197명), 대학교에 재학 중면서 근로를 하고 있는 청소년 3.2%(61명), 고등학교 재학 청소년 0.3%(5명)순이었다. 현재 신분 상태에서 대학생 중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비율이 66.8%(9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대학생의 78.4%(1,057명)는 사립학교를, 21.6%(291명)는 국·공립을 다니고 있었다. 비진학/비취업 청소년들의 61.3%(203명)는 대학진학준비를, 21.8%(72명)는 취업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16.9%(56명)는 둘 다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를 못하는 이유로는 62.5%(35명)가 병역문제를 들었는데 청소년들에게 병역문제는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취업을 한 청소년들의 지위는 상용근로자가 62.8%(1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임시근로자 26.4%(68명), 일용근로자 7.4%(19명)순으로 나타나 낮은 지위와 불안정한 고용관계에서 일을 있었다. 이들의 직종 또한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가 45.8%(118명), 사무종사자 15.1%(39명),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2.4%(32명),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0.5%(27명), 단순노무자 7.4%(19명)순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비교적 노동 강도가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2%(437명)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용돈마련을 위해 하는 경우가 73.5% 가장 많았다. 자신의 미래의 직업에 대해 구체적이거나 대강 하고 싶은 직업을 결정한 청소년은 87.2%였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 상태도 22.8%(429명)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기준	명(%)	구분	기준	명(%)
성별	남성	927(49.3%)	대학교 구분	2년제 전문대학	306(22.7%)
	여성	954(50.7%)		3년제 전문대학	135(10.0%)
현재 신분	고등학교 재학	5(0.3%)		4년제 대학교	900(66.8%)
	대학교 재학 중 근로 안함	1287(68.4%)		5~6년제 대학교	7(0.5%)
	대학교 재학 중 근로 중	61(3.2%)	대학설립 유형	국공립	291(21.6%)
	대학 다니지 않고 취업	197(10.5%)		사립	1057(78.4%)
아르 바이트 유무	비진학/비취업	331(17.6%)	비진학/ 비취업자 진로준비 여부	대학진학 준비 중	203(61.3%)
	하고 있음	437(23.2%)		취업준비 중	72(21.8%)
	없음	1444(76.8%)		둘 다 하고 있지 않음	56(16.9%)
아르 바이트 사유	생활비충당	50(11.4%)	비진학/ 비취업자 진로준비를 못하는 이유	건강문제	5(8.9%)
	등록금 마련	14(3.2%)		집안사정	1(1.8%)
	용돈마련	321(73.5%)		병역문제	35(62.5%)
	장래대비 자금마련	11(2.5%)		공부/일이 싫어서	5(8.9%)
	사회경험 쌓기 위해	23(5.3%)		현 생활을 즐기려고(여행, 취미)	4(7.1%)
	기타	18(4.1%)		진학, 취업가능성 없음	2(3.6%)
장래직업 결정여부	구체적으로 정한 직업이 있음	588(31.3%)	기타		4(4.1%)
	대강 하고 싶은 직업이 있음	864(45.9%)			
	아직 하고 싶은 직업 결정 안함	429(22.8%)			
취업자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62(62.8%)	취업자 근로 직종	관리자	3(1.2%)
	임시근로자	68(26.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4(5.4%)
	일용근로자	19(7.4%)		사무종사자	39(15.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1.2%)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118(45.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1.2%)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27(10.5%)
	무급가족 종사자	3(1.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2(12.4%)
	기타	47(2.5%)		단순노무자	19(7.4%)
				군인	5(1.9%)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0.4%)

2. 직업선택요인 범주에 대한 잠재계층 결과

‘직업선택요인’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해야 한다. 직업선택 요인의 잠재계층을 잘 설명하는 적합모형을 찾기 위해서 2개부터 5개까지 설정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는 잠재계층의 수리 알고리즘은 모형의 복잡성과 잠재계층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

이다(선택수, 2010). 잠재계층의 최적모형은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a),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adjusted BIC(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LMR(Lo-Mendell-Rubin),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Entropy의 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Sullivan, Chills & O'Connell, 2010; 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IC는 그 값이 작을수록 최적의 잠재유형 수를 가진 모형을 의미하며 가장 낮은 수치를 가진 최적의 모형을 비교하는데 활용된다. LMR은 부트스트랩 최대우대 비율 검증(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은 통계검증을 이용한 적합도 지수로 결과에 대한 확률(p-value)을 제공하는데 유의미한 검증결과를 얻었다면 k집단 모형이 k-1집단 모형보다 적합도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BLRT도 LMR과 유사한 확률(p-value) 값을 이용한 모형 적합도 비교를 채택하지만 표본에서 다량의 부트스트랩 표본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편향되지 않는 로그우도 차이분포를 추정한다(선택수, 2010). Entropy는 추정된 모형이 계층군의 확률을 바탕으로 분류 정확도를 표준화한 측정치로 0부터 1의 값중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함을 의미한다.

이를 고려하여 직업선택요인 후기 청소년들의 계층을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LCA)을 실시한 결과는 <표 2>, <표 3>과 같다. <표 2>는 AIC, BIC, adjusted BIC를 제시하였고, <표 3>는 계층간 LMR, BRLT, Entropy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2. 계층별 IC 검증결과

IC(K) \ 계층수	2	3	4	5
AIC	41408.525	40954.393	40459.620	34859.509
BIC	41613.489	41231.371	40808.612	35280.515
adjusted BIC	41495.940	41072.522	40608.461	35039.064

표 3. 계층간 LMR과 BLRT 검증 결과/ Entropy값

Likelihood testing	계층1 VS 계층2	계층2 VS 계층3	계층3 VS 계층4	계층4 VS 계층5
LMR	3452.197***	475.282*	484.190*	279.648
BLRT	3487.418***	480.132***	489.130***	281.966***
Entropy	.842	.878	.892	.926

※ 해당 검증값은 집단간 -2LL(로그 최대우도)의 차이임

*** $p < .001$, ** $p < .01$, * $p < .05$

잠재계층분석 결과, 잠재계층이 5개일 경우, 정보-기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다른 계층 보다 AIC(34859.509), BIC(35280.515), adjusted BIC(35039.064)가 가장 낮았다. Entropy(.926)의 적합도 지수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LMR(279.648, $p = .10$)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개의 잠재계층을 가진 모형과 k-1개의 계층을 가진 계층을 가진 잠재계층을 비교해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k-1개인 4개의 잠재계층이 적

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계층수가 3개일 경우, LMR(475.282, $p=0.03$)과 BLRT(480.132, $p=.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Entropy(.878)의 지수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합도 지수인 AIC(40954.393), BIC(41231.371), adjusted BIC(41072.522)의 적합도 지수가 잠재계층 4개일 AIC(40459.620), BIC(40808.612), adjusted BIC(40608.46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계층이 4개일 경우 AIC, BIC, adjusted BIC가 가장 낮은 수치가 나타났고, Entropy(.892)의 지수도 양호하고, LMR(484.190, $p=0.01$)과 BLRT(489.13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전반적으로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후기청소년의 직업선택요인 유형은 4개의 잠재계층이 최적의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직업선택 요인의 잠재계층 평균 추정치는 아래 <표 4>와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표 4>의 추정치는 평균값이 클수록 각 직업선택 요인의 가치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4개 계층의 전체적인 특성을 보면 4개 계층 모두에서 사회적인 명예나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와 관련해 다른 요인들에 비해 덜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정적 일터, 자신의 소질과 적성, 업무적 환경, 시간적 여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등은 비교적 직업 선택 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다’는 5번 요인에서는 모든 계층이 중요하다고 나타나 청소년들의 내적인 성장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표 4. 잠재계층 별 잠재평균 추정치

변인	계층	계층 1 (n = 281)		계층 2 (n = 382)		계층 3 (n = 856)		계층 4 (n = 361)	
		M	S.E	M	S.E	M	S.E	M	S.E
안정적 일터		3.25	0.08	3.52	0.03	3.12	0.02	3.75	0.01
고임금		2.97	0.08	3.34	0.04	3.05	0.03	3.72	0.01
사회적 명예		2.30	0.10	2.88	0.07	2.56	0.03	3.50	0.02
사회적 기여		2.37	0.10	2.84	0.08	2.51	0.03	3.31	0.02
소질과 적성		3.74	0.05	3.54	0.05	3.19	0.03	3.86	0.01
업무환경		3.68	0.08	3.67	0.07	3.00	0.02	3.85	0.02
시간적 여유		3.66	0.08	3.60	0.06	2.95	0.02	3.84	0.02
가족과의 시간		3.54	0.09	3.50	0.04	2.91	0.03	3.78	0.02
함께 일하기		3.34	0.09	3.02	0.08	2.76	0.03	3.67	0.02
동료와의 경쟁지양		3.41	0.08	3.01	0.05	2.83	0.03	3.64	0.02
자율성		3.87	0.05	2.99	0.09	2.94	0.03	3.92	0.03
다양한 경험		3.80	0.09	2.87	0.09	2.96	0.03	3.83	0.03

이러한 전체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4개의 잠재계층의 특성을 [그림 1]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잠재계층 1은 281명(14.9%)으로 직업선택 요인 중 ‘사회적 명예’, ‘사회적 기여’가 다른 유형보다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고, ‘자율성’, ‘소질과 적성’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 “내재적 가치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계층 2는 383명(20.4%)으로 모든 항목들에 있어 중간 수준의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소질과 적성’, ‘업무환경’, ‘시간적 여유’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독립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계층 3은 856명(45.5%)으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포함된 계층으로 ‘사회적 명예’, ‘사회적 기여’, ‘시간적 여유’, ‘함께 일하기’, ‘자율성’ 등 모든 문항에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저인식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계층 4는 361명(19.2%)으로 직업선택요인의 모든 항목들에 있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고(高)가치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계층 1은 “내재적 가치 추구형”, 계층 2는 “독립 추구형”, 계층 3은 “저인식형”, 계층 4는 “고(高)가치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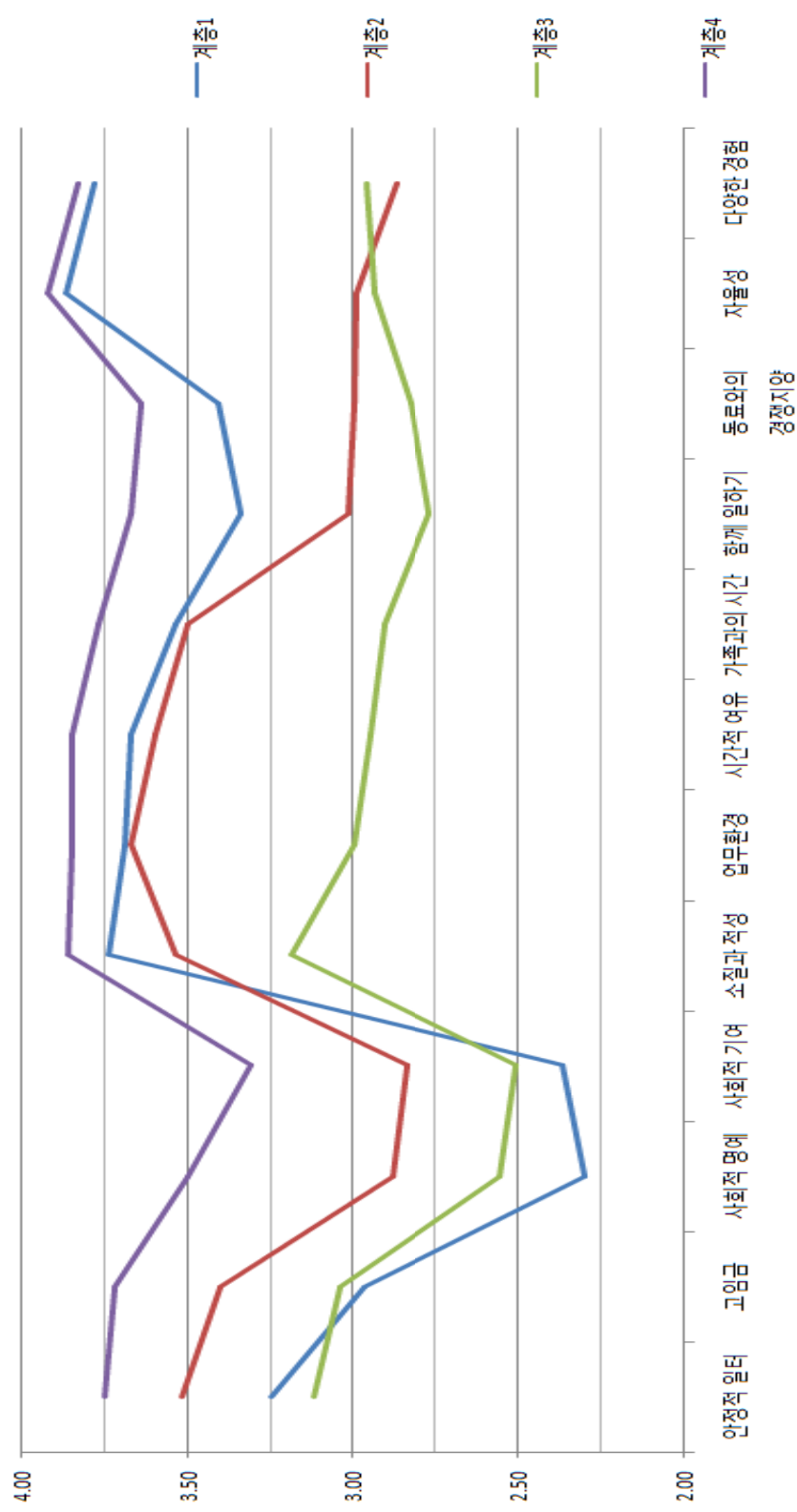


그림 1. 직업선택요인에 따른 잠재계층프로파일

3. 잠재계층유형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잠재계층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표 5>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 성별에 따른 계층별 차이를 보면 계층 1은 남성이 높은 반면 계층 2, 계층 3, 계층 4는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1의 내적 가치 추구형은 총 281명(14.9%) 중 남성이 149명(7.9%), 여성이 132명(7.0%)로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계층 2의 독립 추구형은 총 383명(20.4%) 중 여성이 203명(10.8%), 남성이 180명(9.6%)으로,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는 계층 3의 저인식형은 남성 420명(22.3%), 여성 436(23.2%)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좀 더 많았다. 계층 4의 고(高)가치 추구형의 경우에도 361명 중 남성 178명(9.4%), 여성 183명(9.8%)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았다.

두 번째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청소년들의 현재 신분 상태를 살펴보면 4계층 모두 근로를 하지 않으면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계층 1은 187(9.9%), 계층 2는 277명(14.7%), 계층 3은 583명(31.0%), 계층 4는 240명(12.8%)]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진학이나 비취업 상태인 청소년들 [계층 1은 53(2.8%), 계층 2는 60명(3.2%), 계층 3은 155명(8.25%), 계층 4는 63명(3.3%)]이 대학에 다니지 않고 취업[계층 1은 35명(1.9%), 계층 2는 33명(1.8%), 계층 3은 84명(4.5%), 계층 4는 45명(2.4%)]을 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진학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취업을 하기 보다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미결정 상태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이들이 희망하는 장래희망 교육 정도를 보면 우리사회의 학벌에 대한 인식을 반영 하듯 모든 계층에서 4년제 대학교 졸업을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이어서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계층 1과 계층 2는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보다는 2-3년제 전문대학 졸업을 희망한 반면, 계층 3은 2-3년제 전문대학 졸업보다는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을 더 희망하였고, 계층 4는 2-3년제 전문대학 보다는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이나 박사학위 취득을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층 1, 계층 2는 희망하는 교육수준이 같은 반면 계층 3과 계층 4와의 희망 교육수준이 다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층 1의 내적가치 추구형은 4년제 대학교 졸업 희망 118명(6.3%), 미결정 61명(3.2%),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48(2.6%),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20명(1.1%),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14명(0.7%) 순으로 나타났으며, 계층 2의 독립 추구형은 4년제 대학교 졸업 희망 195명(10.4%), 미결정 66명(3.5%),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60(3.2%),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29명(1.5%),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16명(0.9%)순이었다. 계층 3의 저인식형은 4년제 대학교 졸업 희망 365명(19.4%), 미결정 180명(9.6%),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62명(3.3%),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31(1.6%),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26명(1.4%)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고학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층 4인 고(高)가치 추구형은 4년제 대학교 졸업 희망 170명(9.0%), 미결정 70명(3.7%),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29명(1.5%),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15명(0.8%),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12(0.6%)로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높은 교육수준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나 직업선택요인의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를 모두 중시하는 청소년들일수록 고학력에 대한 열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잠재계층유형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잠재계층(Latent Class)			
		계층 1 n = 281 (14.9%)	계층 2 n = 383 (20.4%)	계층 3 n = 856 (45.5%)	계층 4 n = 361 (19.2%)
성별	남성	149(7.9)	180(9.6)	420(22.3)	178(9.4)
	여성	132(7.0)	203(10.8)	436(23.2)	183(9.8)
현재 신분	고등학교 재학	0(0.0)	1(0.1)	3(0.2)	1(0.1)
	대학교 재학 중 근로 안함	187(9.9)	277(14.7)	583(31.0)	240(12.8)
신분	대학교 재학 중 근로 중	6(0.3)	12(0.6)	31(1.6)	12(0.6)
	대학에 다니지 않고 취업	35(1.9)	33(1.8)	84(4.5)	45(2.4)
장래 희망	비진학/비취업	53(2.8)	60(3.2)	155(8.2)	63(3.3)
	고등학교 졸업	20(1.1)	17(0.9)	31(1.6)	12(0.6)
교육 수준	2-3년제 전문대학 졸업	48(2.6)	60(3.2)	31(1.6)	12(0.6)
	4년제 대학교 졸업	118(6.3)	195(10.4)	365(19.4)	170(9.0)
교육 수준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20(1.1)	29(1.5)	62(3.3)	29(1.5)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14(0.7)	16(0.9)	26(1.4)	15(0.8)
교육 수준	미결정	61(3.2)	66(3.5)	180(9.6)	70(3.7)

또한, 잠재계층 유형에 따라 삶의 만족도 변인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검증 결과 <표 6>과 같이 삶의 만족도에 대해 계층 1과 4가 계층 2, 3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층 1인 내재적 가치 추구형이 4계층 중에서 삶의 만족도($M = 2.97$, $SD = .6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계층 4인 고(高)가치 추구형($M = 2.96$, $SD = .66$), 계층 2인 독립 추구형($M = 2.81$, $SD = .55$), 계층 3인 저인식형($M = 2.77$, $SD = .53$)순이었다.

내재적 가치 추구형의 청소년들은 다른 계층의 청소년들보다 사회적 명예나 국가/사회적 기여에 대해 가장 낮은 직업 선택요인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자신의 소질과 적성, 자율성, 다양한 경험 등을 가장 중요시 하는 계층으로서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외적인 가치관을 중요 시 하기 보다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내적 욕구를 더 중요시 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는 반대로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속해 있는 계층 3의 저인식형은 4계층 중에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직업선택요인의 모든 변인들에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적 변인인 ‘가족과의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는 요인’들에 대해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계층으로서 이들의 삶의 만족도 또한 낮았다.

표 6. 잠재계층유형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종속변수	잠재계층	M	SD	F	P	Scheffe
삶의 만족도	계층 1(a)	2.97	.60	2.57	.00***	a, d>b, c
	계층 2(b)	2.81	.55			
	계층 3(c)	2.77	.53			
	계층 4(d)	2.96	.66			

*** $p<.001$, ** $p<.01$, * $p<.05$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직업선택 요인에 따라 잠재계층별 유형을 나누고 유형별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고,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총 응답자 1,881명 중 남성은 49.3%, 여성은 50.7%이었고, 대학 재학 중이면서 근로를 하지 않는 청소년 68.4%, 비진학/비취업 청소년 17.6%, 대학을 다니지 않고 취업한 청소년 10.5%, 대학을 다니면서 근로를 하고 있는 청소년 3.2%, 고등학교 재학 0.3%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높은 진학률을 반영 하 듯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의 71.6%(1,348명)으로 불필요한 대학진학을 억제하고 고등학교 졸업만으로도 양질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실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비진학/비취업 상태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17.6%나 되었다. 취업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33.8%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임시근로자(26.4%)나 일용근로자(7.4%)로 일을 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근로직종이 판매종사자, 조립종사자, 기능원 등 노동의 강도가 높은 곳이어서 이들의 근로환경 또한 안정적이지 않았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Ginzberg와 Super의 발달이론에서 탐색기 단계로 자신을 알아가며 그에 맞게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로 직업선택을 위한 중요한 준비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 취업, 진로 미결정 등 다양한 상황들에 처해 있는 후기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독립적이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진로자기결정권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다.

두 번째, 잠재계층 분석을 통한 후기청소년의 직업선택요인 유형은 4개의 잠재계층이 최적의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4개의 계층의 전체적인 특성을 보면 직업선택 시 4계층 모두 ‘사회적인 명예’나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와 관련해서 다른 변인들에 비해 중요시 하지 않는 반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은 모든 계층에서 중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내적인 욕구를 더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윤경(2009)의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가치관 변화 추이에 서도 내적 직업가치관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외적가치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의 직업시장의 특성이 남녀의 직업 경계를 허물고 자신만의 지식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1인 기업이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은 개인브랜드 가치가 중요한 세대로 자신의 가치, 능력, 브랜드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일들이 중요시 되고 있는 현실에서 후기 청소년들의 직업선택 가치의 변화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직업선택 시 고려되어지는 가치관은 결국 국가나 사회와의 발전에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명예’나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에 대한 낮은 가치의식을 청소년들에게 심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탐색해 봐야 할 것이다.

세 번째, 4개 잠재계층의 특성을 살펴보면 잠재계층 1은 직업선택 요인에 있어 ‘사회적 명예’, ‘사회적 기여’에 다른 유형보다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자율성’, ‘소질과 적성’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내재적 가치 추구형”으로 14.9%로 나타났다. 잠재계층 2는 모든 항목들에서 중간 수준의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소질과 적성’, ‘업무환경’, ‘시간적 여유’에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독립 추구형”으로 20.4%명이 포함되었고, 잠재계층 3은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포함된 계층으로 모든 문항에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저인식형’으로 45.5%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잠재계층 4는 직업선택요인의 모든 항목들에 있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고(高)가치 추구형”으로 19.2%로 나타났다.

네 번째, 4개의 잠재계층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성별에 따른 계층별 차이가 나타났다. 계층 1의 내적 가치 추구형은 남성이 7.9%, 여성이 7.0%로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계층 2의 독립 추구형은 여성이 10.8%, 남성이 9.6%, 계층 3의 저인식형은 남성 22.3%, 여성 23.2%, 계층 4의 고(高)가치 추구형은 남성 9.4%, 여성 9.8%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다섯 번째,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청소년들의 현재 신분 상태를 계층별로 살펴보면 4계층 모두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4개의 잠재계층 청소년들은 근로를 하지 않으면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진학/비취업 상태인 청소년, 대학에 다니지 않고 취업한 청소년, 대학을 다니면서 근로를 한 청소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의 대학 쏠림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진학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취업을 하기 보다는 진로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 번째, 계층별 장래희망 교육 정도는 4계층 모두 대학교 졸업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미결정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순위에서는 계층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계층 1의 내적가치 추구형과 계층 2의 독립 추구형은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보다는 2-3년제 전문대학 졸업을 희망한 반면, 계층 3의 저인식형은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을 희망했다. 특히 계층 4인 고(高)가치 추구형은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이나 박사학위 취득을 3, 4순위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높은 교육수준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나 직업선택에 있어 내적인 가치와 외적인 가치를 모두 중시하는 청소년들일수록 고학력에 대한 열망도 높았다.

일곱 번째, 잠재계층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삶의 만족도에 대해 계층 1인 내재적 가치 추구형과 계층 4인 고(高)가치 추구형이 계층 2인 독립추구형, 계층 3인 저인식형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재적 가치 추구형의 청소년들은 4개의 계층 중에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 자율성, 다양한 경험 등을 가장 중요시 하는 계층으로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내재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다만 사회적, 명예나 국가/사회적 기여에 대해서도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낮은 직업 선택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더불어 성장해 갈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이와는 반대로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속해 있는 계층 3의 저인식형은 4계층 중에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업선택요인의 외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기’ 등 사람과의 관계변인들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 계층의 청소년들을 위한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4개의 잠재계층 중에서 계층 3인 저인식형의 청소년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저인식형은 전체청소년들 중 45.5%로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포함된 유형이다. 이들은 자신의 직업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직업가치관에 대해 어떠한 요인을 중요시하여 직업을 선택해야 할 지 결정하지 못했거나 인식하지 못한 상태라 볼 수 있다. 특히 이들의 희망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이상으로 높고 삶의 만족도는 4계층 중 가장 낮아 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Alderfer(1972)는 직업선택 동기를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 등의 3가지 차원의 ERG 이론을 구조화하였는데, 저인식형의 청소년들은 이 세 가지 욕구가 낮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다양한 현재의 위치에서 겪게 되는 진로선택의 혼란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인식 할 수도 있다. 자신의 가치를 명료화 시킬수록 진로를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무엇보다도 진로가치의 명료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정애, 최웅용, 2008). 직업선택을 할 때에 무엇을 중요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직업선택에 있어 개인의 욕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체험적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하겠다. 더불어 직업선택 시 개인의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적 기여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근, 변수용(2006), 한국사회에서의 상급학교 진학 선택 결정요인, 교육사회학 연구 제16권 제4호 1-27.
- 김범구, 조아미 (2013).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한국청소년연구, 24(3), 5-31.
- 김사현, 홍경준 (2010). 잠재집단분석방법을 통한 서울시민의 복지태도 연구. 사회복지정책, 37(2), 95-121.
- 김선아, 민정률, 이서경, 박성민 (2013). 직업선택동기의 선행·조절·결과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 발표논문집, 455-500.
- 김정선, 김지영(2016). 고졸 청년여성의 취업과 직장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취업진로학회, 2016 Vol. 6. No.2. pp71-96.
- 김정숙. (2006). 학생의 직업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1), 79-102.
- 김지경, 정윤미 (2015). 고졸 취업 청소년의 진로계획 영향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22(10), 131-157

- 김지경, 정연순, 이계백 (201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12.
- 노미순(1999),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아(2015), 청소년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성 연구. 청소년학과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 복월분(2000), 직업가치관과 직업선택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연구,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대학교.
- 서병우(2013), 대학생의 특성이 전공선택동기와 직업선택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취업진로학회. 2013.Vol. No.2. pp65-81.
- 성영숙(2016), 청년대졸 구직자의 직업가치가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직업학과 직업상담전공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 선택수(2010). 종단프로파일 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한 잠재집단연구: 성장혼합모형과 비교를 통하여. 교육평가연구, 23(3), 641-664.
- 신혜진(2014), 청소년의 직업가치관 변화추이와 부모애착의 시간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4호, 2014.04, 285-308.
- 이상희(2000). 대학생의 진로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언, 윤형한, 이수정, 정혜령(2017). 고교 직업교육 목적에 대한 특성화고 교사의 인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 박보경, 현진실(2012), 청소년의 직업가치관 변화: 2001년~2011년, 진로교육 연구. 2012, Vol. 25, No.3, 19-37.
- 조아미, 선택수 (2012).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청소년활동 참여 수준의 유형과 특성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3(2), 161-184.
- 오지혜(2016). 대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전공선택동기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심리교육학과 석사 논문 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정희(2007).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보영(2013),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내외적 직업가치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2013. Vol. 21. Np. 1, 1-17.
- 하문선, 김지현, 김죽환, 후기 청소년 직업포부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 요인. 홍익대학교 상담연구. 2014, Vol 15, No. 4, 1495-1513.
- 김병숙(2007). 직업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0). 학교진로상담. 서울 : 학지사.
- 김충기(1984). 진로교육의 본질, 서울: 평민사.
- 채창균, 양정승(2015), 고졸청년이 취업 추이와 향후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원섭(1999),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A. Roe, *Early Determinants of Vocational Choice*, Journal Counselling Psychology, 1957.
- Borg, R.(1996). Factors determining career choice, European Education, 28(2), pp.6-20.
- Ginzberg, E., Ginsburg, S., Axelrad, & Herma, J. L.(1951). Occupational cho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olland, J. L. (1959). A theory of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 pp. 35-45.
- Holland, J. L. (1966). A theory of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pp. 79-122.
- Konrad, E. (2000). Changes in work motivation during transition: A case from Slovenia. *Applied Psychology*, 49(4), 619-635.
- Parsons, F. (1909). 『Choosing a vo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 Super, Donald E. (1953).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3, 282-298.
- www.work.g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



제 ⑦ 주제

휴대폰/컴퓨터이용

1.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과 우울의 관계
2.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자기 조절학습, 사회성 간의 종단 관계 분석
3. 부모의 양육 방식과 청소년의 또래 관계가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의 관계

박성민* · 김혜원** · 이응택***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의 인과관계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 2, 3, 4, 6차년도 자료로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5차년도에는 우울을 측정하지 않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첫째, 자기회귀효과를 통해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이 시간이 경과하여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중학생의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은 서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양방향적 상호인과관계를 나타냈다. 즉,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이 우울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동시에 우울이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을 높이는 변인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이 높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상담현장에서 개입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휴대전화의존, 우울,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I. 서 론

오늘날 휴대전화의 발달은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소통방식의 변화, 접근의 용이성 등과 같이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 수단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휴대전화의 발달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더 큰 자극이 된다(Madell & Muncer, 2004). 이는 청소년들이 휴대전화에 쉽게 의존하게 될 수 있음을 예측해준다. 휴대전화 기능에 PC의 편리한 기능들까지 갖추게 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손안의 PC’라고 불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이제 흔히 볼 수 있으며, 그 중 중독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또한 증가하고 있다. 휴대전화가 편리함과 자기를 표현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휴대전화 중독, 게임중독 등의 문제의 우려도 낳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조사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 스마트폰 고위험군은 3.5%이며, 잠재적위험군은 27.1%로 나타났으며, 학령별로는 중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이는 청소년들이 휴대전화 중독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중 최대 취약층이 중학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김소영(2016)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휴대전화의존은 청소년의 학업성취문제, 학교적응문제,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지원연구본부 방과후학교연구센터 팀장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석사과정

*** *명지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연구원, samneng@hanmail.net

대인관계문제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생물학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변화를 맞이하는 과도기이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들이 변화되고 있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시기에 맞는 발달과업을 잘 완수하여 성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 시기에는 다른 연령대보다 휴대전화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받게 된다(Yen et al., 2009).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매체 중 하나인 휴대전화는 청소년 시기에 겪는 학업스트레스 노출, 여가시간 부족, 놀이문화 및 휴식 수단 부족 등으로 부터 이를 해소해줄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필수 아이템으로 사용되어져 오고 있다(김신아, 한윤선, 2015). 휴대전화 이용은 청소년들의 욕구를 해소해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휴대전화 이용 조절을 못하여 과도하게 의지하게 되면 휴대전화의존 또는 휴대전화 중독의 위험에 노출된다(한주리, 허경호, 2004). 따라서 청소년들이 휴대전화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휴대전화를 과다 사용하여 중독에 이르게 되는 현상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역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휴대전화의존은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의 증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Morahan-Martin, 2005). 특히 우울은 휴대전화의존에 미치는 요인 중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닌다(김현순, 최영준, 2015), 휴대전화의존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강방글, 신혜정, 2014) 자아정체감은 휴대전화의존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설명한 반면, 위협요인에서는 부모학대, 주의집중, 비행경험, 공격성 중 우울이 두 번째로 높은 영향력을 지닌다고 하였다. 나아가 우울경향이 높으면 휴대전화의존이 높을 뿐 아니라 이러한 휴대전화의존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부정적 예후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김정민, 송수지, 2015; 김경호, 2016).

우울이 휴대전화의존을 높인다는 연구결과에 반해 휴대전화의존이 우울을 높인다는 연구들도 있다. 휴대전화에 과하게 의존하게 되는 청소년들은 자기조절능력이 떨어지고, 휴대전화를 하지 못할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조일주, 2009). 특히 휴대전화의존은 당해 연도 뿐 아니라 한 시점이 경과한 후의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박은혁, 이웅택, 2015; 백승희, 정혜원, 2015) 휴대전화의존은 정서적 문제를 동반한다.

이처럼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어왔다. 우울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휴대전화의존이 원인변수라고 설계한 연구와 이에 반해 우울로 인해 휴대전화의존이 높아진다는 휴대전화의존을 결과변수로 설계한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들은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우울로 한정지어 연구되기보다는 정신건강 혹은 정서문제로 연구되었다(김소영, 2016; 백승희, 전현정, 정혜원, 2014). 그러나 전상민은(2014)은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휴대전화의존이 원인변수이며, 우울이 결과변수라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1차 시점의 삶의 만족을 역코딩하여 우울로 정의하였으나, 2차년도에는 우울변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우울변인만을 투입시켰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종합하면, 휴대전화의존과 우울 그리고 우울과 휴대전화의존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떤 변인이 원인이고 결과인지를 규명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의 상호 영향관계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모형을 통해 휴대전화의존과 청소년 우울 간의 양방향적 관계를 살펴보고, 어떤 변인이 다른 변인에 더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서 작용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은 자기회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가? 둘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은 교차지연효과를 지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휴대전화의존은 휴대전화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현상으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우울, 불안, 초조, 내성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와 두통, 수면 장애, 손목 통증 등의 신체적 및 일상생활 문제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강박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구현영, 박현숙, 2010; 박은혁, 이웅택, 2015). 전상민(2014)은 휴대전화의존을 사용시간 기준으로 하는 휴대전화 과다사용과 사용태도를 기준으로 하는 휴대전화의 중독적사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박지영, 김귀애와 홍창희(2012)는 휴대전화 중독을 휴대전화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일상생활 부적응, 휴대전화 사용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강박, 휴대전화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해야 만족하는 내성,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 불안을 경험하는 상태인 금단을 모두 충족시키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존을 휴대전화 사용시간의 과도한 증가, 휴대전화 부재에 의한 불안,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집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생애발달단계 중 청소년기는 특히 휴대전화 의존에 취약한 시기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6)의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에서 전체 집단을 고위험군과 잠재적위험군을 통합한 과의존위험군과 일반군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만 3~69세 스마트폰 이용자 중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은 17.8%(7,426천명)로 전년(16.2%) 대비 1.6% 상승하였다. 이 중 청소년(10~19세)과 성인(20~59세)을 비교하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이 3.5%(188천명)로 성인의 2.5%(753천명)보다 약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잠재적위험군이 27.1%(1,461천명)로 성인의 13.6%(4,073천명)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의존 현상이 증가하는 동시에 가장 취약한 대상이 청소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휴대전화의존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먼저, 휴

대전화의존은 청소년 대부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김정민, 송수지, 2015; 이은정, 이정애, 이화조, 정익중, 2012;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이에 더하여 휴대전화의존은 청소년의 정서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대성과 김동욱(2015)은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과 성인의 우울, 외로움, 분노, 불안 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과 성인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수빈(2012)은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적응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특히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현상이 심할수록 우울증상이 심각해짐을 보고하고 있다.

2. 청소년 우울

우울은 슬픔, 에너지 저하, 죄책감, 자기가치감 감소 등의 특징을 가지며, 판단, 지각, 기억, 인지, 태도, 사고, 대인관계 등 광범위한 측면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마음상태다(Beck, 1967, 김동일 외, 2016, p. 214 재인용). 우울은 청소년기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임상적 우울을 진단받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도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우울은 보편적이지만 사회·심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끼치므로 더욱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청소년기 우울의 특징에는 짜증스러운 기분, 즐거움의 결여, 에너지의 저하, 미래에 대한 절망감,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낮은 자아존중감 등이 있다. 또한 수면장애, 식욕과 체중감소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불안, 행동장애,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물질 관련 장애, 그리고 섭식장애와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청소년의 우울은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자살, 비행 등의 문제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후 성인기 우울로 지속될 수도 있다(이순희, 허만세, 2015).

청소년 시기의 우울은 위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우울의 특징에 몇 가지 특징이 추가되거나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가면성 우울증(Masked depression)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별불안을 느끼고, 학교에 대한 공포증이 생기며, 과잉행동으로 나타나고, 학교성적이 떨어지며, 반사회적 행동, 가출, 무단결석, 알코올 남용, 인터넷 중독 등의 비행이 함께 나타난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우울성향은 예측할 수 없는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표현으로 발현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청소년 우울증은 위장된 우울증이라고도 불리는데, 우울감을 호소하기 보다는 탈선, 가출, 규칙이나 법을 어기는 행위 등 행동으로 우울을 위장하기 때문이다(김동일 외, 2016).

이러한 일반적인 우울감 호소와 함께 가면성 우울의 양상을 보이는 청소년기 우울은 휴대전화의존이라는 문제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김정민과 송수지(201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우울이 휴대전화의존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해경(2009)은 10대 청소년이 20, 30대 성인보다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을 더욱 심각하게 보이며,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이 우울이라고 하였다.

3.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의 관계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보다는 양방향으로 연구되고 있다. 박지영 외(2012)는 청소년이 휴대전화에 중독되는 이유를 또래관계와 우울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한 청소년이 휴대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관계지향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우울의 위험도 크며 이에 따라 문제행동인 휴대전화의존도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청소년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우울 수준이 높기 때문에 휴대전화의존이 다른 시기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이해정 외, 2007), 이해정(2009)은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을 예측하는 변수로 우울, 자기존중, 스트레스 관리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강방글과 신혜정(2014)은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3차 자료를 활용하여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우울이 휴대전화의존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인 것을 밝혔다. 또한 김정민과 송수지(2015)가 우울과 휴대전화의존, 학업적응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한 결과, 우울이 휴대전화의존과 학업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휴대전화의존을 매개하여 학업적응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이 휴대전화의존을 예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우울은 휴대전화의존에 대해 예측력이 높은 변수로 제시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문제행동 즉, 휴대전화의존으로 인해 청소년이 우울을 보인다는 연구들도 있다(고충숙, 2012; 김소영, 2016; 신은수, 2013; 전상민, 2014; 한상훈, 2008; 한선희, 이승희, 2010). 김정호(2016)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우울을 매개하여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 즉, 휴대전화의존이 우울을 예측함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강경미, 장정임과 김성봉(2014)은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이 우울을 매개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를 통해 휴대전화의존이 우울을 예측함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고충숙(2012)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의 하위요인인 내성, 의존, 집단, 강박 등이 정신건강 하위요인인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휴대전화를 과다하게,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선희, 이승희 2010).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어 왔지만,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의 관계 방향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휴대전화의존이 우울의 원인변수라는 결과와 결과변수라는 결과가 모두 보고되어 두 변수 간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연구로 휴대전화의존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전상민(2014)은 두 개의 연구 모형을 제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1로 휴대전화과다사용과 우울의 관계, 연구2로 휴대전화중독과 우울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휴대전화과다사용은 부분적으로 우울을 높이는 원인변수이며, 휴대전화 중독 또한 우울을 높이는 원인변수라고 결론을 지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휴대전화과다사용과

우울의 관계를 파악한 데이터는 2010년 이전의 데이터라는 점이다. 그리고 휴대전화중독과 우울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에서는 1차 시점의 우울을 삶의 만족변인을 역코딩하여 우울이라고 정의하였고, 2차 시점의 우울은 우울변인을 사용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휴대전화의존이 원인변수라고 결론을 짓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에 따라 백승희, 전현정과 정혜원(2014)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휴대전화의존과 정서문제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휴대전화의존과 정서문제의 관계는 상보적관계라고 제시하면서, 휴대전화의존이 높으면 정서문제가 증가하지만 정서문제가 높으면 휴대전화의존이 높다는 결론이었다. 김소영(2016) 또한 휴대전화의존과 정서문제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김소영(2016) 휴대전화의존과 정서문제의 인과관계를 휴대전화의존이 높은 상/하위 그룹과 전체집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체집단에서는 휴대전화의존과 정서문제의 관계를 양방향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상/하위 25% 그룹에서는 휴대전화의존이 정서문제를 높이는 원인변수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은 정서문제를 너무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정서문제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정서문제의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예로, 백승희 외(2014)는 정서문제를 공격성, 주의집중, 우울, 신체 등을 포괄하였고, 김소영(2016)은 정서문제를 우울과 공격성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엄연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각 문제행동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도 다르기 때문에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휴대전화의존과 다양한 정서문제 중 내재화 문제행동에 포함되는 우울에 주목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6)의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영역에 성격(심리적) 문제가 40.4%로 가장 많았으며, 도움이 필요한 영역도 성격(심리적) 문제(33.9%)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여 휴대전화 의존과 관련하여 내재화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6년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에 따르면 최근 12개월 동안 2주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20.9%, 여학생은 30.5%로 나타나 청소년의 우울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질병관리본부, 2016).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중 우울을 단독 변수로 사용하여 휴대전화 의존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휴대전화 의존도와 우울 사이의 종단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CLM) 분석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구대상인 청소년과 휴대전화 의존도, 우울은 모두 변화하게 됨으로써 이들 간의 종단적 관계

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연구방법이다(허균, 2012).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은 변수 간에 양방향적 관계를 종단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구방법으로, 기존의 연구들이 휴대전화 의존과 우울의 간의 관계의 양방향적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일면적으로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을 보완하여 다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이들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조준범, 김동기, 2010). 홍세희, 박민선과 김원정(2007)에 의하면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의 핵심은 t시점의 값이 이전 시점인 t-1시점의 값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것이며, 변인 간의 자기회귀모형을 다변량으로 측정하여 상호지연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을 사용하여 휴대전화의존도와 우울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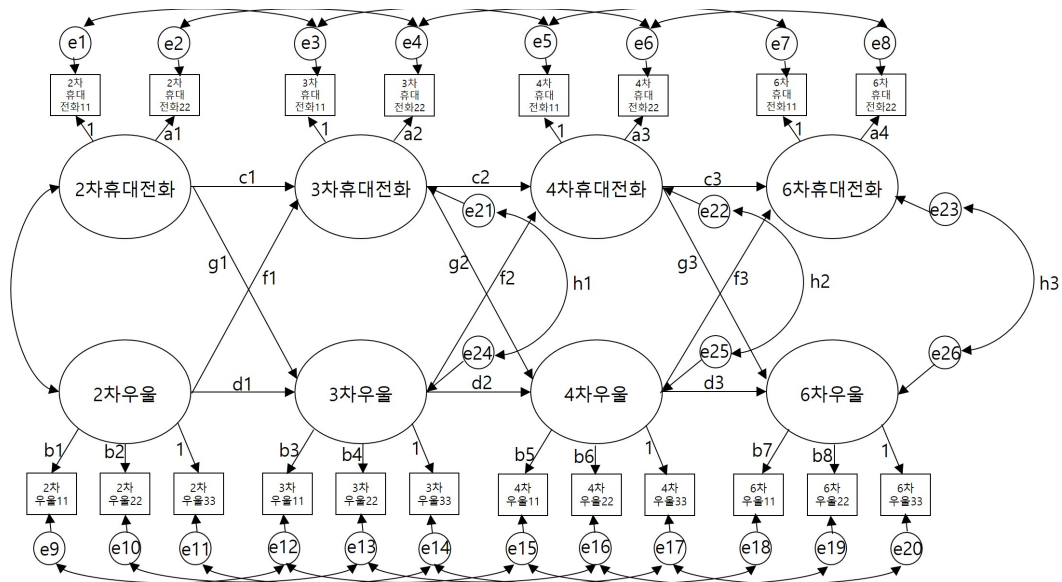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의 인과관계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자료 중 중학생 자료를 활용하여 사용하였다. 중학생 패널은 1차 패널을 시작으로 6차년도 패널까지 조사되었고, 중학교 1학년 시점으로 현재 고등학생까지 조사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PS) 자료 중 중학생 패널 2-4, 6차년도(2011년-2013년, 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4, 6차년도 자료를 선택한 이유는 1차년도, 5차년도에는 우울을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차년도 당시 2,35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작하였고, 2-4, 6차년도 모두에 결측치를 보이는 대상을 삭제하고 최종연구대상을 선정하여 2,280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성별은 남학생 1,152명(50.5%), 여학생 1,128명(49.5%)이었다.

3. 측정도구

1) 휴대전화의존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 2차, 3차, 4차, 6차년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의존도를 측정하였다. 문항은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문항내용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휴대전화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등이다. 4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으면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휴대전화의존은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항꾸러미를 활용하여 2개의 측정변인으로 재구성하였다. 문항꾸러미방법은 임의할당방법을 이용하였다(배병렬, 2008). 그리고 본 연구의 휴대전화의존의 전체신뢰도(Cronbach's alpha)는 2-4, 6차 시점별로 .879, .895, .884, .865로 확인되었다.

2) 우울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 2차, 3차, 4차, 6차년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울을 측정하였다. 우울은 총 10문항으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역코딩을 하여 점수가 높으면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우울 역시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항꾸러미를 활용하여 3개의 측정변수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우울 전체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2-4, 6차 시점별로 .904, .906, .889, .880으로 확인되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내적 일치도,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휴대전화의존도와 우울 간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검증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이 성립되어야 하며, 이 세 가지 동일성은 순차적(측정-경로-오차공분산)으로 검증하고, 앞선 가정이 충족되어야만 다음 가정을 검증할 수 있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김소영, 2016, p.322 재인용). 이러한 제시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형 비교를 통한 각 동일성 검증을 위해 8개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이다.

둘째, 휴대전화의존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측정변인을 제약한 모형이다.

셋째, 우울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측정변인에 대해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넷째, 휴대전화의존 자기회귀계수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다섯 번째, 우울 자기회귀계수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여섯 번째, 휴대전화의존이 우울에 미치는 교차지연 회귀계수에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일곱 번째, 우울이 휴대전화의존에 미치는 교차지연 회귀계수에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여덟 번째,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의 잠재변인에 대한 오차공분산 간의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

그리고 각 모형 간 비교는 모형들이 내포모델이기 때문에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여 최종모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χ^2 값이 표본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Cheung과 Rensvold(2002)는 표본크기로 문제로 나타나는 χ^2 차이검증 대안으로 CFI 차이를 살펴볼 것을 제시하였다. Cheung과 Rensvold(2002)는 CFI 차이가 .01을 넘지 않으면 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χ^2 차이검증과 CFI 차이를 함께 살펴보았다. 그리고 모형의 적합도는 TLI와 RMSEA까지 확인하였다. TLI와 CFI는 .90 이상일 때, RMSEA는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된다(홍세희, 2000)

IV.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주요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휴대전화의존 2차의 평균(표준편차)은 2.308(.750), 휴대전화의존 3차의 평균(표준편차)은 2.408(.727), 휴대전화의존 4차의 평균(표준편차)은 2.376(.677), 휴대전화의존 6차의 평균(표준편차)은 2.315(.640)로 확인되었다. 우울 2차의 평균(표준편차)은 1.930(.615), 우울 3차의 평균(표준편차)은 1.982(.625), 우울 4차의 평균(표준편차)은 1.882(.558), 우울 6차의 평균(표준편차)은 1.875(.547)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각 변인의 기술통계

	N	min	max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휴대전화2차	2158	1	4	2.308	.750	.251	-.472
휴대전화3차	2162	1	4	2.408	.727	.105	-.322
휴대전화4차	2027	1	4	2.376	.677	.172	-.106
휴대전화6차	2015	1	4	2.315	.640	.190	.034
우울2차	2280	1	4	1.930	.615	.308	-.249
우울3차	2259	1	4	1.982	.625	.220	-.331
우울4차	2108	1	4	1.882	.558	.168	-.470
우울6차	2056	1	4	1.875	.547	.223	-.308

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휴대전화의존 2차는 휴대전화의존 3차, 4차, 6차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우울 2차는 우울 3차, 4차, 6차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모든 변인간의 상관은 정적상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2.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휴대2차	휴대3차	휴대4차	휴대6차	우울2차	우울3차	우울4차
휴대2차	1						
휴대3차	.539***	1					
휴대4차	.420***	.499***	1				
휴대6차	.364***	.431***	.490***	1			
우울2차	.265***	.199***	.146***	.177***	1		
우울3차	.188***	.265***	.218***	.168***	.493***	1	
우울4차	.172***	.235***	.325***	.239***	.407***	.491***	1
우울6차	.164***	.190***	.232***	.308***	.365***	.422***	.522***

*** $p < .001$, ** $p < .01$, * $p < .05$

3.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분석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동일성이 가정되어야 한다. 우선, 측정 동일성으로 시간 별 측정한 개념이 동일한지를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경로동일성으로 시간 별 잠재 변인의 회귀계수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차공분산 동일성으로 잠재변인의 오차 공분산이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동일성 검증을 실시해야 하며, 이때 동일성 검증은 한 번에 가능한 것이 아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순서는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 순이다. 그리고 각 동일성이 만족이 되어야 다음 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다(김주환 외, 2009).

본 연구에서는 분석방법에서 제시한 8개의 모형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우선, 기저모형과 휴대전화의존 측정동일성 모형의 χ^2 차이는 1.341로 자유도 3의 임계값 7.81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χ^2 은 표본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같이 고려해야하며, Cheung과 Rensvold(2002)는 표본크기로 문제로 나타나는 χ^2 차이검증 대안으로 CFI 차이를 살펴볼 것을 제시하였다. Cheung과 Rensvold(2002)는 CFI 차이가 .01을 넘지 않으면 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기저모형과 휴대전화의존 측정동일성 모형의 χ^2 의 차이와 CFI값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측정동일성을 확보하였다. 휴대전화의존의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어 우울의 측정동일성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χ^2 차이가 22.239로 나타나 자유도의 임계값 7일 때 14.067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CFI 값의 차이가 .001로 나타나 우울의 측정동일성도 확보되었다. 우울의 측정동일성 모형과 휴대전화의존의 자기회귀동일성 모형의 비교에서는 χ^2 차이는 6.496으로 자유도 2의 임계값 5.99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CFI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모형간의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휴대전화의존의 자기회귀동일성 모형과 우울의 자기회귀동일성 모형의 비교에서는 χ^2 11.22로 자유도 2의 임계값 5.99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CFI값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우울의 자기회귀동일성 모형과 휴대전화의존의 교차지연모형과의 비교에서는 χ^2 1.256으로 자유도 2의 임계값보다 작아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CFI 차이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성 검증이 확보되었다. 휴대전화의존의 교차지연모형과 우울의 교차지연모형의 χ^2 차이역시 자유도 2의 임계값보다 작았으며, CFI차이 또한 없어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마지막으로 우울의 교차지연모형과 오차공분산 동일성모형의 χ^2 차이는 자유도 2의 임계값보다 작았으며, CFI 차이 역시 없었다. 즉, 오차공분산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모형으로 오차공분산이 동일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TLI	CFI	RMSEA
기저모형	792.578***	139	.967	.978	.045
측정동일성 (휴대전화)	793.919***	142	.967	.978	.045
측정동일성 (우울)	816.158***	149	.968	.977	.044
자기회귀동일성 (휴대전화)	822.654***	151	.968	.977	.044
자기회귀동일성 (우울)	833.874***	153	.968	.977	.044
교차지연효과동일성 (휴대전화)	835.130***	155	.969	.977	.044
교차지연효과동일성 (우울)	835.513***	157	.969	.977	.043
오차공분산 동일성	836.535***	159	.970	.977	.043

*** $p < .001$, ** $p < .01$, * $p < .05$

최종모형으로 오차공분산 동일성모형을 선정하였고, 그에 따른 경로계수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휴대전화의존의 자기회귀계수(t+1)는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우울 또한 자기회귀계수(t+1)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휴대전화의존이 우울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 역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휴대전화의존이 높으면 다음시점(t+1)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울은 휴대전화의존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도 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이 높으면 다음 시점(t+1) 휴대전화의존이 높아지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우울은 휴대전화의존을 높이기도 하지만 휴대전화의존 또한 우울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분석결과

경로			B	S.E.	β	C.R.
휴대2차	→	휴대3차	.518	.012	.547	42.962***
휴대3차	→	휴대4차	.518	.012	.550	42.962***
휴대4차	→	휴대6차	.518	.012	.542	42.962***
우울2차	→	우울3차	.501	.012	.494	42.738***
우울3차	→	우울4차	.501	.012	.554	42.738***
우울4차	→	우울6차	.501	.012	.525	42.738***
휴대2차	→	우울3차	.068	.011	.078	6.368***
휴대3차	→	우울4차	.068	.011	.081	6.368***
휴대4차	→	우울6차	.068	.011	.080	6.368***
우울2차	→	휴대3차	.072	.013	.065	5.471***
우울3차	→	휴대4차	.072	.013	.071	5.471***
우울4차	→	휴대6차	.072	.013	.067	5.471***

*** $p < .001$, ** $p < .01$, * $p < .05$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종단자료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 중 2, 3, 4, 6차(중2~고1, 고3) 데이터에 적용하여 휴대전화의존과 우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회귀효과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은 시간이 경과하여도 자기회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이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은 이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지속적으로 휴대전화의존이 높다는 선행연구결과(홍예지, 이순형, 2016)를 지지하는 것이다. 홍예지, 이순형, 이수현과 조혜림(2015) 그리고 김도연과 양혜정(2014)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청소년기의 휴대전화의존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초기 휴대전화의존이 낮은 청소년들은 향후에 증가한다고 하였다. 즉, 초기시기에 휴대전화의존이 높은 청소년들은 계속해서 휴대전화의존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휴대전화의존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성을 지닌 현상임에 주목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근 휴대전화 보유연령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초기 청소년기의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미 휴대전화의존이 높은 청소년들이 이를 성인기까지 지속시키지 않도록 사후적 관점에서도 끊임없는 개입설계와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우울 또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기회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전 시점의 우울은 이후 시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영와 오경자(2011)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며, 아동·청소년의 내면화 문제에 대한 자기회귀효과 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시기 내내 내면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난 결과(이봉주, 민원홍, 2015)와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초기 우울이 낮은 청소년들은 낮은 우울을 유지하지만 초기 우울이 높은 청소년들은 계속해서 높은 우울을 유지한다는 연구결과(김세원, 2010; 임향, 최승원, 2016)와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는 우울이 자연적으로 치료되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 상담이나 교육 등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우울의 지속성은 자살과도 높은 관련성을 지니기 때문에 초기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와 상담이 개입된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의 교차지연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양방향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었다. 즉, 이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이 다음시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이전 시점의 우울 또한 다음시점에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이 둘이 상호인과적인 관계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휴대전화의존은 정신건강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지닌다고 보고한 백승희 외(2014)연구와 휴대전화의존과 정서문제의 관련성을 확인한 김소영(2016)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정서적인 부분을 포괄적 다루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의 관계를 파악하였는데 차이점을 지닌다. 청소년기의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으면 우울수준을 높이지만 반대로 휴대전화의존이 높으면 우울이 높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상담이나 임상 장면에서는 청소년들의 우울과 관련해서 휴대전화의존으로 기인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현재 휴대전화사용은 어떠한지 휴대전화로 인해 기인된 것은 아닌지를 충분히 탐색해봐야 할 것이다.

반면, 휴대전화의존의 원인으로 우울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청소년기의 휴대전화 혹은 스마트폰 중독 프로그램에서는 우울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다룰 필요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2016)의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에 대한 경험은 24.8%로 10명 중 약 3명도 안 되는 비율이며, 이 중에서도 49.1%가 예방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교육의 재정비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의미이다. 몇몇 스마트폰 중독 예방 프로그램들은 자기통제 및 조절 그리고 충동 등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으나(정서림, 유형근, 남순임, 2014; 임창우, 정구철, 2016) 휴대전화의존이 우울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서를 다룰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홍선희, 유형근과 남순임(2015)은 기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프로그램들이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으로 정서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지적 그리고 행동적 개입과 함께 정서적 개입을 포함한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휴대전화의존이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자기통제력 향상과 함께 정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교육이나 상담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의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휴대전화의존이나 우울은 시간 변화에 따라 지속된다는 점이다. 이 결과는 앞서 제시하였듯이 지속적인 관리와 사후관리가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기 휴대전화의존이나 우울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일시적인 개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입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휴대전화의존이나 우울과 관련해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개입치료 모델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휴대전화의존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우울이 휴대전화의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혼란에서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이 서로 상호인과적인 관계임을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결과는 휴대전화의존과 우울의 관계를 상호적으로 연구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옳은 방향으로 설계되었음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나아가 이 결과가 주는 함의는 교육과 상담 그리고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교육적인 측면으로 볼 때, 휴대전화의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서에 대한 이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인지 및 행동 수정과 함께 정서적 측면까지 함께 교육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상담 및 임상적인 관점으로는 휴대전화의존이 우울에서 기인되고, 문제현상으로 우울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과다사용이나 중독적 사용을 보인 청소년들의 정서적 문제를 탐색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휴대전화 과다사용이나 중독의 원인으로 우울로 기인된 것은 아닌지를 탐색함으로써 휴대전화의존을 치료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5차년도에 우울을 측정하지 않아 2-4, 6차년도를 연구대상으로 함으로써 5차년도의 자기회귀효과나 교차지연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데에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휴대전화 사용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휴대전화의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휴대전화 의존과 관련하여 성별, 연령, 휴대전화사용유형 등을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담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인과적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색할 것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고충숙. (2012).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문화포럼**, 30, 8-36.
- 김경호. (2016).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우울을 매개로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5), 379-404.
- 김세원. (2010). 청소년 우울의 이질적 발달궤적 및 예측요인에서의 성별 차이. **한국청소년연구**, 21(1), 171-192.
- 김소영. (20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우울, 공격성의 종단적 관계 검증: 자기 회귀교차지연 모형 적용. **중등교육연구**, 64(2), 315-336.
- 김현순. (2014). 초기 청소년의 우울과 인터넷 사용의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종단분석. **상담학연구**, 15(2), 773-790.
- 박수빈. (2012). **중학생의 스마트폰중독이 학교생활적응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병렬. (2008).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 신은수.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실태와 중독: 정신과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해경. (2009). 10대 청소년들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예측 변인들. **청소년학연구**, 16(1), 117-153.
- 전상민. (201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 및 중독적 사용과 우울의 종단적 관계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52(3), 301-312.
- 조일주. (2009).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휴대폰 중독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9(10), 185-204.
- 한상훈. (2008). 중학생의 휴대폰 중독 유형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8(1), 403-420.
- 허균. (2012). 자아존중감과 진로장벽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분석 연구. **직업교육연구**, 31(1), 119-134.
- 강경미, 장정임, 김성봉. (2014).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2), 395-416.
- 강방글, 신혜정. (2014).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청소년학연구**, 21(8), 213-241.
- 구현영, 박현숙. (2010).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요구. **아동간호학회지**, 16(4), 304-313.
- 김도연, 양혜정. (2014). 청소년기 휴대폰 의존의 변화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의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5(3), 169-197.
- 김동일, 고은영, 고혜정, 김병석, 김은향, 김혜숙, 박춘성, 이명경, 이은아, 이제경, 정여주, 최수미, 최종근, 홍성두. (2016). **특수아상답**. 서울: 학지사.
- 김신아, 한윤선. (2015). 초기청소년의 학교적응과 휴대전화 의존도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6(1), 147-162.
- 김정민, 송수지. (2015). 청소년의 우울과 휴대전화 의존, 학업적응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2(6), 389-408.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현순, 최영준. (2015).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예측변인에 대한 성차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15(5), 340-352.
- 박은혜, 이웅택. (2015).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구조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6(1), 171-193.

- 박지영, 김귀애, 홍창희. (2012).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이용동기, 또래 관계 및 정서적 요인과의 관계. **한국임상심리학회지**, 31(1), 151-169.
- 백승희, 전현정, 정혜원. (201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중단연구. **아시아 교육연구**, 15(4), 167-188.
- 백승희, 정혜원. (2015). 학교상담 : 휴대전화의존도가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중단적 매개효과 연구. **상담학연구**, 16(5), 355-370.
- 이봉주, 민원홍. (2015). 아동,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간의 중단적 인과관계. **청소년학연구**, 22(8), 335-361.
- 이순희, 허만세. (2015).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의 중단적 인과관계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7(2), 241-264.
- 이은정, 이정애, 이화조, 정익중. (2012). 청소년의 휴대폰 활용유형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휴대폰 의존도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4), 189-214.
- 이주영, 오경자. (2011).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의 시간적 발달 관계 검증.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2), 497-518.
- 이해정, 김명수, 손현경, 안숙희, 김정순, 김영혜. (2007). 중학생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대한 인구사회적·심리적 변인들의 판별예측력. **대한간호학회지**, 37(6), 957-965.
- 임창우, 정구철. (2016). 청소년 스마트폰 게임중독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중독**, 1(1), 67-84.
- 임향, 최승원. (2016). 청소년 우울의 발달궤적 유형과 예측요인에 대한 단기 중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3), 455-480.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 부모양육태도, 또래에 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431-451.
- 전대성, 김동욱. (2015). 스마트폰 중독이 청소년들과 성인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1(3), 159-181.
- 정서림, 유형근, 남순임. (2014). 스마트폰 중독 잠재적 위험군 중학생의 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15(3), 1145-1162.
- 조춘범, 김동기. (2010). 청소년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검증 : 성별간 다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207-229.
- 질병관리본부. (2016). **제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 한선희, 이승희. (2010). 중학생의 휴대폰 중독과 정서, 행동문제 및 관련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2(3), 139-157.
- 한주리, 허경호. (2004). 이동전화 중독 척도 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언론학회**, 48(6), 138-165.
- 홍선희, 유형근, 남순임. (2015). 초등학교 고학년의 스마트폰 SNS 중독 성향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16(6), 241-257.
-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 귀교차지연 효과 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 **교육심리연구**, 21(1), 129-143.
- 홍예지, 이순형. (2016).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습 간 자기회귀교차지연효과 검증: 성별 간 다집단 분석. **아동학회지**, 37(4), 17-29.
- 홍예지, 이순형, 이수현, 조혜림. (2015). 초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휴대전화의존도 발달 궤적 및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6(6), 165-188.

- Morahan-Martin, J. (2005). Internet abuse: Addiction? disorder? symptom? Iternative explanations?.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3(1), 39-48.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 233-255.
- Madell, D., & Muncer, S. (2004). Back from the beach but hanging on the telephone? English adolescents' attitudes and experiences of mobile phones and the internet. *CyberPsychology & Behavior*, 7(3), 359-367.
- Yen, C., Tang, T., Yen, J., Lin, H., Huang, C., Liu, S., & Ko, C. (2009). Symptoms of problematic cellular phone use, functional impairment and its association with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in Southern Taiwan. *Journal of Adolescence*, 32(4), 863-873.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자기조절학습, 사회성 간의 종단 관계 분석

권선아* · 양명희**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컴퓨터 사용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과 사회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종단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중1 패널 데이터 중, 3차년도(2012), 5차년도(2014), 6차년도(2015)의 3개년도 자료(중3, 고2, 고3)를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하였다. 컴퓨터 사용은 '학습용'과 '비학습용'으로 구분하여 자기조절학습과 사회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 3학년 시기에 학습용 컴퓨터 사용이 많은 학생일수록 자기조절학습이 높았으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학습용 컴퓨터 사용의 활용 증가율은 자기조절학습 증가율과 정적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비학습용 컴퓨터 사용이 많은 학생일수록 자기조절학습이 낮았지만(중3시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이 두 변인은 유의한 영향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은, 학습용 및 비학습용 사용에 관계없이, 사회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이상의 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학습용 컴퓨터 사용, 비학습용 컴퓨터 사용, 자기조절학습, 사회성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컴퓨터는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 필요한 정보를 찾고, 소식을 주고받고, 모르는 사람과도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의견을 대중과 나누고, 게임을 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등 생활의 주요한 측면으로 정착되었다. 2004년도 이래, 가구나 컴퓨터 보유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도에는 82.3%의 보유율을 나타냈으며, 인터넷 보급률은 또한 2015년 84.4%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이는 10명당 8.5명이 가정 혹은 일상생활에서 컴퓨터 및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접해온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있어 컴퓨터와 인터넷은 일상생활의 변화를 넘어,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과다사용 혹은 중독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된 바 있다. 그동안의 연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들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인터넷 과다사용’ 혹은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의 대인관계, 학업, 정서, 신체 및 일상생활 측면에서 문제를 유발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김애경, 2016; 김은영, 임신일, 2014; 김현진, 박효정, 안해정, 2016; 조해연, 2001). 결국 컴퓨터 사용 및 인터넷상에서의 활동이나 매체 환경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컴퓨터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학업에 집중하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학습과 진학, 대인 관계에 대한 것으로,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에게 학업성취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학업적 요구 뿐 아니라 또래 관계, 학교 부적응 등 타인과의 관계 맺는 능력 또한 빠르게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컴퓨터 사용이 그들의 발달 과업이라 할 수 있는 학업과 사회적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학교 교육은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자기조절학습은 자신의 학습에 적극 참여하면서 인지적으로, 동기적으로, 행동적으로 스스로 조절하려는 노력으로서, 학업성취이나 이후의 학업 지속 여부를 잘 예측해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양명희와 이정아, 2012). 자기조절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안다. 스스로를 자기 행동의 중재자로 보며 우수한 학업성취를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기조절을 잘 하는 학습자는 성취도가 높은 학습자 특성과 일치하며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Nota, Soresi & Zimmerman, 2004). 학습에서 자기조절을 하는 정도는 학습자마다 차이가 있으며, 자기조절적 노력을 자주, 다양하게 보이는 학습자가 높은 학업성취를 보여준다(Zimmerman, 1998). 자기조절학습은 외적인 조절과는 구분되는 학습의 형태로서 경험과 연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학습과 관련 없는 상황에서 게임이나 채팅 등의 측면에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업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다운받는 등의 학습용으로도 적극적으로 또한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권선아, 이수영, 2017; 허균, 2017). 이를 고려한다면 청소년들의 컴퓨터 사용을 학습용과 비학습용으로 구분하고, 목적에 따른 서로 다른 컴퓨터 사용이 자기조절학습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청소년기는 학업적 성취 뿐 아니라 또래 관계, 학교 부적응 등 타인과의 관계 맺는 능력 또한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방법과 집단 적응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배워나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건강한 또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가족의 범주를 벗어나서 자아의 성장을 경험하면서 자아정체감 형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성인으로 발달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이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며, 어떻게 접근하고, 적응하는지에 대한 사회성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

가 있다. 즉, 인지적 발달뿐 아니라 사회적 교류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청소년기 학생들이 학업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교육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학교교육이 학생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지적인 능력 뿐 아니라, 사회성, 감성, 도덕성과 관련이 있는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때 사회성은 인성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들은 필요한 정보를 찾고, 공유하고, 소통하는데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컴퓨터 활용 수준이나, 빈도 혹은 가정환경 등의 변수와 개별적인 방식으로 탐구함으로써 개인 심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연구들에서는 컴퓨터 사용과 관련하여 일관성있는 결과들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

우리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이전 사회에서는 없었던 고도의 매체 환경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컴퓨터는 이미 우리 일상에서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일상에서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학습용과 비학습용으로 나누어 검토해볼 것이다. 나아가 학습용과 비학습용이라는 서로 다른 목적에 따른 컴퓨터 사용이 학업적 상황에서의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사회적 상황에서의 사회성 발달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있는지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시점에서 탐구하게 되면 이들 간의 관계에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관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그 관계가 특정 시점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도 일정하게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을 시점을 달리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해보는 작업도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 하에 매체 환경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면서,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이 자기조절학습과 사회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나가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학습용 vs. 비학습용)이 자기조절학습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학습용 vs. 비학습용)이 사회성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과 사회성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며, 어떤 관련이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KCYPS는 2010년에 표집된 3개 패널(초1, 초4, 중1)의 청소년 7,071명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총 7년간의 종단데이터 구축 및 분석을 위해서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대상은 중1 패널의 3차년도(2012), 5차년도(2014), 6차년도(2015) 자료이다. 구체적으로, 2012, 2014, 2015년도의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 중, '컴퓨터 사용'과 관련된 문항, 학습습관에 대한 문항 중 '행동통제', '학습시간관리' 문항, 그리고 또래애착에 대한 문항 중 '의사소통', '실패', '소외'에 문항에 모두 성실히 응답한 1,216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1,216명의 학생 중, 남학생이 737명(60.6%)이었고, 여학생이 439명(39.4%)이었다(〈표 1〉 참조).

표 1. 연구대상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학생	737	60.6
	여학생	439	39.4
	합 계	1,216	100

2. 연구도구

1) 학습용 컴퓨터 사용

'학습용 컴퓨터 사용'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용으로 컴퓨터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항으로, KCYPS 에서는 총 1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공부 및 학습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이용' 문항을 4점 Likert 척도('자주 사용한다'=4점, '가끔 사용한다'=3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2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1점)로 측정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용 컴퓨터 사용이 높음을 뜻한다.

2) 비학습용 컴퓨터 사용

'비학습용 컴퓨터 사용'은 학습자 스스로 비학습용으로 컴퓨터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항으로, KCYPS 에서는 총 9개 문항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통적인 문항 8문항을 채택하여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이외의 정보검색 및 자료(음악, 영화파일 등)이용', '게임 및 오락', '채팅이나 메신저', '전자우편(email)',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개인홈페이지(블로그, 미니

홈피) 활동’,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아이템, 음악파일 등)’, ‘댓글달기’의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자주 사용한다’=4점, ‘가끔 사용한다’=3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2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1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학습용 컴퓨터 사용이 많음을 뜻한다. 3, 5, 6차년도 신뢰도는 Cronbach alpha가 각각 .726, .688, .698 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표 2> 참조).

3) 자기조절학습

‘자기조절학습’은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인지, 동기,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KCYPS에서 제공하는 문항 중 ‘행동통제’5개 문항과 ‘학업시간관리’ 4개 문항을 자기조절학습으로 활용하였다. 문항을 살펴보자면, ‘나는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한다’, ‘나는 하던 공부를 끝낼 때까지 공부에 집중한다’, ‘나는 공부가 지루해도 계획한 것은 마친다’, ‘나는 노는 것을 그만두지 못해 공부를 시작하기가 어렵다’, ‘나는 공부를 하려면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집중을 못한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얼마나 공부할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한다’, ‘나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시간 계획을 세운다’, ‘나는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공부 시간을 확실히 정해둔다’, ‘나는 시험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공부한다’의 총 9개 문항이다.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3, 5, 6차년도에 반복 측정, 수집되어 있는 상태이다. 신뢰도는 <표 2>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4) 사회성

‘사회성’은 또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성은 KCYPS에서 제공하는 또래 관계를 측정하고 있는 9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항을 살펴보면 또래와의 ‘의사소통’ 3개 문항, ‘신뢰’ 3개 문항, ‘소외’ 3개 문항으로,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이며,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 5, 6차년도에 수집되었는데, 신뢰도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도구의 신뢰도

변인	측정내용	문항수	신뢰도		
			3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자기조절학습	행동통제	5	.664	.735	.722
	학습시간관리	4	.840	.859	.889
	전체	9	.809	.843	.843
사회성	의사소통	3	.789	.769	.769
	신뢰	3	.774	.800	.828
	소외	3	.744	.693	.745
	전체	9	.777	.819	.834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라는 매체 사용이 청소년(중3, 고2, 고3)의 ‘자기조절학습’과 ‘사회성’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 분석은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의 특수한 모형으로, 최소 3회 이상 측정된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특정한 집단 또는 개인 수준에서 변화의 크기를 추정하는 분석방법이다. 모형을 구성하는 변인으로는 관측변인과 잠재변인이 있는데, 잠재변인은 다시 ‘초기값’과 ‘변화율’로 구성되며, 초기값과 변화율은 매회 측정되는 종단자료에 근거해 추정한다. 초기값은 첫 번째 시점의 수치로 절편을 의미하고, 변화율은 기울기를 의미하며 이 두 요인의 해석을 통하여 변수들의 종단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김계수, 2009).

본 연구에서 사용된 ‘컴퓨터 사용’ 변수는, 목적에 따라, ‘학습용 컴퓨터 사용’과 ‘비학습용 컴퓨터 사용’으로 나뉘며, 각각의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른 컴퓨터 사용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두 개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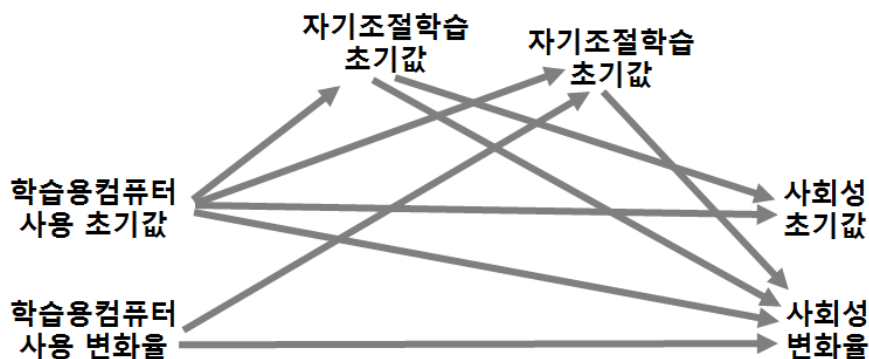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1 : 학습용컴퓨터, 자기조절학습, 사회성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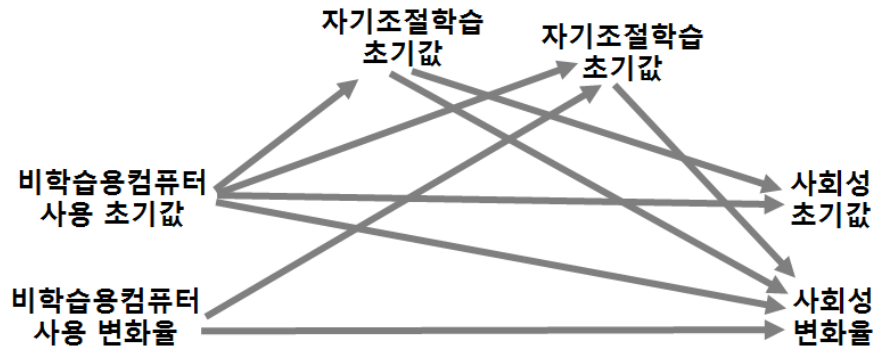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2 : 비학습용컴퓨터, 자기조절학습, 사회성 모형

4. 분석방법

잠재성장모형 (Latent Growth Model) 분석방법을 적용한 본 연구의 방법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의 특성 및 자료가 연구모형에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22.0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의 기초통계를 검토하여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변수들의 잠재성장모형을 검토하기 위하여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을 측정하고 적합도를 비교한 후, 보다 적절한 값을 보고한 각 변수들의 선형변화 모형을 채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개별 변수들의 선형변화 모형을 종합하고 각각의 경로를 연결하여 변수들 간 초기값과 변화율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이때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방법으로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 (FIML :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는 CFI, TLI RMSEA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West, et al, 1995).

Ⅲ. 연구결과

1. 기초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습용 컴퓨터 사용, 비학습용 컴퓨터 사용, 자기조절학습, 사회성 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학습용 컴퓨터 사용은 3차년도(2.64), 5차년도(2.85), 6차년도(2.81)로 3차년도에서 5차년도사이에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5차년도와 6차년도 사이에는 거의 변화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 비학습용 컴퓨터 활용은 3차년도(19.00), 5차년도(17.62), 6차년도(17.24)로, 3차년도와 5차년도 사이에서는 약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마찬가지로 5차년도와 6차년도 사이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는

각각 절대값 2.0, 7.0이하로 나타날 때 정규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West, et al, 1995), 따라서 본 자료는 왜도와 첨도를 통해 자료 분포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표 3. 변수별 기술통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학습용컴퓨터사용(3차:1T)	1,216	1	4	2.64	.830	-.297	-.420
학습용컴퓨터사용(5차:2T)	1,216	1	4	2.85	.862	-.415	-.435
학습용컴퓨터사용(6차:3T)	1,216	1	4	2.81	.946	-.452	-.669
비학습용컴퓨터사용(3차:1T)	1,216	8	32	19.00	4.540	.136	-.332
비학습용컴퓨터사용(5차:2T)	1,216	8	32	17.62	4.321	.232	-.349
비학습용컴퓨터사용(6차:3T)	1,216	8	32	17.24	4.411	.334	-.234
자기조절학습(3차:1T)	1,216	9	36	22.29	4.331	.099	.347
자기조절학습(5차:2T)	1,216	9	36	21.92	4.304	.053	.319
자기조절학습(6차:3T)	1,216	9	36	21.93	4.416	.065	.243
사회성(3차:1T)	1,216	9	36	27.21	3.874	-.004	.780
사회성(5차:2T)	1,216	12	36	27.97	3.780	.138	.173
사회성(6차:3T)	1,216	9	36	27.93	3.880	.154	.365

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표 4. 주요 변수간의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학습용컴사용(3차:1T)	1											
2. 학습용컴사(5차:2T)	.287**	1										
3. 학습용컴사용(6차:3T)	.261**	.383**	1									
4. 비학습용컴사용(3차:1T)	.118**	.018	.036	1								
5. 비학습용컴사용(5차:2T)	-.012	-.007	.011	.406**	1							
6. 비학습용컴사용(6차:3T)	.018	.007	-.012	.355**	.465**	1						
7. 자기조절학습(3차:1T)	.276**	.258**	.248**	-.017	-.092**	-.089**	1					
8. 자기조절학습(5차:2T)	.201**	.374**	.298**	-.064*	-.091**	-.109**	.454**	1				
9. 자기조절학습(6차:3T)	.183**	.322**	.371**	-.028	-.105**	-.069*	.418**	.611**	1			
10. 사회성(3차:1T)	.035	.109**	.074*	-.041	-.075**	-.074**	.208**	.159**	.183**	1		
11. 사회성(5차:2T)	-.005	.051	.051	-.017	-.061*	-.088**	.100**	.202**	.40**	.341**	1	
12. 사회성(6차:3T)	.010	.064*	.050	-.043	-.037	-.069*	.110**	.162**	.173**	.360**	.530**	1

* $P < .05$, ** $P < .0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학습용 컴퓨터 사용 변인 모두는 자기조절학습 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비학습용 컴퓨터 사용은 부적 상관을 보인다.

3. 분석 모형

1) 학습용 컴퓨터 사용 성장모형

학습용 컴퓨터 사용의 성장모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을 비교, 검토하였다. 두 모형의 초기값의 평균과 분산,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 공분산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형검토 결과 선형변화 모형이 무변화 모형에 비하여 CFI, TL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선형변화 모형을 채택하였다.

학습용 컴퓨터 사용 초기값은 평균 2.68 ($P < .001$), 분산 .02 ($P < .001$)이며, 변화율은 평균 .08 ($P < .001$), 분산 .02 ($P < .001$), 공분산 .01 (ns)으로 공분산을 제외한 값들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변화율의 평균이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학습용 컴퓨터 사용은 3차년도(1T)부터 6차년도(3T)까지 매년 .08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아서 학습용 컴퓨터 사용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학습용 컴퓨터 사용 성장모형 비교

	χ^2	df	CFI	TLI	RMSEA	초기값		변화율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무변화	81.53***	4	.824	.765	.126	2.76***	.02***			
선형 변화	25.65***	1	.776	.925	.142	2.68***	.02***	.08***	.02***	.01

*** $p < .001$

2) 비학습용 컴퓨터 사용 성장모형

비학습용 컴퓨터 사용의 성장모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을 검토하였다. 두 모형의 초기값의 평균과 분산,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 공분산 결과는 <표 6>과 같다. 모형검토 결과 선형변화 모형이 무변화 모형에 비하여 CFI, TL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선형변화 모형을 채택하였다.

비학습용 컴퓨터 사용의 초기값은 평균 18.81 ($p < .001$), 분산 .12 ($p < .001$)이며, 변화율은 평균 -.86 ($p < .001$), 분산 .07 ($p < .001$), 공분산 -.77 (ns)으로 공분산을 제외한 값들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변화율의 평균이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비학습용 컴퓨터 사용은 3차년도(1T)부터 6차년도(3T)까지 매년 .86씩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아서 학습용 컴퓨터 사용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비학습용 컴퓨터 사용 성장모형 비교

	χ^2	df	CFI	TLI	RMSEA	초기값		변화율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무변화	167.04***	4	.711	.783	.183	17.85***	.10***			
선형 변화	19.97***	1	.966	.899	.125	18.81***	.12***	-.86***	.07***	-.77

*** $p < .001$

3) 자기조절학습 성장모형

자기조절학습의 성장모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을 검토하였다. 두 모형의 초기값의 평균과 분산,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 공분산 결과는 <표 6>과 같다. 모형검토 결과 선형변화 모형이 무변화 모형에 비하여 CFI, TL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선형변화 모형을 채택하였다.

자기조절학습의 초기값은 평균 22.21 ($p < .001$), 분산 .12 ($p < .001$)이며, 변화율은 평균 -.16 ($p < .001$), 분산 .07 ($p < .05$), 공분산 -.44 (ns)로 공분산을 제외한 값들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변화율의 평균이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은 3차년도(1T)부터 6차년도(3T)까지 매년 .16씩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아서 학습용 컴퓨터 사용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자기조절학습 성장모형 비교

	χ^2	df	CFI	TLI	RMSEA	초기값		변화율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무변화	59.27***	4	.938	.954	.107	22.02***	.10***			
선형 변화	3.66	1	.997	.991	.047	22.21***	.12***	-.16*	.07*	-.44

* $p < .05$, *** $p < .001$

4) 사회성 성장모형

사회성의 성장모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을 검토하였다. 두 모형의 초기값의 평균과 분산,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 공분산 결과는 <표 6>과 같다. 모형검토 결과 선형변화 모형이 무변화 모형에 비하여 CFI, TL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선형변화 모형을 채택하였다.

사회성의 초기값은 평균 27.39 ($p < .001$), 분산 .10 ($p < .001$)이며, 변화율은 평균 .31 ($p < .001$), 분산 .06 ($p < .001$), 공분산 .48(ns)로 공분산을 제외한 값들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변화율의 평균이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성은 3차년도(1T)부터 6차년도(3T)까지 매년 .31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아서 학습용 컴퓨터 사용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사회성 성장모형 비교

	χ^2	df	CFI	TLI	RMSEA	초기값		변화율		공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무변화	86.59***	4	.865	.899	.130	27.76***	.09***			
선형 변화	16.63***	1	.974	.923	.113	27.39***	.10***	.31***	.06***	.48

*** $p < .001$

4.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1) 학습용 컴퓨터 사용, 자기조절학습, 및 사회성 모형 검증

학습용 컴퓨터 사용이 자기조절학습과 사회성에, 또한 자기조절학습이 사회성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앞에서 검증한 3개의 단변량 모델을 결합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참조). 연구모형의 독립변수는 학습용 컴퓨터 사용의 초기값과 변화율이며, 종속변수는 자기조절학습과 사회성의 초기값과 변화율이다. 이때 자기조절학습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사회성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모형과 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FI, TLI, RMSEA의 값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FI $> .90$, TLI $> .90$, RMSEA $< .05$ 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는데(홍세희, 2000), 본 연구 모형1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보여주었다(<표 9> 참조).

표 9. 모형1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결과 (N=1,216)

χ^2	df	CFI	TLI	RMSEA
55.54***	20	.985	.972	.038

*** $p < .001$

<표 10>에 제시된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를 보면, 학습용 컴퓨터 사용의 초기값이 자기조절학습의 초기값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72$, $p < .001$), 또한 학습용 컴퓨터 사용의 변화율 역시 자기조절학습의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7$, $p < .001$).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중학교 3학년 시기에 학습용 컴퓨터 사용이 많은 학생일수록 자기조절학습이 높으며, 학습용 컴퓨터 사용의 증가속도(변화율)가 빨라질수록, 자기조절학습의 증가속도(변화율) 역시 빨라지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자기조절학습의 성장요인은 사회성의 성장요인을 모두 정적으로 예측하

였다. 즉,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자기조절학습이 높은 학생일수록 사회성이 높았다($\beta=.60, p < .001$). 그러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 급이 바뀔에 따라, 자기조절학습은 더 이상 청소년의 사회성의 변화에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B	β	S.E	P
학습용컴퓨터사용초기값→자기조절학습초기값	4.76***	.72	.42	.000
학습용컴퓨터사용초기값→자기조절학습변화율	-.62**	-.20	.23	.007
학습용컴퓨터사용변화율→자기조절학습변화율	4.42***	.67	1.09	.000
학습용컴퓨터사용초기값→사회성초기값	-1.08	-.21	-1.77	.077
학습용컴퓨터사용초기값→사회성변화율	-.21	-.11	.46	.649
학습용컴퓨터사용변화율→사회성변화율	.35	.09	1.1	.743
자기조절학습초기값→사회성초기값	.41***	.60	.09	.000
자기조절학습초기값→사회성변화율	-.04	-.13	.06	.498
자기조절학습변화율→사회성변화율	.07	.11	.14	.633

** $P < .01$, *** $P < .001$

2) 비학습용 컴퓨터 사용, 자기조절학습, 및 사회성 모형 검증

비학습용 컴퓨터 사용이 자기조절학습과 사회성에, 또한 자기조절학습이 사회성에 땀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앞에서 검증한 3개의 단변량 모델을 결합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2] 참조). 연구모형의 독립변수는 학습용 컴퓨터 사용의 초기값과 변화율이며, 종속변수는 자기조절학습과 사회성의 초기값과 변화율이다. 이때 자기조절학습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사회성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모형과 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FI, TLI, RMSEA의 값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FI $>.90$, TLI $>.90$, RMSEA $<.05$ 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는데(홍세희, 2000), 본 연구 모형2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보였다(<표 11> 참조).

표 11. 모형2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결과 (N=1,216)

χ^2	df	CFI	TLI	RMSEA
45.71**	20	.988	.979	.033

** $P < .01$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 경로계수 값은 <표 12>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자면, 비학습용 컴퓨터 사용의 초기값이 자기조절학습의 초기값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8, p < .001$).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중학교 3학년 시기에 비학습용 컴퓨터 사용이 많은 학생일수록 자기조절학습이 낮으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 급이 바뀔에 따라 청소년의 비학습용 컴퓨터 사용은 더 이상 자

기조절학습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자기조절학습의 성장요인은 사회성의 성장요인을 모두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자기조절학습이 높은 학생일수록 사회성이 높았다($\beta=.36$, $p < .001$). 그러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 급이 바뀔에 따라, 자기조절학습은 더 이상 청소년의 사회성의 변화에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B	β	S.E	P
비학습용컴퓨터사용초기값→자기조절학습초기값	-.19***	-.18	.05	.000
비학습용컴퓨터사용초기값→자기조절학습변화율	.01	.01	.04	.852
비학습용컴퓨터사용변화율→자기조절학습변화율	-.05	-.03	.24	.826
비학습용컴퓨터사용초기값→사회성초기값	-.07	-.09	.05	.151
비학습용컴퓨터사용초기값→사회성변화율	.02	.06	.03	.515
비학습용컴퓨터사용변화율→사회성변화율	-.24	-.21	.21	.262
자기조절학습초기값→사회성초기값	.36***	.44	.05	.000
자기조절학습초기값→사회성변화율	-.06*	-.21	.03	.039
자기조절학습변화율→사회성변화율	.12	.17	.07	.086

* $P < .05$, *** $P < .001$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컴퓨터 사용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과 사회성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조절학습이 사회성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때 컴퓨터 사용은 구체적으로 ‘학습용’과 ‘비학습용’으로 구분하여 자기조절학습과 사회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KCYPs(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1패널 3차년도(2012년), 5차년도(2014년), 6차년도(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중학교 3학년의 ‘학습용 컴퓨터 사용’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 급이 바뀔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매년 .08씩 증가), ‘비학습용 컴퓨터 사용’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매년 .86씩 감소).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교 급이 바뀔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매년 .16씩 감소), ‘사회성’은 약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매년 .31씩 증가). 또한 중학교 3학년 시기에 학습용 컴퓨터 사용이 많은 학생일수록 ‘자기조절학습’이 높았는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학습용 컴퓨터 사용’이 많을수록 ‘자기조절학습’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중학교 3학년 시기에 ‘비학습용 컴퓨터 사용’이 많을수록 ‘자기조절학습’이 낮아지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비학습용 컴퓨터 사용’은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과 더 이상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중학교 3학년 시기에 높은 ‘자기조절학습’을 지닌 청소년은 ‘사회성’ 또한 높았지만 학년이 올라가서 중학교에

서 고등학교로 학교 급이 바뀔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3학년 시기의 학습용 컴퓨터 사용은 자기조절학습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학습용 컴퓨터 사용의 변화 또한 자기조절학습의 종단적 변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최근에 수행된 권선아·이수영(2017)과 허균(2017)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즉, ‘학습용 스마트폰 사용이 중학생의 자기통제력과 자기주도학습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권선아·이수영(2017)의 연구는 ‘학습용 컴퓨터 사용이 청소년의 학습관련 자기통제 혹은 자기조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권선아·이수영(2017)의 연구가 학습용 스마트기기 사용과 학습자의 자기통제력 및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정적 영향 관계를 횡단분석으로 증명했다면, 본 연구는 그 연구를 종단분석으로 확장시켰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학습용 컴퓨터 사용이 학습관련 자기통제 행동에 대한 긍정적 영향 관계를 보고한 본 연구는 ‘학습목적의 컴퓨터 사용이 학습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허균(2017)의 종단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청소년의 컴퓨터 및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한 자기통제력 및 자기조절능력 저하 관련 연구 및 자기통제력 저하를 기저로 발생하는 수많은 청소년 문제들(예 : 학업능력 및 성적 저하, 학교부적응, 대인관계 갈등)을 보고한 기존의 매체 활용 연구에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본 연구는 컴퓨터 및 인터넷의 과다사용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컴퓨터 및 인터넷의 사용목적 및 내용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컴퓨터 사용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둘째, 중학교 3학년 시기의 비학습용 컴퓨터 사용은 자기조절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중3때의 컴퓨터 사용의 변화가 자기조절학습의 종단적 변화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를 여가용 혹은 오락용으로 과다사용할 경우에 학습자의 자기통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권선아, 이수영, 2017; 김종원, 2002; 이계원, 2001; 조해연, 2001)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수행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3년간의 종단 데이터를 활용한 종단연구로, 장기적인 성장과 발달 그리고 변화적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의 비학습용 컴퓨터 사용은 자기조절학습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하나의 시점에서 분석하였을 경우에 청소년의 비학습용 컴퓨터 사용은 청소년의 학습관련 자기통제와 조절 (즉, 자기조절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장기적인 성장과 변화 추이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종단연구 결과는 한 시점에서 청소년의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 과다사용의 효과 및 영향만을 측정하였던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에 큰 시사점을 제공하며, 컴퓨터 등의 매체 활용 효과 및 그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대상의 매체활용교육정책 시행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셋째, 중3시기의 컴퓨터 사용이 그 목적에 따라 자기조절학습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혹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사회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중3때

컴퓨터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촉진하지도 않음을 뜻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사회성 발달에는 컴퓨터의 사용이 특별히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다른 환경적, 심리적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박순용(2009)은 청소년의 사회성에 가족 맥락적 요인, 학교 맥락적 요인이 보다 직접적으로 관계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는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사회성 발달의 주요인으로, 부모, 학교생활, 교우관계를 제한하면서 집중도가 높고, 접근 가능 거리가 가까운 이들이 다수 있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던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 즉 컴퓨터 사용이 사회성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결과는 그의 연구 결과를 지지해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 결과를 달리 해석하다면, 청소년이 혼자서 학습을 위해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해서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친구들과 어울려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회성을 촉진한다고도 볼 수 없게 된다.

본 연구는 KCYPS의 중1 패널의 3차년도(2012), 5차년도(2014), 6차년도(2015) 자료를 토대로 중 3시기의 컴퓨터라는 매체의 활용이 학업(자기조절학습)과 사회적 관계(사회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검증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컴퓨터 사용, 자기조절학습, 사회성 데이터가 해마다 수집되지 못함으로써, 중1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연구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청소년이 자주 접하는 매체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자기조절학습이나 사회성 이외 다른 개인, 심리적 특성들을 발굴하여, 더 포괄적으로 검증되고 연구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선아, 이수영.(2017). 스마트폰 사용이 자기통제력의 매개를 통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최초 사용 시점에 따른 비교.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1(2), 247-257.
- 김은영, 임신일.(2014). 스마트폰 과다사용 증상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청소년학연구**, 21(6), 255-279.
- 김애경.(2016). 예비유아교사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인문학연구**, 103, 79-106.
- 김종원.(2002).중·고등학생의 자기통제력, 사회환경적 요인 및 인터넷, 게임 중독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진, 박효정, 안해정.(2016). 스마트폰·인터넷 중독과 우울, 공격성, 사회적관계, 학교폭력 경험 간의 다중집단 경로분석. **교육학연구**, 54(1), 77-104.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6).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 (국가승인통계 제12005호).
- 박순용(2009). 질적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미국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2(1), 173-201.
- 양명희·이경아(2012).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도의 관련성: 변화추이 및 인과적 방향성 검토. **교육과학연구**, 43(2), 175-195
- 이계원.(2001).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해연.(2001).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과 성격특성 변인 연구: 자기효능감·자기통제감·공격성·충동성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허 군.(2017). 고등학생들의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과 고3의 주관적 학업성취도 관계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29(1), 180-187.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Nota, L., Soresi, S., & Zimmerman, B. J., (2004). Self-regul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and resilience: A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1, 198-215.
- West, S. G., Finch, J. F., and Curran, P. J.(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56-75). Newbury Park, CA : Sage.
- Zimmerman, B. J. (1998). Academic studying and the development of personal skill: A self-regulatory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33, 73-86.

부모의 양육 방식과 청소년의 또래 관계가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원지영* · 최준용**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0년부터 실시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중 1차년도부터 6차년도에 걸쳐 수집된 중1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성장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 경향을 살펴보고 부모 및 또래를 중심으로 한 사회관계 요인이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 경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방식은 청소년기 자녀의 휴대전화 의존도를 낮추는 반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방식은 자녀의 휴대전화 의존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청소년의 또래 애착 수준은 휴대전화 의존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양육 방식이 청소년기 전반에 걸친 휴대전화 의존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의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대처 방법을 포함한 전반적인 양육 방식에 대한 부모 교육이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부모의 양육 방식, 또래애착, 휴대전화 의존

I. 서론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그 최초 사용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5)의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생 40.8%, 초등학교 고학년생 72.3%, 중고등학생의 경우 90% 이상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보유율 또한 2012년 이후 크게 상승하여 2015년 기준 중·고등학생 중 약 78%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확산되면서 휴대전화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오락적 기능까지 수행하는 통신 매체로 청소년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는 잦은 장시간의 휴대전화 사용이 휴대전화 의존 경향을 가져오고, 이는 청소년기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사용의 증가는 청소년의 우울감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을 증가시키고(조일주, 2009), 휴대전화 사용의 증가에 따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등 인터넷을 통한 유해매체 이용률이 증가하며, 청소년의 공격성을 강화하고 사회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신엽섭, 이봉건, 2016; 김경호, 2016; Aydm & Sarn, 2011; Lemmens et al., 2011). 특히 청소년기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은 자아정체성 확립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 영향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이혜선, 강차원, 2007). 따라서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 가능성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휴대전화 의존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휴대전화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요인, 그 중에서도 사회관계 요인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즉, 청소년들이 누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사회관계는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을 예방하는 보호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오히려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을 유발하는 위해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강한 유대감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관계로서 부모와의 관계와 또래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휴대전화 의존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둘째, 청소년 자녀의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 추이는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 추이는 또래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본 연구의 결과는 휴대전화 의존도가 청소년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을 막기 위한 효과적 개입 시점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를 포함한 청소년기 사회관계와 휴대전화 사용 간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기 휴대전화 의존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 보급율이 세계 4위로 높은 수준에 있으며, 전체 청소년 인구의 69.6%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T 경제경영연구소, 2015; 미래창조과학부, 2016; 김기태·이현주·문신일, 2016; 재인용). 또한 2017년 여성가족부가 전국 초·중·고등학생 14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보이는 청소년이 전체 응답비율의 10.0%를 차지하였다(여성가족부, 2017). 이러한 결과는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이 휴대전화에 의존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우수

정, 2013).

이제까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률 및 보유율 증가와 맞물려 휴대전화 의존, 과다사용, 중독현상 등의 부작용 증가 양상에 대해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졌다(권상희·황유지, 2004; 장석진·송소원·조민아, 2011; 박지영·김귀애·홍창희, 2012; 김병년, 2013; 우수정, 2013; 강경미·장정임·김성봉, 2014; 김도연·양혜정, 2014; 김혜순·변상해, 2014; 배성만, 2014; 이지언·정익중·장유다·주영하, 2015; 허균, 2015; 김기태·이현주·문신일, 2016; 김소연·노충래·손유경, 2016; 최미영·김지수, 2016).

휴대전화 의존도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과도하게 휴대전화에 집착하여 사용에 의존하는 정도(우수정, 2013; 허균, 2015)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과 관련된 기존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휴대전화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의 관계를 주로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변인으로는 성별(이정숙·명신영, 2007; 김도연·양혜정, 2014; 김혜순·변상해, 2015; 이지언·정익중·장유다·주영하, 2015; 김기태·이현주·문신일, 2016), 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태도(장석진·송소원·조민아, 2011; 우수정, 2013; 김도연·양혜정, 2014; 배성만, 2014; 허균, 2015; 김소연·노충래·손유경, 2016), 또래관계(이정숙·명신영, 2007; 장석진·송소원·조민아, 2011; 박지영·김귀애·홍창희, 2012; 우수정, 2013; 김도연·양혜정, 2014; 배성만, 2014; 김혜순·변상해, 2015; 김기태·이현주·문신일, 2016; 김소연·노충래·손유경, 2016), 학교생활적응(이정숙·명신영, 2007; 장석진·송소원·조민아, 2011; 강경미·장정임·김성봉, 2014; 이지언·정익중·장유다·주영하, 2015), 자아존중감(김도연·양혜정, 2014; 이지언·정익중·장유다·주영하, 2015), 우울(박지영·김귀애·홍창희, 2012; 강경미·장정임·김성봉, 2014; 김도연·양혜정, 2014; 배성만, 2014; 김소연·노충래·손유경, 2016), 공격성(강경미·장정임·김성봉, 2014; 김소연·노충래·손유경, 2016) 등이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과 휴대전화 의존과의 관계성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연구(이정숙·명신영, 2007; 장석진·송소원·조민아, 2011; 박지영·김귀애·홍창희, 2012; 우수정, 2013; 강경미·장정임·김성봉, 2014; 김혜순·변상해, 2015; 이지언·정익중·장유다·주영하, 2015; 김기태·이현주·문신일, 2016; 최미영·김지수, 2016)에서는 동일 시점의 횡단적 관계를 규명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비교적 최근 시도된 종단적 연구(김도연·양혜정, 2014; 배성만, 2014; 허균, 2015; 김소연·노충래·손유경, 2016)를 통해 중학교 시기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휴대폰 의존도가 함께 증가(김도연·양혜정, 2014; 허균, 2015)하다가, 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다소 감소(허균, 2015)하는 변화 양상을 도출하였지만, 이마저도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장 발달 변화에 따라 여러 시점의 휴대폰 사용과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2. 부모와의 관계와 휴대전화 의존도

부모와의 관계와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의 관계성을 탐색하고자 시도된 기존연구(장석진·송소원·조민아, 2011; 우수정, 2013; 김도연·양혜정, 2014; 배성만, 2014; 허균, 2015; 김소연·노충래·손유경, 2016)에 따르면,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장석진·송소원·조민아의 연구(2011)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중학교 1학년 패널 데이터의 1차년도 횡단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휴대전화 의존도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양육태도와 휴대전화 의존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진행된 우수정의 연구(2013)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초등학교 4학년 패널 데이터 2차년도 횡단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부모가 학대 및 방임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또래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주었고, 이는 아동이 휴대전화에 더욱 의존하게 되도록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연·양혜정의 연구(2014)에서도 역시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중학교 1학년 패널 데이터 1-3차년도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인지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학년이 올라가도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성만의 연구(2014)에서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중학교 1학년 패널 데이터 1-3차년도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그 결과 부모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초기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시도된 연구들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허균의 연구(2015)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중학교 1학년 패널데이터 1-4차년도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부모관심이 휴대폰 의존도를 낮추는데 유의한 효과가 없는 반면, 중학교 3학년 시기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성장함에 따라 그 효과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 방식은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로 이러한 부모-자녀 간의 관계가 청소년 자녀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3. 또래관계와 휴대전화 의존도

청소년기에 있어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수단으로써 또래문화를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김혜순·변상해, 2015). 예를 들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역시 SNS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 및 관리하며, 게임, 음악, 동영상 다운로드 등의 용도로 스마트폰을 활용한다. 특히 스마트폰의 다양한 오락적 기능들은 새로운 문화를 선호하는 청소년들의 특성과 맞물려(박지영·김귀애·홍창희, 2012)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또래문화를 형성·발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은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결과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김혜순·변상해, 2015). 이와 관련하여 기존연구(이정숙·명신영, 2007; 장석진·송소원·조민아, 2011; 박지영·김귀애·홍창희, 2012; 우수정, 2013; 김도연·양혜정, 2014; 배성만, 2014; 김혜순·변상해, 2015; 김기태·이현주·문신일, 2016; 김소연·노충래·손유경, 2016)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먼저, 이정숙·명신영의 연구(2007)에서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4개 중학교 1, 2, 3학년과 2개 고등학교 1, 2, 3학년 중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대폰 의존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또래관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지영·김귀애·홍창희(2012)가 부산시에 소재한 중학교 2, 3학년과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 고위험 집단일수록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나아가 외로움과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성만의 연구(2014)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중학교 1학년 패널 데이터 1-3차년도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시도한 결과, 친구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초기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이 낮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친구관계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의 감소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기존연구와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연구들도 존재한다. 장석진·송소원·조민아(2011)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학교 1학년 패널 데이터의 1차년도 횡단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휴대전화 의존도는 또래애착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마찬가지로 김도연·양혜정의 연구(2014)에서도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 초기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또래애착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도의 차이가 중학교 청소년들의 학년이 올라가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순·변상해의 연구(2015)에서는 서로 다른 결과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들은 서울시내 5개교 중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스마트폰 의존이 높을수록 친구들을 더욱 신뢰하고 친구와의 의사소통이 더 많았지만, 과도한 사용은 반대로 소외감이나 분노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청소년기 스마트폰 의존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결과를 동시에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은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과 또래관계의 상관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연구 결과

를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또래관계가 휴대전화 의존 수준과 그 변화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본 연구는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 경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사회관계 특히,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휴대전화에 대한 청소년의 의존도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가설1-1: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방식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휴대전화 의존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1-2: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2: 청소년의 또래 애착은 휴대전화 의존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청소년이 경험한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가설4: 청소년들의 또래 애착 수준에 따라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 양상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2. 데이터 및 표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중 중1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중1패널의 2015년 제 6차 조사 시기 원표본 유지율은 87.5%(2,056명)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중학교 1학년 재학 중이었던 1차 조사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된 6차 시기까지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관계적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1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의 조사에 모두 참여한 대상자들 중 1차년도 시기부터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1635명(79.5%)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3. 측정도구

1) 휴대전화 의존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휴대전화 의존도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게 된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등의 7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7개 문항에 대한 점수를 점수가 높을수록 의존도가 높은 방식으로 변환하고 이를 합산하여 휴대전화 의존도를 평가하였다. 휴대전화 의존도를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1차에서 6차 조사 시기 까지 0.85에서 0.90 사이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2) 부모의 양육 방식

청소년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는 부모의 양육 방식 척도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부모의 양육 방식은 크게 감독(3문항), 애정(4문항), 비밀관성(4문항), 과잉기대(4문항), 과잉간섭(3문항), 합리적 설명(3문항)의 6개 항목으로 나뉘어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 분석의 결과를 기반으로 6개 유형의 양육방식을 크게 두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즉,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을 포함한 긍정적 양육방식과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을 포함한 부정적 양육방식으로 나누어 부모의 양육 방식을 평가하였다. 1차 조사 시기 긍정적 양육방식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0.85, 부정적 양육방식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0.83로 나타났다.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 방식은 그 수준에 따라 상, 중, 하의 세 집단으로 나뉘어 분석에 활용되었다. 긍정적 양육방식과 부정적 양육방식 점수의 분포에서 4분위 수를 기준으로 하여 상위 집단 약 25%, 중위 집단 약 50%, 하위 집단 약 25%를 차지하도록 집단을 구성하였다.

3) 또래 애착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 정도를 통해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를 평가하였다. 중2패널에서 또래애착은 의사소통(3문항), 신뢰(3문항), 소외(3문항)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신뢰도가 낮은 소외 영역의 한 문항을 제외하고 총 8개의 문항의 값으로 또래 애착 수준을 평가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또래 애착이 강할수록 총점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변화하여 활용하였다. 1차 조사 시기 또래 애착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는 0.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 애착의 수준을 상, 중, 하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집단 구성은 4분위 수를 기준으로 하여 상위 수준 집단이 약 25%, 중위 수준 집단이 약 50%, 하위 수준 집단이 약 25%의 분포를 보이도록 임의로 구분하였다.

4. 분석방법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 중1패널 조사의 1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양육 방식과 또래에

착 수준을 평가하고 이러한 청소년의 부모 또는 또래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1중학교 1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 6년에 걸친 휴대전화 의존도가 부모의 긍정적 양육 방식, 부모의 부정적 양육 방식, 또래 애착의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또한 패널 데이터의 장점을 활용하여 혼합선형모형(linear mixed model) 방법을 통해 중학교 1학년 시기 청소년이 경험한 부모의 양육 방식과 또래 애착이 6년에 걸친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은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를 측정한 변수와 청소년의 발달 단계(조사시기)를 독립변수로 하여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 변수와 조사시기 간의 상호작용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여 청소년의 발달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 경향이 청소년이 경험한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IBM SPSS 20.0을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부모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양육방식 및 또래 애착 수준과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분석 모형에 포함된 변수로 부모의 양육 방식, 청소년의 또래 애착과 휴대전화 의존도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은 대략적인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상, 중, 하의 세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 경험이 상위인 집단이 26.8%, 중위인 집단이 48.2%, 하위인 집단이 25%를 차지하였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 방식을 자주 또는 항상 경험하는 상위 집단이 26.9%, 전혀 또는 거의 경험하지 못한 하위 집단이 33.3%를 차지하였다.

또래애착의 경우도 대략적인 사분위수를 기준으로 상, 중, 하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또래애착 척도의 점수는 최저 8점, 최고 32점으로 22점 이하의 집단은 하위 집단, 22점에서 27점 사이는 중위 집단, 27점 이상은 상위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표 1>에서와 같이 휴대전화 의존도의 평균 값은 1차 조사에서 14.45, 2차 조사에서 16.17, 3차 조사에서 16.90, 4차 조사에서 16.76, 5차 조사에서 16.31, 6차 조사에서 16.3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대상자의 휴대전화 의존도는 중학교 3년 동안 증가하다가 고등학교 진입 이후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1] 참조).

표 1. 주요변수의 기술 통계 분석 결과

변수	집단유형	n	%
긍정적 양육방식	상 (3.36이상)	429	26.8
	중 (2.69~3.36)	772	48.2
	하 (2.69이하)	401	25.0
부정적 양육방식	상 (3.00이상)	439	26.9
	중 (2.00~3.00)	649	39.8
	하 (2.00이하)	544	33.3
또래애착	상 (27.00이상)	420	25.7
	중 (22.00~27.00)	681	41.7
	하 (22.00이하)	534	32.7
변수	조사시기	평균	표준편차
휴대전화 의존도	중1	14.45	4.65
	중2	16.17	5.26
	중3	16.90	5.05
	고1	16.76	4.76
	고2	16.31	4.61
	고3	16.33	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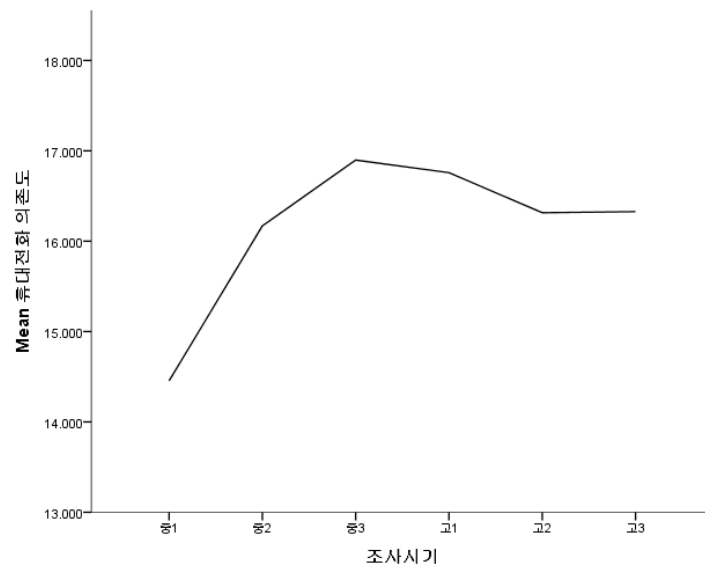


그림 1.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 추이

2. 부모의 양육 방식 및 또래 애착 수준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도 차이

아래 <표 2>와 같이 1차에서 6차까지의 모든 조사 시기에 걸쳐 휴대전화 의존도는 청소년이 경험한 부모의 양육 방식과 또래 애착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긍정적인 양육 방식과 휴대전화 의존 경향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부정적인 양육 방식과 휴대전화 의존 경향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래 애착 수준과 휴대전화 의존도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래 애착 수준이 중위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가장 높은 휴대전화 의존도를 보였으며, 또래 애착 수준이 상위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가장 낮은 휴대전화 의존도를 보였다.

표 2.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방식과 또래 애착 수준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도 차이

조사시기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변수	구분	n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긍정적 양육방식	상	429	13.65	4.82	15.79	5.45	16.26	5.21	16.06	4.77	16.82	4.64	15.77	4.96
	중	772	14.45	4.48	16.03	4.95	16.92	4.93	16.81	4.74	16.30	4.42	16.30	4.33
	하	401	15.28	4.65	16.81	5.57	17.43	5.08	17.42	4.75	16.82	4.64	16.84	4.45
	Total	1602	14.44	4.65	16.16	5.26	16.87	5.06	16.76	4.78	16.30	4.60	16.29	4.55
	F		12.92***		4.35*		5.64***		8.49***		5.20**		5.77**	
부정적 양육방식	상	439	15.50	4.93	16.78	5.36	17.42	4.95	17.10	4.80	17.19	4.84	16.80	4.71
	중	649	14.65	4.42	16.49	5.17	17.19	5.07	17.04	4.77	16.33	4.41	16.33	4.42
	하	544	13.39	4.49	15.32	5.17	16.12	5.02	16.16	4.67	15.58	4.53	15.91	4.52
	Total	1632	14.46	4.66	16.18	5.25	16.90	5.05	16.76	4.76	16.31	4.61	16.32	4.54
	F		26.61***		11.42***		9.94***		6.67***		14.95***		4.71**	
또래애착	상	420	14.24	4.88	16.03	5.41	16.66	5.19	16.35	4.96	15.90	4.89	15.83	4.74
	중	681	14.56	4.61	16.43	5.17	17.29	4.95	17.05	4.71	16.60	4.50	16.56	4.50
	하	534	14.50	4.54	15.95	5.25	16.58	5.06	16.71	4.64	16.28	4.49	16.43	4.43
	Total	1635	14.45	4.65	16.17	5.26	16.90	5.05	16.76	4.76	16.31	4.61	16.33	4.55
	F		0.65		1.46		3.59*		2.86		3.01*		3.56*	

* $p < 0.05$, ** $p < 0.01$, *** $p < 0.001$

3. 부모의 양육방식 및 또래 애착 수준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 추이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조사 시기에서 낮은 수준의 긍정적 양육 방식을 경험한 집단이 높은 휴대전화 의존도를, 높은 수준의 긍정적 양육 방식을 경험한 집단이 낮은 휴대전화 의존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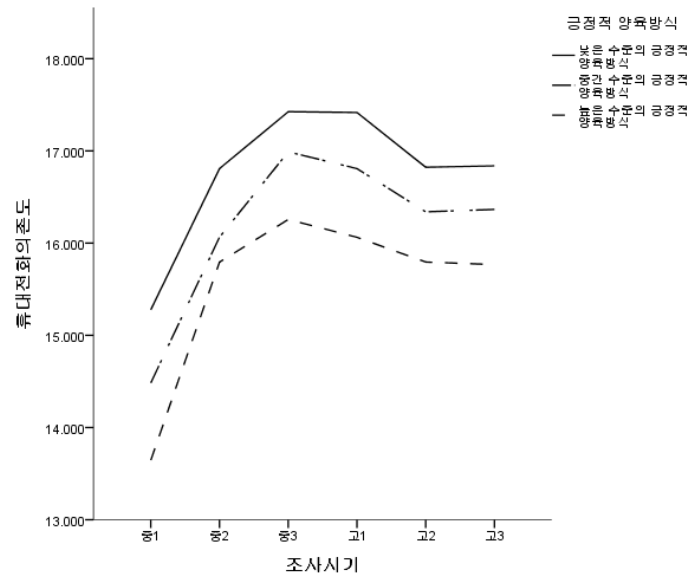


그림 2. 긍정적 양육 방식 수준에 따른 집단 별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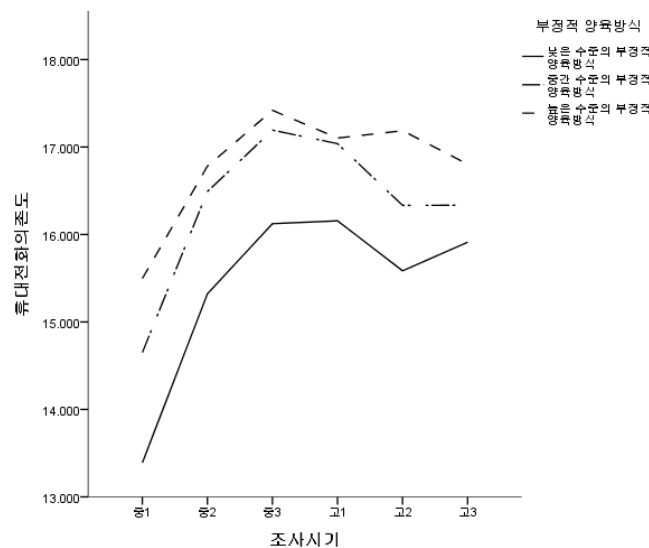


그림 3. 부정적 양육방식 수준에 따른 집단 별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

또래 애착 수준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또래 애착 수준 별 집단 간의 휴대전화 의존도 차이가 고등학교 진입 이후 확대됨 알 수 있었다. 보통 수준의 또래 애착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경우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것에 비해 또래 애착 수준이 낮거나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낮은 의존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관계와 휴대전화 의존도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가 서로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즉, 또래와의 빈번한 상호작용의 수단으로 휴대전화의 과사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또래와의 애착관계와 휴대전화 의존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 그러나 또래와 긍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들의 경

우 또래관계에 대한 신뢰가 높고 불안감이 적어 휴대전화의 과도한 사용을 절제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휴대전화 의존이 낮아질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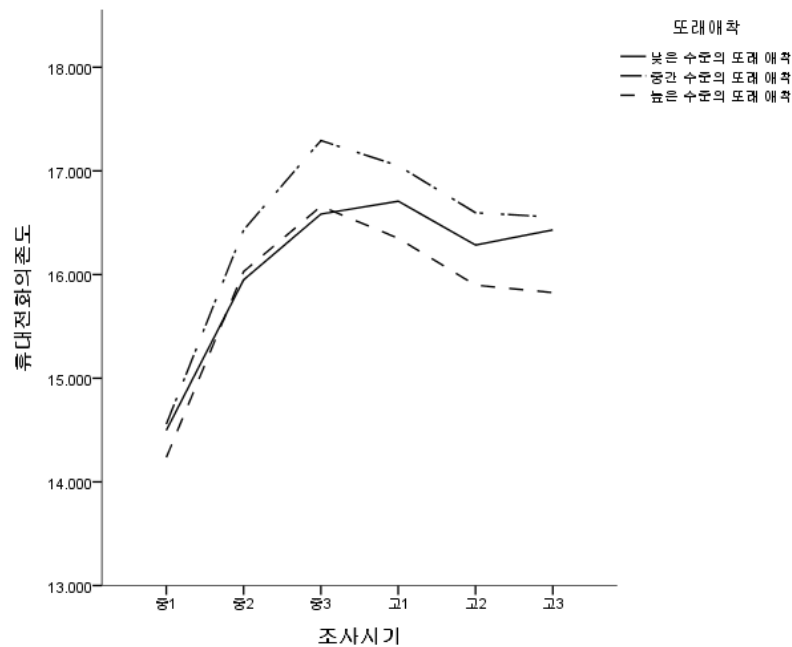


그림 4. 또래 애착 수준에 따른 집단 별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

아래의 <표 3>에서 <표 7>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애착 수준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혼합선형모형 (Linear mixed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표 3. 연구모형의 유형III 고정 효과 검정

구분	모형I		모형II		모형IV		모형V	
	F	p	F	p	F	p	F	p
절편	10643.69***	0.00	11564.63***	0.00	11149.09***	0.00	10428.64***	0.00
조사시기	92.99***	0.00	99.88***	0.00	97.47***	0.00	84.36***	0.00
긍정적 양육방식	8.55 ***	0.00					6.03***	0.00
긍정적 양육방식 * 조사시기	0.58	0.56					0.62	0.54
부정적 양육방식			20.54***	0.00			17.14***	0.00
부정적 양육방식 * 조사시기			3.77	0.02			3.43*	0.03
또래애착					0.47	0.62	1.47	0.23
또래애착*조사시기					0.61	0.54	1.19	0.31
정보 기준	-2LL	55915.08	55871.94		56034.07		55798.01	
	AIC	55919.08	55875.94		56038.07		55802.01	
	BIC	55933.46	55890.32		56052.45		55816.38	

* $p < 0.05$, ** $p < 0.01$, *** $p < 0.001$

조사시기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를 검증한 결과(모형1), 긍정적 양육 방식과 조사 시기는 휴대전화 의존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긍정적 양육방식과 조사 시기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도 역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또래 애착 수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서 관찰되는 보편적인 경향이었다. 그러나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보이며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 자녀를 훈육하는 경우 중고등학생 시기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긍정적 양육태도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 모형(모형1)에 대한 고정효과 추정값

모형1					
변수	추정	SE	df	t	p
절편	14.01	0.27	5057.29	52.57***	0.00
긍정적 양육방식: 낮은수준	1.59	0.38	5057.55	4.14***	0.00
긍정적 양육방식: 중간수준	0.76	0.33	5057.46	2.31*	0.02
긍정적 양육방식: 높은수준 (reference group)	0	0.00	-	-	-
조사시기	0.37	0.06	7064.62	5.86***	0.00
낮은수준*조사시기	-0.10	0.09	7064.66	-1.05	0.29
중간수준*조사시기	-0.03	0.08	7064.65	-0.42	0.68
높은수준*조사시기 (reference group)	0	0.00	-	-	-

* $p < 0.05$, ** $p < 0.01$, *** $p < 0.001$

조사시기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모형2]의 경우 조사시기와 부정적 양육태도가 모두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시기와 부정적 양육태도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검증되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양육 방식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을 보이는 경우 그 청소년 자녀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집단 간 휴대전화 의존도의 차이는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부정적 양육태도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 모형(모형II)에 대한 고정효과 추정값

모형II					
변수	추정	SE	df	t	p
절편	15.78	0.26	5061.02	60.11***	0.00
부정적양육방식: 낮은수준	-2.17	0.35	5061.35	-6.14***	0.00
부정적 양육방식: 중간수준	-0.68	0.34	5061.14	-2.01*	0.04
부정적 양육방식: 높은수준 (reference group)	0	0.00			
조사시기	0.24	0.06	7053.25	3.85***	0.00
낮은수준*조사시기	0.21	0.08	7053.30	2.54**	0.01
중간수준*조사시기	0.05	0.08	7053.27	0.60	0.55
높은수준*조사시기	0	0.00			

* $p < 0.05$, ** $p < 0.01$, *** $p < 0.001$

조사시기와 또래애착 수준,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모형III]의 경우, 또래 애착은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또래 애착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 모형(모형III)에 대한 고정효과 추정값

모형III					
변수	추정	SE	df	t	p
절편	14.65	0.27	5060.93	54.21***	0.00
또래애착: 낮은수준	0.01	0.36	5060.89	0.03	0.98
또래애착: 중간수준	0.27	0.34	5060.87	0.80	0.42
또래애착: 높은수준(reference group)	0	0.00			
조사시기	0.27	0.06	7089.07	4.25***	0.00
낮은수준*조사시기	0.08	0.09	7089.06	0.95	0.34
중간수준*조사시기	0.08	0.08	7089.06	1.01	0.31
높은수준*조사시기	0	0.00			

* $p < 0.05$, ** $p < 0.01$, *** $p < 0.001$

청소년들의 성장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 경향을 살펴보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 애착이 이러한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한 혼합선형모형 검증의 결과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도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방식은 휴대전화 의존도를 낮추는 반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은 휴대전화 의존도를 높였으며 이러한 양육방식의 영향력은 중고등학교 시절 전반에 걸쳐 유지되었다. 예외적으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이 갖는 효과의 경우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다소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부정적인 양육방식이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정적 효과는 고3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유효하였다. 반면에 또래관계는 휴대전화 의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부모의 양육방식과 또래 애착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 모형(모형Ⅳ)에 대한 고정효과 추정값

모형Ⅳ					
변수	B	SE	df	t	p
절편	15.18	0.39	5047.23	38.55***	0.00
조사시기	0.21	0.09	7017.16	2.24*	0.03
긍정적양육방식:낮음	1.41	0.41	5047.41	3.47***	0.00
긍정적양육방식:중간	0.69	0.34	5047.41	2.02*	0.04
긍정적양육방식:높음	0	0.00			
부정적양육방식:낮음	-1.99	0.36	5047.53	-5.59***	0.00
부정적양육방식:중간	-0.61	0.34	5047.23	-1.79	0.07
부정적양육방식:높음	0	0.00			
또래애착:낮음	-0.51	0.38	5047.53	-1.36	0.17
또래애착:중간	0.00	0.35	5047.58	-0.01	0.99
또래애착:높음	0	0.00			
긍정적양육방식낮음*조사시기	-0.11	0.10	7017.19	-1.11	0.27
긍정적양육방식중간*조사시기	-0.05	0.08	7017.19	-0.58	0.56
긍정적양육방식높음*조사시기	0	0.00			
부정적양육방식낮음*조사시기	0.20	0.09	7017.21	2.37*	0.02
부정적양육방식중간*조사시기	0.04	0.08	7017.16	0.45	0.65
부정적양육방식높음* 조사시기	0	0.00			
높은또래애착*조사시기	0.13	0.09	7017.20	1.45	0.15
중간또래애착*조사시기	0.11	0.08	7017.21	1.30	0.19
낮은또래애착*조사시기	0	0.00			

* $p < 0.05$, ** $p < 0.01$, *** $p < 0.001$

V. 결론 및 제언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는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물리적인 제약 없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휴대전화의 이점은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성장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 경향을 살펴보고 부모 및 또래를 중심으로 한 사회관계 요인이 휴대전화 의존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 경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학교 시기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의존 경향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둘째, 휴대전화 의존도는 부모와 청소년 자녀 사이의 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보이며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 자녀를 훈육하는 경우 이들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낮아지는 반면, 청소년 자녀에 대한 양육 방식이 일관되지 않고 자녀에게 과도한 기

대를 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자녀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비록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 자녀의 성장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도의 증가 경향을 상쇄하지는 못하였지만 부모의 양육 방식이 휴대전화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녀의 중학교 시기에서 고등학교 시기까지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청소년들에게 휴대전화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래 애착 수준은 휴대전화 의존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 시사점을 갖는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는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 면에서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는 청소년기 전반에 걸친 휴대전화 의존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력은 이후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기는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부모로부터의 자립을 준비하는 시기로 가정 내에서의 사회관계에서 벗어나 가정 외에서 형성된 사회관계, 특히 또래 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 단계 상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양육 방식이 가진 영향력은 중고등학생 시기를 거쳐 지속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휴대전화를 바르게 사용하고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휴대전화 사용을 포함한 올바른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부모 교육이 이른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 경향은 중학교 시기 급증하여 고등학교 시기 다소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중학교 시기가 되면서 스마트폰을 보유한 학생의 비율이 급증하고 가정 외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모의 감독과 통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소년기 휴대전화 의존의 부정적 영향력 고려할 때, 자기 통제 능력이 부족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의 과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요청된다.

또래관계와 휴대전화 의존과의 상관관계는 중학교 재학 시기보다 고등학교 재학 시기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1학년 시기 또래 애착 수준은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의존 수준 및 그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 또래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대적으로 쉽게 변화하고 그 영향력의 지속성 역시 약한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또한 또래관계와 휴대전화 의존과의 상관관계는 부모-자녀 관계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낮은 수준의 또래 애착을 보이는 청소년들과 높은 수준의 또래 애착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모두 평균 이하의 휴대전화 의존도를 보였다. 따라서 앞으로 고등학생 시기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으로서 또래 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의존도와 그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청소년들의 사회관계라는 환경적 요인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성별, 자기통제 등 휴대전화 의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을 포함한 연구 모형 개발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경미·장정임·김성봉 (2014).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2), 395-416.
- 권상희·황유지(2004). 문자메세지 매체의 기대가치 연구 : 휴대폰과 인터넷 메신저 비교를 중심으로. **언론과 학연구**, 4(1), 5-48.
- 김경호 (2016). 고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 유해매체 이용, 공격성 간의 순환적 관계의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8(3), 51-74.
- 김기태·이현주·문신일 (2016). 청소년의 스마트폰 네트워크 크기, 이용행태, 또래친구와의 관계지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30(4), 5-40.
- 김도연·양혜정 (2014). 청소년기 휴대폰 의존의 변화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의 영향 :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5(3), 169-197.
- 김병년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4), 208-217.
- 김소연·노충래·손유경 (2016).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이 우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7(3), 251-277.
- 김혜순·변상해 (2014).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5), 117-125.
- 박지영·김귀애·홍창희 (2012).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이용 동기, 또래관계 및 정서적 요인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31(1), 151-169.
- 배성만 (2014). 중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친구관계 만족도가 휴대폰 중독적 사용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1), 271-290.
- 신연섭·이봉건 (2016). 대학생의 휴대폰중독과 감각추구성향, 충동성, 공격성의 관계분석.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45, 61-84.
- 여성가족부 (2017). **2017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결과**
- 우수정 (2013).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51(6), 583-590.
- 이정숙·명신영 (2007).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실태 및 휴대폰 중독 정도에 따른 또래관계의 질,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67-86.
- 이지언·정익중·장유다·주영하 (2015). 청소년의 휴대폰 의존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조절 효과와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3), 1-25.
- 이혜선·강차원 (2007). 중학생의 휴대폰 과다사용과 애착 및 행동문제와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20, 79-95.
- 장석진·송소원·조민아 (2011).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431-451.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KISDISTAT REPORT: 어린이, 청소년 휴대폰 보유 및 이용행태 분석**, Vol. 15-18.
- 조일주 (2009).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휴대폰 중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9(1), 1-20.
- 최미영·김지수 (2016). 고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이 의사소통 기술과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9(3), 149-155.
- 허균 (2015). 청소년의 휴대폰 의존도의 중단적 변화에 대한 부모관심의 시간 변화에 따른 효과 연구. **청소년**

학연구, 22(3), 59-76.

Aydm, B., & Sam, S. V. (2011).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the role of self-esteem.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5, 3500-3505.

Lemmens, J. S., Valkenburg, P. M., & Peter, J. (2011). Psychosoci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pathological gam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7(1), 144-152.



제 ⑧ 주제

사회/공동체의식

1. 중학생이 인식한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및 성차 비교
2.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3. 청소년 다문화수용성의 종단적 변화와 설명 변인 탐색
4.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에 대한 종단적 연구

중학생이 인식한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및 성차 비교

정민아* · 김은혜**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긍정적인 부모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하여 중학교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했다. 총 2,002명의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및 삶의 만족도에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다문화 수용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생활적응은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남녀 모두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하여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언급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중학생,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다문화수용성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한국 사회는 1990년 중반이후 국내외 인구이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단일민족 사회에서 다민족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다. 2010년 국내체류 외국인은 116만 명이었으나 2015년 법무부출입국 사무국(2016)이 발표한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국내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 문화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문화가정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을 구성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2001년 25,182명에서 2016년 기준으로 151,820명으로 약 6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법무부출입국사무국, 2016).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는 것과 비례로 다문화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칭하는 용어는 정책 간에 혼선이 있으나, 보편적으로 다문화가정 혹은 다문화가족의 아동과 청소년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국제결혼가정

* 명지전문대학 사회복지과 외래강사

** 서울시립 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상담원

자녀와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전정숙 외, 2010).

2017년 청소년통계(통계청·여성가족부, 2017)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초·중·고 학생은 2016년 9만 9천명으로 2015년에 비해 20.2% 증가하였다. 이와 반대로, 일반가정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감소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는데, 향후 10년간 학령인구(6-21세)는 약 150만명 감소할 전망으로 예측되어 지고 있다(통계청·여성가족, 2017).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생 수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충돌과 이질감 등이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영달(2006)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주로 정체성의 혼란, 언어능력부진으로 인한 학습부진, 제한된 의사소통, 경제적 빈곤, 교우관계 등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조혜영·이창호·권순하·서덕화·이은하(2007)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피부색이나 외모로 인한 놀림과 차별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로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겪는 신체적, 정서적 위기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배척당했다는 박탈감을 유발하여 학교부적응에 문제를 갖을 수 있으며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갖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이명희·김정현·송진숙·문희강, 2012). 이에 현재 국가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반가정 청소년들의 다문화 가정 및 사회에 대한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중요하다. 이는 주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가정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증진될 때, 다문화가정 청소년들과 관련된 정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박혜선, 2015).

다문화수용성이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정도와 인종적·문화적 배경이 다른집단을 사회구성원으로 수용하는 정도로 이해한다. 다문화주의에서 파생되는 다문화 수용성은 우리 문화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문화를 인정·존중하려는 다문화 지향적인 태도이며, 이주민들을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태도이다(윤인진·송영호, 2011). 다문화 수용성은 청소년기에 특히나 중요한데, 점차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다문화 집단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태도는 미래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택호·이석영·한운선, 2016).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로 사회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 및 발달해 나간다. 이러한 시기에 다문화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성인기에도 영향을 끼쳐 급격하게 변화하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부적응하거나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박애선, 2017).

청소년기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다문화 수용성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부모는 자녀가 최초로 접하는 타인이기에 자녀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양육태도로 인해 자녀의 인지·정서·행동적 영역이 발달하기에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종합적 능력을 일컫는 다문화 수용성도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게된다(설은정, 2011).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이혜진·장인실, 2009; 윤인성, 2011)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다문화적 인식과 타문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적응은 다양한 학교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를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상

황에 수용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성취감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박미혜(2015)의 연구에서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할수록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다문화수용성이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많은 시간을 학교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 내에서 배우는 규칙, 학습,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는 다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며, 이로 인해 다문화 수용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변인일 수밖에 없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면서 또래관계 및 사회성이 발달하며,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때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이 자아탄력성이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긴장 수준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개인의 조절 능력이라는 점에서 자아탄력성이라는 요인은 매우 주요한 개인 심리요인(Block와 Kremen, 1996)이다. 박애선(2017)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에 가장 높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양육태도 중 청소년이 지각하는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 인식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권은경, 2008), 부정적인 부모양육태도를 인식하는 경우 자아탄력성이 낮게 나타났다(배한나, 2012). 또한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 사회적응 측면에서의 매개 효과를 높게 나타내는 요인이다. 서은경·김병석(2013)의 다문화가정의 부부갈등과 자녀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을 매개효과 검증 하였을 때, 자아탄력성을 매개한 사회적응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이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은 학생이 학교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환경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변화시키는 학생과 학교 환경간의 역동적 과정(이수하, 2005)을 일컫는데, 이용주(2010)의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친구관계를 제외한 교사, 환경, 생활, 수업 등의 적응 측면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적응적이라고 하였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적응적이다 라는 보고를 하고 있어(정선미·조옥귀, 2006; 하현주, 2007; 손보영 외, 2012 재인용) 학교생활적응과 관련하여 남녀 성차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르다. 이에 따라 남녀 청소년이 학교생활 적응 및 다문화수용성에 이르게 있어 관계되는 변인들에 대한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남녀 청소년 간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본 연구에서 함께 고려해보고자 한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주요변인들이 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에 치중되어져 있고, 그 요인들 간의 관계성을 밝히는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반 중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일반 중학생들을 둘러싼 개인적, 환경적 자원을 탐색하여 그 간의 경로를 확인하며 경로에 있어서 남녀차이를 연구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6(KCYPS)’의 자료 중 7차년도인 2016년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KCYPS는 2010년부터 2016년의 7년간 실시되는 종단패널조사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의 이행과정을 관찰할 수 있으며, 조사내용은 영역을 크게 개인발달과 발달환경으로 나누고, 각 영역 안에 하위영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전국 27개 지역 중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 2,342명 중 부적절한 응답치 340개를 제외한 2,002명(남학생 1,039명, 여학생 963명)으로 전국에서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의해 표집 되었다.

표 1. 표본추출 개요

구분	일반가구
모집단	전국 중학교 1학년 청소년
조사지역	전국
표본추출방법	층화다단계집락표집(층화 후 집락별 표본학교 추출)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방법	부모용 설문지 / 청소년-자기기입식
조사년도	2016년

2. 조사 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14세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며, 성(gender) 구성은 남학생이 1,039명(51.9%)이며, 여학생이 936명(48.1%)으로 남학생이 더 많았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특성

구 분	빈 도	비 율
대 상	중학교 1학년	
성 별	남학생	1,039 51.9
	여학생	963 48.1

3. 측정도구

1) 종속변수

(1) 다문화 수용성

본 패널의 다문화 수용성은 양계민·정진경(2008)의 다문화수용도 문항 중 일부를 참고하여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한 것을 활용하였으며, 청소년이 인지한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총 5문항의 다문화수용성 문항 그대로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문항을 요인분석을 통하여 2개의 문항군으로 나누어 활용하였으며, 문항군의 각각의 내적합치도는 .86, .87이었으며, 전체 내적합치도는 .84로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1) 부모의 양육태도

본 패널의 부모양육태도척도는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의 양육태도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총 43문항의 양육태도 문항에서 긍정적인 양육태도인 감독(3문항), 애정(4문항), 합리적설명(3문항) 10문항을 그대로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총 10문항의 Likert 4점 척도이고, 내적합치도는 감독적 양육행동 .79, 애정적 양육행동 .83, 합리적 설명 양육행동 .77로 나타났다. 양육태도는 하위 각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에 대해 더 높이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매개변수

(1) 자아탄력성

본 패널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Block & Kreman(1996)이 제작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성경·심혜원(2002)이 번역한 것으로 수정·보완한 총 14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활용하였다. 항목 내용은 친구에 대한 너그름,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의 선호도,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의 인지여부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Likert 4점 척도이며,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83이었다. 이 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3개의 문항군으로 나누어 활용하였다. 문항군의 각각의 내적합치도는 .79, .77, .70이었으며, 전체 내적합치도는 .88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학교생활적응

본 패널의 학교생활적응척도는 민병수(1991)가 초등학교용으로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정화실, 1991 재인용)을 학교 행사 관련 문항(5문항)을 제외하고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하위내용 20문항 중 학습활동 내용(5문항), 학교규칙(5문항), 교우관계의 원만성(5문항), 교사관계의 원만성(5문항) 총 20문항을 그대로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이 중 학습활동(5), 교우관계(4)은 문항 특성상 역코딩 하였다.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학습활동 .72, 학교규칙 .70, 교우관계 .54, 교사관계 .82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학습활동 .78, 학교규칙 .82 교우관계 .67, 교사관계 .84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은 하위 각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해당 학교생활적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변수를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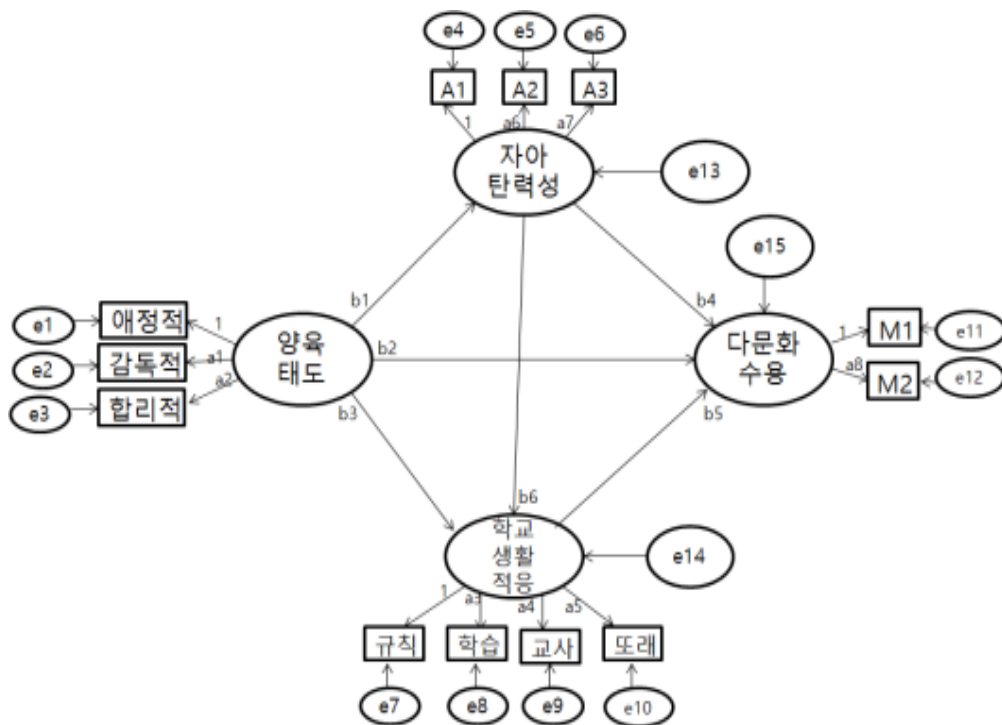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적합도 지수는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TLI, RMSEA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사용하였다(홍세희, 2000). TLI와 CFI는 .9 값 이상이면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좋은 적합도로 해석하며(송지준, 2009; Hu & Bender, 1999), RMSEA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데 RMSEA < .05면 좋은 적합도, <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 .10이면 보통적합도, RMSEA > .10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93).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통해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산분석과 구조방정식(AMOS)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1982, 1986)의 공식을 이용하였는데, 사용된 Sobel의 Z^1 공식은 다음과 같다.

$$Z = \frac{ab}{\sqrt{b^2 Sa^2 + a^2 Sb^2}}$$

$$Z = \frac{abc}{\sqrt{(bc)^2 Sa^2 + (ac)^2 Sb^2 + (ab)^2 Sc^2}}$$

Ⅲ. 연구결과

모형 검증을 위한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및 다문화수용성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 분석표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모든 변인간인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다문화수용성 간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연구 모형이 남녀 집단에 각각 적용될 수 있는지를 모형의 적합도를 통하여 검증하고, 각각의 집단에서 모형의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과 구조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이 성립하는지 검증하였다. 측정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측정모형에서의 요인 적재치를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각 집단별로 동일성 제약(a1~a8)을 가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으며(Mac Callum et al., 1999), 구조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단 간 동일한 회귀계수들의 대해서 제약(b1~b6)을 가한 후 경로에서의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Byrne, 2001; 손보영 외, 2012 재인용). 그 결과 모든 모형은 좋은 적합도²⁾를 보였다.(<표 4>)

1) a=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예언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 b=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예언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 Sa=a의 표준오차, Sb=b의 표준오차. Sobel의 Z공식에서는 Z값이 산출된 Z값의 임계치인 ± 1.96 에 비교하여 $p < .05$ 수준에서 임계치보다 클 경우에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다는 의미이다. (MacKinnon & Dwyer, 1994; 손보영 외(2012) 재인용)

2) Browne & Cudeck(1993). RMSEA 값은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5 ~ .08이면 적절한 적합도, .1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

표 3. 연구변인의 변인 간 상관관계 및 평균, 표준편차

(남학생 N=660, 여학생 N=668)

변 인	1	2	3	4
1. 부모양육태도	1			
2. 자아탄력성	.521*** (.412***)	1		
3. 학교생활적응	.608*** (.567***)	.561*** (.527***)	1	
4. 다문화수용성	.339*** (.282***)	.354*** (.303***)	.447*** (.404***)	1
평 균	1.72 (1.76)	1.96 (2.02)	1.86 (1.84)	1.90 (1.81)
표준편차	.46 (.46)	.48 (.46)	.42 (.39)	.56 (.56)

()밖의 숫자는 남학생의 값이고, () 안의 숫자는 여학생의 값임.

*** $p < 0.001$, ** $p < 0.01$, * $p < 0.05$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남·여학생의 구조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해도 전체적인 적합도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각각의 경로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b1~b6의 모든 경로에서 남·여학생의 집단에 동일성이 성립하였다.

표 4. 모형의 적합도 지수

(남학생 N=1,039, 여학생 N=963)

Index	χ^2	df	GFI	TLI	RMSEA
연구모형(전체)	395.200	48	.965	.944	.056
연구모형(남학생)	185.662	48	.975	.966	.053
연구모형(여학생)	270.731	48	.952	.922	.069
측정동일성 모형	463.314	104	.964	.947	.042
구조동일성 모형	456.396	96	.964	.942	.043

모형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 결과는 〈표 5〉에, 남학생의 결과는 [그림 2], 여학생의 결과는 [그림 3]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통계 결과의 경로의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학교생활적응에 이르는 경로의 표준화 계수가 남자청소년은 .63($p < .001$)이며,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53($p < .001$)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다문화 수용에 이르는 경로의 표준화 계수가 남자청소년은 .036($p > .05$)이며,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024($> .05$)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다문화 수용에 있어서 다소 높은 점수의 경로계수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다만 긍정적인 양육태도에서 다문화 수용의 경로는 남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정과 달리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다문화 수용에 이

르는 경로의 추정치에서 남·여학생 다문화 수용성을 제외하고($p > .05$) 남·여학생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p < .001$).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 다문화 수용에 있어서, 학교생활적응은 남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문화수용성은 남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적응은 다문화 수용에 남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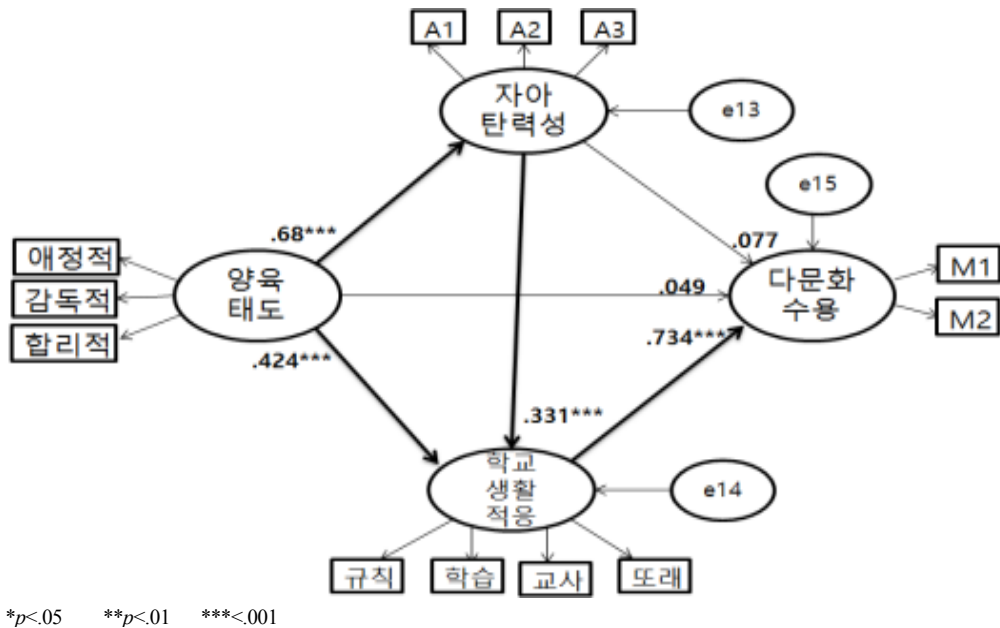


그림 2. 남학생 구조계수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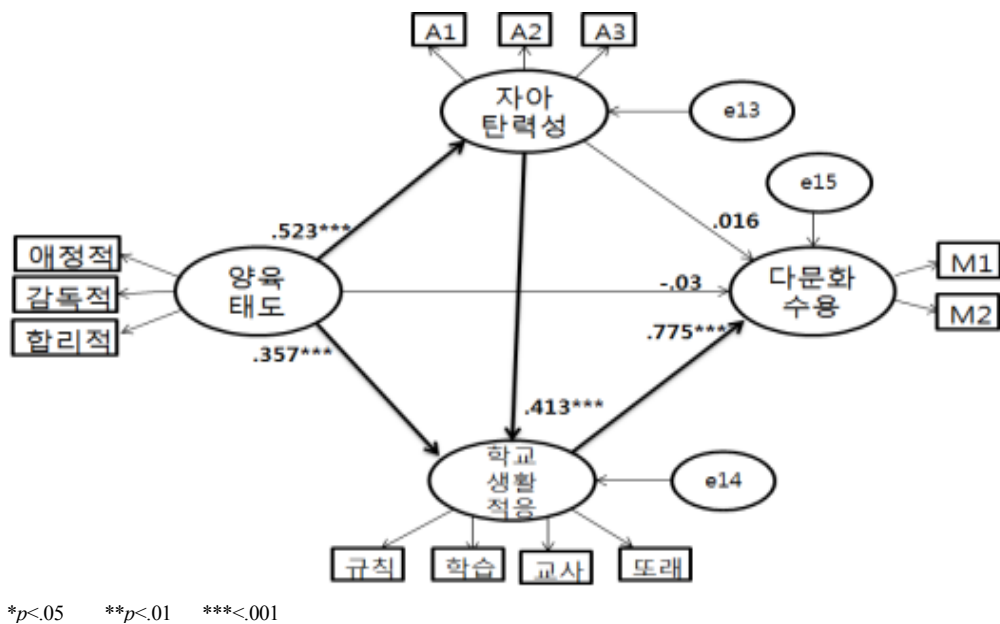


그림 3. 여학생 구조계수 추정치

표 5. 모형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치

경로	남학생				여학생			
	추정치	표준화 계수	S.E.	C.R.	추정치	표준화 계수	S.E.	C.R.
자아탄력성←양육태도	.68***	.729	.036	17.81	.523***	.677	.038	15.14
학교생활적응←양육태도	.424***	.631	.039	17.45	.357***	.525	.04	12.98
다문화수용성←양육태도	.049	.036	.063	.79	-.03	-.024	.061	-.5
학교생활적응←자아탄력성	.331***	.401	.034	9.65	.413***	.487	.035	11.76
다문화수용성←자아탄력성	.077	.061	.055	1.4	.016	.012	.065	.24
다문화수용성←학교생활적응	.734***	.482	.084	8.7	.775***	.516	.1	7.77

* $p<.05$ ** $p<.01$ *** $<.001$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매개효과 검증인 Sobel 검증 결과, 남·여학생의 중학교 청소년 모두 자아탄력성이 다문화 수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학교생활적응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중학교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은 매개 역할을 하는가?(연구문제 2)에 남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으로 이어지는데 있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Sobel 검증

매개 경로		a	Sa	b	Sb	c	Sc	Z
양육태도 → 자아탄력성 → 다문화수용성	남	.68	.036	.077	.055			1.395 ($p > .05$)
	여	.523	.038	.016	.065			0.246 ($p > .05$)
양육태도 → 학교생활적응 → 다문화수용성	남	.424	.039	.734	.084			6.81 ($p < .001$)
	여	.357	.04	.775	.1			5.851 ($p < .001$)
양육태도 → 자아탄력성 → 학교생활적응 → 다문화수용성	남	.68	.036	.331	.034	.734	.084	6.148 ($p < .001$)
	여	.523	.038	.413	.035	.775	.1	5.86 ($p < .001$)

* $p<.05$ ** $p<.01$ *** $<.001$

다음은 <표 7>에서 제시된 변인들의 직접·간접 및 총 효과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의 경우, 학교생활적응, 다문화수용성은 직·간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반면, 자아탄력성은 직접적인 효과만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다문화수용성은 직·간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반면, 학교생활적응은 직접적인 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주요 변인들의 직접·간접 및 총 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680 (.523)	-	.680 (.523)
	학교생활적응	.424 (.357)	.225 (.216)	.650 (.573)
	다문화수용성	.049 (-.03)	.563 (.452)	.579 (.421)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331 (.413)		.331 (.413)
	다문화수용성	.077 (.016)	.243 (.320)	.320 (.335)
학교생활적응	다문화수용성	.734 (.775)	- -	.734 (.775)

()밖의 숫자는 남학생의 값이고, () 안의 숫자는 여학생의 값임.

IV.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중학교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남녀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다문화 수용성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연구의 가설과 달리, 남녀집단 모두 긍정적이 부모양육태도는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에만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의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김효은·김종운, 2016; 정현정·문혁준, 2011), 학교생활적응(임우섭·김용주, 2015; 유봉애·옥경희, 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에 부모양육태도가 다문화수용성에서는 기존선행(장연진·구혜영, 2013; 박지윤·박은민, 2015)과는 달리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는 중학생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은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자아탄력성의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보고한 오미경·안지영·김지신(201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남녀집단 모두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적인 아동들이 학업,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를 쉽게 얻는 경향이 있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한다(서은경·김병석(2013)

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해 유연한 문제해결전략을 동원하여 적절한 반응과 융통성이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에 청소년이 외부에서 오는 작은 문제를 극복하고 삶 전반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자아탄력성을 높이면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외부개입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주어진 외적 상황에 대해 내적인 힘을 키워 극복할 수 있음(손보영 외, 2012)을 예측할 수 있기에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향상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달리 자아탄력성이 다문화수용성을 설명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는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개인내적 요인인 자아탄력성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이 미친다는 기존선행연구(장진경·전종미·정영혜, 2015) 다른 결과이다.

셋째, 학교생활적응은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좋을수록 다문화 수용도가 높다(오경화, 2011; 정석원·정진철, 2012)는 기존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감을 발달시키게 되며 또래와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와 애착을 통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여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중학교 청소년기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학교 내에서의 시간, 관계의 폭이 대폭 확장되는 시기이다. 또 한 중요한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 되는데 있어 청소년이 긍정적인 학교생활적응을 형성하여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도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끝으로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하여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다문화수용성을 통해 경로를 확인하여, 남·여학생이 어떻게 다른지 다집단 분석을 한 결과,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남녀집단 모두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한 긍정적인 양육태도에 대한 다문화수용성은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높아질 때,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지는 것은 다문화수용성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 가정 또래친구·사회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일반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특히 사춘기 중학교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도,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규명하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의 아동·청소년의 생활전반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는 많으나, 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가 개인내적인 자아탄력성, 환경요인인 학교생활적응 및 다문화 수용에 대해서 변인간의 경로에 대해서는 그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가 다른 변인들과 어떤 영향관계에 있는 가를 규명하고 청소년기 자녀에 대해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의 이중 매개효과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데 있어 부모의 지지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개입이 가능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다문화사회의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데 있어 청소년 개인의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다문화 청소년 교육과 정책에 있어 이러한 긍정적 변화영향요인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권은경. (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옥. (2006).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은·김중운. (2016). 초기청소년의 부모애착, 역기능적 태도,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및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9), 365-392.
- 민병수. (1991).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윤·박은민. (2015).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와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상담학회**, 16(3):233-251.
- 박미혜. (2015).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이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영향. **문화산업연구**, 15(4), 12-30.
- 박애선. (2017).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 **한국웰니스학회지**, 12(1), 93-106.
- 박혜선. (2015). **일반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한나. (2012). **빈곤가정 부부갈등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 부모양육태도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은경, 김병석. (2013). 다문화가정의 부부갈등과 자녀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지지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1(2), 449-476.
- 설은정. (2012).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차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3(12), 149-173.
- 양계민, 정진경. (2008).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미경, 안지영, 김지신. (2011).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의 매개적 역할. **한국아동교육학회** 20(3), 165-180.
- 오경화. (2011).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성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49(9), 83-97.
- 유봉애, 옥경희. (2013).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4):511-538.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89-206.
- 윤인진, 송영호. (2009).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2009년 전기사회학대회집: 한국사회학회** 579-591.
- 윤인성. (2011). **일반아동의 다문화가정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 김정현, 송진숙, 문희강. (2012). 대전지역 중학생의 다문화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효능감.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4(2), 17-28.
- 이수하. (2005).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학위논문.
- 이용주. (2010). **청소년의 성격적 강점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택호, 이석영, 한윤선. (2016). 교우관계와 교사관계가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다변량 :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문호 및 사회문제**, 22(1), 65-85.
- 이혜진, 장인실. (2009). 초등학교의 다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한국다문화교육학회 정기 학술대
회**, 236-256.
- 임우섭, 김용주. (2015). OO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자아탄력성과 부모지지가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행정학회** 33(4), 31-51.
- 장연진, 구혜영. (2013). 농촌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영향요인 구조분석.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5(3), 193-216.
- 장진경, 전종미, 정영혜. (201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가족건강성이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초등
학생의 성별과 학년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7), 53-72.
- 전경숙, 임양미, 양정선, 이의정. (2010). **경기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 경기도가
족여성연구원.
- 정선미, 조옥귀. (200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갈등,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부적응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문
제연구소**, 18, 133-158.
- 정석원, 정진철. (2012). 청소년의 다문화 교육경험과 사회적 친밀감이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다문화
교육학회** 5(1), 51-68.
- 정현정, 문혁준. (2011).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사회 인구학적 변인의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 7(3):21-42.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조혜영, 이창호, 권순희, 서덕희, 이은하. (2007). **다문화가족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선우. (2012). 다문화사회의 범죄와 경찰에 관한 연구. **서석사회과학논총** 5(2), 120
- 통계청·여성가족부. (2017). **2017년 청소년통계 보도자료**(R1704621-1)
- 하현주. (2007).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rowne, M. W., & Cudeck, P. J.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yrne, B. M.(200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 MacCallum, R. C., Roznowski, M., & Reith, J.(1994). Alternative strategies for cross-validation of
covariance structure model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9, 1-32.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logy* 290-312.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김동진* · 김태한**

국 문 초 록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적으로 변해가는 사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청소년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민적 자질이다.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의식 또한 다문화사회에서 중요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수용성이나 공동체의식과 같은 시민적 자질의 발달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근접맥락의 사회적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6차년도 중학교 1학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경로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는 다문화수용성과 공동체의식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동체의식은 다문화수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고 있었다.

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다문화수용성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육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접하는 근접맥락의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의식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긍정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제어: 근접맥락,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I.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각종 TV프로그램에는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출연하고 있으며, 길을 걷다보면 어느 한국인과 같이 바쁘게 발걸음을 놀리는 외국인들을 마주치는 것은 더 이상 어색한 광경이 아니다. 또한 이미 많은 수의 학교와 교실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보통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 교신저자, 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ktaehan@knou.ac.kr

처럼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다문화사회로 변해왔고, 이 변화의 양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마주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로부터 명확히 알 수 있다. 법무부(2016)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190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으며, 체류 외국인의 숫자는 최근 5년간 매년 8.6%의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단순히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숫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은 2015년 기준 82만 명 내외로, 2020년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만 18세 이하 자녀들은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 2007년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와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 안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반면에,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로 인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 문화에 어떻게, 얼마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힘들고 어려운 일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을 대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 외국인에 의한 다양한 범죄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문제들이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심해진다면 심각한 사회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다양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긍정적인 다양성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소통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적응하고, 관심사들을 공유하며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문화에 대해 인정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다문화수용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적으로 변해가는 사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매우 중요한 시민적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의식도 다문화사회에서 중요시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 공동체에 대한 책무성과 관련 있는 공동체의식은 다문화수용성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공동체에 대한 책무성,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과 인정은 다문화사회에서 필요한 시민성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Bennett, 2007). 따라서 청소년교육 분야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편, 다문화수용성이나 공동체의식과 같은 시민성의 요소들은 단순히 배우고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형성되지 않는다. 특히 청소년들은 그들을 둘러싼 가정, 또래집단,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 시민적 자질을 형성해 간다. 따라서 청소년기 시민성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동시에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하였으며, 그 영향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가정, 또래집단, 학교, 지역사회 등 청소년들이 주로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가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그동안 청소년들을 둘러싼 근접맥락의 요소들이 공동체의식이나 다문화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 여러 시도들이 있어왔다(eg., 박애선, 2017; 이택호, 이석영, 한운석, 2016). 그러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 연구들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서 필요한 시민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시민성과 관련한 논의의 폭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학문적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비롯하여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인 의의를 가진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수용성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양성의 증가는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에 따라 청소년에게 함양해야 할 것으로 강조되는 시민성의 요소도 변화하였다(eg., Banks, 2008; Heater, 2004; Kymlicka, 1995). 과거에는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애국심, 준법의식, 책임과 의무의 수행 등의 시민성이 강조되었다면,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현재에는 세계시민으로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시민성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함양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해졌으며, 교육에 있어서 세계 공동체에 대한 반성적 의식과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명료한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로서 강조되고 있다(Banks, 2008, pp.37~41).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nce)이 다문화사회에서 중요한 시민성의 요소로서 제시되고 있다.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어떻게 어울려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eg., 구정화, 2015). 다문화수용성은 나와는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에 대한 태도로써, 다른 문화에 대한 긍정정인 인식을 갖고, 다문화사회로의 사회적 변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민무숙 외, 2010). Benett과 Benett(2004)의 논의에 따르면,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한 개인의 다문화수용성은 여러 단계를 거쳐 발달한다. 초기에는 자문화중심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는 세 단계, 즉 문화차이 부정, 문화차이 방어, 문화차이 최소화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이때는 자신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단계이다. 이후, 문화 차이를 받아들이고 공감하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면, 문화상대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는 세 단계, 즉 문화차이 수용, 문화차이 적응, 문화차이 통합 단계를 거치며 문화적 맥락에 대해 유연하게 받아

들이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Benett & Benett, 2004). 즉, 다문화수용성이 낮은 단계에서는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사고에 따라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대하지만,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질수록 문화상대주의를 바탕으로 자신의 문화와 다른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다문화수용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인정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사회적 통합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미래 다문화사회의 주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수용성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2.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Sense of Community)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나와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태도로써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시민성의 요소이다. 공동체의식에 대한 논의에서 McMillan과 Chavis(1986)는 공동체의식을 어느 한 집단의 속해있는 사람이 해당 집단과 그 집단에 속해있는 다른 구성원들에게 가지는 소속감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공동체의식이 강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다른 구성원들의 욕구도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한다(McMillan & Chavis, 1986, pp.13). 다시 말해, 공동체의식이 높다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고, 공동체와 내가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동체への 애착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책무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김태한, 2017). 예를 들어, Clark, Powell and Mills는 더 공동체적인 사람들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아무런 조건이 없이 다른 사람을 더 돕게 되는 것을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해 증명하면서 높은 공동체의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더 이타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Clark, Powell & Mills, 1986). 즉, 한 개인이 특정한 사람에 대한 강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인 타인들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관용적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공동체의식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관용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는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시민성의 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다문화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민성의 요소로 기능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체이며, 청소년기에는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다양성이 존중받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기에 공동체의식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어떻게 함양할 것인지는 청소년교육의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공동체의식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태도, 존중과 배려를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이다. 위에서 살펴본 다문화수용성의 발달 단계 중 다른 문화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문화차이 수용의 단계는 바로 차이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Bennett & Bennett, 2004). 즉, 공동체의식을 갖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에 대한 존중은 문화적 차이를 수용할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다문화수용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 공동체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문수, 2014; 서봉언, 조현미, 김민영, 2015; 이수경, 2015; 양영미, 김진석, 2015).

3. 청소년의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한 인간은 다양한 환경적 맥락 안에서 성장한다. 따라서 개인의 시민성이 형성되는 과정은 그를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청소년들의 시민성은 가족, 학교, 지역사회와 같은 근접맥락(Proximal Contexts)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들을 둘러싼 근접맥락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주로 가정, 또래집단, 학교,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곳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관계들은 직·간접적으로 청소년의 사회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하여 Lave와 Wenger(1991)가 논의한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 개념은 한 개인이 경험하는 근접맥락 내 사회적 관계가 어떤 영향을 갖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실천공동체는 무언가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며, 정기적으로 상호 작용함으로써 더 나은 수행 방법을 습득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특정한 실천공동체 안에 처음 속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경험 많은 다른 구성원의 도움을 받게 되며, 점점 다른 구성원처럼 숙련자가 되어간다. 그 결과, 사회적 공동체의 실천은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떠한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형성한다(Wenger, 1998, pp.4-5). 즉, 한 개인은 여러 맥락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식, 태도, 행동 등을 습득하고,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다시 말해서, 실천공동체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는 한 개인의 시민적 자질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주된 근접맥락은 가정, 또래집단, 학교, 지역사회이며, 청소년들은 이 안에서 각각 부모, 또래, 교사, 이웃 등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각 근접맥락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화 기관으로써 가정 내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는 한 청소년의 사회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 대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일수록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친사회적 행동과 같은 시민적 자질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Yoo, Feng & Day, 2013).

또래집단 또한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근접맥락 중 하나이다. 청소년기에는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비해 또래집단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난다. 또래집단은 청소년이 어떤 태도를 유지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근접맥락이다(Aronson, Wilson, Akert & Sommers, 2015). 특히 청소년기에 또래에 대해 가지는 애착은 한 개인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사람과의 원활한 관계를 맺는데 영향을 준다(Youniss, 1980).

대표적인 사회화 기관인 학교 또한 중요한 근접맥락이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는 청소년들의 시민성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체로써,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청소년의 친사회적 태도, 사회적 책임감, 시민적 자질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김태한, 2017b).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시민적 태도와 책임감을 함양하는 장소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는 공동체의식, 관용과 같은 시민성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허인숙, 이정현, 2004). 이처럼 청소년들의 시민성 발달은 가정, 또래집단,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근접맥락 안에서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청소년의 시민성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맥락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Torney-Purta, Amadeo & Andolian, 2010).

Ⅲ.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이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이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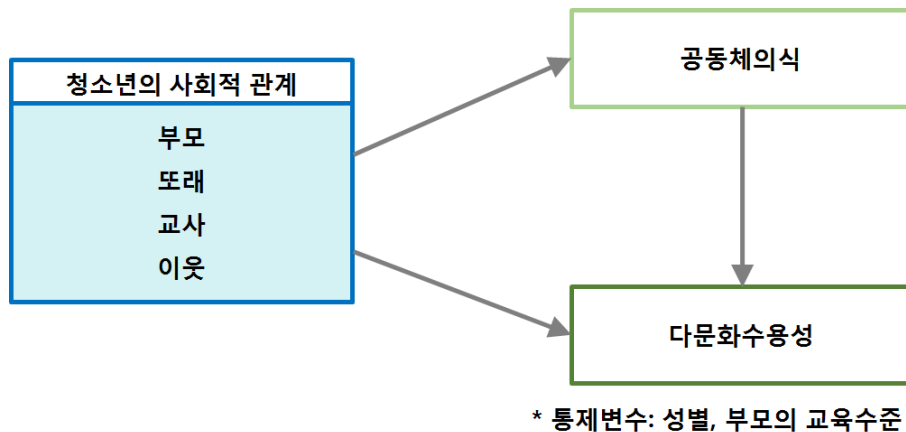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에 걸쳐 수행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KCYPS 6차년도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 패널의 2,351명이다. 이 중 결측치를 제외한 1,863명(여성=49.5%)이 실제 분석에 이용되었다.

3. 측정도구

1) 주요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이며,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들의 가정, 또래집단,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KCYPS 중 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묻는 문항들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중 부모와의 관계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문항과 부모의 합리적 훈육에 대한 문항으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요인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모의 정서적지지 4문항, 부모의 합리적 훈육 3문항, 또래와의 관계 3문항, 교사와의 관계 3문항, 이웃과의 관계 3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이며, KCYPS 중 해당하는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거쳐 각 3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변수 측정에 이용된 문항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술통계치는 <표 1>과 같다.

표 1. 측정 도구 구성

변수	문항 내용	평균	표준편차	Cronbach α
부모와의 관계(정서)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3.23	.62	.798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2.99	.74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3.06	.65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신다	2.56	.74	
부모와의 관계(합리)	부모님(보호자)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2.81	.69	.826
	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신다	2.74	.74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것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	2.81	.70	
또래와의 관계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3.16	.49	.850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3.15	.51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3.18	.54	
교사와의 관계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2.77	.80	.798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2.87	.79	
	졸업한 다음에도 담임선생님을 찾아뵙고 싶다	2.89	.86	

변수	문항 내용	평균	표준 편차	Cronbach α
이웃과의 관계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	2.24	.86	.774
	나는 거리에서 우리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2.57	.88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2.77	.68	
공동체 의식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2.74	.78	.692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2.88	.72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3.18	.60	
다문화 수용성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3.35	.56	.895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3.37	.57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3.20	.67	

2)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성별의 경우에는 여자는 0, 남자는 1로 코딩한 더미변수를 투입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5점 척도(1=중졸 이하, 2=고졸, 3=전문대졸, 4=대졸, 5=대학원졸)로 각각 측정된 부의 교육수준, 모의 교육수준의 평균값을 투입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관계가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경로모형을 사용하였다. 또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로는 SPSS 22.0과 AMOS 22.0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의 경로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측정변수에 대한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는 <표 2>와 같다. 상관계수는 대부분의 주요변수들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는 모두 정규분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est, Finch & Curran, 1995).

표 2. 측정변수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1																							
2	.427**	1																						
3	.452**	.506**	1																					
4	.409**	.606**	.575**	1																				
5	.369**	.395**	.472**	.448**	1																			
6	.332**	.392**	.474**	.504**	.607**	1																		
7	.336**	.388**	.469**	.489**	.609**	.622**	1																	
8	.326**	.257**	.243**	.258**	.244**	.204**	.269**	1																
9	.303**	.243**	.274**	.267**	.219**	.242**	.291**	.740**	1															
10	.289**	.218**	.236**	.220**	.170**	.195**	.207**	.614**	.619**	1														
11	.155**	.181**	.170**	.235**	.160**	.171**	.195**	.210**	.216**	.224**	1													
12	.161**	.156**	.205**	.200**	.135**	.164**	.182**	.205**	.215**	.252**	.684**	1												
13	.145**	.154**	.183**	.170**	.116**	.137**	.150**	.159**	.195**	.202**	.479**	.556**	1											
14	.034	.064**	.081**	.110**	.077**	.094**	.116**	.083**	.072**	.070**	.224**	.216**	.135**	1										
15	.067**	.129**	.117**	.154**	.100**	.099**	.143**	.108**	.092**	.070**	.200**	.226**	.167**	.678**	1									
16	.153**	.193**	.198**	.211**	.175**	.178**	.200**	.160**	.169**	.158**	.240**	.274**	.234**	.443**	.471**	1								
17	.122**	.185**	.178**	.187**	.111**	.156**	.158**	.180**	.184**	.164**	.227**	.240**	.171**	.222**	.199**	.232**	1							
18	.151**	.222**	.202**	.225**	.099**	.149**	.163**	.216**	.218**	.177**	.214**	.262**	.186**	.110**	.144**	.233**	.537**	1						
19	.158**	.183**	.158**	.134**	.110**	.124**	.167**	.278**	.277**	.261**	.157**	.204**	.154**	.059**	.120**	.205**	.345**	.401**	1					
20	.170**	.122**	.105**	.096**	.052**	.043	.095**	.280**	.286**	.256**	.108**	.135**	.109**	-.010	.047**	.145**	.218**	.243**	.392**	1				
21	.168**	.139**	.110**	.118**	.075**	.071**	.109**	.291**	.294**	.268**	.107**	.157**	.103**	-.031	.031	.113**	.223**	.247**	.409**	.858**	1			
22	.173**	.121**	.112**	.110**	.064**	.071**	.086**	.201**	.216**	.221**	.135**	.163**	.123**	.011	.044	.141**	.236**	.233**	.339**	.695**	.707**	1		
23	.003	.016	.008	-.001	-.059*	-.053*	-.032	.007	.048*	-.007	-.064**	-.059*	-.107**	-.039	-.049*	-.073**	.111**	.146**	.055*	-.016	.000	-.013	1	
24	.040	.071**	.073**	.068**	.081**	.052*	.066**	.081**	.061**	.011	-.015	-.009	-.018	-.055*	-.033	.045	.030	.060**	.074**	.005	.012	.003	.004	1
평균	3.233	2.995	3.061	2.857	2.809	2.740	2.806	3.160	3.150	3.180	2.770	2.869	2.889	2.238	2.572	2.772	2.744	2.876	3.183	3.347	3.369	3.201	.495	2.843
표준편차	.622	.738	.648	.740	.689	.743	.702	.485	.514	.541	.803	.789	.860	.855	.882	.680	.779	.717	.560	.557	.568	.667	.500	.962
왜도	-.543	-.489	-.450	-.345	-.510	-.360	-.484	.201	.090	-.184	-.238	-.505	-.577	.234	-.321	-.574	-.217	-.397	-.409	-.233	-.401	-.395	.018	.218
첨도	.980	.175	.730	-.030	.501	-.011	.392	1.503	.948	1.426	-.405	.030	-.177	-.595	-.629	.578	-.326	.182	1.023	.048	.431	-.200	-2.002	-1.259

** $p < .01$, * $p < .05$

1=부모-정서1, 2=부모-정서2, 3=부모-정서3, 4=부모-정서4, 5=부모-합리1, 6=부모-합리2, 7=부모-합리3, 8=포레1, 9=포레2, 10=포레3, 11=교사1, 12=교사2, 13=교사3, 14=이웃1, 15=이웃2, 16=이웃3, 17=공동체1, 18=공동체2, 19=공동체3, 20=다문화1, 21=다문화2, 22=다문화3, 23=성별, 24=부모학력, M=평균, SD=표준편차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는 <표 3>과 같다. 적합도 지수의 판단 기준으로 는 Hu와 Bentler(1999)의 기준을 이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CFI와 TLI는 .95와 가깝거나 그 이상일 때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RMSEA는 .06이하, SRMR은 .08이하인 경우에 좋은 적합도로 판단할 수 있다(Hu & Bentler, 1999). 이와 같은 판단 기준에 비취보았을 때,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 측정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CFI	TLI	RMSEA	SRMR
측정모형	796.279 (p = .000)	188	.967	.959	.042	.0442

2. 경로모형 검증

1) 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경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4>와 같다. 측정모형과 마찬가지로 판단 기준 은 Hu와 Bentler(1999)가 제시한 기준을 이용하였다. 측정모형에 비해 통제변수의 투입으로 인해 적합도가 일부 낮아졌으나 Hu와 Bentler(1999)의 판단 기준에 비취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 경로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CFI	TLI	RMSEA	SRMR
경로모형	909.821 (p = .000)	228	.963	.955	.040	.0443

2) 모수추정치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경로모형의 모수추정치는 <표 5>와 같다. 경로모형 추정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그림 2]와 같다.

표 5. 경로모형 검증 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C.R.
부모-정서 → 공동체의식	.201	.050	.222	4.046***
부모-합리 → 공동체의식	-.065	.049	-.068	.185
또래 → 공동체의식	.235	.037	.196	6.301***
교사 → 공동체의식	.241	.032	.246	7.606***
이웃 → 공동체의식	.121	.022	.168	5.597***
성별 → 공동체의식	.198	.026	.187	7.545***
부모학력 → 공동체의식	.033	.013	.059	2.425*
공동체의식 → 다문화수용성	.408	.036	.424	11.450***
부모-정서 → 다문화수용성	.016	.044	.019	.378
부모-합리 → 다문화수용성	-.079	.043	-.086	-1.851
또래 → 다문화수용성	.295	.033	.256	8.905***
교사 → 다문화수용성	-.025	.028	-.027	-.914
이웃 → 다문화수용성	-.074	.019	-.107	-3.932***
성별 → 다문화수용성	-.096	.023	-.094	-4.125***
부모학력 → 다문화수용성	-.020	.012	-.039	-1.753

*** $p < .0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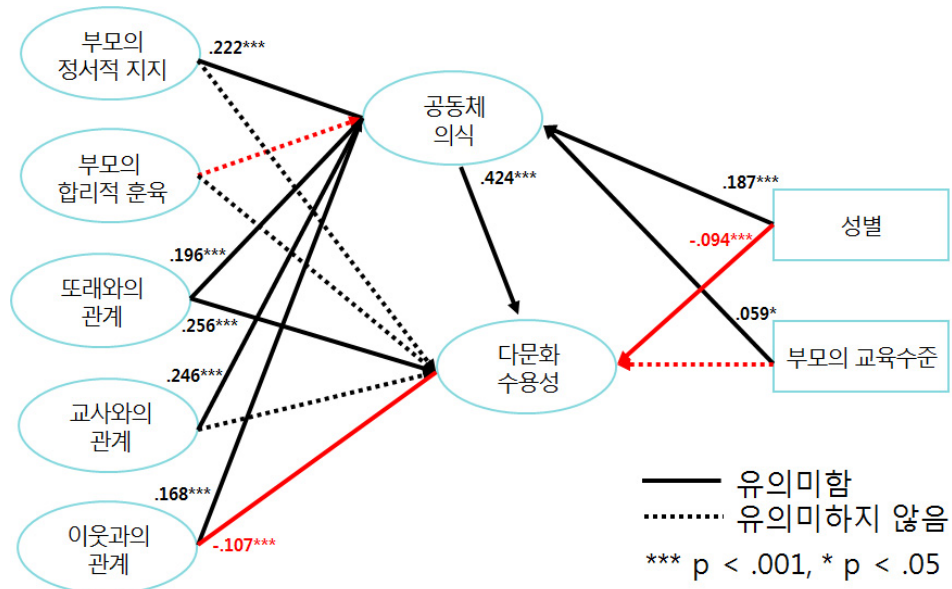


그림 2. 경로모형 추정 결과

경로모형의 분석 결과,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는 부모-정서, 또래, 교사, 이웃과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각 사회적 관계 모두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는 또래, 이웃과의 관계로 나타났다.

단, 다문화수용성에 대해서 청소년이 가지는 또래와의 관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이웃과의 관계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공동체의식이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1982) 검증을 실시하였다. Sobel 검증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검증 결과, 본 연구의 경로모형에서 공동체의식이 가지는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6.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로	Sobel 계수	표준오차
부모(정서) > 공동체의식 > 다문화수용성	3.789***	0.022
또래 > 공동체의식 > 다문화수용성	5.541***	0.017
교사 > 공동체의식 > 다문화수용성	6.273***	0.016
이웃 > 공동체의식 > 다문화수용성	4.948***	0.010

*** $p < .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KCYPS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 접하는 가정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공동체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는 부모의 정서적인 측면과 합리적인 측면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정서적인 측면은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쳤지만, 합리적인 측면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환경에 있어서 부모가 청소년에게 주는 정서적인 지지가 부모의 일방적인 훈육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써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장혜림, 정익중, 2013).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중·고등학교 수준의 청소년들에게는 부모가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을 보여주는 것이 청소년들의 시민성함양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매우 적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청소년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이 갖는 또래와의 관계는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또래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책무성을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친사회적 행동이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도 부합하는 결과이다(박현정, 김전옥, 손윤희, 2015; 진은설, 임영식, 2008).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같은 또래집단을 구성

하는 다른 또래들에게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청소년이 다른 사람들과의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로도 전이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교사와의 관계 또한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의 공동체적 시민성이 교사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청소년들의 주요한 모범(role model)으로 기능하는 교사와 맺는 관계는 청소년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한 긍정적인 경험이 공동체에 대해 가지는 애착과 책무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있어서 교사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의 교실이라는 제도적 교육환경 안에서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민성의 많은 부분을 배우고 익힌다. 따라서 청소년의 긍정적인 시민성 형성을 위해 교사들의 끊임없는 반성적 성찰이 요청되는 바이다.

이웃과의 관계는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에 대해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먼저, 이웃과의 관계가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공동체에 대한 책무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동체의식과 달리, 이웃과의 관계는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웃과의 관계가 강조되어 결속력이 강해질수록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eg., Putnam, 2000) 즉,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사회적 관계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타적인 행동으로 전이될 수 있으나, 이러한 관계가 지나치게 강할 경우에는 도리어 다른 집단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의식은 다문화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다문화수용성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공동체의 다른 사람에 대한 유대감, 책무성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 또는 더 일반적인 타자를 수용하는 태도로 전이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시민적 책무성이 높을수록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 연구과도 맥을 같이한다(양영미, 김진석, 2015; 이수경, 전선미, 2014; 이자형, 김경근, 2013).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다문화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문화수용성 함양을 위해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요변수는 아니지만, 청소년의 성별과 관련한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청소년의 성별은 공동체의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다문화수용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청소년들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사회화되는 측면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은 같은 공동체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책무성을 갖도록 사회화되는 동시에, 일반적인 다른 사람 또는 소속 공동체가 아닌 다른 집단으로부터는 보호되어야 하는 존재로 사회화되는 것이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사회화의 양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후속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가 시민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Lave와 Wenger(1991)의 이론적 논의가 실제 현실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가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의식은 다문화수용성에 대해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다문화수용성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육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접하는 근접맥락의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의식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가정, 또래집단,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긍정적인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며, 학교에서는 학업성취가 우선시되므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지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공동체의식은 그 자체로써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시민성의 요소이며, 공동체의식을 가지는 것은 다문화수용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고려해볼 때, 학교에서는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을 교과과정 안에 반영하고, 교사는 수업 시간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 공동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맥락에서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구정화. (2015). 공동체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초등학교 5, 6학년의 차이 연구. **시민교육연구**, 47(1), 1-24.
- 김문수. (2014).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다문화**, 4(2), 36-64.
- 김태한. (2017a).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의 확장된 공동체에 대한 이타적 목표의식에 미치는 효과. **교육사회학연구**, 27(1), 31-53.
- 김태한. (2017b). 근접맥락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남녀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발달에 미치는 효과: 다집단성장 곡선모형을 활용한 성별효과 분석. **시민교육연구**, 49(2), 1-25.
- 민무숙, 안상수, 김이선, 김금미, 류정아, 조영기, 현보라. (2010).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 도구 개발 연구**. 서울: 사회통합위원회.
- 박애선. (2015).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 **한국웰니스학회지**, 12(1), 93-106.
- 박현정, 김전옥, 손윤희(2015).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6(4), 105-127.

- 법무부. (2016). **2015 출입국 통계연보**. 경기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 서봉연, 조현미, 김민영. (2015).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 관련 요인 탐색. **다문화콘텐츠연구**, 19, 179-207.
- 양영미, 김진석. (2015).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7(4), 309-328.
- 여성가족부. (2015).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
- 이수경. (2015).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에서 나타나는 종단변화와 그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22(10), 27-48.
- 이수경, 전선미. (2014).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아존중감, 지역사회 친밀감, 또래 애착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6(4), 103-121.
- 이자형, 김경근. (2013).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23(1), 53-77.
- 이택호, 이석영, 한운선. (2016). 교우관계와 교사관계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1), 65-85.
- 장혜림, 정익중. (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0, 33-61.
- 진은설, 임영식. (2008). 자기효능감, 또래영향, 부모모니터링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5(4), 27-47.
- 허인숙, 이정현. (2004).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5(2), 443-472.
- Aronson, E., Wilson, T.D., Akert, R.M. & Sommers, S. R. (2015). *Social Psychology* (9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 Banks, J.A. (2007). *Educating Citizens in a Multicultural Society* (2nd ed.).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김용신, 김형기 역 (2009). **다문화 시민교육론**. 파주: 교육과학사.
- Banks, J.A. (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4th ed.). Boston, MA: Pearson. 모경환, 최충옥, 김명정, 임정수 역 (2008). **다문화교육 입문**.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Bennett, C. (2007).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6th ed.). Boston, MA: Allyn and Bacon. 김옥순 외 역 (2009).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Bennett, J.M. & Bennett, M.J. (2004). Develop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An Integrative Approach to Global and Domestic Diversity. In Landis, D., Bennett, J. M., Bennett, M. J. (Ed.),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 London: Sage Publishing.
- Clark, M.S., Powell, M.C. & Mills, J. (1986). Keeping track of needs in communal and exchang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2), 333-338.
- Fornell, C. & Larcker, D.F. (1981).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2), 39-50.
- Heater, D. (2004). *A History of Education for Citizenship*. New York, NY: RoutledgeFalmer. 김해성 역 (2009). **시민 교육의 역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 Hu, L. & Bentler, P.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 - 55.
- Kymilecka, W.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Lave, J. & Wenger, E. (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Millan, D.W. & Chavis, D.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 Putnam, R.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NY: Simon & Schuster. 정승현 역 (2009). *나 홀로 볼링: 볼링 얼론-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 서울: 페이퍼로드.
- Sobel, M.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Torney-Purta, J., Amadeo, Jo-Ann. & Andolina, M.W.(2010). A conceptual framework and multimethod approach for research on political socialization and civic engagement. In Sherrod, L.R., Torney-Purta, J., Flanagan, C.A. (Ed.), *Handbook of research on civic engagement in youth*. Hoboken, NJ: Wiley.
- Wenger, E. (1998). *Communities of practice: Learning, meaning, and ident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st, S.G, Finch, J.F. & Curran, P.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Newbury Park, CA: Sage.
- Yoo, H, Feng, X. & Day, R.D. (2013). Adolescents'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Family Context: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12), 1858-1872.
- Youniss, J. (1980).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청소년 다문화수용성의 중단적 변화와 설명 변인 탐색

이희정*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시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다문화수용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다문화수용성을 설명하는 변인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같은 목적을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 중 초등학교 4학년 패널2219명의 3차부터 7차까지 5번의 다문화수용성 변인, 설명변인으로서 2차년도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3차년도의 해외연수경험, 공동체의식, 지역사회 인식 변인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다문화수용성은 서서히 증가하다가 후반부에 가파르게 증가하는 2차함수 모형이 적합한 모델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수용성의 초기값을 예측하는 변인은 2차년도 자존감, 또래애착, 3차년도의 해외연수경험, 공동체 의식과 지역사회 인식 변인이었고, 변화율을 예측하는 변인은 2차년도 또래애착, 3차년도의 공동체 의식과 지역사회인식 변인, 2차향을 예측하는 변인은 2차년도 또래애착, 3차년도의 해외연수경험, 공동체 의식과 지역사회인식 변인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다문화수용성, 중단적 변화, 또래애착, 공동체 의식, 지역사회 인식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등학교 시기는 학습의 결정적 시기라고 하며, 이는 초등학교 시기에 학습을 통해 기본적 지식이나 가치와 태도 등 최소한의 측면이 형성되고 학교급이 증가하면서 분화되거나 심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의 인지, 가치 및 태도의 변화 양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수용하는 정도를 뜻한다.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은 사회적 거리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거리감으로서 다문화 수용성을 논할 때 자신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가장 근접한 구성원인 배우자부터 시작하여 이웃이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구정화, 2015).

다문화 수용성을 논할 때 자신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가장 근접한 구성원인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웃이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있다. 원래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은 단순하지가 않으나, 다문화수용성이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서로 다른 인정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말한다(윤인진 등, 2011), 다문화수용성은 우리와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태도이며,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우리 문화만이 옳고 가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열린 사고이다.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인 외국이주민을 경쟁자가 아니라,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태도이다(황정미 등, 2007).

안상수 등(2012)은 다문화수용성의 구성개념을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과 차별,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정서, 교류행동의지, 이중적 평가와 사제시민행동의지로 설명하였다. 다문화수용성과 유사한 개념은 다문화지향성, 인식, 태도, 감수성 등을 설명하는 다양한 하위요인들, 즉 문화개방성, 또는 공동체는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특정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집단이나 장소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러한 삶을 구성하는 정서, 가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다문화수용성의 발달에서 초등학교 시기부터 중,고등학교 시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문화 수용성의 종단적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들은 최근 다양한 패널자료를 통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전현정, 정혜원, 2017),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보고들도 증가하고 있다(김현철 등, 2015). 그러나, 특별히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다양한 측면이 다문화 수용성의 종단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탐색한 연구는 흔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다양한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 해외연수경험여부, 또래애착,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인식 변인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하는데, 우선 자아존중감과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하여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다문화 수용성의 공감과 개방성, 다문화 수용성 전체점수를 설명한다고 하였다(김현정, 이태상, 2015).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시기에 다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직접 다양한 문화권을 여행하거나 교육받는 경험이 많다는 결과도 존재한다(심우엽, 2010; 이진아, 2008).

또한 청소년기는 또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됨으로써 친구관계의 중요성과 또래간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스스로를 노출시키려는 욕구가 증가하게 된다(도현심, 1999). 또래와의 관계욕구가 잘 충족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는 경험을 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조망수용도 증가되어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또래애착과 다문화수용성의 관련성을 보고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주은지, 2010; 이수경, 전선미, 2014; 전현정, 정혜원, 2017; 정대점, 2017)

한편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은 비공식적 사회구조를 건립하고 더 광범위한 범위의 상호신뢰와 공유된 가치를 형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능력이다(Mistry, et. al., 2012). Mistry 등(2012)은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공동체적 효능감이 청소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양영미와 김진석(2015)은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도는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런데, 다문화수용성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서 고등학교 1학년시기까지의 다문화수용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다문화수용성

식의 변화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첫째, 개인적 변인인 자아존중감과 해외연수경험유무, 둘째, 친구 관련변인으로 또래애착, 그리고 지역사회 변인으로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인식 변인으로 다문화수용성의 종단적 변화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6학년시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시기까지 다문화수용성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6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시기까지 다문화 수용성 변화를 설명하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수용성의 개념과 종단적 변화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한국 토착민의 문화적 수용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서보람, 2014).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른 문화와 집단의 다양성을 이해하며, 다른 민족의 삶의 가치와 경험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즉,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편견 및 차별적 태도가 아닌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수용적 태도가 필요하다.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에 대한 개념은 “비교문화 적응성”, “다문화 유능성”, “문화 간 감수성”, “다문화 효능성” 등이 있다(김리진, 정옥분, 2011). 이같은 개념은 모두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민족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편견없이 행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를 의미한다(양정남 등, 2011). 다문화 수용성은 다른 구성원이나 집단,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자기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여기고, 다른 구성원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나 태도도 포함된다(김경은, 윤노아, 2012). 동시에 다문화 수용성은 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문화 배경 이주민과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를 포괄한다(황정미, 2010).

김리진(2010)은 다문화 수용성을 다문화 관계형성 능력, 다문화인식, 다문화 개방성, 다문화 공감의 4가지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다문화 관계형성 능력은 일반 아동이 다문화 배경 아동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문화 인식은 외모와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다문화 개방성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자신과 같은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한다. 다문화 공감은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동의 입장, 행동, 생각을 공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시기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든다. 안정행정부(2014)는 현재 20만 4,204명의 외국인 자녀들 중 초등학생은 4만 5,541명으로 향후 초등학교 취학 아동 13만 2,586명까지 포함하면 초등학생의 수는 전체의 87%를 차지하게 된다. 이 시기의 아동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탈중심적 사고가 나타나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공감능력과 관계형성이 급속하게 발달한다(박열매, 2011). 여성가족부(2012)는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았고, 양계민(2009)도 중·고등학교 시기에 비해 초등학생이 다문화 사회에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고, 다양한 문화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수용성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최근 아동청소년패널 등의 연구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현정과 정혜원(2017)은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의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시기까지의 다문화 수용도의 종단적 변화양상과 설명변인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데, 초등 5년시기부터 중학 3년시기까지의 다문화 수용성은 선형적으로 증가양상을 띄는데, 잠재집단별로 많은 증상수준에서 유지집단(1241명)이 가장 빈번하나, 최고수준에서 감소하는 집단(794명), 중하집단에서 증가집단(261)과 같은 범주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2. 다문화수용성을 설명하는 변인

다문화수용성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해외연수경험 유무, 친구관계, 공동체 의식과 지역사회 인식변인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전반적 삶의 질과 행동을 결정짓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백봉렬, 2011). 유아기동안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을 통하여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신체, 학업, 사회성 등으로 세분화되는데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통합되며 안정적 양상을 나타내게 된다(정옥분, 2007). 자아존중감과 다문화 수용성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수경과 전선미((2014)는 다문화수용성에 자아존중감이 중요하고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현정과 이태상(2015)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다문화 수용성과의 관계를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는데, 전반적 자아존중감은 다문화수용성의 공감과 개방성, 다문화 수용성전체에 대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다.

해외연수(교육)경험유무도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방희명(2017)은 문화적 민감성과 문화적 지식이 높을수록 다문화 다양성 수용은 더 높아진다고 하였다. 외국인 혹은 외국문화와의 경험 빈도(심우엽, 2010; 양계민, 2010)나 해외여행 경험이나 언어연수 경험(이진아, 2008)이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시기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 또래애착이 다문화 수용성에 주는 영향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또래에 대한 애착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주은지, 2010, 이수경, 전선미, 2014)이 존재한다. 전현정과 정혜원(2017)은 초등학교 5

학년 시기의 포래애타작은 다문화 수용도의 다양한 잠재집단 중 다문화수용도가 최고에서 감소되는 집단의 경우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 대해 관련성을 보고하는 연구들이 많이 존재한다(서봉언, 2015; 서봉언, 김원영, 김경식, 2016; 양영미, 김진석, 2015; 이수경, 2015). 양영미와 김진석(2015)은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는 주변의 의미있는 타인들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환경이다(황여정, 2012). 최승담과 강신겸(2001)은 지역사회 친밀감은 지역사회에 대해서 개인적·집단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연대감으로, 지역사회인식은 지역사회 친밀감을 형성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이수경과 전선미(2014)는 지역사회 친밀감이 중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연구 중 초등학교 4학년 패널 3-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특징

변인	항목	빈도(%)
성별 (N = 2219)	남학생	1168(52.6)
	여학생	1051(47.4)
지역 (N = 2218)	서울	251(11.3)
	부산	137(6.2)
	대구	137(6.2)
	인천	95(4.3)
	광주	107(4.8)
	대전	110(5.0)
	울산	101(4.6)
	경기	354(16.0)
	충북	138(6.2)
	충남	126(5.7)
	전북	126(5.7)
	전남	85(3.8)
	경북	116(5.3)
	경남	139(6.3)
	제주	94(4.2)

변인	항목	빈도(%)
아버지 최종학력(N=2088)	중졸이하	58(2.8)
	고졸	783(37.5)
	전문대졸	229(11.0)
	대졸	897(43.0)
	대학원졸	121(5.8)
어머니 최종학력(N=2124)	중졸이하	47(2.2)
	고졸	997(46.9)
	전문대졸	287(13.5)
	대졸	736(34.7)
	대학원졸	57(2.7)
다문화가정 여부(N=2124)	다문화가정이다	30(1.4)
	다문화가정이 아니다	2154(98.6)
해외방문 연간 경험유무(N=2219)	있다	242(10.9)
	없다	1977(89.1)
해외교육/연수 연간 경험유무(N=241)	있다	102(42.3)
	없다	139(57.7)

조사대상자들은 3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남학생은 1168명(52.6%)이고, 여학생은 1051명(47.4%)이었다. 연구대상의 거주지역 분포는 경기지역 354명(16.0%), 서울지역 251명(11.3%), 경남지역 139명(6.3%), 충북, 부산과 대구지역이 138(6.2%), 137(6.2%)명의 순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783명(37.5%)였다. 어머니의 학력도 고졸이 997명(46.9%)였다. 가족구조 측면에서 다문화 가정은 30명(1.4%)였고, 해외방문 연간 경험은 있는 경우가 242명(10.9%)였고, 해외교육/연수 연간 경험은 102명(42.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변인 측정

1) 다문화수용성 3-7차 년도 변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¹⁾의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된 질문 5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문화수용성의 경우 이웃에서 배우자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관계의 거리를 고려하여 수용가능성을 묻고 있다. 즉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이성친구들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친구로 사귄다',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가 1점, '그런 편이다'가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3점, '전혀 그렇지 않다'가 4점으로 배정하였기에, 모두 역코딩하여 점수를 산정하였다.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지수는 .83, .85, .87로 나타났다.

2) 자존감 2차년도 변인

본 연구에서는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역코딩)’,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역코딩)’,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역코딩)’,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역코딩)’,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역코딩)’,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의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지수는 .87로 나타났다.

3) 또래애착 2차년도 변인

또래애착 변인은 의사소통 관련 3문항과 신뢰관련 3문항을 활용하였다. 즉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평가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을 한 후 활용하였다. 6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지수는 .85이었다.

4) 해외교육/연수 연간 경험 유무 3차년도 변인

해외교육/연수 연간 경험 유무 변인은 경험이 있을 경우, ‘있다’ 1점, ‘없다’ 2점으로 평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없다’ 항목을 0점으로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5) 공동체 의식 3차년도 변인

공동체 의식 변인은 중학생의 민주시민의식연구(권혜원, 2004)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측정항(이경상 외, 2011 재인용)으로 역코딩 후 사용하였다.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 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의 4문항을 사용하였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지수는 .85로 나타났다.

6) 지역사회 인식 2차년도 변인

지역사회 인식 변인은 원래 ADD Health(Carolina Population Center, 2009)의 문항을 변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인데(이종원 외, 2013), 본 연구에서는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 ‘나는 거리에서 우리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우리 동네에서

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 ‘나는 우리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의 6문항으로 평가되었다.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평가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을 한 후 활용하였다. 6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지수는 .85이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수용성의 변화를 추정하고 그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s)을 적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1수준에서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2수준에서는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설명한다. 분석과정은 독립변수를 추정하지 않은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을 통해 종속변수의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변화의 개인차가 나타날 경우,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가 투입된 조건 모형(conditional model)으로 검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다문화수용성의 변화율을 살펴보기 위해 무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으로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개인의 변화와 개인차에 대한 함수를 추정하였다. 다문화수용성의 변화율에 대한 요인부하 계수 값을 3-7차년도 시점에 각각 0,1,2,3,4와 2차항에는 0,1,4,9,16의 계수값을 부여하고 추정하였다. 둘째, 다문화수용성의 개별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예측변인들을 조건모형을 통해 탐색해보았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는 SPSS 20.0과 AMOS 18.0이 사용되었다. 결측치의 처리는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관계

주요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다문화수용성은 3차년도에서 7차년도로 진행함에 따라 평균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표 2. 주요 변인의 특성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다문화수용성 3차년도(n=2217)	5	20	14.15	3.34	-0.16	0.21
다문화수용성 4차년도(n=2092)	5	20	14.80	2.98	0.03	0.14
다문화수용성 5차년도(n=2070)	5	20	15.16	2.88	-0.02	0.73
다문화수용성 6차년도(n=2061)	5	20	15.38	2.89	-0.02	-0.26
다문화수용성 7차년도(n=1979)	5	20	15.81	2.77	-0.04	-0.41
자존감 2차년도(n=2263)	10	40	31.04	4.67	-0.16	-0.07
또래애착 2차년도(n=2218)	5	20	15.57	2.21	-0.36	0.52
해외연수경험 3차년도(n=242)	0	1	0.46	0.41	-0.01	0.50
공동체의식 3차년도(n=2219)	4	16	11.47	2.57	-0.28	0.38
지역사회인식 3차년도(n=2214)	6	24	15.96	3.26	-0.21	0.85

표 3. 측정변인의 상관

	다문화 수용성3차	다문화 수용성4차	다문화 수용성5차	다문화 수용성6차	다문화 수용성7차	자존감 2차	또래애착2차	해외연수 경험3차	공동체 의식3차
다문화 수용성4차	.37***								
다문화 수용성5차	.30***	.42***							
다문화 수용성6차	.27***	.38***	.51***						
다문화 수용성7차	.23***	.32***	.45***	.50**					
자존감 2차	.18***	.09***	.09***	.07***	.10***				
또래애착 2차	.31***	.13***	.11**	.11***	.11***	.36***			
해외연수 경험3차	.11	-.03	.04	-.07	-.05	-.02	.08		
공동체 의식3차	.47***	.22***	.21***	.17***	.16***	.22***	.44***	.07	
지역사회 인식3차	.30***	.12***	.09***	.11***	.07**	.15***	.27***	.03	.42***

** $p < .01$, *** $p < .00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07부터 .38까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2차년도에 자존감과 또래애착이 높고 3차년도에 공동체 의식과 지역사회인식이 높을수록 3차년도에서 7차년도까지의 다문화수용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다문화수용성 모형 분석

1) 무조건 모형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에 참여한 3차년도에서 7차년도까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무변화 모형, 선형변화모형과 이차함수모형 비교하였다. 무변화 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모형이고, 선형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선형적인 변화를 가정한 모형이며, 2차함수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비선형적 변화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선형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0,1,2,3,4로 코딩하였으며, 2차함수 모형은 요인계수를 0,1,4,9,16으로 가정한 모형이다. 무변화 모형, 선형변화 모형과 2차함수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다문화수용성의 변화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637.2	13	.666	.710	.142
선형변화모형	63.6	10	.963	.975	.047
2차함수모형	18.2	6	.986	.994	.029

무변화 모형은 선형변화 모형들과 비교할 때 χ^2 값이 매우 크고 적합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변화모형은 2차함수모형의 경우 선형변화모형에 비해 2차함수모형이 적합도가 좋아지고 χ^2 값도 줄어들었다($\Delta \chi^2 = 45.4$, $\Delta df = 4$, TLI가 .023, CFI는 .017 RMSEA 역시 .018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최종모형은 2차함수로 채택하였다.

최종 모형으로 선정된 2차함수 모형에 기초하여 다문화수용성의 초기값, 변화율과 2차항을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다문화수용성은 초기치의 평균과 변량이 모두 유의하였고, 다문화수용성의 초기값이 개인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변화율의 평균과 변량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2차년도부터 4차년도의 시기동안에 공동체 의식은 유의하게 증가하며, 변화율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 즉 3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공동체 의식은 평균 0.53점씩 증가하였다. 2차항의 평균과 변량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속도가 .04점의 1/2씩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2차항의 개인 간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문화수용성의 초기치와 변화율, 변화율과 2차항, 초기값과 2차항 사이의 공변량이 각각 $-1.04(p < .01)$, $-.31(p < .001)$, $-1.04(p < .01)$ 로 나타나 다문화수용성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시간에 따른 증가율과 감소도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차년도에 다문화수용성이 높았던 청소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의 증가속도가 더디게 진행된 반면, 3차년도에 다문화수용성의 수준이 낮았던 청소년들은 다문화수용성의 증가속도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3차년도에 측정된 값이 높을수록 해마다 증가하는 폭이 더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다문화 수용성의 2차함수 변화 모형에 대한 결과

변인	평균			변량			공변량	
	초기치	변화율	2차항	초기치	변화율	2차항		
다문화수용성	14.20***	0.53***	-.04**	4.53***	1.70***	.067***	초기값* 변화율	-1.043**
							변화율*2 차항	-.309***
							초기값*2 차항	-1.043**

*** $p < .001$

2) 다문화수용성 변화의 예측변인: 조건모형

다문화수용성의 변화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관련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7>에서와 같이 다문화수용성의 초기값에는 자존감 2차변인, 또래애착 2차변인, 해외연수경험 3차변인, 공동체 의식 3차변인과 지역사회 인식 3차변인이 모두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수용성의 변화율에서는 또래애착 2차변인, 공동체의식 3차변인과 지역사회 인식 3차변인이 관련되었고, 2차항에는 또래애착 2차변인, 해외연수경험 3차변인, 공동체의식 3차변인과 지역사회 인식 3차변인이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다문화수용성과 해외연수경험, 공동체 의식과 지역사회 인식은 다문화수용성의 변화율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므로, 중학교 3학년 시기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시기가 되어감에 따라 해외연수경험이 있고, 공동체 의식과 지역사회인식이 높았던 청소년들은 다문화수용성의식의 증가가 완만한 경향이 나타났다. 즉 중학교 3학년 시기에 해외연수를 경험하고 공동체 의식과 지역사회 인식이 높았던 집단은 점차 고등학교 1학년 시기가 되어감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의 증가가 느리게 진행되며, 중학교 3학년 시기에 해외연수경험이 없고, 공동체 의식과 지역사회인식이 낮았던 집단은 점차 고등학교 1학년 시기가 되면서 다문화수용성의 증가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을 나타낸다.

표 6. 조건모형의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모형	127.1	19	.922	.973	.049

표 7.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

변인	초기값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변화율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2차항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자존감 2차	.039(.022)**	-.006(.014)	.001(.003)
또래애착2차	.136(.035)***	-.100(.031)***	.020(.015)*
해외연수경험 3차	.975(.264)***	.325(.268)	-.182(.061)**
공동체의식3차	.428(.030)***	-.195(.027)***	.033(.007)***
지역사회 인식3차	.098(.022)***	-.059(.020)**	.009(.005)*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성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다문화수용성의 변화를 탐색하였는데, 다문화 수용성의 변화 양상은 서서히 증가하다 후반부에서 가파른 상승양상을 나타냈으며, 개인차가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 수용성이란, 자기와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해 집단별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식하며 조화로운 관계설정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하는 태도인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청소년기 구체적 조작기를 벗어나서 형식적 조작기로 들어서는 가운데, 최근 많아지고 있는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문화수용성의 증가양상은 중학생 시기부터 고등학교 시기까지의 다문화 수용성이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이수경, 2015)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통하여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의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해서 국제비교를 한 결과에 따르면(김준홍, 2012), 정부의 다문화주의에 관한 정책은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한국적 맥락에서의 논쟁이나 경험적 검증을 통해 모색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정책적 요구와 문제에 대응하여 수립된 측면이 크다고 한다(김준홍, 2012). 따라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가 보다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수용성의 종단적 변화를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우선 초기값에는 2차시기의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 3차시기의 해외연수경험, 공동체 의식과 지역사회 인식 변인이, 변화율에는 2차 시기의 또래애착과 3차 시기의 공동체 의식과 지역사회인식 변인이, 그리고 2차항은 2차 시기의 또래애착, 3차 시기의 해외연수경험, 공동체 의식과 지역사회인식 변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또래애착의 중요성과 함께 공동체 의식과 지역사회인식이 중학교 2학년 시기까지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또래관계를 통한 사회적 경험이 공동체 의식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또래관계를 통하여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연습할 기회를 갖게 되므로(김상미, 남진열, 2011), 시민성의 한 부분으로서 공동체 의식과 지역사회 인식에 관한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서의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을 일깨우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집중될 것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시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시기까지의 다문화수용성의 종단적 변화와 이를 예측하는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개인, 친구와 지역사회 관련 변인에 대하여 탐색한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설명하는 변인들 자체도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속성을 띄고 있으므로, 하위 집단의 특성을 좀 더 탐색할 필요도 존재한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 시기와 6학년 시기의 다문화수용성 측면에서의 단기간의 퇴행 현상도 관찰되고 있으므로(구정화, 2015), 좀 더 다양한 연령대에 대한 탐색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제

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의 종단적 양상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고, 다문화 수용성의 정의도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으므로, 다문화 수용성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고,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서의 개인 및 환경 변인의 측면이 이후 다문화 수용성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탐색하였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유미, 김신, 박진수, 장윤석, 윤혜영, 홍성희(2015). 다문화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과 태도연구. **교육연구**, 38, 131-148.
- 권재환, 이선희(2015).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대인관계능력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모형 검증. **청소년문화포럼**, 44, 8-32.
- 구정화(2015). 공동체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초등학교 5,6학년의 차이 연구. **시민교육연구**, 47(1), 1-24.
- 김정은, 윤노아(2012). 청소년의 국민정체성, 통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인식: 다문화시대 사회과 통일교육에의 함의. **사회과교육**, 51(1), 69-88.
- 김리진(2010). **아동의 다문화수용성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리진, 정옥분(2011).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17(4): 69-88.
- 김선아(2013). 초기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 다문화수용성이 내외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35, 60-90.
- 김준홍(2012). 다문화위기에 대응하는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의 증진-국제비교와 영향요인 탐색 -. **한국위기관리논집**, 8(6), 183-209.
- 김현정, 이태상(2010). 초등학교 자아존중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2), 479-498.
- 김혜순, 이시철(2014). 국가별 관심 편중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측정: 대구 달서구 사례의 실증 분석. **지방행정연구**, 28(1), 89-114.
- 박혜숙, 원미순(2010). 대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변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24(2), 303-325.
- 박열매(2011). 초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부모의 학력과 직업포부의 관계. **초등상담연구**, 10(1), 95-100.
- 방희명(2017). 후기 청소년의 다문화다양성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문화적 지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8(2), 785-802.
- 백봉렬(201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성, 학교적응유연성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보람(2014).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시민청소년학연구**, 5(2), 48-73.
- 서봉언(2015). 한국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 수용성 간 상호 인과관계. **청소년시설환경**, 13(2), 111-120.
- 서봉언, 김원영, 김경식(2016). 체험활동, 사회과 성적 및 공동체 의식이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6(3), 635-663.
- 심우엽(2010). 초등학교 학생의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 **초등교육연구**, 23(4), 43-63.

- 안상수, 민무숙, 김이선, 이명진, 김금미(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서울: 청소년정책연구원.
- 안전행정부(2014). **외국인주민현황(시도, 시군구)**. 서울: 안전행정부.
- 양계민(2009).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23(2), 59-79.
- 양영미, 김진석(2015).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7(4), 309-328.
- 양정남, 최은정, 문란영, 박건영, 박순희(2011). 자기효능감, 사회복지용호태도가 사회복지전공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교육**, 16, 24-47.
-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이수재, 채진영(2015). 초등학생의 다문화인식의 차이와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6(6), 23-38.
- 이수경(2015).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에서 나타나는 중단변화와 그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22(10), 27-48.
- 이수경, 전선미(2014).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아존중감, 지역사회 친밀감, 또래 애착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6(4), 103-121.
- 이진아(2009). **다문화교육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순천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택호, 이석영, 한운선(2016). 교우관계와 교사관계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1), 65-85.
- 장연진, 구혜영(2013). 농촌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영향요인 구조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3), 193-216.
- 주은지(2011). 대학생의 부모 애착과 낭만 애착: 또래 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8(8), 161-186.
- 전현정, 정혜원(2017). 순차적 경로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 수용도의 잠재집단간 관계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9), 335-360.
- 정옥분(2007). **발달심리학: 전생애 인간발달**. 서울: 학지사.
- 최승담, 강신겸(2001). 지역사회 애착도의 구성요인에 관한 개념적 고찰: 관광개발에 대한 시사점. **사회과학논집**, 20, 202-222..
- 최지영, 김재철(2015). 초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심리·사회적 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2(2), 389-411.
- 황성욱, 조운용, 이철한(2014). 다문화수용성,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다문화수용성 측정 지수 개발. **분쟁해결연구**, 12(3), 167-196.
- 황여정(2012).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 효과 연구: NYPI 청소년정책리포트**.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정미(2010).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분석. **아세아연구**, 53(4), 152-272.
- Elchardus, M., Franck, E., Groof, S.D., Kavadias, D. (2013). The acceptance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among young peopl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ffect of market-driven versus publicly regulated educational system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9(4), 767-779.
- Mistry, K.B., Minkovitz, C.S., Riley, A.W., Johnson, S.B., Grason, H.A., Dubay, L.C., & Guyer, B. (2012). A new framework for childhood health promotion: the role of policies and programs in building capacity and foundations of early childhood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2(9), 1688-1696.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에 대한 종단적 연구

이은경* · 오소영** · 곽현***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와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를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사회적 관계와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3차, 5차, 6차년도 데이터 중 2,25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관계가 좋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정체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관계가 좋을수록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또래관계는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청소년의 부모관계, 교사관계는 고 3시기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관계는 진로정체감의 초기와 변화율 모두를 매개하여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교사관계는 진로정체감의 초기값을 매개하여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I. 서 론

미래의 불확실함은 진학과 직업을 결정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시기에 이루어지는 진로의 선택은 대학의 전공 선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개인의 역량을 고려한 진로의 선택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진로발달을 위해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시대적 변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이해는 한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인간은 사회에 속하여 살아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해 간다. 부모를 통해 가장 기본적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석사과정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객원조교수, k9h2sue@hanmail.net

인 관계를 형성하며, 부모에 의하여 자신에 대해 알아가게 된다. 오랜 시간 동안 양육자의 보호를 받는 인간은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애착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정옥분, 정순화, 황현주, 2009). 부모와 맺는 안정적인 애착은 내면의 부모가 안전한 기지로 작용하게 되어, 새로운 진로탐색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진로탐색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대처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체감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Flum & Blustein, 2000).

진로정체감은 청소년기에 확립되어 개인의 행동과 미래를 결정하며,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것을 돕고, 일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영향을 주는 개념이다(이상인, 2001). 진로정체감에 대한 접근은 특질적 요소를 취하는 접근과 발달적 접근을 취하는 두 집단으로 구분된다(Skorikov & Vondracek, 2011). 특질적 요소를 취하는 접근은 Holland(1985)의 접근으로 진로정체감을 개인이 가지는 직업에 대한 흥미, 목표, 능력에 대한 개인의 지각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발달적 접근을 취하는 학자는 자아정체감의 한 영역으로서 진로정체감에 관심을 가진다(Kroger, 2007).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진로정체감이 한 번에 완성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중요한 변화의 시기와 적응과정에 따라 전 생애동안 발달한다고 가정하는 발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진로정체감과 관련된 변인으로 다양한 변인들이 있지만,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와 개인의 진로정체감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개인에게 심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가족 변인으로는 부모의 지지(이정규, 2006), 부모와의 관계(이현주, 2010), 심리적 독립 및 애착(장지선, 2005), 부모의 양육태도(김희수, 2005) 등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 중에서 애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진로 지지 중 모델링과 언어적 격려를 제외한 도구적 조력과 정서적 지지 수준은 진로정체감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기(윤초희, 2015) 때문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신에 대한 명확한 자아상을 확립하도록 돕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희수, 2004). 또한 부모의 수용적인 태도는 진로결정 및 진로정체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수, 2005).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된 애착관계의 형성은 자신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청소년의 진로 발달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정체감을 증진시킴으로 진로결정을 도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면서 또래와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시기로,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빈도가 감소하게 되는 시기이다(김문선, 2013). 또래와의 애착은 친구들로부터 느끼는 이해와 교감을 의미한다(이수하, 2005). 상대적으로 또래의 지지와 이해, 소통은 청소년들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학교에서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를 맺어 차츰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찾아가려고 한다.

또래와의 관계는 청소년기에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진로와 관련된 대화나 정서적인 지원을 얻게 된다. 또래간의 애착은 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었고(Felsman & Blustein, 1999), 진로와 관련된 또래와의 의사소통은 진로탐색에 영향을 미친다(Kracke, 2002)는 연구결과를 보인다. 대학생들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지지는 전공만족도를 매개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쳤다(정명화, 박성미, 신경숙, 2004). 윤초희(2015)의 연구에서도 고등학

생의 진로정체감 형성과 또래와의 관계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청소년기에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며, 자아정체감을 확립해 가는 시기이다. 또한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며,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진학의 진로를 결정해야하는 과제를 교사와 상의한다. 이상길(2006)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고,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탐색의 시기에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와 진로정체감과의 관계는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발달을 이루고, 진로결정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적절한 발달의 시기에 필요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일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고(김보영, 장은비, 2015), 부모가 방임을 덜 하고, 또래애착이 잘 될수록, 담임교사와 대화공감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이 높았다(손연아, 2014; 이상길, 2006). 특히 진로정체성은 청소년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영란, 2009). 이와 같이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로 구성된 사회적 관계는 진로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로정체감은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가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라는 특정 시기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한정되어졌다는데 한계점을 가진다. 청소년기는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로 인지적 성장과 정서적 성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정체감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와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사회적 관계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의 변화와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초기값과 변화가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는 진로정체감의 초기 및 변화 값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의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청소년의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와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진로결정과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변화는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관계와 진로정체감

청소년기는 인생에 있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진로 결정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진로정체감이란 한 개인이 직업을 결정해 나가는데 있어 자신의 목표와 흥미, 관심, 능력에 대하여 분명하고 안정된 상(Picture)을 갖추었는가를 의미한다(유수필, 2013). 이러한 진로정체감은 청소년이 생활하는 사회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발달될 수 있다. 김봉환(2006)은 개인을 둘러싼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사회적 환경이 청소년의 진로선택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외적인 영향으로써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청소년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 의한 개인의 인식 정도가 개인의 진로발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진로결정에서 가족과의 관계와 주요한 사람들과의 상호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박지은, 2005).

사회적 관계란 청소년이 가정, 학교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관계를 맺게 되는 정서적으로 가장 친밀하고 중요한 타인으로 부모 또는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를 말한다(유영미, 문승태, 2005). 본 연구는 사회적 관계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존의 선행 연구 중에서 부모와 진로정체감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일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고(김보영, 장은비, 2015), 부모가 방임을 덜할수록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이 높았다(손연아, 신수지, 손은령, 2014).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방임의 태도를 덜 보일수록, 또래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미려, 양은주 2017).

또래와의 관계와 진로정체감의 연구로는 또래애착이 잘 될수록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이 높았다(이상길, 2006). 문은식(2015)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의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길(2006)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고,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의 사회적 관계는 진로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국의 많은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흥미나 적성보다는 부모의 기대나 성적에 맞추어 진로를 선택하고(김길정, 2003), 중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수동적으로 진로를 선택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서진희, 이제경, 2009). 따라서 청소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 교사, 또래와의 관계가 진로정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 시기는 진로에 대한 개념과 명확한 확립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발달시기의 양상에 대한 탐색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최수미(2009)는 연령의 변화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박완성(2010)은 연령의 변화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발달에 따른 진로의 발달을 확인하는 것은 각각의 시기에 필요한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진로정체감은 전 생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오랜 시간의 탐색과 단계를 걸쳐 발달되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로정체감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로정체감의 변화는 살펴본 연구로 조한익과 김영숙(2016)은 미래지향목표, 자아정체감, 공동체의식과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았으나, 진로정체감과 관련된 종단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와 연령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발달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수준 또는 미래의 직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의미한다(손은령, 이순희, 2012). 진로를 명확히 결정함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미래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하여 설정했음을 의미하며, 더 구체적으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의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의 확신 혹은 졸업 후에 자기가 종사할 구체적인 직업 분야를 선택하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봉환, 2006). 본 연구에서는 패널 연구의 한계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청소년들이 미래의 직업을 결정했는가 하는 문항을 바탕으로 진로결정수준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진로결정에 있어서 직업결정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업가치관과 환경을 아우르는 자신의 미래의 진로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이다(김정숙, 황여정, 2007).

김봉환(2006)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선택하기 보다는 대학입시를 위한 성적위주나 부모나 교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진로결정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유수필(2013)의 연구에서 진로정체감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며, 진로정체감이 낮을수록 진로결정력이 낮았다.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관석, 2002). 진로정체감은 청소년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에 영향을 주며, 진로정체감이 높은 청소년은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영란, 2009).

양승권(2004)의 연구에서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정체감 형성에 있어 진로관련 정보획득과 자기명확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강신철과 권경인(2015)의 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도 진로정체감이 높은 학생들은 진로결정의 불확신과 진로미결정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진로결정에 앞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신에게 맞는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진로정체감을 잘 형성할수록 합리적으로 진로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의 관계를 규명하고,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의 변화가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사회적 관계와 진로결정수준

외적인 환경요소 중 사회적 관계는 청소년의 진로발달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홍소정, 2013). 부모관계와 진로결정 수준간의 선행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광자(2005)의 연구에서 부모지지와 진로발달 변인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부모지지 가 높을수록 자녀들이 진로 관련 결정에서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김희수(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모든 변인들이 자녀의 진로결정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부모의 수용적인 태도가 자녀의 진로결정수준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부모의 지지가 높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일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또래애착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청소년기는 선택적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연대의식을 형성하며, 부모나 교사,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배타적 성향을 갖게 된다. 유영미와 문승태(2005)의 연구에 따르면 또래관계가 자아정체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수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문승태(2003)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 시기의 또래애착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수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또래애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복희, 2007). 이는 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생 시기의 진로결정에 또래관계가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한편, 교사와의 관계 역시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임나영(2015)의 연구에서는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학년이 높아질수록, 저학년에 비해 교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느끼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서 교사와의 관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영미, 문승태, 2005).

따라서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는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있어 중요한 관계임을 알 수 있었으며, 청소년들이 진로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관계는 청소년이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 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4. 사회적 관계와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대학교를 진학하기 전인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결정수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개인의 진로와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기에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결정수준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일이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실천적인 접근을 어려워한다. 따라서 진로를 준비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외적인 요소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인봉(200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결정요인 분석에서 성별, 종교, 성장지, 학력에 따라 청소년층의 진로결정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관계와 진로정체감 이외에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 성별과 소득, 성적만족도, 자아정체감, 학습습관, 직업체험의 변인을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계를 살펴본 주요한 변인으로는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인 사회적 관계와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이고, 진로정체감이 사회적인 관계와 진로결정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유금란(2015)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의 관계가 진로결정몰입에 영향을 미쳤고,

자아정체감이 부모-자녀 관계와 진로결정몰입을 완전 매개하였다. 이현주(2010)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은 정적상관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응택과 최재혁(2017)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를 감독과 애정, 합리적 설명의 변인으로 선정하여 직업결정과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이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가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이 서로 다른 관계의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세분화하여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와의 관계 중에 애정의 변인을 선정하여 부모관계와 직업결정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박미려(2017)의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은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권수정과 박정령, 김정예(2017)의 연구에 따르면 또래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진로의식성숙도가 높다는 연구가 나타났고, 또래애착 정도와 진로의식성숙도 간에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높아지면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래애착과 진로결정과의 직접적인 연구는 없었지만 진로의식성숙과 진로결정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또래애착과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명미와 문승태(2005)의 연구에서 또래관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또래관계와 직업결정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윤민중(2016)의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관심이 학생들에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상길(2006)의 연구에서 중학생이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사관계와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진로정체감, 진로결정과 관련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고,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이 관련 있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의 세변인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적 관계와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중학교 3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 종단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NCYPS(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 중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는 3차 년도 자료에만 조사가 실시되어 이들 자료를 활용하였다. 진로정체감은 3차, 5차, 6차 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진로결정의 경우 6차 년도 자료만을 선정하여 이들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설계의 특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3차 년도(중3), 5차 년도(고2), 6차 년도(고3) 자료를 사용하였다.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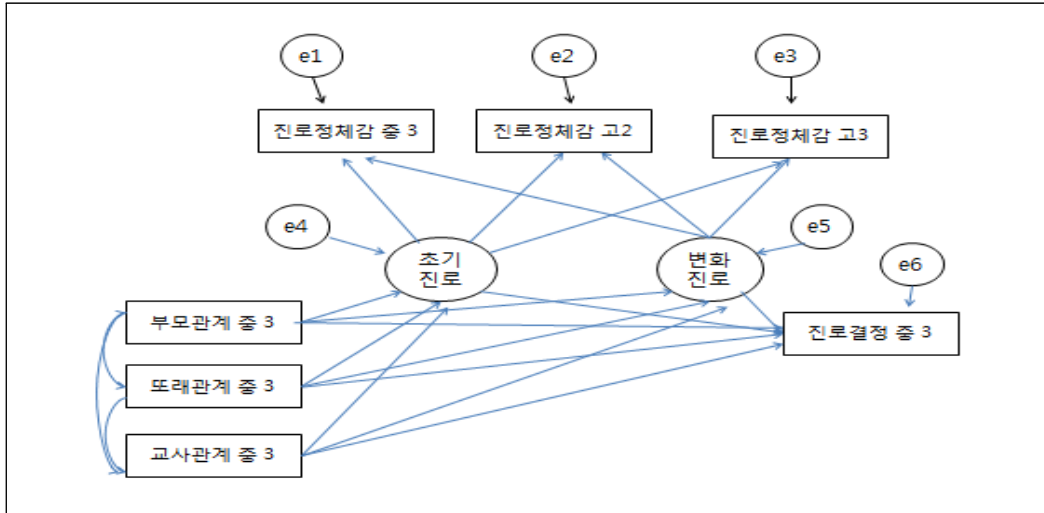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 3차, 5차, 6차 년도를 활용하고 3차 년도의 대상 2,351명 중에서 모든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는 92명을 삭제하고, 2,259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성별로는 남자는 1,119명이었으며, 여자는 1,140명이었다.

3. 측정도구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NCYPS) 자료 3차, 5차, 6차년도를 활용하여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고 3차년도 자료만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시불변 변인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표 1>과 같다.

1) 사회적 관계

(1) 부모관계

부모관계는 (양육방식-관심)이 포함된 총 4개 문항으로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내게 좋아하는 표현을 하신다’, ‘내가 힘들어할 때 용기를 주신다’,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신다’으로 구성되었다. 리커트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관계의 신뢰도 계수는 .758로 확인되었다.

(2) 또래관계

또래관계는 (또래애착-의사소통, 신뢰)가 포함된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준다’, ‘내 친구들은 나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로 구성되어 있다. 리커트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으면 또래관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83으로 확인되었다.

(3) 교사관계

교사관계는 총 6개 문항(학교적응-교사관계)로 구성되었으며,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선생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편하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졸업한 다음에도 담임 선생님을 찾아 뵙고 싶다’로 구성되어 있다. 리커트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으면 교사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교사관계의 신뢰도 계수는 .841로 확인되었다.

2)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패널 3, 5,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며 중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시기 까지 진로정체감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진로정체감은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래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있다’, ‘부모님이 내가 원치 않는 전공학과를 강요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장래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대체로 방향을 정했다’, ‘대학에 가서 전공하고 싶은 구체적인 분야가 있다’, ‘나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 나는 어떤 직업 분야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다’, ‘어릴 때부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미래 계획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로 구성되었다. 리커트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으면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3차 .890, 5차 .882, 6차 .888로 확인되었다.

3) 진로결정

진로결정은 패널 6차년도 자료만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종속변인에 해당된다. 진로결정은 장래직업이 결정되었는지를 묻는 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인값은 ‘①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직업이 있다.’, ‘② 대강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 ‘③ 아직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지 않았다’ 이다. 변인값의 점수를 역코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통제변인으로는 3차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성별, 소득, 성적만족, 직업체험, 자아정체감, 학습습관을 선정하였다. 우선, 성별과 직업체험은 남자=1, 여자=0, 직업체험 있음=1, 없음=0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소득, 성적만족, 자아정체감, 학습습관은 점수가 높으면 각 변인의 의미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1. 변수의 구성문항 및 신뢰도

변수		설문 문항 내용		신뢰도
독립	부모 관계	1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758
		2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3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4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신다.	
	또래 관계	1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883
		2	내 친구들은 나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3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	
		4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5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6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교사 관계	1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841
		2	선생님과 이야기 하는 것이 편하다.	
		3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4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5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6	졸업한 다음에도 담임선생님을 찾아뵙고 싶다.	
매개	진로 정체 감	1	장래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있다.	3차: .890 5차: .882 6차: .888
		2	부모님이 내가 원치 않는 전공학과를 강요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장래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대체로 방향을 정했다.	
		4	대학에 가서 전공하고 싶은 구체적인 분야가 있다.	
		5	나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	
		6	현재 나는 어떤 직업 분야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다.	
		7	어릴 때부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8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미래 계획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종속	진로 결정	1	장래의 직업이 결정되었는가?	
		①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직업이 있다.	
		②	대강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	
		③	아직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지 않았다.	

4. 자료처리

전반적인 자료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SPSS 18.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 학적 특성 파악을 위해 빈도 및 기술통계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와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비교적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며,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명확한 해석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TLI(Tue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였다(2006: 홍세희, 2000). 각 경로계수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CFI, TLI의 지수는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RMSEA는 .08이하이면 양호, .05이하는 좋은 적합도 지수로 판단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주요변인들과 통제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주요변인의 부모관계의 평균(표준편차)은 3.16(.557), 또래관계의 평균(표준편차)은 3.04(.453), 교사관계의 평균(표준편차)은 2.89(.629)로 확인되었다. 진로정체감의 경우 3차 년도의 평균(표준편차)은 2.96(.616), 5차 년도의 평균(표준편차)은 2.96(.578), 6차 년도의 평균(표준편차)은 3.02(.589)로 확인되었다. 진로정체감의 평균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직업결정의 평균(표준편차)은 2.34(.677)로 나타났다.

통제변인으로서는 성별과 소득, 성적만족도, 직업체험, 자아정체감, 학습습관이다. 그 중 성별의 빈도는 남자 1149명, 여자 1140명이었고, 직업체험을 경험한 사람은 635명, 직업체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1622명이었다.

표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N	min	max	평균 (빈도)	표준편차	왜도	첨도
3차 부모관계	2259	1	4	3.16	.557	-.269	.392
3차 또래관계	2259	1	4	3.04	.453	-.035	.609
3차 교사관계	2229	1	4	2.89	.629	-.134	.057
3차 진로정체감	2258	1	4	2.96	.616	-.005	-.653
5차 진로정체감	2091	1	4	2.96	.578	.089	-.591
6차 진로정체감	2056	1	4	3.02	.589	-.007	-.673
진로결정	2056	1	3	2.34	.677	-.549	-.757
통제변인							
성별	2259	0	1	0 = 1119 1 = 1140	-	-	-
3차 소득	2008	1	4	2.43	.880	.079	-.700
3차 성적만족도	2258	1	4	2.75	.802	-.056	-.618
직업체험	2257	1	4	0 = 1622 1 = 635	-	-	-
3차 자아정체감	2258	1	4	2.63	.405	.444	.750
3차 학습습관	2258	1	4	2.68	.473	-.081	.635

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3차 자아정체감은 3차 학습습관($r=.351, p<.001$)과 3차 부모관계($r=.231, p<.001$)와 3차 또래관계($r=.335, p<.001$), 3차 교사관계($r=.233, p<.001$)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3차의 자아정체감은 3차 진로정체감($r=.424, p<.001$)과 5차 진로정체감($r=.297, p<.001$), 6차 진로정체감($r=.248, p<.001$), 진로 결정($r=.158, p<.001$)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3차 학습습관은 3차 부모관심($r=.287, p<.001$)과 3차 또래관계($r=.278, p<.001$), 3차 교사관계($r=.443, p<.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3차의 학습습관은 3차 진로정체감($r=.300, p<.001$)과 5차 진로정체감($r=.185, p<.001$), 6차 진로정체감($r=.130, p<.001$)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3차 부모관계는 3차 또래관계($r=.366, p<.001$)와 3차 교사관계($r=.207, p<.001$), 3차 진로정체감($r=.221, p<.001$), 5차 진로정체감($r=.149, p<.001$)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3차 또래관계는 3차 교사관계($r=.219, p<.001$)와 3차 진로정체감($r=.214, p<.001$), 5차 진로정체감($r=.125, p<.001$), 6차 진로정체감($r=.128, p<.001$)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3차 교사관계는 3차 진로정체감($r=.209, p<.001$)과 5차 진로정체감($r=.151, p<.001$), 6차 진로정체감($r=.131, p<.001$)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3차 진로정체감은 5차 진로정체감(r

$=.435, p<.001$)과 6차 진로정체감($r=.346, p<.001$) 그리고 진로결정 수준($r=.232, p<.001$)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5차 진로정체감은 6차 진로정체감($r=.541, p<.001$), 진로결정수준($r=.401, p<.001$)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6차 진로정체감은 진로결정수준($r=.632,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3.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진로정체감의 변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진로정체감 발달궤적을 살펴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진로정체감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표 4>에서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의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여 최종모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무변화 모형보다 선형변화 모형의 적합도가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되어 선형변화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표 5>에서 진로정체감의 선형변화모형의 초기값과 변화율(기울기)을 제시하였고, 분산을 확인하여 개인간 초기와 변화율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공분산을 확인하여 초기와 변화율의 관련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초기의 평균은 2.950으로 확인되었고, 기울기는 .018로 확인되었다. 즉, 청소년기의 진로정체감은 .018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산의 경우 초기와 변화율에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초기 및 변화율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초기와 변화율의 공분산이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진로정체감이 초기에 낮은 집단은 증가하지만 진로정체감이 초기에 높은 집단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진로정체감의 개인 변화율의 그래프는 [그림 2]에서 제시하였다.

표 3. 주요변인의 상관계수

성별	3차 소득	성직 만족도	직업체형	3차 자아정체감	3차 학습습관	3차 부모관계	3차 또래관계	3차 교사관계	3차 진로정체감	5차 진로정체감	6차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1													
3차 소득	.004	1											
성직 만족도	-.006	-.046*	1										
직업체형	-.117***	.016	-.030	1									
3차 자아정체감	.036	.083***	-.147***	.133***	1								
3차 학습습관	-.019	.085***	-.237***	.071***	.351***	1							
3차 부모관계	-.021	.075***	-.099***	.057**	.231***	.287***	1						
3차 또래관계	-.143***	.087***	-.131***	.057**	.335***	.278***	.366***	1					
3차 교사관계	.001	.030	-.128***	.044*	.233***	.443***	.207***	.219***	1				
3차 진로정체감	.011	.078***	-.121***	.061**	.424***	.300***	.221***	.214***	.209***	1			
5차 진로정체감	-.014	.078***	-.057***	.038	.297***	.185***	.149***	.125***	.151***	.435***	1		
6차 진로정체감	.004	.063**	-.037	.023	.248***	.130***	.080***	.128***	.131***	.346***	.541***	1	
진로결정	-.052*	.062**	-.002	.022	.158***	.082***	.024	.092***	.060***	.232***	.401***	.632***	1

*** $p < .001$, ** $p < .01$, * $p < .05$

표 4. 진로정체감의 잠재성장모델의 적합도

	모형	χ^2	df	TLI	CFI	RMSEA
진로정체감	무변화	75.901***	4	.954	.939	.089
	선형변화	10.354***	1	.976	.992	.064

*** $p < .001$, ** $p < .01$, * $p < .05$

표 5. 진로정체감 변화의 추정계수

	모형	평균	분산	공분산
진로정체감	초기값	2.950***	.216***	
	변화율	.018***	.020***	-.030***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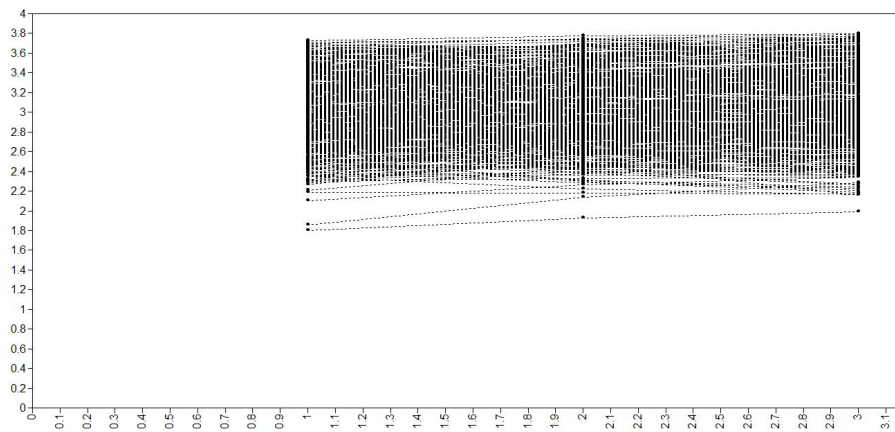


그림 2. 변화 그래프

4. 사회적 관계,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의 관계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간의 종단적 변화 양상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앞서 검증된 두 변인의 단변량 모형을 결합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였다.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관계의 모형의 적합도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TLI와 CFI는 .9이상, RMSEA는 .1이하로 보통의 적합도를 나타내 종합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표 6. 연구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다변량 모형	57.802***	11	.937	.984	.043

*** $p < .001$, ** $p < .01$, * $p < .05$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그 결과를 다음 <표 7>에 제시하였다. 통제변인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은 하지 않았고, 주요변인에 대한 결과만 해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 부모관계는 진로정체감 초기값($\beta = .117, p < .001$)과 변화율($\beta = -.128, p < .00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진로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관계가 진로정체감 초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진로정체감은 높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부모관계는 진로정체감 변화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진로정체감의 증가율이 둔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모관계가 높은 집단은 감소를 나타내지만, 낮은 집단은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관계가 높은 집단에서는 감소하지만 여전히 진로정체감이 낮은 집단과의 차이에서는 부모관계가 높은 집단이 진로정체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관계 평균을 중심으로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의 진로정체감의 평균을 살펴본 그래프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또래관계는 진로정체감 초기와 변화 그리고 직업결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교사관계는 진로정체감의 초기($\beta = .063, p < .05$)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진로정체감 변화와 진로결정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7. 사회적관계,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의 관계분석 결과

경로			B	S.E.	β	C.R.
통제 변인	성별 →	초기	.001	.023	.001	.041
		변화	-.003	.010	-.011	-.345
		진로결정	-.059	.025	-.004	-2.321*
	성적 만족도 →	초기	.023	.014	.041	1.647
		변화	.003	.006	.014	.434
		진로결정	.010	.015	.013	.665
	소득 →	초기	-.021	.014	-.034	-1.431
		변화	.012	.006	.059	1.889
		진로결정	.008	.016	.010	.524
통제 변인	직업체험 →	초기	-.001	.025	-.001	-.052
		변화	-.005	.011	-.013	-.438
		진로결정	.005	.028	.003	.170
	자아정체감 →	초기	.513	.031	.427	16.354***
		변화	-.066	.014	-.166	-4.888***
		진로결정	-.019	.044	-.011	-.427
	학습습관 →	초기	.155	.029	.151	5.403***
		변화	-.044	.012	-.128	-3.221***
		진로결정	.043	.034	.030	1.283

경로			B	S.E.	β	C.R.
부모관계	→	초기	.103	.022	.117	4.592***
		변화	-.031	.010	-.128	-3.221***
		진로결정	-.033	.026	-.027	-1.283
또래관계	→	초기	.014	.012	.013	.482
		변화	.006	.012	.017	.491
		진로결정	.027	.032	.018	.846
교사관계	→	초기	.049	.020	.063	2.432*
		변화	.004	.009	.014	.427
		진로결정	-.042	.022	-.039	-1.871
초기	→	진로결정	.937	.049	.673	19.095***
변화	→	진로결정	3.346	.181	.796	18.528***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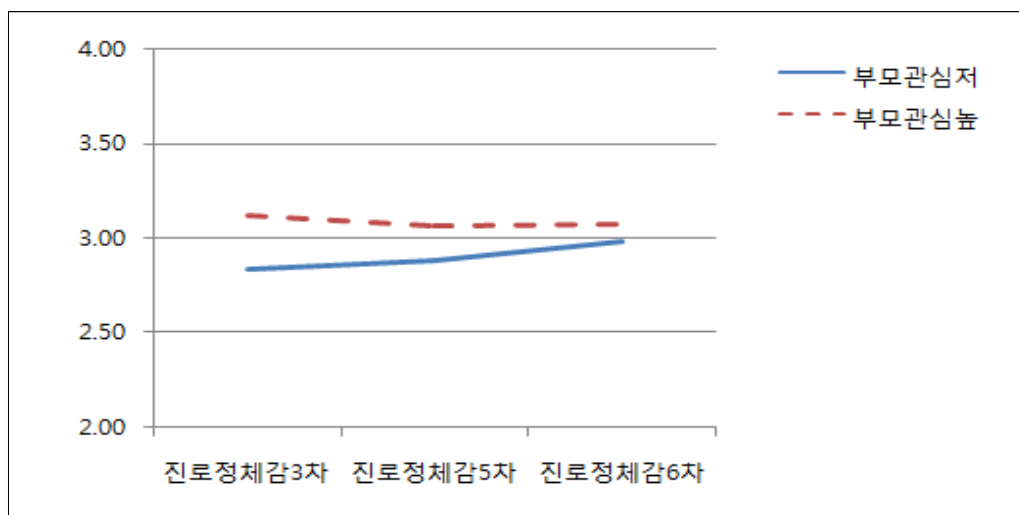


그림 3. 부모관계 집단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변화 그래프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스트래핑(500번)을 실시하였고, <표 8>에 제시하였다. 우선 앞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관계는 진로정체감 초기와 변화를 매개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또래관계는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 교사관계는 진로정체감 초기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교사관계가 진로정체감 초기를 매개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부모관계 → 진로정체감 초기 → 진로결정으로 가는 경로는 부스트래핑 결과 하한값과 상한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부모관계 → 진로정체감 변화 → 진로결정에 가는 경로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교사관계 → 진로정체감 초기 → 진로결정으로 가는 경로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든 신뢰구간은 95%에서 제시하였다.

따라서 부모관계는 진로정체감 초기와 변화율 모두를 매개하여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또래관

계는 매개효과가 없으며, 교사관계는 진로정체감 초기만을 매개하여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매개효과의 부스트랩 결과

경로	추정계수	하한	상한
부모관계 → 진로정체감 초기 → 진로결정	.096	.056	.144
부모관계 → 진로정체감 변화 → 진로결정	-.104	-.177	-.039
교사관계 → 진로정체감 초기 → 진로결정	.046	.009	.089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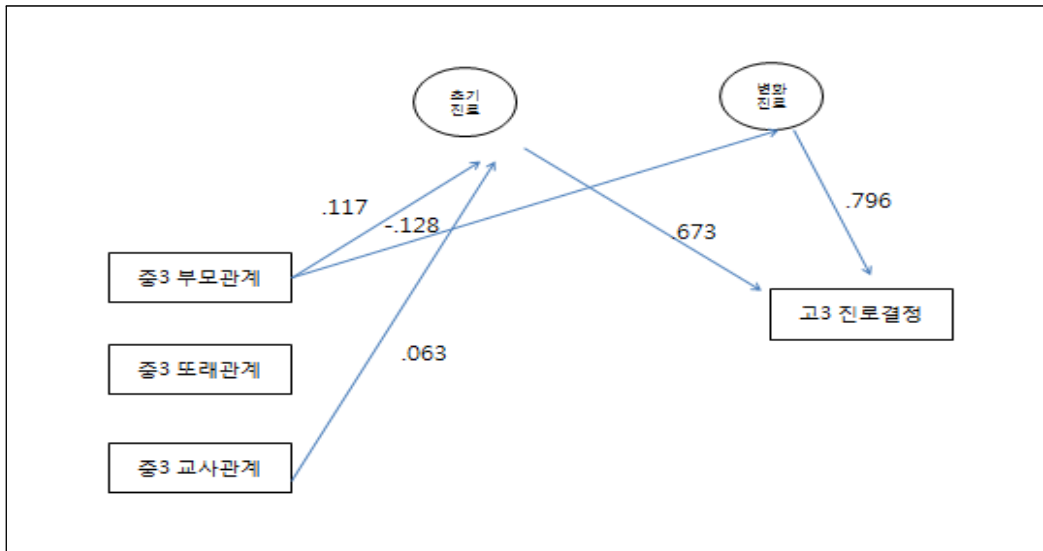


그림 2. 최종모형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와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사회적 관계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의 변화와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사회적 관계,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 변화가 매개효과를 지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가 진로정체감의 초기 및 변화 값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 부모관계는 진로정체감 초기 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관계가 진로정체감 초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에서 부모의 관심이 높

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김민정(2012)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노소영(2017)의 연구에서 중·고등학교시기에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격려, 존중,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진로정체감 변화율에서는 부모관계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중학교 3학년 시기의 부모의 관심이 높을수록 이후 진로정체감의 증가율이 낮음을 의미한다. 중학교 3학년 시기에 부모관계가 좋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지만, 부모관계가 낮은 학생의 진로정체감의 변화율에 비하면 초기에 부모와의 관계가 좋았던 학생은 변화율이 낮다는 것이다. 중학교 3학년 시기에 부모관계가 좋았던 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내적인 변인과 외적인 변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야 할 것이다.

또래관계는 진로정체감 초기와 변화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교사관계는 진로정체감 초기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진로정체감 변화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조윤희(2009)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시기에 교사가 학생들의 의견을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중학교 시기에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인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 중 부모관계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은 부모의 경험이나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인관계나 직업에 대한 관심 혹은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의 관계는 진로정체감 초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로 볼 때,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있어 교사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중학교시기에 교사가 학생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교사는 학생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촉진적 상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의 부모관계, 교사관계는 고 3시기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3학년 시기의 부모관계와 교사관계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이웅택과 최재혁(2017)연구와 특성화 고등학생이 사회적 관계 중 부모 관계가 진로결정수준에 있어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배정희, 2016)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진로결정을 주체적으로 하며,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임나영, 2015)와도 일치하였다.

반면, 또래관계는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또래관계가 진로결정수준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고등학생 시기의 또래관계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배정희(2016)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또한 전문대학생이 친구로부터 긍정적인 언어 또는 지원을 받을

때 진로결정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김현희(2015)의 연구 결과와도 상반된 결론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 있어 또래관계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시기에 진로결정수준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또래관계와 진로결정이 관련성이 있었던 연구와 본 연구가 다른 결론을 보이는 것은 본 연구가 대상이 다르기 때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또래관계의 변인을 다르게 설정하여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고등학생 시기의 진로결정에 있어서 중학생 시기의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의 관심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학교시기에 부모와 교사가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녀의 진로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대화방법이나 자녀에 진로발달에 대한 이해를 돕는 부모대상의 교육도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의 부모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와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진로결정과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변화는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관계는 진로정체감의 초기와 변화율 모두를 매개하여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시기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관심이 높을수록 중학교 3학년 시기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시기의 진로정체감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모의 애착이 여대생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데 진로정체감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이복희(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복희(2007)의 연구에서는 부의 애착은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정체감과 상관을 보이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 부와 모를 구분하지 않아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사관계 역시 진로정체감은 초기만을 매개하여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미경(2009)의 연구에서는 대상은 다르지만 사회적 관계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이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정체감을 자아정체감의 한 영역으로 볼 때 사회적관계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이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의 발달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회적 관계 중에서 부모와의 관계는 진로정체감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중학교 시기의 청소년에게 있어서 부모의 관심은 중학교 시기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정체감에도 꾸준히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중학교 시기의 부모의 관심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관심이 낮은 청소년에 비하여 고등학교까지 진로정체감의 변화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중학교 시기에는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지만, 자녀가 성장하여 고등학생이 되면 자율성을 높여 스스로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내적인 요인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또래와의 의사소통이나 신뢰의 관계는 진로정체감 형성이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또래관계가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문은식, 2015)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문은식(2015)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중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중학교 3학년 대상의 학생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 또래와 정서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고 또래에 더 의존하게 되는 중학교 1학년 시기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발달적 시기에 따른 또래관계와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의 연구가 추후 진행되어 본 연구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 중에서는 중학교 3학년 시기의 부모와의 관계와 교사와의 관계가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지속적으로 부모관계와 진로결정수준에서 진로정체감의 변화가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종단적 연구 결과를 확인한 것이다. 진로결정을 하는데 부모관계와 교사관계는 청소년의 진로결정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며, 진로정체감의 발달이 이를 매개한다는 것이다.

박완성(2002)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성의 상하 수준과 진로결정수준과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의 상하 수준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매개효과는 박완성(2002)의 연구결과에서 심리적인 독립성을 부모관계로 확대하여 해석하고 부모관계,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밝힌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유영미와 문승태(2005)의 연구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지지가 자아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와의 관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자아정체감은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으로 진로정체감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자아정체감의 한 영역으로서의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교사가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는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을 진학할 계획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윤민중, 김기현, 한도희, 2015).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결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자신감과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사의 진로지도와 청소년과 대화하는 방식에 있어서 긍정적 수용이 중요하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에 특성과 흥미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청소년 상담이 필요하며, 부모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와 모의 관계를 구분하여 연구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현주(2010)의 연구에서도 부와 모 각각의 애착 수준에 따라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부와 모의 관계를 구분하여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 관계는 진로정체감 초기와 변화율 모두를 매개하지 않았다. 또래관계는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권수정과 박정령, 김정예(2017)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진로정체감 발달에 핵심일 수 있는 또래애착을 진로정체감과 연결하여 학교적응과 공동체의식을 거쳐 진로정체감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본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시기에 따른 또래애착과 진로결정, 진로정체감의 관계의 고려가 필요하고, 다른 변인과의 다양한 경로 탐색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관계에 대한 발달적 접근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중3, 고2, 고3에 이르는 진로정체감의 발달적 접근을 하였다. 중·고등학교 시기의 발달단계에 따라 진로발달에 필요한 사회적인 관계가 다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자료에 따른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사회적 관계만을 분석하였지만, 향후에는 발달단계에 따라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철, 권경인. (2015).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6(1), 41-60.
- 구자경. (2012). 고등학생의 부·모애착과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3), 1119-1139.
- 권수정, 박정령, 김정예. (2017).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검증. **사회과학연구**, 33(2), 29-51.
- 김관석. (2001).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수준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길정. (2003).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문선. (2013).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또래애착 및 삶의 만족도가 1년 후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2012). **부모관여방식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영, 장은비. (2015).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7), 31-52.
- 김봉환. (2006). **학교진로상담**. 학지사.
- 김아름, 이지희, 최보영. (2010).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발달에 관한 5년 종단연구. 성별 및부모, 또래와의 애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심리치료**, 22(3), 843-862.
- 김정숙, 황여정. (2007). 일반계 고등학생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0(3), 1-23.
- 김현희. (2015).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관계 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수. (200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행동과 애착안정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2(2), 501-518.
- 김희수. (200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결정과의관계. **중등교육연구**, 53(3), 63-88.

- 남궁혁. (2009). **청소년의 진로성숙 및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소영. (2017). **중·고등학교 시기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승태. (2003).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과 심리적 변인간의 인과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지애, 유금란. (2015). 대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1), 45-63.
- 문은식. (2015). 중학생의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22(1), 21-35.
- 박미경. (2009). **여대생의 사회적지지, 진로장벽, 자아정체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구조모형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미려, 양은주. (2017). 부모방임, 또래애착이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 263-284.
- 박아청, 우채영. (2008). 성별에 따른 고등학생의 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의사결정 수준과의 관계. **教育心理研究**, 22(1), 69-85.
- 박완성. (2002).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教育方法研究**, 14(2), 104-125.
- 박완성. (2010). 중·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3(4), 57-73.
- 박지영, 정현숙. (2016). 남녀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학업성취도의 매개효과. **생애학회지**, 6(1), 21-37.
- 박지원. (2016). 대학신입생의 부모지지, 친구지지와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5), 859-880.
- 박지은. (2006).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영문. (2008). **부모에 대한 심리적독립과 애착 및 자아정체감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정희. (2016). **특성화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 평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진희, 이제경. (2009). 부모진로행동이 중학생자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4), 2153-2167.
- 손연아. (2014).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 연구. **진로교육연구**, 27(1), 109-125.
- 손은령, 이순희. (2012). 대학생의 낙관성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5(3), 181-199.
- 양승권. (2004).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한서대학교 대학원 청소년복지학 석사학위논문.
- 엄영순. (2008). **중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부모지지, 학교생활적응의 영향**.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수필. (2013). **청소년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미, 문승태. (2005). 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 및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18(2), 1-19.
- 윤영란. (2009).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15(1), 91-106.
- 윤민중, 김기현, 한도희. (2015). 교사의 관심이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결정 여부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6(1), 51-73.
- 윤초희. (2015).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6(4), 129-154.
- 이광자. (2005). 부모지지와 고등학생 진로발달과의 관계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14.
- 이복희. (2007). 여대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4(2), 19-35.
- 이상길. (2006). 담임교사와의 대화 공감도를 비롯한 학교변인과 고교생의 진로정체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심리치료**, 18(3), 613-627.
- 이상인. (2001).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 한남대학교지역개발대학원 사회상담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수하. (2005).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웅택, 최재혁. (2017). 고등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및 진로관련대화와 직업결정의관계에서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0(1), 47-66.
- 이정규. (2006).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고3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0(3), 571-586.
- 이해경. (2013). 고등학생들의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및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식성숙과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2), 443-466.
- 이현주. (2010). 부모의 진로관련행동 및 애착과 남녀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의 관계. **진로교육 연구**, 23(1), 41-59.
- 이현주. (2010). 대학생이 인식한 부모의 진로행동유형 및 애착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진로결정효능감의 효과. **진로교육연구**, 23(4), 151-171.
- 임나영. (2015). **공업계 특성화고등학교학생의 사회적지지에 따른 진로결정상태유형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2).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9(5), 161-187.
- 장지선. (2005).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 및 애착과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10, 137-154.
- 정명화, 박성미, 신경숙. (2004). 전문대학생의 학과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경로 및 인과관계 분석. **상담학연구**, 5(1), 95-111.
- 정옥분, 정순호, 황현주. (2009). **애착과 발달**. 서울: 학지사
- 조명실, 최경숙. (2007). 후기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모형검증. **상담학연구**, 8(3), 1085-1099.
- 조세연, 김기찬. (2014). 중·고등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9), 325-349.
- 조윤희. (2009). **교사-학생의 의사소통과 학생의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한익, 김영숙. (2016). 청소년의 미래지향목표와 자아정체감, 공동체의식 및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구조관계. **교육심리연구**, 30(4), 783-810.
- 진은아. (2007).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 최수미. (200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진로태도성숙발달에 관한 4년 종단연구. **상담학연구**, 10(4), 2257-2271.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소정. (2013). **대학생의 진로결정유형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유경. (201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Felsman, D. E., & Blustein, D. L. (1999). The role of peer relatedness in late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2), 279-295.
- Flum, H., & Blustein, D. (2000). Reinvigorating the study of vocational exploration: A framework for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380-404.
- Holland, J. L. (1985).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Kracke, B. (2002). The role of personality, parents and peers in adolescents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5(1), 19-30.
- Kroger, J. (2007). *Identity development: Adolescence through adulthood*. Thousand Oaks, CA: Sage.
- Skorikov, V. B., & Vondracek, F. W. (2011). Occupational identity. In S. J. Schwartz, K. Luyckx, & V. L. Vignoles (Eds.),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pp. 692 - 714). New York, NY: Springer.



제 ⑨ 주제

대학원생 논문 공모 수상작 발표

1. 【최우수상】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변화연구 : 경향점수 매칭과 다층성장 모형 적용
2. 【우수상】 아동 및 청소년의 자기조절 학습능력과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3. 【우수상】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적 긴장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 태도 탐색 및 비행 행동 예측 : 잠재 변수 혼합 모형의 적용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변화연구 : 경향점수 매칭과 다층성장모형 적용

이정민*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팬덤활동 참여, 개인, 가정, 지역사회요인의 중단적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초4패널 4차~7차년도(2013년~2016년) 4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경향점수 매칭방법(propensity score matching)과 다층성장모형(multilevel growth model) 분석을 하였다.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기대되는 개인, 정, 또래 요인의 변인들을 공변인으로 설정하였고, 경향점수 매칭방법을 사용하여 팬덤활동 참여 집단(처치집단)과 미참여집단(통제집단) 간 동등성을 확보하였다. 동등성이 확보된 자료를 사용하여 학교생활적응의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층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팬덤활동 참여는 학교생활적응의 초기치가 낮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이 팬덤활동 미참여 학생보다 더 높은 성장을 나타냈다. 또한, 팬덤활동을 참여하면서 부모의 과잉간섭이 높은 학생은 학교생활의 초기치가 더 높았지만 이후 변화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자아존중감, 휴대전화의존도, 부모의 애정, 부모의 과잉간섭, 공동체의식은 학교생활적응의 초기치에 영향 미쳤지만, 이후 변화에는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휴대전화의존도, 공동체의식만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팬덤활동, 학교생활적응, 경향점수매칭, 다층성장모형

I. 서론

최근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문화 활동으로서 팬덤활동은 청소년들의 중요한 문화 영역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정민우, 이나영, 2009). 청소년들은 팬덤활동을 통해 심리적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경험을 공유하며,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들과 소속감을 느낀다(paik, 2015). 팬덤활동이란 특정 대상, 즉 선호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상대로 과도하게 몰두하는 사회적 현상을 의미하며, 지금까지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정재민, 2010). 하지만, 최근에는 특정인이나 특정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여 빠져드는 사람들과 그러한 문화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통용되어 사용되고 있다(김창남, 1995). 특히 청소년기는 역할 모델로 대상을 부모가 아닌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얻고자 하며 새로운 역할 모델이 이동하는 시기이다(최미원, 조현희, 김영아, 2016).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논리적이며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역할 모델로서 부모가 아닌 대중 스타를 선택하게 된다(조아미, 1998). 이러한 선택으로 자신이 좋아하고 동경하는 연예인으로부터 외적 모방뿐만 아니라 우상화를 통해 가치관 및 신념까지도 모방하게 되며(신정이, 황혜원, 2006), 동경의 대상으로부터 대리만족과 함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김정진, 1996). 이는 스타의 일상과 활동일정 등 정보 검색 및 자료수집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됨으로써 청소년 자신들의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백진아, 2015). 하지만, 연예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관심의 표현이 다양해짐에 따라 팬덤활동의 참여는 긍정적 자기발전과 사회봉사 참여를 유도하며, 이를 통해 구성원 간 소속감 및 대인관계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나타냈다(임영식, 2002). 즉, 청소년의 팬덤활동은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문화실천의 주체자로 발전 될 가능성을 밝히는 등 문화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용석, 2011). 그러나 팬덤활동을 사회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중요성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팬덤활동을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이유로 참여하는지, 또는 이러한 팬덤활동 참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환경변화를 이루고, 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기 자신을 변화하기도 한다(곽수란, 2006). 하지만, 청소년들의 팬덤활동은 등교시간 준수나 질서 및 규칙 등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안은미, 김소희, 전선율, 진성미, 정익중, 2012). 특히 학교는 청소년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잠재력을 개발하며,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원만하게 생활할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하는 곳 이기에(김영춘, 정민숙, 2012), 청소년들은 학교를 통하여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사회생활 규칙을 배우고 내면화 하게 된다(김희수, 윤은중, 2004). 또한,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이해는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조안나, 이은경, 장미경, 2016). 이러한 학교생활적응은 학교 안에서의 생활과 환경을 받아들이고, 교사 및 교우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긍정적 상태를 유지하며, 학습 및 교내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고 충족하여 만족하게 된다(윤은중, 김희수, 2005). 하지만, 급격한 신체변화와 정서적 불안정을 겪는 청소년기 학생 모두가 학교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의 불안정한 교우 및 교사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부적절한 행동은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초래하게 된다(전재일, 전현주, 2007). 결국 청소년이 학교생활을 순조롭게 적응한다는 것은 사회 적응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과정이며(김금순, 김은미, 2015), 현재와 이후 성인기 삶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기에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박기원, 2014).

특히 실험연구 실행이 곤란한 사회과학분야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인과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상경아, 2009). 즉, 팬덤활동 참여 피험자들을 처치 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무선택할당하는 것이 아닌 이미 형성되어 있거나 무선택할당이 불가능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두 집단 간 동등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많은 제한이 따른다. 이러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택 편향을 통제하여 인과적 설득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SM)방법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팬덤활동 참여와 학교생활만족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팬덤활동 참여효과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팬덤활동 참여 이외에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변인들이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한 시점의 변수들 간 관계를 살펴보는 횡단적 접근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횡단 연구는 변수들 간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이 어려우며, 학교생활적응이 개인의 내적·외적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밝혀내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기에,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개인, 가정, 지역사회의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학교생활적응 정도의 종단적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탐색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즉,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라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특성의 동질성을 확보한 후 두 집단의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라 선택 편의를 제거를 위해 경향점수 매칭방법을 사용하여 팬덤활동 참여집단과 미참여집단의 특성을 동등화 한 후,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다층성장모형(multilevel growth model)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중학교 1학년부 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기까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팬덤활동 참여 및 개인, 가정, 지역 사회 요인의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중1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팬덤활동 참여 및 개인, 가정, 지역사회 요인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팬덤활동 참여 및 개인, 가정, 지역사회 요인의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팬덤활동

팬덤(fandom)은 특정 인물이나 대상에 대해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나 현상을 공유하는 것이며, ‘대상을 열정적, 광적으로 추종한다’는 ‘fanatic’의 ‘fan’과 집단적 증후군을 뜻하는 ‘dom’이 합성된 복합어다(정재민, 2010). 어원에서의 의미와 같이 팬덤은 부정적 시각을 밑바탕으로 하여 팬덤문화를 하나의 병리현상으로 이해하며 현실을 회피하는 집단적 세력으로 인지하기도 한다(김고운, 김정은, 박정열, 2009). 이러한 기조는 팬덤문화 및 활동을 일탈과 중독현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팬덤활동을 부정적 시각으로 받아들이어 왔다(전수아, 한운선, 2016). 하지만, 수동적인 태도로 스타의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던 이전과 달리 미디어의 발달 및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는 스타의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로 팬덤의 성장을 이루었다(임재민, 김대현, 2016). 오늘날에

이러려 팬덤문화는 청소년의 고유한 문화로 재조명되고 있으며, 문화의 생산적 측면으로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Fiske, 1992).

1980년대를 지나 2000년대부터 청소년을 목표로 하는 아이돌(idol)이 출현하면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팬클럽, 즉 팬덤이 형성되었다(정재민, 2010). 청소년들은 팬덤 내 활동으로부터 자신의 열정과 즐거움을 여과없이 표현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구조적·조직적 관계의 집단적 성격을 드러낸다(베르기디에 마티유, 조영한, 2017). 최근 팬덤활동은 단순한 참가가 아닌 소속감, 결속력, 영향력 등의 공동체적 성향을 비롯하여(박신의, 2012) 사회적 기부의 문화로 발전하는 등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긍정적 자기발전에 이바지하였다(백진아, 2015). 이러한 활동은 국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거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시키며, 한류문화 및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영향을 미쳤다(안은미 외, 2012; Williams & Ho, 2016). 즉, 자신이 동경하는 스타의 팬이 된다는 것은 스타를 매개로 타인과 경험을 동일시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등 만남의 기회 획득으로 이해할 수 있다(소은경, 2004). 결국, 팬덤활동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에 대한 예방을 가능케 하며,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이루며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조영임, 이숙, 2011).

하지만, 이와 다르게 팬덤은 사회 안에서 가치를 허용받지 못했을 때 주변적인 문화에서 적지않게 발생한다(김석기, 서경화, 2011). 청소년의 팬덤형성과정에서 스타를 향한 과도한 애정의 집중은 ‘중독’으로 이어져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김선숙, 2013). 즉, 스타의 팬미팅이나 콘서트에 참여하지 못할 때, 스타와 관련된 영상 및 사진 등의 게시물을 접하지 못할 때 불안함과 동시에 스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차 있게 된다(정재민, 2010). 김고운 외(2009)에 따르면, 스타의 생활 전반을 소유 하려는 사생팬의 경우 지나친 애정과 강박적 태도를 보이는 청소년의 팬덤문화의 일탈현상이다. 이렇듯 스타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비현실적 중독현상의 팬덤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자아정체감을 형성시킨다(김현주, 임영식, 오세진, 2000). 따라서, 청소년의 팬덤활동의 참여가 극단적인 팬덤문화로 이어졌을 때 심리적 불안이나 과도한 집착의 부정적 양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정재민, 2010; Haut, 2010; Williams & Ho, 2016). 따라서, 팬덤활동은 청소년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에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팬덤활동과 학교생활적응

청소년에게 학교는 지식을 습득하고 잠재력을 개발하며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곳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가능하도록 교육하는 곳이다(김영춘, 정민숙, 2012). 학교라는 공간에서 청소년들은 공동생활을 통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고 유지하며, 학교규범, 학습활동, 사회적 관계 등을 타인과의 조율하며 학교생활에 적응한다(정미영, 문혁준, 2007). 이러한 학교생활 적응은 청소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정서가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다(김금순, 김은미, 2015).

이와 더불어 청소년 주축의 팬덤활동은 제도교육 내에서 성취 불가능한 욕구를 획득하는 데 대중문화를 활용하게 된다(조은하, 2007). 이러한 청소년의 팬덤활동은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학생이라는 신분은 청소년에게 제한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손경순, 2015). 학생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이 아닌, 과도한 시간을 팬덤활동에 할애할 경우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기에 부정적 학습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진원원, 2012). 특히 스타에 대한 우상화가 과도한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업 및 학교생활에 있어서 무성의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주 외, 2000). 중학생들의 경우 스타에 대한 우상화 정도가 큰 집단은 우상화 정도가 작은 집단에 비하여 학교규칙의 불이행 및 불성실한 수업태도 등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는 보고하고 있다(조영임, 이숙, 2011). 또한, 청소년들의 온라인 팬덤활동은 학교생활적응의 학습활동을 감소시키며, 오프라인 팬덤활동은 학교규칙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팬덤활동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안은미 외(2012)는 보고하였다. 따라서 온·오프라인의 팬덤활동은 학교생활부적응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안나 외, 2016)

하지만, 청소년의 팬덤활동이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과 달리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팬덤활동을 통해 정서적 위로와 억눌린 감정이입 및 표출, 스트레스 해소 등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종희, 2005). 즉, 청소년들은 팬덤활동을 통해 가정 내 갈등이나 학교생활의 불만족을 해소할 수 있는 안식처를 얻게 된다(이윤정, 박성옥, 2001). 또한, 청소년들은 팬클럽 내 다양한 연령층으로 하여금 폭넓은 친구관계를 구축하고 기부와 같은 사회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활동함으로서(소은경, 2004) 집단생활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학습하는 과정을 배우게 된다(장경진, 2009).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는 보고하고 있다(조안나, 이은경, 장미경, 2016). 팬덤활동 참여 유형에 따라 다집단 분석을 실시한 한혜정(201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콘텐츠를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수동형’ 집단이 직접적으로 스타와 접촉하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소통형’ 집단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생 스스로 학습환경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팬덤활동 역시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선행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결국, 온·오프라인을 넘어 다양한 팬덤활동의 참여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적 가치를 부여받음으로써 학교생활을 보다 유연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팬덤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중단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며, 이에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응에 중단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팬덤활동 참여와 학교생활적응과의 순수한 인과효과를 규명하는 데, 비실험연구의 사회과학분야에서 제기되는 선택편의 문제가 제기되며, 두 집단 간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나타내더라도 이들의 효과가 처치 효과인지 혹은 다른 집단 특성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구분하기가 어렵다(상경아, 2009). 이를 위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향점수 매칭방법을 사용하여 팬덤활동 참여와 학교생활적응의 인과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3. 학교생활적응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의 변화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시작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요인이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시간 경과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 본 연구들이 축적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였다. 일부 연구자들은 청소년기, 즉 중학교 입학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김수린, 유조안, 2014; 김진아, 2016; 황성혜, 2010). 이와 달리 다른 연구자들에 따르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학생이 증가하는 성장궤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는 학교생활 부적응의 발달궤적을 나타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김현숙, 2015; 조미형, 이정은, 2008).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거나 감소하는 발달 궤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하나의 요인에 의해 일어나기 보다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발달되기에, 개인차가 발생한다(전재일, 전현주, 2007). 청소년이 속한 다채로운 환경 내 학교생활적응 발달의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한 영향요인들을 개인, 가정, 지역사회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휴대전화의존도가 학교생활적응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기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탐구하고 자신의 자아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두드러지는 시기로서, 자아존중감은 매우 중요하다(오정학, 김철원, 하명희, 2012). Rosenberg(1965)는 자기를 존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정도를 자아존중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라는 공간속에서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학교규칙, 학습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에 잘 적응하는 특성을 보인다(이경남, 2003). 이경상(2011)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부적응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다(임수경, 이형실, 2007). 학교생활적응의 4년간 종단적 변화를 살펴본 좌현숙(2012)의 연구에서는 초기시점뿐만 아니라 시간의 증가함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관계 및 규준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아청, 이승국, 1999). 문은식(2015)의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 적응이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이현림, 천미숙, 2003).

또 다른 개인요인으로서 휴대전화 의존도는 학교생활적응과의 부정적 관계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김근순, 김은미, 2015). 미디어 매체로서 휴대전화는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정, 이정애, 이화조, 정익중, 2012).

휴대전화의 과도한 사용으로 청소년기 학생들의 수업태도는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낮은 집중력으로 인해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희정, 2010). 하지만, 김채환(2015)은 연구에서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교우관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개인요인과 함께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애정, 부모의 과잉간섭 등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가정요인이 학교생활적응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사회적 관계의 토대를 이루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정현, 2008). 특히 부모의 애정은 자녀의 학습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노미화, 최미정, 최연실, 2015),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부모일수록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이와 반대로 부모의 과잉간섭과 과잉기대가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주, 홍상환, 2015). 김진아(201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애정이 높을수록 초기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 증가함에 따라 부모 애정의 영향력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의 과잉기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초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의 발달 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더불어 개인과 관련된 환경은 가족에서 지역사회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지자체를 통한 마을 중심의 공동체의식 강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이희정, 2015).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동체의식은 학교생활적응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다(최영임, 문영정, 2013). 즉,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의 발달은 학교생활에서의 규칙준수와 건설적인 교우관계로 발전하기에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영춘, 2014; 조안나 외, 2016). 하지만,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지역사회에 보다 많은 이질적 문화가 형성되면서 다문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김미진, 정옥분, 2010). 특히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정도가 높은 경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보고한 오경화(2011)의 연구와 같이 다문화수용성이 높고 또래와의 융합하는 능력이 우수할수록 동질문화를 옹호하는 학생보다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춘, 2014).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지역사회 요인들을 고려하여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생활적응의 향상을 위해 이들 변인간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방법으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각 패널을 구축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4차년도부터 7차년도, 즉 중학교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2,351명 중 결측치 352명을 제외하고, 남학생 1,049명(52.5%), 여학생 950명(47.5%)으로 총 1,999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살펴보고, 개인 및 가정, 지역사회 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어떠한 인과관계가 종단적으로 나타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 방법은 온라인 팬덤활동과 오프라인 팬덤활동으로 구분되며, 온라인 팬덤활동은 팬클럽이나 팬카페 가입, 홈페이지 방문, 포털사이트나 기사에 댓글 달기 등이 있으며, 오프라인 팬덤활동은 팬 미팅 참석, 경기장 가기, 선물 보내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전수아, 한운선, 2016). 본 연구에서는 초4패널의 4차년도(중1) 자료 중 선호 연예인/ 운동선수 유무와 온·오프라인 팬덤활동 빈도를 참고로 하여 팬덤활동 참여를 더미변수(1=참여, 0=미참여) 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라 구분된 두 집단이 팬덤활동 외의 다른 특성에서 동등하다고 볼 수 없기에 팬덤활동 참여 유무를 경향점수 산출의 처치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의 팬덤활동 확률이 동등해지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고자 학교생활적응 확률이 예측 될 수 있도록 하는 공변인으로 성별, 가구연간소득,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또래애착 변인들을 설정하였다(김수린, 유조안, 2014; 김영춘, 2014; 최형임, 문영경, 2013). 이를 통해 패널자료에서 발생하는 선택편의를 교정함으로써 실험집단(참여)과 통제집단(미참여)의 두 집단 간 동등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동등성 확보 후 종속변인인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하위요인 당 1개의 문항을 추출하여 4차~7차년도(중1~고1)의 4개년에 걸쳐 반복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변인의 각 척도는 Likert식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평점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변인들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변인 측정도구 구성 및 신뢰도

구분	변인명	문항내용	신뢰도
종속변수 (1수준)	학습활동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부모님, 선생님, 친구)에게 물어본다	4차 .676
	학교규칙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5차 .685
	교우관계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6차 .693
	교사관계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친절하시다	7차 .675

구분	변인명	문항내용	신뢰도	
처리변수	팬덤활동	1 = 참여, 0 = 미참여	4차 -	
	성별	1 = 여자, 0 = 남자	4차 -	
	가구연간소득	자연로그변환	3차 -	
경향점수 산출변인 (공변인)	자아탄력성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4차 .687	
	삶의만족도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4차 .837	
	의사소통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4차 .815	
	또래 애착	신뢰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4차 .843
		소외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	4차 .748
	자아 존중감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4차 .838
		개인 자아 정체감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영향받기 쉽다*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음이 불편하다*	4차 .733
	독립변수 (2수준)	휴대전화 의존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로 한창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다 ·혼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4차 .865
		가정 양육 과정 간섭	애정	·부모님께서서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부모님께서서는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부모님께서서는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부모님께서서는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신다
			·부모님께서서는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해 하시며 내게는 못 하게 하신다 ·부모님께서서는 나에게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겨야 한다는 걸 강조하신다 ·부모님께서서는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 ·부모님께서서는 내가 원하는 일을 못 하게 하실 때가 많다	4차 .751

구분	변인명	문항내용	신뢰도
	공동체 의식	·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4차 .801
	지역 사회	·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	·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 친구로 사귄 수 있다	4차 .821

* 역문항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팬덤활동 참여유무의 인과적 효과 검증을 위하여, 선택편의를 보정하고자 경향점수매칭을 실시하였다. 이후 팬덤활동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을 결합표집하고, 중1부터 고1에 이르기 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변화에 있어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항목별 무응답의 결측값은 다중대체법을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는 경향점수매칭과 다층성장모형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1) 경향점수 매칭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팬덤활동 참여 가능성에 대한 경향점수를 도출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순수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팬덤활동에 참여하는 집단과 미참여 집단 간에는 인구학적 특성 혹은 개인적 특성 등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종단자료와 같은 비실험 연구에서는 이미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변인 간 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경우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동등성 확보가 어려워 선택 편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김정선, 김영식, 정소라, 2014).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특성을 통계적으로 동질화시켜 처치효과의 추정을 곤란하게 만드는 공변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민경석, 2008).

다양한 경향점수 매칭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Rosenbaum과 Rubin(1985)이 제안한 최대경향점수 거리의 허용수준을 부여하는 캘리퍼 매칭(caliper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팬덤활동 참여의 처치집단(treatment group)을 구성하는 개체의 경향점수와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설정된

최대거리의 캘리퍼(caliper)내에 있는 개체만을 통제집단(control group), 즉 팬덤활동 미참여를 이 용함으로써 매칭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방법이다(박상현, 김태일, 2011). 경향점수 매칭 을 위하여 팬덤활동의 참여를 처치집단(1), 미참여를 통제집단(0)으로 설정하였다. 처치집단의 편차가 통제집단의 편차보다 큰 경우 이보다 작은 캘리퍼가 필요하기 때문에, Rosenbaum 와 Rubin(1985) 이 제안한 최대 경향점수거리(caliper)를 0.25 표준편차를 선택하여 두 집단을 대응시켰다. 이 방법 은 처치집단의 사례 하나가 자신의 경향점수와 같거나 전체 사례 경향점수의 표준편차의 25% 범위 내에서 통제집단의 사례 중 하나와 매칭시키는 방법이다(민병철, 박소영, 2010).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별, 가구연간소득, 삶의 만족도, 자아탄력성, 또래애착을 공변인으로 설정하였다(김수린, 유조안, 2014; 김영춘, 2014; 최형임, 문영경, 2013). 매칭 전 팬덤활동 참여와 미참여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변인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p < .05$). 매칭 수행 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두 집단 간 동등한 특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였다(상 경아, 2009). 이와 같은 통계분석을 위하여 R 3.4.1을 MatchIt 패키지와 연동하여 분석하였다.

2) 결측치 처리

종단자료와 같은 설문자료의 경우 무응답 반응의 결측치가 다수 발생한다. 이 경우 가장 보편적인 결측 처리방법이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사례라도 결측된 문항이 존재할 경우 그 행의 전체 자료를 삭제하여 분석에서 제외하는 완전제거법(listwise deletion, LD)이 있다. 이 방법 은 통계프로그램의 기본값으로 내장되어 처리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유진은, 2010). 하지만, 완전제 거법은 편의 발생 및 전체표본의 사례수보다 더 적은 사례수의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의 손실 을 야기한다(이화정, 강석복, 2012). 이러한 편의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 MI)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변수를 상호 보조변수로 활용한 EM 방식의 다중대체법(MI)을 통해 총 5세트의 결측 대체된 자료(imputed data)를 생성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5개의 데이터 세트는 Mplus 7.4를 활용하여 결측치가 대체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HL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5개 데이터 세트에 대한 분석의 통합 결과이다(Raudenbush et al., 2011). 이 결과는 HLM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다중대체 옵션의 회귀계수 추정값은 결측 대체된 자료(imputed data)의 분석 평균이며, Little과 Schenker(1995)의 방식에 의해 표준오차가 산출된다(송미영, 임현 정, 임해미, 박혜영, 구자옥, 2015, 재인용). 즉, HLM 프로그램의 다중대체 옵션을 활용하여 분석함 으으로써 총 5회의 분석결과를 통합한 방식으로 산출된 최종 결과를 보고하였다.

3) 다층성장모형

최종 연구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팬데믹활동 참여유무가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으로 탐색하고자 최종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인으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개 시점에 대하여 반복 측정된 학교생활적응 변인을 활용하였으며, 각 시점의 측정치는 개인내 내재된(nested) 자료의 구조를 지녔다. 다층성장모형은 이와 같은 자료 구조를 반영하여 개인의 특성 변화를 분석하는데 적합하다(Raudenbush & Bryk, 2002).

본 연구에서는 2수준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하였는데, 1수준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의 변화함수를 추정 한 결과 시점 변수를 제공한 가속도항, 즉 2차항을 투입하였을 때 1차와 2차항 간 상관계수가 $-.952$ 로 큰 상관을 보였다. 이에 다중공선성이 예상되어 선형 성장모형을 분석에 적용하였다(박현정, 김전옥, 손윤희, 2015). 2수준에서는 변화에 있어 개인차를 추정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을 종속 변수로 하여, 1수준에 시점을 15세, 즉 중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시점을 0, 1, 2, 3으로 중심화(centering)하였다. 2수준에는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한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

1수준 :

$$Y_{ti} = \pi_{0i} + \pi_{1i}(time_{ti}) + \epsilon_{ti} \sim N(0, \sigma^2)$$

2수준 :

$$\begin{aligned} \pi_{0i} &= \beta_{00} + \sum_{q=1}^k \beta_{0q}X_{qi} + \gamma_{0i} \\ \pi_{1i} &= \beta_{10} + \sum_{q=1}^k \beta_{1q}X_{qi} + \gamma_{1i} \end{aligned}$$

위의 수식에서 Y_{ti} 는 시점 t 에 측정된 개인 i 의 학교생활적응을 의미한다. π_{0i} 는 중1시점에서 측정된 개인 i 의 학교생활적응을, π_{1i} 는 개인 i 의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을 의미한다. ϵ_{ti} 는 시점 t 에 대한 개인 i 의 오차이며, 2수준의 β_{00} 과 β_{10} 은 고정효과(Fixed effect)로서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을, γ_{0i} 와 γ_{1i} 는 무선효과(Random effect)로서 초기값 및 변화율 평균에 대한 개인 i 의 편차를 나타낸다. 다층성장모형 분석은 HLM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팬덤활동 참여 여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고려된 여러 측정변인들의 기술 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범주형 변인인 팬덤활동 참여와 성별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공변인으로 사용된 삶의 만족도, 자아탄력성, 또래애착의 의사소통, 신뢰, 소외는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인인 학교생활적응의 성장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독립변인으로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부모 애정, 부모 과잉간섭, 공동체의식, 다문화수용성, 휴대전화의존도는 각 변인의 문항 합계 점수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학교생활적응의 기술통계의 결과를 살펴보면, 중1에서는 12.640이었지만, 중2에서는 12.505으로 감소되었다가 중3에서 12.723, 고1에서 12.877로 증가하였다. 연구변인 간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가장 높은 상관계수의 값을 나타낸 변인은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이며($r = .640, p < .001$), 가장 낮은 상관계수의 값을 나타낸 변인은 가구연간소득과 휴대전화의존도($r = -.049, p < .05$)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 수용성은 다른 변인들과 정적상관을 나타냈지만($r = .057 \sim .346$), 부모 과잉간섭과 다문화수용성은 부적상관을 나타냈다($r = -.061, p < .01$). 가구연간소득과 삶의 만족도, 부모 과잉간섭, 또래애착의 의사소통과 부모과잉간섭, 휴대전화의존도, 또래애착과 휴대전화의존도, 또래애착과 공동체의식 변인 간 관계를 제외하고,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2.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N=1,999)

학교생활적응				가구		도래애착					휴대 전화 의존도				
4차	5차	6차	7차	연간 소득	자아 탄력성	삶의 만족도	의사소통	신뢰	소외	자아 존중감	자아 정체감	부모 애정	부모 과잉간섭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②	.430***														
③	.371***	.478***													
④	.333***	.398***	.473***												
⑤	.095***	.085***	.098***	.122***											
⑥	.437***	.271***	.247***	.226***	.079***										
⑦	.356***	.187***	.195***	.197***	.042	.507***									
⑧	.394***	.251***	.200***	.218***	.067***	.472***	.355***								
⑨	.407***	.258***	.211***	.240***	.053*	.492***	.772***	.351***							
⑩	.177***	.151***	.165***	.152***	.054*	.172***	.171***	.253***							
⑪	.452***	.293***	.265***	.255***	.077***	.640***	.435***	.432***	.253***						
⑫	.132***	.128***	.158***	.149***	.117***	.152***	.105***	.090***	.298***	.245***					
⑬	.464***	.292***	.263***	.280***	.081***	.407***	.406***	.385***	.167***	.475***	.104***				
⑭	-.123***	-.125***	-.130***	-.118***	-.043	-.065***	-.109***	-.061**	-.387***	-.154***	-.299***	-.207***			
⑮	.494***	.281***	.249***	.256***	.090***	.376***	.291***	.365***	.043	.333***	.092***	.362***	-.038		
⑯	.346***	.216***	.172***	.179***	.069*	.297***	.182***	.292***	.057*	.258***	.087***	.237***	-.061**	.517***	
⑰	-.241***	-.155***	-.121***	-.089***	-.049*	-.159***	-.203***	-.045	-.210***	-.198***	-.191***	-.187***	.233***	-.105***	-.139***
M	12.640	12.505	12.723	12.877	8.273	3.061	3.160	3.136	2.942	19.043	12.789	12.689	9.247	11.997	12.233
SD	1.961	1.833	1.817	1.768	.719	.548	.633	.552	.721	2.969	2.610	2.290	2.713	2.311	2.342
															3.153

* $p<.05$, ** $p<.01$, *** $p<.001$

2. 경향점수 매칭

경향점수 매칭에 앞서 팬덤활동 참여 학생과 미참여 학생들 간 사전 특성이 서로 상이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 가구연간소득, 삶의 만족도, 자아탄력성, 또래애착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여 두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집단별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팬덤활동 참여유무에 따른 집단별 특성 비교(매칭 전)

	참여 (처치집단, $n=831$)	미참여 (통제집단, $n=1168$)	평균차	t 통계치
	평균	평균		
성별	-	-	-	15.269 ***
가구연간소득	8.321	8.238	.083	2.572 *
삶의만족도	3.103	3.200	-.097	-3.394 **
자아탄력성	3.181	3.097	.083	3.257 **
또래애착-의사소통	3.174	3.108	.065	2.608 **
또래애착-신뢰	3.270	3.175	.094	3.550 ***
또래애착-소외	2.991	2.906	.084	2.605 **

* $p<.05$, ** $p<.05$, *** $p<.001$

<표 3>과 같이 모든 공변인에서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팬덤활동 참여학생과 미참여 학생의 사전 특성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으로 종속변인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인 통제를 통해 사전 동등성을 갖춘 후 팬덤활동 참여 효과를 분석해야 함을 뜻한다(박종석, 김준엽, 2014). 경향점수 매칭을 활용하여 두 집단 간 동등성 확보를 위하여 캘리퍼(Caliper)를 적용한 최근접 이웃매칭(nearest neighbor matching) 방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팬덤활동 참여 집단(처치집단)과 미참여 집단(통제집단)에 소속된 학생 656명씩 두 집단에 동일하게 표집되었다. [그림 1]은 경향점수 매칭 전과 후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두 집단 간 공변인의 분포를 동일하게 조정 한 후 경향점수 분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경향점수 매칭 이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이 서로 다른 경향점수 분포를 보였지만, 경향점수 매칭 이후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이 서로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두 집단이 공변인에 대해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인에 대한 동일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는 최종 선정된 팬덤활동 참여집단(처치집단, $n=656$)과 팬덤활동 미참여집단(통제집단, $n=656$) 총 1,312명에 대하여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공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두 집단은 유사한 변인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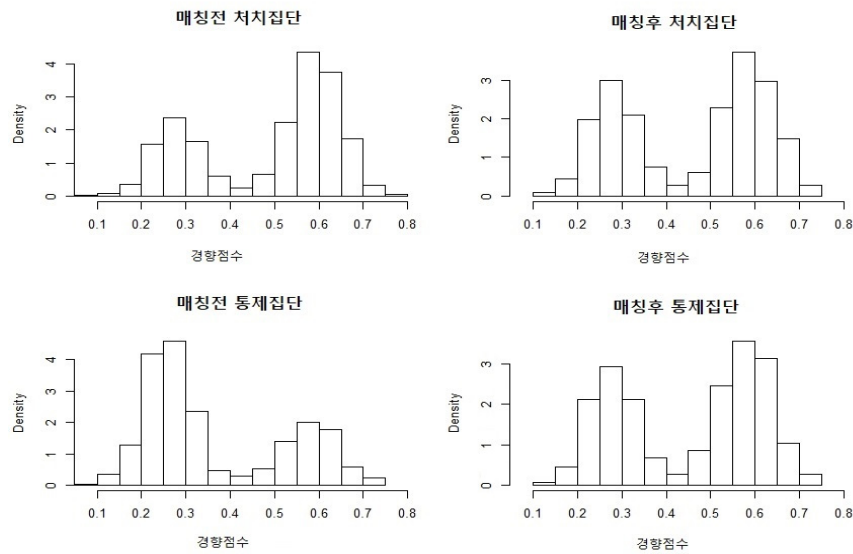


그림 1. 경향점수 매칭에 따른 경향점수 분포의 차이

표 4. 팬덤활동 참여유무에 따른 집단별 특성 비교(매칭 후)

	참여 (처치 집단, $n=656$) 평균	미참여 (통제 집단, $n=656$) 평균	평균차	t 통계치
성별	-	-	-	-.168
가구연간소득	8.319	8.286	.033	.944
삶의만족도	3.140	3.128	.011	.311
자아탄력성	3.174	3.143	.031	1.004
또래애착-의사소통	3.171	3.162	.009	.305
또래애착-신뢰	3.266	3.241	.025	.771
또래애착-소외	2.988	2.951	.037	.926

3. 다층성장모형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응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하기 위하여 1수준은 개인별 반복측정치(시점), 2수준은 학교생활적응의 초기값과 변화율로 학생수준의 개인, 가정, 지역사회요인의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인을 투입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평균 초기치는 5.914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학교생활적응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팬덤활동 참여, 자아존중감, 부모-애정, 부모-과잉간섭, 공동체의식, 휴대전화의존도, 팬덤활동과 부모의 과잉간섭이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중1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기치인 중1 시점에서 팬덤활동 참여 학생은 팬덤활동 미참여 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이 -1.382 낮게 나타났다($p < .05$).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beta = .123, p < .001$), 부모의 애정이 많을수록($\beta = .160, p < .001$),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beta = .252, p < .001$), 팬덤활동에 참여하면서 부모의 과잉간섭이 높을수록($\beta = .083, p < .01$) 초기치의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의 과잉간섭이 높을수록($\beta = -.047, p < .05$),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을수록($\beta = -.061, p < .001$) 초기치의 학교생활적응이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beta = .002, p = .923$), 다문화수용성 높을수록($\beta = .021, p = .452$), 팬덤활동에 참여하면서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beta = .054, p = .071$), 팬덤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문화수용성이 높을수록($\beta = .034, p = .386$) 초기치의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팬덤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beta = -.055, p = .170$)은 초기치의 학교생활적응이 낮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평균 변화율은 $.841$ 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1$). 이와 같은 평균 변화율이 정적으로 선형증가를 나타내는 것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년 동안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매년 학교생활적응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생활적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팬덤활동 참여,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공동체의식, 휴대전화의존도이며, 이들 변인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팬덤활동에 참여할수록 팬덤활동에 미참여하는 학생보다 변화율에서의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다($\beta = .689, p < .05$). 즉, 팬덤활동 참여 학생은 팬덤활동 미참여 학생에 비해 학교생활적응의 향상도가 매년 $.689$ 높게 나타나, 결국 매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이 $1.53(=.841+.689)$ 씩 높아지게 되고, 고1 시점에서 팬덤활동 참여 학생과 미참여 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차이는 $.685$ 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더불어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beta = .022, p < .05$),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을수록($\beta = .027, p < .001$) 변화율의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beta = -.025, p < .001$),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beta = -.035, p < .05$) 변화율의 학교생활적응은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부모의 애정이 높을수록($\beta = -.016, p = .090$), 부모의 과잉간섭이 많을수록($\beta = -.007, p = .454$), 다문화수용성이 높을수록($\beta = -.009, p = .458$) 팬덤활동에 참여하면서 부모의 과잉간섭이 많을수록($\beta = -.006, p = .650$), 팬덤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beta = -.026, p = .168$), 팬덤활동에 참여하면서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beta = -.018, p = .209$), 팬덤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문화수용성이 높을수록($\beta = -.001, p = .962$) 변화율의 학교생활적응이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영향요인 효과

고정 효과	계수	표준오차	t-통계치	유의확률
초기치				
절편 (β_{00})	5.914	.536	11.025 ***	<.001
팬덤활동 참여 (β_{01})	-1.382	.686	-2.013 *	.044
자아존중감 (β_{02})	.123	.015	8.037 ***	<.001
자아정체감 (β_{03})	.002	.020	.096	.923
휴대전화의존도 (β_{04})	-.061	.013	-4.610 ***	<.001
부모-애정 (β_{05})	.160	.019	8.037 ***	<.001
부모-과잉간섭 (β_{06})	-.047	.032	-2.285 *	.022
공동체의식 (β_{07})	.252	.029	8.700 ***	<.001
다문화수용성 (β_{08})	.021	.027	.752	.452
팬덤활동*자아정체감 (β_{09})	-.055	.039	-1.374	.170
팬덤활동*부모-과잉간섭 (β_{010})	.083	.029	2.811 **	.005
팬덤활동*공동체의식 (β_{011})	.054	.030	1.808	.071
팬덤활동*다문화수용성 (β_{012})	.034	.039	.866	.386
변화율				
절편 (β_{10})	.841	.257	3.275 ***	.001
팬덤활동 참여 (β_{11})	.689	.329	2.093 *	.037
자아존중감 (β_{12})	-.025	.007	-3.450 ***	<.001
자아정체감 (β_{13})	.022	.009	2.246 *	.025
휴대전화의존도 (β_{14})	.027	.006	4.214 ***	<.001
부모-애정 (β_{15})	-.016	.009	-1.698	.090
부모-과잉간섭 (β_{16})	-.007	.009	-.750	.454
공동체의식 (β_{17})	-.035	.013	-2.509 *	.012
다문화수용성 (β_{18})	-.009	.013	-.743	.458
팬덤활동*자아정체감 (β_{19})	-.026	.019	-1.378	.168
팬덤활동*부모-과잉간섭 (β_{110})	-.006	.014	-.454	.650
팬덤활동*공동체의식 (β_{111})	-.018	.014	-1.257	.209
팬덤활동*다문화수용성 (β_{112})	-.001	.018	-.048	.962
무선효과	분산	표준편차		
1수준 잔차	1.758	1.321		
학교생활적응 초기치 (γ_{00})	.637***	.798		
학교생활적응 변화율 (γ_{10})	.078***	.279		

* $p<.05$, ** $p<.05$, *** $p<.001$

V. 논의 및 결론

청소년은 단조로운 삶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문화적 실천을 경험하고, 대중문화의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서 자리매김하였다(임재민, 김대현, 2016). 청소년의 대중문화는 삶의 맥락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기에 그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중심에는 팬덤활동이 있다(정현주, 2016). 이러한 관심에서 대부분 선행연구들은 팬덤활동의 효과성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이를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과학 분야에서 비실험연구는 팬덤활동 참여 자체의 순수한 효과 검증을 위한 두 집단 간 사전 동등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이는 곧 선택 편이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으며, 연구결과의 해석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뒤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경향점수 매칭방법을 이용하여 팬덤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선택편의를 제거한 후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경향점수 매칭 분석에 앞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대되는 개인, 가정, 또래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공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팬덤활동 참여집단(처치집단)과 미참여집단(통제집단)에 따른 공변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공변인의 차이가 나타났음을 검토한 후, 경향점수 매칭을 실시하여 두 집단 간 동등성이 갖추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진행의 절차에 따라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집단과 미참여집단 간 특성의 동등성 확보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를 활용하여 4차년도(2013) 중학교 1학년부터 5차년도(2016)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4개 시점에 걸쳐 학교생활적응의 변화 추적과 더불어 팬덤활동 참여 및 개인, 가정, 학교 요인들의 종단적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층성장모형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및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팬덤활동 참여 및 개인, 가정 지역사회 요인이 팬덤활동 참여가 초기치인 중1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팬덤활동 참여, 자아존중감, 휴대전화의 존도, 부모의 애정, 부모의 과잉간섭, 다문화수용성, 팬덤활동 참여와 부모의 과잉간섭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팬덤활동 참여 학생이 팬덤활동 미참여 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이 낮았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안은미 외, 2012; 조안나 외, 2016; 조영임, 이숙, 2011)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팬덤활동의 과도한 몰입으로 학습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학교내 생활보다는 스타의 팬미팅, 스타와 관련된 영상에 몰두하기 때문에 스타에 관한 생각이 가득차 있다는 정재민(2010)의 연구결과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초기의 관심은 학교내 생활보다는 스타의 자료를 검색하고 영상을 시청하며 콘서트 티켓 예매 및 참석하기 등 온·오프라인의 팬덤활동이 일상을 차지하기에, 팬덤활동 참여의 중1 학생이 팬덤활동 미참여 중1 학생보다 낮은 학교생활적응의 결과를 보였다. 즉, 학교생활적응이 낮게 나타난 팬덤활동 참여의 중1 청소년은 중학교라는 새로운 학교급의 변화로 학교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측면과 팬덤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두가지 측면의 괴리에서 나타날 수 있

는 현상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았다. 이는 자기를 존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청소년일수록 학교 내 교우 및 교사관계에 원만하고,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며, 학습 활동도 성실히 수행한다(이경남, 2003; 이경상, 2011).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부적응을 낮추고 학교생활적응을 더욱 높여준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다. 휴대전화의존도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낮게 나타났다.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은 학생은 낮은 집중력으로 인하여 학교생활 부적응을 초래한다는 이희정(2015)의 연구결과와 같이 휴대전화의 의존적 사용이 학교생활적응을 낮추는 변인이라는 이은정 외(2012), 김근순과 김은미(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가정요인의 변인들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의 의견 존중과 애정의 관심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학교 생활적응이 높았다. 반면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 대한 관심을 넘어 과도한 간섭으로 이어질수록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이 낮았다. 부모와의 관계는 사회적 관계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김정현, 2008), 부모의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을 기반으로 긍정적 학습활동으로 이어지지만, 부모의 과잉간섭은 자녀의 사고와 생각, 활동범위를 축소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김현주와 홍상환(2015)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결국,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칭찬과 같은 지지의 표현은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 학교생활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과잉간섭만을 경험한 학생보다 팬덤활동에 참여하면서 부모의 과잉간섭이 높은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억압과 지나친 통제 및 간섭에서 오는 답답함을 팬덤활동 참여로 승화하여 부모와의 부정적 상황을 완화시키기에 더 높은 학교생활적응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부모의 과잉간섭의 양육 태도를 보인 청소년은 팬덤활동 참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억압된 상황을 스스로 벗어나고, 학교생활 을 보다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이고,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와 부모의 과잉간섭 간 상호작용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사회 요인에서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 과 수용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다는 선행연구(김영춘, 2014; 오경화, 2011)와 일치하 였다. 이는 다문화 수용도가 높은 학생들의 경우 타문화에 대한 이타적이기에 학교생활에서도 열린 사고와 마음으로써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팬덤활동 참여 및 개인, 가정, 지역사회 요인 을 검증한 결과, 팬덤활동 참여와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휴대전화의존도,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 적응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덤활동 참여에 따른 변화가 양의 수로 나타났으며 팬덤활동 참여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의 증 가폭이 팬덤활동 미참여 학생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학교생활적응과 팬덤활동 참여의 초기치 와 변화율에 효과를 동시에 해석해야 한다. 즉 팬덤활동에 참여한 경우 초기, 즉 중1시점의 학교생활 적응 정도가 음의 수로써 낮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의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1 시점에서 팬덤활동 참여 학생은 팬덤활동 미참여 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팬덤활동 참여가 정서적 위로와 스트레스 해소 계기를 마련해 주며(전종희, 2005),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학습하면서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조안나 외(2016)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새롭게 알 수 있었던 것은 팬덤활동 참여의 영향력이 지속적이라는 것이다. 팬덤활동 참여가 얼마 안 되었을 때, 즉 중1시점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이 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율의 효과가 큰 폭으로 나타나 팬덤활동 참여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발달에서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은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휴대전화의존도이다.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의 경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변화를 감소시켰지만,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변화를 증가시켰다. 또한,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변화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소년은 사회적 규준이나 가치관 형성에 확고함은 학교생활적응을 높게 하고, 휴대전화를 통한 교우관계 확대로 학교생활적응의 변화를 높게 한다는(김채환, 2015) 선행연구 결과(좌현숙, 2012)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발달에서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요인은 공동체의식이며,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의 변화를 낮췄다. 청소년기의 공동체의식의 발달은 학교내 규칙준수와 건설적 교우관계를 형성시킨다는 선행연구(김영춘, 2014; 조안나 외, 2016)와 불일치한 결과다. 앞서 제시된 청소년의 개인 요인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요인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발달에 높고 낮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의 애정과 부모의 과잉간섭, 팬덤활동 참여와 부모의 과잉간섭의 상호작용의 가정요인들은 초기치에서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지만, 변화율에 대해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다문화수용성, 팬덤활동 참여와 자아정체감, 팬덤활동 참여와 공동체의식, 팬덤활동 참여와 다문화 수용성은 초기치와 변화율에서 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와 교육현장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단위 대규모 패널자료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4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1 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학생의 팬덤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특히, 무선헌당이 불가능한 종단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선택 편이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향점수 매칭방법을 실시한 후, 다층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팬덤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종단적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팬덤활동 참여와 학교생활적응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 초기에 낮은 학교생활적응과 다르게 학교생활적응 성장이 증가함으로써 팬덤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응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과거와 다르게 청소년의 팬덤활동은 그 규모와 활동면에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팬덤활동 참여자들은 팬클럽 자체에서 실시하는 스타의 이름으로 된 숲 조성하기, 스타와 함께 기부하기 등(뉴스포스트, 2016.9.17;

비즈니스리포트, 2017.5.18.)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감을 학습한다. 즉, 이러한 활동 참여는 다양한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고, 지식을 나누며, 의사소통함으로써 공동체적 가치를 학습하기에 학교생활적응 발달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팬덤활동에 참여하면서 부모의 과잉간섭이 과도한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난 것은 팬덤활동 참여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서 벗어나 공통의 주제와 목적으로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팬덤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편견, 즉 청소년만의 독특한 문화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팬덤활동 참여를 체험활동의 한 영역으로 인정함으로써, 전문분야에서 충분한 소양을 갖추고 다양한 지식을 두루 겸비한 인재로서 발전을 위한 역량함양의 활동으로 이해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팬덤활동을 통해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심미적 감성역량, 의사소통 역량 등을 함양할 수 있음을 기대해 보며, 이들의 역량과 팬덤활동 참여의 관계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적응의 다채로운 연구를 축적하여 교육적 의미를 되새기는 후속연구의 진행의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팬덤활동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 학교 안과 밖의 경계를 구분 가능한 자정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현장의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수란 (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1), 1-26.
- 김경선, 김영식, 정소라 (2014). 경향점수 매칭과 재발사건생존분석을 활용한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의 직업유지 효과 분석. **장애와 고용**, 24(1), 83-109.
- 김고운, 김정운, 박정열 (2009). 팬덤 속 여가 즐기기: 1 인 미디어 운영자들의 팬활동을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6(3), 85-116.
- 김금순, 김은미 (2015). 청소년의 정서문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의존을 매개효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38, 33-57.
- 김미진, 정옥분 (2010).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17(4), 69-88.
- 김석기, 서경화 (2011). 스포츠 팬덤문화의 여성화. 움직임의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9(1), 61-75.
- 김선숙 (2013). 청소년 팬덤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6), 167-176.
- 김수린, 유조안 (2014). 빈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 궤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9, 153-175.
- 김영춘 (2014). 또래애착,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도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9), 321-331.
- 김영춘, 정민숙 (2012).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3, 51-70.
- 김용석 (2011). 팬클럽에서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에 관한 연구. **시민청소년학연구**, 2(1), 101-142.
- 김정진 (1996). **대중문화에 대한 초등학교 아동의 견해와 수용실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현 (2008). 청소년기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부모와의 관계를

-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3(4), 161-183.
- 김진아 (2016).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도 간의 종단적 관계. **상담학연구**, 17(2), 303-326.
- 김창남 (1995). **대중문화와 문화실천**. 서울: 한울.
- 김채환 (2015).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서언론**, 17, 59-96.
- 김현숙 (2015). 한부모가족의 소득, 양육태도, 교육적 지원, 학교적응의 종단적 관계. **어린이재단 연구논문 모음집**, 2015, 49-97.
- 김현주, 임영식, 오세진 (2000). 청소년 우상화 현상과 예측변인, 학교생활과의 관계. **가족과 문화**, 12(1), 31-52.
- 김현주, 홍상황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6(1), 413-429.
- 김희수, 윤은중 (2004).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의 행동과 애착안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5(2), 93-115.
- 노미화, 허미정, 최연실 (2015).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2), 119-134.
- 뉴스포스트 (2016.9.7). 기부계 '큰손' 팬덤문화의 진화.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49570>에서 2017년 8월 4일 인출.
- 문은식 (2015). 중학생의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22(1), 21-35.
- 민정석 (2008). 자아 존중감에 대한 경향점수를 이용한 평준화 효과 분석. **교육평가연구**, 21(3), 1-21.
- 민병철, 박소영 (2010). 외국어 고등학교 학교효과 분석: 성향점수 매칭모형을 활용하여. **한국교육**, 37(1), 147-165.
- 박기원 (2014).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5(1), 1-15.
- 박상현, 김태일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 공급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20(4), 277-307.
- 박신의 (2012). 한류 글로벌 팬덤 현상을 통해 본 문화소통 및 교류의 전망. **문화예술경영**, 2(2), 23-37.
- 박아청, 이승국 (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교육심리연구**, 13(4), 113-142.
- 박종석, 김준엽 (2014). 경향점수를 활용한 남녀공학 효과 분석. **열린교육연구**, 22(1), 139-162.
- 박현정, 김전옥, 손윤희 (2015). 청소년기 공동체 의식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6(4), 105-127.
- 백진아 (2015). 융복합시대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요인과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3(9), 453-461.
- 베르비기에 마티유, 조영한 (2017). 케이팝 (K-pop) 의 한국 팬덤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81, 272-298.
- 비즈니스리포트 (2017.5.18). 팬 문화의 좋은 사례... 빅뱅 태양 팬클럽, 미얀마 우물 기증. <http://www.businessreport.kr/news/articleView.html?idxno=5285>에서 2017년 8월 4일 인출.
- 상경아 (2006). 경향점수를 이용한 결합표집 방법에 의한 사교육 효과 분석. **교육평가연구**, 19(3), 717-735.
- 소은경 (2004). 팬덤현상의 문화커뮤니케이션적 의미에 관한 연구: 윤종신 팬클럽 수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

- 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경순 (2015). **청소년 성별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와 연예인 우상화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미영, 임현정, 임해미, 박혜옥, 구자옥 (2015). PISA 2012 결과에 나타난 성별에 따른 학업성취 영향요인 비교. **교육과학연구**, 46(4), 99-122.
- 신정이, 황혜원 (2006).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생태체계적 보호요인의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13(5-2), 123-154.
- 안은미, 김소희, 전선율, 진성미, 정익중 (2012). 팬덤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8(2), 421-446.
- 오경화 (2011).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성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9), 83-97.
- 오정학, 김철원, 하명희 (201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26(2), 23-40.
- 유진은 (2010). 보조변수를 이용한 다중대체법 시 구조방정식모형의 모형적합도. **교육평가연구**, 23(2), 465-485.
- 윤은중, 김희수 (2005). 청소년의 생활양식 유형과 정신건강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7(2), 105-120.
- 이경남 (200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 논문집**, 11, 197-214.
- 이경상 (2011). 청소년 학교부적응의 종단적 변화의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18(12), 131-155.
- 이윤정, 박성옥 (2001). 청소년의 대중음악 인식과 수용에 관한 연구. **자연과학**, 12(2), 91-116.
- 이은정, 이정애, 이화조, 정익중 (2012). 청소년의 휴대폰 활용유형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휴대폰 의존도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4), 189-214.
- 이현림, 천미숙 (2003).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분석. **청소년학연구**, 10(4), 511-541.
- 이화정, 강석복 (2012). 선물조사에서의 무응답처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3(6), 1183-1194.
- 이희정 (2015). 도시 청소년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와 개인,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관련 예측변인. **교육문화연구**, 21(2), 27-56.
- 임수경, 이형실 (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9(3), 169-183.
- 임영식 (2002). 대중 스타에 대한 청소년의 우상화 현상과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9(3), 57-78.
- 임재민, 김대현 (2016). 팬덤 문화의 생산과 수용방식에 대한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42, 315-335.
- 장경진 (2009). 프로슈머로서 인터넷 팬덤 활동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수아, 한윤선 (2016). 청소년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팬덤 활동이 청소년의 학습시간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6, 101-132.
- 전재일, 전현주 (2007).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의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13(3), 225-256.
- 전종희 (2005). **연예인 팬클럽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정서특성에 관한 연구: 가수 '비'의 팬클럽<우박패밀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미영, 문혁준 (2007).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8(5), 37-54.
- 정민우, 이나영 (2009). 스타를 관리하는 팬덤, 팬덤을 관리하는 산업. **미디어, 젠더 & 문화**, 12, 191-240.

- 정재민 (2010). 청소년 팬덤 현상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21(3), 91-119.
- 정현주 (2016). 청소년 팬덤문화에 관한 연구-문화적 실천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4(4), 163-175.
- 조미형, 이정은 (2008). 고등학교로의 진학 과정 (school transition) 에서 학교적응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19(2), 63-86.
- 조아미 (1998). 청소년의 대중가요 가수 우상화 현상에 대한 분석. **청소년학연구**, 5(1), 1-20.
- 조안나, 이은경, 장미경 (2016). 중학생의 팬덤활동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인문학논총**, 40, 201-226.
- 조영임, 이숙 (2011). 중학생의 정서지능, 연예인 우상화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 학회지**, 22(4), 535-547.
- 조은하 (2007). 청소년 게임문화의 이해. **한국콘텐츠학회지**, 5(2), 106-113.
- 좌현숙 (2012). 청소년 학교적응의 중단적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9(6), 1-28.
- 진원원 (2012). **연예인 팬클럽 회원의 심리적 특성과 부모와의 갈등에 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미원, 조현희, 김영아 (2016).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팬덤활동, 공동체 의식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4(9), 349-358.
- 최형임, 문영경 (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5, 189-209.
- 한혜정 (2016).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우울, 학교적응의 관계 : 팬덤 활동 형태 간 다집단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성혜 (2010). 청소년 학교 부적응의 발달궤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7(4), 211-239.
- Fiske, J. (1992). *The adoring audience: Fan culture and popular media*. In Lewis, L. A. (Eds.), *The cultural economy of fandom*(pp, 30-49). Psychology Press.
- Huat, C. B. (2010). Korean pop culture. *Malaysian Journal of Media Studies*, 12(1), 15-24.
- Little, R., & Schenker, N. (1995). *Missing data*. In G. Arminger, C. C. Clogg, & M. E. Sobel (Eds.), *Handbook of statistical modeling for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pp. 39-76). NY: Plenum Press.
- Paik, J. (2015).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Fandom Activities in the Times of Converge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Factor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9), 453-461.
-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Vol. 1)*. Sage.
- Raudenbush, S. W., Bryk, A. S., Cheong, Y. F., Congdon, R., & Du Toit, M. (2011). *Hierarchical linear and nonlinear modeling (HLM7)*. Lincolnwood, IL: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 Rosenbaum, P. R., & Rubin, D. B. (1985). Constructing a control group using multivariate matched sampling methods that incorporate the propensity score. *The American Statistician*, 39(1), 33-3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illiams, J. P., & Ho, S. X. X. (2016). "Sasaengpaen" or K-pop Fan? Singapore Youths, Authentic Identities, and Asian Media Fandom. *Deviant Behavior*, 37(1), 81-94.

아동 및 청소년의 자기조절 학습능력과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조민규*

국 문 초 록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있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동일시점의 변인을 다루고 있어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이론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 극복을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7차년도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자기조절학습능력(동기조절, 행동조절), 우울, 학교생활적응 사이의 상호관계를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두 모형 모두에서 종단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결과, 동기조절 학습능력 변화율이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우울의 변화율은 종단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우울이 높아질수록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동기조절능력은 낮아졌으며,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우울은 높아졌다. 셋째,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동기조절능력이 높아질수록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우울은 낮아졌으며,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동기조절능력은 높아졌다.

주제어: 잠재성장모형,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자기조절학습능력, 우울, 학교생활적응

I. 서 론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한 발달 및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김지현, 2010). 중학생이 되는 시점에 청소년들은 현격한 신체적 변화 및 심각한 심리적·정서적 성숙과 인격완성을 위한 심리적 변화와 격동을 치르는 시기로서(정혜경, 2001),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심리적 부적응 상태에 빠져들어 반사회적 행동을 대표하는 비행을 비롯한 흡연, 음주 문제와 같은 다양한 행동문제로 나타나게 된다(Catalano, Haggerty, Oesterle, Fleming & Hawkins, 2004; 김태웅, 2004; 허원빈, 전종설, 2014). 청소년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청소년 비행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그 행위 자체가 극단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할 필요성을 말해

*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주고 있다(장신재, 2014). 따라서, 청소년기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일차적 사회 환경인 학교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 것이다(윤수정, 2012).

학교는 변화하는 제반 환경 내에서 학생들이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이신학, 2003), 자기 자신과 환경 사이에 조화된 관계를 맺도록 자기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하며, 환경에 순응하고 통제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역할(김혜경, 1999)을 한다. 학생의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방법 즉 학교생활적응을 높인다면 개인과 사회 사이의 불균형과 불안증의 긴장은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김지은, 2005). 학교 생활에서 학생이 대인관계나 학교에 규준, 질서 등에 있어서 적절하고 조화 있는 행동이 이루어 질 때 청소년들의 심리적 부적응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문제는 감소될 수 있다는 김지혜(2017)의 연구결과는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관련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생활적응을 예측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있다(Miech, Essex & Goldsmith, 2001). 자기조절학습능력이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현재 즐거움과 순간적인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는 능력(Kopp, 1982)으로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적응적이고 융통성 있는 방법으로 외부의 자극에 대한 자신의 행동 및 사고, 감정을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Pintrich & De Groot, 1990). 구성요소는 크게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인지적 영역은 학습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목표 세우기 또는 모니터링 등의 구체적인 인지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능력의 사용은 학습자료에 대한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해를 도와준다(Prince, 2004). 동기적 영역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성취가치(Garcia & Pintrich, 1994) 및 숙달목표(Ames, 1992)를 이루기 위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아동이 더 많은 노력과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학습동기를 유지·조절하는 노력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요소이다(Schunk, 1994; Zimmerman, 2008). 특히, 동기중심의 자기조절능력은 자기효능감을 지각하게 되는 근간을 만들어내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Caprara et al, 2008; Schunk & Zimmerman, 2012). 행동적 영역은 학습환경의 통제와 활용, 시간관리 등 자원관리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이라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은 학업성취와 매우 깊은 관련을 가진다(Pintrich, 2000).

인지중심의 학습전략을 사용하기 위해 동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Pintrich와 Marx, Boyle(1993)의 연구결과는 인지요소보다는 동기적 요소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또한, 동기(motivation)는 목표를 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하지만 일단 목표가 정해진 후 그것을 해결하고 지속시키는 능력은 바로 행동통제이다(Fernald & Kuhl, 1987). 동기중심 연구가 인지적 측면을 설명해줄 수 있지만, 이러한 동기만으로는 행동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양명희,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 학습능력에서 동기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을 중심으로 관련 변인들 간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자기조절능력은 학업성취를 비롯한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와 같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심혜숙, 황경진, 2013). 외부의 감시나 감독 없이도 자신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주시하고 조화롭게 만들어 갈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발달은 환경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Dishion &

Connell, 2006), 이러한 능력이 높을 경우 교사나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학교공부와 교내생활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전반적인 학교적응 수준을 높이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지연, 백정빈, 2008)에서 학교생활적응 예측을 위한 요인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한 후에도 학교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는 Miech와 Essex, Goldsmith(2001)의 연구결과는 학교생활적응과 자기조절학습능력 변인 간 관련성 연구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학교생활적응을 예측하기 위한 또 다른 요인으로 청소년의 불안 및 우울, 위축, 신체증상과 같은 내적인 심리적 문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정민, 송수지, 2014). 우리나라 12-16세 청소년에게서 주로 보이는 문제행동 유형은 공격성, 불안, 사회적 위축, 우울 등이 있는데(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2001), 청소년기에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증가하는 부정적인 행동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울이다. 특히, 이러한 우울은 청소년들의 비관적 생각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경우 학습장애나 자살, 약물남용, 비행등의 심각한 행동문제를 초래하게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김소라, 2014; 박진아, 2001). 나아가, 청소년기 우울은 사회·심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즉각적인 영향력을 비롯한 장기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우울증상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이순희, 허만세, 2015).

우울성향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들은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고 일상의 즐거움과 흥미를 느끼는 것이 부족하며, 만성적 피로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업수행 및 학교생활적응에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강승희, 2010; Chen & Li, 2000). 또한, 청소년의 우울은 학교생활 전반을 비롯한 학교공부, 학교교사, 학교친구와의 관계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김명식(2008)의 연구결과와 우울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최경일(2012)의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우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생활적응을 예측하는 변수로 작용하는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우울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면 상호 간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심연흠, 2015; 한혜정, 2015).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을수록 우울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손승아, 안경숙, 김승경, 2006; 정정애, 2010; 노덕효, 이숙, 2010)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우울을 예측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들의 인지적·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정서문제가 낮아질 수 있으며(이수진, 신현주, 이지혜, 2014), 중학교 1학년 때의 자기조절능력은 중학교 3학년 때의 정서문제를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허균(2013)의 연구결과는 우울의 예측변수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청소년의 정서는 자기조절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서기(2010)의 연구결과와 정서적 우울과 인지적 우울, 동기적 우울, 생리적 우울이 높을수록 동기조절을 비롯한 행동조절 학습능력이 낮을 수 있다고 보고한 심연흠(2015)의 연구결과는 우울이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부정적인 정서에 해당하는 불안 및 우울이 높을 경우 자기조절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Greenberg, Lengua & Pinderhughes, 1999), 긍정적 정서를 가질 경우 자신

들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더욱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Vlahoic Steic와 Vidovic, Arambasic(1999)의 연구결과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원인변수로 우울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울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은 낮은 자기조절능력을 가진다는 권혜미(2013)의 연구결과 또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원인변수로 우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우울은 각각의 영향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변인 간 상호영향력을 검증하여 각각의 경로에서의 유의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울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기조절학습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조절 학습능력 전체 요인값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이은숙, 2011; 한혜정, 2016), 하위요인 관련 연구로는 인지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 학업성취도(심현, 2017) 및 학습관련 연구(이승훈, 박용한, 2016)가 진행되어 왔다. 자기조절학습능력 관련 연구에서 동기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Schunk와 Zimmerman(2012)의 연구결과처럼 다양한 차원적 관련 영향력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동기적 차원 및 행동적 차원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차원의 조절능력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영향력 차원을 횡단적 시점이 아닌 종단적 시점으로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변인을 발견하는 기초자료로 더욱 정확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

종단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면 효과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시간에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수 있으며, 효과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Gollob & Reichardt, 1987).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잠재성장모형은 특정한 처치가 이후에 반복적으로 측정된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계 방법이다(Mackinnon, Warsi & Dwyer, 1995). 매개효과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이전 상태를 통제한 후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종단매개효과 검증에 있어서 매우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이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또한,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우울 변인 간 상호인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호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될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방법은 종단적 차원에서의 두 변인 간 방향성을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통계 방법이다. 두 가지 종단적 연구방법은 추후 연구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해 보았다.

연구문제 1. 자기조절학습능력(동기조절, 행동조절) 초기치와 변화율이 우울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우울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동기조절, 행동조절)을 매개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동기조절, 행동조절)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우울을 매개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동기조절, 행동조절)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2,3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7차년도까지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4차, 5차, 6차, 7차 데이터 파일을 통합한 후,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시킨 최종 1,777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2016년_7차)			N(%)
거주지역		서울권	159(8.9)
		경인권	292(16.4)
		대전/충청/강원권	231(13.0)
		대구/경북권	277(15.6)
		부산/울산/경남권	361(20.3)
		광주/전라권	384(21.6)
		제주도	73(4.1)
가정환경특성	가족구성	부모+자녀	1,549(89.7)
		한 부모+자녀	59(3.3)
		한 조부모+자녀	9(0.5)
		한 조부모+부모+자녀	87(4.9)
		한조부모+한 부모+자녀	28(1.6)
	형제자매유무	있음	1,582(89.0)
		없음	195(11.0)
개인특성	성별	남학생	912(51.3)
		여학생	865(48.7)

2. 측정도구

1) 자기조절학습능력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양명희(2000)의 자기조절 학습능력 척도를 김세영(2005)이 재구성한 문항에서 아동·청소년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인지조절과 동기조절, 행동조절(양명희, 2000)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패널조사연구진이 학습에 대한 기본태도와 관련이 깊은 동기조절 및 행동조절 요인으로 분류하여 구성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 식 4점 척도로 각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동기조절과 행동조절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e)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 α 계수는 5차년도 각각 .886(동기조절), .841(행동조절), 6차년도 각각 .882(동기조절), .845(행동조절), 7차년도 각각 .883(동기조절), .847(행동조절)로 나타났다.

2) 우울

아동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개발한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아동·청소년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 식 4점 척도로 각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e)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 α 계수는 4차년도 .893, 6차년도 .904, 7차년도 .899로 나타났다.

3) 학교생활적응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민병수(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아동·청소년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4가지 하위요인을 단요인으로 구성하여 년도 별 값을 측정변수로 활용하여 연구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 식 4점 척도로 각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Internal-Item Consistence)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 α 계수는 5차년도 .881, 6차년도 .865, 7차년도 .856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아동의 우울과 자기조절능력, 학교생활적응 변인 간 시간적 흐름에 따른 영향력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을 적용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방법으로, 단일경로를 가진 매개효과의 경우 부스트랩(Bootstrap)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설계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1)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매개효과 검증모형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동기조절, 행동조절) 초기치와 변화율이 우울 초기치와 변화율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 초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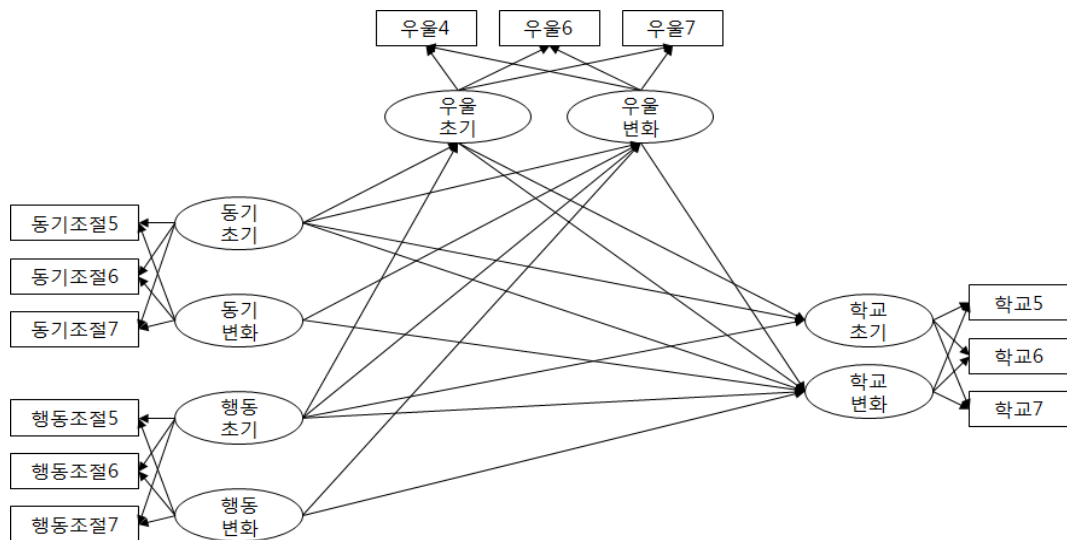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1

2)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매개효과 검증모형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우울변인과 자기조절 변인 간 상호 영향력을 검증해 보았다. 즉, 4학년 아동의 우울이 6학년 아동의 동기조절 및 행동조절을 매개로 중학교 1학년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5학년 아동의 동기조절 및 행동조절이 6학년 아동의 우울을 매개로 중학교 1학년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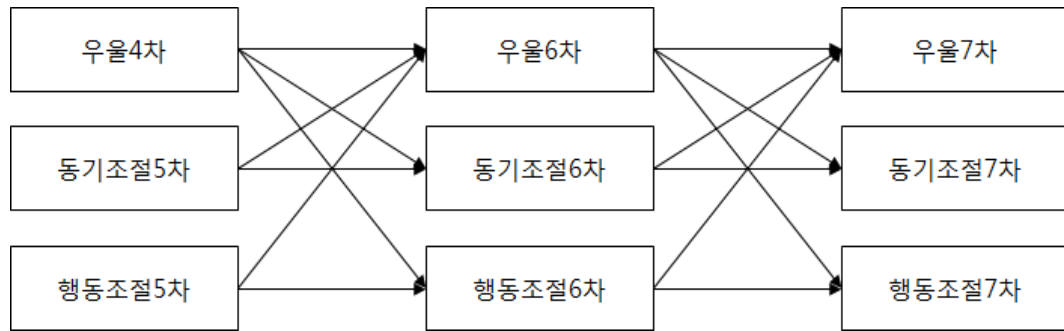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2

Ⅲ. 연구결과

1. 요인 별 시간 추이에 따른 변화양상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동기조절, 행동조절)과 우울, 학교생활적응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각 시점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년도에 따른 평균값을 구하였다. 5차 년도에서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우울변인이 측정되지 않아 4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각 시점별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평균점수에 따른 변화양상은 <표 2>, [그림 3]과 같다.

표 2. 각 변인 별 평균 및 표준편차(N=1,777)

	4차(2013년)	5차(2014년)	6차(2015년)	7차(2016년)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우울	3.532(.509)	X	3.348(.566)	3.328(.551)
동기조절	X	1.677(.477)	1.745(.473)	1.866(.512)
행동조절	X	2.072(.518)	2.167(.519)	2.292(.525)
학교생활적응	X	1.848(.358)	1.897(.372)	1.935(.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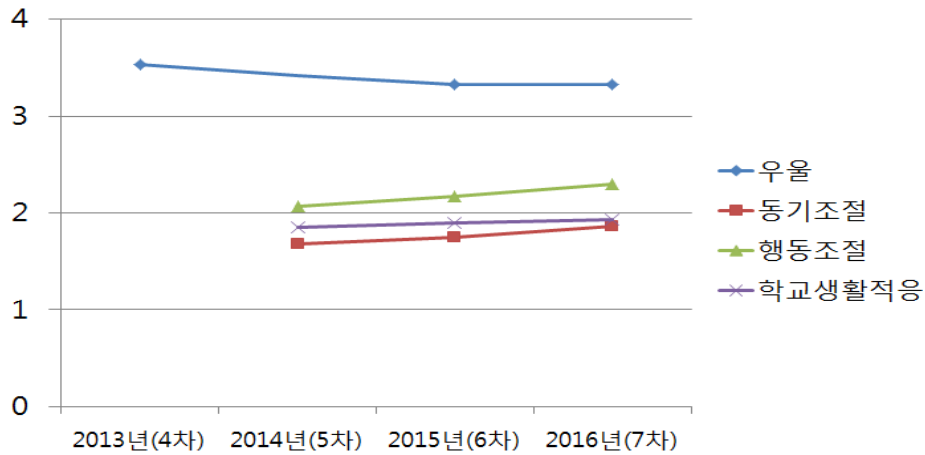


그림 3. 변인 별 평균점수 변화추이

〈표 2〉와 [그림 2]를 통해 평균점수차의 변화과정을 살펴본 결과, 우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자기조절학습능력(동기조절, 행동조절)과 학교생활적응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변인 별 분석모형

자기조절학습능력, 우울, 학교생활적응 변인 간 변화정도를 기초로 관련성을 추정하는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기 전 〈표 2〉에 제시된 세 시점의 평균변화패턴을 바탕으로 각 요인에 대해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적용해 보았다.

표 3. 각 요인의 모형 적합도와 모형에 대한 결과

		χ^2	TLI	CFI	평균		분산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동기조절	무변화	250.480	.810	.857	1.750*		.117*	
	선형변화	6.965	.983	.994	1.709*	.071*	.144*	.026*
행동조절	무변화	255.116	.874	.832	2.210*		.153*	
	선형변화	2.540	.997	.999	2.153*	.087*	.184*	.030*
우울	무변화	337.286	.694	.591	3.414*		.108*	
	선형변화	41.510	.912	.956	3.509*	-.099*	.160*	.047*
학교생활 적응	무변화	116.234	.930	.907	1.896*		.066*	
	선형변화	.692	1.000	1.000	1.912*	.015*	.078*	.013*

세 시점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동기조절, 행동조절)과 우울, 학교생활적응을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에 적용시킨 결과는 〈표 3〉과 같다. 세 시점에서 동기조절과 행동조절, 우울의 무변화모형에서

의 적합도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형변화모형에 적용시킨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조절과 행동조절, 우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학교생활적응은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에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하자면, 아동의 우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자기조절학습능력에 해당하는 동기조절과 행동조절, 학교생활적응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효과검증

각 변인의 잠재성장모형 결과를 토대로 4가지 변인(동기조절, 행동조절, 우울, 학교생활적응) 사이의 관계를 설정한 다변량잠재성장모형을 개발하였다. 요인 별 분석결과에서 모든 모형에서의 변화율은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모든 변인에 대한 초기치와 변화율을 포함시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기저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TLI는 .917, CFI는 .953, RMSEA는 .084(HI: .098, LO: .073)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최종모형 결과는 <표 4>와 같다.

초기치 및 변화율 값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동기조절 및 행동조절 값이 높을수록 우울 값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 값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우울 값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값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동기조절 및 행동조절 값이 증가할수록 우울값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의 동기조절 값이 증가할수록 학교생활적응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목적에 따라 변인들 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스트랩(bootstrap)을 활용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4. 최종모형 1의 모수추정치

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동기_초기치	→	우울_초기치	-.735	.046	-.608
행동_초기치	→	우울_초기치	-.678	.050	-.494
우울_초기치	→	학교_초기치	-.123	.045	-.124
동기_변화율	→	우울_변화율	-2.742	.430	-1.103
행동_변화율	→	우울_변화율	-1.843	.204	-.793
동기_초기치	→	학교_초기치	.446	.032	.544
동기_변화율	→	학교_변화율	.808	.285	1.115
행동_초기치	→	학교_초기치	.252	.023	.350

그 결과, 동기조절 및 행동조절 초기치 값은 우울 초기치 값을 통하여 학교 초기치 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화율 값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동기 변화율 값은 우울 변화율 값을 통하여 학교 변화율 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종단매개효과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동기조절이 증가할수록 우울은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우울은 그들의 학교생활적응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최종모형 1의 매개효과 검증

모수				매개효과(Unstandardized)	
동기_초기치	→	우울_초기치	→	학교_초기치	-.330
행동_초기치	→	우울_초기치	→	학교_초기치	-.178
동기_변화율	→	우울_변화율	→	학교_변화율	-.313

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결과

연구모형 2를 분석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기본모형의 적합도(모형1)를 시작으로, 모형2부터 8모형은 경로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9모형에서 11모형에서는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는 <표 6>과 같다.

모형1(기본모형) 값을 중심으로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성제약을 가한 모형(2, 3, 4)과 매 시점의 교차지연계수에 대한 동일성제약을 가한 모형(5, 6, 7, 8), 마지막으로 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하여 간명성을 추구한 모형(9, 10, 11)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련의 경로동일성, 오차 공분산동일성 검증을 통해 모형 11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모형으로 선정된 모형 11의 각 경로계수 중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경로를 중심으로 제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6.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TLI	CFI	RMSEA
모형1(기본모형)	177.220	13	.922	.972	.074
모형2	177.457	14	.928	.972	.071
모형3	177.599	15	.933	.972	.068
모형4	177.632	16	.938	.972	.066
모형5	177.642	17	.942	.973	.063
모형6	180.948	18	.944	.972	.062
모형7	182.829	19	.947	.972	.061
모형8	189.179	20	.948	.971	.060
모형9	199.433	22	.950	.970	.059
모형10	287.792	24	.932	.955	.071
모형11	289.648	26	.938	.955	.068

동기조절의 이전 상태를 통제하였을 때, 이전시점 우울이 1 더 높아질수록 다음시점 동기조절은 -.076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행동조절의 이전 상태를 통제하였을 때, 우울이 1 더 높

아질수록 다음 시점 행동조절은 $-.068$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우울의 이전 상태를 통제 하였을 때, 이전시점 동기가 1 더 높아질수록 다음 시점 우울은 $-.081$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최종모형 11의 모수추정치

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우울_4차	→	동기_6차	$-.074$	.014	$-.076$
우울_4차	→	행동_6차	$-.073$	.014	$-.068$
동기_5차	→	우울_6차	$-.131$	.022	$-.100$
우울_6차	→	동기_7차	$-.074$	.014	$-.081$
우울_6차	→	행동_7차	$-.073$	.014	$-.080$
동기_6차	→	우울_7차	$-.131$	.022	$-.107$

연구목적에 따라 변인들 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붓스트랩(bootstrap)을 활용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최종모형 11의 매개효과 검증

모수				매개효과(Unstandardized)	
우울_4차	→	동기_6차	→	우울_7차	.240
동기_5차	→	우울_6차	→	동기_7차	.271

첫째,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우울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동기조절은 낮았으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동기가 낮을수록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우울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동기조절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우울은 낮았으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우울이 낮을수록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동기조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울이 높아지면 동기조절이 되지 않아 그들의 우울은 계속 높아질 수 있지만, 동기조절이 잘 이루어지면 우울은 낮아져 그들의 동기조절은 계속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울 변인과 행동조절 변인 사이에서는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하여 종단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의 동기조절이 우울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두 가지 모형 모두에서 종단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동기조절 및 행동조절,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초기치와 변화율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초기치 값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동기조절 및 행동조절은 우울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조절 및 행동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우울은 낮았으며, 낮아진 우울로 인해 학교생활적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자기조절능력이 낮아질수록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높아질 수 있으며(Baumeister, Masicampo & Vohs, 2011), 높은 우울로 인한 부정적 정서반응 표출은 학교교사, 학교친구와의 관계에 문제를 야기 시켜(김명식, 2008; Muraven & Baumeister, 2000) 학교생활 부적응에 이르게 한다(Chen & Li, 2000). 우울은 학교생활적응 요인들 중 교우관계(이은희, 정순옥, 2006) 및 교사관계(박정현, 이미숙, 2014)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교사 및 친구와의 대인관계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자기조절능력이 있는 것이다. 자기조절능력이 높아질 경우 안정성과 사교성, 온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고민정, 2008). 즉, 자기조절능력 향상은 우울을 감소시키며(Beauregard, Paquette & Levesque, 2006), 감소된 우울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은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강승희, 2010)

다음으로, 변화율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아동의 동기조절능력이 더 크게 증가할수록 그들의 우울은 더 크게 감소되었으며, 우울이 더 크게 감소될수록 학교생활적응은 더 크게 증가하였다. 과제수행 수준이 높고 계획하거나 문제해결과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기능에 해당하는 동기조절능력이 높아질 경우 자신이 목표한 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때문에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좋은 대인관계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반응은 감소시키게 한다(Shoda, Mischel & Peake, 1990). 우울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은 부정적 감정을 지니기 때문에 일상의 즐거움과 흥미를 느끼는 것이 부족하지만, 높아진 동기조절능력은 학교생활적응을 비롯한 성인기 사회적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한다(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행동조절이 아닌 동기조절능력이 선행될 경우 그들의 우울은 감소될 수 있으며, 감소된 우울로 인한 학교생활적응력을 증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우울이 높아질수록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동기조절능력은 낮아졌으며, 6학년 동기조절능력이 낮아질수록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우울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우울이 높아질수록 그들의 동기조절 능력은 낮아지며, 낮아진 동기조절 능력으로 인하여 우울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자기주도학습 상황에서는 정서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특히, 긍정적 정서와 정서적 안정은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우울수준이 높을 경우 인지조절을 비롯한 동기조절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Lewis & Haviland Jones, Barrett, 2010). 긍정적 정서를 가진 청소년들은 긍정적 상태를 지속시키려는 동기를 유발하게 되며 즐거운 일을 선호하고 더욱 즐겁게 학습하려는 내적동기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증가하여 그들의 긍정적 정서는 계속 높아지게 되지만(Vlahovic Steic, Vidovic & Arambasic, 1999), 부정적 정서에 해당하는 우울이 높아지면 동기조절능력은 감소되고, 감소된 동기조절능력으로 인하여 그들의 우울은 점점 증가되는 것이다.

셋째,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동기조절능력이 높아질수록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우울은 낮아졌으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우울이 낮아질수록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동기조절능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된 Feldman과 Weinberger(1994)의 4년간 종단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기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은 청소년기 문제행동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논문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청소년은 자신의 성취가치 즉, 동기조절능력을 달성하기 위해 학업에 열중하고 목표한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홍장현, 2015),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조절능력 기능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면 여러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무엇을 이루려는 동기목적과는 반대되는 내재화 문제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적절한 역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 내적문제가 발생하게 된다(Achenbach, 1991). 자기조절능력의 결핍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리를 유발하는 주요한 위험요인임을 강조한 Carver와 Jhonson, Joorman(2008)의 연구는 장기적 차원에서 아동, 청소년기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은 그들의 정서문제를 해결 및 발달 단계 적응을 위한 필수요소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나아가,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청소년들은 음주와 섭식문제(Peluso, Riccadelli & Williams, 1999)를 비롯한 비행과 범죄행동(Longshore, 1998)과 같은 문제행동 수준을 더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긍정적 정서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긍정적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 동기조절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면 더 이상 충동적이고 근시안적인 문제행동에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기효능감이 형성되어 기능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조민자, 2011; 하경은, 2014; Schunk & Zimmerman, 2012).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여 동기조절 및 행동조절, 우울의 이전 시점 상태를 통제한 후 변인들 간 종단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이전 시점을 통제한 후 동기조절과 우울 간 종단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인 간 상호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하위요인 중 동기적 우울은 동기조절 학습능력 요인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심연흠(2015)의 연구 결과는 종단적 시점에서의 동기적 조절능력을 강화의 중요성을 밝히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즉, 우울감소 및 자기조절학습능력 요인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동기조절 능력을 향상을 위한 교육적 차원의 개입 및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청소년의 우울감소를 비롯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방법을 활용하여 시간에 따른 각각의 변화패턴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변인들 간 변화패턴 관계도 검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둘째,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검증을 활용하여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우울 변인 간 상호인과관계를 검증해 봄으로써, 두 변인 간 어떤 요인이 원인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발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연구인 것이다. 셋째, 자기조절 학습능력 요인 중 아동 및 청소년들의 우울 감소와 학교생활적응 증가를 위해 동기조절학습능력이 매

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추후연구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큰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몇 가지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동기조절 및 행동조절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인지조절 차원의 요인도 살펴본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비롯한 자기조절학습능력, 우울 등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집단 분석을 활용한 연구를 설계한 후 영향력 차이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승희. (2010). 중학생의 부모애착, 우울,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8(3), 1-29.
- 고민정. (2008). **우울성향 여대생의 자기효능감 증진에 대한 즉흥연주 효과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혜미. (2013). **DBT가 우울성향의 청소년들의 우울감, 자기조절,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 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김명식. (2008). 아동, 청소년 상담: 일 도시의 남녀 중학생 우울증 유병율과 우울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2), 645-658.
- 김세영. (2005).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용 유형, 자기 통제력,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소라. (2014). **한부모가족의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우울,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민, 송수지. (2014). 중학생의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5(1), 5-27.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지은. (2005).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현. (2010).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및 지지/통제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경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혜. (2017).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태웅. (2006). **일개 군지역의 중·고등학생 음주실태 및 음주관련 요인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경. (1999).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덕효, 이숙. (2010).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스트레스대처행동이 공격성,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5(1), 85-102.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정현, 이미숙. (2014).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3), 45-63.
- 박진아. (2001). **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과 우울간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승아, 안경숙, 김승경. (2006).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과 심리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1), 127-148.
- 심연흠. (2015). **고등학생의 대인관계, 우울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심현. (2016). **멘토기반 온라인 자기조절학습모형 개발 및 효과**. 순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심혜숙, 환경진. (2013).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과 긍정적 사고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혁신연구**, 23(1), 1-19.
- 양명희. (2000). **자기조절학습의 모형 탐색과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명희. (2002). 자기조절학습 구성변인과 학업 성취와의 관계연구. **아시아교육연구**, 3(2), 47-70.
- 오경자,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 윤수정. (2012). **차 치료프로그램이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효과**.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서기. (2010).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수준, 자기조절능력, 신체적 자기개념, 정서 및 학교생활 만족도의 인과관계 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진, 신현주, 이지혜. (2014). 중·고등학생의 학업자신감, 자기조절학습전략, 학업성취도와 인터넷중독성향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1, 349-374.
- 이순희, 허만세. (2015).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의 종단적 인과관계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7(2), 241-264.
- 이승훈, 박용한. (2016). 협동학습이 농촌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업성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35(1), 119-135.
- 이신학. (2003). **비만아동과 표준체중아동의 신체상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숙. (2011).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외동이와 형제아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희, 정옥순. (200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친구관계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17(2), 213-239.
- 이지연, 백정빈. (2008).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교육논단**, 8(1), 57-78.
- 장신재. (2014). 청소년의 공격성이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정체감의 조절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학교사회복지**, 27, 275-298.
- 정정애. (2010). 아동청소년상담: 부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취목표지향성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3), 1191-1202.
- 정혜경. (2001). 고등학교 청소년의 흡연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대한간호학회지**, 31(4), 610-618.
- 조민자. (2011). 청소년의 자기 조절능력이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 시설환경학회**, 207-214.
- 최경일. (2012). 청소년의 우울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보호요인의 매개효과. **GRI 연구논총**, 14(3), 170-189.
- 하경은. (201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갈등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

- 능력의 매개효과 검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혜정. (2016).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우울, 학교적응의 관계: 팬덤활동 형태 간 다집단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균. (2013). 고차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휴대폰 의존도 변화와 자기조절능력 및 주의집중의 구조관계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9(4), 861-879.
- 허원빈, 정종철(2014). 개인, 인지, 정서요인이 청소년의 흡연량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8(1), 75-104.
-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behavior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mes, C. (1992). Classrooms: Goals, structures,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3), 261-271.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aumeister, R. F., Masicampo, E. J., & Vohs, K. D. (2011). Do conscious thoughts cause behavior?.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2, 331-361.
- Beauregard, M., Paquette, V., & Levesque, J. (2006). Dysfunction in the neural circuitry of emotional self-regulation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Neuroreport**, 17(8), 843-846.
- Caprara, G. V., Fida, R., Vecchione, M., Del Bove, G., Vecchio, G. M., Barbaranelli, C., & Bandura, A. (2008).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role of perceived self-efficacy for self-regulated learning in academic continuance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0(3), 525-534.
- Carver, C. S., Johnson, S. L., & Joormann, J. (2008). Serotonergic function, two-mode models of self-regulation,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what depression has in common with impulsive aggression. **Psychological bulletin**, 134(6), 912-943.
- Catalano, R. F., Oesterle, S., Fleming, C. B., & Hawkins, J. D. (2004). The importance of bonding to school for healthy development: Findings from the Social Development Research Group. **Journal of School Health**, 74(7), 252-261.
- Chen, X., & Li, B. (2000). Depressed mood in chinese children: Development significance for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4), 472-479.
- Dishion, T. J. & Connell, A. (2006). Adolescents' resilience as a self-regulatory process: Promising themes for linking intervention with developmental science.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 1094, 125-138.
- Feldman, S. S., & Weinberger, D. A. (1994). Self Restraint as a mediator of family influences on boys' delinquent behavior: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5(1), 195-211.
- Fernald, A., & Kuhl, P. (1987). Acoustic determinants of infant preference for motherese speech.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0(3), 279-293.
- Garcia, T., & Pintrich, P. R. (1994). **Regulating motivation and cognition in the classroom: The role of self-schemas and self-regulatory strategies**. Self-regulation of learning and performance: Issues and educational application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ollob, H. F., & Reichardt, C. S. (1987). Taking account of time lags in causal models. **Child Development**, 58, 80-92.

- Greenberg, M. T., Lengua, L. J., Coie, J. D., Pinderhughes, E. E., &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1999). Predicting developmental outcomes at school entry using a multiple-risk model: Four American communities. *Developmental psychology*, *35*(2), 403-417.
- Kopp, C. B. (1982).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 A development view. *Development Psychology*, *25*(3), 343-354.
- Lewis, M., Haviland-Jones, J. M., & Barrett, L. F. (Eds.). (2010). *Handbook of emotions*. New York: Guilford Press.
- Longshore, D. (1998). Self-control and criminal opportunity: A prospective test of the general theory of crime. *Social Problems*, *45*(1), 102-113.
- MacKinnon, D. P., Warsi, G., & Dwyer, J. H. (1995). A simulation study of mediated effect measur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0*(1), 41-62.
- Miech, R., Essex, M. J., & Goldsmith, H. H. (2001).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adjustment to school: The role of self-regulation during early childhood. *Sociology of Education*, *74*, 102-120.
- Muraven, M., & Baumeister, R. F. (2000). Self-regulation and depletion of limited resources: Does self-control resemble a muscle?. *Psychological bulletin*, *126*(2), 247-259.
- Peluso, T., Ricciardelli, L. A., & Williams, R. J. (1999). Brief report self-control in relation to problem drinking and symptoms of disordered eating. *Addictive Behaviors*, *24*(3), 439-442.
- Pintrich, P. R. (2000). Pintrich, P. R. (2000). The role of goal orientation in self-regulated learning. *Handbook of self-regulation*, *451*, 451-502.
- Pintrich, P. R., Marx, R. W., & Boyle, R. A. (1993). Beyond cold conceptual change: The role of motivational beliefs and classroom contextual factors in the process of conceptual chang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3*(2), 167-199.
- Prince, M. (2004). Does active learning work? A review of the research.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93*(3), 223-231.
- Schunk, D. H., & Zimmerman, B. J. (Eds.). (2012). *Motiv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Routledge.
- Shoda, Y., Mischel, W., & Peake, P. K. (1990). Predicting adolescent cognitive and self-regulatory competencies from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Identifying diagnostic condi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6*(6), 978-986.
- Vlahoic Steic, V., Vidovic, V. V., & Arambasic, L. (1999). Motivational Characteristics in mathematic a achievement: a study of gifted high achieving, gifted under achieving and non gifted pupils. *High Ability Studies*, *10*(1), 37-49.

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Child/Youth's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Cho, Min-kyu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was to ver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depression, school adjustment among child and youth. Since most of these studies dealing with the variable of the same point in time, there is a limit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the causality.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o 7-year longitudinal data(KCYPS) was collected from child and youth by NYPI. The 4~7th wave annual data were used for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and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In the results from two models, the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s were significant. First, the results analyzed by the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 revealed that motivation-regulated ability(rate of change) and school adjustment(rate of change) were longitudinal mediated through depression(rate of change)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change of school adjustment(rate of change). Second, the result from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showed that the motivation-regulated ability effect of 6th grade student low as the depression of 4th grade student was high, And the depression of 7th grade student became high. Third, the depression effect of 6th grade student low as the motivation-regulated ability of 5th grade student was high. And the motivation-regulated ability of 7th grade student became high.

Key words: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depression, school adjustment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적 긴장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 태도 탐색 및 비행 행동 예측 : 잠재 변수 혼합 모형의 적용

양윤식* · 김수민**

국 문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비행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 중 가장 최신이며 통합적인 이론인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을 바탕으로 잠재 변수 혼합 모형(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을 적용하여 아동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긴장 수준의 개인차를 탐색하고 비행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초4의 6차년도(중3)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람들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긴장의 개인차를 다섯 개의 잠재 계층(Latent Class)으로 분류해 낼 수 있었다. 각 집단들은 긴장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는데 가장 낮은 긴장 수준을 보고한 그룹부터 순서대로 ‘고수준 건강 그룹’, ‘중간수준 건강 그룹’, ‘보통 그룹’, ‘중간수준 긴장 그룹’, ‘고수준 긴장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3가지의 부모 양육 태도(“부정적 양육”, “긍정적 양육”, “학대”)가 자녀들이 겪는 심리적 긴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 세 가지 양육 태도를 잠재 계층을 예측하는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양육 태도의 종류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적 긴장 수준을 예측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잠재 계층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비행 행동은 긴장이 없는 그룹(‘고수준 건강 그룹’, ‘중간수준 건강 그룹’, ‘보통 그룹’)에서는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중간 수준 긴장 그룹’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수준 긴장 그룹’에서는 무 긴장 그룹들에 비해서는 높았지만 오히려 ‘중간 수준 긴장 그룹’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긴장 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비행 행동이 단순하게 선형적인 관계가 아닌 비선형 관계이거나 다른 변수가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개인차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들에게 초점화된 개입의 시사점을 논의하였으며, 적절한 후속 연구 내용과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 비행, 일반긴장이론, 잠재변수혼합모형

I. 서 론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날로 흉포화, 집단화, 저연령화되고 있으며, 성인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박병선, 배성우, 2016). 청소년기의 비행은 성인기가 되어 만성적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을 많은 연구(정주호, 2017; 김준호, 이순래, 1994; 오형석, 2008; 최응렬, 송병호, 김연수, 2006; Howard Abadinsky, 2006; Jessica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May et al., 2014; Michael D, Lyman, Gray W. Potter, 2006; Wolfgang, M. E, T.P. Thornberry, R. M. Figlio, 1987)에서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폭력비행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성인범죄를 예방하는 것과 청소년의 비행을 줄이는 데에 기여하기에 중요하다(정주호, 2017). 그 결과, 자기통제이론 · 사회유대이론 · 사회학습이론 · 일반긴장이론 등 많은 이론들이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각각의 이론들은 청소년의 비행에 대해 저마다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지만(Agnew, 1992, Akers, 1998, Hirschi, 1969), 이론들 간의 설명력을 검증한 연구결과들은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황성현, 이강훈, 2013, Mazerolle & Piquero, 1997; Hoffman & Miller, 1998, Mazerolle & Maahs, 2000). 연구결과간의 불일치는 이들 이론 중에 어떤 이론이 옳고 그르다기보다는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설명해왔던 모형들이 모집단을 하나라고 가정하고 사람들 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질만을 강조하는 변수중심 접근을 취하기에, 개인차와 독특한 성질을 무시해서 나타난 한계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Bergman & Magnusson, 1997; Gabriel, Daniels, Diefendorff & Greguras,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비행행동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통합하는 성격을 지니며 개인의 심리적 변인을 강조한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을 바탕으로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변수들을 변수중심 접근법(Variable-centered Approach)이 아닌 사람중심 접근법(Person-centered Approach)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개인차를 밝히려 한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들 각각에 대한 초점화된 개입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에는 그 원인을 사회제도 또는 사회구조적 왜곡과 모순으로 보는 거시적 관점과, 청소년이 속한 가족이나 개인의 환경적 측면으로 보는 미시적 관점(사회유대이론, 사회학습이론) 그리고 청소년이 어떤 사회구조적 또는 개인 환경적 측면에 처해 있더라도 스스로 비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는 심리적 관점(일반긴장이론)이 있다(황성현 & 이강훈, 2013). 최근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은 목표달성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발생으로 인해 긴장이 생기고, 긴장이 여러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하여, 청소년들이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른다고 주장했다. 이는 Merton이 제시했던 구조적 긴장(하층청소년들이 구조적 제약에서 경험하는 긴장과 좌절)이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기에는 한계점이 많다는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고안된 것으로, 하층 청소년 이외에 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긴장을 비행의 원인으로 확장하였고, 긴장 요인 뿐 만 아니라, 그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적 감정도 긴장과 비행행동을 매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다루었다(이성식, 2003).

Agnew는 긴장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크게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긍정적 목표성취의 실패’다. 이는 기대와 가능성 간의 차이, 기대와 실제 성취 사이의 차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와 실

제 결과 사이의 차이로 발생하는 긴장을 말한다. 두 번째로, ‘긍정적 자극의 소멸’은 개인에게 중요한 사물이나 사람의 상실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부모의 사망, 또래 친구들로부터의 버림받음, 전학, 이사 등과 같은 변화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자극의 발생’은 비행을 설명하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긴장으로, 주로 학대경험, 신체적 처벌의 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 등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긴장 유형(김재엽 외, 2008)이다. 국내 연구에서는,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정소희, 2007, 김준호 외, 2002), 가정에서의 학대경험(신선인, 2008, 기광도, 2011)과 학교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명신, 2002)이 유의미한 긴장요인들로 확인되었으며, Agnew가 긴장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으로 제시한 분노,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에 대해서도 연구들(진혜민, 배성우, 2012, 이근복, 정우석, 2007, 김영미, 2016, 이석영 외, 2015, 서인균, 이연실, 2016, 김재엽 외, 2008)이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스트레스와 우울의 매개효과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은주, 2015; 김재엽 외, 2013; 우채영 & 정현희, 2013).

한편, 일반긴장이론은 다른 비행이론들을 통합한 이론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 이론은 긴장 및 부정적 감정만을 비행의 요인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다른 이론들(사회통제이론,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 일반이론(자기통제이론))에서 강조된 요인들을 자신의 논의와 모델 속에 포함시켰다. 일반긴장이론에 따르면, 일상긴장에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해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아이들이 누구나 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에서만 그렇다고 보았으며, 그 조건적 변인들로 사회유대(부모와의 낮은 애착, 학교공부에서의 낮은 관여 등), 차별접촉 / 사회학습이론 (비행 친구와의 접촉), 사회통제이론과 사회학습이론(위반에 대한 긍정적 태도(혹은 낮은 도덕적 신념)), 일반이론/비행 성향론(개인성향(낮은 자기통제력이나 높은 충동성 등), 스트레스 연구(낮은 사회지원, 낮은 자긍심(또는 자기 효능감)) 등을 제시하고 있다(이성식, 2003). 이처럼 일반긴장이론은 많은 변수들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이론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청소년패널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들에서도 학교긴장요인이 청소년지위비행과 깊은 상관관계를 보였고(송아영 외, 2009), 청소년 비행에 부모긴장, 학교긴장, 외모긴장, 분노감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런 긴장을 겪을수록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 등 일반긴장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들을 보였다.

자녀가 겪는 심리적 긴장을 부모의 양육 태도와와의 관련성을 통해 탐색할 수도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형성과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하며, 행동규범, 가치, 도덕성 등 사회화 과정을 획득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정주호, 2017; 박주희, 2001; Hammer & Turner, 2001). 또한,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초기의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성격과 정서상태)에 영향을 미치고(소선숙 외, 2010), 특히 부모의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다양한 문제행동 및 정신병리와 연관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소선숙 외, 2010; 허묘연, 2004). 예를 들어, 부모의 폭력적 양육행동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우울이나 위축 같은 다양한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학대를 받은 청소년은 학대를 받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공격성과 우울이 높아졌다고 보고되었다(정주호, 2017; 이응택, 이은경, 2012; 정익중, 2008; 백혜정, 황혜정, 2006; 문경주, 오경자, 2002). 즉, 부모의 양육에 따라서 아동청소년들이 느끼는 긴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역시나 긴장과 관련되어 있다. 긴장이론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여러 긴장요인들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인 정서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대처 방식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잘 통제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의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박현선, 이상균, 2008), 낮으면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등 자아존중감을 긴장요인과 관련이 높은 변인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분석에 포함하였다(Owens, 1994).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들의 긴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청소년들의 긴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기대되는 비행행동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때, 개인차를 밝혀낼 수 있는 사람 중심 접근법(Person-centered Approach)의 방법론인 잠재변수혼합모형(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을 활용하여 같은 양육 태도를 받더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독특한 정서적 상태와 심리적 긴장과의 관계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진 독특한 심리적 긴장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비행 행동을 결과 변수(Distal outcome)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아닌 사람들마다 독특하게 나타나는 반응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통해, 더욱 더 세분화되고 초점화된 개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방 법

1. 데이터 및 측정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조사(KCYPS) 초4의 6번째 측정 자료인 2015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전체 2378명의 패널 중 중도 탈락한 317명을 제외한 2061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패널데이터 수집에 사용된 변수는 총 107개(563문항)이었으며, 그 중에서 본 연구 목적에 맞는 변수 14개(121문항)를 선정하여 예비분석을 하고, 분석결과 동일한 범주 내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변수들을 하나의 변수로 통합해 총 10개의 변수로 본 연구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은 정서문제 6개(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자아존중감), 비행 행동 횟수(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조롱, 왕따, 패싸움, 폭행, 협박, 금품갈취, 절도, 도박, 성관계, 성희롱 및 폭행), 부정적 양육 3개(과잉간섭, 과잉기대, 비일관성), 긍정적 양육 3개(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학대 2개(학대, 방임)의 변수로 이루어졌다. 정서문제는 조봉환,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 김선희, 김정연(1998)이 개발한 척도, 간이정신진단검사 중 우울척도,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를 활용하였고, 비행은 한국청소년패널 조사(KYPS)의 일탈 및 비행관련 문항을, 긍정 및 부정양육은 허묘연(2000)이 제작한 부모양육태도 검사를, 학대는 허묘연(2000), 김세원(2003)의 아동 학대문항을 활용하였다. 비행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리커트 4점 척도로 측정된 값이고, 비행 행동들은 “1년에 몇 회” 형태로 연속형 변수로 측정되었다.

비행 행동 횟수를 제외한 모든 측정치들은 높은 점수가 해당 속성의 존재함을 나타내도록 문항마다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그 이후 각 변수가 가진 측정치들의 평균을 해당 변수의 값으로 연구에 활용하였다. 아동청소년들의 정서문제를 나타내는 6개의 변수들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자아존중감” 위에 설명한 것처럼 측정치들이 가진 평균값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과잉간섭”, “과잉기대” 및 “비일관성” 변수들은 부정적 양육이라는 하나의 위계에 속하며 서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기에 세 변수를 평균 내어 다시 부정적 양육이라는 하나의 변수 변환하였다. 같은 원리로 긍정적 양육의 위계에 속하는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역시나 평균 내어 긍정적 양육이라는 하나의 변수로 변환하였다.

여러 종류의 비행 행동들(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조롱, 왕따, 패싸움, 폭행, 협박, 금품갈취, 절도, 도박, 성관계, 성희롱 및 폭행)은 측정치들을 전부 단순 합산하여 “비행”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아동청소년이 행하는 비행 횟수의 총합을 연속형 변수(Continuous variable)로 활용하였다. 새로 만들어진 비행 변수는 평균 1.07, 표준편차 6.50인 분포를 따랐는데 비행 원점수 164점을 평가한 값 1명의 데이터로 인해 모형 적합도 탐색 불가능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에 아웃라이어로 간주하여 제거하였다. 그 결과 분석에는 최종적으로 2060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데이터 핸들링에는 Microsoft 社의 Excel 2016 및 R 3.4.1버전을 사용하였고, 분석은 MUTHEN & MUTHEN 社의 Mplus 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잠재 변수 혼합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2. 분석방법

1) 변수중심 접근법과 사람중심 접근법

심리학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관분석, 회귀분석,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등은 전부 변수중심 접근법(Variable-Centered Approach)의 범주에 속한다. 변수중심 접근법에서는 변수들의 관계가 서로 상관인지 인과인지 상호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주요 연구 관심사로 상정한다(Bergman & Wangby, 2014; Laursen & Hoff, 2006). 표본을 추출한 사람들은 전부 같은 모집단에 있는 동질적인 사람들이라 가정하고, 모집단 내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공유되는 성질을 밝히는데 요긴하다(Laursen & Hoff, 2006). 하지만, 변수중심 접근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질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원리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학의 대명제인 개인차에 대한 탐색이나,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설명하는 것에는 적합하지 않다(Bergman & Magnusson, 1997).

반면, 사람중심 접근법(Person-Centered Approach)에서는 사람을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여러 요소들의 동적인 결합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사람은 그 사람 자신과 환경이 이루는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면서 능동적으로 기능하며, 환경은 여러 위계를 가졌다고 가정하고, 사람은 환경과 각각의 위계에서 다양하게 상호작용하는 전체론적인 상호작용의 패러다임을 뜻한다(Bergman & Trost, 2006;

Magnusson, 1990). 이런 패러다임은 연구에 있어서 전략 및 방법론 적용 결과 해석 등 거의 모든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데 (Laursen & Hoff, 2006),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수중심접근법과는 다르다. 개인들은 스스로가 전체로써 기능한다고 보기에 개별적으로 분리된 변수들의 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변수들의 패턴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전형적인 패턴을 찾아내어 같은 패턴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하위 그룹을 탐색해내고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Bergman & Wangby, 2014).

2) 잠재 변수 혼합 모형(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LVMM)

개념적으로 잠재 변수 혼합 모형은 변수들의 관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변수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사람을 분석하는 사람중심접근방법의 분석법 중 하나이다(Muthén & Muthén, 1998). 분류된 하위그룹은 그룹별로 다른 그룹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그룹 내에서는 서로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게 된다. 이 때 분석의 절차에 있어서 데이터를 나누는 것은 사상의학이나, 분류학처럼 직관이나 주관적 이해의 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인 통계적 추론의 과정을 거치고 분류한다. 이런 LVMM은 사람중심 접근법의 패러다임을 따르기에, 변수중심접근법과는 다르게 각 개인들은 전부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전부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간에는 유한한 수의 비슷하거나 다른 점을 갖기에, 이를 통해 사람들을 분류하면 유한한 몇 개의 집단으로 사람들을 나눌 수 있다고 여긴다(Berlin, Williams & Parra, 2014; Linzer & Lewis, 2011). 이렇게 나뉜 집단들은 직접 관찰되는 집단이 아니라 데이터에 내재된(Latent) 집단이기에 잠재 계층(Latent Class)이라고 부른다(Collins & Lanza, 2010).

3) 잠재 프로파일 분석 (Latent Profile Analysis; LPA)

잠재 변수 혼합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방법을 정하면 되는데, 우리가 사용한 데이터의 경우는 리커트 4점 연속형 척도를 사용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산형 변수를 사용하는 잠재 계층 분석(Latent Class Analysis)이 아닌 연속형 변수를 사용하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사용 했다(Miettunen, Nordström, Kaakinen & Ahmed, 2016).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응답한 측정치의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최대 가능도(Maximum Likelihood) 기법에 의거하여 가장 적합한 잠재 계층의 숫자를 탐색하게 된다(Collins & Lanza, 2010). 양육 변수(긍정적 양육, 부정적 양육, 학대)가 개인의 정서적 특성(주의집중력, 공격성, 신체화, 사회적 위축, 우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고, 양육 변수 3개를 잠재 계층을 예측하는 변수(Predictor)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비행 행동은 잠재 계층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가정하여, “비행” 변수는 시간적으로 나중에 발생할 결과(Distal Outcome)로 분석을 실시했다. 정리하자면 먼저, 아동청소년들을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몇 개의 잠재 계층으로 분류하였다. 이어서 아동청소년들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를 예측하는 변수(Predictor)가 무엇인지 밝히고, 잠재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비행 행동(Distal outcome)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변수들의 관계를 나타낸 잠재 프로파일 분석

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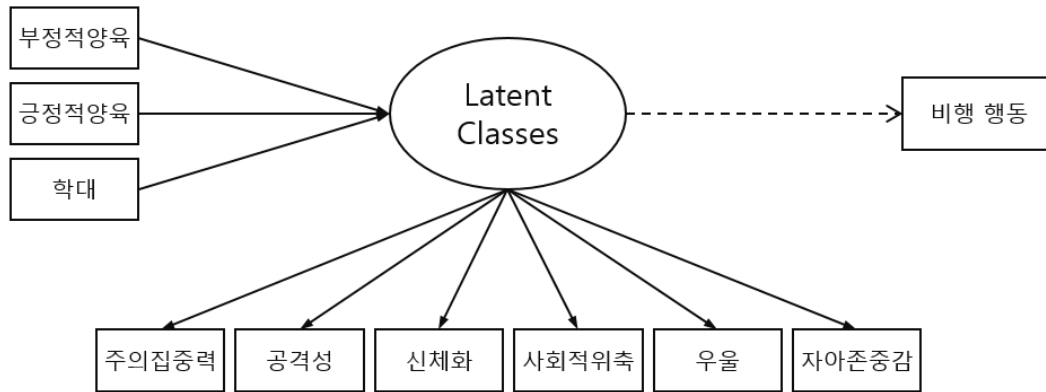


그림 1. 잠재 프로파일 분석 모형

IV. 결 과

1. 기술 통계량

표 1.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M (SD)	2	3	4	5	6	7	8	9	10
1. 주의집중	2.17(0.54)	0.57***	0.37***	0.32***	0.38***	-0.36***	0.12***	0.25***	-0.28***	0.31***
2. 공격성	1.93(0.54)	-	0.56***	0.34***	0.55***	-0.4***	0.14***	0.28***	-0.27***	0.33***
3. 신체화	1.89(0.58)		-	0.4***	0.64***	-0.4***	0.07***	0.21***	-0.26***	0.29***
4. 사회적 위축	2.21(0.74)			-	0.56**	-0.4***	-0.01	0.08***	-0.21***	0.16***
5. 우울	1.78(0.55)				-	-0.65***	0.05*	0.24***	-0.33***	0.34***
6. 자아 존중감	2.99(0.45)					-	-0.02	-0.31***	0.4**	-0.42***
7. 비행행동	0.99(5.42)						-	0.04*	-0.11***	0.11***
8. 부정적 양육	2.20(0.56)							-	-0.26***	0.49***
9. 긍정적 양육	3.09(0.48)								-	-0.59***
10. 학대	1.72(0.45)									-

* $p < .05$, ** $p < .01$, *** $p < .001$

연구에 사용한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피어슨 상관계수는 위의 표와 같다. 대부분의 변수들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사회적 위축과 비행행동의 상관관계($r=.03$, $p=.82$)와 자아 존중감과 비행행동 간의 상관관계($r=-.02$, $p=.32$)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잠재 프로파일 분석 (Latent Profile Analysis; LPA)

1) 심리적 긴장에 따른 잠재 계층 분류

잠재 변수 혼합 모형은 연구자가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아내는 일종의 탐색적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Schmiege, Meek, Bryan & Petersen, 2012), 몇 개의 잠재 계층이 가장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모형이 가진 모형 적합도(Model fit)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2개의 잠재 계층을 가정한 모형부터 6개를 가정한 모형까지 개별적인 분석을 수행했고, 결과는 <표 2>와 같다.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이 추가되면서 모형이 갖는 절대적 적합도인 Log-Likelihood(LL)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 지표인 AIC, aAIC, BIC, aBIC 역시나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 중에서 가장 작은 수치를 나타내는 모형을 사용해야 하지만, 모형 적합도의 적용은 단순히 수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간명성(Parsimony), 이해가 쉬운 정도(interpretability), 현실을 반영하는 정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Collins & Lanza, 2010).

표 2. 모형 적합도

Class	LL	BIC	aBIC	AIC	AICC	Parameters	VLMR	LMR	Entropy
2	-8812.10	17769.18	17708.82	17662.20	17662.57	19	0.000	0.000	0.828
3	-8365.50	16929.40	16846.79	16783.00	16783.69	26	0.000	0.000	0.863
4	-8164.53	16580.87	16476.02	16395.06	16396.17	33	0.001	0.001	0.820
5	-8036.24	16377.70	16250.62	16152.48	16154.11	40	0.011	0.012	0.832
6	-7937.64	16233.92	16084.59	15969.28	15971.53	47	0.162	0.168	0.819

이 경우는 데이터가 갖고 있는 표본의 수가 많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절대적 지표(LL) 보다는 상대적 지표(BIC, aBIC, AIC, AICC)가 더 좋은 모형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상대적 지표들 중에서도 샘플 수에 따라 교정된 지표(aBIC, AICC)들이 더 좋은 모형 적합도를 나타낼 수 있다 (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절대적 지표와 상대적 지표 모두 숫자가 작을수록 타당한 모형을 나타내는 것인데, 절대적 지표와 상대적 지표는 잠재 계층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LL, BIC, aBIC, AIC, AICC 값은 6개의 잠재 계층을 가정한 모형이 더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집단과 비교해서 추가되는 설명량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따지는 VLMR, LMR 값을 보면(Nylund et al, 2007; Lo, Mendell, Rubin, 2001), 6개 계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는, 6개의 잠재 계층의 경우는 5개의 모형에 추가되는 설명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5개 계층이 더 적합한 모형임으로 여겨진다. VLMR과 LMR 값이 상당히 신뢰로운 지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Nylund et al, 2007), 6개 이상의 경우는 추가되는 정보량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모형의 간명성과 이해가 쉬운 정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여기기에 5개 모형이 더 타당한 것이다. 또한 데이터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

내는 Entropy 수치는 1에 가까울수록 데이터를 잘 분류하는 것을 나타내는데(Collins & Lanza, 2010), 6개 모형 보다 5개 모형이 더 높은 값을 가지고 있다. 종합해보면, 절대적인 지표는 6개 잠재 계층 모형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모형의 간명성, 해석 용이성, 데이터 분류의 정확도 등을 다각도로 고려할 경우에는 5개의 잠재 계층을 가정하는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분석에 사용한 2060명의 아동청소년들이 보고하는 다양한 심리적 긴장의 수준을 다섯 개의 패턴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표 3. 5개 잠재 계층 모형에서 문항 반응 프로파일

그룹 명	Latent Class				
	1 고수준 건강 그룹	2 중간 수준 건강 그룹	3 보통 그룹	4 중간 수준 긴장 그룹	5 고수준 긴장 그룹
잠재 계층별 구성원	18.62% (n = 380)	26.40% (n = 544)	43.69% (n = 900)	9.95% (n = 205)	1.51% (n = 31)
주의집중력	1.625	2.174	2.301	2.552	2.629
공격성	1.312	1.830	2.113	2.396	2.808
신체화	1.269	1.676	2.106	2.459	2.929
사회적 위축	1.457	2.072	2.431	2.879	3.389
우울	1.124	1.399	2.031	2.564	3.475
자아존중감	3.434	3.135	2.863	2.483	1.960

〈표 3〉을 보면 1번 그룹은 가장 낮은 주의집중력, 공격성, 신체화, 사회적 위축, 우울을 보고하고 있으며 동시에 가장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고하고 있다. 이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가장 긍정적인 형태의 프로파일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을 “고수준 건강그룹”으로 명명할 수 있다. 1번에서 5번 그룹으로 갈수록 부정적 속성(주의집중력, 공격성, 신체화, 사회적 위축, 우울, 자아존중감)은 높아지고 긍정적 속성인 자아존중감은 감소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3번 그룹은 43.69%(n = 900)의 가장 큰 집단이며 모든 변수들이 중간의 값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되어 “보통 그룹”으로 명명하였다. 2번 그룹은 1번과 3번 그룹 측정치들의 중간 정도를 보고하기에 “중간수준 건강 그룹”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또한, 5번 그룹은 가장 부정적인 속성이 높고 긍정적인 속성인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기 때문에 “고수준 긴장 그룹”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다. 같은 원리로 3번 “보통” 그룹과 5번 “고수준 긴장” 그룹의 중간 정도 속성을 보이는 4번 그룹은 “중간수준 긴장그룹”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다. 한편, “고수준 건강그룹”, “중간수준 건강그룹” 그리고 “보통 그룹”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심리적 긴장이 적거나 없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들은 총 1824명(88.71%)으로 아동들의 긴장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만들어진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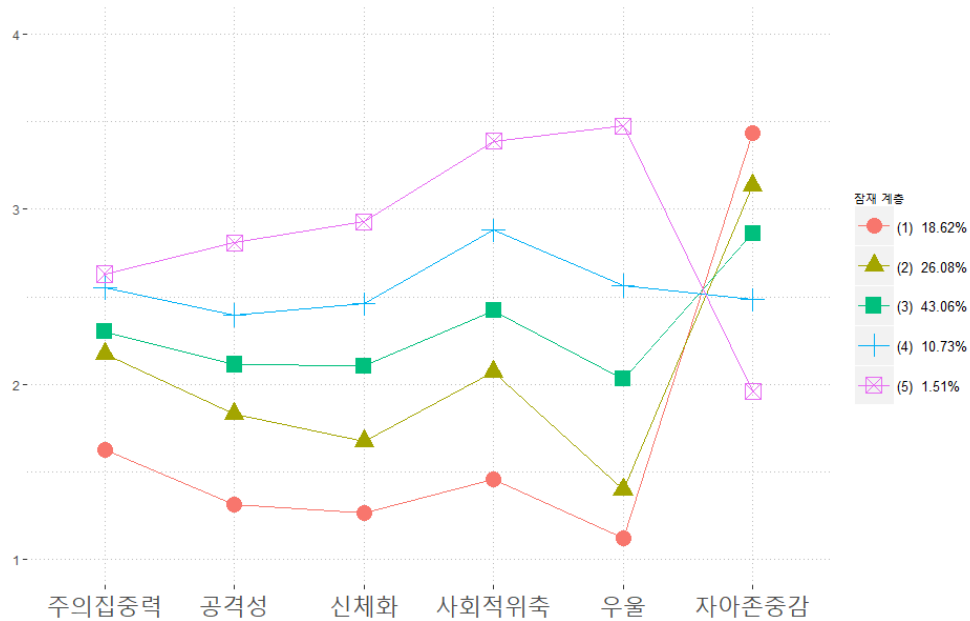


그림 2. 5개 잠재 계층 모형의 문항 반응 프로파일 도표

그래프를 통해서 각 잠재 계층이 다른 계층들과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각 계층들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부정적 속성 (주의집중력, 공격성, 신체화, 사회적 위축, 우울)과 긍정적 속성 (자아존중감)은 정확히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부정적 속성이 높게 나타나면 자아존중감도 낮은 형태를 보이고,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속성들도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 잠재 계층을 예측하는 양육 변수 탐색

표 4. 3단계 기법을 통해 계산한 잠재 계층을 예측하는 변수들의 효과

	1 고수준 건강 그룹	2 중간 수준 건강 그룹	3 보통 그룹	4 중간 수준 긴장 그룹	5 고수준 긴장 그룹
<i>Intercepts</i>					
Beta ₀	-4.574***	1.926	ref	-0.349	-6.010**
<i>Coefficients</i>					
부정적 양육	-0.571***	-0.281	ref	0.224	0.227
긍정적 양육	2.085***	0.021	ref	-0.612**	0.141
학대	-1.121***	-1.074***	ref	0.111	0.880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적 프로파일에 따라 예측변수들(predictors)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Mplus 8.0의 R3step 명령어를 활용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결과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서 참조 그룹(reference)으로는 어떤 두드러진 특징이 없는 것으로 기대되는 “보통 그룹”을 선택했다.

여기서 Intercepts에 있는 Beta_0 의 의미는 각 그룹에서 예측변수들(“부정적 양육”, “긍정적 양육”, “학대”)이 0이라고 가정할 때의 값이며,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에서 오즈(Odds)를 의미한다. 그리고 각 계수들의 값에 지수를 취하면 오즈비(Odds Ratios)를 확인할 수 있다.

고수준 건강그룹에서는 3개의 예측 변수들(predictors)의 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부정적 양육이 존재한다면 보통 그룹에 속하기보다는 고수준 건강그룹에 속할 확률이 $\exp(-0.571) = .056$ 으로서 56% 만큼 줄어드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긍정적 양육이 존재할 경우에는 보통보다는 고수준 건강그룹에 속할 확률이 $\exp(2.085) = 8.05$ (805%) 만큼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대의 경우도 부정적 양육과 마찬가지로, 학대가 있다면 보통 그룹보다는 고수준 건강그룹에 속할 확률이 $\exp(-1.121) = .33$, 즉, 3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를 통해서, 부정적 양육과 학대가 없고 긍정적 양육을 받은 아동이라면 보통 그룹이기 보다는 고수준 건강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학대가 없다면 보통그룹이기 보다는 고수준 건강 그룹 또는 중간 수준 건강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을 통해서 아동이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과 심리적 건강 수준의 어떤 연관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중간 수준 긴장 그룹을 보면, 긍정적 양육의 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긍정적 양육이 한 단위 증가하면 보통 그룹이기 보다 중간 수준 긴장 그룹에 속할 확률이 절반 정도로 (54%: $\exp(-.612) = .54$)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긍정적 양육의 부재를 아동 청소년들이 중간 수준 긴장 그룹에 속할지 탐색하는 예측 변수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수준 긴장그룹을 보면, 세 가지 지표들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준 긴장그룹은 양육 태도와의 관련성 보다는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더 잘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위 결과들을 종합하면 부정적 양육, 긍정적 양육, 학대의 세 가지 예측 변수들이 잠재 계층을 탐색 하는데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동이 고 수준 건강 그룹에 속하려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양육태도나 학대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긍정적 양육 태도의 부재를 통해 아동의 심리적 긴장 상태를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3) 잠재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비행 행동 예측

표 5. 잠재 계층에 따른 결과 변수(distal outcome)

	1 고수준 건강 그룹	2 중간 수준 건강 그룹	3 보통 그룹	4 중간 수준 긴장 그룹	5 고수준 긴장 그룹	Chi-square
비행행동	0.549 ₍₄₎	0.978 ₍₄₎	0.749 ₍₄₎	2.657 _(1,2,3)	1.826	9.993*

* $p < .05$. 비행행동 값 우측에 표현된 아래첨자는 해당 숫자의 잠재 계층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표현.

비행 행동은 연속형 변수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잠재 계층에 따라서 비행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Mplus 8.0의 DCON 명령어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카이스퀘어 모델의 결과를 보면 9.993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기 때문에 잠재 계층 별로 비행 행동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뜻한다. 즉, 적어도 한 그룹의 비행 행동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집단에 따라서 비행행동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해보면, 고수준 건강 그룹, 중간수준 건강그룹, 보통 그룹은 모두 1 미만의 비행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세집단의 비행행동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즉, 긴장이 존재하지 않는 세 그룹에서는 적은 수준의 비행행동이 예상되었다.

중간 수준 긴장 그룹의 경우는 가장 높은 비행행동(2.657)이 예상된다. 그리고 이 집단은 1,2,3번 집단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존재하기에 해당 그룹들 보다 비행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중간 수준 긴장 그룹은 가장 높은 비행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은 총 205명으로 전체 데이터 중 10.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집단에게는 각 학생들이 취하고 있는 비행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파악하고 우선은 비행 행동을 줄일 수 있도록 예방 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고 수준 긴장 그룹은 총 51명으로 전체 아동청소년 중 1.51%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행 행동 예상치가 1.826으로 긴장이 없는 세 그룹 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 수준 긴장집단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비행행동이 높다고 할 근거가 없다. 이는 애초에 설정했던 가설처럼 긴장이 높아지는 것과 비행행동은 단순한 선형적 관계가 아닐 수 있다. 너무 많은 긴장은 오히려 비행행동을 억제시키는 비선형관계이거나 또는 다른 요인들과의 영향도 고려해야함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은 공격성을 외부로 표출하는 비행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내면으로 돌리는 내현화 행동(전주람 & 김순옥, 2012; Seah & Ang, 2008; Xu & Zhang, 2008)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오히려 우울증 환자는 공격성을 자신에게 돌린다는 점(성경주, 김재철, 2016)에서 이 집단은 내현적 공격 행동수치가 높을 수도 있다. 해당 학생들이 외부적 비행이 높지는 않더라도, 현재 상당히 높은 긴장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기에 즉각적인 개입을 통해 심리적 긴장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V. 논 의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서문제인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자아존중감에 대한 중3 청소년들의 응답패턴을 분석하여 총 5개의 잠재 계층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총 2060명의 아동 청소년들이 갖는 다양한 응답들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통해 다섯 개의 잠재 계층으로 나눌 수 있었다. 단 하나의 구조를 가정하는 변수중심접근법과 다르게 사람중심접근법에서는 개인의 차를 강조하기 때문에 다섯 그룹의 차이와 비슷한 점을 통해 초점화된 개입 등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다섯 잠재 계층을 예측하는 요인(predictor)으로 양육요인인 과잉간섭, 과잉기대, 비밀관성, 합리적 설명, 애정, 감독, 학대, 방임을 활용 했으며, 잠재 계층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변수(distal outcome)로는 비행 행동을 사용 하였다. 이런 모형을 통해서 양육 태도가 아동청소년들의 정서적 긴장 상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아동청소년들의 정서적 긴장 상태에 따라서 비행행동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타난 다섯 개의 집단에 대해서, 부정적 속성이 가장 낮고 긍정적 속성이 가장 높았던 그룹을 ‘고수준 건강그룹’, 부정적 속성이 두 번째로 낮고 긍정적 속성이 두 번째로 높았던 그룹을 ‘중간수준 건강그룹’, 중간간의 부정적 속성 응답과 중간간의 긍정적 속성 응답을 보인 그룹을 ‘보통 그룹’, 그리고 네 번째로 높은 부정적 속성과 네 번째로 낮은 긍정적 속성을 보고한 ‘중간수준 긴장그룹’,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부정적 속성 응답과 가장 낮은 긍정적 속성 응답을 보인 그룹을 ‘고수준 긴장그룹’이라고 명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행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대체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양육 방식과 긍정적 양육방식 그리고 학대는 아동청소년들의 잠재 계층의 긴장 수준을 예측하는데 부분적인 성공을 보였다. 부정적 양육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아동의 심리적 건강의 수준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비행이 가장 높은 집단인 중간 수준 긴장그룹은 긍정적 양육의 부재를 통해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 수준 긴장 그룹이 가장 높은 비행행동을 보인다는 점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이 자녀들의 비행 행동 억제 및 완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집단에 대해서는 아동이 갖고 있는 긴장의 정확한 원인 탐색과 아동의 비행 행동을 차단하는 적극적 개입 그리고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 증진을 위한 접근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또한, 부정적 양육이 적으면 보통그룹보다는 고수준 건강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긍정적 양육 방식이 존재하거나 부재함에 따라서 고수준 건강 그룹에 속하거나 중간 수준 긴장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학대가 없으면 두 개의 건강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런 세 개의 변수들 모두 고수준 건강그룹을 설명하는 데는 실패했는데, 고수준 긴장은 양육적인 태도 외에 다른 변수들과 관련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고수준 긴장 집단이 가장 큰 심리적 긴장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집단이 가진 심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잠재계층의 프로파일을 보면, 높은 정서문제는 부정적인 양육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낮은 정서문제는 긍정적인 양육방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2를 대상으로 우울 집단이 비우울 집단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한다는 연구결과(이정숙, 1997)와 일치되며, 같은 데이터를 활용한 이은경과 한세영(2016)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부모의 애정과 감독을 높게 지각한 경우에 공격성, 신체증상, 위축,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비밀관성을 높게 지각한 경우에 공격성, 신체증상,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비행 행동이 낮은 집단에서 더 적은 정서 문제와 부정적 양육 경험을 보고 하였다. 이는 부의 우울과 부부관계가 부정적, 긍정적 양육방식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자녀의 외현화 행동 영향을 주며(장진영 외, 2011), 청소년들이 긴장요인으로 발생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른다고 주장한 일반긴장이론과 일치하며, 긍정적인 양육방식과 그로 인한 정서적 건강이 비행으로부터 보호요인으로 작동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의 바탕이 되는 일반긴장이론을 완전히 지지하지는 못한다. 긴장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비행행동 간에는 선형관계이기 보다는 어떤 비선형의 관계이거나 다른 변수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긴장 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비행행동에는 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가장 높은 심리적 긴장을 보고한 집단의 외현적 비행 행동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긴장과 비행 행동의 관계를 보다 복합적으로 탐색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고 수준 긴장 집단은 갖고 있는 심리적 긴장을 외현적인 비행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현적 행동으로 해소하는 우울 등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장 해소를 위한 행동의 차원, 정도 그리고 방향성에 관해서 보다 복합적인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비록 이 결과가 일반긴장이론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두 집단을 탐색하는 것은 성공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자료는 중3 시점의 자료로서, 부모의 양육 뿐 만 아니라 또래 관계, 교사 관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영향과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마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의 요인을 부모의 양육뿐만 아니라 또래와 교사 관계 등으로 확장하여 동시에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사람 중심 접근법은 종전의 분석법이 바라보지 못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상호 작용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수를 늘려나가는 확장은 적극 장려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여러 비행을 전부 단순 합산하여 단 하나의 양적 비행 변수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비행들 역시나 각각은 전부 질적으로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잠재 계층에 따라서 비행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 행동이라는 외현적 행동뿐만 아니라 내현적 행동도 같이 고려해야하며 외현적 행동인 비행 행동도 그 강도와 정도를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향후 연구를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과 같이 급격한 발달 과정에 있는 대상은 특히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연구에 사용한 방법론의 특성상 인과적인 추론을 가정하긴 하지만 실제의 인과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보완하여 잠재변수 혼합 모델링(LVMM)의 일종인 LTA(Latent Transition Analysis)를 활용하여 종단 연구를 수행하면 인과관계의 양상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탐색변인을 확장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성향은 양육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지만, 청소년기는 특히 충동성이 높고,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집단이다. 또한,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상관을 보이기 때문에(고미숙, 2017), 본 연구의 양육에 대한 초기 탐색을 바탕으로 학교관계, 또래관계에도 확장하여 변수들 간에 어떤 다른 패턴을 보이는지, 어느 요인이 비행에 큰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잠재 계층별로 어떤 특별한 관계를 보이는지 조사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긴장을 외현

적으로 표현하는 비행 행동에 대한 연구에 더하여 자신 내부로 향하는 내현적 행동 두 가지로 나누어 추가 연구를 진행한다면 긴장과 공격성 그리고 비행행동이 갖는 관계를 보다 자세하게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여러 한계와 보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임상적인 가치가 있다. 첫째, 하나의 모집단을 가정하는 변수중심적인 접근이 아닌 개인차를 강조하는 사람중심 접근을 통해 개인차를 탐색했다는 점이다. 변수들의 전형적인 관계를 탐색하는 기존의 변수중심 접근에서는 변수들의 전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기에 개인차를 탐지해낼 수 없었고, 개개인들에게 초점화된 개입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사람중심 접근법을 통해 심리적 긴장 상태의 독특한 개인차를 탐색 할 수 있었다. 비록, 부정적인 양육을 받아도 긍정적인 정서패턴을 보이는 집단이나 긍정적인 양육을 받지만 비행이 아주 높고 부정적인 정서패턴을 보이는 집단과 같은 아주 독특한 형태의 프로파일을 보이는 집단은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선형성과 정규성을 가정하는 방법론에 가려진 개인차를 더욱 자세히 탐색해내고, 연구 결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Bauer & Curran, 2004). 둘째, 청소년들을 단지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으로 결과만 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의 원인이 되는 ‘긴장’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들을 다섯 계층으로 분류하여, 각 계층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탐색한 계층을 통해서 아동청소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개인차를 고려한 객관적인 판단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초점화된 예방 및 치료 개입을 마련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기대한다. 셋째, 청소년 비행 행동을 설명하는 비교적 최근 이론이며 종합적이라고 평가받지만 아직 국내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일반긴장이론을 기존의 변수중심 접근이 아닌 사람중심 접근으로 검증하여 긴장과 비행 행동의 관계를 국내 데이터에 적용한 점이다. 그리고 이 접근을 통해 양육방식과 정서문제의 관련성을 한 번 더 지지할 수 있었다. 일반 긴장 이론이 서구에서 만들어진 이론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 상황에서 아동들이 느끼는 긴장 요인들을 차례로 탐색해 나가며 한국형 일반 긴장 이론을 만들어 낸다면, 한국의 아동청소년들의 비행 행동을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단순히 변수들의 관계를 확장해나가며 만들어낸 연구가 아닌 실증적 이론과 사람중심 접근법을 적용한 연구는, 종전의 연구들이 말해주지 못한 심리학의 대명제인 개인차를 밝혀내어 객관적 진단 근거 마련과 효율적 개입 전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미숙. (2017). 청소년의 정서문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인지발달장애학회지**, 8(1), 89-104.
- 기광도. (2011). 가정학대경험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분석. **한국경찰연구**, 10(4), 93-114.
- 김영미. (2016).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과 심리적 적응 및 비행문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 470-481.
- 김은주. (2015). 초등학교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인터넷 게임중독이 자아존중감과 비행에 미치는 직, 간접효

- 과. **초등교육연구**, 28(3), 95-122.
- 김재엽, 송아영, 박경나. (2008).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청소년 지위비행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7, 295-318.
- 김재엽, 이동은, 정윤경. (2013).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 비행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41, 101-123.
- 김준호, 안호용, 김선애, 김선엽. (2002). 가족의 구조·기능과 청소년비행. **한국청소년연구**, 13(1), 225-267.
- 박병선, 배성우. (2016). 메타경로분석을 이용한 청소년 비행의 일반긴장이론 검증. **보건사회연구**, 36(3), 270-302.
- 박현선, 이상균. (2008). 청소년기 비행친구의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및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7, 399-427.
- 서인균, 이연실. (2016). 청소년기 학대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34, 45-68.
- 송아영, 박경나, 정세정. (2009). 청소년지위비행에 대한 일반긴장이론의 부분적 검증: Ping 의 2 단계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1), 309-337.
- 신선인. (2008).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아동·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23, 153-182.
- 우채영, 정현희. (2013). 청소년이 지각하는 인간관계 스트레스와 우울, 비행 간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0(6), 147-168.
- 이근복, 정우석. (2007).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 스트레스의 다층분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I)**, 217-230.
- 이명신. (2002). 괴롭힘 가해자의 환경적 요인, 괴롭힘 행동유형, 가해자의 심리 행동적 결과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1, 29-61.
- 이석영, 이택호, 한윤선. (2015). 청소년의 폭력비행 피해가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 우울,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50, 1-27.
- 이성식. (2003). 청소년폭력비행에 있어 일반긴장이론의 검증: 상황론적 논의를 통해. **형사정책**, 15, 85-105.
- 이은경, 한세영. (2016). 부모의 애정과 감독 및 비일관적 양육행동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3(3), 153-172.
- 이정숙. (199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우울성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진영, 김진희, 김영희. (2011). 아버지의 우울과 부부관계 및 자녀양육방식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2(2), 79-107.
- 정소희. (2007). 사회경제적 지위, 부부갈등, 부모양육행동, 자아통제력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사회복지연구**, 32, 5-34.
- 진혜민, 배성우. (2012). 청소년비행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2), 193-221.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초4 패널 6차년도 User's Guide**.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성현, 이강훈. (2013).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사회학습, 사회유대, 일반긴장이론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24(3), 127-145.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7.

- Akers, R. L. (1998). *Social learning and social structure: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deviance*.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Bauer, D. J., & Curran, P. J. (2004). The integration of continuous and discrete latent variable models: potential problems and promising opportunities. *Psychological Methods*, 9(1), 3 - 29.
- Bergman, L. R., & Magnusson, D. (1997). A person-oriented approach in 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logy*, 9(2), 291 - 319.
- Bergman, L. R., & Trost, K. (2006). The Person-Oriented Versus the Variable-Oriented Approach: Are They Complementary, Opposites, or Exploring Different Worlds? *Merrill-Palmer Quarterly*, 52, 601 - 632.
- Bergman, L. R., & Wangby, M. (2014). The person-oriented approach: A short theoretical and practical guide. *Eesti Haridusteaduste Ajakiri*, 2(1), 29 - 49.
- Berlin, K. S., Williams, N. A., & Parra, G. R. (2014).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Part 1): Overview and cross-sectional latent class and latent profile analyse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9(2), 174-187.
- Collins, L., & Lanza, S. (2010).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1st ed). New York: Wiley.
- Gabriel, A. S., Daniels, M. a, Diefendorff, J. M., & Greguras, G. J. (2015). Emotional labor actors: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emotional labor strateg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00(3), 863 - 879.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Transaction Publishers 2002 edition ed.).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ffman, J., A. Miller. (1998). A Latent Variable Analysis of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4, 83-111.
- Laursen, B., & Hoff, E. (2006).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pproaches to Longitudinal Data. *Merrill-Palmer Quarterly*, 52(3), 377 - 389.
- Linzer, D. A., & Lewis, J. B. (2011). polCA: An R Package for Polytomous Variable Latent Class Analysis.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42(10), 1 - 29.
- Magnusson, D. (1990). Personality development from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In L. A. Pervin (Ed.),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 193-222). New York: Guilford Press.
- Mazerolle, P., A. Piquero. (1997). Violent Responses to Strain: An Examination of Conditioning Influences. *Violence and Victims*, 12(4), 323-343.
- Mazerolle, P., J. Maahs. (2000). General Strain and Delinquency: An Alternative Examination of Conditioning Influences. *Justice Quarterly*, 17(4), 753-778.
- Miettunen, J., Nordström, T., Kaakinen, M., & Ahmed, A. O. (2016).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in psychiatric research: A review and application. *Psychological Medicine*, 43, 457 - 467.
- Muthén, L.K. and Muthén, B.O. (1998-2012). *Mplus User's Guide*(7th ed).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Muthén, B.,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 - 91.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535 - 569.
- Owens, T. J. (1994).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Reciprocal effects of positive self-worth and self-deprecation on adolescent problem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3), 391-407.
- Schmiege, S. J., Meek, P., Bryan, A. D., Petersen, H., & B. (2012).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Nurshing Research*, **61**(3), 204 - 212.
- Yungtai Lo, N. R. M. and D. B. R.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Trust Testing*, **88**(3), 767 - 778.

학술대회 자료집 17-S37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인쇄일 2017년 9월 10일

발행일 2017년 9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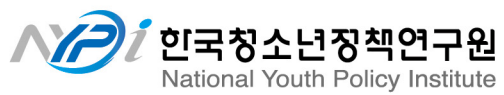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원장 직무대행 이종원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휘문인쇄 전화 1661-7576 대표 김점순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6/7층
Tel. 044-415-2244